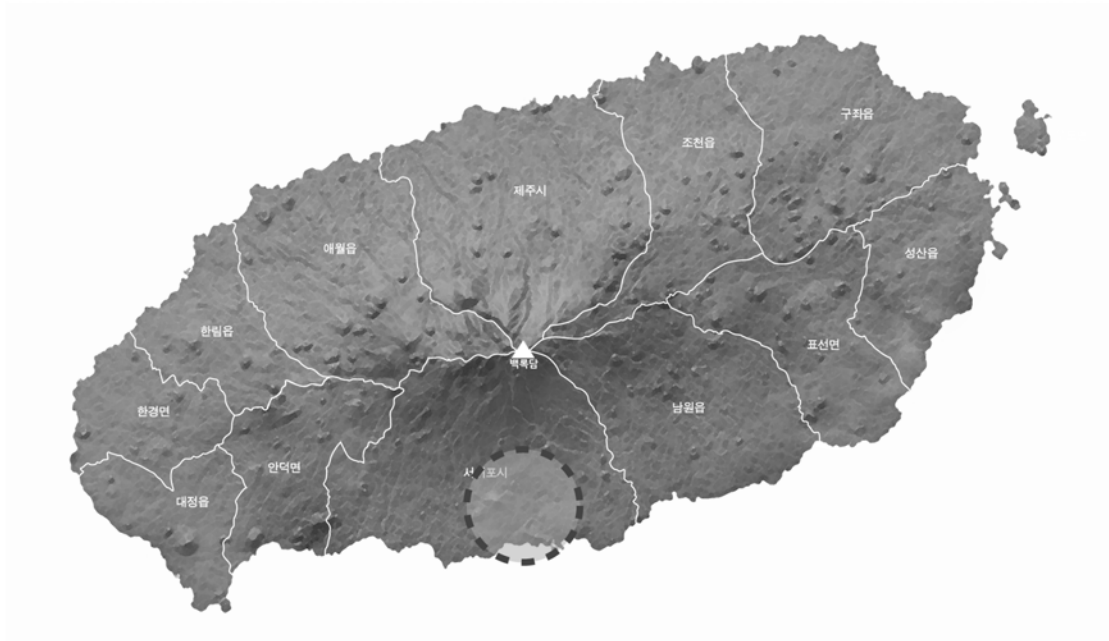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60-01

2016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31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보향
조사지점: 서귀포시토평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2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은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2016년 12월 30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31

목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10

제2장 서귀포시 토평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1
2.2. 조사 기간	11
2.3. 조사 항목과 내용	11
2.4. 전사	13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2. 제보자 일생	26
3. 밭일	51	4. 들일	105
5. 바다일	129	6. 의생활	144
7. 식생활	163	8. 주생활	223
9. 신앙	253	10. 세시풍속	258
11. 놀이	272	12. 통화의례	283

제2절 어휘

1. 인체	350	2. 육아	356
3. 친족	363	4. 의복	367
5. 음식	372	6. 가옥	381
7. 생업	386	8. 수와 단위	398
9. 민속	401	10. 신앙	404
11. 자연	404	12. 동물	412
13. 식물	422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3차년도-2016>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귀일중학교 교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읍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3차년도(2016)	
조사 지점	조사자
25. 제주시 노형동	안민희
26. 조천읍 신촌리	안민희
27. 우도면	김승연
28. 성산읍 온평리	김순자
29. 표선면 세화리	최연미
30. 남원읍 태흥리	김미진
31. 서귀포시 토평리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김순자
33. 대정읍 인성리	김미진
34. 한경면 신창리	김보향
35. 한림읍 옹포리	신우봉
36. 애월읍 구엄리	김성용
37.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	강영봉 · 김순자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서귀포시 토평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조풍자(여, 1936년생)
 김수절(여, 1933년생)
 양성아(여, 1933년생)
 한영숙(여, 1936년생)

2.2. 조사 기간: 2016. 3. 2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조풍자	00:26:33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조풍자	00:53:39	○
3. 밭일	구술 3. 밭일 1	조풍자	00:38:22	○
	구술 3. 밭일 2	조풍자	00:46:49	○
	구술 3. 밭일 3	조풍자	00:34:24	○
4. 들일	구술 4. 들일	조풍자	00:51:32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양성아	00:37:08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1	김수절	00:36:46	○
	구술 6. 의생활 2	김수절	00:07:50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김수절	00:33:11	○
	구술 7. 식생활 2	김수절	01:08:43	○
	구술 7. 식생활 3	김수절	00:35:27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조풍자	00:56:14	○
9. 신앙	구술 9. 신앙	조풍자	00:09:01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조풍자	00:31:12	○
11. 놀이	구술 11. 놀이	조풍자	00:24:27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김수절	02:05:18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조풍자	00:32:24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조풍자	00:19:58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1	현영숙	00:22:51	○
	어휘 1. 인체 2	현영숙	00:40:11	○
2. 육아	어휘 2. 육아 1	현영숙	00:05:29	○
	어휘 2. 육아 2	현영숙	00:16:44	○
	어휘 2. 육아 3	조풍자	00:23:20	○
3. 친족	어휘 3. 친족	김수절	00:28:29	○
4. 의복	어휘 4. 의복	김수절	00:46:37	○
	어휘 4. 의복(물레명칭)	김수절	00:02:51	○
5. 음식	어휘 . 음식	김수절	01:17:34	○
6. 가옥	어휘 6. 가옥 1	김수절	00:25:14	○
	어휘 6. 가옥 2	김수절	00:09:57	○
7. 생업	어휘 7. 생업 1	김수절	01:10:24	○
	어휘 7. 생업 2	김수절	00:08:23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김수절	00:16:26	○
9. 민속	어휘 9. 민속	김수절	00:20:13	○
10. 신앙	어휘 10. 신앙	김수절	00:05:22	○
11. 자연	어휘 11. 자연	김수절	00:42:01	○

12. 동물	어휘 12. 동물 1	조풍자	00:48:02	○
	어휘 12. 동물 2	조풍자	00:30:10	○
13. 식물	어휘 13. 식물	조풍자	01:00:08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보향, #1: 조풍자, #2: 김수철, #3: 양성아)

1. 조사 마을

101001 @ 토평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얘기 들어본 거 잇수과?

101001 #1 아이고, 이 마을에 오백가호 나난 막 아이고 이거 어디, 이젠 멧 천가호가 뻗저만은 오백 가호가 뻗 때가 나 시집 온 후제 들었어. 그 전인이 삼백 가호도 못 헛에.

101001 @ 동네가 어떻 뻗니까? 알동네, 웃동네.

101001 #1 감낭굴.

101001 @ 감낭굴.

101001 #1 허금동산.

101001 @ 허금동산.

101001 #1 귀남동산.

101001 @ 귀남동산.

101001 #1 앞동산. 경헛 마을이 멧 동으론 잇인디 그때는 헛 동에 멧 집 엇어저.

101001 @ 아.

101001 #1 허금동산엔 헛 디도 헛 열 가호.

101001 @ 예.

101001 #1 또 감낭굴이엔 헛 디도 헛 멧 가호. 이젠 비작비작 헤도.

101001 @ 예.

101001 #1 옛날엔 경 사름이 엇엇던 사름의 경. 또 육지 사름이 막 들어와가난 땅도 좁아져불고.

101001 @ 으.

101001 #1 옛날에사게 땅도 널럿주게.

101001 @ 계난 삼춘 처음 웃동네 살앗잖아예?

101001 #1 으, 웃동네. 허금동산.

101001 @ 아, 허금동산이과?

101001 #1 허금동산. 그 느영 말 곤는 어른은 감낭굴.

101001 @ 예. 그럼 허금동산에 삼춘 처음 살 때 집이 멧 개나 잇어난 거 같으과?

101001 #1 수정 세지주 그때사 헛 열 가호. 열 가호, 그때사 수정 세저낫주. 옛

날은 원 동네가 잇엇어게 혼 엇이게 동네가. 이 동네만 해도 집 엇어났저.

101001 @ 집 엇어난예.

101001 #1 어게. 집 엇어났저. 이 동네 거리엔 해도 두망두망, 두망두망. 집 경부짱도 엇고 기차 두망두망. 원 믱슬 닻지 안 해났어. 경허단 이 박정희 대통령 난 시대에 오일육 도로 싹 빠난. 아이고 그때에 살맛이 난 스몯.

101001 @ 예.

101001 #1 오일육도로 나난 일로 제주시 차도 텅기고 스몯 발전이 웬 거라. 글 후제.

101001 @ 아, 여기 길 생기고 나난.

101001 #1 으. 그 박정희 대통령이 토평을 발전시킨 거라. 싹 서귀포로, 제주시 중간 산간으로. 옛날엔 우린 알로만 텅겨시네.

101001 @ 돌양예?

101001 #1 돌양. 성내 가젠 허민 알로만 돌양 가시네. 알로만 그자. 이젠 중간질 문 빠 놓고 이 어디로 빠시, 봉개로, 봉개로 중간질.

101001 @ 알로 가젠 허민 막 한창 걸렸을 거 아니?

101001 #1 하이구, 알로 나 제주시에 가는 디.

101001 @ 소개할 때, 4·3사건 때 화북 가났덴 헛잖아예?

101001 #1 으, 그때도, 그때도 멀엇주.

101001 @ 멀엇지예.

101001 #1 아이고, 멀어. 멀어. 문 골목질이주. 어디 경 큰질이 잇어시냐게 골목질이주게. 예구 첨. 골목질 으식으식 밤인 못 텅길 정도라. 믱스왕.

101001 @ 믱스왕.

101001 #1 으. 믱스왕 못 텅길 정도로. 이 동네도이 이거 아파트 생기고 영허고 허난 이거주 이 동네도 원 사람 안 살아났저게. 문 밧이라났주. 밧이랏주 집 엇어 서. 첨 이거 이집 생긴 것도 혼 오십 년.

101001 @ 음. 삼춘네 이 집은 오씨 집안인 거예?

101001 #1 으.

101002 @ 계민 이 토평 전체로 봤을 때는 무슨 성씨가 많으과?

101002 #1 토평 오씨가 하서, 아무 때도.

101002 @ 아, 오씨가 하서?

101002 #1 아무 때도.

101002 @ 아무 때도.

101002 #1 으. 아무 때도 오씨가 핫저. 겐디 김씨, 오씨 버금은 김씨고.

101002 @ 으.

101002 #1 김씨 버금은 이 저 부씨.

101002 @ 아, 여기 부씨가 핫수과?

101002 #1 으. 어제 이디 오란 앓은 아이도 부침이 시집 왔저게.

101002 @ 아, 예.

101002 #1 그디 경허고 강씨는 얼마, 이씨, 강씨는 수정 세진다 이제도.

101002 @ 음.

101002 #1 이제도 알아져. 강씨 저 이, 이씨는. 이디 오씨, 부씨 경헨 해주. 겐 이 므슬에 완전 글후제 발전이 뵈주, 나 두린 때는 사름, 혼엇이 사름도 못 보고.

101003 @ 계민 여기 동네에서.

101003 #1 땅도 굿고.

101003 @ 땅도 굿고예. 땅 굿이난 옛날에 무슨 농사 했던 거라?

101003 #1 게 보리 농사, 조 농사 허민 그 땅 굿이민 흐썬 땅, 이 므슬 안에도 굿인 디, 좋은 디가 잇주게.

101003 @ 예.

101003 #1 경허고 저 벵디레 가도 경 굿인 디 좋은 디가 잇고. 이제 서귀포레 금덩어리가이.

101003 @ 으.

101003 #1 그레 땅이 곡석 안 뵈낫저.

101003 @ 아.

101003 #1 식영, 식은 땅.

101003 @ 식은 땅이 무슨 말?

101003 #1 식은 땅이엔 현 건 땅이 매까리 엇어근에 기자 보리, 조 갈아도 부꺼 불어.

101003 @ 아. 막 찰지지 않아 가지고?

101003 #1 으, 으. 촌혹 땅이 어디 잇느니 토평 지경 땅. 촌혹 땅이 엇인디 이 지금 이 제수장 나가 거느리지 안햐냐?

101003 @ 예.

101003 #1 이 제수장으로 혜영 흐뵈 땅 좋은 더렌 논을 혜낫저게. 쟁헨 우리 혼 오백 평 하우스 현 거 이제 논 혜난디 하우스 허는디 그딘 촌혹 땅이 나와.

101003 @ 제수장이엔 현 건 정수장 얘기하는 거, 물 모이는?

101003 #1 어, 어. 쟁헨 허단 그것도 엇어졌저만은 이 땅이 토평 막 굿영, 토평 제일 제주도 중에 굿어.

101003 @ 계난 조, 보리 농사들. 감저 농서도 허고?

101003 #1 감저 주장, 므멸.

101003 @ 콩도 허고?

101003 #1 으. 콩, 풋. 므 혼덴 허는 건 므 헛저게.

101003 @ 경허명 영 미짱냥 심기 시작헌 게 언제 썸이과?

101003 #1 아이고 그거 나 확실히 몰라. 윈 미짱냥 이 저 우жат 잇인 사름, 이녁 우жат 잇인 사름은이 일본서 미짱냥 묘종을 저 혼 부락에 멧 개씩 테와서 현디 우린 우жат 엇이난 타 와 봐도 어디 싱글 디 엇이난 뵈허고 이 밧 잇인 사름덜은 이 일본

미짱냥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거 싱근 사름덜은 미짱을 막 미릇헛저. 미릇헤연 헤여신디 이 미짱냥 싱근지도 상당히 오래서.

101003 @ 으, 계난 삼춘 멧 살에?

101003 #1 이 혼 오십 년 쉰 거 닻다 미짱냥 싱근지도.

101003 @ 오십 년 쉰 거예.

101003 #1 으, 메중으로게. 쉰쉰헌 메중, 우리 요만씩 헌 거 일년생 타단 싱건에 또 그디 또 텡구지낭이 잇주게, 텡구지 낭 모중 놉근에 그것에 쉰 부짱 갈라 싱그고 헌 지가 아메도 오십 년은 쉰저.

101003 @ 계난 미짱냥 들어왕 미짱냥 심게 쉰난 다른 농사들은 안 헌 거라?

101003 #1 딱 설러가신에.

101003 @ 다 설러 간.

101003 #1 다 설러 갓주. 경허난 밧 한 사름은 미짱냥 싱그고 농서를 지어신디 우리 거튼 사름은 막 늦게 싱것주게. 밧을 굶으난.

101003 @ 으.

101003 #1 우선은 보리 농사. 밧을 먹어야 헐 거난.

101003 @ 예.

101003 #1 갱헝 밧 흐썰 먹기 시작헤연에 쉰 우린 제일, 토평 안에서도 마지막 싱겨져실 거여.

101003 @ 계민 삼춘네는 삼춘 멧 살 때 싱그 거, 미짱냥을?

101003 #1 나, 낭 싱글 때 혼.

101003 @ 아이 누구 날 때?

101003 #1 우리 큰년 날 쉰 원 미짱냥 엇인 때고. 큰년 난 쉰 미짱냥 엇인 때고 글후제 우리 셋년 난 때도, 우리 큰 놉깁장도 미짱냥이 엇은 거 닻다. 그때 깁장도 나 믱물 두드리레 우리 큰놈 저 구덕에 낵 믱물 두드리레 가 온 짐작은 잇다. ‘

101003 @ 으.

101003 #1 나 믱물 두드리레, 놉 빌지 못허난이 얘기 난 뒷날부떠게 대구덕에 낵 쉰 강 믱물 나 두드리레 가낵저게. 놉 빌지 못헝, 들양 가젠은 안 헛저만은 놉 빌지 못허난게.

102016 @ 계난 구덕에 낵, 얘기 난지 얼마 안 쉰 가지고?

102016 #1 어, 뒷날.

102016 @ 예, 하하.

102016 #1 놉 빌지 못허난게.

102016 @ 뒷날?

102016 #1 어.

102016 @ 아이고 어떻헐 거.

102016 #1 뒷날. 나 경허난 쉰, 나 이거 늘라 곶으민 창피헌 노릇이여만은 곤지 안 허냐. 그 해에 믱물 두드리레 나고 닻말지기 보리밧, 우리 시어머니는 영 불겡

에 접아놓나게. 느네 어명이사 곁으민 흰허게 알주. 툯툯 쩍아 노민 그 닷말지기 강
앗안에 애기 구덕에 강, 애기 구덕 정 강, 애기 낭 믈물 두드리고 그 걸름밧 허고
헤가난, 그 닷새도 안 뵈주게. 경헨 강 헤나난 어걸 등겨, 어걸 등젷젠 허민 느넨
몰른다.

102016 @ 뤼과?

102016 #1 느네 어무닌 안다.

102016 @ 어걸등?

102016 #1 으. 어무니 나 텡기단 보난 어걸 등긴 말이 무시것과? 강알로 어걸
등져낫젠 험디다. 허연. 어걸 이 손 주떡만인 험다게.

102016 @ 예.

102016 #1 경헨 등기난이 아이고 이젠 그 밧 막아난 일어산 걸어오지 못 허난
그뻤 철 구르마 앗정 간 때난 구르마레 안아당 뵈 허난. 난 늣덜이 이젠 어걸 등긴
말을, 뵈은 자랑허렌 허주게. 어걸 막 경헨 사름덜 한다게. 경헨 뵈을 자랑허렌 허
난, 아이고 밧 검질 메단 어걸 등젷젠 허난에 이제 고무신착을, 고무신짜 그때 윈
다른 신은 엇이난 검은 고무신 그냥 반화 신영 텡길 때난 고무신착 구워근에 그걸
딱 허게 누르뜨렌 허라게. 켄헨 그거 누르뜨난 들어간에, 그것이 들어가라게. 들어
간 후젠 하이고 일 년 전이랑 무거운 것도 들르지 말고 저 허벅도 들르지 말렌 헨
나 물 질레 가민 허벅도 영 들렁 팡더레 놆 주고 경허멍 헨 나 살앗저게. 어걸 등
긴 말 허민 느네 어무닌 알 거여.

102016 @ 으.

102016 #1 켄헨 허난 흰허게 우리 나이엔 믈 안다게.

102016 @ 예.

102016 #1 우리 나이엔 애기 나민이 조리허는 사름덜은 혼 보름씩 혼 덜씩 조
릴 허는 디 난 조리 못 헤 본 사름이여. 아방 엇인 때 애기도 다섯 개 다 낫저게
나만. 우리 저 막내는 밧디 강 검질 메단 질레서 털어젷저게.

102016 @ 하하.

102016 #1 질레서 털어전에 이 우녁집이 아이영 늣 빌영 강 검질을 멧저. 미짱
냥은 요만씩 헨 때고. 요만씩 헨 때민 옛날은 보리 갈아 냥 그 트멍에 미짱냥을 싱
것주, 요만씩 헨 거난.

102016 @ 으, 으.

102016 #1 켄헨 싱그난 그거 검질 메레, 아방은 늣의 밧 갈레 가불고. 늣의 밧
갈레 가불고 헨 우리 막내는 침 거 무시거레 날 거니. 아니 이제 그거 가져지난 늣
덜이 날라 조리 못 험젠 허멍 ‘아이고 향숙이 어명은 조리 못 허난 막내 난 때랑
막 조리 허렌’ 경허젠 허단 보난 질레서 털어정 조리랑 말앙 경헨에 나 죽을 뵈. 그
때도 죽을 뵈 헤신에게. 경헨 이젠 나가 들이가 앗앙 검질 메당 이 우녁집 아인디,
들리가 앗앙 검질 메당, 이 우녁집 아인 열여덱에 시집 오랑 쉰 하나 나사 아기 낳
저게, 오누이.

102016 @ 아.

102016 #1 쉼하나, 쉼둘에 낫저 오누이.

102016 @ 아이고 어떡해.

102016 #1 아이고 짓도 애썼저게. 경험 아이도 아니 나 본 때 가이도 아무것도 분시 모른 때 아니냐?

102016 @ 예.

102016 #1 경허난 나 이제 난 앞이 막 배 아관 점심 정 갖단에 나 집이 강 오켜. 가이그라 배 아프덴 말은 못 허고, 나 집이 강 오켜 허난, 무사 가구과? 어떻험 나 집이 강 오마. 이 마당에 보린 소박 년 때야. 옛날에 보리, 보린 소박 널어던 간 댄디 이젠 아니 막 배가 아프난 막 와속와속 똥이 무료와라게. 똥아 막 배 아파가고 허난 늬이 창고 시난 창고에 영 간 사난 배가 안 아프는 거라. 창고에 산에 이젠 또 막 돌아오단 영 넷골 엠에 돌갱이뱃 잇저 영 집더레 오는 디. 브던 디여 뱃은게. 경험 오단에 막 똥 무료난게 예염더레 앓으난 애기 데가리가 나오지 안 허느냐. 애기 데가리가 나오난 이젠 그디선 난 이젠 아이구 어떻허민 좋으리 이젠 아이구 사름 살려, 사름 살려 막 헛주게. 애긴 힘은 엇이난 나오진 안 허고 걸어전이, 애기 데가리가 나오단 걸어전게. 나오단 야가기, 데가리만 나오단 걸어전.

102016 @ 아이고 어떡해.

102016 #1 아이고 사름 살려, 사름 살려 허난에 마침 저곳디 사름, 육지서 온 어른이 잇어낫저게. 경허난 그 어른도 밋디 점심험 정 가단에 날 걸린거주. 경허난 나 허리 누르며 도렌 허난 허리 꼭 누르뜨난 난 것이 슛검뎡이. 애기 피 올란. 애기가 스똥 새카망. 새카망험 게 가이 빌어다근에 배또롱줄 그치고 이젠 경헤노렌 허난 밋디서 나영 그치 검질 메던 아이가 온 거 아니냐. 오난 그 애긴 이젠 골체 가이 옛날은 벌레기 치젠 골체 밋디 아정 간다게. 벌레기 치젠 골첼 아정 가난 이제 그 골체레 애긴 놓젠 허민 그냥 놔지느냐? 웃통, 이 우녀집 아이 웃통 벗어 놓고 이젠 경험에 배또롱줄 끈언에 골체레 애기 놓고 난 이젠 걸어 앓앙, 그 내에서 이젠 걸어 앓장 집이 오난 하늘광 땅이 빈 오람직 허고 가인 이젠 집이 간, 나 이디 오랑 녹져된에 나 집이 간에 옷 글아입어 오쿠다 험 가불지 안 허느냐. 가부난 나가 막 퀘로워라게. 아이 막 마당에 비 오람직 허난 그 보릴 이젠 도루무깡더레 문 답아 들여신에.

102016 @ 하.

102016 #1 그 보리 문짝 도리무깡더레 답아 들이난 나가 곧 씨러정 죽어짐직 허난 탁 똥싸져분 거라. 똥싸전 나가 그냥, 애기 난 때 녹지 말렌 현다게. 누민 피 올랑이.

102016 @ 아.

102016 #1 녹지 말렌 허는 디게, 애기 녹져던 가이 옷 글아입영 오랑 애기 목욕 시키쿠편 헤근에 간 옷 글아입영 움 새에 나가 자빠져분 거라. 경허난 자빠지난 오란 성님, 성님 불르난 아니 바레난 시상이 콤콤 아니냐. 눈 어둑어불언. 피 올란 왁

왁헨. 아이고 나 느 못 바래켜. 아이고 나 느 바래지 못 허켜게. 아이고. 계난 나 옛날 할망신디 이 피 올르민 알러레 쓸렌 말은 들엇저게. 피 알러레 느룻 쓸렌. 경헨 이젠 가인 손맥 존 아이난 아이고 나 오랑 느룻 쓸어 보라, 어떻 허느니. 막 가죽 벗어짐직이, 여름이난 옷도 하영 안 입영 난닝구만 입은디 허난 막 이디 밀어져났저. 등뎡이로 요 앞으로 행 밀어가난 흐쓸 베롱허게 눈이 터져라게.

102016 @ 으.

102016 #1 아이구 눈 터정 물은 몸으로 찰찰허고, 뚝으로 물은 찰찰허고 헨 이젠 아무도 엇인 때 그추룩 허난 가이 오란, 막 계와짐직 허난 늦사리 앓당 허난, ‘아이구 우로 계왕은 죽넨 헤라. 난 알러레만 쓸라, 알러레만 쓸라.’ 허멍 살아나젠 허난 알러레만 쓸어 가난 눈이 베롱헤라게. 아이고 그때 가이 흐쓸만 늦게 오라시민 목숨 끊어질 뻔. 나 두 번 죽을 뻔 헤신에.

102016 @ 경혜신계.

102016 #1 두 번 죽을 뻔. 경헨 질레서 털어전 몸조리, 나 이제도록 몸조리 못헨 이거 아이냐. 아이고.

102016 @ 참참참.

102016 #1 세상에. 애기 낭 나만이 몸조리 못헨 사름 엇다. 계난 나 우리 딸은 애기 나난이 몸조리 허라, 몸조리 허라. 느 후회난다, 몸조리 허라 허멍 이디 오랑 혼 보름씩 나 들양 살멍 헛저게.

102016 @ 음.

102016 #1 아이고 나 후회난.

102016 @ 계난.

102016 #1 난이 애기 나덩, 아방이 늬의 밧을 갈레 가나 무시거 행 버슬어사 살사람이라부난 누게가 거념을 헤줄 사름 엇어라게.

102016 @ 으, 으.

102016 #1 거념헤 줄 사름 엇이난 나냥으로게 밥이라도 행 먹어사주 어떻게. 원, 원.

102016 @ 조베기 행 먹고?

102016 #1 믱물쓸 ㄱ루 곶아당 낫당, 캥 먹고.

102016 @ 캥 먹고예.

102016 #1 저베기 행 먹고. 아이구. 저베긴 헤시냐게 기자 물 삭삭 꿩웁 낭 닥 짝영 기자 휘젓영 비왕 먹엇주. 느네 아이구, 곶아도 몰른다.

101004 @ 곶아도 몰라. 하하. 이 마을에, 이 마을 주변에 오름, 무슨 오름 잇수과?

101004 #1 물오름.

101004 @ 물오름

101004 #1 저 끝오름

101004 @ 끝오름. 게니까 토평에 잇인 거예?

101004 #1 어, 어 토평으로.

101004 @ 물오름, 끝오름.

101004 #1 어, 그 이 사막 모루에 현 이 인정오름.

101004 @ 인정오름.

101004 #1 어. 토평으로는.

101004 @ 아, 세 개.

101004 #1 으. 원 난 알아지는 건 것베긴 엇다. 이 바당에 섬은 직구섬이여 무슨 섬이여 그건.

101004 @ 직구섬 또 무슨 섬?

101004 #1 문섬.

101004 @ 문섬.

101004 #1 으.

101004 @ 토평 앞에예?

101004 #1 으. 경헌디 저 끝오름엔 현 저 오름은 저 무슨 오름, 예춘, 그건 예춘망이엔 현다. 예춘망.

101004 @ 아.

101004 #1 이 토평 오름은.

101004 @ 예춘망이 뭐?

101004 #1 그 오름 일름ㄴ라 예춘망.

101004 @ 아, 아.

101004 #1 케난 이 슬오름 허고 인정오름 허고 그자 무슨 오름이주.

101004 @ 끝오름.

101004 #1 끝오름.

101004 @ 아, 슬오름도 있는 거예?

101004 #1 슬오름은 바로 이디.

101004 @ 슬오름, 끝오름, 인정오름.

101004 #1 으, 으.

101004 @ 그리고 내도 잇수과 내?

101004 #1 내 잇주게. 므쉬모른내.

101004 @ 므쉬모른내.

101004 #1 어. 므쉬모루엔 현다. 건 원 이 토평은 므쉬모른내 그거 현나.

101004 @ 예. 큰 바위 같은 것도 잇수과? 이름 있는 바위?

101004 #1 솔각지내우터, 그 바우엔 현 건 그 솔각지내우터, 솔각지내우터 헤낫저. 이 므쉬모른내 알각예.

101004 @ 예, 예.

101004 #1 솔각지어우또, 솔각지어우또 허명 우리 고사리 슬레 가고 그 솔각지어우또 넘어근에 저 고사리 꺾으레 가고 경 곶아낫저. 옛날 말.

101004 @ 예. 또 잇어 바위가?
101004 #1 그 바위는 잘 모르켜.
101004 @ 굴은 굴, 굴?
101004 #1 굴은 므쉬모루굴 하나. 므쉬모루굴 허고.
101004 @ 므쉬모루굴.
101004 #1 또 어디 굴이 멧 군데 저, 녁작지도 굴 이실 거라, 녁작지 굴 허고 굴 혼 서너 군데 잇저만은 일름은 다 모르켜.
101004 @ 예. 이 바당에는, 바당 이름도 이실 거 아니? 토평에 속헌 바당 이름?
101004 #1 검은여.
101004 @ 검은여.
101004 #1 으, 우리 그거베긴.
101004 @ 그럼 여기는 농사 짓고 바닷일은 벨로.
101004 #1 세미알, 검은여 두 군데 우린.
101004 @ 아, 세미알, 검은여.
101004 #1 으.
101004 @ 바닷일은 많이 안 헛수과, 토평 사람들?
101004 #1 어.
101004 @ 아, 바닷일은?
101004 #1 바닷일 허는 사름 즘수 잇주게.
101004 @ 예, 즘수 잇인다.
101004 #1 이제도 잇이네게.
101004 @ 예, 잇는데.
101004 #1 바닷일 해연에 그 어부덜은, 난 원 훗 층 모르난 바당에 그런 디 참 석 안 해도.
101004 @ 으, 으.
101004 #1 훼손이 잇이네게. 훼손이 잇영 툄도 헤 오고, 메역도 헤 오고, 경 헤 영덜 풀고. 이제도 험서.
101004 @ 계난 어쨌든 바닷일도 헛구나예?
101004 #1 으, 바닷일도 허는 사름덜은 이제도. 바닷일 행 부제된 사름덜 함시 네게 이제도게. 전북 해당 문 풀양 밧 사고 문.
101004 @ 예, 예.
101004 #1 우리 훗 층 모르난 그런 디 못헤영 산에만 살암주게.
101005 @ 예. 여기에 학교, 기관이 뭐 잇수과? 학교, 무슨 학교?
101005 #1 학교에 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
101005 @ 토평초등학교 있고.
101005 #1 토평초등학교 이디 잇엇단에, 원 혼 밧디.
101005 @ 음.

101005 #1 흔 밧이주 밧을 죽은디 무신. 흔 밧디 이디 잇어단 이 아래 초등학교로 가시네.

101005 @ 가고. 아, 이제 토평초등학교 없어져 불언?

101005 #1 교육청 짓어서네.

101005 @ 아, 교육청 그거 서귀포시교육청. 원래 거기가 토평초등학교랏수과?

101005 #1 어. 그거 초등학교랏저.

101005 @ 계민, 토평초등학교는 어디로 간 거?

101005 #1 아래.

101005 @ 아래 어디?

101005 #1 이 앞동산으로 알려레 간 디여게. 쥬 알동네.

101005 @ 쥬 알동네.

101005 #1 저 검은여레 가는 디, 그디 검은여레 가는 디주.

101005 @ 으.

101005 #1 그디, 그디 강 짓어주게.

101005 @ 여기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건 엇고?

101005 #1 아이고.

101005 @ 그런 건 엇고.

101005 #1 쫓글락헌 밧을에. 옛날에 잇어저.

101005 @ 으.

101005 #1 4:3사건 그리엔 경찰서 이 저 부락이 잇어났저.

101005 @ 아.

101005 #1 그땐 잇엇단 엇어전.

101005 @ 아, 그땐 잇엇단 이제 없고.

101005 #1 으, 이젠 엇어.

101005 @ 농협 이십디다예?

101005 #1 어게.

101005 @ 농협 있고.

101005 #1 군농협 있고, 단위농협도 있고.

101005 @ 새마을금고도 있고.

101005 #1 새마을금곤 이제야 짓은 거.

101005 @ 짓은 거. 우체국 있고?

101005 #1 우체국은 엇어.

101006 @ 없고예. 예, 예. 이 마을에 어떤 접덜 잇수과? 계 하는 거, 접 하는 거? 마을접.

101006 #1 밧을접 허는 거 어디 목장에, 우린 물론디 계로 창고 하나 짓엇젠 허는 거베긴 엇어.

101007 @ 엇고. 이 마을 풍습 뭐 잇수과? 토평리 풍습이?

101007 #1 토평 풍습 원 나 원 잘 몰라. 들어보지 안 허난.

101008 @ 토평 특산물은 뭐과? 지금 특산물이. 미짱?

101008 #1 원 토평서 특산물이 토평서는 미짱베끼.

101008 @ 으.

101008 #1 뭐 특산이 었다.

101008 @ 미짱베끼.

101008 #1 어, 이제 기자 한라봉 나난 그거 특산.

101008 @ 아, 예 예.

101008 #1 한라봉.

101008 @ 토평도 한라봉 많이 험니까?

101008 #1 어게. 한라봉 주장 허주게. 경허단 이제 또이 한라봉 말앙 감평이니.

101008 @ 예.

101008 #1 이제 저 천, 천혜향이니 그런 것덜 험저. 젊은 아이덜.

101008 @ 예. 다 하우스 짓엉 허는 거 아니?

101008 #1 어게, 하우스 짓엉. 경허난이 한라봉 주장이여게, 지금.

101008 @ 어, 예.

101008 #1 한라봉 주장이주 밀감 헤영이 돈 언마 못 산다 이젠. 무시거 밀감엔. 이 한라봉이 브름 혼 번 불어불민 그 돈 들어가네 따시 그 하우스 고치젠 허민 엄 청나게 들주게. 경혜 불민 돈 들어간다만은, 대풍에 안 불영 나올 때쯤은 혼 일억씩 삼주. 사는 사름은. 우린 쪼글락헌 거난 무시거 이, 삼천.

101008 @ 으.

101008 #1 원 경해도 하영 나는 사름은 일억씩, 혼 오천씩 험저게. 경허주 미짱 은이 경 어려와.

101008 @ 어려워.

101008 #1 미짱갑이나 준 때는 흐쓸 혼 오천만 원 웬 때도 잇고 일억 넘을 때 도 잇고. 이젠 미짱갑. 작년 ㄱ튼 땀이 원 미짱갑 혼 관에 천 원도 안 가고 오백 원 이여 뭐 박스 값 설당 보민 아무것도 엇어저게.

101008 @ 삼춘네는 미짱은 안 허고 한라봉 그것만 허는 거라?

101008 #1 아니, 밀감낭 밧 혼 이천 썩 흐단 거 넘은 해ㄱ장은 혼 천오백만 원 받안에, 이제 혼 이천만 원. 혼 이천오백만 원 받안 풀앗저만은 밧 넘겨벳저.

101008 @ 아, 예.

101008 #1 하르방 아프난. 이젠 설러불젠. 나도 아프고.

101009 @ 삼춘 생각허기에 여기 토평리 자랑거리가 잇수과?

101009 #1 토평 자랑거리 헐 거 엇어.

101009 @ 무사, 하하하.

101009 #1 우리 토평은이 자랑거리 헐 거 엇나 원, 원.

101009 @ 무사?

101009 #1 경허고 영 살아 보민 우리 토평 혼엇이 인심이 엇인 디여.

101009 @ 무사?

101009 #1 단체성이 엇어.

101009 @ 아, 단체성이 엇어. 으번에 그 할무니 말헌 것처럼?

101009 #1 어.

101009 @ 하하하.

101009 #1 경허난 이 커 오는 아이덜토이 이 토평 살고정 안 허덴은 곤나.

101009 @ 아.

101009 #1 단체성이 엇나, 단체성이 웨 엇이난 허면은 우리 부락에 국회의원이 나오던가 도의원이 나오던가 멘의원이 나오던가 허민 단체성이 잇이민 그걸 무꺼줄 거 아니냐. 없어. 다른 므을 운동을 땡겨. 경허영 싸웁는 거라.

101009 @ 하하.

101009 #1 그제 단체성 없는 거라. 경허난 우리 동네아이 나오라도 안 찍어 쥬어디 볼목리 사름 든 운동 땡기고 찍어 주고. 거 단체성이 신 거냐?

101009 @ 으.

101009 #1 계난 그 요자기 할망도 그거주. 이 토평리 므을 영헌 처레 도저히 몰르ㄴ렌 이제도록 살아도, 늑도록 살아도 몰르ㄴ렌.

101009 @ 으.

101009 #1 무사 몰라게 알당도 버치주. 우리 토평이 단체 없는 부락이엔은 곤나. 나만 곤진 안 허고. 단체 없어. 사름덜이 영 어디 뭐 헌 일이 나도 단체성이 엇영 이 돈 한 사름덜 돈 자세나 허고.

101009 @ 돈 자세?

101009 #1 으. 자랑.

101009 @ 아, 돈 자랑.

101009 #1 어.

101009 @ 계난 여기 토평도 막 부제덜 막 핫구나?

101009 #1 경헌디 옛날 완전 일름 난 부제가이.

101009 @ 예.

101009 #1 성안칩, 성내칩, 목커리 이제 경, 이제 알대. 그 밋 부락이여게.

101009 @ 예.

101009 #1 우리 토평 옛날 일등이.

101009 @ 예. 성안칩 허는 게 뭐, 어디?

101009 #1 성안이엔 헌 집은 그 집 일름이, 아주 토평 일등 부제주게. 성내칩이엔 헌 디도 이제 성내서 오난 성내칩이엔 허는 거고. 경헌 그 집 일름인디 모커레 경헌 완전 혼 댓 군데 일등으로 부제라난디 폭삭 망헤연 아무것도 엇다. 아무것도 엇영 이제 새 부제덜. 새 부제 이 부 선생이엔 헌 사름허고 오영찬이, 그 멧 군데베 낀 엇일 거여. 일등.

101009 @ 예.

101009 #1 밧 혼 만 평덜 잇고. 집, 서귀포 집덜 댓 군데 잇고.

101009 @ 토평리서 뭐 잘난 사름 나거나 헨 건 엇수과?

101009 #1 토평서 잘난 사름 아이고 도의원 알데기엔 헨 디서 재산이 문 망헤 벳주게. 얼굴도 잘나고 이제, 하르방은 죽어베도 아덜이 경 얼굴이 잘나고 또 여자는 육지사름인디 막 베운 사름. 스뭇 대학교 나오란, 거 무신 대학교 나오란, 스뭇 첨 잘도 으망진 사름 돈 엇덴이 그 사름 이제 도의원으로 나오라났주만은 우리 토평서 세 번을 나오라도 세 번을 안 찍어 줘시네.

101009 @ 아.

101009 #1 어디 우리 토평 부락 인심 잇인 디니게.

101009 @ 아.

101009 #1 그걸로 인심 엇인 부락이야. 이 부락 알아주지 안 헨다. 토평 것덜이엔 헤낫저. 웨방 사름덜. 토평 것덜 토평 사름 나오라도 헨나 멘들아, 내세우지 안 허영. 경해도 그 사람을 불쌍헌, 우린 스뭇 문 그 그자 모이젠 허민 이 수박 사가고 주스 사가고 그 사름을 내세우젠 우린 동네에서 헛주만은 알동네 사름덜은 지네 동네라도 불목리 사름 운동 텡기멍 불목리 사름 문 내세왕 불목리만 일름 난 사름 낫저.

101009 @ 음.

101009 #1 우리 토평 일름 난 사름 엇다 이딘. 동장 하나도 토평 사름 안 멘들아 논 디여. 난 토평 살아도 토평 허주 내우켜.

101009 @ 아이구.

101009 #1 진짜여게.

101009 @ 자랑해야 돼는디.

101009 #1 에이구. 아주 자랑헐 거 엇어.

2. 제보자 일생

102001 @ 영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쿠다.

102001 #1 영 살아온 이야기는 어땡?

102001 @ 태어난 자라온 얘기덜마씨.

102001 #1 아이고 나 잘난 거 엇다. 나.

102001 @ 잘난 거 아니고마씨. 자라 온 거, 어렸을 때부터.

102001 #1 어렸을 때부터도이.

102001 @ 어디서 태어났수과?

102001 #1 태어남은 일본서 태어나근에 으덱살에 제주도 왔저게.

102001 @ 으.

102001 #1 경헨 이제 아버지 죽어부난, 아부진 아홉살에 죽어벧저게. 아버지 죽어부난 할망, 하르방광 살앗저게. 경헨에 이제 살단에.

102001 @ 계난 일본에서 태어낭.

102001 #1 일본에서 태어난 제주도 오랑 죽엇주 우리 아버지.

102001 @ 아.

102001 #1 아프난에. 아프난 제주도 오란 죽엇저게. 계난 침 두린 때도 난 고생헨 살앗저게. 검질 메고 쉼 맥이레 가고.

102001 @ 그거 말고 일본에서 살앗던 애기부터 해 줘서.

102001 #1 일본에선 경 기억이 안 나. 나 업엉 텅겨난 거 기억나고.

102001 @ 누겔 업엉 텅겨.

102001 #1 이제 우리 어멍 나 업엉 텅기단에 지진이 잘 일질 안 허느냐?

102001 @ 예, 예.

102001 #1 지진 일엉 우리 어멍 다릴, 이 계단을 느리단에 다릴 꺼꺼전에.

102001 @ 예.

102001 #1 이제 ㄱ트민 뺑신 안 돼주게. 그때 시대엔 나 두린 때라도 알아진다. 침 맞으레 텅경게 이 다리가 영 부떠불언게.

102001 @ 아.

102001 #1 오고라전. 절룩쟁이가 돼났저게.

102001 @ 예.

102001 #1 경헨 살안, 나 제주도 오라도 막 고생헤영 살앗저게.

102001 @ 계난.

102001 #1 검질 메레 다녀세, 밧 메레.

102001 @ 일본에서 형제가 몇 명이란마씨?

102001 #1 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이제 문, 문 죽어벧저. 작은아버지, 큰하르부지 아덜.

102001 @ 그니까 삼촌네 형제가 일본에서 몇 명 태어났수과? 이제 아버지 어무니 사이에?

102001 #1 저 우리 어무니 친정에?

102001 @ 아니.

102001 #1 우리 아버지?

102001 @ 어, 어.

102001 #1 아버지 성제, 성제.

102001 @ 아니. 아버지는 성제이고.

102001 #1 으.

102001 @ 경헨 삼촌이 몇 번째과?

102001 #1 큰, 큰하르부지, 나의 하르부지, 큰, 우이 하르부지 아덜 경헨 일본에서 살단 일본에서 돌아갓저. 우리만 아버지 아프난 제주도 왓주.

102001 @ 계난 삼촌이 형제가 몇이우과?

102001 #1 나?

102001 @ 예, 예.

102001 #1 나 형젠 우리 아시 허고 아시 허난 저 죽어불고 저 우리 어무니가 난, 나 형제 요 상호 살았저.

102001 @ 예. 들뿐. 계민 일본에서 태어난 건 삼촌만 일본에서 태어났수과?

102001 #1 어, 우리 아신 제주도 완 나고.

102001 @ 아, 제주도 완 나고?

102001 #1 으. 경헨 난 기자 오랑 하르방이영 살멍 쉼 맥이레 뎅기고 출 비레 뎅기고. 두린 때부터 베와산덴 허멍 옛날 하르방덜은 경 헤라게. 학교도 안 시켜근 에 학교도 가시른 나 스몓. 쉼 맥이레 가렌 허른 쉼 맥이레 가곡. 경헤근에 검질 메 곡 두린 때부터 기자 검질은, 베와산덴 허멍 일은 베와산덴 허멍 생일만 배우게시 리 헤라게. 옛날엔 원 무식헌 하르방인ㄹ라이 경 헤라게.

102001 @ 음.

102001 #1 난 경 공부시키젠을 안 헤라. 공부시키젠을 안 행 기자 검질 메레, 나 열세 살, 열네 살에 한창 검질 멧주.

102001 @ 음.

102001 #1 원 그때 한창 검질 멧저게.

102001 @ 할망이영?

102001 #1 으, 하르방이영. 할망이영 하르방이영 경 검질 메레 뎅겼저게. 경허난 첨 나 살아온 건 고생고생허단 또 아무것도 잇인 디 나가, 골암저, 두린 때 고생헤 나민 경헤도 늑어가민 호강헨덴 헤도 경헤도 호강을 못 허여.

102001 @ 음.

102001 #1 고생고생헤영 살아왔저. 계난 기자 옛날은 조 비여 오고 보리 비여 오곡 허민 그것 툃곡 호미로.

102001 @ 음.

102001 #1 그뎨 클 아니 난 때난 두린 때, 나 두린 뎨. 경헤여근에 기자 하르방 덴 밧디 가멍 이제 날ㄹ라 ‘조 툃으라, 보리 툃으라.’ 경헤나시네. 경헨 툃앙 맥에 담양 놔두민 그거 오랑 괄랑 도께로 마당질 허고. 나 막 고생헨 살았저.

102002 @ 계난 일본에 잇을 때 어무니, 아버지는 무슨 일 헛수과?

102002 #1 원 공장에 뎅겼주. 옛날은 고무 공장이라고 고무 공장에 뎅긴 거 가 트다. 나 생각에.

102001 @ 계난 오사카과 동경이과? 살았던 게?

102001 #1 오사카 답아.

102001 @ 오사카 답아. 계난 그런 기억은 확실허지 안허과?

102001 #1 기억 확실허지 안 허다.

102001 @ 일본에서 살아난 기억은 확실허지 앓쿠나.

102001 #1 으, 일본에서 살아난 기억은 기자 나 그 지진 일영 우리 어멍 기자
침 맞으레 텅기는 기억베끼 원.

102001 @ 그거밖에?

102001 #1 으.

102001 @ 뭐, 일본에서도 학콘 안 다니고?

102001 #1 학콘. 게난 우리 어멍은 일본 글을 배왕 일본서.

102001 @ 뭐 동네에서 영 친구덜이영 놀아난 기억은?

102001 #1 놀아난 기억은 기자 옛날은 공기나 허고 기자 베뿔락 허고 기자 그
런 거 흐쓸 헤여진 거 다텐다. 놀 때에.

102001 @ 일본에서예?

102001 #1 어, 어. 겨난게 제주돈 오라가난 일 배와산덴 허멍게 으뎅설에 오난
아홉설, 열 설 뉘난 일 배와산덴 헨 일을 배왓저게.

102001 @ 게난 그 돌아오신 게 여덜 살이렌 허면.

102001 #1 으.

102001 @ 해방 돼기 전이우다예?

102001 #1 해방 똥 전이주게. 나 제주도 오란 스삼사건이 난 거주게.

102001 @ 그 사삼사건은 한참 후인 거고, 배 탕 왓수과? 무슨 배 탕 와신지 기
역나?

102001 #1 아니, 그거 몰라.

102001 @ 몰라. 게민 돌아올 때 아부지랑, 어무니랑 같이 온 거?

102001 #1 으, 으. 경헨 삼춘은 또 일본 간에 일본 살단, 침 요자기꺼장 살단 죽
엇저.

102001 @ 세 식구가 ㄴ치 온 거?

102001 #1 으. 경헨 우리 아시는 이디 오란 낱고.

102001 @ 아시는.

102001 #1 으, 겨난 나허고 거리가 멀어.

102001 @ 나이가예?

102001 #1 으.

102001 @ 어무니도 고무 공장 다녔었던 거, 일본에서?

102001 #1 어, 일본서 고무 공장 텅겼저게.

102003 @ 게민 아버지는 고향이 어디과?

102003 #1 고향이 이 제주도.

102003 @ 게, 제주도 어디?

102003 #1 제주도 저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제주도, 본래 고향은, 이 웨가는 토평
이고 나가이.

102003 @ 친정이?

102003 #1 으, 우리 어무니가 토평이고 우리 아버지는 함덕 다텐다 함덕.

102003 @ 계남 여기서 아버지 돌아가시난, 와가지고 토평으로 왕 아버지 돌아가시난 계민.

102003 #1 으, 으. 경허난 우리 웨할아버지, 웨할머니가 이 셋동네 살았저. 이 토평서 나고 토평서. 경허난 우리 어무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부난 친정을 더 생각해연 의지행 살젠 친정을 더 탕긴겨여게. 시에서 경 안 허민 살았주 그디서. 경혈 건디 우리 웨할머니가 토평이난 토평.

102003 @ 으.

102003 #1 경허난에 친정으로 헤네. 경헨 살단 나 이디 시집 와신에.

102003 @ 어무니는?

102003 #1 어무닌 돌아가불고.

102003 @ 돌아가불고. 몇 살 때 돌아가불엇수과?

102003 #1 어, 우리 어무니가 이제 칠십아홉에 돌아간 거 답다.

102003 @ 아. 그럼 한참 클 때까지 어무닌 ㄹ치 살아신게.

102003 #1 어게. 나 풀아주고게 어무니사 나 키와주고 헛주게.

102003 @ 음.

102003 #1 경허고 아부진 나 으덥 살에 죽어불고. 완, 완 죽엇저게. 아판 일본서 아프난 들어완. 제주도 공기 좋은 디엔 제주도 올 거라.

102003 @ 음.

102003 #1 경허난 제주도. 경 안헤시민 제주도 안 올 거.

102003 @ 일본 살단 제주도 들어왔잖아예?

102003 #1 으.

102003 @ 경헨 들어오난 제주도 잘도 뭐허다 느낀 거 생각나는 거 잇수과?

102003 #1 아이고, 제주도 아멩 나가 분시 모른 때라도 원 제주도 사름 살암직 안 헤라게. 원 살암직을 안 헤여. 경허고 저 아버지 고향이 북촌인디.

102003 @ 아, 북촌.

102003 #1 으. 북촌 이제 함덕.

102003 @ 옆이 함덕.

102003 #1 으, 함덕 옆이 북촌인디 원 그디보단도 이디 오난 더, 이 토평을 오난 더 웨할머니 잇이난 어머니가 이디 와신디 더, 더. 더 스몯 살암직 안 헤라게. 밧도 이, 이 제주도 안에서도 이 토평 땅이 막 뜬 땅이라. 영 이제 알아보민이 서이 호근이로 저렌 나룩도 허민 잘 돼고 보리도 갈민 막 보리밥도 맛있고. 이 토평은 막 뜬 땅. 완전 굿인 디라. 이 밀감낭 나고이 오일육도로, 박정희 대통령 오일육 도로 짠 브름에 이 토평이 이름 낫저게.

102003 @ 음.

102003 #1 오일육 도로 저거 빠난에 이름도 나고 첨 이 미깡낭을 나난 이젠 첨 토평보단 존 디가 엇어 베도 옛날엔 이디 보리, 조 갈민 막 북부리 질렁, 보리 비레 가민 보리가 문 메여저. 땅에 떠 부난.

102003 @ 음.

102003 #1 그런 건 나 원 두런 때부터도 알아진다. 그처럼 밭이 굿어. 밭 좋지 안했저게. 이 하효린 좋고 불목리렌. 이 토평 땅만 영 굿인 디 제일 굿인 디. 무사 영 사름 사는 디렌 그때 영 헛저게. 하이고 알리렌 스못게 보리도 좋곡 나륙도 뉘 곡 허는 디 이 토평은 논도 배랑 엇영 나 제수장 거느려라만은 그 제수장 논 행 흐 쓸 잇인 사름들은 나륙헤여도.

102003 @ 저기 아버지는 일본서 난 사름이우과?

102003 #1 엇다. 제주도서 낭 간 거주.

102003 @ 어무니도?

102003 #1 으, 으 경헨 일본 간 거주. 일본에 살젠 갓단에 우리 아버지가 아팡 온 거주.

102003 @ 아.

102003 #1 아판에, 아판에 제주도 오민 공기 준 디 제주도 오민 행 온 것이 오 랑 오래 못 살았저. 오랑 기자 일년 안 살았저.

102003 @ 일년 안 살안에.

102003 #1 죽엇저게. 겨난 침 아버지도 엇고 오빤 엇이난에, 난 우린 오빤 엇이 난 침 양제 들고.

102003 @ 아, 양제 들고.

102003 #1 으, 양제 들고.

102005 @ 그때 들어왔을 땐 일제 시대였던 거라예. 일본 군인들.

102005 #1 으, 으. 일제시대주.

102005 @ 그때 막 공출허거나 그런 것덜?

102005 #1 아이고 공출에 스못 뉘, 공출들 두루 헛주게. 공출덜 스못 뉘 보리도 허민 공출, 스못 그때덜은이 노무자엔 안 허느냐 노무자 뽑아 강덜 노미자덜 남자 덜은 경덜 노무자 뽑아가고 아방 신 사름덜은 노미자로 뽑아 가고. 보리 공출, 조 공출은 막 헤낫저게. 공출은 나 확실히 알아진다. 그 당시에는 그치록 헤라게. 공출 을 헤산텐 허멍. 뉘 헛주 그때. 겨난 바껴사 그걸 경 바껴사 헌텐 허멍 경헨 헤낫저 게. 게난 우린 본래 친정엔 흐쓸 밥 먹엇저만은 이딘 오난 나 스물 하나 나는 해에 시집 왔주.

102005 @ 음.

102005 #1 스물하나 나는 해에 시집오난이 그때도 어려와라. 그때도 어려와. 헨 펜 엇이 어려와라게.

102006 @ 그 여기 왕 한 몇 년 잇이난 열두 살, 열세 살 뉘난 제주도에 사삼사 건 일어났잖아예.

102006 #1 어게, 나 꼭 열세 살일 거여.

102006 @ 그때 기억이 잇수과? 뉘가 봐난?

102006 #1 우리 곱으레 텅겨난 거.

102006 @ 어디 곱으레 땡견?

102006 #1 스뭇 빨갱이덜 아이고 빨갱이덜 오민이 아이구 토벌대덜, 토벌대엔 현다 그땡. 토벌대덜 넬은 올라올 거엔 허멍 이제 비끼렌, 어디 강 숨으렌 허민 어디 목장에 강 숨엇당 굴이 잇엇저게 이 굴이.

102006 @ 예.

102006 #1 굴 소곱에 갓당 아이고 그 시대엔이 그 시대엔이 굴 소곱에 잘 못 갓당 도에 불 부져불민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오죽 하신냐게.

102006 @ 음.

102006 #1 하이고 나도이 사름덜 이제 짝 이제 토벌대덜 오랑 빨갱이덜 심어당, 빨갱이가 뭇 우리 일반 아니냐게. 그것ㄴ라 빨갱이. 산에만 살아나민 빨갱이이라.

102006 @ 음.

102006 #1 아이고 그 사름덜 심어당 이 선문이여게, 선문. 아이구 줄줄이 세와 뉘 총으로 쏘양 그 사름덜 탁탁탁탁 자빠지는 거 뭇 보고이.

102006 @ 그것도 보고?

102006 #1 어. 나 뭇 봤저게.

102006 @ 예.

102006 #1 뭇 자빠지는 거 보고 집집마다 또 빨갱이네집 조사헌덴 혜신에 빨갱이네집. 산에 강 살아난 집 뭇 조사헌덴. 우리 산에도 안 가고 우리 아버지가 화북이기 때문에 우리 흐쓸 화북에 느려갓어.

102006 @ 화북? 북촌 아니고?

102006 #1 이 저 신촌, 화북 있지 아녀냐? 영 즈꼳디.

102006 @ 예, 예.

102006 #1 그덜 느려 강, 해변더레 이제 경 느려 강 그디 강 살양 흐쓸 곱아당 돌아오고 혜신디이.

102006 @ 저 제주시 즈꼳디 얘기 험수과?

102006 #1 어, 제주시 저꼳디 화북게.

102006 @ 예.

102006 #1 알러레 알러레 가민. 산엔 가근에 흐쓸만 허민 빨갱이이라. 산더레 가가민 빨갱이. 그자 빨갱이엔 헛주게. 경허민 빨갱이 새끼덜, 빨갱이 새끼덜 허멍이 아이고 나 죽장으로 이디 밖양 죽이는 것도 보고이. 돌 지들르는 것도 뭇 보고.

102006 @ 음.

102006 #1 이 영 빨갱이덜이엔 허멍 심어당, 뒷목다리 심어당 어디 이 대왓 의지라도 영 탁 낱 발로 뵘양 돌 지들르는 거 뭇 보고. 벨 거 다 봤저, 나.

102006 @ 친족분들 중에서도 누게 피해 입은 사람 잇수과?

102006 #1 우리 친척은 시집펜이베끼 우리 친척은 베랑 엇다.

102006 @ 엇고.

102006 #1 우리 친척은 베랑 엇인디 우리 시집펜인, 아방펜인 경 빨갱이엔 무시

거엔 하영 죽었저게. 스삼사건에.

102006 @ 스삼사건에. 예.

102006 #1 스삼사건에.

102006 @ 계난 토평에도 피해가 막 많았수과?

102006 #1 하이고 이 동네커리에, 이 동네만.

102006 @ 예.

102006 #1 동네만 아덜덜 문 산에 올라가지 안헤신냐 므수난이 문 올라가라. 할 망덜, 하르방덜 문 아들 찾으레 간. 문작 심어당 죽어베시네. 문작 심어당 이 학교, 학교 마당에 강.

102006 @ 어쨌든 산에만 가민 빨갱이렌 헛구나?

102006 #1 어. 우이만 가민 빨갱이. 원 산에만 가민. 빨갱이 아니라 우리 민간인 이여만은 빨갱이, 빨갱이 헤라게 그뎨게. 산에만 가민 빨갱이라. 빨갱이 새끼, 빨갱이 새끼. 경허멍 그추룩 헤 노난이 므스왕. 경허난 ㄱ만이 행 아무 췌도 엇이 집이 만 앓은 사람은 오랑 총으로 죽이젠 허당동 그냥도 넘어갈 때 있고.

102006 @ 음.

102006 #1 우리도 멧 번 총 뎡여났저. 멧 번 총 뎡겨난 우리 어멍이영 나영. 난 스못 울멍 막 울어가민 스못 소리내우민 죽이켄 허멍 총 아져오랑이 소리 내우민, 소리만 내우민 쏘우켄 허멍 그추룩 아이구. 토벌대도 그뎨 쟁비대여 토벌대여 경허멍 경도 글아라. 이제 총 두 개 멘 사름은 단작 봐지민 쏘우메 그 사름은 피허렌 헤라게. 그 사름은 피허렌 허민. 총 하나 멘 사름은 괜찮히고 총 두 개 멘 사름은 허민 단작 민간덜 문 쏘아분덴. 아이고 나 죽여부는 사름 하영 봤저. 그자 예산 팡팡이라. 하이고.

102006 @ 음.

102006 #1 그 넘어간 스건 생각허민이 그거 나 기억난다게. 열세 설이라도.

102006 @ 여기는 막 성 싸러 다니고는 안 헛수과?

102006 #1 성 싸 닳저게. 나 지키레도 가와서 두려도.

102006 @ 나가라 행?

102006 #1 어, 어. 성 다왕 이 토평 므슬이민 성을 막 쌓근에 밤이.

102006 @ 예.

102006 #1 돌아가멍 밤이 문 지켜신에.

102006 @ 아이들도.

102006 #1 어게 아이덜토.

102006 @ 음.

102006 #1 돌아가멍. 돌아가멍덜 문 지켰주게. 경 첩 그 성 문 지키고 잤 다왕 뒤 오죽 스못 이 토평은 날리 나나신에. 어딘 어떻 허느니만은 토평은 날리 나났저. 하영 죽음도 허고.

102006 @ 곱으레 굴 속에 가고 했었던 거는 누게가 오니까 곱으레 가는 거?

102006 #1 토벌대, 토벌대.

102006 @ 토벌대 오니까.

102006 #1 토벌대 오민 쏘아분덴. 으, 토벌대 오민 불 짓고 쏘아불고. 하영 죽었저. 애기덜 문 죽어불고, 어명이영 애기영 잣당 있당 어명은 토벌대 저디 왓저 허민 어명은 그 애기 내불어덩 뛰어서네게. 애기만 죽은 디도 핫저게.

102006 @ 에이구.

102006 #1 에이구 그 애기만 내불어덩이 애기만 죽은 디도 하서. 그 생각허민 그뻐 침 살지 못헐 거 닳아라만은 경해도 이녀 친척 아니난이 늪이난 기자 울큰혜 여도 허고 늪덜이난 무시거 헛주. 아이고 이 토평 어인간 헛저. 어인간 혜낫저.

102006 @ 아. 많이 돌아가셨구나.

102006 #1 으. 어인간 혜낫저. 난 이 토평을 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느 이제 들으레 가는 어른은 시집 오라부난 그런 건 안 봐실 거여. 신호 어른이난, 신호 어른이난 그런 건 안 봐실 거여만은 아이고 난이 죽어부는 사름 형편엇이 하영 봤저. 하이고 밋밋 돌아당 줄줄린이 세왕 기자 팡팡, 자락자락.

102006 @ 먹을 것도 막 뺏아 가불고마씨?

102006 #1 먹을 거 뺏으나 마나 뭐 여유가 엇게 기자 돌아냥 텅기는 것덜 잡아당 기자 세왕 원원. 그추룩헤라게 원원. 아무 죄 없는 사름덜 죽어서.

102006 @ 계난 집이 있는 쓸이나 뭐나.

102006 #1 것도 문 아저가불고.

102006 @ 아저가불고.

102006 #1 문 아저가불고. 문딱 아저 가분다게. 스뭇 그걸 그 밥 행 먹으멍 살렌 허느냐게.

102006 @ 음.

102006 #1 우리ㄴ라 계나제나 느려가렌만 혜나시네.

102006 @ 해안으로?

102006 #1 어. 해안으로 느려가렌 현다. 여기 시민 다 죽인덴, 빨갱이 새끼로 다 죽인덴.

102006 @ 아니 토평 이 지대도 높은 디과?

102006 #1 어게. 이거 높은 디주게. 이 토평이 완전 높은 디. 높은 고지 아니냐 이거.

102006 @ 아. 높은 고지.

102006 #1 어. 제일 높은 고지라 이 토평이. 서귀포 보단도.

102006 @ 음.

102006 #1 경허난 여기 바당, 검은여 바당이여 무신 바당이여 이디 침 바당은 브담은 현다. 경해도 토평이 바당은 브더. 경해도 이 토평이 산춘으로 알주게. 이 불목린 개춘이고 이딘 산춘이고.

102006 @ 토평은 바당 잇어도 산춘이엔 헛수과?

102006 #1 으. 산촌이고 불목리가 개촌이고 이 신하효린 개촌. 이딘 산촌. 산촌 이엔 헤낫저, 토평.

102006 @ 아. 기구나.

102005 #1 으, 아 옛날에 어질영 광광. 아이고 요 영 펜아허게 살아지카부덴 아무도 생각 한 허영 일본 군인덜 담아들어 낫저게. 일본 군인덜 문 담아 들영 문 스 못. 아이고 일본 군인덜 담아 들영. 그 일본 군인덜도 나 두려도 알아진다. 검빵, 옛날에 검빵이.

102005 @ 으.

102005 #1 그거 준다게 경허민 우리 지꺼정 스못 쫓아뎡기멍 거 먹어난 기억 잇나게. 그거 스못 경허민 그 일본 군인덜 막 담아들어도 죽임 버릇은 안 헛저. 일본선.

102005 @ 으.

102005 #1 이, 우리 제주도 빼앗젠은 해도.

102005 @ 음.

102006 #1 제주도 막 빼앗젠은 헤낫주, 일본 그때게 침. 경헛주만은 경 일본 군인덜은 오랑 경 사람 경 막 죽여불진 안해서. 이디 토벌대가 므스왔주.

102006 @ 음.

102006 #1 아이구, 침 므스왔저. 에구에구, 중창, 느 중창 알아지크냐?

102006 @ 죽창.

102006 #1 죽창.

102006 @ 으, 대나무로 만든 거예?

102006 #1 어, 경헛 칼 꽃앙.

102006 @ 예.

102006 #1 걸로 각각 찢러 죽이고, 걸로 각각 찍영 죽이고. 에이고, 예고. 나 그거 하영 봤주. 침, 원 사름 죽임이 프리 흐나 죽이는 거주게. 흐쌀만 또 그집이 강 조사허영 만약에 그 식구덜이 자민 아빠가 산에 가부나 오빠가 산에 가부나 곱앙 므스와근에 비껴불민 그 가족은 문 죽여베신에.

102006 @ 음.

102006 #1 가족덜은 기자 죽어벤. 그 무신 죄덜이니게. 아무 죄도 엇이 경 씨 델죽헤라게. 아이구, 그추록 행 죽영. 경허난 흐루에 죽인 디가 이 동네만 해도 열 멧 빛이난 흐루 처낙에 제서덜 쪽 허게 제서 헛다게. 그 스삼사건에 문 죽여부난 제서 시월이라 시월.

102006 @ 시월덜에.

102006 #1 으, 시월, 시월 열나흘날일 거여.

102006 @ 음.

102006 #1 기자 쪽허게덜 헛다게.

102006 @ 음.

102006 #1 아이구 아무죄도 엇이.

102006 @ 계난예.

102006 #1 춤말로 아무죄도 엇이 죽여벷주. 난 그추룩 허는 거 보민 것도 뭇 잘 못이 잇이나 무시거 허주, 겁냥 곱으레 땡기는 사름을 죽이니 원 그런 승시도 잇느냐게 원원. 이상헌 스타라낫저게. 그 스삼사건이 원. 원 계나제나 곱양 듣는 건 그 자 쏘우난에게 빨갱이엔 허명 아이구. 산에만 가민 빨갱이 아니냐게, 아이구. 우리 토평이 빨갱이 더 하낫저.

102006 @ 아.

102006 #1 계나제나 산에만 가민 빨갱이. 빨갱이 새끼 기자.

102006 @ 공부허는 사름덜이 많어나신게.

102006 #1 공부허는 사름덜토.

102006 @ 경허난 학교 다니는 사름덜 다 산에 올라가분 거 아니?

102006 #1 으게, 경도 허고 첨 이 토평은이 불목리레 이 개춘더레보단 이상계 산춘이난산디 더 토벌대가 사름을 경 이 산에 올라근예. 심영덜 줄 잇영이, 줄 잇영 그 무시걸로 문 기자 연결연결 무끄멍 이경 오는 것이 기자 혼 사름이 아이구 수정 몰르게 이경 느려와라 토벌대들이. 그거 문 죽이젠. 제주시에 강 많이 죽여시네.

102006 @ 음.

102006 #1 이제 제주시에 땡 만 명이니게. 제주도 사름이 아이구. 우리 토평도 막 하고 호근리도 핫주만은이 첨 우리 토평 사름도 이제 제주시에 첨 그 스삼사건에 강 보민 아이구 일름덜 문 새겨진 거 보민 어이엇냐게, 어이엇나.

102001 @ 삼춘 그 전이 여덱살에 제주도 올 때 일본에서는 제주도말 안 써낫수 계예?

102001 #1 어게. 제줏말 안 썸에 나 일본말.

102001 @ 집이서 어무니랑 얘기 헐 때도 제줏말 안 썸난?

102001 #1 응, 그디선 일본말은 베와신디 제줏돈 오난 일본말 헤가난 막 우리 하르방도 욱 허곡이 저 이제 제주도 오면은 제줏말을 베와야 헌덴허멍 헤가는 것이 잇어베라게원.

102001 @ 아, 일본어를, 일본말을 그냥 잇어불고?

102001 #1 으게. 그거 무사. 아이고 경허난 무식허게 나도 공부나 허고 땡겨시면은 그 일본말 아니 잇어분다게.

102001 @ 으.

102001 #1 그걸 베와시면은. 경헌디 우리 어머니는 일본 살아나난 죽도록 또 일본말을 안 잇어불언게. 그자 문 일본글도 잘 알고. 공부를 경 머리가 좋아낫저만은 난 이제 문딱 잇어떡영 으덱설에 헤난거. 늣덜은.

102001 @ 으, 잇어불어.

102001 #1 문딱 잇어불언.

102001 @ 으.

102001 #1 그자 쉼만 ㄹ꾸고 밧디 강 검질만 메당 보난.

102001 @ 계난 여기 제주 왕 이디말 모르난 막 눈이 왁왁해서큰게.

102001 #1 챗번사 경헛주게.

102001 @ 경 얼마나 지나난 영 알아집데가?

102001 #1 기자 그럭저럭 그자 아인 때난 총기가 종난에 제춧말 베움도 수윳주게. 제춧말이 쉼 어렵넨 허는 말은 들으멍도.

102001 @ 으.

102001 #1 들으멍도 제주도 말을 경 베와져라 제기. 원 챗번은 기자 일본말만 헛저게.

102001 @ 계난 일본말만 헤부난 와가지고 친구덜안티 막 놀림 받고는 안 헤낫 수과?

102001 #1 놀림은 뭐 나가 공부를 헤시면은 흑생덜아피 놀림 받음사 헤나신디 모르지만은 공부를 안 허기 때문에 그자 경 놀림 받아본 기억은 안나.

102001 @ 놀림 받아난 기억은 엇어예?

102001 #1 친굴 문젠 헛주.

102001 @ 아.

102001 #1 친굴 삼젠 헛주.

102001 @ 아, 친굴 삼젠 헛주.

102001 #1 으. 막 친구덜 삼젠만 날 좇아오라. 막 친구 삼젠덜만 헛저게.

102001 @ 아.

102001 #1 친구 삼젠만. 경허민 우리 어무닌 친구 삼으렌 막 뭐 주곡. 허허.

102001 @ 음.

102001 #1 경헤낫주. 겨난 베운 것이 엇어노난.

102007 @ 예. 결혼은 어떻 중매 결혼헛수과?

102007 #1 퉁 탕 오랑.

102007 @ 아니 저.

102007 #1 중매헤연.

102007 @ 중매헤연, 누게가 중매헤연?

102007 #1 어, 중매는 어디 동네 사름이 헤실 거라?

102007 @ 아, 혼동네과 계난?

102007 #1 아니여, 저 허금동산이라고 웃동네여. 이제 지레 큰 어른 잇이네이?

102007 @ 예.

102007 #1 그 어른이 저 웃동네 살암저게.

102007 @ 예.

102007 @ 여기는 셋동네라?

102007 #1 알동네.

102007 @ 여긴 알동네.

102007 #1 으, 이견 알동네로 왔주. 허금동산 웃동네 살단 알동네로 온 거.
 102007 @ 음.
 102007 #1 뭉 탄 오랏저. 가메 타고, 뭉 타고.
 102007 @ 가메 타고. 뭉 타고예?
 102007 #1 으, 가메로 왔주.
 102008 @ 게난 중매 결혼헤가지고 결혼헌 건디 결혼헐 때 사주는 반마씨? 스
 주, 스주. 생년월일 뇌근에 아 이 사람네.
 102008 #1 아, 사주는 보는 첸 헛주. 옛날이니까.
 102008 @ 예. 옛날이난예.
 102008 #1 으, 옛날이난 사준 봤주. 경허난 저 이제 사주 보레 가민 무신 헤치,
 무신 헤치 그런 거 쁘찬허다 허민.
 102008 @ 경허민 결혼허는 거고예?
 102008 #1 으, 결혼허고. 이제 상각이엔 허민 안 허고 경헤낫주. 옛날은 중매허
 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대로 연애해 불민 그런 거, 저런 거 엿주만은 옛날은 다 중
 맬허는 따문 이녁대로 시집 간 사름 베랑 엿일 거여.
 102008 @ 게난 얼굴 보난 마음엔 듭디가?
 102008 #1 얼굴을 보난에 윈, 경 시집 와사 얼굴 알앗주. 혼 동네 혼 믱슬에 살
 아도.
 102008 @ 아, 하하하.
 102008 #1 혼 믱슬에 살아도.
 102008 @ 예.
 102008 #1 아이구 경 얼굴 경 봐나지 안 현 보난에 윈 아무것도 오란 보난 엿
 고 허난이 안 살젠 허난 그 사름을 혼엇이 봐진 거 닻지 안 허여. 나가 혼 엿이.
 102008 @ 아.
 102008 #1 친절허게 봐진 거 닻지 안 허여. 췧날 처낙도, 췧날 처낙도 뭉엔 글
 아도 나가 마음에 엿이난 대답도 안 헤진 거 닻고.
 102008 @ 경허난 시집 오기 싫어나난?
 102008 #1 시집 오기 싫진 안 헐 보낸 건디 오란 윈 신랑을 보난 윈 어땡헐 윈.
 102008 @마음에 안 들엇구나.
 102008 #1 믱음에 엿어뵈라게. 경허민 우리 어무니는 혼 부락에 사난 소문을 들
 엿주게. 소문을 드난 이제 경 술도 안 먹고 어진 사름이난 술 먹영 부랑헌 사름보
 다는 낫지 안 허넌. 마음이 편안허면은 살기가 이제.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은
 돈 잇어도 메닥질 허고 씹는 디 보단 좋지 안 허느냐, 좋지 안 허느냐 허멍 우리
 어땡 살게만 헤라게.
 102008 @ 음.
 102008 #1 경헐 첸 나 살아진 거주. 안 살젠 나 막 돌아땡겼저. 늬의 알게. 문문
 알앗저 우리 벳덜.

102008 @ 늪이 알게. 친정에도 가 불고.

102008 #1 으, 친정에 가근에 누워시민 들레도 가고 들레 가민 가라 가라 막 발 질로 차민 나 오랏단 친구신디 돌아나고.

102008 @ 음.

102008 #1 막 소문나낫저게. 막 허당 버치난 초기 산에도 올라가나고.

102008 @ 어디 산에?

102008 #1 초기 산에.

102008 @ 초기 산도 여기 잇수과?

102008 #1 저 산에 잇주게. 활락산에, 돈 벌레.

102008 @ 돈 벌레?

102008 #1 초기 강 타민.

102008 @ 아.

102008 #1 초기 밧 헤낫저게. 스몫 초기 밧덜 하영 허주게. 경허민 돈 벌레.

102008 @ 아, 거기 강 먹고 자고 허멍.

102008 #1 으, 산에 강 먹고 자고. 초기 탕 국 끌러 먹고. 쓸 아정 강, 쓸 정 강 밥 행 먹고. 나 초기 산에도 하영 살앗저게.

102008 @ 아.

102008 #1 시집 온 후제도.

102008 @ 시집 온 후제도.

102008 #1 경헨 강 살앗주.

102008 @ 안 살젠 거기로 도망갓구나.

102008 #1 으. 나 침 안살젠 동네 사름이 문 알다시피. 이젠 날ㄱ라 그런 남편 들임이 어럽넨들 다 곤나. 돌아냥 뎡겓주만은. 째지 안 허난.

102008 @ 째지 안 허난.

102008 #1 침 싸워보진 안 헛저게.

102008 @ 음.

102008 #1 싸워보지 안 헤영, 부부가 살젠 허민 아이덜이영 안 싸울 순 엇주게. 싸울 순 잇어도 일절 애기 다섯 개 나근에 키와도이 그 애기 콩으로도 안 테운다 하르방은. 난 웨초리 봉강 아이덜 따리젠이라도 복통나민 헤도 원. 따리민 말 들넨 허멍 말 들을 건 때리지 안 헤도 말 들넨 허멍.

102008 @ 맞수다.

102008 #1 것도 맞아 보이는 말이라. 것도이.

102008 @ 예.

102008 #1 아이덜이 착허민. 뭐 때렸다고 말 듣는 건 아니주게.

102008 @ 예.

102008 #1 경해도 나 베설 곳이면은 아이덜 저 아이덜 따립서 따립서 허민 느 따리라 난 안 따리켜 허멍 곶양 그 숨을 턴다, 동네 사름. 이제도.

102008 @ 하하.

102008 #1 하르방ㄹ라 자네 딱립서 딱립서 헤가민 느 딱리라 난 안 딱리켜. 요 만이도 안 건드리는 거라. 아이덜을 그렇게 일절 욱을 못해 아이덜신디.

102008 @ 예.

102008 #1 경허난 원원 침 싸워보질 안 헛저게.

102008 @ 예.

102008 #1 요 침 콩으로 혼 번 안 테왓젠 허주 난. 츠분헌 사름이난.

102009 @ 음. 결혼헛 땀 뭘 혼수나 뭘 가정 왓수과?

102009 #1 옛날은이 경 혼수여 뭘 시집이여 봉투여 헛, 서로 돈이 엇나게.

102009 @ 음.

102009 #1 이불 두 채.

102009 @ 이불 두 채.

102009 #1 뭘 단지 행 오는 것이.

102009 @ 음.

102009 #1 단지 행 오는 것이 이불 두 채 행 오민 기자 시어멍은 메누리 옷을 허는 거라. 한복, 한복.

102009 @ 음.

102009 #1 나 시집 올 땀 멍지가 주장이주 그때는 멍지가 주장인디 멍지 치메 저고리 우리 어멍 헤여 줏주. 경혜영 헤 주고, 그때엔. 이제만인, 이제민 봉견일 거여. 그땀 그것ㄹ라 무신 인주엔 헤낫저만은 그 인조가.

102009 @ 천 이름?

102009 #1 으, 천 이름. 그거 잊어 먹었저.

102009 @ 유동? 아니?

102009 #1 유동도 좋아낫저게. 유동도 유동보단 흐쫄 존 거라. 유동 치메도 아무나 못 입어낫저게. 옛날도 유동이엔 허민 아무나 못 입어낫저. 경헌디 이제 허는 사름은 이땅 메누리 해주곡. 경 안 허민 기자 멍지 치메 유동 치메 원 보통으로 그 거 행 입곡. 서로 답례품이 어디 잇느니? 주고 받는 게 엇주.

102009 @ 으. 계난 결혼 예물 같은 것도 엇고예?

102009 #1 아니 일절, 일절.

102009 @ 일절 엇고예?

102009 #1 으, 우리 시대엔이 툄 탕 멍길 때난이.

102010 @ 계난예. 사진 칙는 것도 엇고?

102010 #1 사진은 잇어.

102010 @ 아, 잇어마씨.

102010 #1 사진은 우리가이 저 동네커리 살단 이덜 오라신디.

102010 @ 으.

102010 #1 불 난에 그 사진 카벳저게. 족두리 쓰고 옛날 장옷 입영.

102010 @ 아.

102010 #1 족두리 쓰고. 사진 잊어서민 보이컬.

102010 @ 아이고.

102010 #1 족두리 쓰고 그 신랑도 이제 한복, 장옷.

102010 @ 예, 장옷.

102010 #1 옛날 장옷 입고 건대 쓰곡.

102010 @ 건대 쓰고.

102010 #1 으, 경헨 뭇 탕 오곡 나도 떼게로 떼게로 행 하인덜 옛날게. 쌍놈덜, 쌍놈덜. 거 새각시 모성 땡기는 사름ㄴ라 쌍놈이엔 헛저게. 게난 우리, 너이가 가메 에 앓으민 들렁. 경혜영 시집 왔저 나.

102010 @ 음.

102010 #1 나 시대에도 거 옛날이주.

102010 @ 옛날인게, 가메 탕 와서민.

102010 #1 옛날이주게. 게난 그 사진은 무사 안 찍느니. 사진 찍엇주만은 참 오 쫓 술아불엇저게. 경헨 허난 옛날이사 첨 이제 거치 그추룩 어디 ㄴ치 두 가시가 땡기곡, 두 가시가 여행 땡기곡 그런 거, 이젠 이젠 잔치에 가민 어디 여행갈티, 무 시거엔 헤도 그때 시대에는 두 가시가 영 나가 그때 기억해보민이 두 가시가 걸지도 안 헤낫저. 친정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비끄러와근에 혼자만 땡겨주.

102010 @ 아. 결혼헤도?

102010 #1 으, 결혼헤도 남편허고 ㄴ치 경 땡김 버릇을 안 헛저, 절대 안 헛저. 건 어디 강 들어보라.

102010 @ 비끄러왕?

102010 #1 으, 비끄러왕. 여자만 시집이 갈 때에도 첨 여저만 가고 들레 음 버릇도 안 허고.

102010 @ 아이고.

102010 102010 #1 또 그 시집이서 살당 친정에 갈 때도 이녁만 가고 경, 경헨 원. 이 웨방서도 경허여 웨방서도. 그추룩 헤낫주. 두 가시가 꼭 의 좋게 경 땡겨보지 안 헛저. 우리 시대에. 것도 아주 옛날이주 첨.

102010 @ 예.

102010 #1 경헨 땡겨주.

102010 @ 게난 뭇 타고 가메 타고 행 왔잖아예?

102010 #1 으.

102010 @ 그때 잔치는 어떻 헤낫수과?

102010 #1 잔치는 돛 잡앙 그자 옛날거치 도새기 잡앙 헤라게.

102010 @ 며칠을 헛수과?

102010 #1 이틀.

102010 @ 이틀. 전날은?

102010 #1 전날은 기자 도새기 잡앙 가문잔치라고.
102010 @ 음.
102010 #1 가문잔치하고 뒷날은 새각시 돌아당 잔치하고. 경허민 옛날은이 므멸
같아. 므멸떡, 이제 만두 잇잖아 만두 영 쥼은 거.
102010 @ 예, 예.
102010 #1 그런 거 흔 사람이, 가문잔치날은 잔치 먹으레 가민 두 개씩 줬저게.
게민 그거 그거 원 고기 흔 반하고. 가문잔치 그 베설, 아시날은 도새기 베설 헤영.
102010 @ 계난 밥 먹고 그런 반으로 준 거 아니?
102010 #1 가문잔치날 이땅 영 가민 밥도이 보리쌀 섞은 밥.
102010 @ 보리쌀 섞은 밥.
102010 #1 으. 곤쌀 하나씩 섞영.
102010 @ 예.
102010 #1 경허근에 밥도 영헨 주고.
102010 @ 풋은 안 섞어?
102010 #1 풋도 서끈다게. 풋 서끄고. 만뒤 두 개 영헨 줌지롱헤게 쥼앙 만뒤
두 개씩 허민 그건 첨 받았덜 가고.
102010 @ 아.
102010 #1 또 새각시 잔치날은 흰밥을 허잖아?
102010 @ 예.
102010 #1 아이구 이레 흔 숟가락씩, 숟가락으로 허나씩.
102010 @ 달렌?
102010 #1 떡젠.
102010 @ 아이들?
102010 #1 아이덜 아니 어른도.
102010 @ 어른도?
102010 #1 어. 아이구 나도 시집 강 후제 영헨 손 내와덩 이레도 흔 숟가락 도
렌 헤낫저.
102010 @ 아.
102010 #1 얻어 떡젠게. 곤밥이 어디 잇느니게.
102010 @ 그니까.
102010 #1 나 시집 간 당시에사 어디 곤밥이 잇느니게. 잔치날이나 곤밥 먹주.
식게날이나 허고.
102010 @ 예, 예.
102010 #1 경허민 그 잔치집이 가민 새각시 밥 달라, 새각시 밥 달라 헤낫저게.
옛날에. 게민 새각시밥 갈람젠 허명 얻어먹으레덜 스뭇.
102010 @ 계난.
102010 #1 높은 사람은, 흐쌀 어른은이 그 게지에 흔 숟가락 톡 낱. 게지로 주

곡.

102010 @ 계지가 뭐파?

102010 #1 저 이제 스텐 사발 뚜껑이나.

102010 @ 가짓쟁이?

102010 #1 으, 계짓쟁이, 계짓쟁이.

102010 @ 으.

102010 #1 그것에 헝 숟가락 혼 숟가락 툭 낱 주곡.

102010 @ 아.

102010 #1 경 안 현 사름은 기자, 도렌 현 사름은 숟가락으로 요레 툭툭. 혼 숟가락은 무시거게. 거 밥 혼 사발이 경 하느냐게.

102010 @ 계란 신랑 뭉이랑 신부 뭉만 곤밥을 헛수과?

102010 #1 어게, 어게.

102010 @ 옆에 있는 사람덜은 다 보리밥?

102010 #1 보리쌀 서경. 곤밥이 어디 시니게. 우리 시집 갈 땐 엇엇저게. 에이 구, 어디 곤밥. 곤밥이 어디 셔나신이. 잔치집이 곤밥 얻어 먹으레덜.

102010 @ 맞수다. 그 잔치집이 전날 가문잔치 헝 때 음식은 뭐 뭐 헝니까?

102010 #1 음식 기자 몰망 헤다근에 이젠 먹엇저만은 그때 시대엔 몰망도 엇어 서. 느물.

102010 @ 느물.

102010 #1 춤느물. 단지느물, 단지느물. 단지느물 해당 막 홀터당 낱 그 돛 잡앙 돛 국물에 그 가문잔치날 그자 그거 국 헝, 보리밥 헝 주곡 기자 경헝 먹주게. 뒷날 은 새각시 오민, 오는 잔치, 오는 잔치가 무시거카부텐. 오는 잔치 오는 잔치 곤밥 허난 오는 잔치.

102010 @ 새각시 오난이 아니고?

102010 #1 새각시 들어오민 거 곤밥헝 먹을 거나.

102010 @ 계민 전날은 가문잔치렌 허고.

102010 #1 뒷날은 새각시 오는 잔치, 오는 잔치 경 곱앗저 뒷날은. 새각시 오는 날이난.

102010 @ 예.

102010 #1 그걸 구별헝 곤나. 가문잔치날은 이제 윈 가문잔치날이나 아무 때나 일반으로 잇저만은 옛날은 가문잔치. 아이고 넬은 오는 잔치난에 경 곱앗저.

102010 @ 아.

102010 #1 경 곱앗주게. 아이고.

102011 @ 경 결혼헤 가지고 신흔 살림은 어디서 차렷수과? 처음에.

102011 #1 시어멍이영 살주 어디 사느니? 경 집 잇영 따로 살아보지 안 헛저. 겨고 옛날에는.

102011 @ 예.

102011 #1 아땡 부제침이도 아덜 내눔 버릇 안 헛저.

102011 @ 예, ㄴ치예.

102011 #1 일절 ㄴ치. 시어머니네 모성 살았주.

102011 @ 예.

102011 #1 안팏거리. 안팏거리 잇인딘 밧거레 살고. 안팏거레 엇인 딴 이런 큰 구들, 작은구들 허잖아.

102011 @ 예.

102011 #1 경허민 이런 구들에 살았저.

102011 @ 큰구들은 시어머니 살고.

102011 #1 어.

102011 @ 족은 구들엔.

102011 #1 어, 어 경헨 살았저게.

102011 @ 계난 삼춘넌 어떻 살았수과?

102011 #1 우리도 기자 막구들에. 안팏거리 엇이난 막구들에 살단 침 이레 온 겨주.

102011 @ 이레 온 거예.

102011 #1 으. 옛날엔이 경 딱로 삶 버릇 안 헛저. 시집 가민. 이젠 기자 아덜 살 집 멘들아 낱덜 허고 또 아덜덜이 집이 안 살양 난 잔치 세 번 헛주만은 문 육 지덜 휘사에 들어간 때난 기자 잔치만 념기민 올라가고 헛저게.

102011 @ 예.

102011 #1 경헨 헛주만은 옛날에는 잔칠헿 혼디덜만 살았저게. 멧 년이라도.

102011 @ 계난예.

102011 #1 멧 년이라도 시어머니 혼디 모성 살았주게. 딱로 삶 버릇 안 헛저 침. 이제나덜. 경허고 우리 제주돈 육지식 닭지 안혜영 시어머니 이제 모성 살진 안 헛저. 딱라 기자.

102011 @ 으.

102011 #1 다 판 방에 살곡 시어머니냥으로 이제 딱로 헤 먹고 경헨 살았주. 육 지식은 침 나 이제 메뉴리 헨에 육지 올라간 보난 육진 게나제나 침 육깃할망덜은 메뉴리 의지혜근에 기자 할망 하르방이 딱 메뉴리 의지헿 살아도 우리 제주도식은 다 딱로 살아.

102011 @ 예. 여기 큰방, 족은방 잇어도 밥 딱로 헿 먹어?

102011 #1 으. 우리 친정어무니도 우리 친정어무니도 나 시집 와 불고 이제 문 폴아부난 메뉴리 혜신디이.

102011 @ 예.

102011 #1 곤로 낱 당신냥으로 헿 먹어. 방에 곤로 낱.

102011 @ 아.

102011 #1 경허주 메뉴리 밥 얻어 먹음 버릇. 움직거림 새엔 우리 제주도식은.

우리 제주도식은 경혜여.

102011 @ 경해도 부엌은 ㄴ치 쓸 거 아니?

102011 #1 아니. 난로 있잖아, 난로.

102011 @ 예.

102011 #1 난로 뉼근에 이 혼자 기자 헤 먹고 경헨 헛주. 경 ㅌ로 어디 경 안팍 거리 잇인 디는 안팍거리 살앗저게.

102011 @ 예, 예.

102011 #1 경 안팍거리 엇인딘 이런 디 기자 살앗주게. 어디 경 ㅌ로 삶 버릇은 경. 이제야 난 것주, 아주 옛날엔 경 ㅌ로, 올레 베궛터레 아덜 폴앙 내놓지 안헛저. 부제칩도.

102012 @ 경헨 스물한 살에 결혼헿 큰아이는 몇 살에 나섯수과?

102012 #1 나 오랑 삼년 애기 안 낳저게. 살지 말젠 돌아뎡기난.

102012 @ 하.

102012 #1 나 안 살젠, 시집 안 살젠 돌아뎡기난이 나영 흐루에 시집 온 사름은 어바라 애기 난에 가이가 이제 우리 성숙이보단 세나 우이라. 가이 이제 서알동네 어멍, 아방은 죽곡 살앗저만은 난 안 살젠 막 돌아뎡겨부난 나 삼년 후제사 낳주. 삼년 후제 나난이 췌 아이가, 췌 우리 큰년이 나 스물세 설에 나진 거 닻다. 스물 혼 다섯, 다섯 나는 해에 나진 거 닻다.

102012 @ 으, 스물다섯 나는 해에.

102012 #1 으. 삼년을 아니 나난.

102012 @ 겐 두 번째는 몇 살 터울이과?

102012 #1 두 설, 원 두 설 차이여.

102012 @ 두 설 차이 다?

102012 #1 으.

102012 @ 그럼 큰딸?

102012 #1 큰딸은, 큰딸광 큰아덜은 두설츠이.

102012 @ 으.

102012 #1 또 이제 우리 셋아덜은 세 살 차이. 막내 이제 죽어분 아인 네 설 차 이 경 낳저게. 경헨 또 막넨, 또 막넨 이제 또 것도 이제 귀헤치, 이제 돌아온 돼지 헤치여. 막내가. 막내가 돌아온 귀헤치난에 가이가 이제 마흔, 마흔 몇 설인고? 나 이제 애기덜.

102012 @ 마흔여섯인게.

102012 #1 마흔여섯.

102012 @ 귀헤치마씨?

102012 #1 돼지헤치.

102012 @ 돼지헤치민 마흔여섯.

102012 #1 돼지헤치여. 경허난에 귀헤친 나가, 우리 큰딸이 귀헤치주. 우리 큰딸

이 나광 귀혜치.

102012 @ 계난 맨 위에가 딸, 맨 막내가 딸, 사이엔 아덜예?

102012 #1 으. 중간에. 거 무슨 미친 지랄 헐 거니.

102012 @ 하하.

102012 #1 아이고 우로 오누이만 나건 딱 끌어베시민 막 나도 늬 부럽지 않게 살주.

102012 @ 계도 큰딸이 살림에 보탬되지 안헤마씨?

102014 #1 큰딸은 잘 살암저. 신예리 시집가신디 큰딸도, 큰딸은 막 부제칩이 갖저게. 부제칩이 강 지 먹을만이 살암저. 것도 옛날이난이 속앙 잘못 풀아전 딸은. 법환리서 이제 중맬 오라신디 우리 성숙이도, 우리 딸깍장도 중매 막 헛저게. 연엘, 그 당신 연애 엇어저.

102014 @ 예.

102014 #1 경혜신디 법환리서 이제 서울 강 살 거엔 허명 선생, 고등학교 선생 이 이제 9월에 오라도 이제 그디도 아니 쫓당, 성산포도 9월에 선생, 그때도 선생 오랑 9월에 안 오랏당, 옛날엔 무사 부젤 경 제느니게.

102014 @ 부제?

102014 #1 부자, 부자.

102014 @ 예, 부자.

102014 #1 밧 한 거 부자.

102014 @ 예. 아, 경헨 그런 사름을 찾았구나.

102014 #1 세상에 그런 명칭도 어디 있느니?

102014 @ 하하. 좋주, 부제안티 가민.

102014 #1 얼 먹언, 얼 먹언. 너무 가이가 얼 먹언.

102014 @ 아.

102014 #1 부제칩이 가고이 시아부지가 일곱성제. 시아부지가 일곱성제.

102014 @ 하.

102014 #1 나 예단허젠 허난이 얼마나 나 돈 하영 들여시 빗 낫저 나 그때. 여 단 양말만 해도 흔 백배. 여단이. 우이 시하르방이 세 성제, 또 우리 딸 시아방이 일곱성제라노난이 얼마나 얼마나 방상이 이제 윈 윈. 아이가 너미 얼 먹언게. 막 착 험은 현다. 우리 딸 착험은 현다. 우리 딸 착혜근에 침, 생일이 이제 하우스 이천 썩 넘어 헤 농곡 이제 밧도 스뭇 밧 천 평 잇인디게 욱심이. 얼 먹언, 얼 먹언.

102014 @ 음.

102014 #1 부제칩인 가난 얼 먹언. 잘못 풀아전. 아이고 가네 동창덜 선생 각시 로 가민 고두레기 놀곡게 봉급 타명 호강시럽게 살암시네게. 거 무슨 미친 지랄이 니게. 막 딸 잘못 풀아서. 경헨 막넨 또 지냥으로 연애헿 저 서귀포 사름이영 연애 헿에 이제 인천 살암서.

102014 @ 아이고. 얼굴 잘 못 보큰게.

102014 #1 얼굴 기자 일년에 혼 번.
102014 @ 일년에 혼 번.
102014 #1 막 고와 우리 막내딸은.
102014 @ 하.
102014 #1 아방도 어명도 안 닳은 딸이여게. 잘도 고운 딸이여 진짜. 막 곱텐덜
해낫저.
102014 @ 겐 일헬수과? 아니민 애기만 키우멘?
102014 #1 아이덜만 키웁저게. 아덜이 무시거니게. 딸 세 개 아니냐, 아덜 하나.
네 개 애기.
102014 @ 애기 네 개.
102014 #1 우리 성숙이도 딸 두 개 나난, 딸덜만 애기 하영 낳저.
102014 @ 음.
102014 #1 저 우리 큰년도 딸 두 개 나난 아덜 낳젠 허난 스몫 서울까지 강 검
사허명 험에 아덜, 서오누이고.
102014 @ 음.
102014 #1 죽은년은 너오누이고. 그놈의 아덜 행 뭐 허는 거니?
102014 @ 계난 아덜 낳젠 경 뭐 헨 거?
102014 #1 으. 아덜 행 무시거 허는 거냐?
102014 @ 아고게.
102014 #1 아고 아고. 옛날이사 허주만은 이제사 아덜 행 무시거 험 거여만은
경헤라게 윈 윈.
102014 @ 계도, 계도 아덜 나지난 큰소리 쳐도 뉘쿠다게.
102014 #1 헤. 고생헬시네게, 고생헬서게. 애기덜 네 개 키우젠 헤보라 고생을
안 허느냐? 곤란도 허주게, 우리 죽은년은. 우리 큰년은 이제 잔치 문 헤네 서오누
이 이제 아덜은 이제 군인 살안 대학 이제 올리가 졸업반산디 아덜 허나난 졸업반
산디 허난 윈 걱정이 었다. 윈 그거 하나 풀아풀민 걱정이 었다만은. 우리 죽은 건
허나 풀아보지도 안 허고 그거 네 개 소나이 하나 이제. 선생인가 무시거 허는 체
헬저만은 그거 네 개 키와 보라. 살아지크냐. 아이고.
102014 @ 계난 아덜덜도 장가 가가지고 막내 애기는 들엇수다만은 큰아덜은 어
디 살암수과?
102014 #1 큰아덜 이제 중국 갔저게. 저 인천, 서울 살단 살단에 현대로 그 저
중국 간에 회사 헤 놓난 우리 아덜이 침 그디서 머리가 좋아낫저, 우리 큰아덜이나
셋아덜이나 머리가 좋아나난, 얌전허고 허난에 저 공장을 땀긴 거라. 중국 두 밧디
짓은 것 강 창고장으로 갔저게. 창고장으로 5년.
102014 @ 으, 공장장예.
102014 #1 공장장. 공장장 참.
102014 @ 예, 맞수다.

102014 #1 공장장으로 강 살고 셋놈은 이제 마산 살았저. 엘지.

102014 @ 계난 중국 가고는 식게 때나.

102014 #1 식게 때엔 못 온다게.

102014 @ 기지에.

102014 #1 챗번 서울 살 땐 식게 돈 맡아 가났저게.

102014 @ 아, 말양 가난?

102014 #1 어. 돈맡 맡아 갖저게. 원 맡아간에 서울서 제서 헛저게. 서울서 허민 우리 족은년도 잇고 셋놈도 잇고 허난 그디서 지네만 행 먹엇주게. 켜 허단에 중국 을 가게 댜난 중국 강 제서 헤 먹으쿠다. 중국을 가게 댜난 중국 제서 가정 가쿠다 허난. 아니 늬의 나라 가근에. 아니 그때 삼년 살켄 헨 놈이 저거여게.

102014 @ 으.

102014 #1 아니 늬의 나라 가근에 어떻 이제 제설 허느니 이디 켜당덜토 잇고 이디서 기자 메만 혼직 결여 놓당 삼년사 못 허느나. 삼년만 살양 올 거건 이디 내 불어덩 가렌 허난 경허난 내불어덩 가난 작년엔 멧질 땐엔 느량 온다. 팔월 멧질, 정월 멧질엔 온다게. 경허난.

102014 @ 식게만 가져가고 멧질은 여기서 헤난?

102014 #1 어, 어. 여기서 멧질은 허고 계난 오란 어머니 이추록 대수술 여러번 받고 무시거 헤나난 움직거리지도 못 허고 이제도 못 허고 중국이라도 강 허쿠다. 중국은 더 살아삼직 허우다 허멍.

102014 @ 음.

102014 #1 이제 기자 글로 댜직힘직 허다 글로.

102014 @ 음.

102014 #1 그자 글로. 일로 봉급 타고 글로 봉급 타고 험은 헛저게. 경허난.

102014 @ 음, 음 좋수다게.

102014 #1 경헨 식게 멧질은 이디서 기자 나가.

102015 @ 계난 메뉴리덜은 좋고?

102015 #1 막 좋아.

102015 @ 다행이우다.

102015 #1 메뉴린 좋나. 우리 큰메누리썸은 육짓아인디 막 좋아. 불나위 엇이 좋나. 나 이디 거민 나양으로 돈 써진다만은 들들이 날꺾라 일허지 말렌 허멍 들들이 통장에 돈 삼십만 원 놓나. 똑똑 놓나.

102015 @ 아이고. 좋은게

102015 #1 똑똑 삼십만 원씩 놓나. 경헨.

102015 @ 착헌게.

102015 #1 막 착헌다. 우리 큰 메뉴린. 경헨 셋메누리린 제긋아이고.

102015 @ 음.

102015 #1 큰메누리린 공부허레 보낸 놈두난 연애헤서라 둘이가.

102015 @ 경허는 거주.

102015 #1 겨난 우리 쨌당덜은 강 떼렌허연. 떼레도 올라 가왔주.

102015 @ 무사 제주도 메뉴리 해야 텔 겨난.

102015 #1 으.

102015 @ 앎튼 어무니들예, 제주도 어무니들예 다.

102015 #1 방상에서가 욱을 헤라게. 우리 방상 막 널르다게. 스몏 우리 어디 저, 우리 오침이 제주도 메뉴리, 욱지 메뉴리 현 디 잇이넌 허멍 떼렌 허난 떼레 욱지 할망 하르방이 올라가와시네.

102015 @ 으.

102015 #1 올라가난이 엉강이 요눔이 어떻사 좋는지 난 이제 치메 입은 것만 제주도 메뉴리 허켄 허난 어무니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스몏 우리 메뉴리 나신더레 볼 나위 엇이 빌어라게.

102015 @ 아.

102015 #1 어머니 이번만 살려주세요. 날 폭허게 안양.

102015 @ 으.

102015 #1 갱헛단에 이제 하도 메뉴리가 착허난 나가 이젠 또 수술허레 갓단 나가 대신 빌어시네게.

102015 @ 하하.

102015 #1 그때 떼젠 헤난 거.

102015 @ 미안허덴?

102015 #1 으. 미안허덴 이젠 사과허난. 어머니 미안허덴 안 헤도 이녁 이해 가 노렌. 허난 어떻헛 이해 가지크넌 난 막 느 애들암시카부덴 이제 나 사과허노렌 곶 으난 경 곶아라. 이제 제주도 사름은 제주도 메뉴리 허젠 허고 욱지 사름은 욱지 메뉴리 허젠 허고 나 그런 거 다 이해헛니덴 경허멍 곤건데, 경 느가 생각허민 곶 맵덴 헤근에 경 오해 풀어시네게.

102015 @ 아이구 게도 어무니도 사과허난.

102015 #1 멩겘에 들양 오라시난 스몏 우리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이디 앓앗당 저 그릇 문 내놓곡 무시거 허는 거 문 뵈당 느 알양 허렌 곶앗당 나 무사 그 메뉴리 허켄 헛디켄 허멍 시어멍과 썩고 헤시네. 나 그 메뉴리 앞이서. 나 무사 그 메뉴리 허켄 헛디과? 아덜ㄴ라 들양 오지 말렌 허난 들양 완게.

102015 @ 하하.

102015 #1 돌아오지 말렌 허난 들양 왕 대관. 어머니 제춧메누리 못지 안 허게 아이가 쨌찬헛 거라. 우리 아덜이 막 착헛 아이여게. 소문나게 착헛 아이여. 경허난 이디서도 썩허게 장학생으로 서고 학교 장학생으로 허고 선생덜 문 좇아오곡. 아이가 앓전헤났저 아버지가 앓전허난. 그추룩 헛 현디 아니 대학교 믱칠 시대 돼가난 새각시 구해주켄 이디서도 허고 저디서도 허곡 새각시 구해주켄 헤라게. 우리 돈 엇어도게. 사름 조난. 아 그추룩 허난 경 그겘 든젠 허주 욱짓메누리 강 그 욱지 가

근에 연애하는 처레 알아시냐?

102015 @ 그니까예.

102015 #1 나 그땐 진짜 왁왁했저게. 경헨 떼레 올라강 떼도 못허고 현디, 원 우리 켄당덜토 육지 메뉴리 헛저.

102015 @ 하하. 그 이후에? 시작이 뉘불엇구나 여기서.

102015 #1 우리 삼춘, 이제 우리 현디 먹는 켄당도 육짓메누리 헛저게. 아덜 저 학교 보낸 놈두난 연애 허난.

102015 @ 예.

102015 #1 경헨 육짓메누리 허고 침 우리 방상에도 육짓메누리덜 하다.

102015 @ 예.

102015 #1 막 하 이제.

102015 @ 어쩔 수 엇수다게.

102015 #1 어, 어쩔 수 엇어. 게난 지네 좋으민 마는 거게. 이젠 생각헨 보난이.

102015 @ 예.

102015 #1 나도 헛뉘게 미움을 받젠 헤진 거주. 켄 늙어가민 미움이나 받아질 건가 헨 사과헛주게.

102015 @ 예, 사과헨 건 다행이우다.

102015 #1 어게.

102015 @ 잘헤수다, 잘헤수다.

102015 #1 게난 애들지 안 허거렌 헤라. 애들지, 어머니 애들지 안 헛어요. 이제 제췌어른덜은 제췌메누리 허젠 허는 건 사실 아넛니까.

102015 @ 기지예. 제췌사름덜.

102015 #1 경현디 이동네 오민이 우리 메뉴리만이 착헌 아이 엇덴 곧나. 우리 올레 안에.

102015 @ 아.

102015 #1 막 칭찬 받아.

102015 @ 아.

102015 #1 아이가 경 좋나게. 아이고 지네 아멩 우리 셋아덜이 월급 하영 타도 셋메누리 경 안 허는디 요건 오면이 시아부지 나시, 우리 시어머니 산 때 우리 족은 놈 산 때 딱로 딱로 봉투에 돈 주고 침 나 딱로 주곡. 난 백만 원 준다게. 멩질에 왕.

102015 @ 아덜 버는 것만으로도 경 허는 거?

102015 #1 어.

102015 @ 자기도 버는 거?

102015 #1 원 아덜 버슨 것만.

102015 @ 아이고.

102015 #1 아덜 버슨 것만 경현다게. 경허영 침 오랑. 요자기도 사돈 아팍 나

육지 가 왔저 요번에. 육지 가시난 아버님 드리레 허멍 돈 이십만 원 주건, 아이고 돈 느 나 통장에 매달에 놓는 거 그거면 우리 쓰켄 곱아봐도 아버지 딱로 똑 드리레 허멍 쥘.

102015 @ 음.

102015 #1 우리 메뉴리 첨 착헌 아이라. 착헌다. 불나위 옛이 착허여. 이딧메누런 경 안 헌다. 기자 오민 기자 날 안양 스몏. 불나이 옛이 안양 허곡.

102015 @ 예.

102015 #1 불나위 옛이 안양.

102015 @ 사위덜도 좋고?

102015 #1 으. 아이고 우리 사위덜은 착허주. 막 착허여 우리 사위덜.

102015 @ 아이고 복 받아신게.

102015 #1 아니, 원 우리 사위도 첨 늣덜은 영햐저 정햐저 이상케. 우리 사위도 이 늣덜은 딸 가근에 두 가시가 싸와지민 친정에도 오는 딸이 하. 왓다근에 들레와시민 보내곡 무시거 허는 디 이거 원 시집 보내난 집이, 친정에 혼 번 와보지 안 헤영 두 가시 원 싸움는 그적이 옛어.

102015 @ 예.

102015 #1 일절 그자 우리 딸령으로 행 살아. 일절 씹는 그적이 옛나.

102015 @ 예, 예. 게난 어무니 아버지안티 본을 받은 건게게.

102015 #1 원 어떻사 헛 건디.

3. 밧일

103001 @ 이 토펡에서 밧일을 어떤 밧일덜 헤낫수과?

103001 #1 어떤 밧일을 헤여게. 보리 같고.

103001 @ 보리 같고.

103001 #1 보리 같고 이제 주장으로 감저 행 감저에 돈을 샏저.

103001 @ 음.

103001 #1 감저, 고구마. 옛날말론. 저 이젠 첨 고구마엔 헛저만은 옛날 고구마가 어디 있느니 첨 감저.

103001 @ 게난 옛날말로 곱아주시민 쉐 거.

103001 #1 으, 감저 싱거근에 그 무지 마다리에 공장에 강 감저 풀양 살아시네.

103001 @ 으.

103001 #1 공장에 강.

103001 @ 게난 주로 헤난 건 보리랑 감자랑.

103001 #1 으, 조.

103001 @ 조. 또.

103001 #1 경 허단에 그 멧 년 후엔 그 밀감남을 이제 이디 잘 사는 사름덜이 일본서 밀감 묘종을 오난 잘사는 사름덜은이 우영에 밀감남을 싱거라게. 우리 ㄴ튼 사름은 밧도 엇고 그런 무시거 허난 밀감남을 못 싱것단에 이제 막 넘어져가사 우 린 그걸 헛저게.

103001 @ 음.

103001 #1 경헨 헤노난이 우린 늦게 늦게 농서 오래 헤 먹고 농서 오래 헤 먹 고 헛저. 보리 조만 헛저, 보리, 조만. 아이고 우리 살아난 말 곶양 무시거 허느니. 우린 엇이난 다른 사람, ㄴ사 성님도 이제 헛주만은이 우린 본래 엇어 노난 보리 남 새에 쓸 엇이난 보리 가근에 비영, 아멩 곶야도 요셋 아이덜 몰른다게. 그 보리 비어당 영행 조정근에 불에 그실영 발로 보병 그거 숲양 먹고 헤서.

103001 @ 보리 익기 전에?

103001 #1 으. 아이고 우리 경허노렌 허난 이제 보리 물 ㄴ레에 나난 기자 물 ㄴ 레에 보리 강 해당 그 물방에서 수눌영 동네 사름 수눌영 물방에에 문 그 보릴 ㄴ 아시네.

103001 @ 으.

103001 #1 ㄴ아근에 쓸 나민 그자 그거 ㄴ레에 물령 거퍼시네. 푸는체에 헤근에 체 헤영 푸닥푸닥 치곡. 아이고 그거 치여근에 이제 문 물령 얼멩이로 이제 문 치 여근에이 그거 이제 물령 또 그 쓸을 내우젠 허민 ㄴ레, 우리 ㄴ레 저디 놆 두난 도둑 맞안. 옛날 ㄴ레. 옛날 ㄴ레 혼 배 놆 두난 도둑 맞안. 경헨 그 ㄴ레에서 거피 멩 먹어서네게. 아이고 우리 살아난 말사 곶양 무시거 허느니.

보리농사

103002 @ 계난 보리 농서 지어난 거부터 먼저 들어보쿠다.

103002 #1 어, 어.

103002 @ 쪽허게 보리 농서 지어난 거.

103002 #1 어게, 어게.

103002 @ 보리 농사 짓젠 허민 무슨 준비를 해야 험니까?

103002 #1 아이고 무슨 준비허느니게. 걸름, 도새기 질황. 도새기 질황 그 걸름 우리대로 마당더레 문 웨스랑 헤영 곶체로 담으멍 장남을 들르고 우린 들르지 못허 민 그걸 이제 지게로 지어시네. 이제 남저덜은, 하르방을 그 걸름헤영 곶체레 담아 우린 이제 지어, 마당에 놆. 이제 그걸 웨로 불러. 그걸, 그걸 이제.

103003 @ 걸름을?

103003 #1 어게. 걸름을 보리씨 빼영 젓어사 밧디 강 똑똑똑 밧 갈양 곶랑 나민 이제 곶랑더레 쪽허게 그 돛걸름을 허당 ㄴ물 또 ㄴ물 가느네게. ㄴ물 갈민 이녁 밧 엇인 사름은 늬의 밧 갈양. 그 ㄴ물행 건평 ㄴ물 범벽행, 감저 놓고 ㄴ물범벽. 늬빼도 낯당 감저도 낯당 행 가민, 그 돛걸름 허단, 물이 어디 잇느니? 나도 물허벽 정 저 돈내코 물 질레이. 아이고 나 아이덜 키와 올 때 그 물 질어다근에 조반 행

먹으민, 밥에 감저 노민 아이덜 등그리지 안 허느냐.

103003 @ 예.

103003 #1 이젠 맛 좋게 먹을 거여. 그땐 등그렁 에엎더레 시레기 놓곡, 쓸 엇이 난. 쓸 족양. 이 녀크 밧디 농서 지어도 족양이. 경허민 이제 그거 문 등그리멍 허는 거 허영 그 믰물범벅 행 우리 그 물이 어디 성 손 씻느니? 모욕도 아니행 살았저. 모욕, 물 어디시니 돈내코 강 나 물 흔 허벽 정 오민 우리 헤영 먹음이 어려워나시네게. 야 이추록 살기 존 때도 있느냐? 막 고생, 고생 허멍 헨 살아오랑 이제 미짱냥을 나가난이 흐뎡 삶이 좋아라게.

103003 @ 음.

102016 #1 계난 난 나 시대보단 우리 어머니네 시대, 우리 시어머니네 시대, 우리 친정어머니네 시대. 얼마나 고생해서니게. 먹어보지도 못 허고 써 보지도 못 허고. 경헌디 우리 대에 경해도 요런 존 세상도 보고 애기덜 공부 시켜 문 육지 내놓곡 경헌 이제 미짱냥을 나가난, 미짱냥에 돈이 흐쓸 나가난 애기덜 공부시키고 무시거 헤시네. 옛날에사 돈이 어디 있느니게. 우리 엇인 사름은 못살 때였저게. 계난 감저 헤영 또 늡의 밧이라도 싱그민, 옛날에 그 마다리 이제는 저 저런 마다리가 잘 나와나신디 어져운 마다리랏저. 그것에 헤여근에 저 이제 이디 무죽시 감저 공장 난 때난 우리 그것 강 풀민. 어느 때랑 도새기 질랑 풀아근에. 우리 돛통 저디 치와벳저만은 도새기 질랑 아이고 요 도새길 어느 때랑 잘 맥영 풀아근에 살리 헛저게. 계난 옛날 살아난 거 이제 우리 아이덜 ㄹ라 곶아도, 라면이라도 끌영 먹을 거 아니과?

102016 @ 하하하.

102016 #1 옛날에 머리 못 쓰난 그거 아니과? 그추록 곶아. 복통나. 라면도 먹어봐시민 헛저게. 경허단 첨 이젠 대통령 삶이주 바로. 먹구정 허민 먹을 거, 쓰구정 허민 쓸 거. 이제 우리 어무니네 으든, 아흔하나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갓저. 이디 밧거리 살단. 경헌 돌아갓저만은 고생 고생헛저게. 고생헨 살았저. 늡의 일, 나도 늡의 일, 계난 늡의 감저, 나 경허난 지금이 문 뺑신 뉘연. 늡의 감저 가근에 아침이 가민 경 감저 싱거근에 아이고. 이제는 미짱 강 흐루 타민 삼시스시 간식이여 무시거 헛저만은 그땐인 쓴 누물 행 웬장 낱 국 끌렁근에 그거 주민 배고픈 때난이 그거 먹어근에 헤영. 나도 첨 우리 하르방 아무 것도 엇인 디 오랏저게. 엇인 디 오난, 몸뚱이만 잇인디 오난 기자, 경헌디 기자 나도 아니 살젠도 헤보고. 경헌디 하르방이 막 고집을 헤영, 막 고집 헤라게. 고집 헤여근에 이 첨, 이 올레 안에 문 싸와도 우리 아이덜 경 곶아났저. 어무니, 어무니 우린 무사 안 싸웁수과, 무사 안 싸웁수과? 우리 하르방이 어질연.

102016 아.

102016 #1 귀아지 한 번 안 맞은 사름 나. 이 콩으로 한 번 안 두드린 사름은 나여.

102016 @ 아이고.

102016 #1 참, 이 스방에 들어보라 참.

102016 @ 그것도 복이우다.

102016 #1 어. 꺾사 어른도. 나 그디 옷동네 살단 이디 시집왔저게. 꺾사 어른네 동네 살단. 경헨 와신디 꺾사 어른도 친허게 참. 우리 시어머니 웨가로 흐쓸 부뜬 디고 현 어른인디 참 아무것도 엇인 몸뚱이만 잇인 사름신디 완에 기자 어떻 어떻 애기덜이 착허난 경헨도 계난 지네 밥 벌인 강 험저게.

102016 @ 음.

102012 #1 큰놈은 저 현대에 갓단에 이제 중국, 사무장 헤 먹고, 계장 헤 먹고 그디서 스뭇 헤 먹단 이제 마지막으로 창고장으로 헨에 저 중국 간에 저 창고 그디 강 웨사 혼 두 밧디 짓으난, 이거 오년.

102012 @ 음.

102012 #1 오년 살았저. 그냥 글로 웨직헨 거여. 글로 웨직헨가고 우리 셋아덜 은 엘지에.

102012 @ 아이고, 다덜 좋은 데 들어갔구나.

102012 #1 어, 엘지. 가이도 삼성 시험 보난 웨고 엘지 시험 보난 웨고. 머리 좋나 우리 셋놈은. 경헨 두 밧디 웨난 우리 큰놈이 저 엘지가 보너스도 백프로 주고 또 먼저 웨고 허난 우선 먼저 웬 디로 가렌 허멍 경헨에 엘지 들어간 이거 아직은 우리 셋놈은 앞으로도 한 오년 헤 먹을 거여.

102012 @ 으, 음.

102012 #1 경헨 헤 먹고 헤영. 참 옛날 살아난 말, 가네이 우리 애기덜은 착허난 돈 십원 안 줘 밧저. 어디 성 주느니게. 돈 십원 안 줘 나 키왔저 아이덜게. 경헨 참 설롭게. 녀들은 경 안 헤실 거여. 나만 경헨주.

103002 @ 흐흐. 계난 어쨌든 자체분 애기는 나중에 또 물어보쿠다. 지금은 보리 농사 짓는 거예.

103002 #1 어게, 계난.

103002 @ 보리 농사 짓젠 허민.

103003 #1 난 녀의 밧디, 우리 녀의 밧 하영 버슬엇저게. 녀의 밧 버스난이 녀의 밧 강 허민 고사릴 술아와사. 고사리 난이 아이쿠. 이 동네서 고사리 술레 하영 가온 사름은 누게 아무도 엇인 거여. 부쨌 낱 혼 열흘씩 저 애기낭귀도 넘어 강 그 고사리 강 스뭇 가민. 경허난 나 이 손 문 데와전. 이거 보라게 문 뺑신 웨세.

103003 @ 이거 손가락.

103003 #1 고사리 문 비영 그거 연기 안 나게 술아사 불경이 웨주게. 곱불(?)이 나민 불경 웨느냐게.

103003 @ 고사리 손다는 게 고사리 꺼끄레 갓다는 거?

103003 #1 아니, 아니, 아니. 걸름

103003 @ 걸름.

103003 #1 으, 고사리 술앙 불경 만들어.

103003 @ 예.

103003 #1 돈 엇어근에 우리 걸름 사지도 못 허고 허난에 보리 같고 조 같고. 보리 갈 때도 그 걸름에, 고사리 슬앙이.

103003 @ 예.

103003 #1 고사리 연기 안 나게, 숯 문듯. 느네 아무 거엔 곱아도 몰른다. 고사리 비여당 기자 연기 안 나게, 연기만 팡팡 낭 저 곱불 안 나게. 경허민 숯이 왕왕 허게 나누게. 경허민 내에 강 물 들러당 그거 물 쥐근에 그거 이제 북북 보병 흔 마다리 지영 오랑 그것에 보리 씨 서경 쥘아 낱 우리 보리 갈아 먹엇저.

103003 @ 아, 무사 돛걸름 안 행?

103003 #1 돛걸름 해도 돛걸름 죽고게.

103003 @ 죽고.

103003 #1 감저 싱금도 고사리 슬아당 싱고고. 또 바당에 강 물망도 등짐으로, 쉼이 어디 잇느니? 우린 쉼도 엇어근에 이제 등짐으로 물망해당 허고. 우린 동네에서 더 고생허게 살기 헛주게. 늬의 일만 허고.

103003 @ 계난 밧 엇이난.

103003 #1 밧 엇이난. 경허난 이제 아이덜 두린 때난 기자 어뎡어뎡 허멍 요 저 밧 흔 이천 평 저 우이 사 놓고. 이제 그디 이제 미짱낭 싱경 우리 글로 헤네 기자 겐 살안오란. 이제 하르방도 일 못 허고 어디 흔 오백 썩 요디 뻗딘 디 한라봉 흔 썰 자파리 험저.

103003 @ 음.

103003 #1 이젠 계난.

103003 @ 좋수다게 노년에 심심허지 않고.

103003 #1 어게. 계난 보리, 조 헤 먹을 땐 말도 못헤저게.

103003 @ 계난 보리 농사 준비허젠 허민 걸름만 준비허민 쥘 거?

103003 #1 비료가 어디 잇느니게. 옛날에 쉼 하영 질르는 사름은이.

103003 @ 예.

103003 #1 바령밧, 바령밧 허고 밧 한 사름은, 우리 하르방 친족 하르방은 썩 헤낫저.

103003 @ 예.

103003 #1 밧 한 사름은 그 물모쉬 흔 백 바리 헤낫저 그 저디 친정 하르방은.

103003 @ 예.

103003 #1 경허민이 흔 두 처낙은 이 밧디, 하루 처낙은 저 밧디 허멍 걸름, 바령밧.

103003 @ 음.

103003 #1 거름 안 해도 보리, 조 쥘주게.

103003 @ 음.

103003 #1 우린 아무 것도 엇이난 불썩 고사리 슬아 와야지. 또 돛걸름 도새기

질황 돛걸름 해야지 경헨 해낫저게. 윈 그거 헛저 그거. 계난 돛걸름 안 낸 사름 시나. 옛날사 문 도새기 질황 돛걸름. 아이고 요 마당에 내여 낡 불령.

103005 @ 거기에 보리씨 뿌령?

103005 #1 으, 씨 뿌려근에 이제 데명 맥에 담양 밧디 가근에 그걸 이젠 밧을 갈아. 갈민 이제 우린 고랑더레 툃툃 쥼아 놔. 손으로.

103005 @ 예.

103005 #1 손으로 쥼아 논다. 쟁허민 점심은 믱물 범벅을 행 가나 감저 범벅을 행 가나 손으로, 그 툃 붙은 손으로 그냥 먹었저.

103005 @ 하하.

103005 #1 툃 붙은 손으로 그냥 먹어서. 추접헤 뷔지도 안 헨다게. 에이구 이젠 아이덜, 나 애기 키울 때이, 우리 엇어 노민 우유가 어디 잇느니 허민 애기덜 키울 때도 감저 헤다근에 입에서 조근조근 씹어 젓이 부족허지 안 허느냐게. 젓이 부족 허민이 배고광 아이덜은 껍껍 헤 가민 감저 입에서 썩썩 씹영 그거 문 꿈이영 행 애기 먹영 커도 살암저게.

103005 @ 히히.

103005 #1 이젠 우리 손지덜 할망 거 입에 거 손구락 맥여 보지도 안 험저. 못허게 험저. 못허게도 허고 이녁도 말고.

103005 @ 맞아마씨.

103005 #1 추접헤 뺑 만다게. 경헨난 우리 보리 갈아 먹고 조 갈아 먹을 때사 곤썰이 어디 잇느니? 나이, 보리 쏘 두 말 정 강 곤썰 두 뉘 바짜오랑 식게 헤 먹고 헛저. 어떻 험줄 앓이니 예고.

103005 @ 음.

103005 #1 예고.

103005 @ 계난 아까 돛거름에 씨 험 때는 돛거름 내난 다음?

103005 #1 마당에 내냥 막 헤쌍 보리씨 그레 빼영 막 불랑 쉼 엇인 땀 사름으로 불르고 쉼 잇이민 그 쉼로 이경 텡기명 그걸 문 불르주게. 불랑 이젠 맥에 담야. 맥에 담양 이젠 구루마에 밧디 시경 가근에 밧 갈양 기자 툃툃 쥼아 놔. 경헨근에 보리가 나민 또 오즘 싸근에 향에.

103005 @ 예.

103003 #1 향 낡 오즘을 그레 모도느네. 허벽에 그 오즘 정 가근에 보리 푼릿푼릿 나 가민 오즘 강 박세기로 치데경 놔두민 그딘 까망. 보리가이.

103003 @ 아.

103003 #1 아니 준 딘 노랑. 쟁허명 질랐저게. 비료가 어디 잇느니? 아이고 비료 나 건 디가 멧 년이니게.

103003 @ 계난예.

103003 #1 아이고.

103003 @ 아까 고사리 슬룬 거는 어떻 행 거름으로 쓴 거라?

103003 #1 고사린이 고사린 헤다근에 기자 감저 싱글 때 기자 고랑더레 그 불경을 비워.

103003 @ 비왕

103003 #1 그 오줌 흐쓸 집이 헤영 비왕이.

103003 @ 예.

103003 #1 마다리레 오줌 놔도 좋고. 아레미항 물어도 좋고.

103003 @ 음.

103003 #1 비료가 엇이난. 오줌으로 비료 대신.

103003 @ 계난 보리 헐 때도 그추룩 헤난 거 아니?

103003 #1 어게. 보리 헐 때도 고사리.

103003 @ 그니까 서경 험니까?

103003 #1 으, 서경. 서경계. 서경 험다게. 경허난 이 불경은이 고사리 슬고 험다. 겨난 느네 아무거엔 곱아도 물론다게. 고사리 늘고사리 이만씩 허지 안 허느냐게.

103003 @ 예, 예.

103003 #1 그것 강 문 비영.

103003 @ 예.

103003 #1 불을 부찌민 연기만 팡팡. 고뿔나민 고사리가 안 웨여.

103003 @ 계민 늘 고사리가 아니고?

103003 #1 늘 고사리.

103003 @ 들른 고사리 아니고?

103003 #1 아으 엇다게. 이제 고사리가 막 새잖아. 이제 먹을 거 우리 먹을 거 꺼꺼오라나민.

103003 @ 유월 이후 웨민.

103003 #1 남은 것이 막 새잖아게.

103003 @ 예.

103003 #1 경허민 고사리가 손 벌어정 허민 그거 고사리 비레 가주게.

103003 @ 계민 그거 물렛당 불 부찌는 거?

103003 #1 아니 아니 그 날. 비는 날.

103003 @ 불 붙읍니까?

103003 #1 아홉시까지 강 비주게. 네 시에 밥 먹엉, 밥 행 네 시에 먹엉 이제 고사리 비레 밤이 간다게. 경허민 밤이 헤지느냐. 그 산노롱 헐 때 슬젠.

103003 @ 으.

103003 #1 스몏 밤이 즘을 자느냐게. 네 시만 웨민 나가주게. 네 시만 웨민 나가민 고사릴 문 비여. 경험 모뉘. 붉으민 모뉘 낡 그 고사릴 이젠 슬기 시작험 혼 마다리, 불경 혼 마다리 허젠 허민 아홉 시까장은 비민 웬다 난. 경험 손 재난 아홉 시까지만 비민 옛날 그 무지 마다리로 고사리가 흐나 웨주게.

103003 @ 그 놀고사리에 불이 붙읍니까?

103003 #1 어게 부뜬다게. 기자 연기로 솟 묻는 거, 솟 묻는 거. 어른덜은 다 알거여.

103003 @ 음.

103003 #1 고사리 슬아 낫덴 허민 다 알아. 느네 질에 몰르고.

103003 @ 예. 여긴 불경이렌 헤? 불치렌 안 허고?

103003 #1 불치, 불치.

103003 @ 불치를 여긴 불경이렌 헛구나?

103003 #1 어. 불경. 옛날엔 불경. 불경 헤낫저. 불치렌도 허곡 불경이렌도 허곡. 음 경헌다게. 경헌 허민 그거 슬아 오민, 고사리 안 슬아 오민 불경이 어디 잇느니. 그거 슬아 와서 저디 낡 마다리에, 오즘을 싸명 그레 노나 경 안허민 아래 비와근에 오즘을 그레 서끄나 헝 막 서끄명 묻엇당 허민 걸름이 뒤주게. 고사리 걸어.

103003 @ 음.

103003 #1 이젠 아녀난 거주. 하도 삶이 좋아 노난 고사리도 안 비고. 또 그 보리 조 갈 때 아이고 스몯 무시걸 허민 감저 싱경 떡곡 그 보리 걸곡 허렌 그 바당에 강 그 듬복이엔 헤낫저 이젠 몰망, 몰망 허주만은. 바당 쟤가민 스몯 바당에 강 난 훔 중도 모른다게. 쟤헤도 그걸 강 스몯 거두왕 지영 올라왕 그거 밧디 강 보리 뽕작뽕작 나주게. 거 에염에 더경. 또 그 몰망 놔근에 감저 싱그민 감저가 **게 들어 경헌 우리 살아왔저. 아이덜 7라 곱으민 그거 무사 경 머리 못 썩.

103003 @ 하하.

103003 #1 우리 아이덜 경 근다.

103004 @ 예, 보리는 언제 갑니까?

103004 #1 시월달에.

103004 @ 음력 시월?

103004 #1 으, 음력 시월달이민.

103004 @ 예, 게민 보리 가는 순서를 곱아 주면 먼저 아까 밧을 먼저 가는 거?

103004 #1 밧을이 강 갈아 가명.

103004 @ 예, 갈아 가명.

103004 #1 불경에 헐 때는, 불경에 헐 때도 밧 갈민 고랑더레 기가 불경 툽툽툽 껌아 놓나. 그 씨 서꾼 거.

103004 @ 예.

103004 #1 껌아 놓고 더끄는 건 손으로.

103004 @ 손으로.

103004 #1 손으로 영 더경. 손으로 앓앙 그걸 문 더경.

103004 @ 아, 영 즈아 논 걸 손으로?

103004 #1 어. 보리씨 닷말지긴 더끈다. 나 우리 큰놈 난 때에 보리씨 닷말지기 불경을 할망 껌아 놓고, 그거 더끄젠 허난 놉 빌어지건 허전 현디, 놉 못 비난 나

그것 강 더꺼 낫당 어걸 등연 나 구루마레 옛날 철 구루마레 걸어오지 못헐 안아 와낫저. 스뭇 윈 그거 앓앙 앙글앙글 문 더꺼낫당. 손으로 문 더꺼시네. 경허난 섬비 헐 낫주만은 섬비 헐 영 낫주게.

103004 @ 예, 예.

103004 #1 섬비 헐 영 낫주만은 섬비 헐 낫을 사름 엇이난 손으로 그거 문 막 아시네. 손으로.

103004 @ 보통 다른 디 그거 덮는 거는 섬비 헐 낫는 거?

103004 #1 으, 으. 넓은 디 가는 디는 섬비로도 헐 낫나게 경헌디 또 섬비로 낫 은 건이 잘 막아지진 안 현다.

103004 @ 아, 손으로 헤사.

103004 #1 으, 손으로가 깨겅이 막아지주게. 지피 묻어져사 씨도 잘 조놀앙 난 다.

103007 @ 게민 영 더프멍 블라 주기도 허는 건계.

103007 #1 블라도 지주만은 경, 보리나민 보리가 과짜 나지 안 허여.

103007 @ 예.

103007 #1 나민 강 조근조근 블라 줘.

103007 @ 아.

103007 #1 곱아불민 발 들려지카부덴. 조근조근 보리 블르레도 우리 멩겨낫저.

103007 @ 아까 보리 가는 건 음력 시월이었잖아예?

103007 #1 어.

103003 @ 그민 보리 갈기 전이 걸름을 내 준비를 헤예?

103003 #1 어게.

103003 @ 걸름 내는 건 언제 내여?

103003 #1 걸름 내는 건 그자 시월덜 나가민, 보리 갈 때 뉘 가민 윈 낸다게. ㄱ슬 들어가민 낸다.

103003 @ 아, 게민 며칠 후에 보리 갈 거다 허민?

103003 #1 으. 걸름을 내여. 새 보리짜 문 그거 내여덩 새반짜허게 내여덩 보리 짜 막 곱앙 놔두민 도새기 질루민 도새기도 하나도 아니라 어떤 때 두 개짜 질루민 그게 걸름 뉘. 또 쉘 질루민 쉘 똥 싸민 그자 똑 경헤영 기자 쉘 걸름 또 밧더레 헤당 허끄곡.

103003 @ 게난 돛걸름은 일년에 몇 번을 냅니까?

103003 #1 혼 번, 혼 번베긴 엇나.

103003 @ 아, ㄱ슬 들민?

103003 #1 으, ㄱ슬리 혼 번. 도새기 걸름 두 번 내 보진 안 헛저. 쉘걸름도 그 거고. 쉘도 질루민이, 쉘도 질랏자 기자 검질 곱악 곱악 헐 영영 자리 곱어 가민 곱 곡 곱곡 허당 그자 내여분다게. 우리 경 쉘도 하영 안 질뤘 보고 쉘도 하나 질랏근 에 기자 우린 못 사난 헤은 사람이고. 도새기 걸름 주장 걸름헤영. 나 고사리 슬아

당 늬의 밧 벼슴도 헛저. 고사리 슬아당.

103004 @ 밧은 누게가 가는 거라?

103004 #1 아방이.

103004 @ 아방이.

103004 #1 으.

103004 @ 계민, 췌 밧갈췌 질황?

103004 #1 밧갈췌, 으, 질황. 안 질황 무사게 농서 지어 먹엉 살아지느냐.

103004 @ 아.

103004 #1 아멩 어려와도 밧갈췌 헨에 늬의 밧도 강 갈앙 돈 받아 오고.

103004 @ 돈 받아 오고. 쓸도 아니고 돈으로 받아 읍니까?

103011 #1 돈으로도 받고. 아이고 우리 하르방 늬의 보리 홀트레 가난, 옛날엔 클에 홀트잖아.

103011 @ 예.

103011 #1 느네 알거여.

103011 @ 예.

103011 #1 보리클로 헤영 보리 복복 홀트는 것도이 강 홀트민 보리 혼 말. 아이고 이젠 우리 강 미강 타민 나룩졸은 멧 말씩 사지느니.

103011 @ 하하. 혼 마다리 사고도 남을 거예.

103011 #1 혼 마다리 사단도 남암시네게. 얼마나 살기가 존 때니. 엇인 사름 살기 존 때여 이젠. 계난 엇인 사름도 이젠이 반찬 출리멍 먹곡. 막 살기 좋은다.

103005 @ 계난 보리 갈 때 보리씨는 이렇게 뿌리는 건 아니라예?

103005 #1 아니, 아니.

103005 @ 좁아 낱?

103005 #1 어. 보리씨 뿌리는 것도 잇긴 잇나. 이 저 뿌리는 것도, 바령밧 췌 놆 근에 바령밧 헤난 디 경도 헐 수 잇주. 견디 우리는 빼연에 헤 보지 안 헛저.

103005 @ 읍.

103005 #1 불치 췍아 노나 돛걸름에 서경 췍아 노나 그추룩 헿 갈앙. 그추룩 헛 주.

103006 @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

103006 #1 슬보리 잇고 곱보리 잇고. 두줄보리 잇고.

103006 @ 두줄보리?

103006 #1 어, 두줄보린 영 헤근에, 두줄보리엔 현 건 납작 지녕이 모양으로 고 슣락 영 양펜이 그거 두줄보리엔 허주게.

103006 @ 계난 삼춘네는 무슨 보리 갈아낫수과?

103006 #1 우린 슬보리 주장헿 갈앗주게.

103006 @ 슬보리?

103006 #1 으, 슬보리 헿 밥 헿 먹젠 허난. 두줄보리도 밧 헿 먹주만은, 보통으

로 이 두줄 보리 혀는 사름덜은 그자 첨 여유 잇인 사름덜이주 우린 밥 행 먹어사
살 거라부난 슬보리 .

103006 @ 그냥 밥 먹는 건 슬보리과?

103006 #1 으. 밥 먹는 건. 두줄보리 밥이 더 맛은 잇어. 두줄보리 밥이 쪼금 출
지듯 헤여. 출지듯 혀영 이 두줄보리도 좋은 밧디 같고 경 헤낫저게. 경허난 두줄보
리 가는 사름도 하긴 하근에 옛날에 두줄보리 가는 사름은 막 농협에서 받음도 헤
낫저. 받음도 헤나서.

103006 @ 곁보리는 뭐 헐 때 써낫수과?

103006 #1 곁보리엔 헐 거는 그 지넝이 님은 보리 말고 고스락이 질어. 곁보리
라도. 고스락이 막 긴 거여게. 길어근에 곁보리.

103006 @ 게민 것도 밥 행 먹는 거?

103006 #1 어게, 것도 굴아당 밥 행 먹는 거. 곁보리 밧 헝쓸 허민 “에, 밥은 거
세다 곁보리밥ㄴ치.” 경 헤낫저 우리. 밥 영 허민, 슬보리 밥도이 출보리밥 잇고 이
거셴 보리밥 잇고 경 헛저게. 출보리밥은 수확이 죽고 또 그 경 안헌 거셴 밥은 수
확이 하고. 경헐 수확 한 것만 우린 헤 낫주. 낭 난 보리 잇고 낭 쫄른 보리 잇고.
것도 멧 가지. 앓은베기보리 낭보리 그추룩 헤영.

103006 @ 아.

103006 #1 경헐 우리 갈아 먹어낫저.

103006 @ 슬보리 중에도 앓은베기?

103006 #1 으, 앓은베기, 낭 쫄른 것도 잇고 건 거 잇고 경허메. 겨난 낭 건 보
리가, 낭이 건 것이 밥이 출진다고. 이 낭 쫄른 건 낙곡은 하영 나도 밥이 헝쓸 거
신편 헤. 경헤낫저게 옛날에 우리 보리 갈아 먹을 땐.

103006 @ 삼춘네 슬보리 갈아난 거는 슬보리가 아무래도 수확이 좋으난?

103006 #1 으. 수확이 만허니까, 수확이 만허니까 우린 슬보리 갈앙 먹엇주.

103007 @ 아까 보리밧 밟기는 언제 헐다고마씨? 보리밧 블르는 거는?

103007 #1 아, 정월에.

103007 @ 정월에?

103007 #1 으. 음력 정월이 나민 보리가 요만씩 나주게. 요만씩 낭 까릿까릿 허
민, 정월 나민 밧이 막 부끄잖아.

103007 @ 음.

103007 #1 막 겨울에 눈 오라나민 밧이 부끄잖아. 경허민 강 쎄쎄쎄 쎄 블라주
주게. 경헐 블라줘. 경헐 블라근에 블른 딘 보리가 더 좋곡. 대강 보리 갈민 우린
오즘 정 강 쥐낫저게.

103007 @ 블를 때썸, 프룻프룻 헐 때 오즘 주는 거?

103007 #1 으, 어게. 경허민 보리가 까망 막 웨염직이 오즘으로 주장헤낫저 우
린. 아이고 보리 난 지가 멧 년이니? 첨 이젠 살기 좋앗저. 옛날에 살아온 생각허
민, 아이구, 아구 아구.

103008 @ 보리밭디 검질은 몇 번이나 땀니까?
103008 #1 보리밭디 검질 흔 두 번도 메고 세 번도 메고.
103008 @ 예.
103008 #1 여름에 조팏은 씨 스끄곡 또 킁 메고 세 번은 멧저.
103008 @ 조팏은 세 번, 보리밭은 두 번이나 세 번.
103008 #1 으. 대우리 메곡 보리밭디도 케나제나 대우리 나가민 메곡. 보리밭디
도 검질은 기자 두어번 메곡.
103009 @ 보리밭디 나는 검질 이름이 아까 대우리 허고?
103009 #1 대우리 허고 물럿 허고.
103009 @ 물럿?
103009 #1 으. 물럿이엔 허고. 대우리엔 허고 그 무신 진쿨. 진쿨 건 겨울 풀이
주게. 여름 풀이 아니랑 진쿨이엔 현 것이 겨울 풀인다. 그런 거 난다게. 경허민 보
리레 엷어짐도 허고 고스락 풀이엔 현 것도 보리레 엷어정 나오는, 고스락풀, 고스
락풀 허멍. 건 검질 이름이.
103009 @ 검질 이름. 아까 대우리.
103009 #1 으, 고스락풀, 대우리 으.
103009 @ 고스락풀.
103009 #1 으.
103009 @ 진쿨.
103009 #1 으.
103009 @ 물럿 이런 것덜 낫던 거라예.
103009 #1 으. 그런 거 멧 가지 여름엔 췌비눔이 나곡. 여름에는 췌비눔 나곡
침, 그디 들모작쿨이여 튀여 허멍 검질 이름도 하주.
103009 @ 게민 이제 보리 갈앙 뵘앙 검질도 다 메수다예.
103009 #1 어게, 아이고 보리밭디 검질 메젠 허민 땅 곳앙 스못 열고.
103009 @ 흐흐.
103021 #1 여름엔 조팏디 검질 메젠 허민 옛날에 양말이 어디 잇느니, 신이 어
디 잇느니? 맨발에.
103021 @ 으.
103021 #1 맨발에 조팏디 씨 스팡 메가민 발창이 파삭파삭 데불민 그 검질 멩
발창더레 나 놓멍 메엇저. 아무거엔 곶아도 아이덜 물론다게.
103021 @ 하하.
103021 #1 아무 거엔 곶아도 몰라. 침 물론다 우리 살아온 시대.
103010 @ 이젠 보리 익으난 거뒤 들이는 거 어떻 헤신지 츄츄츄츄 곶아 줍서.
103010 #1 보리 수확할 때 강 비염주게. 익어가는양.
103010 @ 어떻 비여?
103010 #1 호미로 박박. 아이고 비여 낡 옛날은 그거 우리, 우리 메타 그거 기

계 메타 난 두드려 먹은 거 우리 삼년이나 안 헛져. 경혜가난 설렁 미짱냥 싱것주. 계나제나 도껴로 두드리고.

103010 @ 우선은 보리 비영.

103010 #1 비영 클에 홀타.

103010 @ 아니, 몰릴 거 아니?

103010 #1 아.

103010 @ 밧디서?

103010 #1 밧디 놔근에 몰르민 무경.

103010 @ 무경 며칠이나 돌릅니까?

103010 #1 벧 바삭 나민 이틀이민 몰른다게. 거의 벧 잘 나민 이틀이민 몰라. 쟁 안허민 혼 사홀. 경혜영 날우쳐 가민 혼썰 허민 늘보리 무꺼, 늘보리 무꺼. 늘보리 무껏다근에 늘보리 이젠 모똥.

103010 @ 늘보리가 뭐?

103010 #1 늘보리엔 현 건 젓은 것ㄴ라 늘 거엔 허주.

103010 @ 아.

103010 #1 옛날말로 늘보리.

103010 @ 예, 예.

103010 #1 늘보리. 이제 그거 헨에 비 오람직 허민 무꺼야 헐 거 아니냐 경 안허민 보리 바짝허게 우리 돈 나놋저게. 보리 땅에서 낭 보리 똥쌍 그 보리 똥쌍 몰황. 하이고 그걸 어떻 다 일일이.

103010 @ 비 맞으민 안 텔 거 아니?

103010 #1 으, 경해도 비 맞아. 비 맞아근에 허민 나근에 쉬엄바리 그 보리가 난다게. 나민이 그 나민 땅더레 부떠벼.

103010 @ 예.

103010 #1 땅에 영 데쌍, 그 보리를 데쓰젠 허민 땅에 영 구작구작 부뜨명, 돈 땅에 부뜨민 우리 그거 하나씩 줍곡. 사름이 어떻헨 견디느니. 경혜영 그거 돈 좃영 이제 지름늑물을 것도 혼썰 이제 받아놋저게. 조합에서.

103010 @ 으.

103010 #1 지름늑물을 받으민 돈 사젠 보리 혼 착 같고 지름늑물 혼 착 같민 그 늑물도 날이 좋아사주이 거 비여 노민 혼 닷센 몰화사주게. 아이고 몰르기 전이 비 오랑 거 비 맞앙 내불민 그거 까지고 늑물도 낱 그자 스똥 마나 치민 나불고 헤영 불명 데껴볼 때도 잇고.

103010 @ 지름늑물이엔 현 건 유채늑물을?

103010 #1 어, 어. 옛날엔 것ㄴ라 지름늑물, 지름늑물 헛져.

103010 @ 지름늑물.

103010 #1 이젠 유채엔 근나만은 옛날에 지름늑물, 지름늑물. 경혜연 그것도 돈 똥쓰고 아이고.

103010 @ 계난 보리 비여 낱 영 옆으로 낱 널엇당.

103011 #1 보리 기자 막 비명 영 너는네 줄 짓엿 짝허게 줄 짓어근에 스몓 소리덜 허명 경헿 이제 그거 문 비여 노면 그거 물르민 무경 모뿡 클로 이제 그거 홀트잖아게. 쩍아 주고. 혼 사람은 쩍아 주고 박 허게 홀트고 경헿 보리쥌 문 무꺼가 명 거 홀타노민 그 보리가 클방에, 문 맥에 담양 물 ㄱ레에 강 글아근에 쓸 내올 때 잇고 도께로 문 마당질, 도께로 명석 밋밋 깘양 도께로 문 밋양.

103011 @ 음.

103011 #1 얼멩이 옛날 얼멩이. 느네 얼멩이 알아지느네?

103011 @ 예, 예.

103011 #1 그 얼멩이로 문 치명.

103011 @ 계난 보리쪽에 영 붙은 거 마당에서 두드리는 거 아니 도리께로예?

103011 #1 보리 홀타 낱 고고리만.

103011 @ 아, 아.

103011 #1 홀타 낱 낱은 낱대로 무경 앓아 붙고 고고리만. 그 붕오지만 쫓어 낱. 클에서 홀트민게 홀타지주게. 경허민 그걸 도께로 나 지는 디 메타기 난 후젠 요런 줌이 어디 있느니? 메타기레 앓아대민 탕탕 쓸 낱 마다리레 쓸만 담고. 그런 시기가, 하이고 이거 무슨 시기가 나와신고 허단 보난 멧 년 안 강 미짱낱 싱거라 게.

103011 @ 예, 예.

103011 #1 아이고 참. 문 온가지 문 허명 살앗저.

103011 @ 홀타수다예. 보리클에 홀트고 도께로?

103011 #1 으, 마당질. 믱물 마당질 문 허고 에이구, 어야홍어야홍 스몓. 어야홍 어야홍.

103012 @ 경 장만헿 보리쥌 만들젠 허난 또 장만헿살 거 아니?

103012 #1 경헿 그 보리 이제 장만허면은 그거 옛날엔 물 ㄱ레, 물 ㄱ레에 가근에 물 노명, 물 노명 그거 꺾테기 뱃길 거 아니냐. 뱃기민 그걸 이젠 널엿 물려야 체 걸르주게. 널엿 명석에 앓당 짓으명.

103012 @ 물 뇌부난.

103012 #1 어, 짓으명 이제 그걸 체 갈랑 이제 거 문딱 이젠 푸는 체로 평, 푸는 체로 퍼 낱 그 보리 나면은 이제 정 ㄱ레에서, ㄱ레에서 거평 이제 밥을 헤 먹단, 기계에, 가끄는 기계 나난에 하이고 간, 보리 간 장만헿 아정 간 보리 가까단 밥 허난이 문달 문달 문달 문달. 하이고 이런 시상이 어디 시리 헤져라.

103012 @ 아.

103012 #1 하하.

103012 @ 기계빵 나난.

103012 #1 기계빵 나가난 요런 시상이 어디 시리. 경헤연 침 아이구 요추룩 살기가 좋암구나 생각헤신에게.

103012 @ 물방에 행 헐 때는 보통.

103012 #1 그때는 쉼 잇고 물 잇고 사름 엇이민, 문 이녁 쉼 아정 강 물그레에 메와근에 뽕뽕 이녁냥으로 올림만 허민 돼는디 쉼 엇이민 사름 수눌어. 동네 사름 덜 수눌영 강 물방에 밀려.

103012 @ 아, 사름들이.

103012 #1 아이고 사름덜이 밀려야주게. 그 돌은 그 스못 밀려야주. 경 밀령 허고 쉼 물 잇인 때 강 메와근에 쉼로 헤영 그디 강 문 물그레에서 쉼 내와시네게.

103012 @ 아.

103012 #1 경험 제선 돌아오면은 남방에 알지이?

103012 @ 예, 예.

103012 #1 남방에 방엿귀. 우리 그것도 잇어났저만은 어디사 문 가베신지 그것에 쉼 뽕아근에 딱 헤영 제서 헤 먹고 헛저게. 보리쪽으로 불 습고.

103012 @ 불 습고.

103012 #1 냥이 어디서. 아이고 세상.

103013 @ 보리쌀 이제 다 장만 헛수다. 다 장만 허난 이제 보리쌀로는 뭐 헤 먹을 거?

103013 #1 밥 헤 먹을 거.

103013 @ 밥 헤 먹고. 또 밥만 헤 먹어?

103013 #1 밥만 헤 먹엇주, 보리밥만 행 먹엇주게.

103013 @ 아니 뭐, 보리쌀 말고 보리 깎기 전에 보리로 게역?

103013 #1 보리로, 보리로 그거 그냥 옛날엔 우리 기자 쉼 먹을 만씩 가까단 먹어났저게. 가까단 먹영 항에 문 도로무깡에 담아 놓고 일 년 먹을 거. 일 년 먹을 거 행 미색이 담아 놔지민 아이고 영 우리가 엇어가는양 클방 나난에 그자 클방에 가민 가까단 먹고 헐 때는 허꼭 그 전엔 또 물그레 강 곶아 오민 널영 체에 걸령 또 그레에 거평 밥 행 먹고.

103013 @ 밥 행 먹영.

103013 #1 으, 경헤났저.

103013 @ 게역도 행 먹어난 거 아니?

103013 #1 아이고 보리 보깡게. 그건 보리로 보깡 게역 헤 먹주. 보리 게역으로 살앗주 여름에사. 중석이 보리 게역.

103013 @ 하하 중석이?

103013 #1 으, 중석이 보리 게역.

103013 @ 으.

103013 #1 밧디 강 일허젠 허민 게역덜 캥 먹게. 우리 게역 캥 먹게 헤영 경험 그 게역 캥 먹고 헤영. 아이고 얼마나 돌아시니? 설탕이 어디 잇느니?

103013 @ 뭐 냥?

103013 #1 사끄랭이, 사끄랭이.

103013 @ 사끄랭이가 뭐과?

103013 #1 이젠 것마라 원 미숫마루도 아니라, 미숫마루도 그후제 낫어. 사끄랭이엔 현 것이 무스거 저 유리 닳은 거 들코롱헌 것 나와낫저게, 설탕은 아니고.

103013 @ 아.

103013 #1 경혜연 그거 놔근에 게역 행 먹어낫주게. 그거 낡 게역.

103013 @ 옛날에 혹시 옥수수 삶을 때 영 놔 난 거?

103013 #1 으, 옥수수 삶을 땐 미숫마루주게. 옥수수 삶을 땐 미숫마루 낡 삶앙 먹주. 옥수수도 밧 엠에 영 낫당 아이덜 그거 간식해시네게 아이덜 간식. 돈 엇어근에 사 먹도 못허고. 아이고. 우리아이덜은 사 먹어 보지 안 헛저. 어느저르에.

103014 @ 보리 장만해나면 보리 껍질 잇지예?

103014 #1 보리 껍질게 마스락이엔 헌다게.

103014 @ 예, 마스락.

103014 #1 마스락. 마스락은 허민 굴묵 진어시네 우리가. 굴묵 진언 그걸로 굴묵 진언 살아시네게.

103014 @ 음.

103014 #1 스몫 방 얼언 무시걸로 사느니게. 그걸로 굴묵 진영.

103014 @ 보리찍은?

103014 #1 보리채는 도새기 맥이곡.

103014 @ 보리채는 도새기 맥이고?

103014 #1 으. 또 그 마스락은 보리 해난 그 마스락은 굴묵 진고.

103014 @ 굴묵 진고.

103014 #1 내불 거 엇어.

103014 @ 찻은?

103014 #1 보리 찻은 이제 그걸로 우리가 진을커 해 와이민 허고 밥 행 먹어사주. 마당에도 꿀곡.

103014 @ 으.

103014 #1 저 도새기 통에도 담고, 걸름. 걸름해시네.

103014 @ 걸름.

103014 #1 으, 도새기 걸름허고. 하이고 무시 걸로 걸름 허느니게.

103014 @ 맞아마씨.

103014 #1 게난 그자 보리찍은 나면은, 옛날도 동냥바치 보리찍 하영 눈 디 들어가낫젠 헌다. 부제칩이.

103014 @ 부잣집이니까.

103014 #1 으. 보리찍 하영 눈 디 동냥질 허레 갓젠 곤나게. 에이고 내불게 하나 있느냐게. 꿩꼬질도 나민 꿩도 같아근에 꿩꼬질 털어나민 우리 지들커 허젠 비안 맞게 잘 낫당 걸로 불 삶앙 밥 행 먹고 아이고. 저추룩 가스에서 밥 해 먹으면 무사 아프느니만은 영 아팜 대수술 살만허난 영 헤라게 살만허난.

103014 @ 고생해부난게.

102012 #1 살만허난 이추룩이 아이덜 공부시켜은에 아들 세 성제 공부시키곡
떨 두 개에, 딸 이제 죽은년은 인천 강 살고 큰년은 저 신희리 강 살았지만은 그것
덜 난 때에 요 무신 아이고 밧디 가명 우리 큰년 고생헌 아이주. 그 제일 몫이로
나난이 학교도 고등학교까지 못했저게.

102012 @ 으.

102012 #1 저 서귀서고 나왔저. 그 애기 들명 집이서 때허렌 허고. 물 들러오렌
허고. 예구 경허명 헨에 침 헛저만은이 우이 아이덜은 돈 십 원 중학교까지 고등학
교까지 돈 십 원 도렌도 안 헨 밧저. 돈도 엇고 허난. 막 불쌍허게 우리 애기덜 컷
저게. 게난 착험은.

102012 @ 게난 공부 잘 해신게. 공부도 잘 허고 아들들.

102012 #1 어게. 아덜덜은 기자 대학 허는 체 허난 저 육지 강덜 문 회사에덜
시험 뵙 들어가고. 경허고 아이고 난 늬의 애기덜 무시거 돈덜 얼마씩 주노라, 얼마
씩 주노라 헤도 우리 애기덜은 침 아버지가 어질어 노난 애기덜이 착헌다게. 아이
덜 착해. 게난 우리 손지도이 막 착해여. 우리 손지덜도 씨가 어질어 노난 하나 말
썩부리는 애기가 었나. 저 우리 큰메누리네도 오누이 셋메누리네도 오누이 죽은 것도
오누이 경헛저만은 우리 큰메누리네 아덜도 이제 대학 일년, 이년. 일년 반 사 해신
디 해연 군대에 갔다 오란 유학 가고, 또 셋놈 아덜도 이제 학교 일년 반 해연 군
대에 간 오란 또 호주 간 일년 미국 간 일년, 또 이제 중국 갔저. 삼년차 유학.

102012 @ 에이구, 하하.

102012 #1 게난 돈을 어떻헨 버슬어 당허느니. 지네 아방네가 속암저게. 애기덜
이 착해여.

103015 @ 보리 농사 짓으멍 영 생각나는 일 엇수과? 재미저난 거 등 고생해나
거 등 보리 농사 짓으멍 잇어난?

103015 #1 아이구 생각나는 건 난이 애기덜 무시거 물려주지 못허고 후제에 물
려주지 못 헨 생각. 그자 늬광 마치 못 사는 생각만 욕심 부렸주 뜯 생각은 엇어라.

103015 @ 으. 보리 농사 지을 때 고생해난 건?

103015 #1 하이고 고생말이사 곱양 무시거 허느니게. 하이고 그건 입으로 말헨
수 엇나게. 입으로 말헨 수 엇나. 입을 거 안 입고 요 모욕 헨 번 못 헤근에 고사리
강 술양 와도 저디 물 헨 바가지 치대기는 체 행.

103015 @ 음.

103015 #1 하르방도 경헛저게 물 엇이민 헨 직은 놔근에 물 적지는 체 허고. 어
느 저르에. 아이고.

103015 @ 밧디 갔다와도 썩지 못헤영예.

103015 #1 아이고, 아이고.

조농사

103016 @ 지난 번에 보리 농사 짓는 거 물어수다예.

103016 #1 으.

103016 @ 오늘은 조 농사 짓는 거 물어보쿠다.

103016 #1 조 농사인 옛날엔 조코고린 다 손으로 툫았저게.

103016 @ 으. 우선은 준비하는 거부터. 조 농사 준비허젠 허민 무슨 준비를 해야 험니까?

103016 #1 무슨 준비를 허느니 그자 좁씨 빼영 조 가는 거주게.

103019 @ 좁씨 빼는 건?

103019 #1 밧디 가근에이 밧디 강 밧 갈아 낱. 좁씨를 뺀다게 좁씨를 빼여 짹짹 허게 저 밧 가는 사름이.

103019 @ 예.

103019 #1 빼면은 우린 그걸 또게 벌레기라고 옛날에 밧 갈양 저 검질 때는 것이 벌레기엔 곤나게. 저 가는 밧디 풀 때는 건 벌레기 치레 가사. 벌레기 치레 가사.

103019 @ 아, 계난 벌레기 치레 가다.

103019 #1 으, 벌레기 치레 가사. 밧 가는 디, 저 간 후이 우리 검질 때는 것은 밧 때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벌레기 천 우리 벌레기 천.

103019 @ 벌레기 치는 거렌 헤예.

103019 #1 으, 벌레기 치는 거엔 곤나.

103017 @ 계난 조 농사 짓젠 허민 미릇 걸름 들이거나 그런 준비는 엇구나예.

103017 #1 걸름이 어디 잇느니게? 걸름 엇나.

103017 @ 으.

103017 #1 조 농사도 걸름 어디 잇느니 기자 좁씨 빼여근에.

103017 @ 예.

103021 #1 좁씨 빼영 기자 내불민 좁씨 나민 슝레 텅겨 이제.

103021 @ 음.

103021 #1 어느 때 슝느고 허민 음력 혼 유월, 유월 혼 양력은 칠월 텔 거주. 좁씨가 모종모종 나민 그걸 내불민 안 돼주게. 방수 벌영, 방수 벌영근에 하나씩 하나씩 방수 벌영 울로 요만씩 울로 요만씩 헤근에 방수 벌영 그걸 슝주게.

103021 @ 음.

103021 #1 경허민 두 불 델 때는 검질 두 불 메러 갈 때는 그 좃게 나민 씨를 슝파. 또 두 불 슝파.

103021 @ 방수 벌린다는 게 무슨 말이과?

103021 #1 씨를 영 빼면은 병텅이 정 나잖아?

103021 @ 예, 예.

103021 #1 병텅이 정 나지게.

103021 @ 예, 예.

103021 #1 거를 스파줘야 메여줘야. 옛날엔 조 스푸레 가는 거 췌 스푸레 가는 거 경 골았저게.

103021 @ 아, 계난 간격을 놓는다는 얘기?

103021 #1 으, 간격을 사이 사이 간격을 놔야 돼주 부뎡은 안 돼는 거.

103021 @ 간격 벌려 주는 거를.

103021 #1 으, 벌여 주는 거. 췌씨도 그거 좁씨도 그거 아무씨도 벌여주는 거.

103021 @ 으, 계난 방수 놓는덴 허는구나예.

103021 #1 우리 보리밭만 내 분다게. 보리는이 보리는 기자 뚫결름에 접아 낱 툃툃툃 방수 낱 췌아 놔 불민 그거는 안 스파. 경헌디이 저 좁씨는 멧 번 스파줘야 현다게.

103021 @ 계민 좁씨는 스파주젠 허민 검질을 막 여러 번 메야 돼쿠다예.

103021 #1 아고 여러 번 메야주.

103021 @ 멧 번이나 맵니까?

103021 #1 세불은 메야주.

103021 @ 아, 세불은 맵니까?

103021 #1 세불은 메야사. 경혜연 마지막에 그 조낭이 이만이 혜영 짓으면은 그 조낭이 또 뭐 ㄱ라지엔 현다. 조가 아니고 조코고리 님은 ㄱ라지.

103022 @ 풀 이름.

103022 #1 풀 이름이 ㄱ라지. ㄱ라지렌 혜근에 우리 ㄱ라지 메레 가 오고.

103022 @ 조팃디 메는 풀들은 ㄱ라지 말고 다른 풀 뒜가 잇수과?

103022 #1 아이고 다. 잡풀 다 다.

103022 @ 계난 이름들.

103022 #1 이름덜 뒜 기자 지는쿨 진쿨 뒜 소행이풀 다, 검질 일름이 물룣, 하 주게 하.

103022 @ 음. 제완지도 나고.

103022 #1 아이고 그건 원원 기본이고 제완지는. 제완지는 기본이고 물모작쿨이 여 득쿨이여 경허민 거 저 요새 베체기쿨 그런 거는 췌 피주게 영 췌 평. 그 옛날 에 우리 두른 때엔 췌싸움 영 야개기 걸렁 췌 피민 야개기 걸렁 그런 췌싸움 허고. 그런 풀 밧디 나고 계나제나 아이고 검질이 멧 가지라. 검질 여라가지. 제완지여 진 쿨이여 뒜 원 원. 저 무신 가시리풀이여 검질 일름이 곧고 말 나위 엇주. 이제도 그 거주 이제도 낱 밧디 물룣만 췌 저베시네.

103022 @ 무사 췌 저베신고 물룣은예?

103022 #1 우리 미짱냥 싱경 제초제 혜가난 물룣이 췌저라게. 아이고 옛날은 물룣 췌 제우지 못혜영 보리밧디 물룣은 나 불민이 그거 메젠 막. 보리 일어나 불고 막 어려와났저게. 경헨 혜나신디 난생이쿨. 난생이 알지.

103022 @ 예.

103022 #1 이제 저 이제 무시거엔 골아라 거. 난생이엔 안 골안.

103022 @ 어쨌든 난생이쿨 옛날에예.

103022 #1 으, 옛날에 난생이엔 곧주게. 난생인 우리 캐여당 먹는 거.

103022 @ 거 먹는 것과?

103022 #1 아이고 거 데우청도 먹고 국 끌영도 먹고. 난생이엔 행.

103022 @ 아.

103022 #1 경헨 우리 그거 해당 먹고. 아고 옛날 어디 느물이 잇느니. 드룻느물 스몫 드룻느물이엔 헨 거 느네 아무 거엔 곶아도 몰를 거여.

103022 @ 무사마씨 드룻느물 김치 좋아합니다.

103022 @, #1 하하.

103022 @ 드룻느물 김치.

103022 #1 잘도 씨, 씨.

103018 @ 재미 조는 언제 갑니까?

103018 #1 조는 스월덜 갈암실 거라.

103018 @ 음력 스월?

103018 #1 으, 음력 스월에 조는 갈암실 거여. 보리 옛날에 보릿그르에 조 갈아, 조 갈아 헤낫저. 보리그르에 조 갈아, 조 갈아 헤나신디 보리가 옛날은 이 스월 망중에가 윈 스월 망중에 한창 보리 헨덴 헨다. 경헨 허는 땀에 망중에 세주. 망중에 반 그슬 헤여 반 그슬 헤여 옛날 어른덜 곶아낫저게. 경허난 그 망중 웨민 이제 조도 갈저, 산디도 갈저, 풋도 갈저, 콩도 갈저 망중 브다가민 이 봄이.

103018 @ 음, 봄이.

103018 #1 으, 봄이가 문 여름 농서난. 여름 농선. 그자 보리만 겨울에, 시월덜에 갈주.

103019 @ 계민 조는 씨를 뿌려 놓고 가는 거라?

103019 #1 으, 짹짹 씨영 문 곶고루 곶고루 빼여. 다 빼주. 겨난 접아 놓는 거엔 헨 건 므멸, 므멸도 불경에 서경 접아 놓나게. 접아 놓는 거엔 헨 거 보리, 므멸 이제 영 접아 낱 가는 거.

103019 @ 나머지는?

103019 #1 나머지는 다 빼여. 콩도 빼고 보리 그 저, 풋도 빼고 다 빼여.

103019 @ 어쨌든 밧 갈양 씨 뿌리는 게 아니라.

103019 #1 으.

103019 @ 씨 뿌령 밧을 간다는 얘기라예?

103018 #1 이 저 조 농서는 밧을 초불 이 보릿그르에 헨 갈아 놔근에 씨 뺀다게. 보릿그르 갈아 놔근에 스몫 별레기 치고. 문 묻어져, 별레기 검질 검질 문, 문 검질 치고.

103018 @ 경허난 검질 치는 게 일이구나.

103020 #1 어. 경헤연 문 문 에이고 옛날에 므쉬 신 집은 산디나 조나 갈민 블러낫저. 므쉬로.

103020 @ 음.

103020 #1 잘 불러야 그 곡석이 잘 웅텐 헤영. 경헌디 엇인 집인 잘 불리지도 안 허고 그냥 같아.

103020 @ 그럼 삼춘넌?

103020 #1 으, 우리 불러 보지 안 헛저. 므쉬 엇이난.

103020 @ 껏지도 안 허고.

103020 #1 껏음은 므물팻 우린 조빏도 흐썻 섬비질은 꿩짱낭, 꿩짱낭 헤영 섬비질은 헤낫저.

103020 @ 아, 꿩짱낭으로.

103020 #1 으, 꿩짱낭 헤영.

103020 @ 계민 씨 뿌렁 갈앙 검질 줍는 거.

103020 #1 벌레기 치레.

103020 @ 벌레기 청 경헨 섬비로?

103021 #1 으, 끝 허민 그계 또 유월, 음력 유월썸 나민 조가 이제 나. 파룻파룻 파룻 나가민 아이고 조 스까사 조 스까사.

103021 @ 하하.

103021 #1 조 스꾸레 가사. 경헤연 그거 문 스꾸레 가고.

103021 @ 예.

103021 #1 꿩 빠영 꿩 나민 꿩 스꾸레 가고. 아이고 놀 시간 어디 잇이니게. 예 구에구.

103021 @ 계난 조 스꾸렝 강 검질이영 메영 흐 세불은 메는 거라예.

103021 #1 어. 세불은 멘다.

103021 @ 방 수 놓으멍예.

103021 #1 어. 방수 노멍. 부멍은 안 돼는 거. 부멍은 안 돼. 그자 방수 낱 드무 룡 허게 방수 놔야.

103023 @ 예, 예. 경헨 이제 검질도 다 멩, 스꾸는 거 다 행 조가 컷수다. 조 켩 노랗게 익으난.

103023 #1 노랗게 익으민 조코고리가 잘 웅 헨 헤엔 기자 조코고리가 흐뽀씩 알러 레 노룻허주게. 노룻허민 기자 그거 비영. 이젠 그거 손으로, 앗앙 손으로 문 호미로 툷아.

103023 @ 음.

103023 #1 문 췌여근에 조근조근 췌영 호미로 조근조근 툷앙 이젠 걸 방에에 툷ㄱ레에도 가근에 곶아나고 우린 마당에도 영 헤영 못아나고 그 조는 또 아주 옛 날엔 남방에, 남방에서 췌 먹어나시네게.

103023 @ 그럼 조 빌 때, 보리는 영 비영 흐 며칠 툷리잖아예?

103023 #1 으.

103023 @ 조는 어떻헤?

103023 #1 조도 몰려.

103023 @ 조도 몰려.

103023 #1 으, 늘 거, 늘 거 아저 땡기지 못한다. 흥썰 허민 조칙도, 우린 조칙 조칙 헛저 그 조 땡가리가.

103023 @ 예, 예.

103027 #1 조칙을 므쉬 질루민 그걸 므쉬 맥여사주게 조칙은. 므쉬 맥이는 따문 파삭 들런에 그걸 놀엇당 낄지도 안헤 낫저. 므쉬 맥이젠 조칙은.

103027 @ 음.

103027 #1 조 남땡인 경 소나 몰이나 경헨 맥이주.

103027 @ 먹어?

103027 #1 아이구 그거 맥연 살앗주 출만 맥인 게 아니.

103027 @ 으.

103027 #1 그 곡석 그거 맥이는 거.

103023 @ 계난 메칠을 몰렁 무릅니까?

103023 #1 날 좋은 땡 기자 이런 뱃 맞앙은 오늘 비면은 넬 모리썸은 무꺼.

103023 @ 무꺼근에?

103023 #1 무꺼다근에 놀어. 놀어야주게 거 흠치 못 허는 따문. 놀어두면서 그 걸 툃주게 툃아.

103023 @ 놀어 놓고 조금 여유가 잇이민?

103024 #1 으, 밧디셔도 툃고 집이 실러다근에도 툃고. 고고리로 하나씩 그걸 수정 세명 툃아사.

103024 @ 호미 세워낭예?

103024 #1 으. 밧에 영 호미 쟈져듬서 툃아근에 영. 영 기차근에 농곡 농곡. 그 고고리는 들벡이에 가근에 들벡이에서도 허고 도께로도 마당질 헤영 문 못고. 옛날 에 얼멩이. 얼멩이 알아지크냐?

103024 @ 예, 얼멩이 알아집니다.

103024 #1 그 얼멩이 헤영, 대얼멩이 헛당 그 얼멩이로 치명 두드러 가명 문 벵 립에 불려 가명.

103024 @ 음.

103024 #1 불려사주 그거. 불리당 버친 건 푸는 체로 푸곡. 문 푸진 못 허주게. 경헤근에 허여당. 아이고 이 들벡이서 ㄱ는 것도 경 아주 옛날엔 남방에서만 저 먹 엿주. 들벡이서 ㄱ는 것도 신식 나올 때라, 나올 때라 아이고. 남바에서 ㄱ루 썸앙 그 썸썰 내와근에이 남방에서 ㄱ루 썸아근에 문 식게 멩질 헤나시네게. 곤썰이나 나룩썰이나, 나룩이 어디셔. 논 엿인 사름은 산디.

103024 @ 음.

103024 #1 우리 조 가는 디 흥착 산디 갈앗당 제서 헤 먹젠 그 산디. 산딘 클에 이제 영 헨 그 보리 홀트는 클에, 보리 홀트는 클에 헤영 홀탸다근에 또 경 안허민

쿨 엇이민 그것도 손으로 헤영 도계로 두드려근에 쓸 멘들고.

103024 @ 음.

103025 #1 남방에에서 또 쓸 멘들고. 옛날은 쓸 멘들도 어렵지 안 헨다 남방에서 세 사름이 지주게. 세 사름이 남방에서 헤영 지어 가명 혼 편이서, 수눌영덜 수 늘명 헤영 허민 혼 편이서 치여 가명 대체로, 대체로 치여 가명 또 여물은 또 낱 또 못아. 경허민 그루 뵈아지지 안 허영 쓸이 나.

103025 @ 음.

103025 #1 그걸 툃툃 못아가민. 경허명.

103025 @ 조 코고리 툃아난 다음 그 조 코로리를 물방에 강 지기도 허고 도계로.

103025 #1 으, 도계로도 못기도 허고.

103025 @ 어느 게 편협니까?

103025 #1 물방에가 편허주게. 아멩헤도.

103025 @ 예.

103025 #1 물방에에 뵈뵈 돌아강 저 쉼나 이땅 밓갈레 안 간 뵈 물방에에 영 강 멩에 썬우민 쉼도 뵈뵈 돈다게.

103025 @ 예.

103025 #1 쉼가. 뵈뵈 돌민 기자 그디서 비차락으로 썬어 올리민게 코고리 못아 지주게.

103025 @ 아, 코고리 못아져?

103025 #1 으, 복삭 못아진다. 경허민 그디서 불리든 푸는 체로 푸든 불리지 못 허민 그건 푸는 체로 허명 옛날은 그게 일이주게.

103025 @ 경허나민 조 코고리 영 툃아넌 거잖아예. 밥 헤 먹젠 허민 다시 장만 해야 헐 거 아니?

103025 #1 아이고 밥 헤 먹젠 허민 그거 남방에서 또 지어.

103025 @ 지어?

103025 #1 으, 지어사. 보리는 남방에서 헤영 그 쓸을 체 갈라근에 허면은 그레에서 거평 먹고 조는 이제 남방에서 저사.

103025 @ 아.

103025 #1 경허난 이제 물그레에서도 또 그 줍썰 내운 걸 또 강 굴수도 잇주. 남방에서도 남방에서도 헝 굴아근에. 죽은 건 못 허고 하사 것도.

103025 @ 그니까.

103025 #1 만혜사.

103025 @ 보통은 집이서 헝 먹는 거 남방에에서 헤 먹는데 그걸 물그레에 강 다시 굴 수도 잇는 거?

103025 #1 어, 어.

103025 @ 보리썰 헐 때는 보리썰 장만헐 때는 보리에 영 물 적지명 허잖아예?

103025 #1 어게 물그레에서 헐 때 물그레에 물 놔서 그거 뱃겨지주게.

103025 @ 조도 경험니까?

103025 #1 아니, 존 그대로.

103025 @ 그대로.

103025 #1 그대로 헨 먹었저 우리. 보리는이 물 놔야 물그레에서 물을 놔야 뱃겨지주 물 안 놓민 안 뱃겨져. 꺾데기가.

103025 @ 음.

103025 #1 경헨 물그레에서 빙빙빙 데우민 침 보리쌀이 문덜문덜문덜 허게 체 막 무시거 허게 허주게. 경허민 그걸 이제 문 체로, 푸는 체로 풀다풀다.

103025 @ 흐흐

103025 #1 하하. 하이고 허는 거 아이덜 이제, 이제 그거 험시민 침 이제 그거 험시민 침 볼만 헐거여만은 이제 허는 디가 엇주게.

103025 @ 계난예.

103025 #1 이젠이 에이고. 경허단이 우리 막 설러가젠 헐 때에 미짱냥 싱거 갈 때에 브더가사 메타가 낫저게.

103025 @ 음.

103025 #1 기계가 아이고 그뎨 막 살만 나라마은 미짱냥덜을 싱거라. 아이고. 그전에서게 보리 조 갈아 먹젠 허민 스몛.

103025 @ 음

103025 #1 아이고 믱물 걸름 믱물갈 뎨 막 더운 때 헨다게.

103067 @ 예.

103067 #1 막 더운 때. 양력 혼 칠팔월에 그추록 헨 그 믱물을 갈젠 허민 밤이 제사 헤 먹어근에 아이고 믱물 걸름 놓젠 허민 더우카부텐 쉼도 스몛 더우민 세 낸 다게 세 내여.

103067 @ 으.

103067 #1 세 닷발은 내주게 경허민 밤이 가근에 그거 이제 제사, 이제는 초저 닷이 제사 헤 먹는다 옛날은 혼 시에 허지 앓허느냐. 혼 시에 제 헤 먹영이 설거지도 밀려뒤근에 그 믱물 허젠 허민 믱물팻 허레 가사, 믱물팻 허레 가사. 아이고 이제 믱물 갈레 가사. 경혜영 강 북도록 가근에 그 믱물 걸름 밤이 강 꺾아 놓고 헤 낫저.

103067 @ 으, 그 밤이?

103067 #1 어게. 더우민, 들 혼허민 가근에 밤이 헤낫저게. 쉼가 더웁 안 돼주게. 막 쉼가이 더우민 밧 갈레 가민 세 딱 닷발은 내영 스몛 흘강흘강 헤가민게 사 름보단도 쉼가 막 더웁.

103067 @ 계민 그 밤이 제사 헤 먹영 혼 시에.

103067 #1 어, 밧 갈레 믱물 밧 허레.

103067 @ 믱물 밧디 강 꺾아 놓고 쉼도 그때 밧 갈아?

103067 #1 으, 경혜영 므물씨에 불경에 혜영 서꺼근에 딱허게 놔 뿔당 밧디 문 혜영 그거 문 버물영, 오즘 제왕 놔둔다게. 경헨 오즘 제왕 아이고 옛날이사 오즘 혼 방울이라도 향 낱 받아근에 그걸 걸름으로 헤시네게.

103067 @ 예.

103067 #1 경헨 허난 그거 밧디 강 므물씨 버물영 낫다근에 기자 그거 영 혜영 출구덕, 출구덕 끈 들앙.

103067 @ 예.

103067 #1 그레 답앙 메여듬서 툃툃툃툃.

103026 @ 으, 좁아 놓는 거. 므물 농서에서 다시 한 번 물어 볼 거고예. 좁쌀 아까 경헨 장만헛잖아예. 좁쌀 장만헌 걸로 뭐 헤 먹읍니까?

103026 #1 밥 헤 먹주 무시거.

103026 @ 밥 행 먹고 또?

103026 #1 떡 헤 먹고.

103026 @ 떡 헤 먹고.

103026 #1 친떡.

103026 @ 친떡?

103026 #1 으.

103026 @ 조로도 친떡 헤 먹어?

103026 #1 어게. 경허민 모인 좁쌀, 허린 좁쌀 헛저.

103026 @ 으.

103026 #1 경허민 허린 좁쌀, 이제 혼 펜이 흐쓸 갈앗당 떡 헛 땀 모인 좁쌀 허린 좁쌀 경헨 두 가지로 헤낫저 옛날엔. 두 가지로.

103026 @ 예.

103026 #1 허린 좁쌀은 떡이 이제 침 출떡 거치 흐리고 모인 좁쌀은 그 떡이 헤씩허주게. 허린 좁쌀이영 모인 좁쌀이영 혼 펜씩 낱 떡 행 먹고.

103026 @ 으.

103026 #1 곤쌀은 또 영 제펜이라고 그 저 친떡 우이, 저 좁쌀 친떡 우이 영 흐쓸 그레 입정.

103026 @ 예.

103026 #1 입저근에 혜영 풋 놔근에 상에 올리고.

103026 @ 아.

103026 #1 그건 고급 떡으로.

103026 @ 게난.

103026 #1 우리 먹는 거는 조떡만 행 먹고.

103026 @ 아.

103026 #1 조떡, 조떡 허멍.

103026 @ 아멩헤도 곤쌀이 더 어려운 거라예?

103026 #1 아이고, 야 곤썰이 어디 있느니게. 옛날 부제는 나룩이 잇엇저게.
 103026 @ 예.
 103026 #1 저 논이.
 103026 @ 예.
 103026 #1 우리 논 엇인 사름사 영 혼 펜이 가근에 저 조 혼 착, 산디 혼 착 같
 아사 제서 헤 먹젠 허민 그걸 산디 헤근에. 아이고 경허민 산디 졸멩이 헤근에 줍
 썰에 서경 밥 허민 요런 들미 어디시니. 이젠 나룩밥도 무시것에 먹으렌 헤도이.
 103026 @ 으.
 103026 #1 하이고 맛좋아. 그럴 때 아이고. 잘도 곤썰, 곤썰밥이 어덧느니, 곤썰
 밥. 육지사름덜은 아멩헤도 굶어도 나룩밥만 먹어실거여. 경 조밥 안 먹어실거여.
 103026 @ 하하하.
 103026 #1 아니, 우리 제주도만 경 헤실 거라. 우리 제주도만.
 103026 @ 아니우다. 거기도 막 피밥도 먹고 헛수다.
 103066 #1 이 밧 곳인 디 피 갈아근에이, 우리도 피밥 먹어났저. 아이고 피 남
 방에서 피썰 내우젠 허민 잘도 어려와.
 103066 @ 아.
 103066 #1 얼마나 어려와나신이 남방에서. 조는 쏘이 제기 나고 조는 질겨.
 103066 @ 질겨?
 103066 #1 으.
 103066 @ 계민 멧 번을 갈아야 되는 거?
 103066 #1 아이고 잘도 잘도 피는 침 씨 하나도 엇이 허젠 허민 어려워났저, 피
 는.
 103066 @ 으.
 103066 #1 계난 피는 곳인 밧디 갈아났주게.
 103066 @ 피는 곳인 밧디 갈아난?
 103066 #1 으. 피는 곳인 밧디 갈아났저. 계난 우린 핀 안 갈아봤저. 영 우린 핀
 안 갈양 기자 저 밧도 엇주만은 저 조 허고 보리 허고 콩 허고 감저 싱그고 기자
 믹물 갈고윈 그거.
 103066 @ 으.
 103066 #1 혼 펜이 풋 같고. 콩도 혼 방울 같고.
 103066 @ 맞수다.
 103066 #1 꿩도 혼썰 같고. 혼 밧 아정이라도.
 103066 @ 맞수다, 맞수다. 혼썰, 혼썰.
 103066 #1 경허영 살앗주. 이 밧 한 사름덜은 피 농서도 막 헤났저.
 103066 @ 으, 음.
 103066 #1 피 농서도 막 헤났주 경허영 피밥 맛좋아.
 103026 @ 아까예 조로 떡 헌덴 헛잖아?

103026 #1 으.

103026 @ 시리떡?

103026 #1 으, 시리떡.

103026 @ 시리떡. 그 때 그거 시리떡이렌 불럿수과 제펜이렌 불럿수과?

103026 #1 제펜은 흰떡ㄴ라 제펜.

103026 @ 흰.

103026 #1 으, 곤썰로만 현 거 제펜. 제펜이엔 곤고. 조침떡, 조침떡 헤낫주.

103026 @ 조침떡.

103026 #1 으.

103026 @ 조침떡. 조로 만든 침떡.

103026 #1 으, 조침떡이엔 허고 히린조침떡이엔 곤고.

103026 @ 게민 곤침떡이엔 안 곤고?

103026 #1 곤침떡이엔도 곱아주만은 기자.

103026 @ 제펜?

103026 #1 으, 제펜, 제펜. 곤침떡이엔 현 건 곤건디 오래지 안 헤서. 풋 놓고 곤침떡 나온 때에 곱앗주. 옛날엔 경 곤침떡만 행 올려져시냐게. 하도 어려와 노난.

103026 @ 예.

103026 #1 게민 좁썰떡 우이 곤썰 ㄴ루 흐썰 놔근에, 제펜이엔 현다. 그것ㄴ라. 제펜으로 올려 낫주게.

103026 @ 으.

103026 #1 바레기 좋게시리.

103026 @ 조로는, 좁썰로는 침떡말고 다른 건 안 헛수과? 다른 떡은?

103026 #1 히린 좁썰은 오메기 행 술 헤낫저게.

103026 @ 아, 오메기.

103026 #1 으, 오메기 행 나도 약술도 헤 나고 술도 헤 나고.

103026 @ 게난 조로 술, 감주렌 헛니까? 거 헤 먹어난?

103026 #1 감주사 늘 허주. 이제도 난 좁썰 사단 감주 현다.

103026 @ 아, 늘 헤마씨.

103026 #1 으. 나 늘 현다.

103026 @ 기.

103026 #1 이 정월 멥질에는이 침 옛날 할망이난에 저, 아이들은 감주 허지 맵서, 허지 맵서 허여도 경해도 세배덜 오주게.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건 디가 멥 년 돼주만은 시어머니 신 때덜은 문 세배덜은 온 따문 곱감지 행 내 노민 곱감지 먹나 게.

103026 @ 으.

103026 #1 아이고 옛날은 설탕도 엇어근에 사끄랭이 낱 행 먹엇주만은 이제 곱 놔근에 딸럼네게. 곱 낱.

103026 @ 으.

103026 #1 꿀 뇌근에 허린좁쌀 혼 뉘 반 허고 골 혼 뉘 반 허고 혜근에 감저밥 혜근에.

103026 @ 그거 만들어 봅서. 골감주 만들 때는 어떻 헤여.

103026 #1 어떻 헤여. 그 저 허린 좁쌀 해당 밥 헤영.

103026 @ 밥 헤영.

103026 #1 밥 헤영 이젠 그걸 이젠 문작문작문작 저 그걸 밥 주격으로 짓어. 골 뉘.

103026 @ 으.

103026 #1 짓어근에 솟디 행 뇌두민 부각허게 쉰다게.

103026 @ 으.

103026 #1 으. 경허민 손으로 딱딱 쨍질멍 줌진 사이에 그걸 걸러. 걸렁 그걸 딸려. 딸리민 감쥐가 오죽 맛좋느냐게.

103026 @ 아, 게민 떡을 만들양 영행.

103026 #1 떡 안 만들아. 감주허는 거는 밥 헤영 그자 짓어.

103026 @ 짓어.

103026 #1 어. 술 허는 거나 오메기 멘들주.

103026 @ 아.

103026 #1 술 허는 거는 허린조 오메기 혜근에 쨍쨍 들양 언물예, 더운물도 안 허는 거라. 언물예 들양 기자 동글동글 헤 낱 숲양 문두데경 그자 그건 술 허는 거 아니냐.

103026 @ 게난 삼춘 술도 멘들아 보고.

103026 #1 어. 게난 나 끈지 안 허냐. 고소리 뇌 두난 술 다꺼난 고소리 뇌 두 난 도둑 맞췄젠.

103026 @ 아이고. 게민 고소리에, 그 술 다끄는 고소리에 부분 명칭도 알아지쿠 과?

103026 #1 어게.

103026 @ 그거 나중에 다시 물어보쿠다예.

103026 #1 고소리 층예 층예 툭 허게 뇌근에 저 범벅이고 그 떡으로 만들양 툭 툭툭 사이에. 요거 영허민 요 사이에 떡으로 행 요 사이에 툭툭툭 행 막으민게 또 즈룩 든 고소리 잇지 안 허느냐게. 즈룩 든 고소리 느 모르크냐?

103026 @ 여기 사진 잇수다.

103026 #1 어, 이실거여게. 이 저 경허난 저 그거 허여근에 문 막아근에 짐 안 나가게 막으민게 스몯. 이거 고소리 아니냐.

103026 @ 예, 예.

103026 #1 요거 고소리민 요거 즈룩 아니냐? 경허민 요거 우이 거 들렁 요레 앓지민 이 짐을 난다. 떡 만들아근에이 그 ㄱ루로 떡.

103026 @ 이거 두 개는 떼지는 거?
103026 #1 어게.
103026 @ 아, 떼지는 거.
103026 #1 이거 우이 건 앓아 이레 더끄는 거.
103026 @ 아, 떼지는 거.
103026 #1 경헨 요레 특허게 벙허게시리 떡으로 막나. 고소리.
103026 @ 예, 예.
103026 #1 경허민 요레 즐즐즐 술은, 청준 느리는 거 아니냐.
103026 @ 아.
103026 #1 경헨 느리는 거 아니냐.
103026 @ 떡은 어디 넣는 거라?
103026 #1 떡은게 멘들아근에게 술은 멘들아 낱 이레 낱 딸려 가민 술이 짜지는 거주게.
103026 @ 아.
103026 #1 퀘민, 퀘민 짜지는 거. 퀘민 짜지는 거.
103026 @ 아, 퀘민 짜지는 거. 여기를.
103026 #1 이거 나 문 헤낫저.
103026 @ 이거 뭐렌 부릅니까? 이 부분을?
103026 #1 이거 고소리 즈룩 돋은 거난게 고소리 그 이거ㄴ라 무시거렌 곶아낫저만은 나 못 튼내켜.
103026 @ 예, 예. 나중에 이거 이름만 따로 물어 보쿠다.
103026 #1 이거 이름 뭐, 고소리 윈. 무신 그것ㄴ라 무시거엔 헤 낫저만은.
103026 @ 어쨌든 좁쌀로 밥 만들고 떡 만들고 술 만들고 헤난 거예?
103026 #1 으.
103027 @ 경헨 씨난 조칩은?
103027 #1 조칩은 쉼 주젠.
103027 @ 쉼 주고.
103027 #1 불도 안 습아 봐서. 보리쪽만 흐쨌 습앗주.
103027 @ 으, 으.
103027 #1 옛날 보리쪽으로 밥 헤 먹고 밀쪽으로 밥 헤 먹고. 또꼬망도 보리쪽으로 강 쏘고.
103027 @ 으.
103027 #1 아이고.
103027 @ 하하하.
103027 #1 밀쪽으로. 보리쪽은 흐쨌 경헨도 보도라워. 그 밀쪽 흘타나민 또꼬망 쏘 거 엇이민 밀낭 앓다 노민 스못 아이덜은 문 둘러레 쏘어불고. 아이덜은, 아이덜 클 땀 문 둘러레 또꼬망 데영 문 쏘영 오라불고 경 헤낫저.

103027 @ 아. 아이고 아파.

103027 #1 보리쪽으로 우리 또꼬망 쓸영 살았주게. 아이고 이제 삶이사 얼마나 좋아시니?

103027 @ 예, 얼마나 좋아. 좁씨는 어떻 보관을 험니까?

103027 #1 보관이명 말명 기자 좁씨 기자 파씩 물령 항에 담양 놔두민 어떻 안 하여.

103027 @ 으. 좁쌀로 갈양 아니지예?

103027 #1 아니, 아니. 조로.

103027 @ 조로.

103027 #1 껍데기로.

103027 @ 껍데기로예.

103027 #1 으. 껍데기로 험다게. 무신 조 쓸 내왕 험 리가 잇이냐게. 껍데기로 허는 거주.

103027 @ 음.

103025 #1 참. 그 허영 먹을 때사. 그뎨 쓸 내우젠 허민 스뎨. 조반쓸 곶아사, 저녁쓸 곶아사. 경 곶앗저게.

103025 @ 하하하.

103025 #1 조반 헤 먹을 거 곶아사.

103025 @ 그냥 그때 그때?

103025 #1 으, 그때 그때.

103025 @ 미룻?

103025 #1 바뻘, 바뻘.

103025 @ 바뻘?

103025 #1 험저 헤사 밧딜 거주게.

103025 @ 으.

103025 #1 애기 그때 주랑주랑. 애기도 들 때고이. 애기 난 때 짬은 어느절에 줍이나 자 봐시믄. 아이고 또 팔월 나민 그 스뎨 출 비레. 그 산에 애기 구덕 지어 앳양 산에 가고. 점심 지곡. 애깃구덕 지고 에이구 이추룩도 호강 허영 사느냐.

103025 @ 흐흐. 게민 조 종류는, 좁쌀 종류는 아까 흐린조.

103025 #1 으.

103025 @ 모인조 두 개뿐?

103025 #1 으, 우리 두 개뿐 헛저.

103025 @ 두 개뿐예. 다른 건 엇고예.

103025 #1 으.

콩 농사

103029 @ 예, 이번엔예 콩. 콩 농사 물어보쿠다.

103029 #1 콩 농사 무시거. 콩씨 짹짹 빼영 놔 두민 기자 콩이.
103031 @ 저 콩도 거름은 안 허는 것과?
103031 #1 걸름이 잇어게. 원 무시거 그자 불껍이나 흐썰 허영 침 줌베끼 무시거 걸름사 시냐게 옛날에사게. 걸름이 엇으민 밧디만 강 기자 빼작빼작빼작 흰콩도 갈아나고 푸린콩도 갈아나고.
103031 @ 으.
103031 #1 기자 흐뽀 건 딴 오줌이나 강 치대기민 흐썰 가물가물 크고.
103031 @ 으.
103031 #1 경해낫저게. 게난.
103029 @ 콩 농사 지을 때도 무슨 준비는 따로 안 해낫어예.
103029 #1 어게. 준비 안 해 봤저. 준비가 잇이나게. 옛날엔 몰망 주장 해근에.
103029 @ 예.
103029 #1 바당에 강 몰망을 해당 기자 밧디 깔앗저게.
103029 @ 게민 그거 콩밧디 깔아난 거?
103029 #1 어 저 콩밧디도 깔고 조밧디도 깔고 아무디라도 깔게 웬 거주만은 해 오지 못헿게. 허여 오지 못헤영.
103029 @ 아.
103029 #1 바당에 강 휘는 사람은 막 휘영 강 침 그 몰망을 비영 왓주만은 우린 훗 중도 몰르고 그거 대풍 불영 올려사.
103029 @ 음.
103029 #1 올린 거 가근에 헤영. 짓도 반으로 가근에이. 이녁만 허지 못 현다. 반으로 강 갈랑 돌류앗당 시꺼당 감저 싱그고 해낫주게.
105001 @ 게난 삼춘 바닷일도 좀 해낫수다예?
105001 #1 바닷일은 그자 그 몰망허레 흐썰 땡김 뿐. 난 물질은 못 허고.
105001 @ 물질은 못 허고.
105001 #1 으.
105001 @ 게도 바다에서 나는 거 뭐 나는 진 알아지지예?
105001 #1 툄, 메역게. 저, 그 무시거니 저 것글라 폰레.
105001 @ 으.
105001 #1 또 저 미엔 현 거 무시거 우미 딸려 먹는.
105001 @ 으, 으.
105001 #1 그거 허레 땡겨나고.
105001 @ 으, 으.
105001 #1 또 미엔 현 거도 저 진진현 거 ㄴ는 ㄴ는 현 거 그거 해당 국 끌렁 먹고. 원 승키가 엇이민 옛날에 그런 거 허레 바당에.
105001 @ 나중에 물어보쿠다예.
105001 #1 으, 문.

103030 @ 콩 농사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콩도 그자 봄이다. 봄이, 봄이. 음력 혼 스월달에.

103030 @ 음력 사월에.

103030 #1 으, 그때 콩 가는 거.

103030 @ 마찬가지로 콩씨.

103030 #1 으, 콩씨나 기자 께씨나 그때 원 께가 쪼금 말째 갈 거여. 께씨가.

103030 @ 계난 빼여낭 밧 가는 거예?

103030 #1 으, 으.

103031 @ 콩 거름 안 허고.

103031 #1 걸름이 셔사주게. 걸름 엇이난에 글후제 비료 난 때에 기자 비료 난 때에 그냥 비료. 경험가난 비료 낮주. 복합비료산디 무슨 비료산디 나민 기자 강 흐 쫄 짹 짹 빼여근에 그자 콩씨 그 우터레 빼여근에 기자 갈양 내볼민.

103033 @ 으, 으. 콩밭디 검질은 몇번이나 맵니까?

103033 #1 콩밭디 검질도 두 번은 메사. 혼 번 메영은 안 웬다. 두 번은 메사.

103034 @ 예. 계민 콩밭디는 어떤 검질덜이 납니까?

103034 #1 아이고 콩밭디도 기자 조팠디 나는 거 난다게. 기자. 뭐 원 새비눔 꺾튼 거 비눔쿨 꺾튼 거 원 원 제완지, 빈쿨. 원원 아니 나는 거 엇이 잡쿨 나.

103034 @ 으. 아까 무쳐 먹어난 게 뭐라?

103034 #1 무쳐 먹어난 거 난생이.

103034 @ 난생이.

103034 #1 으, 난생이도이 비눔쿨. 비눔쿨도 무쳐 먹고 난생이도 무쳐 먹고.

103034 @ 아.

103034 #1 물룻도 옛날엔 배고플 땐 물룻도 헤단 딸런 먹어낫주만은 우린 물룻 딸런 먹어보진 안 헛저. 놉의 건 먹어 봤저. 나 보리쌀 쥘 바뀐단에. 물룻 딸린 거.

103034 @ 으.

103034 #1 흐쫄 쓰랑힘은 헤도 것도 그것도 좋아. 물룻 딸린 것도.

103034 @ 아, 물룻도.

103034 #1 으. 물룻 먹어낫저게. 어른덜 꺾라 들어보라 물룻도 옛날엔 물룻 딸렁 먹고 저 산마. 마 과당, 산마.

103034 @ 으.

103034 #1 쉼 꺾꾸레 가민 산마 문 과단 먹고.

103034 @ 쪼그만 헛 거 아니 산마? 요만한?

103034 #1 아니 커. 빨리. 그냥 생차도 먹고. 산마도 큰다게. 경험도 먹고. 아이고 옛날에사 배고프민 멜순 있지 안 허냐, 멜순.

103034 @ 예.

103034 #1 느네 알아지크냐?

103034 @ 예, 예. 알아집니다.

103034 #1 멜순. 그거 거경 문 집이 오랑 데왕 떡곡. 생차도 먹고.
 103034 @ 으.
 103034 #1 멩게 문 꺼꺼당 떡곡.
 103034 @ 멩게는 뭐라?
 103034 #1 멩게는 흐쓸허민 멩게낭 가시, 멩게낭 가시. 이젠 원 멩게낭 가시가
 엇는디 멩게엔 현 게 잇저게.
 103034 @ 멜순도 행 먹고.
 103034 #1 멜순도 행 먹고, 멩게도 우리 문 거끄명 먹어난.
 103034 @ 멜순이나 멩게나 다.
 103034 #1 틀린 거, 틀린 거.
 103034 @ 게난 다 무청 먹어난 거?
 103034 #1 어. 멜순은 무청 먹어났저. 멩게는 우리 기자 생차 꺼경 기자 쉼
 이레 가민 꺼경 먹고.
 103034 @ 으.
 103034 #1 멜순은 우리 꺼경당 데왕 먹나. 역불 그건 허레 가주.
 103034 @ 예.
 103034 #1 멜순은. 들굽 혜단, 합순 꺼꺼단 먹고. 들굽 철에 들굽 혜단 떡곡. 아
 이고 산에 가민 고사리 거끄레 가민 우선은이 승키 따문이 고사리 보단 들굽을 더
 멩심헨 혜났저. 그때는.
 103034 @ 하하.
 103034 #1 승키허젠. 승키게. 오란 국 끌령 먹고 데왕도 먹고. 얼마나 스몯.
 103034 @ 아.
 103034 #1 요새 들굽이엔 현 거 산에 강 혜 온 거이.
 103034 @ 예.
 103034 #1 요만이 낱 만 원이라. 비쌍 못 사당 먹어.
 103034 @ 하하.
 103034 #1 아이고, 옛날은 우리. 개간 안 현 때난 옛날은 산에 가민 개간 안 허
 민 요 믱쉬므루만 가민 스몯 내로 우터레 가민 들굽이 핫저게. 이젠 문딱 개간 혜
 불고 이젠이 문 무시거 혜부난. 거 중국 사름덜 오란 막 발전시켜부난 고사리 거끌
 디도 엇고 이젠 원 고사리 거끌 디도 엇어.
 103034 @ 음.
 103034 #1 아무 것도 엇다 이젠. 겨난 산에 가도 안 허고. 나도 고사리 거꺼 나
 건디도 이거 십 년 넘엇저.
 103034 @ 고사리 거끄레 안 다념수과?
 102016 #1 아이고 나 손 영 헨 이거 관절로 아팡 이건 원 쓰지 말렌 현 손이고.
 102016 @ 예.
 102016 #1 이 쉼 이거 다섯 개 놓고 다 수술허도 못 허고 사고 난 거. 간 그착,

폐 그착, 자궁 들럭.

102016 @ 여기는 수술헌 게 사고난 수술헌 거?

102016 #1 으, 으. 저 경운기에 경운기에 감아정 나 죽을 뻔 찼, 멧 번 죽을 뻔 헨 살았주게. 갱허연 그때엔 병원도 엇고.

102016 @ 예.

102016 #1 그때 나 이거 사고 난 때에 미짱냥 곧 메종메종 모종으로 싱글 때여 게. 이거 이거 혼 오십 년.

102016 @ 음.

102016 #1 오십 년 뵈저. 이거 오십 년 뵈저, 사고 나건 디. 갱허단에 그때엔 병원도 엇고 아무것도 엇인 때여. 저 서귀포 김영창이라고 혼 밧디 병원 윈 그디 혼 밧디 있어나고 윈 병원이 그때엔 엇인 때주. 엇인 땀 디 찼 그냥 췌는 사름만 헤단 지압허는 사름 헤단 지압 헤노렌 허난 더 빠저 불언. 혼 칠십 나가난게 아판 막 일 못 헤가난 제주시 병원마다 문 땡기멍 헤 봐도 수술 못 헌덴 헨. 수술을 못 허켄 헨 서울 올라간에 이젠 우리들 병원, 막 일름 난 병원에 땡겨 봐도 지네 완구 안 헐 거난 수술 못 허켄 헨 지네 윈 손 안 대켄 헨 서울 대학 병원으로 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저 삼성의료원으로 가도 이걸 수술 안 헤 줘라게.

102016 @ 음.

102016 #1 막 나 죽어가간 우리 메누리가 서울서 이제 경희대 한방 병원이나 와 봄센헨에 한방 병원에 가난 이거 무시거 무시거 췌 난에 다락다락 올리멍 막 죽어짐직 허난 죽어도 집이 강 죽으켄 헨 나 이디서 죽어짐직 허덴 허멍 허난, 지네 친구가 이제 인천 우리 병원 척추 전문의가 잇젠 헨에 엠알알 멧 밧디나 강 찍어신 디사 나 멧 개 찍어다 논 거 잇저만은 그거 아정 이제 인천을 가난에 세 군데 빠진 건 디 혼 군데는 수술헤지켄.

102016 @ 음.

102016 #1 아이구 갱허난 혼 군데라도 큰 불이나 끄켄헨 그디 가난 혼 밧디 험 시카부덴 허단 보난 이디 췌 이디 두 개, 이디 두 개, 이디 세 개 다섯 개 난 허고 가운데 손 못 대연에. 게난 이 큰 병원에선 완료 안 뵈 거난에 손 안 땀 거. 지네 일름난 병원은. 게난 나 고망에 강 인천 나누리 병원 강 현 거여게. 갱헨 나 이거 췌 다섯 개, 이제 침대에 눕고 그자 아래에 못 앓나. 이거 이제난 험주. 갱헨 아래도 못 앓고. 폐 수술 헨에, 폐 혼 착 그찬 폐 수술 헤연 혼 삼 년만이 이거 현 거여 게. 이거. 갱헨 현 후젠 윈 일도 안 헤 보고. 그자.

102016 @ 병원 신세.

102016 #1 으. 갱허난 전신 마취 다섯 번 시켄 수술 헤나난 저 윈 이 무렵 이거 내지로 흐쓸헤도 무렵 문 관절 다엇젠 헤도 네지로만 헤연 오란에 이거 그냥 전덤 신디 나 갱허난 장애인 카드 헤 줘라. 윈 장애인 카드 헤 췌게 오난 장애인 일이라도 동사무소서 허렌 허멍 헤도 허지 못 헤영 삼 년을 못 헛저게. 갱 헛단 나 이거 작년부터사.

102016 @ 으, 잘 헛수다.

102016 #1 으. 강 헤여 보켄 헨 신청헤영 헤여보는 거여게. 그자. 혼덜에 삼십만 원이난 그자 쁘찰헌게. 이녁 용돈 기자 무시거 침 집이서 노느니 혼 낮전 허민 혼 덜에 열 나흘이난.

102016 @ 예, 예.

102016 #1 경헨 기자. 것도 일년 열두덜 쪽 헤사.

103035 @ 으, 으. 저 콩, 검질 멩 콩덜 컷수다예. 노랑 헤 가난 꺾을 거 아니. 콩 꺾는 건.

103035 #1 콩썩 판짜 털어져사.

103035 @ 예, 예.

103035 #1 판짜 털어지민 강 꺼꺼근에 꺼경 것도 밧디 낱 혼 사흘 들라사.

103035 @ 으.

103035 #1 들르민 멩석 시경 가느네. 멩석 시경 강 폐왕 안아당 낱 문 메와가멍 도께로 두드려 밧디서.

103035 @ 음, 밧디서.

103035 #1 밧디서 장만헨 헨다.

103035 @ 하하하.

103035 #1 밧디서 마당질허멍 어야홍 어야홍 허멍 놉 빌영 간 것도 이녁만은 못 허주게. 놉 빌영 강 허고. 믱물도 놉 빌영 강 수눌엇단에 두드려근에 믱물도 헿 오고.

103035 @ 게민 영 거 타작허젠 허민 튀지 말렌 옆이 튀 안 칩니까?

103035 #1 아이고, 널르게 문 헤여근에 막 튀민 기자 튀는 양 좇어 놓고 헤낫저 게. 멩석 스몯 막 여러 질 끈다게. 마주사근에이.

103035 @ 으.

103035 #1 마주 상 도께질 헤가민 콩 안 텨도 허느냐?

103035 @ 예.

103035 #1 경허민 막 널르게 헤근에 허민 애기들 시경 좇어도 놓고.

103035 @ 좇어도 놓고.

103035 #1 으. 막지 못 헨다 거.

103035 @ 으.

103035 #1 경헤근에 문 불령 밧디서 불령. 브름이나 것도 좋은 날은 불령허고. 경 안허민 열명어로 치엇당 그것도 놉 뒷당 브름 부는 날은 불리고.

103035 @ 음.

103035 #1 에이고.

103035 @ 게난 콩은 꺼끄민 영 무끄지 안 허는 거?

103035 103035 #1 무꺼 보지 안 헛저.

103035 @ 그냥 널어 낱.

103035 #1 으, 기자 똑똑 꺼꺼 낱 모도왕 안아다 놔.
103035 @ 안아다 낱 타작해 부는 거?
103035 #1 으, 데작해 붙어.
103035 @ 예, 예.
103036 #1 두드려당 죽도 썰 먹고 정 3레에 곶양 국도 끌렁 먹고.
103036 @ 국도 끓여 먹고.
103036 #1 콩노물도 낱 먹고.
103036 @ 콩노물도 낱 먹고.
103036 #1 멧 가지 천 가지.
103036 @ 계란 두부도 만들어 보고?
103036 #1 두분 만들어 보지 안 했저.
103036 @ 안 헨.
103036 #1 으.
103036 @ 메주해야 뵈 거 아니과, 메주?
103036 #1 어게 것사 허주게. 나 콩 닷말씩 옛날엔 솥양. 나 그거 콩 닷말씩 솥 아근에 스몓 그 콩 솥을 때엔 옛날엔 초집이 살아나지 안 헤시냐?
103036 @ 으.
103036 #1 우리 초집 헤연 살 때이 새 비여사. 각단 비레 가져, 새 비레 가져 허민 이제 그거 비레 가젠 허민 새백이 밤이 혼 시만 뵈민 일어난 저 콩 솥양, 콩 솥양 발로 문 블라. 발로 문딱 블랑 손으로 문 췌여. 또 이제 그걸 하나, 하나 짝 헤영 나룩씩 헤영 돌아 메영. 돌아 메영 트민 그거 장 담아.
103036 @ 장 담아.
103036 #1 예구. 장이사 이제도 담암주게. 콩 혼 말씩 솥으나.
103036 @ 예, 예. 혼 말씩?
103036 #1 으, 이젠, 이젠 기자 혼 말씩 솥아도 나 넘은헨 안 허연. 올히. 아이 델 육지 살명 어무니 뵈장 먹켄 허명 아저가단 나 손 아프고 허리 아픈 줄 아난 지 네대로 행 먹켄 허명 사당을 먹엇던 지네대로 행 먹엇던 어머니 거 안 아저 가켄 허명 나 아픈 후젠.
103036 @ 으.
103036 #1 수술 하도 여러 번 헤 가난 어멍 거 앓당 먹켄 허느냐. 경허난 지네 대로 사난. 할망, 하르방만 사난 무시거 먹어지지 안 허여. 손지 들양 살 때 혼췌 헛주만은 손지덜토 이젠 문 군대에 갔다 왕 학교 텡겨 불고 이제 직장덜 어디 나가 불고 헤가민 먹어지지 안 헨다.
103037 @ 예. 콩집은 뵈 헛니까?
103037 #1 콩꼬질은이, 밧디 강 길아.
103037 @ 아, 콩꼬질은 밧디 강 길아. 걸름 뵈렌
103037 #1 걸름 허젠. 데명 낫당 썩으민 헤싸. 데명 낫당 썩으민 헤싸.

103037 @ 음.

103037 #1 아이고 얼마나 걸름이카부텐 콩꼬질. 막 건다 콩꼬질. 콩 갈아난 밧도 걸고.

103037 @ 예.

103037 #1 께 갈아난 밧은 가불고.

103037 @ 예.

103037 #1 풋, 콩 갈아난 밧은 막 건텐 허멍 허주게. 경혜근에 큰 콩꼬질 허경 무시거 허민이 걸어, 썩으민.

103037 @ 계민 콩꽃질은 걸름 허고. 계민 콩짚은? 그 낭떼기.

103037 #1 계메 그걸 썩여.

103037 @ 아 그거 자체를 썩여?

103037 #1 으, 그 여물만 빠 앓아 불민게.

103037 @ 아, 그거 전부를 콩꼬질이엔 됩니까?

103037 #1 으, 우리 옛날에 콩꼬질, 콩꼬질. 콩남탱이 그라.

103037 @ 왜 콩남탱이가 있고 콩 영 썩 껌질이 잇잖아예?

103037 #1 껌질 잇주게. 그 껌데기.

103037 @ 계난 그 껌데기만 콩꼬질이엔.

103037 103037 #1 그것도 밧디 강.

103037 @ 그니까 전부를 콩꼬질이엔?

103037 #1 으. 밧디 강 허꺼. 그 껌데기 난 것도 밧디 강 허꺼. 그거 걸름.

103037 @ 걸름.

103037 #1 막 걸어.

103037 @ 그 콩 낭이 막 잘 걸름이 됩니까?

103037 #1 어게. 데명 나 두민 비 맞악 눈 맞악 허민게 썩주게. 썩어. 흔 일년만 흔 해 저슬만 살민 기자 북삭헌다게. 콩꼬질 제기 썩어.

103037 @ 아, 제기 썩어.

103037 #1 으. 막 제기 썩나게. 느네 어머니넌 농사 안 지어나사?

103037 @ 우리도 헤낫수다.

103037 #1 경허난 어머니네도 들으민 환허주게.

103037 @ 콩꼬질 우리 걸름 헤낫저.

103037 #1 니네 어무니 이제 멧 설 산디 모르켜만은 문 그런 거 꺼꺼주. 허단도 버쳐주.

103038 @ 콩 농사 지으멍 기억나는 일은 엇수과?

103038 #1 콩 농사 지으멍 기억나는 일은 무슨 일이니 기자. 콩 흔저 헤단 기자 죽 행 먹을 여산, 밥 행 먹을 여산. 아이고 콩 혜근에 스뭇 주름 놉근에 콩주름, 콩주름. 주름 낱 먹고. 옛날이사 돈 잇영 사 먹어 저시냐게. 기자 이녁냥으로만 행 먹었주.

103038 @ 이녀냥으로.

103038 #1 덕 질탕 독새기 어느 때민 나리. 덕 모두와근에 그 독새기 풀양 살고. 하하. 우리 옛너 노난 도새기 질탕, 돛통에 도새기 질탕. 아이고 이 도새기가 어느 때랑 커근에 그 용돈 쓰리오 허곡.

103038 @ 으.

103038 #1 돈이 어디 잇느니? 아이고, 우린 더 쉽게 살았저게. 옛어 부난.

103038 @ 계난 독새기도 먹어 보지 못 헨.

103038 #1 안 먹어 봤저. 아이고, 풀았주.

103038 @ 아이덜 백이주.

103038 #1 아이고, 아이덜 첨. 돈 사사주, 돈.

103038 @ 예.

103038 #1 진작 말이주 우리 애기덜 다섯 오누이 컷저만은이 어명신디 아방신디 돈 십원 드렌 안 헤 봤저게 옛이난. 드렌 안 헤 봤저 우리 애기덜.

103038 @ 착허우다.

103038 #1 어게. 애기덜이 착허여. 착허연에 경허난 우리 큰아덜도 이제 첨 대학 들어가젠 허난 그때사 지네 아방 돈 만 원 주멍 수중에 노렌 허난 필요엇수다, 필요엇수다 허멍 노시 안 마트건데, 야 경해도 이제 돈은 수중에 흐끔 잇어사주 옛이민 안 웬덴 허멍 첨. 생전 돈 드렌 안 헤 봤저. 요 과자 하나 안 사먹어 봤저. 겐 첨 얼마나 쉽게 산처레 아니냐 우리. 잘도 쉽게 살았저. 어제 느 그 저 이제 우리 ㄱ치 살멍 흰허주 우리 살아온 거. 그 어른ㄱ라 들어보라 우리 어렵게 살아난 말이 옳은 말이냐 거짓말이냐. 그 어른도 어렵게 살았저.

103038 @ 맞아마씨.

103038 #1 그 어른도 어렵겐 살았고, 어렵겐 살았저게.

103038 @ 예, 예.

103038 #1 그 어른도 흐쭈 옛날에 우리 본단도 집도 잇곡 밧도 잇곡 허여도 시어명이 일 안 허엔 기자 놀멍 빗만 내우난 빗 오랑 벌멍 들영 물젠 허난 그 어른도 막 고생은 헛저. 고생은 헨 살았저. 막 존 어른이라. 잘도 존 어른이라.

103038 @ 경협디다.

103038 #1 나 웃동네에 ㄱ치 흐 동네에 살았저게. 흐물 먹으멍 경 살단 나 이알동네레 시집와 불고 첨 이제도 버디게 기자 우리 어멍과 막 첨 친허고 헤났저.

발벼 농사

103039 @ 예, 이제 산디 농사 물어보쿠다 산디 농사. 산디 농사 허젠 허민 무슨 준비 험니까?

103039 #1 산디 농산 무시거 준비허느니 기자 산디씨 준비헨 낫당 산디 갈젠 허민 흐쭈 씨 헤사 씨 헤사 허멍 놔 뒷다근에 기자 멜 망텅이에 놔근에 강 뿌리주. 산디도. 산디도 강 뿌려.

103040 @ 밧 갈기 전에?

103040 #1 으, 그자 갈기 전에. 산디 갈기 전에 간 뿌렸저.

103040 @ 뿌려낭

103040 #1 으, 경헨 갈앙 그자 확확확 벌레기 치민 밧이 골라지주게. 경헨 삭삭 허게시리.

103040 @ 경헨 산디는 언제 갑니까?

103040 #1 산디도 봄이.

103040 @ 봄이?

103040 #1 으, 산디나 조나 콩, 풋 흐쌀 늦게 갈았저.

103040 @ 계민 음력 사월에?

103040 #1 어, 으으. 경허민 기자 음력 유월덜 웨민 웨도 스끄고 콩도 너미 좇으민 스끄고.

103040 @ 음.

103040 #1 또 내봄도 허고 좇으민 열지 안 허주 흐쌀. 콩이 좇으민 열질 안 현다.

103040 @ 열질 안 허여. 경허난 콩 스까 주는 거.

103040 #1 으, 경허난 이제덜은 콩을 싱검주. 옛날엔 짹짹 씨 빼영 침 갈앙 내 불민 포 간 것도 잇고 하나씩 지만씩 간 것도 잇고 했주. 이제 콩을 싱겨, 싱겨. 다 싱겨. 경허주만은 옛날은 든 짹짹 뭉뭉탕이에 메영 빼영 비영갈아신에게.

103041 @ 신디 밧디도 걸름은 안 험니까?

103041 #1 걸름게 무사 안 허여게. 걸름만 시민 허주만은 기자. 산디밧디도 옛날엔 산디밧디도 불경이나 시민. 경헨가난 걸름 장시도 불경 장시 나났어.

103041 @ 아, 불경을 팔레 다녀마씨?

103041 #1 어. 불경을 풀아났저.

103041 @ 아이고.

103041 #1 불경 풀아났저. 불경 풀앙 허민 육지서 나룩, 저 그 나룩 슬아난 그 나룩 걸름 와났저게.

103041 @ 으.

103041 #1 경헨 육지서 그거 오민 스몫 거 사젠허민 스몫 맞춰사 것도. 경허민 그거 허경 산디 같고.

103041 @ 씨에 서끄는 거지예.

103041 #1 씨에 서끄나 밧디 강 기자 빼나. 그건 서꺼도 돼고 빼여도 돼곡.

<중략>

103041 @ 산디 불경을 뿌렸당 씨 뿌령 밧 가는 거라예?

103041 #1 으, 으.

103043 @ 계난 검질은 멧볼 맵니까? 산디밧디?

103043 #1 아이고, 산디도 여러 번 멘다게. 산디 든 켤 스몫 산디밧디도이 이제

곳인 것도 메불고 서너번 땡겨사 돼여. 검질 두 번 메고.

103043 @ 아이고 산디밧디도 경 하영 땡니까?

103043 #1 어게. 산디밧디엔 안 메지 안 현다. 스뭇 산디 막 큰 후제 검질 메젠 허민 야가지 막 찢러 불고. 스뭇 야가지 찢러 불고. 경헌다게 보리밧거치.

103044 @ 계난 산디밧디는 어떤 검질들이 납니까?

103044 #1 산디밧디도 기자 잡풀이주게.

103044 @ 잡풀.

103044 #1 으.

103044 @ 이름은?

103044 #1 이름은 무신 기자 산디밧디도 원 기자 나는 쿨 남주 원. 겨울 풀도 나고 여름 풀도 제완지, 주로 나는 거 콩쿨이여 뭐 제완지여 뭐.

103044 @ 음.

103044 #1 비눔쿨이여 잡풀 문 난다게 아니 나는 거 엇어.

103044 @ 음. 산디밧디도예.

103044 #1 으, 원 나는 건 다 난다게.

103045 @ 산디 밧디 검질 메난 이제 거뒤 들이젠 허난.

103045 #1 거뒤 들일 때 비여사 것도.

103045 @ 예, 비여.

103045 #1 호미로 비여 낵 흘타 낵 흘타 놔근에 기자.

103045 @ 물리지 안 허여?

103045 #1 무사 안 물러게. 것도 비여 노민 물러사주 늘 건 베주게 베여. 늘 건 비민 널영 물러사.

103045 @ 물러사. 경헨 무꺼?

103045 #1 어, 산딘 무꺼사. 무꺼사 앓아 땡기주게. 그냥 앓아땡기지 못헌다 산디는.

103045 @ 무끝 때는 뭐로 무릅니까?

103045 #1 께 헤영 무끄주게. 산디로도 무꾼다만은. 잘 허는 사름은 산디로도 영 영 께 행 어땡 어땡 허는디 뜯 께 헤사 무끄주. 새 비여다근에.

103045 @ 새 비여당 께 미리 헤 놓는 거라예.

103045 #1 으. 경헤영 무꺼사주 산디로 무끄젠 허민 어려와. 께 딱로 헤사주. 산디 무끄젠 허민 께 행 가사. 뭇이든지 다 께 멘들아 놔사 무꿈이 쉽는 거여게. 출도 헤보민 우리 께 문 틀어놔 무꿈이 쉽고. 께 틀명 무끄젠 허민 막 오래고. 경헌다게.

103046 @ 계민 이제 산디 쓸로는 뭐 행 먹을 것과?

103046 #1 산디 쓸로는 옛날에사 먹어 봐시냐?

103046 @ 못 먹어봤?

103046 #1 못 먹엇주. 제사나 행 먹고 떡이나 헤영 제서 떡이나 허고. 산디 아 무나 경 하영 갈도 안 헤서. 우리 밧 엇인 사름은. 아이고. 스뭇 흔 펜이 조 가는

에염에 흐쓸 갈앗당 제서에나 허고. 아이고, 보리밥 먹당 산디 쓸 하나씩 서끄난 이 런 시상이 어디 시렌 헤낫저.

103046 @ 하하하.

103046 #1 아니여, 웃을 게 아니여. 그처럼 우리 어려운 시대가 넘어가시네게. 게난 침 우리 산디 쓸이 경 아무상엇이 경 먹어져시냐. 아이구 침 나룩 잇인 사름 은 나룩 쓸이나 해당 먹엇주.

103046 @ 나룩보다 산디가 더 어려운 것과?

103046 #1 아니, 나룩은 눈에 나는 거난에, 그건 눈에 나는 거난 눈 잇인 사름 은 나룩 헤 먹엇주만은 산딘게 나룩도 경허주만은 산딘 갈아근에 스포트 산디도 스포 사. 슝지 안 허민 안 웨난. 좇아도 안 웨고. 게난 뵈이든지 방수 벌영 스포나사주.

103046 @ 아, 산디도 슝는 거?

103046 #1 으게. 부뜰 거 잇이민 검질 메명 곳인 거영 메사주게.

103046 @ 메야.

103046 #1 으, 오직 공드는 거니. 검질 메는 것도게. 예고.

103047 @ 산디찍은 뭐 헐 것과?

103047 #1 산디찍도 쉐 먹곡 툄 먹고 문딱 헤낫저게. 경헌디 기자 산디찍은 무 시거 허느니. 기자 나뉘서 무시거 예평 더꿈도 허고 느람지로 대신 더꿈도 허곡. 내 불지 안 헐다. 산디찍도.

103047 @ 느람지 여끌 때 쓰는 거예.

103047 #1 으, 느람지도 여경 그자 아무거라도 더끄곡. 쏙쏙 여꺼근에. 경헤영 더끄고 메주 돌아메곡 산디찍도게 아무 것도 하나 내부는 게 엇나게.

103047 @ 산디찍예?

103047 #1 으. 내부는 게 엇어.

103048 @ 산디 농사 지으멍 생각나는 일 잇수과? 아니?

103048 #1 생각은 무슨 생각을 헤. 기자 늑거치 잇이민 나룩 쓸이나 험시민 허 주만은 그 산디 갈 밧도 우린 엇이민 기자 흐 췌이 흐쓸 줍아 낱 흐꿈 갈고.

103048 @ 아. 쪼금만.

103048 #1 으, 줍아 낱 흐쓸 갈앗당. 꿰도 흐쓸 갈고. 밧이 하사. 늑덜은이 콩 흐 밧 딱로, 풋밧 딱로. 꿰밧 딱로 콩밧 딱로 다 곳곳이 헐다게. 감저 밧 딱로. 우 린.

103048 @ 잘 사는 사름이주 그건.

103048 #1 이제 엇이난에 무시거 옛날에 늑의 밧 무시거 허고. 감저도 늑의 밧 디 싱거나고. 보리도 늑의 밧디 갈양 벵작 헤나고. 이녁 밧 우리 엇엇저.

고구마 농사

103049 @ 예. 이제는 감저 농사 물어 보쿠다예. 감저 농사. 감저 농사 짓젠 허 민 준비헤야 웰 거 아니? 감저 씨 심영?

103049 #1 준비혜사주게. 감저 묻엇당. 땅 팡 옛날에 감저 묻엇다근에 구덩이에 묻엇당.

103049 @ 묻엇당.

103049 #1 묻엇다근에 시철나민 아니 썩은 걸로 허여근에 내청 고랑에 감저 불경 허영 놔 뒷당 불경 낄아근에 감저 씨 낫당.

103049 @ 음.

103049 #1 풀 나민 비여당게. 초불 갈양 감저 밧 초불 갈양 놔둔다. 초불 갈양 놔 뒷당 북삭 허렌. 손으로 찢르는 따문. 두불 강 갈주게. 두불 강 갈아 가명 기자 싱거 가명. 경혜근에 침 그슬 들민 이녁 먹음사 얼마나 먹느니게. 그걸 폴아사 돈이 돼주. 감저 공장에. 감저 공장 난 땀 감저 공장에 대 시꺼 강 옛날엔 마다리로 혜영 흔 마다리에 얼마 행 시꺼 가난.

103049 @ 음.

103049 #1 경혜영 폴아시네게. 감저 폴양 스몓 공장에 강 감저 바짱.

103049 @ 아니, 감저 허젠 허면 감저로 심는 거 아니잖아예, 씨 감저 허는 거잖아예?

103049 #1 씨 감저 행 씨 메종 낱 게.

103049 @ 메종 낱.

103049 #1 메종 낱 메종 키왕.

103049 @ 키왕?

103049 #1 이만씩 크민게 끈영?

103049 @ 줄을?

103049 #1 으, 줄을 끈주게. 줄을 끈어당 다시 두불 끈나게. 요만씩 손으로 꺾엇던 호미로 꺼꺼 저 그쳤던. 경헨 그창 똑똑 놀리멍 싱거 감시네게.

103050 @ 게메. 이제 감저 줄을 비영 왓수다. 그럼 감저 줄 놓을 디 밧을 갈아 웰 거 아니?

103050 #1 어게, 갈아사주.

103050 @ 밧을 갈면 고랑이랑 이랑이랑 만듭니까?

103050 #1 어게. 겨난 고랑에 상 이랑더레 똑똑꼭 찢르멍 무사 고랑, 이랑 감저 싱글 때사 블라지느냐게. 고랑으로만 땡겨주.

103050 @ 밑에 가 고랑 우이가 이렇?

103050 #1 으. 이렇, 고랑 경혜낫저게. 이렇이랑 블르지 말아 경허멍.

103050 @ 아, 이렇이랑 블르지 말아. 고랑에 사둬수루 이렇에.

103050 #1 어. 영 고랑에 사둬서 똑똑꼭 찢르멍 기자 그 고랑더레 저 고랑더레. 고랑이엔 헛저. 경허멍 싱경.

103050 @ 이렇에 감저 싱글 때, 줄 놓을 때 간격은 어만이 허멍.

103050 #1 간격은 부짱 싱근다 우린. 떼지 안 허영.

103050 @ 이 감저는, 씨 감저는 언제 놓는 것과?

103050 #1 씨 감저는 저 정월 나민.

103050 @ 정월 나민. 이제 줄 걷영 진짜 감저 놓는 건 언제라?

103050 #1 감저 놓는 거는 그 꼴 크는양게 기자 유월절, 옛날 어른덜은 유월절 전이만 싱그민 돼여, 싱그민 돼여 험다게. 경헨 유월절 전이 싱근 건 그물아도 아니 죽고.

103050 @ 예.

103050 #1 유월절 념영 싱근 건 그물민 죽는덴 곶아낫저게. 경헨 헤신디 이젠 감저도 유월절 안 거느령 그자 꼴만 크민 이젠 싱그는디 옛날은 꼴을 키와사 막 하영 싱그주게.

103050 @ 으.

103050 #1 꼴을 막 키와사 멧 도막이 끈어사. 경혜사 멧 말지기 감저 싱경 영영 곶앗주. 경 이제거치 먹을 거 흐썰썩 혈 때민 허주만은 옛날은 감저 꼴 막 키와저게. 이만헌.

103050 @ 음.

103050 #1 경헨 키왕 비영 또 두불 손으로 이제 기치나 손으로 기치민 손 아프민 호미 영 세왕 똑똑 끈어근에 기자.

103050 @ 길게 그친 걸 한 번 더 끈친다는 얘기?

103050 #1 응, 영 썸 서너 개씩 낫에 끈영. 끈어근에 그자 싱경허민 혼 오월, 오월덜 나민 싱거야주. 음력 오월덜.

103050 @ 계난 정월덜에 싱경 오월.

103050 #1 정월, 그자 정월, 이월에 싱거야. 메종 놔야.

103050 @ 계민 대게 오래 키우는 거우다예?

103050 #1 으, 오래 키와야, 오래 키와야 험다게. 이제 정월에덜, 념은덜 정월에 덜 감저 메종 낫주. 이녁 먹을 거라도. 놔신디 지금 혼 조리썩 난 사름 잇고 안 난 사름 잇고. 경허난 이제 앞으로 두어덜 잇어사주. 막 오래 키운다 건.

103050 @ 길게?

103051 #1 으, 길게 키우젠 허민. 경헨 키와사. 옛날엔 오즘 주멍. 문 오즘 지어 당 주멍 감저 꼴 키우젠.

103051 @ 계민 묘종 낫을 때 오즘을 주는 거라?

103051 #1 어. 커가민. 비료도 주고.

103051 @ 비료로 주고. 계민 감저를 심을 때, 묘종 말고 감저를 썸 해당 심을 땀 거름 안 험니까?

103051 #1 무사 안 헤게.

103051 @ 으, 무슨 거름 헤?

103051 #1 옛날은 엇으른 그 밧을 초불 갈주게. 초불 갈양 두불 갈 때는 그 곶랑더래.

103051 @ 예.

103051 #1 고랑더레 그 걸름을 이제 보리쩍을 ㄱ나 물망을 ㄱ나 아무 걸름이라도 고랑더레 ㅂ 낭 일로 올리고 절로 올리고 밧을 갈민 그것이 이렇 웨는 거.

103052 @ 이렇 웨는 거.

103052 #1 어, 이렇 웨는 거. 경헨 ㅅ 감저 심으민 잘 들주. 고사리도 솔민 고랑더레 강 졸졸졸졸 ㅅ 일로 갈아가고 절로 갈아가곡 허면은 이렇이 웨는 거.

103052 @ 아.

103052 #1 하하하. 경헨 우리 감저 싱것저.

103052 @ 초불은?

103052 #1 초불은 갈앙 ㅅ당.

103052 @ ㅅ당 얼마 전에예?

103052 #1 어게. 감저 싱글 때 웨 가민 ㅅ 초불 갈앗당 두불 갈 ㅅ 걸름 강 노명.

103052 @ 걸름 ㅅ 갈앙 툽툽툽 심는 거?

103052 #1 으. 감저 싱거. 경허는 거.

103053 @ 예. 감저 ㅅ디도 검질 ㅅ니까?

103053 #1 예고, 메고 말곡. 메고 말고 아고 감저 ㅅ디도 두어불 메사.

103053 @ 두어불 메사.

103053 #1 감저 ㅅ 낭 막 더꺼져분 후제는.

103053 @ 으.

103053 #1 느 고랑 나 고랑 ㅅ이 막 더꺼져분 후제는 기자 우이 나온 것만 ㅅ는디 그것 영 거들거들 현 때 검질이 고랑에 난다게. 막 짓어. 경허민 메여사.

103054 @ 메여사에. 감저 ㅅ딘 어떤 검질 ㅅ니까?

103054 #1 어떤 검질 나 감저 ㅅ디도 기자 비눔쿨도 나고 제완지도 나고 ㅅ비눔도 나고 그자 ㅅ튼 거여. 검질 일름.

103054 @ 여름에.

103054 #1 으, 여름 검질이라. 주로 기자 윈 제완지, 비눔쿨, ㅅ비눔. ㅅ비눔 있는 ㅅ은, ㅅ비눔은 죽지 안 허는 거여. 삼년 ㅅ물아도 산텐 허는디. ㅅ비눔이엔 현 거는. 경허민 우린 그 ㅅ비눔이엔 현 거 ㅅ박 ㅅ팡 메영 ㅅ ㅅㅅㅅ더레 내치고 경헤낫저.

103054 @ 예.

103054 #1 죽지 안 허는 때문에. 고눔쿨 허고. 고눔쿨도 경 안 죽는 거여.

103054 @ 고눔쿨?

103054 #1 어. 고눔쿨이엔 현 거 ㅅ저. 고눔쿨 허고 ㅅ비눔이엔 현 거는 삼년 ㅅ물아도 안 죽는 거. ㅅ이 나도.

103054 @ 제완지도 잘 안 죽지 안 ㅅ니까?

103054 #1 아이, 제완지는 ㅅ만 나민 죽고.

103054 @ 아.

103054 #1 제완진 상관엇고. 안 죽는 풀이 고놈쿨, 췌비눔. 그거 안 죽나게.

103054 @ 안 죽는 거예.

103054 #1 으. 거 원 생전 안 죽나. 계난 그런 건 그자 모도앗당 우리 시간 난 때엔 이젠 비료포털 나난에 나 낭빳디도 강 데며진다. 그자 췌비눔 파민 그자 비료 쥐난 푸대레 기자 짝 담양 짝 거꾸로 세왕 내불민 문짝 썩어. 경헨 썩어 분다. 경헨 죽여 불어진다게. 그냥 메여 낳은 안 돼여.

103054 @ 아, 안 죽어.

103054 #1 안 죽어, 안 죽어. 췌비눔이엔 현 것과 그 고놈쿨은 안 죽나.

103055 @ 그 그럼 정월달에 씨 감자 낳 오월달에 감자줄을 심엇잖아예. 파는 건 언제 팝니까? 감자 수확하는 거?

103055 #1 시월.

103055 @ 아, 시월달.

103055 #1 으. 상강일, 상강일 헨다 또. 상강일 전에 이제 판 감자는 씨 놔 뒤도 안 썩고 상강일 넘으면 씨 놔 두민 썩넨 허멍 옛날 어른덜 곧나. 상강일 넘어가민 감저쿨이 흐쉴 가뭇가뭇 허주. 서리 느령.

103055 @ 서리 내령.

103055 #1 으, 경허난 웰 수 잇이민 상강일 그자 닥쳐가민 아이고 감저 파레 헤 낫주.

103055 @ 감저 파젠 허민 어떻 팝니까?

103055 #1 거 글쟁이로게.

103055 @ 아니. 줄을 먼저 걸어야.

103055 #1 어게. 줄 걸영게. 호미 앓양 강 장남, 아이고 우리 거튼 거 걸지도 못 헨다. 장남 헤영 강 걸어사주. 겐 줄 문 걸어단에 글쟁이로 탁.

103055 @ 으, 줄 문 걸어 낳 글쟁이로.

103055 #1 으. 옛날엔 췌로도. 하영 현 사름덜은 췌로 갈양 좇어낫저만은. 췌로 갈양 카저불고.

103055 @ 그지예. 감저 카저불민 안 웰 거 아니?

103055 #1 으. 경허난 글쟁이로. 주로 글쟁이로 파서.

103056 @ 이제 감저 보관은 어떻 헐 거라?

103056 #1 보관은 옛날은 땅 팡 묻어시네게. 것베긴 못 허여.

103056 @ 게니까 감저늘 늘어난 거 아니? 땅 팡?

103056 #1 땅 파근에 보리찍이든 나룩찍이든 그자 새던 빙허게 검질, 아래 끌고 돌아가멍 끌아 낳 감저 비우주게.

103056 @ 으.

103056 #1 감저 비와근에 검질을 톱 더껴. 느람지거치 원 감저레 흑 안 들게. 흑 들영은 안 돼주게. 계난 흑 안 들게 헤영 돌아가멍 헤영 주쟁이 채왕, 주쟁이엔 허든 느 알아지크냐?

103056 @ 예, 예. 공기 통허게 우에.

103056 #1 주쟁이 채왕 톡 더끄주게. 경헨 더껏다근에 그게 잘 웨민 흐나도 안 썩는 해가 있고 잇당 흐썰 썩는 해가 잇꼭 헨다게. 경헨 그축 보관헿 먹엄주 감저 아래 낱 먹어지느냐게.

103056 @ 으, 게난 경헨 보관, 주쟁이 씨왕 보관헿잖아예. 경헨 중간중간에 감저 꺼냉 먹기도 헿 거 아니?

103056 #1 꺼내 먹기도 허주게. 흐 펜으로.

103056 @ 으, 흐 펜으로.

103057 #1 경허민 썩감저, 썩감저 허멍 감저 구텡일 옛날은 흐나만 허느냐게. 스몯 감저로 우리 때 살 때난. 이제 밥에 낯덜 조반헿 감저 칭 먹으민 낮이 감저 치민 주로 점심을 살앗주게 옛날은 경허민 침 놀러 오라도 대접이 감저고 경허민 먹을 그 먹을 감저는 썩감저에 ㄱ치 안 묻어. 썩감전 딱로 묻주. 딱로 묻어낯저. 경헨에 두 밧디 구텡이 파근에 딱로. 흐 감저 한 집이덜은 멧 구텡이덜 묻어낯저만은 기자 일 년 얼마 허민 먹주 허연 헤덩 남은 건 풀아나신게. 겐 풀양 돈 사사 살주. 감저 싱경 주로 기자. 감저 공장 생긴 후젠 감저 풀양 살앗주.

103057 @ 게난 감저 공장이 언제 생긴 것과? 삼춘 멧 살 때쯤? 시집 왕?

103057 #1 어게. 시집 온 후제, 시집온 후제 생겼주.

103057 @ 으.

103057 #1 이거 멧 십년 웨신고 원 감저 공장 생긴 지가 원.

103057 @ 시집 왕 큰아이.

103057 #1 나 스물 하나 나는 해에 시집 왔저게.

103057 @ 예.

103057 #1 경헌디 이거 으든 하나난에 그때에가 시집 온 후제가 감저 공장 생긴 거라.

103057 @ 아.

103057 #1 시집 음 전에는 감저 공장 말 들어 보도 안 허고. 경헌디 원, 이 무죽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이 서귀포 무죽시 생겼주.

103057 @ 예.

103057 #1 경혜연 우리 그디 폴레 멧겨나신디 글후제는 그자 생효도 잇저, 어디도 잇저, 공천포도 잇저. 감저 공장이 드리 하영 생겼저게.

103057 @ 음.

103057 #1 생경 침, 이 미짱냥 남 시작허난 엇어져 베신네게.

103057 @ 감저 농서덜 안 지으난.

103057 #1 으, 미짱냥 싱거가난게.

103057 @ 게난 미짱냥 막 싱근 건 육십 년대 웨서라예?

103057 #1 으.

103057 @ 그 전에면 감저 공장 생긴 거는 삼춘 멧 살쯤인 거 같수과?

103057 #1 흐 서른.

103057 @ 서른?

103057 #1 그자 그, 스물 댕, 스물 댕부터 감자 공장 생긴 것도 닦다.

103057 @ 예. 시집 왕 흐 삼, 사년 시난.

103057 #1 으, 으.

103057 @ 거기에 강 풀아난 거?

103057 #1 으, 풀아난 기억.

103057 @ 어쨌든 감저는 행 씨 감저 허고 청도 먹고.

103057 103057 #1 또 빼떼기 헤시네게.

103057 @ 빼떼기.

103057 #1 빼떼기 헤근에, 아이구 것도 기계 엇이민 늬의 집이 강 빌영을 허엿던 무시걸 허엿던 그거 문 헤영 허문은이, 그 감저 빼떼기 하나 하나 하나 문 납작 납작허게 행 널엇단 그거 이제 몰르민 곶아.

103057 @ 음.

103057 #1 곶양 감저 오메기.

103057 @ 감저 오메기?

103057 #1 감저 떡.

103057 @ 아.

103057 #1 까망. 이젠 그거 맛 즐 거여. 옛날은이 든 거 엇이난 그냥 행 먹어서 네게. 무시거 사끄랭이나 약간 농곡 행. 경헨 먹엇주만은 이젠 거 감저 오메기 맛 즐 거라. 그거 헤영 널엇당 감저 오메기 행 먹고 범벅도 행 먹고 또 빼떼기로 청 먹곡.

103057 @ 아.

103057 #1 빼떼기로 기자 물 컷당 청 먹고. 경헨, 경헨주. 점심으로.

103057 @ 점심으로. 게민 빼떼기는 감저눌 눌엇당 빼떼기를 만드는 거 아니면 수확행?

103057 #1 ㄴ슬리.

103057 @ ㄴ슬에.

103057 #1 으, ㄴ슬리 건 썰영. 눌엇당 썰진 안 현다.

103057 @ 그냥 수확헨 때예?

103057 #1 으, 수확헨 때 ㄴ슬리, ㄴ슬 벧디 몰려사주.

103057 @ 몰려사.

103057 #1 으, 눌엇당은 겨울 들어볼른 몰리지 못허주게. ㄴ슬 파명, 파명 기지 빼떼기 헨 거는 문저 곶아. 썰어.

103057 @ 으.

103057 #1 하영 안 허는 사름은 흐쫄 시청도 허고. 하영 허는 사름은 파명 기냥 곶양 기자 흑더레도 널영 먹을 때 시쳐도 뵈고. 경헤낫저게. 경허난 감저 빼떼기덜

집집마다 해냈어.

103057 @ 계란 감저 빼빼기는 행 먹기만 헛수과, 그것도 풀기도 헛수과?

103057 #1 풀아보진 안 헛저 빼빼기.

103057 @ 아, 먹는 거로.

103057 #1 기자 오메기 떡, 곶양 오메기 떡 행 떡곡, 기자 놔둬서 청 떡곡 감저 빼빼기.

103057 @ 감저 빼빼기로 오메기떡 허민 조로 만든 것 보단 들 것 같다예, 맛이 돌아.

103057 #1 허린조 오메기가 맛 좋주게 아멩해도.

103057 @ 아, 조 오메기가 맛있어?

103057 #1 어, 허린조 오메기가 훨씩 맛 좋주. 감저 오메기는 식으민 어느 것과 광광 허주만은 식으민 이게 팽팽허고 감저떡 보단은 아멩해도 조 오메기가 출지고 좋주게.

103057 @ 예.

103057 #1 더운 때썸이사 조 오메기 오죽 좋느냐게. 완전 좋주게. 난 침 이제도 난 이거 요자기ㄱ장 허린조 오메기 허린 쯤썰 사당, 사다근에 클방에 강 물 컷당 곶아당 오메기 해근에 문탁문탁 해근에 오합주.

103057 @ 오합주?

103057 #1 으, 오합주 헐 때 계란 멧 개, 꿀 한 개 이제 저 춤지름 혼 똬, 계란 경헐 까 놔근에 그자 오메기 문탁문탁 헤영. 경허민 누룩 놓고 오합주난게 다섯 가지 놔근에 막 맛좋아.

103057 @ 아.

103057 #1 스몏 오합주에 허민 계란 우리 하르방 “옛날엔 오합주도 행 쥐라만 은”

103057 @ 하하하.

103057 #1 오합주도 안 행 쥬덴 허멍. 막 맛 좋아. 잘도 맛좋아.

103057 @ 아.

103057 #1 침 얼마나 맛좋카부덴 거.

103057 @ 아, 기구나.

103057 #1 간세헐 안 허난 거주. 나 침 망텅기 사다 농곡 헐 해냈저만은 난 움 직거리기 실프난 걸 안 험주 그거, 그거 만이 헐 거 엇나게.

103057 @ 으.

103057 #1 게헐 우리 하르방 보기도 헤 닳저게. 경헐 헤신디. 오죽 맛좋아.

103057 @ 으.

103057 #1 그 오메기 허민 숲지 못허영 대썸 끈어당 솟창에 곶양. 솟창에 곶아 근에 오메기 툭툭툭툭 놔둬서 그냥 그 대썸으로 뱅허게 젓으민 솟창에 안 늘영 좋 나.

103057 @ 아, 예, 예.

103057 #1 그냥은 들이치민 솟창에 부떠불주게. 경헨 기자 대썸 깎아근에 오메기 만들양 툃툃 놓민 기자 대썸으로 헤영 기자. 오죽 드느냐 조 오메기. 기자 계난 이제도 잘 허는 사름은 히린 좁쌀 해당 속떡도 험시네. 히린 좁쌀 낱.

103058 @ 음, 경헨 그거는 감저는 경헨 떡곡 오메기도 행 떡곡 허는디 즐기는 뉘 험니까? 감저 즐기.

103058 #1 감저 즐기사게 밧디 낱 물류왕 쉼 댜.

103058 @ 먹이로 주는 거?

103058 #1 으 집이 앓당 댜 감저꿀도 늘어났저. 뉘린 거.

103058 @ 예.

103058 #1 출 비여단에 조낭. 산디낭도 댜 뉘엿주만은 조낭, 이제 감저꿀. 감저꿀이 밧디서 뉘쌍 놔사 거뉘나민 막 물류주게. 물류왕 잔뜩 이젠 흐 뉘 줄 거만썸 무꾼다게. 흐 뉘 줄 거만썸 무꺼근에 이제 잔뜩 시꺼당 집안에 늘어. 올레 안에 늘 엿단에 거울 들면 쉼 댜 주젠.

103058 @ 으, 쉼 댜 주젠예.

103058 #1 썸 헨여 썸헨 쉼출로.

103058 @ 쉼출로.

103058 #1 경허민 그 걸름게 밧디 강 또 깎아근에 걸름, 도새기 걸름 쉼 걸름 행 또 살앗주게. 무신 다른 걸름 흰엇이 서시냐. 이젠 흐쌀 허민 이젠 비료, 비료덜 만 쉼 살앗주만은. 옛날에는 쉼 걸름, 도새기 걸름 거 걸로 헨 살앗주.

기타 농사

103060 @ 흐뵂 더 물어보쿠다. 수박 농사 짓어 낫수과?

103060 #1 아니.

103061 @ 참외 농사?

103061 #1 흠웨도 안 헤나고.

103061 @ 안 헤나고예.

103061 #1 기자, 밧디 간에 옛날에, 막 오랬저. 이거 흐 이십 년 뉘주.

103061 @ 예.

103060 #1 수박 싱경 먹어낫주게 이녁냥으로게 먹을 것만.

103060 @ 그니까, 그니까.

103060 #1 수박 싱건에 드랑드랑 올라신디 댜 도둑 타 가불언에. 도둑 타 가불언. 알아진 사름 타 가불언. 그 사름 이제 죽어뉘저만은 침.

103060 @ 아이고.

103060 #1 타 가불명 헤신디 물웨 싱그고, 수박 싱그고 호박도 싱그고 경 이녁냥으로 승키 헤사주게. 수박 이녁 먹을 건 싱경 먹어난.

103060 @ 계난 수박 싱그젠 허민 어떻헨 싱거.

103060 #1 어땠어 싱거 거.

103060 @ 씨는?

103060 #1 씨 수박씨 행 놔뒀다근에 기자 강 구텡이 만들주게. 영 구텡이 멘들아.

103060 @ 구텡이 만들아.

103060 #1 봉분을 멘들아, 봉분.

103060 @ 아, 봉분은 만들어?

103060 #1 으. 봉분 만들앙 싱그는 거주게. 다 다 봉분.

103060 @ 봉분을 어떻 만듭니까?

103060 #1 어떻 만드느니 흑 모도와 낡.

103060 @ 예.

103060 #1 흑 모도와 낡 비료 서경.

103060 @ 아, 그 거기에.

103060 #1 으, 경혜영 그 우터레 씨 꼭꼭 찢렁 놔두민 나주게.

103060 @ 아.

103060 #1 경허민 나주게.

103060 @ 그 씨는 우리 수박 먹을 때 그 씨를 받아 두는 거?

103060 #1 으, 그걸로. 쟁헨 밧디 갓당 일 혈때 수박 익어서민 벌렁 먹곡.

103060 @ 벌렁 먹곡.

103061 #1 아이고, 참. 춤웨도 싱것당 벌렁 먹고.

103061 @ 춤웨도 경 싱거?

103061 #1 어. 춤웨도 경헨 싱그주.

103061 @ 봉분 만들앙?

103061 #1 으, 봉분 만들아. 다 봉분 만들앙. 기자 그 안에서 꿀 벌을 만이 방수 벌영.

103061 @ 으.

103061 #1 쟁헨 싱경 먹어났저. 쟁헨 수박, 웨사 옛날엔게 이녁냥으로.

103061 @ 게니까 먹을 만큼은 헤난 거 아니예?

103062 #1 으, 먹을 만큼. 고치도 싱경 먹곡게. 승키사 녹물 갈앙 먹곡 원 이녁냥으로 행 먹엇주 어디 경 돈 쟁 사 먹어서.

103062 @ 고치도 모종으로 안 허고 씨로 헛수과?

103062 #1 어게, 씨로. 모종으로 이제난 모종이주 옛날이사 모종이 어디 잇느니게.

103062 @ 엇어.

103062 #1 에에, 옛날엔 우리 모종 말 원 난 몰랐저. 이제사 모종이주 옛날에사 모종이라 씨로 남주. 씨로 낫다근에 좇으민 갈라 싱거.

103062 @ 아, 갈라 싱거?

103062 #1 으, 우리냥으로 갈라 싱겨. 좇으민 갈라 싱겨. 갈주게 갈아.

103062 @ 으.

103062 #1 영 갈앙 내불민 좇으민 기자 뽑앙 고치는 저 제기 죽지 안 허는 거 주게.

103062 @ 잘 살아예?

103062 #1 으, 잘 살아. 고치는 잘 살아. 벳이 나도 살아. 경허민 싱경 기자 고 치 농서도 우리 하우스에 이젠 무시거 이백 평 현 거 첨 어울어져부난 못 헛주만은 재작년엔 고치 혜근에 고치 열 댓근 곶아왔저 나, 밀령. 쟁허난 사름 엇언 아이덜 돈 손지덜 기여 나불고 허난 고춧고룬 여남은 근, 열 근은 곶아단 놔두난 이제 나 댓 년 안 사켜.

103062 @ 하하. 그거 다 집이서 농사 지은 거라서?

103062 #1 어게. 작년 싱그난 고치가 스몫 이만씩 잘 뤼연 하우스에 허난 콩낭 만씩 잘 뤼난 아이구 물류지 못 허난 저 농협에 간에 물류와시네. 흐 콘테나에 만 원씩.

103062 @ 아, 거기에 돈 주민 물려 줘?

103062 #1 으, 물려 줘라게.

103062 @ 아이고.

103062 #1 경헌디 급허게 강 물리와부난 고치가 흐썰 거무롱헤라게.

103062 @ 게니까 햇빛에 강.

103062 #1 게난 햇빛이 물리운 거 서껌에 곶아왔저. 」

103062 @ 아. 게난 아멩헤도 햇빛에 들린 것이 좋은 거라예?

103062 #1 어. 비 오란에, 막물 꺾이난 비 오란에 물류지 못 허권데 두 콘테만 물려 와신디 아멩헤도 나냥으로 들린 것만 못해라. 나냥으로 세멘이 기자 뤼썩 는 단썩 영 밀령. 쟁허난 뭇이던지 배울 노릇이주. 고치도 우리 생각엔 꼭지 빠불민 제 기 물람직 헤도 꼭지 빠불민 썩어.

103062 @ 썩어불어.

103062 #1 꼭지차 물류와사.

103063 @ 게니까. 배추는 어떻헛수과?

103063 #1 배추는 기자, 기자 씨. 이제난 좋은 씨 낫주 옛날에사 경 좋은 씨가 잇이냐?

103063 @ 음.

103063 #1 짹짹 뻘영 춤늬물 흐 펜이, 배치 흐 펜이 밧디 가근에 낭 트멍에.

103063 @ 으.

103063 #1 경혜근에 첨 갈아근에 허민 배치 늬물도 돈 쥐근에 사 보지 안 헛저 게.

103063 @ 음.

103063 #1 돈 쥘 사 보지 안 혜영 이녁냥으로 혜영 기자 속 앓으 거 해당 이녁

냥을 케연 김치 혜영 먹단 이젠 낭도 어우려져붙고 헐 디도 엇고 허난 그자 사단 먹엄주.

103063 @ 계민 집이서 삼춘이 키운 것도 속 맞입니까?

103063 #1 아이고, 막 튼튼하게 앓나.

103063 @ 아이고 잘 키와신게.

103063 #1 으, 튼튼하게 앓아.

103063 @ 계민 영 무꺼주는 거 크민?

103063 #1 무꺼주지 안 허고 튼튼하게 속에 앓아. 드물게시리 리 방수 벌영 드물게시리 노민 스못 사온 거왕 크똥허주. 씨 좋은 거 해당 허민.

103063 @ 아, 씨 좋은 거 허민.

103063 #1 으, 김치 녹물 허켄 허민 씨가 좋은 걸로 해야.

103063 @ 계민 옛날에는 그거는.

103063 #1 아주 옛날에는 예에.

103063 @ 그니까 이런 거.

103063 #1 으, 으. 그거 케당 소금에 절엇당 저 제소장에 강 빨아당.

103063 @ 어디 강 빨아당?

103063 #1 저 제수장 물에 강.

103063 @ 제수장이 어디라?

103063 #1 우리 생효 저 제수장 잇저. 이젠 그 제수장도 엇어졌저만은.

103063 @ 아, 그럼 거 바닷물인 것과?

103063 #1 제수장 물에 강 허당 또 바당에 바당물에 정 강 거 춤물에 해당 에 이구.

103063 @ 여기.

103063 #1 일주일 죽여사 옛날은이 냉장고도 엇고.

103063 @ 예.

103063 #1 아무 것도 엇어 노난 소금을 일주일을 죽여사 쉬지 안 헌텐 허멍.

103063 @ 예.

103063 #1 경혜영 그거 김치 혜영 먹는추록. 아이고 그거 헝 먹엇주. 속 앓은 녹물에 옛날에사 엇어났저게.

103063 @ 제수장이 어디?

103063 #1 제수장 잇어났저 생효. 이젠 엇어져베서.

103063 @ 상호?

103063 #1 으, 상호, 상호.

103063 @ 상호에? 뭐 허는 것과?

103063 #1 옛날에 물게, 물. 논물 앓지는 디.

103063 @ 아, 논물 모아논 데.

103063 #1 으. 논물 모아논 제수장이라. 막 크게. 잘도 크게. 그 제수장에 빠정

사름도 죽곡 워낙 커 노난. 경허단 이젠 엇어졌저 그거. 밧으로 멘들아벤 엇어전.

103063 @ 계난 배추도 먹을 만큼은 키왕 먹었고. 무수도 키왕?

103063 #1 나 먹을 만인.

103063 @ 것도 그냥 씨 뿌령 헛수과?

103063 #1 으. 씨 뿌령 해도 돼고. 씨 툃툃 뿌려도 돼주게.

103063 @ 그때는 씨들도 못 사난 씨 다 받아 논 거?

103063 #1 옛날에사 이녁냥으로 밧앙 허주게.

103063 @ 녹물씨덜예.

103063 #1 배치 녹물도 이녁냥으로 밧앙 씨 비여당 물려근에 밧로 조근조근 블랑 쌍 낫당 그걸로 갈앙 먹곡 갈앙 먹곡 헛주 어디 씨 사례 경 가 와.

103063 @ 그니까.

103063 #1 이녁냥으로 갈앙 먹주. 이제난 녹물씨 존 거 사례 가고. 모종 사당 싱그고.

103063 @ 모종 사당 싱그고.

103063 #1 으, 이제 경. 아이고 삶이 얼마나 좋아시.

103065 @ 지슬은 어떻 헛수과, 지슬?

103065 #1 지슬도 고랑에 땅 파근에 고랑에 불경 낭 씨 툃툃툃 그레 놓주게. 경 허민 그자 곳 올령.

103065 @ 곳 올렛당?

103065 #1 으, 흑 올려사.

103065 @ 아, 흑 올리는 거 곳 올린덴 얘기 헛니까?

103065 #1 으, 으. 흑 올리는 것그라 곳 올린덴. 지슬 곳 올리레 감서, 지슬 곳 올리레 감서. 하하하.

103065 @ 아, 곳 올린덴 허는구나.

103065 #1 어.

103065 @ 어쨌든 고랑에 툃툃툃 놓는 거?

103065 #1 어. 고랑에 영영 싱그주게. 경헨 싱것당 말쨌 더 올려줘사 지슬이 들주게.

103065 @ 으.

103065 #1 경허는 거.

103066 @ 피, 피 농서도 지어보긴 헛수과?

103066 #1 핀 안 헤 봤저. 피 농사.

103066 @ 안 헤 봐서.

103066 #1 으. 피 농선 안 헤 봤저. 늡 가는 거 봤주.

103066 @ 늡 가는 거?

103066 #1 으. 늡 가는 거 봤주 피 농선 우린 안 헤 봤저.

103066 @ 계민 피밭은 영 얻어당 안 헤 먹어 봤수과?

103066 #1 으. 저 어디 나 어디 갈 때에, 가시리 간 때에 피밥 혼 번 먹어 봤저 전이.

103066 @ 으.

103066 #1 막 옛날에 이젠 것도 잊어져서.

103066 @ 잊어 잊어.

103066 #1 예, 잊다게. 옛날에 피밥 먹어 봤어. 막 맛좋아.

103066 @ 맛좋아?

103066 #1 으. 피밥.

103066 @ 장만허는 거 막 힘들지 안 해?

103066 #1 아이고, 경해도 그, 그 글후제 피 공장에서 쓸 내우는 기계 나 나서.

103066 @ 예.

103066 #1 공장에서 글아당 먹으나마나 행 곳 해실 거여게.

103066 @ 으.

103066 #1 이젠 원 피 가는 디도 잊고. 조 가는 디도 잊고.

103066 @ 으.

103066 #1 이제도 조 가는 디 심은 짓주게. 잇주만은 제주돈 흰엇이 잊어. 제주돈 조 가는 디가, 우리 제주 일주 해 보민 어디 저 서이에 혼 멧 군데 봄은 봤주. 조 가는 디 잊어.

103067 @ 믱물 농산 어떻 헛수과? 믱물 농사?

103067 #1 믱물 농산 기자 믱물씨 불경에 서경당 기자 밧 갈명 강 툃툃 쩍아 놓나게. 쩍아 낱 그 뭐니 께팡냥, 께팡냥으로 섬비 멘들앙. 섬비 크게 멘들앙. 경헛 쩍아 낱 삭 그로 께으민 뉘주.

103067 @ 그 섬비는 누게가 께이는 거라?

103067 #1 아무라도 께주게. 아무라도 께어사.

103067 @ 사람이?

103067 #1 으, 누게가 께느니게. 사람이 께어사주. 나도 막 께어봤저.

103067 @ 아, 막 께어반예. 게민 믱물은 여름에 간텐 헛잖아예.

103067 #1 오게 여름에 가는 거주 짓사게.

103067 @ 게민 여름에 믱물은 막 금방 자라는 거구나.

103067 #1 어. 경허난게 시월나민 비는 거.

103067 @ 음력 칠월에 갈앙.

103067 #1 어. 시월 나민

103067 @ 시월 나민.

103067 #1 어. 음력 시월나민 비는 거.

103067 @ 석달이민 비는 것다예.

103067 #1 어, 어. ‘

103067 @ 믱물 밧디 께질 메고 헛니까?

103067 #1 므물 밧디도 껌질 멘다만은 아이고 옛날은 므물도 강 스까당 흐뵀
데왕 승키 현다만은. 껌도 데왕 승키로 먹고. 므물도 맛좋아.

103067 @ 아.

103067 #1 므물 난 거 스까당 경헐 먹어낫주. 껌도 맛중주만은. 이제도 므물이
사 저디 갈암주. 껌난 제주도 므물썰은 비쌍 스뵀 므물썰 흔 뵀에 만오천 원, 이만
오천 원인가 만오천 원인가.

103067 @ 그거 다 크민 시월덜에 거뵀들이젠 허민?

103067 #1 비영 돌령 도껌로 뵀암주 껌도. 얼뵀이로 뵀 헤영.

103067 @ 무껌진 안 헤여?

103067 #1 므물 무껌진 안 현다.

103067 @ 무껌진 안 헤여.

103067 #1 므물은 안 무껌 봤저. 그자 비여당 안아 낱 두드리주. 안아당 팡팡
마당질 허는 더레. 이제 기계 시난덜.

103067 @ 껌난.

103067 #1 안아당 팡팡 허민 쏴만 기자 마다리 대민 팡팡.

103067 @ 이제 비뵀 쏴 나오지 안 헵니까?

103067 #1 어. 비뵀.

103067 @ 콩도, 콩도.

103067 #1 아이고 무시거던지 다 거 아니냐껌. 보리나 콩이나 나룻이나 이제 원
기계 사상 아니냐.

103067 @ 그니까예.

103067 #1 살기가 얼마난 존 때니껌. 에이구 침 하도 살기 존 때라 노난 경헐
아프지만 말아사 흐뵀.

103068 @ 예, 예. 담배 농사 껌은 껌 이 동네 안 헤 뵀.

103068 #1 안 헷저.

103068 @ 예.

4. 들일

쇼 기르기

104001 @ 췌, 췌 얼마나 길러낫수과? 뵀 마리나?

104001 #1 아니 우리 밧갈췌. 밧갈췌 현다.

104001 @ 밧갈췌 현다?

104001 #1 으, 밧갈췌 현다.

104001 @ 예. 그럼, 췌 질뤄난 얘기 쪽 한 번 헤 주십서.

104001 #1 췌 질뤄난 거 무시거 쪽 껌느니 기자 췌 지르다껌에 들음췌 허민 우

리 돌아가명 돌음을 허주게.

104001 @ 돌음이 뭐라?

104001 #1 돌음이엔 현 건 이 집이 췌, 저 집이 췌 문 우리 저 이 반에, 우리 일반이면 일반에 그 반이 췌 다 모도와.

104001 @ 아, 오도와.

104001 #1 경허민 돌아가명 두 사람씩 ㄴ꾸레 가주게.

104001 @ 음.

104001 #1 경허명덜 살앗주게. 그 췌 어떻 이녁냥으로 맥이레 가느니게. 농사 안 질 때.

104001 @ 게민 밧갈췌 혼 마리 하젠 허민 그거는 사당, 새끼 때 송아지.

104001 #1 어게 송아지 때 사당 키왕. 키왕도 허고 또 제기 밧 갈젠 허민 바팡도 허곡 큰 췌팡. 송애기 췌 큰췌 바팡. 제기 이녁 밧이라도 갈아사 이녁 벌어 먹젠 허민.

104001 @ 으.

104001 #1 경현 따문 송애기 우린 안 질뤄봐서.

104001 @ 송애긴 안 질뤄 보고.

104001 #1 으, 밧 가는 것만 헛주. 큰췌 큰 밧갈췌.

104001 @ 췌도 키울 때 보면 영 밧 갈젠 허민 멧 살이나 돼야 밧 가는 거마씨?

104001 #1 밧 가는 건 송애기 피혜근에 이제 두 설만 돼민 배우레 멧겨. 두 설, 세 설만 돼민.

104001 @ 아.

104001 #1 베와야주게. 멧에 췌와근에. 송애긴 췌로와.

104001 @ 으.

104001 #1 경혜근에 츠츠 커가민 지냥으로 멧에만 췌우민 갈주게. 이끄지 안 해도. 송애기 땀 이끄곡.

104001 @ 송애기 땀 이끄곡?

104001 #1 으, 아이 몰르주게. 송애기 땀. 몰르고. 큰 밧갈췌 기자 멧에만 췌왕 내불민 쪽 간다게. 쪽허게 밧을 갈아. 경허민 기자 츠 이녁. 우린 기자 농서 짓젠 허난 경 암췌 질루지 안 헛져. 늣덜은 암췌 질황 새끼 내왕 풀곡 해도 우린 암췌 질뤄보지 안 허연. 밧갈췌, 수컷만.

104001 @ 아, 그거 한 마리만마씨?

104001 #1 으. 우린 두 마리 안 헤봤져. 혼 마리만. 혼 마리만 늘 질뤄.

104001 @ 아.

104001 #1 경허단 미짱냥 싱거가난 폴아베시네.

104001 @ 송애긴 안 질뤄 밧잖아예. 게민 늣의 집 췌틀.

104001 #1 으, 송애긴 안 질뤄봤져. 밧갈췌만 그 큰 췌만 질뤛주.

104001 @ 게민 췌 질루명 일년 동안 쪽 한 번 얘기 해 봅서. 봄엔 어떻어뎡 허

고.

104001 #1 봄에 어떻게 어떻게. 기자 이 그슬 들어가민 기자 이 베갯디 풀이 문 지어불주게. 헤가민 출 비여당 놓고 조칙 해당 놀곡 허민 췌, 췌왕에. 저 우리 췌막, 췌막 헨다 저디.

104001 @ 으.

104001 #1 췌막. 췌 메가난 췌막.

104001 @ 음.

104001 #1 저 췌막에 강 보라.

104001 @ 음.

104001 #1 경헨 질루곡. 봄 나가민 돌음을 허주게. 밧 이녁 밧 갈 때는 갈당 밧 문 지어지민 그 췌 집집마다 돌음이라고 우리 돌아가명 산에 강 맥이주게.

104001 @ 멧 사름이나?

104001 #1 두 사름씩, 두 사름씩. 하루에 두 사름씩 맥여. 돌음이.

104001 @ 맥이는 건 두 사름인데 멧 집이나 소를 영 모도왕?

104001 #1 아, 많이 헨다게. 많이 헤. 많이 헨다. 이 동 네거리라고 스못 그레 문 몰아강 스못 그디 가민 문 문딱 나오민 그날 당번이 잇주게. 그날 췌 맥이는 당 번. 츠레, 이녁 츠레.

104001 @ 음. 당번이 두 사람.

104001 #1 어. 두 사람. 두 사람 허민 원 집집마다 문 소라. 소 엇이나게. 소 아무것이 엇인 사름은 또 소도 엇고. 밧 흔 췌이라도 신 사름은 소 잇고.

104001 @ 으.

104001 #1 경혜근에 소 잇인 사름은 문딱 혜영 이 부근 문딱 헨다게. 또 다른 동네, 셋동네레 셋동네. 웃동네레 웃동네. 우리 동 알동네주 이디가.

104001 @ 동 알동네?

104001 #1 어, 이건 우리. 동 네커리에 헨다. 이디 나가민.

104001 @ 예.

104001 #1 경허민 우리 동 알동네 문딱헨 둘 췌 헨 돌음 헨다게. 경혜영 그슬 들어가민 기자 이녁 만씩 이젠 그 베갯디 풀이 엇어 갈 거 아니냐게 시월달 지여가 면은. 출도 비여불고. 아무것도 엇어 가민 이녁 만씩 혜영 출 맥이명 봄 나도록. 봄 이 풀 나도록 집이서 질랐주. 경허민 췌 걸름 높아가민 그 걸름을 높이젠, 막 췌똥 싸가민 또꼬망에 붙으주게. 경허민 그걸 막 췌어내여, 췌어내영 이제 흔 췌이 데며. 데멧다근에 밧디 싱거 감시네. 걸름.

104001 @ 으.

104001 #1 그추룩 행 아주 옛날에사 어디 비료가 시냐. 그걸로 걸름 헛주게. 도 새기 질좌근에.

104001 @ 무슨 밧디.

104001 #1 췌 걸름은 그자 밧디 강 허경 조도 갈곡 산디도 갈곡 그자 허경 좁

씨 빼여근에 기자 영행 갈아근에 좁씨 짹짹 뺀 그자 췌, 옛날에 부제칩인 물을 하영 질루주게. 들로 췌밭이나 조밥이나 불러시네.

104001 @ 으.

104001 #1 우린 불러지 못허민이 췌 하나로 흐췌 불러당 또 사름으로 버치민 췌깡냥 헤근에 췌 또꼬망에 메영 췌로 영 막아사주. 그로, 밧 갈아 노민 그로 막아사 그 좁씨영 문 산디씨영 경허는 거.

104001 @ 췌깡냥으로 허는 건 그거 꼬슬퀴, 췌피?

104001 #1 으, 췌비.

104001 @ 췌비.

104001 #1 췌비질, 췌비질.

104001 @ 췌비질?

104001 #1 으, 옛날에 우리. 췌깡냥 췌비. 하하하.

104001 @ 예.

104001 #1 췌깡냥 췌비엔 헐다 우린. 게난 췌깡냥 아니 여령 못 허주게. 다른 건 흐도 못 해. 그 췌깡냥은 과작허는 따문에 밧을 잘 갈아져. 무겁게시리 영 양 펜이 돌을 탁 지들랑, 양 펜이 헤영 넓작허게 허민 꺾으민이 밧이 일로 이만은 막아진다게, 그거 막아져, 막아진다.

104001 @ 으.

104001 #1 뺨은 헐다게. 게볍게 헤영은 막아지지 안 헐다. 경허민 버치민 손으로도 앓앙 막곡. 그 췌비질 못 허민 손으로 앓앙 막아시네. 버치민. 경헐 살앗져.

104001 @ 게난 그 췌비질 허는 거는 농사 지을 때 다 헐엇던 거?

104001 #1 으, 안 헐 수가 엇다게. 췌 들 한 집이는 췌비질 기자 안 막아진 거 손으로 흐췌 막으민 뺨연에 불러시네게 불러서.

104001 @ 으.

104001 #1 들 뺨 바리 헤여근에 그자 문 밧을 불러주.

104002 @ 으. 그 췌 보면 영 종류가 잇잖아예. 예를 들면 털 색깔이 다른 것들.

104002 #1 게. 어럭췌도 잇고.

104002 @ 게니까.

104002 #1 얼룩췌, 검은췌, 황췌 경 노랑췌. 그추룩 헤근에 췌 색깔도 문 여러 가지주. 코만 흰 췌도 잇고. 이 둑지 얼룩베기 잇고.

104002 @ 으.

104002 #1 경허민 얼룩췌.

104002 @ 어췌든 얼룩 무늬 있으면.

104002 #1 얼룩췌. 그디 얼룩 밧갈췌 잇지 안허여게, 경허명 하하.

104002 @ 예, 예.

104002 #1 얼룩 밧갈췌 잇지 안 허여게. 경허고. 아무 것도 엇인 건 침 황췌.

104002 @ 으.

104002 #1 황밭갈쉐, 황밭갈쉐.
104002 @ 황밭갈쉐?
104002 #1 으.
104002 @ 어, 좋수다. 이름
104002 #1 황밭갈쉐.
104002 @ 집이 질뤄난 거 어떤 췌 질뤄낫수과?
104002 #1 우린 검은 췌 안 질뤄봤저. 황밭갈쉐만 질뤄.
104002 @ 음.
104003 #1 황밭갈쉐만 질뤄근에 침 듬직한 거 질뤄사 늬의 밧이라도 강 갈아근
에 품 받아오고.
104003 @ 음.
104003 #1 이녁 농서만 지젠 안 혜영 늬의 밧도 주로 갈앗저게.
104003 @ 음. 겐 하루 강 밧 갈아주민 얼마나 받아신디.
104003 #1 아이고 이제사이 스몛 하루 강 일허민 막 무시거 햏주만은 막 장남,
장남이. 옛날엔 장남이 보리썰 두 뉘, 보리 혼 말 그추룩 췌저. 보리로.
104003 @ 음.
104003 #1 경햏주 무신 돈으로 췌 봐시냐?
104003 @ 그지예.
104003 #1 곡석으로 췌주.
104003 @ 곡석으로.
104003 #1 아이고 이젠 나룩썰 혼 말 우리 여저 강 일 혜도 나룩썰 혼 가마니,
저 혼 푸데 사당 남암시네. 이제 얼마나 살기 좋아시니게.
104003 104003 @ 계난예.
104003 #1 옛날은 우리 강 일허민 조 혼 뉘, 보리 혼 뉘.
104003 @ 하루종일 일햏?
104003 #1 하루종일 일햏. 조 혼 뉘, 보리 혼 뉘. 막 생각헌 집이가 뉘로 췌췌
췌영 두 뉘.
104003 @ 아이고
104003 #1 겐보리. 것도 췌 아니, 보리로.
104003 @ 보리로.
104003 #1 에이구. 느네 어무니 뉘 알주.
104002 @ 하하하 계난 췌 이름이, 종류가 털 색깔 다른 것도 잇지만 췌들 여기 뉘
나잖아예?
104002 #1 으.
104002 @ 뉘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릅니까?
104002 #1 뉘 모양이 그자 뉘이 영 앞더레 온 거 잇고, 영 췌아진 거 잇고 경허
민 그 뉘 일름은 안 곶아낫저. 난 그건 못 들어낫저.

104002 @ 모르고예.

104002 #1 그건 못 들어났저, 그자.

104003 @ 예, 예. 계난 췌 이용헛엇던 거는 거의 다 밧 가는 용도?

104003 #1 어게, 밧 가는 용도로만 헛주게. 경허고 돛걸름 내민 돛걸름 내베사 주게 마당에. 경허민 그레 이제 보리씨 허경 췌로 불러시네.

104003 @ 아, 췌로 불린 거.

104003 #1 어게. 사름으로 다 어떻 불리느니. 사름으로도 불르지만은 췌 잇인 집인 췌로 불린다게. 췌로 쾡쾡 불령 모도왕 맥에 담양 그 걸름착 잇나게 걸름착 옛날은, 줄 놉근에 줄 놉 줄로 저 방석을 만들앗저, 영 방석을. 망텡이 줄 망텡이. 경헨 그것더레 담양 양 펜이 저 질메 지와근에. 저 췌질메 지왕 그거 시꺼아장 밧 디 강.

104003 @ 으. 망텡이에?

104003 #1 으, 망텡이 양 펜이 시끄민.

104003 @ 췌에 시끈다는 거?

104003 #1 어게 췌에 시경 가근에. 췌에 시경 강. 경헤영 그걸로 거름은 문 시 꺼간다.

104003 @ 췌로?

104003 #1 어. 사름으로 얼마나 저 가.

104003 @ 어쨌든 짐 시꺼 갈 때 췌 나고, 밧 갈 때 췌 낮고.

104003 #1 어, 밧 불릴 때 췌 낮고.

104003 @ 밧 불리 때 췌 낮고.

104003 #1 어게. 원 그거 주로.

104003 @ 췌에 영 마차 같은 거 그런 거 안 허지예?

104003 #1 구루마도 헛다게.

104003 @ 구루마도 허고예.

104003 #1 구루마, 하이고 우리도 구루마, 아무나 구루마도 못 헛저게. 부제침이 구루마가 잇어났주. 경허민 우린 구루마도 막 마지막 헛낫저게. 스몛 이런 시상이 어디 시리 스몛 침 자가용 산 건 지꺼지지도 안 허주. 구루마 낭 그 췌에 메왕 시 췌 다닐 때 지꺼정이. 하이고 요런 시상이 어디 시리 헛낫저게.

104003 @ 거 다 정 다녀신디.

104003 #1 하이고 경헤근에 구루마, 철구루마. 이 췌 바퀴가 철 구루마. 철 구루마 헛단에 글후젠 고무 난에 고무 구루마 헛주게. 글후제는.

104003 @ 아.

104003 #1 철 구루마 헛단에 짓도 아주 옛날이난. 경헨 고무 구루마 나 낫저게. 경헨 췌도 막 여러 가지 헛저게. 밧도 불리고 걸름도 불리고 구루마질도 허고 짐도 시경 땡기곡. 췌 오죽 많이, 흐췌 허민 췌 부리듯. 아이고 췌 부리듯 부러. 경 곱아 낫저. 막 췌가 놀지 안 허연 부러나난.

104003 @ 예.

104003 #1 아이고 밧갈쇄 부리듯, 경헌다게.

104003 @ 막 일을 시키난.

104003 #1 으, 지치게 일을 헤여. 오뉴월에 스몯. 나 밤이 강 믰물팻 갈ㄱ렌 헤네이. 낮이 밧 갈 땐 세가 닷 밧은 난다게 밧갈쇄 지칭 더웁이. 하하하 헌다게, 막 지칭. 경헨 허는 따문 해 안 올라올 때 갈젠 믰물팻 헐 땐. 해 올라오지 안 헌 때 허젠. 경해나시네게.

104003 @ 맞수다, 맞수다.

104003 #1 췌가 오죽 여러 가지 일을 하이고. 사름보단 더 헛저. 안 헌 거 엇어 췌가.

104003 @ 계난 가장 중요한 건 밧 가는 거 아니예?

104003 #1 어게. 우선은 밧 가는 거.

104004 @ 그럼 밧 갈젠 허민 아까 잠깐 곶아신디 질 들어야 췌 거라예.

104004 #1 질 들어사. 이 밧갈쇄.

104004 @ 계난 어떤 순서로 질들여.

104004 #1 아이고. 이꺼사게. 사름이 이꺼고 코 꿰여근에 코 안 꿰민 버친다.

104004 @ 처음부터 밧에 강 경 이꺼난 거 아니잖아예. 뭘 연습 시키진 안 허고?

104004 #1 연습을 시키레 가는 거주게. 연습을 시키레. 그 밧갈쇄 송애기가 커 가면은 코 꿰다게, 코 안 꿰민 버쳐, 코 안 꿰민 버쳐. 겨민 코 꿰여근이 이룬 디 우리 췌석 걸침 이경 가근에 장남은 조롬에 사곡, 잠대 잇주게 밧 가는 잠대. 잠대 이제도 잇주, 느네 박물관에 가민 밧가는 거 잇나.

104004 @ 잇수다.

104004 #1 그런 거 메우주게. 메왕 그자 앞서서 이끄민 멩에 씨왕 이끄민 경헤도 베들락베들락 허당도 질 들어 노민 고집 헤여. 질 들어 노민 헤여. 경헨 막 질 들어근에 익숙어 노면은 지대로 그자. 혼자 밧 갈 수 잇어.

104004 @ 혼자 할 때쯤이면 췌 몇 살쯤이면 경 헤여?

104004 #1 흔 기자 대여섯 나가민 어른 노릇 뷌는 거난.

104004 @ 아.

104004 #1 대여섯 나가민 췌가 어른 노릇. 막상 산텐 헤도 췌가 얼마나 사느니 게. 경 오래 살진 안헌다게. 옛날은, 이제 침 저 도살장에 늙어가민 감주만은 옛날은 췌 늙어가민 잡양 집이서들 돈 잡양 먹고 경헌다.

104004 @ 먹고예.

104004 #1 으, 집이서덜 잡양. 췌추렴 오죽 옛날에 하영 헤시냐게.

104004 @ 계난 밧 갈젠 허민 옛날에 잠대 메우고 뒤이 영 이끄는 사름을 뭇렌 곶앗수과?

104004 #1 앞이가 사름 이끄는 사름.

104004 @ 아, 앞이 사름.

104004 #1 앞이 사름 이끄곡 뒤엔 저 잠대로 밀리곡.

104004 @ 으.

104004 #1 밀리곡 쟁해근에 앞이 사름은 아이고 오늘 송애기 ㄹ르치젠 허난 쉼 이끄레 가사. 오늘 쉼 ㄹ르치레 가젠 허민.

104004 @ 그 이끄는 사람을 장남?

104004 #1 어게, 장남. 장남이엔 현다. 밧갈쉼 장남 영현다. 밧갈쉼 장남.

104004 @ 아, 장남이엔 허는구나예?

104004 #1 어, 장남이엔 해낫저. 밧가는 사름 ㄹ란 장남.

104004 @ 아, 밧 가는 사람을 장남이렌 헐 거예.

104004 #1 어게.

104004 @ 예, 예.

104004 #1 장남이엔 허주.

104005 @ 쉼도 우리 나이들 잇잖아예. 한 살, 두 살, 세 살. 근데 그 한 살 때 불르는 일름이 있지 안허과?

104005 #1 송애기.

104005 @ 송애기. 두 설 때 불르는 일름?

104005 #1 두 설 때 불르는 거는 송애기엔 허단 송애기 흐쉴 키운 거 그디 거 거자 무시거 저 흐쉴 일름이 잇저만은 건 튼내지 못 허커. 송애기 커 가민 그자.

104006 @ 사름, 나름 뒤 그런 이름덜 모르쿠과? 모르크라. 뵈수다. 뵈수다. 혹시 쟁기에 잠대, 잠대에 부분 명칭.

104006 #1 베, 베, 베.

104006 @ 뵈.

104006 #1 베, 보섭 그 베에 보섭.

104006 @ 보섭.

104006 #1 으. 영 흑 자차지는 건 베. 또 영 돌아지는 건 보섭.

104006 @ 음.

104006 #1 경헐 메우는 거주.

104006 @ 뵈이 아니고 베렌 헐난?

104006 #1 베, 베. 베렌 해낫저.

104006 @ 음.

104006 #1 보섭, 베.

104006 @ 다른 거 이름 알아지는 거 잇수과?

104006 #1 다른 거 이름 알아지는 거 무시거 잇느니. 밧 가는 디사 기자 첼 명 에 허곡 잠대 허곡 베낫 더 앓정 가느냐게.

104006 @ 으.

104008 #1 멩에, 잠대주. 원 멩에허고 잠댄다게 쉼에 툀라 강 밧 가는 것이.

104008 @ 예.

104008 #1 멩에 헨에 톡 씩왕 허민 멩에 잘못 멘들아 불민 췌 야가지 벗어정 문 험벽 감고 문 헨다 것도. 얼마나 못 전디느니? 새왓 쫘은 스못 강 갈아가민 췌 이디 야가지 문 벗어정 피가 찰찰 나고 헤낫저.

104008 @ 음.

104008 #1 췌도 얼마나 못 전디느니. 말 곶을 줄 모른 거 뿐이주 췌도 잘도 못 전더낫저. 경해도 이제 췌가 막 익숙어 노면은 침 이레 영 등기면은 이 펜더레 저 레 영 등기민 기자 그 밧 가는 사름이 조정허멍 췌 앞더레 가는 거 조정허멍 가시 네게. 경허민 원 이끄지 안 해도 익숙어 노민.

104008 @ 익숙어 노민예?

104008 #1 으, 지대로 문, 문딱 갈아. 멩에에 강 돌아오고.

104007 @ 으. 그 밧 갈 때는 잠대 메웁 허는디 췌에 짐 시끄젠 허민 등에 뭐 메왕 허잖아예?

104007 #1 질메.

104007 @ 예.

104007 #1 질메게. 질메 메와근에.

104007 @ 예.

104007 #1 질메 메왕 망탱이 헿 양 펜이 그자 시끄주. 양 펜이 맥 시끄곡. 곡석 시끌 때는 이제 맥 안 헤근에 그자, 곡석 시끌 뎨 이 착 시끄곡 저 착 시끄곡. 둘리 마주 시끌 때는 그치 시끄는 디 혼자만 시끌 때는 이 착 혼 두어 단 시꺼던 저 착 에 강 시끄곡 혼자 시끌 뎨 경헌다. 으, 경헤 낫저.

104007 @ 잡아주지 안 허민 털어져 부난.

104007 #1 잡아주지 안 허민.

104007 @ 예.

104007 #1 하영 시꺼 불민 질메가 그 질메가 트라지주. 게난 거 트라지지 안 허 게 양 펜이 사름 잇이민 기자 그치 시끄곡.

104007 @ 음.

104007 #1 경허멍 문 그 질메로 시꺼 오랏저게.

104007 @ 음.

104007 #1 질메로. 구루마 엇인 때사 우리 거 질메로 시꺼 왓주. 문 이 질메로 시꺼왓주 구루마 엇인 뎨. 구루마 시난 침 이거 어멍헌 거라 바로 대통령 삶이주.

104007 @ 음.

104007 #1 구루마 나난.

104007 @ 그 질메에도 부분 명칭이 이실 건 디 그런 거 알아지쿠과? 우에 부분은 워렌 불르고 밑에 부분은 워렌 불르고 허는 일름.

104007 #1 그런 건 잘 모르켜.

104007 @ 예.

104007 #1 우리 그거 무시거 해나난.

104007 @ 멩에도 마찬가지로?

104007 #1 어, 멩에도 마찬가지로.

104009 @ 예, 예. 여기는 토평은 목장은 엇어났수과?

104009 #1 목장 양근에 목장.

104009 @ 무슨 목장?

104009 #1 양근에.

104009 @ 양근에.

104009 #1 양근에, 양근에엔 현다. 녃작지.

104009 @ 으.

104009 #1 목장이 슬오름지에 녃작지.

104009 @ 녃작지랑 양근에?

104009 #1 양근에는.

104009 @ 예.

104009 #1 이 토평 슬오름 막 동쪽이고 또 슬오름 바로 뒤에가 녃작지엔 현다. 우리 고사리 꺾으레 가민.

104009 @ 계민 거기가 다 토평 지대과?

104009 #1 어게 우리 토평 지경.

104009 @ 으, 토평 지경에.

104009 #1 녃작지는 이 저 위미리 지경도 뵈고 신희리 지경도 뵈고. 경 동쪽인 양근에 경 뵈다.

104009 @ 예.

104009 #1 녃작지는 우리 토평 슬오름 지경이여. 그디만 고사리 거끄레 가오고.

104009 @ 슬오름?

104009 #1 어게, 슬오름. 아고 슬오름 우린 원 그디 안 살아 보지 안 헛저. 매날 그디 슬오름 아래 진술이엔 현 딘 우리 출 비레 땡기는 디. 췌출. 췌출 나는 디가 진술. 노갱이굴. 밧 일름사 오죽 하.

104009 @ 계민 그 목장 관리는 마을에서 어떻게?

104009 #1 마을에서계 임제가 있는 목장덜이주게. 임제가 다 있는 목장이라.

104009 @ 마을 공동 목장이 아니고?

104009 #1 공동 목장이 아니고.

104009 @ 개인 목장덜 다 기자 흐끔씩 옛날에 돈 흐끔씩 주명 췌 질루난에 그 목장들을 사시네게. 경혜영 그 목장덜을 사 놓고 돈 엇인 사름덜은 못 사고. 경허난 게 그 옛날 하르방덜 돈 잇영 목장 사 놓난 이제 스뭇 금값 받암시네게.

104009 @ 하하하.

104009 #1 중국 사름덜 오란 스뭇 팡팡 돈 주난 십 억씩, 이십 억씩 받아시네 게.

104009 @ 완전 부잔계.

104009 #1 오게. 그런 사름덜은 부제 뻗저게. 우리거치 엇인 사름은 목장 엇인 사름은 돈 못 받아도.

104009 @ 으.

104009 #1 에구, 옛날 하르방덜게.

104009 @ 그 목장에 우리집 쉼은 못 보내쿠다예. 그 집 쉼들만 거기 강 질루는 거 아니, 놔 두는 거 아니?

104009 #1 저, 이제?

104009 @ 으.

104009 #1 이제 쉼덜.

104009 @ 아니 아니. 옛날에.

104009 #1 옛날에 아니. 그 목장을 사면은 우리 엇인 사름은 그 임제신디 그 출밭을 천 췁이민 천 췁, 이천 췁이민 이천 췁. 이제난 멧 췁, 멧 췁 험주 그때는 멧 말지기.

104009 @ 예, 멧 말지기.

104009 #1 어, 이제 우리가 멧 말지기만 출 빌 걸 이제 도렌 허주게.

104009 @ 음.

104009 #1 경험 든 공동으로 출은 비여 온다게. 출은 든 비여 와.

104009 @ 아, 출을 공동으로 비여 와마씨?

104009 #1 어. 출밭은 돈 췁 비진 안 현다. 그자 어딜로 지네. 옛날에사 목장 무사 헤시니게. 출베긴 안 헤 나난.

104009 @ 그거 목장 주인안티 돈 주는 거?

104009 #1 돈, 그 땐 안 췁 봤저.

104009 @ 그냥.

104009 #1 기자 우리 빌언. 빌언 비여 왓주. 그냥 고마운 것만 생각할 거주. 밧 임제신디 출은 빌언. 우리도 쉼 하나 질루젠 허난 느랴 빌영, 출밭 빌영 출 비여 와 낫저.

104009 @ 돈 안 주고. 고맙다예.

104009 #1 어게 옛날은 다 경험주게. 경허난에 출밭덜이 막 하영 산 사름은 혼 오천 췁, 만 췁, 경덜 험 산 사름은 거 다 무시거 허느니게 출 비여 가렌 허주.

104009 @ 으.

104009 #1 다 출 비여 가렌 현다게.

104009 @ 게민 여기 토평 사름은 쉼을 막 하영 질뤼난 사름은 엇구나?

104009 #1 어게. 막 때로 이제 첨 축사는 안 헤 봤저게.

104009 @ 으.

104009 #1 이녁 부릴 거만 헛주.

104009 @ 거의 다 한 마리?

104009 #1 으, 거의 다 한 마리고 다 보통은 농서 짓는 사름은 혼 마리. 경허고 암쇄나 질랑 새끼 나민 혼 서너 마리, 댕 마리. 막 해야 댕 마리 그거주. 저 경 축 사론 안 헤 봤저.

104009 @ 계난 쉼 질룰 때 겨울엔 쉼막엔 출 주고 키우지만 봄 나민 방목을 시 키잖아예?

104009 #1 봄 나민 기자 내 남주게.

104009 @ 내 놓면 그 목장에 보내는 건 아니?

104009 #1 무사 아니라 그 목장에 감주게.

104009 @ 그 목장 가는 거.

104009 #1 으, 그 목장에 가민 출왓, 이제 출 비잖아.

104009 @ 예.

104009 #1 그런 밧은 예우주게. 답을 다와.

104009 @ 으.

104009 #1 답을 다와그런 디 못 가게 허곡 이제 알레리만, 마장 이제 쉼 먹이 는 데 쉼 마장. 마장이엔 헤낫저 옛날에 쉼 마장. 경헨 아래서 맥이주게. 출 비는 디는 안 가. 그건 키와사주게.

104009 @ 계민 그디 올릴 때도 돈 안 내고.

104009 #1 으.

104009 @ 아고 목장 주인 완전.

104009 #1 기자 기냥 맥인다게. 마장 마장 허명 그냥 맥인다.

104009 @ 아니, 그럼 그거 헤 주는 값으로 강 일 헤 주는 건 아니?

104009 #1 아니.

104009 @ 아닌데 그냥 공짜로 다 허렌 험니까?

104009 #1 으, 으.

104009 @ 개인 땅인데.

104009 #1 으, 경허난 시청 땅도 잇주만은 시청 땅도 잇긴 잇주만은 그런 디나 저런 디나 그 돈이엔 현 건 쥐 보지 안 헛저게. 이제난 임제덜 낭 저추룩덜 험주. 옛날에사 무신게 임제 신디 옛인디 뭐 강 출 비당 임제 나민. 우리 만약에 농서 지 레 가젠 허민 청출 비레 가주게. 쉼 맥여사 뒷날 밧 갈레 갈 거주. 경허민 강 영 청 출이라도 들어 강 비노렌 허민 임제가 출왓디 비진 말레 경 곤고.

104009 @ 음.

104009 #1 경허민 베꼈디 나와 마장에 어웁 나는 거 새 나는 거 비영 오랑 쉼 주곡 경 헤난. 옛인 사름은.

104009 @ 옛인 사름은.

104009 #1 으, 이녁 출왓디 잇인 사름은 이녁 출왓디 강 비영 맥이곡. 그추룩 헨 살앗저게. 계난 이제난 스못 으만헌 땅이라도 돈 돈이주 옛날에사 밧 답아시냐 게. 옛날은 밧 답지 안 헤시네게. 아이고 이제 으만이라도 공계 엇어. 공계 엇다 이

젠 혼 방울. 중국 사름 오란에 이 슬오름7장 밋밋 그자 구경헐 만 헛어.

104009 @ 집 짓엇수과?

104009 #1 어게. 집 지으고 우리 노인당으로 오렌 헐 우리가 막 하간 거 받아오 고 헛저만은이. 그 집 지은 안에이 목욕탕 문 만들어 놓고 스못 하이고.

104009 @ 뭐 호텔처럼 짓어 난?

104009 #1 바로 호텔거치 짓고. 집을 호텔거치 짓지 안 허연 툇막툇막 허게 그 아과틀 기자 혼 사름 살 무시거 닙아. 조근조근조근 밋밋 기자 짓고.

104009 @ 아.

104009 #1 그 우리 구경 시키는 딴 스못 영화, 영화관 문 출려 놓고 우리 영화 구경 시키고 스못. 안에 문 목욕탕, 베라벨 거 문 헤 난 윈 윈. 옛날에 문 내분, 내 분 땅들이 윈 윈.

104009 @ 에이구 삼춘 그거라도 상 놔 둘 걸 하하.

104009 #1 입이 굵으난 어느 저르에. 그냥 밥 밥. 그날 강 버슬어당 밥이 굵어 노난 우리거튼 건 윈 어느 저르에.

104009 @ 예. 그날 버슬영 그날.

104009 #1 으. 첨 아이덜 나 참 아이덜 다섯 개 그거 공부 흐끔 시키는 체허고 돈 꾸레 안 다녀 본 적 엇다. 나 곤란허게 살았저게.

104009 @ 예.

104009 #1 우리 하르방 아무 것도 엇인 하르방 만나 노난.

104009 @ 으. 게난 쉼 질루명 영 생각나는 일 잇수과? 쉼 잇어 먹어 뭐 헛다거 나?

104009 #1 아이고 쉼 잇어 먹언 우리 저 스못 코시 허명 저 목장 사는 하르방 빌영 밤 자명 좇아오고 헛저. 쉼 잇어 먹영.

104009 @ 아이고.

104009 #1 제숙 썩 강 코시 허명.

104009 @ 아, 코시 허명.

104009 #1 어. 쉼 나오렌 코시 허명.

104009 @ 어디 숨어 분거 쉼가? 곱아 분 거?

104009 #1 곱아 불지 아니 헤도 경 코시 허민 그날 제수 좋양 쉼 좇아진텐. 하 하하. 경헐 우리 산에 사는 사름 장남, 산에 하르방 빌영 우리 쉼 잃어불어시난 좇 아도렌 헤영 곤밥 허고. 옛날에 곤밥이 어디 잇느니. 그 때 산에 가젠 허민 메 헤여 놓고. 생선 구워 놓고 행 쥐영 보내여. 경허민 그 쉼 좇양 와.

104009 @ 좇양 와.

104009 #1 경헤났저. 아이고 경허난이 혼 이틀도 살고 제수 좋민 그날도 좇아와 냇저만은 우리 생각엔 경헤저라게. 제일 청출 비레, 청출 비여당 이제 그 새 맥이꼭 허민이 아이고 기자 으런 걸 안 헤영 살아봐시민 허명.

104009 @ 음.

104009 #1 그거 기자 출 아니 비고 요거 아무 것도 아니 행 못 살 건가? 그 생각해놔주. 못 전던.

104009 @ 못 전던.

104009 #1 힘들엉 힘들엉. 기자 펜안히 기자 청출도 비지 말고 기자 혼 밧갈쇄 이녁 안 질룰 땀, 늠 하르방 군대에 가 불언에 이제 늠의 밧, 늠의 쉼 빌어 허젠 허민 청출을 비영 가고.

104009 @ 예.

104009 #1 아이고 그 밧 빌영 갈젠 허민. 밧갈쇄 장남 잘 먹어산덴 허멍 때 헤 주젠 허민 막 성가셔놔저게.

104009 @ 밧갈쇄 장남은 저기 집의 남자 어른이 헤 난 거 아니?

104009 #1 이녁 엇이민 밧 갈쇄 장남 빌어사. 아방 군대에 가분 때.

104009 @ 아, 아방 군대 가분 때?

104009 #1 으, 군대 가분 때. 빌젠허민 밧갈쇄 장남을 빌어사.

104009 @ 게민 아방 이실 때는 아방이 허고예?

104009 #1 으, 으. 아방이 허꼭게. 아방이 허고.

말 기르기

104011 @ 물도 질뤄놔수과 물?

104011 #1 물은 안 질환.

104011 @ 물은 안 질환예. 물은 넘어가고.

104011 #1 이 토평서 물 질룬 사름 엇어.

104011 @ 아, 엇어.

104011 #1 으. 물 질루는 사름은 엇다. 이 토평서 혼 엇이. 혼, 혼 멧 밧디 잇엇 주. 저 셋 동네에. 혼 멧 밧디 잇엇저. 경 물 질루는 사름 엇나게.

104011 @ 게, 밧 불리젠 헤도 물.

104011 #1 물 밧 불리는 사름덜은게 그 부제덜게. 물도 질루고 쉼도 질루고 현 사름덜. 멧 밧디 물 질뤄놔저. 우린 물 안 질뤄놔저. 쉼 하나.

먹이

104016 @ 게난 쉼 길르멍 먹이 하젠 허민 아까 출도 헛주만은 다른 먹이덜 어 멧 헛수과?

104016 #1 아이고 스몫 콩도 슣양 멕이고 스몫 ㄱ스락 그 스몫 잇인 보리도 헛 멕이곡 쉼도 멕여산덴 허멍 막 쉼 그 출도 슣양 막 멕이곡.

104016 @ 아, 출도 슣양 멕입니까?

104016 #1 어, 물 꿩왕 스몫 출도 슣양 멕이곡 헤놔저게. 그냥 므른 것만 멕이진 안 헛다게.

104016 @ 슬지우젠?

104016 #1 어게 슬 올라사주게.
 104016 @ 올라사.
 104016 #1 어, 막 잘 먹어. 경허민.
 104018 @ 출 비젠 허민 아까 녀의 밧 빌렁?
 104018 #1 어게. 녀의 밧, 출밧 빌민게 그 밧디 녀 빌렁 강도 비고 이녁만도 비고 경허주게. 경혜영 출 강 비여 노민, 아이고 옛날에사 장갑이 어디 잇느니. 장갑 안 쟁 맨손에 허당 나 이거 이디 폐적 보라. 이디 문착 그차정 이디 이제.
 104018 @ 거 출 비당 현 거?
 104018 #1 어게 장갑 안 쟁에. 장갑 안 쟁 기자 기냥 비단 보난 이디 호미로 물착 그차전 으레 동그랑 헤나신디 이거 경해도 이거 폐적 이제 잇이네 이 폐적. 경혜근에 이제 허민 맨 손에 그 출. 장갑이 어디서?
 104018 @ 호미로 비엿수과?
 104018 #1 호미로 비주게.
 104018 @ 영 손 잡앙 이렇게?
 104018 #1 어게 이추룩, 이추룩 행 비주. 경 비영 이제 툽툽툽툽 드리로 쪽허게 낫단 들르민 무끄느네.
 104018 @ 무끝 때 뭐로 무꺼?
 104018 #1 그걸로.
 104018 @ 지께렌 험니까 그걸?
 104018 #1 그걸 께 멘들어근에. 기자 출은 비민 뜬 께 어디 새 좋은 거 시민 비여당 시들황 께 튼다게. 께 틀민 막 무꿈이 쉽주. 경허고 께 틀지 안 헤여근에 허젠 행은 출 영 비여 노민 소돌갱이로 뱅뱅뱅뱅 허멍 확 언쥬 무끈다게. 경헨 무끄주.
 104018 @ 음. 비여 낡 혼 메칠을 돌려야 쥬 거?
 104018 #1 아니. 버렁 조민 뒷날 무꺼. 뒷날 버렁 조민. 막 벳 버렁 나민.
 104018 @ 아, 벳 버렁이렌 허여?
 104018 #1 어. 브름 불고 벳 잘 나민 벳 버렁. 옛날은. 하하.
 104018 @ 아, 벳 버렁.
 104018 #1 벳 버렁 스몯 실랑실랑 허난 넬은 출 무꺼지켜. 경혜낫저.
 104018 @ 예, 예. 게민 오늘 비여 낡.
 104018 #1 으, 오늘 비민 넬 오후엔 무꺼져.
 104018 @ 무꺼예.
 104018 #1 으. 경 벳 안 낡은 혼 이틀 잇어사.
 104018 @ 게민 어떻 모양 날르는 거라?
 104018 #1 아이고 출단은 쥬쥬허난.
 104018 @ 얼마나 험니까?
 104018 #1 막 쥬다게. 출단은 쥬쥬허난 꺽꺽 앗앙 던지다게.
 104018 @ 게민 요만이베끼 안 허는 거?

104018 #1 어. 출단은 좋아.

104018 @ 이쪽엔 작구나. 우린 이만큼 합니다.

104018 #1 그건이 이제야 무시거 헛주 옛날은 경 안 헛저. 좋아사 출놀이 스뭇이 집만이 눈다게. 쉼 한 집이덜은. 이 집만은 늘어. 경 훑으민 올려지느냐게. 즐게 기자 혼 착 손으로 퍽퍽 데끼게. 계난 출단을 좋아.

104018 @ 경 어떻?

104019 #1 모도아당 놓주게. 모도아당. 혼 착 손에 댕 단씩, 댕 단씩 행 모다다 낱 늘어. 경헤영 늘엇단 시꺼와.

104019 @ 뉘로 시꺼와?

104019 #1 구루마 엇이민 쉼로 시꺼오고. 구루마 신 사름은 구루마로 시꺼오고 경 헤시네.

104019 @ 경 집이 왕 다시?

104019 #1 으, 집이 오랑 또 놀곡. 밧디서 놀고, 그디서 놀고 집이 오랑도 놀고. 얼마나 사름이 애가 썸 살아시니. 숨 쉬여 보지 안 헛저게.

104019 @ 계난 쉼 한 마리 키웠잖아예?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한 마리엔 헛니까? 한 마리가 몇 묶음?

104019 #1 쉼 한 마리.

104019 @ 아니 한 마리 말고.

104019 #1 어, 혼 바리, 혼 바리. 댕 바리 그거는 이.

104019 @ 댕 뭇?

104019 #1 어, 댕 뭇이엔 현 거는 출ㄴ라도 댕 뭇이엔 허고 댕 단 허고 헤 낫저만은 쉼도 댕 바리 그추록 헤낫저게 옛날은. 바령밧, 바령밧. 뭇 여남은 개, 댕 개 잇어가민 기자 그 집이 뭇이 댕 마리 바령밧.

104019 @ 아니, 아니 그 뭇을 댕 뭇 행 혼 바리 헛니까?

104019 #1 아, 출?

104019 @ 출, 출.

104019 #1 출 혼 오십 단, 백 단을 시꺼낫저 백 단. 출은 쉼쉼현 거, 막 하영 시꺼 건. 경허민 혼 바리, 두 바리. 혼 번 시끄는 것이 혼 바리, 두 바리.

104019 @ 뉘에 시끄는 것이?

104019 #1 소에 시끄는 것이 혼 바리 두 바리.

104019 @ 아, 거기에 백 개를 시끈다고마씨?

104019 #1 어, 소에, 소에 마주 영 시꺼근에 허는 것이 혼 바리, 두 바리.

104019 @ 그게 백 개?

104019 #1 으, 혼 백 개도 시끄고 단 큰 건 오십 개도 시끄고. 그건 크게 족게. 큰 단도 잇고 썸 단도 잇고.

104019 @ 쉼 혼 마리 키우젠 허면 출은 집이 무끝 때 먹을 만큼은 헤야잖아예.

104019 #1 그럼.

104019 @ 멧 바리정도 쉼이 먹읍니까? 한 계절 나젠 허면.

104019 #1 경허젠 허면이 출은 그 때 혼 백 바리, 백 바리 허여사, 백 바리엔 현 건 쉼에 시끄는 거 백 바리주게.

104019 @ 예, 예.

104019 #1 그 정도 헤사 쉼 한 마리 저슬에 넘어가실 거여.

104019 @ 아.

104019 #1 멧 백 바리 현다게. 쉼 한 사름은 멧 백 바리 스몛. 멧 백 바리덜 험 주. 경헨 허는디 우린 쉼 흐나난에 기자, 쉼 흐나난 우린 윈.

104016 @ 여물은 그 출 말고 다른 것들 아까 출도 슛앙 주고 콩도.

104016 #1 출도 슛앙 주고 콩 쫄레기도 영 나오민 슛앙 쉼 맥이고 쉼도 잘 먹여사, 잘 먹여사 일허는 따문 출만 자주 쫄 살지 안현다게. 민 먹을 것도 행 주주 쉼도.

104016 @ 으.

104016 #1 황백비라고 황백비도 쉼 이 풍 걸리카부덴 딸령 맥인다.

104016 @ 황백비가 뭐라?

104016 #1 황백비는 낭이난 그런 낭 벳겨당 윈 딸령 쉼 풍, 풍증 잇이카부덴이 풍 걸리지 말렌 민 것도 딸령 맥이곡 쉼도.

104016 @ 아고, 하하.

104016 #1 쉼도 약 헤 쫄사주 어떨 말이니. 이젠 축산이여 뭐여 헤도 이젠 뭐 강아지 하나라도 아파가민 병원 가지 안 허냐 그 축산 병원.옛날은 그런 거 엇인 따문 이녁 대로 민 이제 배탈 나도 약 행 맥이고.

104016 @ 아.

104016 #1 쉼도 아다루 쉼 때가 잇주게. 아다루 쉼 때 잇어노난 약 민 행 맥이곡.

104016 @ 게난 영 쉼 질루멍 기억 나는 거 잇수과? 출 베멍, 출 베멍 출 먹이 행 오멍.

104016 #1 출 비멍 기억나는 거 무시거라 기냥 출 비여다근에 기자 놀여사 민 슛 놓고. 우리 살아오는 건 기자 출 민 헤당 놀고 곡식 민 헤 들이고 헤사 민 슛 낵 흐쫄. 기자 감저 민 과 들이고 경헤영 민 슛 낵 혼 두어 덜 살앙 봄 나민 또 시작이 주.

104016 @ 아, 출 허는 게 대개 걱정이구나.

104016 #1 게. 팔 월에 비 오라 보라. 으 보단 걱정이 엇다. 그 출 비 맞아나민 소가 먹질 안 현다게.

104016 @ 아.

104016 #1 비 안 맞아사이. 비 안 맞아 벳만 맞아사 과랑현 게 크소롱현 내가 나주. 비 맞아불민 그 출은 먹지 안 현다. 게난 우리 그 출은 불 지뫼뵈주. 그 출은 먹지 안 허여. 무시거 보리 무루냥 헤영 그 이제 비 맞은 출은 데겨봄 무시거 허고

우리 불 숨은 아까우민 무시거 서경이나 안 쥘은 먹도 안 허여 췌. 췌도 성케 헤사. 아이고 출 성케 해당 파랑케 놀영 그추룩 헛주. 비만 오지 말아사 팔월에 비 오랑은 판이고. 비만 오지 말아사. 아이고 출 성케 허젠 허민이 곡석이나 마찬가지라. 그추룩 걱정헛저. 걱정 안 헤 가난 영 아판.

104016 @ 하하.

104016 #1 진짜 출 설러붙어 문딱 설러 부러 첨 이제사 그자 팔자 허단 보난 폐 그착, 간 그착. 나 이추룩 췌 하영 낱 아이고.

빨감

104022 @ 이번에는 지들커 헤난 거 물어보쿠다예.

104022 #1 가스락낭 허레.

104022 @ 계민 지들커 헤난 종류가 뭐 뭐 잇수과?

104022 #1 소낭도 끈곡, 소낭은 믱스왕 못 끈주게. 산림청에서 오카부덴이 산림청 걸리카부덴 가민 가스락낭 끈어. 가스락낭 소곱에 짐 우리 차지 안허민이 짐 안 차가민 소낭가지나 탁 끈으민 살림청이나 텡기카부덴 믱스왕 가스락낭더레 물어. 문영 이제 그 가스락 낭을 헤 오주게 허민 우리 저 슬오름 우이 가근에 화목이엔 현 그 옛날은 저 박탈낭이엔 현 것이 췌 게벼워 낫저 놀차도. 박탈낭 알 거여 느네도. 박탈낭이에 현 것이 제일 낭 중엔 게벼왕, 서이낭이 무겁고. 경허민 우리 박탈낭 허러 가젠 허민 저 낱작지 슬오름 뒤에 강 아이고 그 낭 지영 내로 넘어 오젠 허민 스못 애가 췌.

104022 @ 으.

104022 #1 벅든 디 이 오름에 강 가스락 낭 허젠 허민 것도 늬의 밧 아니냐. 이 녁 밧 엇이난. 늬의 밧디 강 가스락 낭 허젠 허민 도둑질로 제기 헤연 나와베사.

104022 @ 아, 하하하.

104022 #1 막 제기 행 나와베사. 경헨 임제 가가민 스못 질레 거 모도는 척 허곡. 하이고 참.

104022 @ 가스락 낭이 뭐과?

104022 #1 가스레기 낭 몰라?

104022 @ 예. 그 낭 종류?

104022 #1 어. 그것ㄴ라 가스레기 낭. 어머니ㄴ라 들어보라 가스레기 낭 알아집네겐.

104022 @ 계민 가스레기 낭이렌도 곤고 가스락 낭이렌도 곤고?

104022 #1 어게, 가스락 낭 기자, 가스락 낭이엔도 허고 가스레기 낭이엔도 허고.

104022 @ 계민.

104022 #1 낭 일름이 볼레낭도 잇고 베라벨 낭이 다 시난에 경허난 기자 우리 지들커 허젠 허민 가스락 낭이 더 쉽나게. 그거 딱딱 허당 딱허게 놀영 놔두민 그

자 놀차 몰라. 그거 빠당.

104022 @ 그민 아까 소, 소나무 허는 거는, 소낭 하는 거는?

104022 #1 소낭은 아무나 강 못 그친다. 모르게, 우리 모르게.

104022 @ 그니까 그거는 산림청에서 뭐렌 허는데 가스락 낭은 뭐렌 안 해?

104022 #1 아니 그건 지들커로 나니까, 건 지들커로 우리가 나난. 잡낭은 아무 말도 엇는디 소낭은 못 그치주게. 산림청에서. 걸려도 벌금. 아이고 모르게베끼 못 헛저게.

104022 @ 으.

104022 #1 게난 이녁 오름에 밧 잇인 사름은 이제 소낭을 싱그주게. 우리 켤당 네 우리 부제로 사는 켤당 하나 잇이난 오름에 소낭 강 해당 슷 막 시꺼당 놀엇 당 겨울에 진어 가민 늪덜, 동네 사름 불러워 헤낫저.

104022 @ 으.

104022 #1 아이고 가스락 낭 조반 행 먹어지민 우선 가스락 낭 강 흔 짐 강 헤 오라사 감저 청 떡곡. 지들커가 것가 문제주게.

104022 @ 으, 게민 지들커에 가스락 낭도 잇고, 또 다른 거?

104022 #1 가스락 낭도 잇고 그디 기자 체베낭도 잇고. 원 원 아무낭이라도 복 당낭도 잇고. 원 낭 일름이엔 현 건 기자 서이낭 원 아무낭이라도 허여 오주게. 소 낭만 막습주.

104022 @ 게니까 낭 말고는 뭐 걸어 오는 거?

104024 #1 걸어 오는 거 솔입베끼 더 잇어?

104024 @ 솔입 걸어당 쓰고예?

104024 #1 으, 솔입 걸어단 습고.

104023 @ 똥 좃으레는 안 다녀수과?

104023 #1 무사 똥 좃으레 안 다녀게. 우리 솔오름에 강 소똥 문 좃고 똥똥 문 좃고. 똥똥은 좃어당 굴묵 짓고.

104023 @ 예, 굴묵 짓고.

104023 #1 또 쉼똥은 좃어당 몰리지 못허민 밧디 가근에 끌고. 쉼똥은 그건 원 원 기본으로 헤낫저게. 쉼똥 똥똥은 기본. 그거 안 허민 살아져시냐게.

104023 @ 똥똥은 굴묵 짓는 디 쓰고.

104023 #1 으, 경허민 똥룬 거 경허민 똥똥도 산에 가민 똥룬 거 잇나게. 경허 민 똥룬 거 허민 그건 기자 굴묵에 앓당 옛날엔 굴묵헤근에 정지에 허민 기자 비왕 굴묵 진영.구들 멘도롱허게 허젠 허민게 가스락도 전인 가스락 하영 진엇주만은 아 이고 솔입 글쟁이 헤영 솔입 걸으레 늪의 소낭 밧디 강 솔입 걸엄시민 지네 거엔 허명 못 허게 허고 경헤낫저.

104023 @ 아.

104024 #1 소낭 임제게.

104024 @ 소낭 임제.

104024 #1 으, 지네 걷어 가켄 경허멍 헤낫저게. 욱도 듣고 하하, 문 욱도 듣고.

104024 @ 게민 솔입 걷영, 솔입 걷으민 영 지영 오젠 허민 어떻게?

104024 #1 그 솔입 북북 걷잖아게.

104024 @ 뭐로 굶어? 걷어?

104024 #1 글쟁이. 영헌 거.

104024 @ 으, 영헌 거.

104024 #1 그걸로 강 북북 모도와. 마다리 이제 영 옛날 저 어주에 마다리가 있어 그거 체여. 체여근에 그레 언주와 낡 베로 문 무꺼. 이제 칩으로 문 무경, 탁탁 무경.

104024 @ 아, 게난 마다리는 가정 가낫구나?

104024 #1 으. 마다리 옛날, 옛날 그 어주에 마다리 감저 담는 것덜 잇어주게 큰 마다리. 이젠 경 큰 마다리도 잇어.

104024 @ 그거 무슨 마다리엔 곤는다고?

104024 #1 어주에 마다리엔 곶앗낫저.

104024 @ 어주에 마다리?

104024 #1 으, 옛날엔 어주에 마다리엔 곶아낫저. 그것 ㄴ라 어주에 마다리 막 커.

104024 @ 어주에가 뭔가?

104024 #1 몰라. 나 어주에도 몰라 그자 일름만 어주에 마다리, 어주에 마다리.

104024 @ 으.

104024 #1 어주에 마다리엔 험신가. 어주에 마다리, 어주에 마다리.

104024 @ 게민 마다리 안 가정 강 거기 낭가지로 영 만들앙.

104024 #1 저 마다리 안 아정 가민 솔 저 가스락 낭이라도 그착 영 늘언이 끌 주게. 경 그레 언주와 낡 영.

104024 @ 무끄는 거라예?

104024 #1 으. 베로 무꺼. 양웁이 무경 톡허게. 경헤낫주게.

104024 @ 으.

104024 #1 마다리 옛인 때엔. 마다리 옛인 때가 하주.

104025 @ 나무 하젠 허민 뭐 가정 갑니까? 낭 허젠 허민.

104025 #1 낭 허젠 허민 옛날에 지게 헛저만은 지게로 난 못 진다. 늬은 지게로 지는디 난 지게 못 지민이 기낭 헤근에 지민 등뎡이 누르며 불영 옷 벗어 대여 봐도 누르며 불고 카지고 문 현다게. 경허민 켩이 엇게시리, 등뎡이레 오는 거 켩이 엇게 헤근에 지영 오꼭 헤낫저게. 저 슬오름까지 강. 나 낭 장시도 헤 낫어.

104025 @ 예? 낭 장시를 헤나서?

104025 #1 어.

104025 @ 어떻 낭 장시를 헉니까?

104025 #1 어떻 낭 장시 허느니.

104025 @ 낭 행 왕.

104025 #1 낭 행 오랑 집이서 이젠 그걸 깨여. 도치로 벌러, 도치로 벌렁.

104025 @ 아, 큰 낭 행 오는구나.

104025 #1 큰 낭 행 왕 서이낭 건 잘 깨진다.

104025 @ 서이낭?

104025 #1 으, 서이낭 ㄱ튼 건이. 서이낭, 츠낭. 경허민 서귀포 폴레 가민이 영 등뎡이로 정 강 낭 삼서, 낭 삼서 허민. 나 낭 장시 오래 헛저.

104025 @ 아, 낭도 해당 풀앗수과?

104025 #1 어. 낭 장시. 돈 어려우난 어떤 말이니. 낭도 해당 풀아났저. 경헌디 낭 장시 나 옷동네 살 때에 나영 낭 장시 헤난 사름 이제 혼 뎡 사름이주. 나 후때 에 낭 장시 안 헤실 거여. 나 대에 낭 장시 헛주. 나 대에 낭 장시 헛저. 경허난 서귀포 그 때엔이 원 슬동산이나 어디나 집이 경 잇이냐게. 이제 거치 삐작삐작 허지 안 헛지게.

104025 @ 예.

104025 #1 골목에 쭉쭉 슬동산거튼 디 느려 강 기자 속속 들어가사 낭 삼서, 낭 삼서 헤여근에 사 낫주. 옛날은 낭도 잘 사. 서귀포 사름덜.

104025 @ 게민 그 낭 장시 헛을 때가 삼춘 뎡 살 때쯤.

104025 #1 어, 혼 스물 뎡, 서른 안에.

104025 @ 그럼 한 육십년대?

104025 #1 경 뎡저게.

104025 @ 아, 그때 낭 장시 헤 난 거예?

104025 #1 으, 그때 낭 장시를 헛저.

104026 @ 혹시 솟도 구워 낫수과?

104026 #1 솟은 아니 구워낫주만은 솟 구는 거 봄은 헤낫저만은.

104026 @ 어떻 구웁디까 솟?

104026 #1 솟 놀낭 헤영이.

104026 @ 무슨 낭으로 솟은 허는 거라?

104026 #1 츠낭이 쥘 좋넨 현다 츠낭솟이. 건 누게 ㄱ라 들어보라만은 츠낭, 서이낭 경헤근에 우선은 츠낭 솟을 더 알아줘낫저 옛날에. 츠낭솟을 알아주민. 영 헤근에 낭을 싸 봉분으로. 오름 만들아이 오름 만들앙 이제 돌아가명 흑을 썬와, 흑을 썬와.

104026 @ 으.

104026 #1 경허민 영 이런 어귀 멘들주게. 어귀 멘들앙 이 알로 불을 떼여. 불 떼민 고빨 안 나주게. 고빨 나 가민 흑 썬우고, 흑 썬우고 헤영. 솟 묻으는 것이난 솟 묻는 건 봐 낫저. 난 안 헤낫저만은. 솟 묻어근에 우리 그 솟도 사오고. 경헤연 완전 솟이라 스몏 새카망현 솟.

104026 @ 아.

104026 #1 그건 우리 낭불 습아근에 게스미 물 쥬 허는 것보다는 멧 곱, 이제 이제 저 슷 풀지 안 허느냐게. 그런 슷 뒤여. 옛날에 슷 장시 슷 장시 헤낫저게. 슷 못 슷 장시, 슷 장시. 그추록 헤연 산에 강 슷 묻어근에 풀양 살꼭 현 사름이 핫주. 우린 침 그런 거 안 헤여근에 기자 농서 지영 살꼭. 낭 지여당. 나 낭 장시, 느물 장시도 헤 나고.

104026 @ 느물 장시도. 느물은 질황?

104026 #1 어게 느물 밧디 갈앙게. 밧디 느물 갈앙 춤느물 뽑양 강 풀고. 나 뎡우지 장시로 모슬포 가 오고.

104026 @ 하하.

104026 #1 나 안 헤난 장시 엇다. 살젠 허난 어떻힐 말이니. 밥 먹영 살젠 허난.

104026 @ 게민 낭 장시는 나이가 스물 몇, 서른 그때잖아예?

104026 #1 뎡우지 장사는 스물 전이 가진 거 땃다. 나 처너로 산 때에 처음에 옷등네 처너로 살 때에 우리 벗이영 뎡우지 이제 산에 저 모슬포 강 풀아낫저.

104026 @ 집이 거 탄 게 아니고 늪의 거 산에?

104026 #1 늪의 거 산.

104026 @ 산.

104026 #1 어, 장서로. 장서로 가 왓주. 집이도 뎡우지 낭 우리 어머니네 집이 흐썬 친정 어명네도 뎡우지 낭이 잇엇서. 옛날은 뎡우지 경 알아줘라게. 이제 안 알아줘도. 경헤연 뎡우지 장서 우리 모슬포 강 밤 자명 장서 행 오랑 뎡우지 장서 두 어번 헤봣주.

104026 @ 느물 장서는 언제 현 거라?

104026 #1 느물 장선 여라 번 헛저. 나 이디 시집 온 후제도 헤낫저. 느물 장서는 여러 번 허고.

104025 @ 게난 영 산에 낭 허레를 많이 다녔수다예?

104025 #1 아이고 낭 허레 안 강 살아지느냐?

104025 @ 게난 풀젠 허난.

104025 #1 어. 풀젠 허난 낭 강 헤여 오라사 그거 꿬영 그거 늘낭 헤 오민 꿬민 영 담 엠더레덜 세우주게. 세우민 물랑 헤뜩헤뜩 물룬다게. 경허민 게벼워 흐썬. 경허민 납작납작 뉘근에 지영 강 낭 삼서, 낭 삼서 헤낫저.

104025 @ 게민 그건 삼춘만 현 거 남자 삼춘이랑 ㄴ치 현 거?

104025 #1 아니 남자 삼춘은 안 가고. 나만.

104025 @ 게민 깨는 거는 누게가 깧수과?

104025 #1 남저도 깨고 나도 깨고. 나도 도치 들르명 낭 깨져 낫어.

104025 @ 아, 도치로.

104025 #1 으, 도치로 낭 깨져. 옛날에사 다 여자 깧주.

104025 @ 아.

104025 #1 여저덜냥으로 깨서.

104025 @ 아, 기과? 낭 깨는 일도?

104025 #1 으, 여저덜이 다.

104025 @ 남자들 다 뭐 해서? 밧 가는 거베끼 안 해신게.

104025 #1 남자들은 기자 밧덜일 허는 게 주장으로.

104025 @ 아니, 밧덜일도 검질도 안 메고 밧 가는 거베끼 더 헛수과?

104025 #1 밧 같고 기자 췌 일덜은 해낫주. 췌 일덜. 우리 하르방은 못 사난에 난 그추룩 헤근에 텡기고 양 펜으로 버슬어시네. 초기 산에 가낫저, 초기 산에.

104025 @ 누가?

104025 #1 우리.

104025 @ 삼춘이?

104025 #1 으. 초기 산에 강 버슬고 돈 벌레도 텡겨나고 안 현 일 엇다.

104025 @ 아, 밖에 강 돈 벌영 왔구나.

104025 #1 어. 둘이 버슬어사 살주 어떻헨 사느니게. 우린 둘리 버슬영 살앗저 게. 경헨 버슬어당 우린 살곡 헤나난 우리 하르방 이제 독지 빠지고 어깨 빠지고 뺑신 돼 불연 지금 밧 현 이천 췌 현 것도 늣 쥐벳저. 일 설러벳저 이제.

104025 @ 음.

104025 #1 일 설러 불고 하우스 현 오백 췌, 저 한라봉 허는 거 기자 것도 아덜 중국서 오란 막 늣 쥐 불렌 헤도 하르방이 우리 밥 굶어 죽어진다 기자 자파리로 허켜 허멍 현 오백 췌 하우스 기자.

104025 @ 잘허는 거우다.

104025 #1 게난 우리 하르방 기자 그디 강 살암저 요새 윈 그거. 나 손 아판 꾀 못 타난 하르방 꾀 타레.

104025 @ 잘 험수다 그건.

104025 #1 자파리 헤사주게.

104025 @ 게난 그 낭 허레 강 들키, 늣의 낭 행 감덴 들키기도 허고?

104025 #1 들경 돌아나고. 산림 올라왓저 허민 우리 스몏 곱양 돌아나고. 나데도, 나데엔 해낫저 옛날 그 이제 나데. 그 나데 아정 강 낭 그치당 그거 아정 듣지 못 헤영 그 나데도 일허불영 스몏 늣의 나데 빌곡. 우리 곱양 스몏 내창으로 곱양 돌아뺑기곡 해낫저게.

104025 @ 아.

104025 #1 산림청 늣 돌아뺑저게 그뺑게.

104025 @ 아, 돌아 뺑?

104025 #1 으. 이젠 윈 어떻사 허는지 몰라도 그뺑이 산림청 아이고 산림청 올라왓저 허민 므스와낫저게. 산에 강 낭허젠 허민 므스와낫저게. 경허난 새뺑이 강 헤영 오곡. 어둣웁 저낙이도 강 행 오곡. 아이고 낭 지레 시즈근이 텡겼저. 시즈근 허게 나 낭 지레 텡겼저게.

104025 @ 으.

104025 #1 낭 장시 허젠 허민 낭 욕심 안 행 어떻 허느니.
104025 @ 계난예.
104025 #1 강 놀낭 강 해당. 경허난 나 이추록 판나베시네게.
104025 @ 하하.
104025 #1 고사리 슬레도 일등 헤나고. 이 동네 고사리 슬레 나만이 멩긴 사름
엇다.

사냥

104028 @ 으. 사냥도 혹시 헤뵈수과?
104028 #1 으?
104029 @ 사냥? 사농? 꿩 잡으레 같은 거?
104029 #1 꿩 잡으레 같은 건 안 허여.
104029 @ 안 헤 반예?
104029 #1 으.
104028 @ 여기서 남자 어른도 안 헤 뵈잖아예, 사농예?
104028 #1 으.
104028 @ 사농이렌 곶읍니까?
104029 #1 꿩 사농.
104029 @ 꿩 사농.
104029 #1 꿩 사농 허레 텅겨.
104030 @ 노루는?
104030 #1 노루도 안 헤 나고.
104030 @ 노루도 안 헤 나고?
104030 #1 으.
104031 @ 지달이도 안 헤 나고?
104031 #1 지달이도 안 헤 나고.
104031 @ 예.
104031 #1 벼슬영 살젠 허난 그런 거 허레 멩길 저를도 엇어라.
104031 @ 엇언예?
104031 #1 어. 우린 당체 엇어. 우선 입에 먹을, 아이덜, 새끼덜 그 무사 이제,
이제랑 허면 나도 멩칭이 짓 헛주이 배우지 못 허난 멩칭이주. 두 개만 딱 나건 막
아불 거 아니냐게 두 개만 나건.
104031 @ 아, 하하.
104031 #1 두 개만 나건 딱 막아베시민 이추록 애쓰진 안 허주게. 다섯 겔 나
노난이 경헤도 하영 지와벳저만은 다섯 개 나 노난 그것들 경헤도 공분 시켜살 거
아니냐이. 공분 시켜사 험 따문 어떻헐 말이니.
104031 @ 음.

104031 #1 하르방도 앓앙 안 텔 거. 나도 앓앙 안 텔 거. 게나제나 게나제나 헛 주. 게난 이젠 뺑신 뒤 불언. 뺑신 뒤주.

5. 바다일

105001 @ 그 바다에서 하는 일들이 뭐 뭐 잇수과?

105001 #3 바당에 뎡기는 거?

105001 @ 예. 바당에서 허는 거.

105001 #3 저기 몰망.

105001 @ 예, 몰망.

105001 #3 몰망, 고지기, 감태, 구제기, 생복, 오분작.

105001 @ 음. 그거 잡는 거예. 물에 들엉 잡는 거?

105001 #3 물에 들엉 잡는 거 오분작, 구제기.

105001 @ 으.

105001 #3 생복, 메역, 감태, 거 뭐 여러 가지지게.

105002 @ 게난 이 토펽에서 듬복이랑 감태 하는 것도 헤낫수과?

105002 #3 헤난, 옛날에 헤낫주게. 감태헌 거, 그때는 난 어린 때니까 저 애기 들명.

105002 @ 예.

105002 #3 나 막 어린 때 어멍 죽어베신디 셋어멍내가 물질허난에 옛날에 저기 감태허연에 영 땅 팡 거 술앙.

105002 @ 으.

105002 #3 걸로 화약행 보내낫주게.

105002 @ 화약행 보내?

105002 #3 화약. 응, 저 감태로 화약 멩글안.

105002 @ 아, 감태 슬아가지고.

105002 #3 응. 술앙 그걸로 화약 멩글앙 보낸. 제국 때에.

105002 @ 제국 때에. 게민 이 감태는 작업헐 때 공동으로 작업헐수과?

105002 #3 공동, 그때 공동으로 작업헐주.

105002 @ 공동으로 작업헐?

105002 #3 으, 공동으로 저 어부덜이영 이 배로 헤 놓곡. 또 그 곳으로 헝 저 날라근에 그거 화약 멩글아 난.

105002 @ 그 화약 만드는 걸 여기서 헐, 아니면 여기서 그 감태만 말령, 몰령 보내는 거?

105002 #3 으, 아니 술앙.

105002 @ 술앙?

105002 #3 땅 영, 땅 영 동글락 허게 팡 그디 담양 술아근에 보내난 거 알아지
메. 그건 난 직접 안 헤 보고. 그땐 난 어린 때난에 저 저 나이든 어른덜 옛날.

105002 @ 으. 그거는 저기 어린 때 감태 작업했던 거고예. 저기 삼춘이 커 가지
고 삼춘이 결혼하고 나서는 감태 작업?

105002 #3 난 감태 작업은 안 헤 보고.

105002 @ 으.

105002 #3 저기 몰망, 고지계엔 현 거 있어. 저기 몰망보다 더 췌주게. 영, 고지
계엔 현 거는 팔월에 헤다근에 이 저 망사리 헤영 밀려 오랑 이추록 즈물앙 밀려
왕 거 저다근에 옛날에 돛통 잇주, 돛통.

105002 @ 예.

105002 #3 도새기 질루는 디. 그디 놔근에 걸름헤영 보리 갈민 보리 막 좋고.

105002 @ 아, 걸름했었던 거구나.

105002 #3 으, 걸름허고 또 그자 몰망, 보통 몰망 막 질주게. 물 싸민 또 이만씩
현 디 탁 어울어진 거 막 그차당 그거 이녁, 이녁만 간 디 망사리에 즈물아당 굶디
오랑 널엇당 몰르민 저다근에 저기 이 옛날에, 지금 고구마 잇지게.

105002 @ 감저, 감저.

105002 #3 감저. 고구마 감저. 그거 고랑에 놔근에 싱그민 감저 잘 들고. 또 거
헤낭 감저 싱거낭 보리 잘 돼고.

105002 @ 보리 잘 돼고.

105002 #3 그거 많이 헤난.

105002 @ 저 듬복도 헤낫수과? 듬복.

105002 #3 듬복?

105002 @ 으, 듬복.

105002 #3 듬복이 뵈인고. 듬복은.

105003 @ 듬복은 안 헤난. 저기 보말하고, 보말은 어떻 잡앗낫수과?

105003 #3 보말도 하영 잡앗주. 그때는 그땐 나 물질헐 때난 보말 안 잡앗주게.
그거 구제기 잡곡 저 오분작 허주 안 잡단 거 설른 후제 아관 설러부난. 아관 설러
분 후젠 바당에 가민 휘여근에 그것도 잡곡 둘 일렁도 잡고.

105003 @ 아. 보말도.

105003 #3 으, 보말이나 수두리나.

105004 @ 수두리도 보말 종류 아니예?

105004 #3 수두리광 보말이 뜰려. 수두리는 영 좁작좁작허고 보말은 까망행 동
글락행 흐끔 좁작헤도 납작허고 경헤.

105004 @ 으, 게민 보말 종류에는 이름, 이름 알아지는 거 뭐 뭐 잇수과? 수두
리 잇고?

105004 #3 그 수두리, 보말, 춤고메기, 문두닥지.

105004 @ 문두닥지.

105004 #3 또시 저 메옹이.
105004 @ 메옹이.
105004 #3 또 저 뭐여 굳지 못허켜게 그거. 다 굳지 못허켜게. 나 영 못 굳을 때 못 글아.
105004 @ 예, 예.
105004 #3 튼나민 해도.
105005 @ 예, 튼나민 글아 줘서. 그렇게 보말 종류가 있고. 갱이, 갱이는 어떻 잡았수과?
105005 #3 으?
105005 @ 갱이, 갱이?
105005 #3 갱이.
105005 @ 아, 여기 갱이런 현 거예.
105005 #3 갱이도 산케 잇고 또 저기 그자 보통 갱이 잇고 또 무시거니, 무신 갱이 잇주게. 것도 튼내지 못 해. 저 저 돌갱이.
105005 @ 아, 돌갱이도 잇고.
105005 #3 으. 돌갱이도 잇고.
105003 @ 게민 갱이를 잡젠 허민 어떻 잡아서?
105003 #3 갱이 돌 일러근에 튼는 거 심주게.
105003 @ 하하하.
105003 #3 튼는 거 허민 구덕 아정 가민 구덕에 몰망 낱 잡아서 그 소굽에 들어가주. 경 안 허민 돌아나불어.
105003 @ 아, 돌아나불어? 몰망 갖다 놔서 그 속에 숨영 잇어 갱이가예. 맞수다, 맞수다. 아까 갱이 종류는 돌갱이?
105003 #3 돌갱이, 또 여파리 갱이.
105003 @ 여파리 갱이도 잇고?
105003 #3 으, 여파리 갱이 막 제여.
105003 @ 아.
105003 #3 제여. 보통 심지 못 허여 여파리 갱이는. 게고 또 거시기 똥갱이도 잇고.
105003 @ 똥갱이 잇고.
105003 #3 으. 또 무신 갱이, 갱이도 막 으라게 해부난.
105003 @ 춤갱이 엇수과, 춤갱이?
105003 #3 춤갱이가 보통 그거주게. 갱이가 막 으라젠디 다 굳지 못 허켜.
105003 @ 예, 예.
105003 #3 저 거시기 산케도 잇주. 저기 거 바당물에서 거는 거 닻아도 이 갱이는 검영허고 쉬염도 허고 그것도 잇고.
105003 @ 게민 우리 옛날에 영 불, 췌불 피워가지고.

105003 #3 고메기 잡는 거.
105003 @ 예?
105003 #3 고메기 잡는 거.
105003 @ 고메기 잡는 거?
105003 #3 으.
105003 @ 그거는 밤이 불 피왕?
105003 #3 으, 밤이. 어둡운 디 영 강 고메기 난 거 잡아오주게.
105003 @ 고메기?
105003 #3 고메기, 춤고메기, 보말, 수두리.
105003 @ 아.
105003 #3 구제기도 굿디 나민 구제기 같은 거 문 잡아오고.
105006 @ 고메기 잡을 때 불 피왕 해?
105006 #3 으, 계민 불 싸민 들에 문 나. 낮이는 기여 들고, 물에 기여 들고. 밤
이는 나오고.
105006 @ 밤이는 나오고. 계민 그거는 오징에 잡을 때는 안 헛수과?
105006 #3 예?
105006 @ 오징에?
105006 #3 오징에는 배에서 나끄주게. 오징에는 배에서 나끄는 거.
105006 @ 예, 예.
105006 #3 저 물꾸력은 심주. 물꾸력은 심어.
105006 @ 아, 헛볼로?
105006 #3 물꾸력은 강 기는 거 심고 고망에 든 거 막 골갱이로 파낸 심고.
105007 @ 여기 원담 잊지예?
105007 #3 으, 원담 잇나. 원담 다우민 저 고기 잡젠덜 문 허고 멜 든 거 물 싸
불민 멜.
105007 @ 삼춘도 원담에 강 멜 거러낫수과?
105007 #3 으, 멜도 잡는 거 보고 무스거니 따치 ㄱ튼 거 그런 거 심어낫주게.
105007 @ 아, 원담에 따치도 들어낫구나예?
105007 #3 으, 따치도 들곡 저기 무신 웨기니? 저, 저 검은 웨기, 원 곧지, 튼내
집 해도 곧지 못 허켜. 경헌디 원담은 하영 해 낫주. 두린 때 바당가에 우리 살아나
고 허난.
105009 @ 계민 원담에서 멜 들민, 멜 거리레 가젠 허민 어떻 공동으로 갑니까,
개인?
105009 #3 아니, 개인이로덜. 공동이로 다와 논 거는 해 낳덜 이녁만씩덜 거러
앗고, 이 저 검은여 바당가에, 검은여주게 이 토평 바당 저 아래 가면 저 오름쟁이
엔 현 디 잇어 지금 호텔 동녘쪽인디 이 돌로 다와진, 돌로 멘들야진 --가 잇주게.
105009 @ 예, 예.

105009 #3 그디 들민 동글랑헌 사들 멘글아근에 막 다울리멍 그디 디물양덜 멧 짐씩 잡아오곡 헛주.

105009 @ 계민 그건 공동으로 가는 건계예.

105009 #3 아니, 공동으로 아니 그냥. 계난 그것도 이녁 사들, 사들 동글랑 허게 멧글아 가근에 들이밀어근에 잡으민 하영 잡아오주게. 그디 허는 사름덜 흐끔씩 쥐 더근에.

105009 @ 아.

105009 #3 막 흐 여남으 개씩 잡아.

105009 @ 계난 그거 혼자 강 못 헐 거 아니?

105009 #3 으?

105009 @ 혼자서 가 가지고 못 헐 거잖아? ㄹ치 강 헐 거잖아?

105009 #3 흐디 강 그거 흐디 강. 멧따이도 안 허고 아무것도 안 허민 못 허주 게. 지픈 디, 동글락헌 디 가근에 그 물 싸가민 막 들이 밀어근에 거리민. 보통으론 못 허여.

105009 @ 보통으론 못 허여.

105009 #3 으. 흐는 사름신디 강 비나, 주나 경 헤사주.

105009 @ 뭇 빌어? 사람을 빌영 가는 거?

105009 #3 아니, 뭇.

105009 @ 아, 뭇.

105009 #3 뭇 사들로 하영 잡아도. 주는 거 빌어 오주.

105009 @ 토평은 원담 막 하지 안 헛수과?

105009 #3 원담은 두어 밧디 다와낫주만은 경 하영 못 허여.

105009 @ 사들 들렁 가는 건 원담에서 허는 거 아니?

105009 #3 그거는 통예. 통예, 큰 통이 있어. 저 검은여 가문 오름쟁이렌 허는 디. 지냥으로 생겨진 통이 잇주게.

105009 @ 아.

105009 #3 민물 내리고 바당물 막 느려가불민 거 어떻 뭇 들어오면은 다 다울 리멍 거리는 거.

105009 @ 아, 그거는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지냥으로 생긴 거?

105009 #3 지냥으로 생긴 통이 있어.

105009 @ 예.

105009 #3 경헌덜로 거리는 거.

105009 @ 그거 검은여예?

105009 #3 으, 검은여디 저 오름쟁이엔 현 디 있어, 오름쟁이.

105009 @ 뭇은 경헨 사들로 거리민 거려지는 거라?

105009 #3 거리주, 거리민 멧 집이서 거리주 거릴 때는. 엇인 때는 못 거리고 신 때 막 그뻐 하영 거려.

105009 @ 으.

105009 #3 으라번, 혼 번 들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이청 거리고, 들이청 또 거리고 경혀주게.

105009 @ 그 원담에 뭘 거리레 가젠 허민 뭐 들렁 갑니까?

105009 #3 뭐 들렁가 구덕덜 들렁 감주.

105009 @ 으.

105009 #3 원담에는 구덕허고 무신 거 쟈끄만 현 거. 뭐 구덕이로 강 거림도 허고 허는디.

105009 @ 족바데.

105009 #3 으?

105009 @ 족바지.

105009 #3 으, 무시거 행 족을 걸로 거리는 때문에 저 원담에서는 많이 못 거려. 기자 히여뜩헌 거 흐뎡 좇음베깁.

105009 @ 으.

105009 #3 제라허게 통 멘들아진 디 이추록, 이 이 저기, 이 삼방만 큰 통이 있어. 검은여엔 현 디 오름쟁이엔 현 디 그디 가민 지냥으로 만들어진 둥글랑헌 통이 잇주게. 그디 강.

105009 @ 으, 그디는 사름덜이 만든 게 아니라.

105009 #3 아니. 거 옛날 본래 멘들아진 디.

105009 @ 본래 멘들아진 거예.

105009 #3 으.

105010 @ 이제 바닷퀘기, 바닷퀘기 낚젠 허민 어떻 험니까?

105010 #3 낚지?

105010 @ 나끄려고 하면?

105010 #3 나끄레 가는 거는 곳이로도 춤대 행 강 옛날은 이추록 요새 영 무시 거 기계 낚시가 아니라 대 해근에 무시거 춤대 해근에 옛날 대로 해근에 무시거 저 낚시 돌아베근에 돌 우이 강 상 나까낚주게.

105010 @ 예.

105010 #3 돌쟁이 ㄴ튼 거, 어랭이 ㄴ튼 거, 우력 ㄴ튼 거 그런 거.

105012 @ 그런 거예. 물에 들영도 영 퀘기 나끄고, 찢르고 헤낫수과?

105012 #3 물에, 물에 들영은 난 퀘긴 안 헤 보고 허는 사름은 물에 들영 소살로 쏘아.

105012 @ 으.

105012 #3 소살로 우력 ㄴ튼 거 큰 거 막 쏘아근에 허는 디 난 그런 건 안 헤 봤주. 소살질은 안 헤 보고.

105012 @ 으, 소살질은 안 헤 보고.

105012 #3 소살질은 안 헤 보고. 그자 메역 허민 비창에 허리에 차고 골쟁이 잡

고. 경험 가민 구제기 잡고 생복 봐지민 떼여 놓고. 또 오분작 시민 떼 놓고. 오분작은 글쟁이로 떼꼭 또 생복은 비창으로 끼고.

105015 @ 비창으로 끼고.

105015 #3 호미는, 호미 아장 가민 호미는 메역 케고.

105015 @ 바다에 쓰는 것도 그냥 호미렌 글앗수과?

105015 #3 으?

105015 @ 바다에 쓰는 것도 호미렌 헛수과?

105015 #3 호미.

105015 @ 줌호미렌 안 헨?

105015 #3 으?

105015 @ 증계 호미렌 안 하는 거?

105015 #3 아니 아니, 호미. 진짜 호미로.

105015 @ 계민 글쟁이도 그냥 글쟁이고.

105015 #3 으, 글쟁이로 허고.

105015 @ 아니 밧닷일 글쟁이랑.

105015 #3 어. 밧닷일 글쟁이.

105015 @ 밧닷일 허는 글쟁이가 트나지 안 허여?

105015 #3 아니. 저 지금, 그 지금은 무시거 췌끌락헌 거 잇주만은 옛날은 기자 밧디 쓰는 글쟁이 아정 강 조개 떼꼭.

105015 @ 예.

105015 #3 밧디 검질 메고 헛수게.

105015 @ 아, 똑같은 걸로?

105015 #3 으.

105015 @ 아, 트나지 안 헛구나예.

105017 #3 으, 그건. 우리 옛날 험 땀 뒹, 체얌 베울 때는 이 속곳 하나만 입엉 적삼도 안 입꼭.

105017 @ 으.

105017 #3 경허단 말제라가난 이녀냥으로 적삼 멩글아근에 입엇주.

105017 @ 으, 속곳만 입엉 물질을 헛던 거라예.

105017 #3 경헛주게. 요새추룩 고무옷 입엉 헛시민 나도 이젯꺼정 물질 헛실 걸.

105017 @ 하하하. 계난 물질은 멧 살부터 멧 살까지 헛 것과?

105017 #3 나 어린 때부터 허연예. 나 멧 설 허단에, 막 아판, 아판 설러벳주게. 나 이디서도 상군으로 느랑 헛주게.

105017 @ 으.

105017 #3 이디서는 옛날에는 부락으로 이 바당 츠지해근에 그 부락에서 돈 내 멩 이녀 부락만씩 그 바당 츠지허주게. 계민 상군이 돈 얼마, 중군이 돈 얼마, 하군

이 돈 얼마. 그 돈 메왕 조합에 돈 바치는 거.

105017 @ 으.

105017 #3 바치고 또 메역 헤 오민 메역 헤 오민 더러, 하영 헤 온 사름은 하영 뽑고, 죽영 헌 사름은 죽영 뽑고 헤근에 부락 유지자덜 문 갈라주고.

105017 @ 으.

105017 #3 그거 헤영 문 폴아근에 이디 옛날엔 농협 이디 쪼금 잇어났어. 경허 난 그디서 허민 뉘 책상도 그 돈으로 사곡 그 돈으로 우리 메와근에 문 행 내여 낫 주게.

105017 @ 게니까 돈 벌어진 거 흠뻑씩 내 책상도 사주고 했던 거 아니예?

105017 #3 어. 그 돈 내사주. 그거 행 또 또 조합에 돈 바치고. 세금이로.

105017 @ 세금으로예?

105017 #3 겐 나도 그거 아파부난 세금도 물지 못 허난 세금 내고 뉘 헛단에 저 누게니 헐 때에 흰 흰 헐가, 두 헐가 헐 나 쪼금 병원에 뎅길 때 돈 안 들었주. 나 세금 하영 내 낫주.

105017 @ 으. 게난 물질은 막 어릴 때부터 헤낫수와 삼춘은?

105017 #3 어린 뎨 배움만 허고.

105017 @ 배움만 허고. 영 정식으로 나갈 뎨 언제서부터라?

105017 #3 정식으로 나갈 뎨 스물, 스물흔 설 때. 스물, 나 열 아홉에 이디 시집 왔주게.

105017 @ 예, 예.

105017 #3 열아홉에 시집 오난에 이월에 시집 와신디 유월 나난 군인 가벳주게. 군인 가부난 나 막 물질 허연. 물질 허연에 첨 밧도 허나 사고.

105017 @ 아고 아고.

105017 #3 물질로 행 번 걸로 옛날에 부모님, 옛날엔 보리밥도 기리고 감저밥도 기려낫주게.

105017 @ 예, 예.

105017 #3 시집와도 볼 디가 하는 거라. 부락이 이 이디도 잔치 잇고 저 권당네 집이 잔치 잇고 고모네 집이 잔치 허고. 그때는 쓸 두 뉘씩.

105017 @ 보리쌀 두 뉘씩.

105017 #3 어. 곤쌀, 곤쌀 두 뉘 허는 딴 또 쪼금 나신 디 권당집이 허젠 허민 좁쌀 뉘 뉘 보리쌀 두 뉘 경헤낫주게.

105017 @ 예.

105017 #3 우리 돈으로 허민 돈도 아저가고 경허난 말제라 가난 또 보리쌀 혼 말도 허고 곤쌀 혼 말은 막 저 권당집이, 사돈집이 경헐 가져가고.

105017 @ 으, 곤쌀은 사돈집이예?

105017 #3 으.

105017 @ 경헐 가져가고. 게난 물질은 스물흔 살서부터.

105017 #3 스물한 설 나 얘기 난에 저 우리가 저 거시기 큰아덜 나고 큰딸 나고 셋딸 나난 세 설 돼난 설러벳주게. 가이가 이제 쉰, 쉰네 설인가 돼서.

105017 @ 아, 계민 막 젊었을 때 설른 편인게.

105017 #3 으, 아프난 아프난.

105017 @ 아프난. 어디 아팠 그만 둔 것과?

105017 #3 이 몸이 전체 아팠 손도 노랑해불고, 이 물에 가민 발도 노랑 해불고 이 다리도 노랑해불고.

105017 @ 아.

105017 #3 물질 계속 헤시민 돈 많이 벌어.

105017 @ 벌어서 건디.

105017 #3 겐디 아팠 못 헨.

105017 @ 한창 다른 사름덜 물질 행 돈 벌 때 그만뒀신게예?

105017 #3 으, 막 돈 벌엇주 그땐 메역 값을 하영 쥐낫주게. 계민 메역 허민. 게난 우리 군인 가 분 때난 메역 영 다섯 징, 여섯 징 즈물아 오주게 혼 번 가민.

105017 @ 예, 예.

105017 #3 바당이 멀어 경허난. 이 토평 바당은 굿디광 이 한 바당이 메역 난디가 막 멀어. 혼참은 가야 돼는 거라 게난. 경 헤와도 누게 마중 헐 사람 베랑 엇이민 그 돈 늣 주멍 허고 시아방네 저 오민 돈 안네불고 기자 정 오명도 사름덜 보민 기자 허는 것카부덴 매날, 정 오단 보민, 우리 옷동네 살앗주게. 알동네 사름도 보민 기자 헐 거 카부덴 허민 백이 이만씩 질어. 세 망, 두 망, 네 망 지민 이만씩 허는 거라.

105017 @ 아고.

105017 #3 겐 주단 집이 오랑 보민 잔뜩 정 오라도 반뜩베긴 안 허여.

105017 @ 아고 어떻게.

105017 #3 계속 그추룩 쥐근에 멧 년 경해도 그축 얻어 먹어도 난 물에 가민 또 배고프주게 일헤나민. 경해도 감저꼬랭이 하나 주는 사름 하나 엇어서 경 쥐도.

105017 @ 아. 경 메역 허멍 늣 좋은 일 막 시켰구나게.

105017 #3 아이고 게나제나 하영 줏주게.

105011 @ 으. 우리 옛날에도 어른덜, 남자 어른덜 낚시덜 막 하영 헛을 거 아냐예? 낚시 허젠 허면 아까 낚시대는 대나무로 해서예?

105011 #3 으.

105011 @ 옛날에는 왕대 비여당.

105011 #3 으, 왕대로.

105011 @ 비여당 허고 계민 낚시줄이랑 낚시 바늘이랑 낚시줄에 메다는 봉돌이랑 그런 건 어떻 구해낫수과?

105011 #3 그거 뽕돌 옛날은 멩글명도 허고 사당도 허고 헤낫주게. 그때는 무시 거 허민 낚시도 그닥 크지 안 헐 거 헤근에덜 꿩기 나끄레 허단에. 저기 이 새 시

대가 오라 가난 이제 또 기계에 춤대 그거 허민 그걸로 곳이레도 가고 먼 바당에도 가고 배 탕도 가고.

105011 @ 배 탕도 가고예. 낚시줄도, 낚시줄은 만들지 못 허난 옛날에도 사당 썼을 거 아니?

105011 #3 옛날엔 무신 노곳 닳은 걸로 해당 해신디 거 저 거시기 퀘기 그 낚시, 기계 대는 멀리 날리는 나이롱 멀리 내끼민 거에 퀘기 물영.

105012 @ 퀘기 물영 잡고예. 삼춘은 작살로는 안 잡아 봤수다예?

105012 #3 어?

105012 @ 물질허멍 퀘기는 안 잡아봐수다예.

105012 #3 물질허멍 안 잡아 봐신디 테위로 퀘기 나끄레는 가 와서. 하르방 배도 해나고 테위도 해나난.

105012 @ 아고 남자 삼춘 거 해놔수과? 말 안 골으켄 허는디 물어봐사큰게.

105012 #3 거 헨에 저기 테위로 헨에 우리 내 젓는 거 문 검은여 잇는 디 젓는 거 사진 찍영 돈 주난 돈도 문 노인당에 바껴불고 그 사진이 우리 제주시 딸, 딸 잇인디 이제 식당 허는 디 걸어정 잇어.

105013 @ 아, 기구나. 게민 이땅 삼춘안티도 물어봐사큰게. 그 배에 관련된 거.

105013 #3 배에.

105013 @ 배 일름들.

105013 #3 물어 봐. 배 흔 번 산에 해봤주게. 경허고 테위 주장헨, 이녀 혼자만 테위 행 텡기당 늘 불문 막 끄어가불고 허난 저 끄어가불고 아파고 허난 나 못 허켄 설러벳주.

105013 @ 으.

105013 #3 겐 어랭이 ㄱ튼 거 막 해놔어. 나까당 늬덜 주곡.

105013 @ 아까 배 종류에는 아까 테위도 잇고 또 다른 배는 뭐렌 골아놔수과?

105013 #3 배에, 배 일름도 잇주만은 몰라 난 그 일름 몰르주.

105013 @ 요거 불르는 일름이 엇어놔수과?

105013 #3 아, 이거.

105013 @ 거 무신 배엔 불러놔수과?

105013 #3 이거 무신 배. 배엔만 헛주 무신 배 몰라. 이거는 옛날에 돛대 들앙 텡기는 배.

105013 @ 게니까 돛대 들앙 텡기는 배.

105013 #3 돛대 들앙 텡기다근에 브름 신 때 요걸로 브름이로 영 이거로 영 가놔주게.

105013 @ 으.

105013 #3 경해나신디 브름 엇이민 이거 지와던 내 젓으고.

105013 @ 예, 내 젓영 다니고예.

105013 #3 겐 나 나 이 배에 내 젓영 막 돌아텡겨나서.

105013 @ 아.

105013 #3 겐 흑산이엔 현 디 가민 흑산이 ----가 만허주게. 흑산. 이것도 헤영. 이제는 이런 게 엇주게. 기계로 허영.

105013 @ 게니까. 이런 일름덜 알아점시카 헨 물어보는 거마씨.

105013 #3 난 저건 모르크라 무신 배처렌지.

105014 @ 그, 그럼 해녀들 물질 헐 때 물에 들엉 잡는 건 뭐 뭐가 잇수과? 물질 행 잡아오는 거.

105014 #3 잡아 오는 거 구제기.

105014 @ 구제기.

105014 #3 생복.

105014 @ 생복.

105014 #3 또 조개. 조개엔 허주게 저 오분작.

105014 @ 오분작.

105014 #3 해녀는 그거 잡아. 또 보말 수두리 거튼 건 제라허게 물에 들엉 안 잡아양 그것만 허레 갈 땀 곳디로 강 그것만 들엉 잡주 보통은. 해녀들은 수두리 보말은 대강 안 잡젠 허주게.

105014 @ 아, 물에 들엉은 안 잡는 거.

105014 #3 으, 물에 들엉 그거 안 헨에 우리 설러분 사름덜 물질 못 헐 경우에는 들어강 잡아와.

105014 @ 으. 메역이나 우미는 물에 들엉 안 잡아낫수과?

105014 #3 무사 안 잡아. 저 우미도 물에 들엉 허고 물싸민 곳디도 많이 나주. 곳디로도 강 헤오고. 툄도 곳디로 강 헤오고.

105014 @ 곳디로 헤 오고예.

105014 #3 으, 툄망도 물싸민 곳디로 강 헤오고.

105014 @ 물에 들엉도 허고예.

105014 #3 으, 물에 들엉도 허고 곳디로도 허고. 곳디로도 나니까.

105015 @ 그럼 물질헐 때 필요헌 것덜이 잇잖수과예. 물론 옷 입어야 웨고.

105015 #3 게난 옷 입영근에, 속곳이엔 현 거 옛날에 그거 여라 개라사주게.

105015 @ 예.

105015 #3 물에 갈 때 입으민 강 올 때 물론 거 입엇당 또 널엇당 또 들어가민 나옴새 툄르지 안 허민 또 강 들엉 나오민 툄른 거 입어사 구덕이레 하나. 또 낭 툄 살를 거 정 가사 툄 살랑 초고. 경 뜻이민 물에 강 툄곡.

105015 @ 게난 한 번 물에 들 때 속곳 하나만 행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 정 가야 웨는구나.

105015 #3 으, 여라 개 입영 곶아 입을 거게. 또 얼민 나오민 우이 쓸 거 썩 근에 영 툄 살라도 추우니까 썩.

105015 @ 게민 물질 갈 때 구덕에 속곳도 담양 가고 또 뭐 담양 가?

105015 #3 속곳 담고 호미 담고 비창 담고 골쟁이 담곡 눈 있어 눈 영 큰 거 허민 낭이로 영 혜근에 짜근에 그레 벌리지카부덴 낭 담곡 또 그것에 낭 담양 그 구덕에 담고 그거 저거 물건 그거 다 담고 그 테왁, 테왁혜근에 구덕에 낭 지곡. 겐 혼 짐 정 가 갈 때도.

105015 @ 불 초젠 허면 불 때 거.

105015 #3 불 땀 거 게메.

105015 @ 그것도 가정 가고.

105015 #3 그거 구덕에 담양 정 가고 혼 짐 정 가.

105015 @ 혼 짐 정 가야 돼예. 게민 아까 눈, 눈 보관허는 눈곽도 따로 있어낫 수과?

105015 #3 으, 뜯, 뜯곽 있어. 뜯곽 옛날에 두 꿩갓들이 있어 나어 쓸 드는 거. 그만이 현 거에 이 만인 영 짠 거 막 크메. 눈 이만이 현 거 혜근에 허젠 허민. 겐 그거 그 구덕에 담고 테왁 놓곡 그거 다 놓곡 허민 물질 허레 가주.

105016 @ 게민 옛날이랑 비교허민 지금은 물질허는 게 막 트나잖아예?

105016 #3 트나. 아니, 물질허는 거는 지금도 ㄹ튼 디 다 막 트나주게. 발에 신는 것도 트나고 옷도 경허난 흐루즈물악 물질허곡 계속햐주만은 옛날에는 그 바당에 물 우리 그 물질힐 때는 눈 팡팡헤도 물질허레 가낫주게.

105016 @ 애고 경 추운데도.

105016 #3 으. 육지광 또 이디광 물 시리운 거 뜰려.

105016 @ 예.

105016 #3 저기 흑산도 우리 간 햐주만은 그딘 가민 혼 서물날썸 물 실리운 데 가민 물이 막 물 알이 어둑어. 물 아래 들어가민 과시허게 무신 수도에 물통거치 소리 나. 영 사름 들어가민.

105016 @ 예.

105016 #3 쟁허고 또 혼 서물날 넘어가민 물 알 붉고.

105016 @ 읊.

105016 #3 이디는 경 붉고 어둑고 안 허는 디 그디서는 경 막 햐여. 차이, 차이가 있어.

105016 @ 으, 차이가 있어. 물웃이 옛날에는 속곳이랏잖아예?

105016 #3

105016 @ 속곳. 게민 모자에도 쓰는 게 있어낫수과?

105016 #3 수건.

105016 @ 모자 쓰고, 수건 쓰고?

105016 #3 수건 안 쓰민 머리 이 물 내려근에 눈에 물 들어가민 저기 눈에 물 들어불민 바레지도 못 허고 허주게.

105016 @ 으.

105016 #3 게난 잔뜩 써근에 머리 물 느리지 안 허게 잔뜩 써야 물 눈에 물 안

들어. 눈 이디가 물 들어불민 안 돼주게. 나오지 못 허주게.

105016 @ 겐 머리에 쓰고.

105016 #3 간 때도 속이나 쑥 잇잖혀쑥. 그거 감앙 흐쓸 캐영 가야 물 들어갈 때 영 다까야 눈이 얼랑얼랑 안 허주. 눈 거 풍풍에 낱 사발 씻는 식으로.

105016 @ 아.

105016 #3 경허여.

105016 @ 그 눈을, 큰눈을 속으로.

105016 #3 큰눈이나 족은 눈이나 영 다깡 쓰주.

105016 @ 그럼 삼춘은 큰눈 씻수과, 족은눈 씻수과?

105016 #3 족은눈 쓰단에 큰눈 씻주게. 큰눈 하영 써서.

105016 @ 아. 족은눈 쓰다가.

105016 #3 으, 체암 베울 땀 족은눈 써신디 그 다음에는 배운 후제는 큰눈.

105016 @ 옷은 그냥 처음 베울 때나 나중에나 똑같고, ㄹ트고?

105016 #3 으.

105016 @ 계난 삼춘 그만 돼사 고무옷이 나온 거?

105016 #3 우리 고무옷 나온 때 나 설러분 막 후제, 후제 나왔주게.

105016 @ 아.

105016 #3 우리 헐 때 고무옷 나시민 우리 아프지도 안 허고 막 하영 헛주. 막 설러벤 오랜 후제 고무옷 나완.

105016 @ 계민 막 일찍 설러신게.

105016 #3 일찍 설러주. 나 설러 디가 이제 우리 셋똥은 스물, 아니 오십네 설 똥난 가이 세설 때 설러부난 오랬주. 막 한참 허단 설러부런. 아파부난.

105016 @ 예, 아프난예. 예, 예.

105016 #3 우린 메역, 이 금혜여근에 문 지켜났주. 멧 사름씩 바당 지키레 돌아 보멍 허당 허지허민 먼 바당에난 휘여 가지 못 허민 늬의 또꼬망에 뜨라진 거 쥐어 가주게.

105016 @ 으, 으.

105016 #3 계난 난 휘진 잘 못 허는디 나 또꼬망에 흔 서른 사름씩 마흔 사름씩 나 또꼬망에 돌아정.

105016 @ 하하하.

105016 #3 이녁만 휘여가지 못 허난. 또꼬망에 돌아진 건 막 늬 가는양 가.

105016 @ 계도 삼춘이 상군인 거 아난 뒤에 붙어 온 거 아니?

105016 #3 경허난 이 바당에 어디 강 지픈 거 어디가 여 신 거 이 토평 지경, 토평 지경에 신 바당에 여 어디 신 거 어디 생복 하는 거 어디 구제기 하는 거 다 알주게.

105016 @ 계난 계난 삼춘 쫓아가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영 쫓아 간 거잖아예?

105016 #3 으. 계난 메역허레 멀리 휘 가지 못허난에 가는 거. 경헨 허멍 나 구

쟁기도 많이 행 잡양 옛날에 걸어근에 서귀포 정 강. 우리 하르방 군인 강 오랑 막 중간 대수술 허젠 허난 저 한국병원에 입원 헨. 채비 엇이난 영 혼참 넘어간 디 강 잡양 그거 서귀포 정 강 풀양 집이 오랑 그걸로 채비 행 병완에 갖추.

105016 @ 아이고. 계난 병원비는 어떻헨?

105016 #3 병원빈 돼고 임시 채비 엇이민 보통으로 돈 꾸어주질 안 허난. 경허 명 살아났주. 계난 아이덜 공부 잘 못 시키고. 하르방이 아파부난 군인 강 왕 이십 칠 년 동안 아판. 대수술, 죽은 수술, 매해 굿 허고, 아이고 매해 약이엔 현 건 제주 시에 강 약국에 약국이엔 현 건 다 돌아텅기고. 약도 말도 못허게 먹엇주.

105016 @ 고생헸구나.

105016 #3 군인 간, 해병으로 가난게 제대, 제대 안 시켜 쥘.

105018 @ 음. 툷, 툷은 개인으로 작업헸니까?

105018 #3 무시거?

105018 @ 툷, 툷.

105018 #3 툷도 옛날에는 툷도 헨에 바껴났주.

105018 @ 계난 공동으로 행 바껴는 거?

105018 #3 공동으로덜 행 바껴났주. 경헤신디 그거는 우리 어린 때 헷주 역은 후제 안 헨.

105018 @ 무사 역은 후젠 안 헨?

105018 #3 그거 공동이로 지켜지도 못 허고 툷 나는 디 하지 안 허난.

105018 @ 아, 계난 이쪽 토평에는 툷 하영 나지 안 헸니까?

105018 #3 하영 안 나.

105018 @ 하영 안 나. 어릴 때는 공동으로 작업 행?

105018 #3 공동으로 작업헸덜 하루 허젠 허면은 비여근에 혼짐씩 저 가는 사름 두짐씩 저 가는 사름 헤났주게. 나 알기에는 두린 때라도 알아지는다. 경헤신디 역은 후제는 많이 엇인 디난에 그대로 내불민 그자 저기 물때 돼가민 헤 오고 물때 돼가민 헤 오고.

105019 @ 우미는 어떻 헸니까, 공동으로 헸니까, 개인으로?

105019 #3 우미는 이디, 이디는 베랑 안 현 디라부난. 가는 사름 해당 먹엇주. 우리 이디 토평 지경에는 우미 영 폭는 사름도 엇고.

105019 @ 아, 우미가 벨로 안 낫구나예.

105019 #3 베랑 지픈 바당에 안 나주게 굿디만.

105019 @ 아, 베랑 안 나는구나.

105019 #3 다른 바당에덜은 저 울산더레 가민 우미 헤여근에 막 헤다근에 멧 칭씩 그걸로 막 해녀들 풀주게 경헌디 이디서는 우리 토평 바당엔 우미 헤근에 경 폭는 사름도 엇고. 굿디 나난에 물싸 가민 강 헤 오랑.

105020 @ 저기 구쟁기, 구쟁기랑 생복은 전부 개인이지예? 개인으로 허는 거지 예?

105020 #3 개인으로.

105021 @ 그 생복에도 종류가 잇수과?

105021 #3 생복 종류가 잇주게. 이제 바당에 잇는 것은 자연이고 이제 이 서귀 포서 푸는 거는 그 양식이고.

105021 @ 그런 거 말고 생복에도 남자랑 여자랑?

105021 #3 어, 잇어. 수커는 납작하고 암커는 굴락하고.

105021 @ 아, 굴락하고. 맛 좋기는 뭐가 맛좋읍니까?

105021 #3 그 자연은 다 맛있주. 수커, 수천복이 더 맛있어.

105021 @ 납작헌 거?

105021 #3 으. 바레민 납작허여.

105021 @ 구쟁기도 어떤 종류가 잇수과, 그렇게?

105021 105021 #3 구쟁기도 민둥구제기.

105021 @ 으.

105021 #3 또 쨌쨌헌 소라구제기.

105021 @ 예.

105021 #3 또 뭐 쌀구제기 그거라. 커 가는 양 구제기가 경 헤신가?

105021 @ 으.

105021 #3 민둥구제기는 막 오래살민 이 쌀이 흐뎡 오고라지주게.

105024 @ 음. 아까 배 보여드려신디 이거 명칭들은 잘 모르지예? 여기 앞예를 뒤렌 곶아신지?

105024 #3 이거 배에는 이거는 이물, 이거는 고물. 중간에 건 몰르크라.

105024 @ 으. 이거는?

105024 #3 이거는 저 초석.

105024 @ 초석.

105024 #3 옛날에 노래도 잇주게.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105024 @ 아, 하하하.

105024 #3 경헨 내 젓주게.

105022 @ 경허명 내 젓어. 이 테우는, 테우는 자리 잡을 때만 써낫수과?

105022 #3 테위도 어랭이 나쁠 때 많이 췌주게. 저 자리 거릴 때도 헤나고.

105022 @ 자리 거릴 때도 헤나고.

105022 #3 테위는 저추록 안 헤근에 영영 젓어. 그거 그거는 직접 영 물에 띄와 진 거난.

105022 @ 예.

105022 #3 영 판테기 멩글아근에 사름 사근에 걸쳐근에. 배에는 저거, 테위는 물에 낭이 물에 커진디 우이 앓아근에 그디서 내 젓고 그디서.

105022 @ 그디서 내 젓고 허는 거예. 예, 바닷일에 관한 건 다 물어봤수다.

6. 의생활

옷감

106001 @ 이젠 옷, 옷.

106001 #2 옷?

106001 @ 옷 종류 같은 거, 바농질 헤난 거 그런 거 물어보쿠다예. 옷ㄱ슴, 옷ㄱ슴 종류에는 어떤 거 잇수과?

106001 #2 베도 잇고 모시도 잇고 미녕도 잇고, 저 뵈이니 이런 비단 거튼 거게.

명주

106002 @ 멩지?

106002 #2 멩주. 멩준 우리 누에 질좌근에 뵈, 뵈 톨아당 누에 뵈영 막 멩지 짜 낫저. 멩지 클에 흐루, 이틀만 짜민, 짜민 흐 빌. 경혜근에 우리 처녀 때. 학교 졸업헨에 우리 처녀 때이.

106002 @ 예.

106002 #2 시집 안 오고 현 때 그거 막 짜근에. 그거 흐 빌 주민 --이엔 현 거 치메 흐나 ㄱ슴 줘라. 흐 빌 주어사. 옛날에. 경헨 그거 상 입곡 멩진 집이 혜영 하난. 그 누에질황. 누에 쳇 번 으만씩 현 때부터 조근조근 커 놔근에 고치혜근에이 영영 고치 싸곡. 영혜영 고치 싸곡.

106006 @ 게민 누에 질루는 거 물어보쿠다예.

106006 #2 어.

106006 @ 누에 허젠 허민 그 알을 어디 강 얻어 오는 거라? 어디 강 사 와?

106006 #2 어디산디 강 얻어오는지, 그때 돈 조합으로 나와라게.

106006 @ 예. 게민 누에 사민 으만현 거 아니?

106006 #2 쳇 번 누에 거시기 알, 알 기자 좁쌀거치 똑똑똑똑 혜진 거 으만이 현 것가 기자 흐, 흐 줘. 경혜영 반 장, 흐 장, 반 장, 흐 줄 경허명 흐 줄은 젤 죽은 거 반 장은 흐썰 큰 거, 흐 장은 막 큰 거. 경혜근에 흐 장 질루민 구들 흐나 이방만 현 거 솜뻑허게, 이디 솜뻑.

106006 @ 게민 한 장이엔 허민 이만 현 거 하나 상 오는 거?

106006 #2 흐 장이엔 허민 씨가, 씨가 흐 장.

106006 @ 예, 씨가 흐 장.

106006 #2 씨가 흐 장 허민 그거 키우민 막 하.

106006 @ 게민 이 방에서 누에를 키우덴 허민.

106006 #2 허민 줘, 줘박에 현 거 영 헨 네모난 거 잇주게. 줘박 영 행 네모난 거 시민 이디 문땀 메여, 저 거시기 대 해당. 대 해당 흐 칸 흐 칸 올려 놓는 거.

이디 혼 칸 으디 혼 칸, 으디 혼 칸 이 방 하나 슴빡.

106006 @ 음.

106006 #2 반 장. 혼 장 허민 이 구들 두 개 헤사주, 두 개.

106006 @ 아, 한 장이면 누에가 얼마나, 크기가 얼마해?

106006 #2 혼 장은 으디 요만이 현 것이 이디 똑똑똑 이거 문 무시거 좁쌀거치 자락허게 놔지민 그것이 씨.

106006 @ 이게, 이 크기가 혼 장?

106006 #2 으.

106006 @ 처음에 이만헐 때 이 크기 혼 장이면 이 방 다 차?

106006 #2 어. 차당도 남아.

106006 @ 아, 기마씨.

106006 #2 어, 이 방 두 개 허여, 두 개 혼 장 허민.

106006 @ 이만 현 거 한 장인디 이거 하나씩 잘르멍 여기.

106006 #2 아니, 이디 영 노민 이디 문딱 깨우주게.

106006 @ 예.

106006 #2 좁박에 영 행 놔두민 깨우민이 그걸 문딱 깨우민 이 좁박더레 들어 놓고 저레 놓고 똥 치우멍 영영 허멍. 췌 번은 으만씩 현 거 허민 뽕 해당 즈질이 막 깎늘게 썰어근에 그거 영영 주민 그거 문 먹어. 먹엉 뒷날은 으만이 더 크고.

106006 @ 아, 하하.

106006 #2 뒷날은 또 으만이 더 크고. 그거 자꾸 헤근에 주주게. 물 글라지민 누에 죽어벼. 물 안 글라지게. 돌르게.

106006 @ 게민 그 이파리 그 뽕잎에 물 없이.

106006 #2 물 엇게. 비 온 날은 문딱 물을 다까사. 경헤근에 그거 주민 크민 저 혼불 즈 잣저, 두불 즈 잣저, 세불 즈 잣저, 네불 즈 잣저 경허주게. 경헨 흐쓸 커 가민 그걸 경 곤주게.

106006 @ 게민 혼불 즈 자는 게 며칠 지나민 혼불 즈 자는 거?

106006 #2 그거 몰라. 혼 일주일, 일주일 똤카.

106006 @ 일주일. 누에가 으만이 현 거 실 뽕을 때까지 허면 멧불 즈을 재웁니까?

106006 #2 네불.

106006 @ 네불 즈을 재우는 거라예. 게민 네불이면 혼불 즈 자는 게 일주일이면 이만큼 크는 게 혼 한 달이민 되는 거.

106006 #2 으. 경헨 그 마지막에 뽕 툐아당 그대로 뽕낭 차로 영 더경 놔두민 그냥 웃드레 올르멍 문 먹곡.

106006 @ 게민 처음에는?

106006 #2 즈질게 썰엉 우리 무시거 저 쪽파나 무시거 썰지 안 허여. 그추룩 막 영영 헤근 에 주곡.

106006 @ 예.

106006 #2 경헨 거 커가민 흐쓸 이디 ㄱ득아 가민 요쪽더레 흐쓸 읍겨 놓고 요쪽더레 읍겨 놓고 혜영 또 흐쓸 커가민 크게 썰고 흐쓸 커 가미 또 크게 썰고 또 해당 영 무지렁도 놓고. 경허당 마지막에 통차, 통차 막 들어쳐.

106006 @ 예.

106006 #2 경헨 먹어근에 허민 누에 마지막 다 뵈 건 올를 때 뵈민 노랑헌 게 죽아. 흐뵈 줄어들어. 줄어들민 그건 또 이디 혜근에 누에 올리는 거 베염고사리, 고사리, 베염 고사리 그런 거 비여당이, 허궁고사리, 허궁고사리엔 허주게.

106006 @ 허흥?

106006 #2 허궁. 허궁고사리.

106006 @ 아, 허궁고사리.

106006 #2 으. 그거 비여당 영 행 놔근에 그거 올르는 거 노랑헌 거 영 행 오그라져근에 사름도 늑어가민 죽듯이 죽아. 경허민 그거 올령 놔두민 고치가 뵈여이.

106006 @ 으.

106006 #2 누에 영 뵈 동글락 헨. 그 그 고치 뵈민 그 고치가 굳으민 문 손으로 따. 손으로 땅 이디 모여놔근에 그걸 물류와. 뵈디 물류와근에 솟디 놔근에 불 숨으멍 이디, 이딘 솟 놔근데 대막뵈이 하시, 접음 영 두 개 혜영 영영 접으멍 고주리, 고주리주 고주리엔 헌다게.

106006 @ 고주리.

106006 #2 어, 고주리 그 누에 번데기가.

106006 @ 번데기.

106006 #2 지금 번데기, 번데기 허멍 풀지?

106006 @ 예, 예.

106006 #2 거 고주리.

106006 @ 예.

106006 #2 고주리, 고주리 허주게. 경헨 그건 접아내영 이레 영 놔두고 이딘 또 영영 감으멍 실 나오주게 영. 영 허민 이딘 영영 짓으고 올론 불 때곡.

106006 @ 예, 예.

106006 #2 불 때곡 허민 이딘 영영 짓으멍 이거 영영 짓으멍 요레도 바레고 요레 바레멍 영 접아내고 이디 줍아가민 저거 영 더 놔가멍 허곡. 경혜근에 이만은, 요만은 높이 혜지민 그거 문 이거 이제, 이거 불도 안 때곡 요거 뜯어내영 그거 혜영 멩지실, 멩주실 혜영 요레 영 걸어뵈근에 새로 허곡.

106006 @ 아.

106006 #2 아이고 잘도 어려와 그거.

106006 @ 게난 누에 질뤄가지고 실을 뽑젠 허민 누에가 얼마만큼 큼니까? 손가락 크기만큼?

106006 #2 어게. 요만씩, 요만씩은 커. 요만씩 컷당 고주리 뵈 가민 요만이.

106006 @ 고주리 웨민 이게 줄어듭니까?
106006 #2 줄어들어.
106006 @ 여기 노랑헌 거 앓은 거는 그계?
106006 #2 노랑허고, 노리롱허고 줄어들어.
106006 @ 게민 그 노리롱헌 게 고주리 웬 거?
106006 #2 고주리 웨 가는 거.
106006 @ 아.
106006 #2 다 웬. 집 짓젠.
106006 @ 집 짓젠.
106006 #2 어, 사름 거트민 세상 다 떠나는 거주게.
106006 @ 으.
106006 #2 으, 경혜영 그레 허궁고사리 해당 놉두민 집 짓어. 영 영. 췌 번은 널 리 영 헛당 츠츠 헤근에 줍게 행 요만이 집 짓언게. 잘도 거 신기헤여.
106006 @ 경헨 그거 따당 솟에 놓는 거?
106006 #2 으, 따근에 그거 번데기도 삼스방에 못 쓰는 번데기가 잇주.
106006 @ 예.
106005 #2 그거 문 뜯영 문딱 곱닥허게 벳겨더근에. 곱닥허게 벳디 물류와근에.
106005 @ 예.
106005 #2 사락허게 막 고와. 혜영케 요만씩 허게 막 곱나. 경허민 그거 솟디 물 꿰우멍 놉근에 영영 젓으멍 헤가민 그거 실로 이레 영 행 이레 영 행 연결허는 거가 잇주. 영영 영 헤여근에 요디 영영 감앙 또 올로 영 뽑아내영.
106005 @ 음.
106005 #2 경헨 요디 영 들르는 게 잇어 물레, 물레. 물레엔 헨 영영 이견 들르 고 이견 영영 허멍 고주린 요레 헤근에 번데기.
106005 @ 이딴 솟디를 얘기허는 거 아니?
106005 #2 으, 요건 솟. 요건 솟. 이견 저 물레, 물레. 이견 물레 영 실 감는 거. 실 감는 거.
106005 @ 이 물레가 이런 건 아니지예, 이런 거?
106005 #2 아, 이견 물레 닳다. 이거 물레.
106005 @ 이거 물레?
106005 #2 어, 이거 물레. 이거, 이거 기여. 이거, 이거. 이디 영, 요디 솟 놉근 에 요레 물레 요 실 와신게. 요건 두 개로 온 디.
106005 @ 게민 솟 여기 잇어?
106005 #2 솟은 요디 솟 헤근에, 요디 솟 혜영 요디 영 행 요런 거 요디가 싯 지. 요디 시민 요레 영 뽑아내영 영영 들르멍 영.
106005 @ 솟 옆이서 바로 물레를?
106005 #2 어, 영 행 들르다게.

106005 @ 이디 밑에선 불 때멍?

106005 #2 어, 올론 불 때꼭 요건 솟이고 요딘 또 무시거 영 연결허는 거 영 현 거 잇주. 경허민 영 올로 영 것갈로 영영 것으민 실이 나와. 이 솟디서 경허민 그거 영 뽑아근에 요레 영 혼 번 영 헤근에 요레 등경 요거 뱅허게 두 번 감양.

106005 @ 으.

106005 #2 올로 행 또 영 연결헤여근에 경허민 요레 영 허민 요레, 요레 강 요레 영 잇어그넝 뱅뱅 들르민 이거 영 젓어가멍 영 허민 실이 줄줄줄줄 나오주게. 하하하.

106005 @ 오, 신기하다. 이거는 뭐 허는 것과, 이거는?

106005 #2 이건이 멘네 불르는 물레.

106005 @ 아.

106005 #2 저건 실 감는 물레. 이건 멘네, 목화, 목화. 씨 불르는 물레.

106005 @ 아까 한 장 헤가지고 이 방 하나 키왓잖아예. 그거 허면 멩지실 얼마나 나오니까?

106005 #2 멩지. 멩지 혼 장 질루민 멩지 네 빌 나올 거라. 네 빌.

106005 @ 네 빌?

106005 #2 으.

106005 @ 네 빌이민 옷 얼마나 헤 입을 수 있는 거?

106005 #2 서른 자씩 네 빌이민 120자.

106005 @ 예.

106005 #2 120자민 혼 빌에, 멩지 혼 빌에 우리 치마 두 개.

106005 @ 아, 치마 두 개.

106005 #2 으, 치마 두 개.

106005 @ 혼 빌에 치마 두 개민 네 빌이민.

106005 #2 으답 개.

106005 @ 여덟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106005 #2 으. 혼 장 질루민 네 빌 너머 나올 거라.

106005 @ 으.

106005 #2 네 빌 너머 나올 거라.

106005 @ 게민 어쨌든 그게 한 달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예?

106005 #2 으?

106005 @ 한 달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예?

106005 #2 혼 달에 다 못 허여.

106005 @ 어쨌든 잠 잤당 깃당 잠 잤당 깃당 네 잠 자민?

106005 #2 어, 어 그건 거자 혼 덜, 기자 흐쓸 뉘고. 그거 행 뽑아내고 물레 행 실 뽑아내고 허민 아멩헤도 혼 스십 일 걸릴거라.

106005 @ 스십 일.

106005 #2 으, 으. 경 걸릴 거여.

106005 @ 그렇게 뽑아낸 명주실, 멩지실에도 어떤 종류가 잇수과?

106005 #2 아니 아니. 그건 몰르켜 우린 기자 혼 가지로 헤 나난.

106005 @ 고운 거랑 나쁜 거랑 불르는 이름이 잇지 안 허여.

106005 #2 으, 왕 고치, 왕 고치엔 현 건 두 개, 누에 두 개가 들어 강 집 하나
 짓은 거 왕 고치. 그건 실이 훑게 나와. 훑게 나오민 그건 저 흐쓸 느린 멩지.

106005 @ 예.

106005 #2 그런 딱로 해근에 느린 멩지로 미녕에 서경 짜낫저.

106005 @ 느린 멩지?

106005 #2 으, 왕 고치, 왕실.

106005 @ 안 좋은 건?

106005 #2 안 좋은 거 왕실.

106005 @ 왕실.

106005 #2 좋은 건 기자 실, 좋은 건.

106003 @ 멩지로는 어떤 옷 멘들앙 입엇수과?

106003 #2 요새에 제주돈 수의. 죽어 강 입는 옷. 그거 다 혼다. 게민 여잔이 세
 빌 반 들어라. 여잔 다 허젠 허민.

106003 @ 아.

106003 #2 세 빌 반. 남잔 세 빌 드는 거 님아라. 세 빌.

106003 @ 아.

106003 #2 옛날엔 우린 노린 물도 들영 저고리 행 입고 붉은 물도 들영 저고리
 행 입곡 치만 검은 물 들영 다듬이질 해영 주름 과짜 세왕 경헨 치마 행 입곡 경해
 낫저게.

106002 @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실 뽑앙 이렇게 돌렛잖아예?

106002 #2 으.

106002 @ 이게 멩지실 다 만들어진 거?

106002 #2 멩지, 멩지실 만들은 거 그거 해근에 이젠 또 요디 영 돌리는 기계가
 또 잇어. 이거 영 허는 물레가 아니고. 또 영 허는 활, 활 물레가 잇어어.

106002 @ 음.

106002 #2 벵 이 둘레로 두는 거. 그거 이 멩지실을 요추록 현 거 그걸이 요추
 록 둘레 현 걸 그걸 영 씨와근에 경헨 실 감아 또, 감아. 저 요새 저 거시기 오렌지
 거튼 거 먹어난 통 거튼 거 막 어렵주게 옛날엔. 그런 것 실 든 감으멍 영해근에
 이런 썬에 감은 건 딱딱허민 영영영영 브벼근에 영영영영 브벼근에 이녁만씩 가게
 시리 경헨 영영 가민 굿인 건 영영 입으로 다듬아불고 또 굿어근에 실 끈어지민 영
 행 실 브벼근에 봉가 내여근에 막 어렵게 봉가내영 그 실 잇어근에. 실 잇는 식도
 영 해근에 가데기 청 영 허민 똤여.

106002 @ 실 잇는 것도 그냥 무끄지 안 행.

106002 #2 으, 영 무끄질 안 허여.

106002 @ 예.

106002 #2 영 두 개 낱 가데기 청 영 돌령 올로 영 헤근에 영 허민 딱 돼지게 경허민 그걸 딱허게 낱 또 이걸 한 통에 낱 감고. 한 통에 감아근에 그거 흔 스무 개 헤신가. 그거 원 멧 개 헤난 거 몰르큰게. 우리도 막 헤난디. 그거 이디 놔근에 멧지 놀아 이제. 흔 사람 저레 줄 허민 이디 고지 네 개 박아근에 흔 번 저레 영 돌아가고 절로 흔 번 영 돌아왕 요디 오민 -- 요거 하나에 영 걸고 또 올로 헤근에 저레 돌아가꼭 저레 영 돌아오민 요디 왕. 경헨 흔 빌 허는 거 하루 경 헤영 놀아. 놀아근에 그걸 돈 췌여. 이걸 영 허민 이추룩 문딱 돈 췌다게. 영헨 췌민 영 헨 걸치명 돈 문 췌민 막 이 발로 흔 여남은 발씩 헨 거 멧 개 돼주게.

106002 @ 예.

106002 #2 그거 문 췌여근에 헛다근에 그걸 메여, 메여. 아래 모닥불 살르고 문지, 문지락 불 옛날말로 문지락 불 살좌근에 그 우터레 도꼬마리 놓고 경헤여근에 저레 헤근에 영 헨. 또 술 헤여다근에 저 바당에 가근에 꽤 헤다근에 가시리.

106002 @ 가시리.

106002 #2 가시리풀, 가시리풀 쑤어근에 술에 블라근에 그거 영영 영영 허멍 멧 도꼬마리에 문 감아. 경헨 클에 낱 짜주게. 오죽 어려우카분덴.

106002 @ 게민 풀 맥영 허는구나.

106002 #2 어, 풀 맥여근에.

106002 @ 아.

106002 #2 경헨다게. 경허민 그 새, 새 좇는 것도 하나만 뜰리민 다 뜰려벼.

106002 @ 하하.

106002 #2 다 뜰려벼. 이디 거는 것도 저레 돌아가단 하나만 중간에 이레 돌아와불민 안 돼는 거. 다 뜰려부는 거.

106002 @ 다 뜰려부는 거.

106002 #2 어. 거 막 멧심혜사. 하하하.

106002 @ 멧심혜사. 예. 멧지 헛고예 이제 미녕.

무명

106007 #2 아, 미녕도 똑ㄴ타.

106007 @ 미녕 종류에는 뭐 뭐 잇수과?

106007 #2 목화.

106007 @ 아니 미녕에 종류에는?

106007 #2 미녕 종류 뭐 무시거 잇어게 그거 하나주.

106007 @ 토목, 생목, 광목 뭐 그런말?

106007 #2 아, 광목, 광목, 광목은 저 기계로 짱 저 거시기에서 나오는 거. 우리 이디서 허는 건 미녕.

106007 @ 그냥 미녕이렌 현 거.
106007 #2 으. 기자 미녕 혼 가지.
106007 @ 토목이렌도 얘기 안 해난?
106007 #2 안 허연.
106007 @ 옛새미녕, 닷새미녕은 들어봤수과?
106007 #2 어, 옛새미녕 닷새미녕 현 건, 일곱새미녕, 거 막 줌진 건 일곱새, 옷 새. 닷새 막 훑은 거.
106007 @ 훑은 건 닷새미녕예?
106007 #2 으.
106008 @ 게민 미녕으로는 어떤 옷 멘들양 입엇수과?
106008 #2 미녕옷은 이디 저 정뱅이도 멘들고 저고리도 미녕으로 허고 이불도 허고.
106008 @ 아, 이불도 미녕으로?
106008 #2 으, 이불도 안팎 문 이불, 기자 이디서 헤지는 거난 그걸로만 헛주게. 사지 못허난. 이녁냥으로 허는 거난. 경허고 미녕으로, 미녕실로 헤근에 저 대비엔 헤근에이 대비 영 짜근에 신고.
106008 @ 으.
106008 #2 저 이 손에 저 장갑도, 테부꾸로. 거 일본말.
106008 @ 일본말이고.
106008 #2 장갑이주. 우린 테부꾸로, 테부꾸로 해낫저게.
106008 @ 예.
106008 #2 그거 짜근에 손에 끼고. 그거 미녕실로 경허고 미녕은 헤근에 이제 몸빼도 행 입고 소꿉에 살마다 옛날은 그 해녀만 입지 안 허고 속곳, 속곳 해도 난 안 입어 봤저만은 속곳, 속곳 허멍 입어나서덜. 속곳도 멘글양 입고. 다 옷 행 입주 그거 겉옷이나 속곳이나 다.
106008 @ 다 미녕으로.
106008 #2 어, 우이 옷이나 아래 옷이나 미녕으로. 미녕허고 멩지만 행 입어낫 주 다른 옷은 엇엇주게.
106008 @ 엇어난예. 게난 토목 허는 말은 안 써난?
106009 #2 토목?
106009 @ 으.
106009 #2 토목은 저 거시기 짓 안 지운 거 토목이엔 허는 거 닳다. 짓 안 지운 거. 거 풀 썩근에 거 짓 안 지운 거.
106009 @ 예.
106009 #2 으, 그거 닳다.
106010 @ 광목은 공장에서?
106010 #2 광목은 공장에서 나와근에 어게.

106011 @ 홍세 미녕이란 게 뭐과?
106011 #2 홍세 미녕?
106011 @ 예.
106011 #2 그 미녕은 헤여근에 홍세 놔 난 거게.
106011 @ 음.
106011 #2 저 장개 갈 때 새각시 들레 가젠 허민 그 홍세 놀 때 미녕허고 멍지 놓주게.
106011 @ 홍세가 뭐라?
106011 #2 홍세가 장개갈 때 무시거 정 가지 안 허느냐, 그거 함. 함.
106011 @ 음. 그걸 홍세렌 허는 거.
106011 #2 으, 그거 그거. 지금은 돈으로 놓고 무시거 햄주만은 그땐 홍세엔 헤 근에 흐쓸 잇인 집인 멍지 놓고 엇인 집인 미녕. 경헨 놔 낫저게.
106011 @ 삼춘 시집 올 때는 멧 필이나 놔십디까?
106011 #2 저 미녕 두 빌, 멍지 두 빌 논 거 닥아라. 아, 미녕 혼 빌, 멍지 혼 빌. 경 논 거 닥아라.
106011 @ 아.
106011 #2 경헨 아저 오난 할망 문딱 아저 가변.
106011 @ 하하.
106011 #2 어, 아저 오난.
106011 @ 할망이엔 허민 시어멍?
106011 #2 어, 시어멍.
106011 @ 시어멍이 문딱 가져가불언.
106011 #2 어.
106012 @ 아이고 그걸로 옷도 못 헤 입언. 예, 예. 목화 농사는 어땡 지어났수 과, 미녕 만들젠 허민?
106012 #2 미녕 만들젠 허민 멘네 갈젠 허민이.
106012 @ 예, 멘네, 멘네.
106012 #2 멘네가 어느 때 이때 갈암신가, 어느 때 가는 건 몰르켜. 가을에 타.
106012 @ 가을에.
106012 #2 어, 구월에.
106012 @ 봄에 갈암신게.
106012 #2 어, 봄에 갈암서. 저 구월덜에, 팔월덜로 구월덜에 탄다게.
106012 @ 예.
106012 #2 멘네 간 보민이 영 드레 영 올앗당, 드레 막 맛좋아. 거 판 먹고.
106012 @ 으, 멘네 가는 거부터 곶아줍서. 밧 갈양?
106012 #2 밧 갈양 그디 씨 놔근에, 씨 툃툃툃 놔근에.
106012 @ 뿌리는 게 아니고 툃툃 놓는 거?

106012 #2 툃툃 톡는 디도 잇고 씨 한 딘 뿌리고.

106012 @ 으.

106012 #2 또 씨 죽은 딘 툃툃 놔근에 방수 베경 놓고. 경헨 멘네 갈아근에 허 딘 멘네 나주게. 여름에 저 노래도 잇지 안 허냐. 여름에 꽃이 피영 가을 돼민 온덴 허는 노래도게.

106012 @ 예.

106012 #2 경허민 가을에 강 보민이 드레 요만씩 요만씩 현 드레 영 행 쫄망쫄망 허주게. 경헨 문 꽃 피엇당 춤. 꽃 핀 때 막 꽃이 고와.

106012 @ 멘네는 영 갈아근에 검질 메고?

106012 #2 검질 메고.

106012 @ 소까주는 것도 잇어?

106012 #2 건 검질 메곡게 저 비료도 주민 크곡게. 건 옛날엔 비료 옛영 비료도 못 쫄주만은.

106012 @ 오줌?

106012 #2 오줌도 저당 주곡. 대겐 멘네왔디 안 주고 보리왔디 줘라게. 오줌은 보리왔디.

106012 @ 으, 보리왔디.

106012 #2 으, 보리왔디 대게 쥘게. 멘네왔은 그자 내불덩. 경허민 멘네 그 드레 올라근에 그걸 드레가 익으민 헤영허게 부각허게. 거 안 받데이.

106012 @ 예, 예 못 봤수다.

106012 #2 그걸 갑갑 해근에 갑이 네 갑도 잇고 다섯 갑도 잇고 현 거 꽃 피듯이. 부각허게 헤영케 밧디 기자 헤영헤여. 게민 거 문 밧디 강 문 따멍 문 출구덕 짜근에 이레 농곡 영 탕 놓고 탕 놓고 해근에. 거시기 히여뜩 현 검질은 다듬아불고 그것만, 그것만 행 벧디 왕 막 널어. 널엇당 ㄱ짜 물레.

106012 @ 예.

106012 #2 물레에 하나씩 맥이멍 영영 허민 쥘 요레 털어지곡 목환, 저 숨은 저레 가곡. 경헨 멘딱 밧레여. 그걸 또 막 두드려.

106012 @ 밧렌 거를?

106012 #2 그거 문 불른 거. 불른 걸 저 기계 엇인 뎨 이디서 막 몽텡이로 두드리민 걸 막 피여낭 숨 돼여. 숨 돼영 옛날은 막 그걸 영 숨 쥘 걸 골로루 골로루 막 폐와 낡 그걸 영 헤여근에 숨 헤여근에 이불 행 더끄곡 헛주만은. 그 기계나난 불른 거 들른 거 아정가민 기계에서 문딱 헤 줘.

106012 @ 음.

106012 #2 또 말째라가난 멘네만 아저가도 블라근에 해주고. 말째라가난 점점 머리가 밧달해가난.

106012 @ 아, 멘네 가져 가민 거기서 다 씨 빠 가지고?

106012 #2 으, 경헨 옛날은 거 화리에도 영 행 탁탁허게 화리에 쏘이멍 그걸 폐

와난 생이라. 영 행 영영, 영영 허민 탁탁허게시리.

106012 @ 아.

106012 #2 경 두드러지는 식으로. 경혜근에 그걸 막 널리 폐왕 경허민 그거 숨 웨여근에게. 게난 옛날 하르방덜 오죽 어려와시냐?

106012 @ 그걸 다 허멍 살앗던 거라예?

106012 #2 으, 문 허멍게. 우린 기자 저 물레에 블란에 기자 기계에 아정 강 헤 낫저게. 경만 행 허민 경혜영 거 정 짓엉 또이.

106012 @ 음.

106012 #2 물레에 블라근에 그 기계에 아자가민 그 정 짓어주주. 요만이 혜근 에.

106012 @ 정 짓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과?

106012 #2 정 짓넌 흐는 게 쫄랑허게 요추룩 혜근에 거시기 이디 가레떡 거치 밀어.

106012 @ 아, 밀어.

106012 #2 어, 그거 영 막텅이 농멍 밀엉 영 뽑고 영 뽑고 허멍 혜여근에 그걸 또 미녕 좇주게 물레혜근에. 가레기, 가레기 요레 놓고 미우쟁이 혜여근에 이레 영 놔근에.

106012 @ 미우쟁이?

106012 #2 미우쟁이엔 혜근에 지금 저 무시거 산에 가민.

106012 @ 억새.

106012 #2 억새. 억새 꺾죽, 억새 꺾죽혜근에 가레기에 영 낱 허민 그거 꺾 짜 정 짓으거 혜근에 물레에 들르멍 영 좇아근에 영 올리고 경허멍 미녕 헤낫저게. 그 거 경헨 가레기에 혜근에 미녕 좇아근에.

106012 @ 이것도 써낫수과?

106012 #2 이걸 물레, 이거 물레.

106012 @ 이거 물레.

106012 #2 이거 미녕 좇는 거, 미녕 좇는 거. 이건 저 멘네 불르는 거.

106012 @ 불르는 거.

106012 #2 어, 썰 블라내는 거. 이건 썰 뽑아내는 거.

106012 @ 썰 뽑아내는 거예.

106012 #2 으, 썰 뽑아내는 거. 경허멍 문 썰 뽑아내엉 그것도 꼬리로 감고 꼬 리론 대 막텅이 혜근에 영 행 영영 허멍 꼬리 감고. 또 모쟁이 감고 동글랑동글랑 곱거치. 경혜근에 또 꺾 짜 멩지 늘듯 문 늘아사.

106012 @ 아, 그것도 늘아사.

106012 #2 어. 것도 늘앙 또 모닥불 살황 메여. 메영 또 베틀에 행 짜주게. 경 어루와, 어루와.

106012 @ 어루와.

106012 #2 으, 뗏 가지니?

106012 @ 예.

106012 #2 어루와.

모시

106013 @ 모시 해낫수과, 모시?

106013 #2 모신 저 우린 안 해 봤저만은 늬 흐끔 허는 거 어린 때 봐 난 거 닷
아.

106013 @ 예.

106013 #2 모신 막 큰 낭 강 비여당 거 썸 확확 홀터덩 숲아라, 숲아. 겐 거죽
벧경.

106013 @ 거죽 벧경.

106013 #2 으, 거죽 벧경 니빨로 영영 할망덜 허멍 그 썰 멩글양. 또 썰 영영
멩글양 요만이 허민 요만이 헌 거 두 개 허당 요디 해근에 영 잇영 영 해영 영 놓
고. 경해라 차롱에.

106013 @ 잇으멍.

106013 #2 어, 니빨로 영영 해당 이디 영 잇고. 이거 잇는 거, 잇는 거.

106013 @ 잇는 거.

106013 #2 어, 노 꼬왕. 두 개 영 합저근에 영 허민 돼고. 게민 이 차롱더레 영
놓고 해라. 허는 거 봐난.

106013 @ 봐난.

106013 #2 어, 닥도 경허고. 저이 거시기 닥 해다근에 베, 베.

106013 @ 베.

106013 #2 어. 모신 모시 뜯나고 닥낭 뜯나.

106013 @ 베가 삼 얘기 허는 거?

106013 #2 어, 어.

106013 @ 아, 닥 해다가 베도 해나고?

106013 #2 어, 베.

106013 @ 삼춘네는 안 해 난 거예?

106013 #2 안 해 난 거. 허는 거 봐 낫저. 이제 눈에 흐쓸 어른거려.

106013 @ 그거 허는 거, 모시 허는 거나 닥 허는 거나 모시 허는 거나?

106013 #2 ㄴ타, ㄴ타.

106013 @ 같아?

106013 #2 어, ㄴ타, ㄴ타. 손이 하영 가곡 숲고 하영 가. 손이 하영 가.

도구

106019 @ 아까 미녕이나 멩지 헐 때 물레, 물레에 불러난 일름덜 생각남수과?

106019 #2 어?

106019 @ 물레에 영 불러난 이름. 이름, 이름. 예를 들면 이거는 뭐렌 불러난 거 있어?

106019 #2 이딘 영 좁작허게 나와근에 영영 허민 울로 영 감아져. 영영 허민.

106019 @ 실 감아지는 거예.

106019 #2 으, 으. 울로 영 좁작헌 거 나와 영영 들루주게. 이진 무시거 해난 보든게. 이추록 영 발 해근에 영 세왕, 영 세왕 울로 좁작허민 요거 영 허민 요 들레로 새에, 가운데로이 실 영영 감아지주게. 울로 영 뿍앙 영 올리고, 영 뿍앙 영 올리고.

106019 @ 아, 이디서 올리는 거라.

106019 #2 어.

106019 @ 이거는?

106019 #2 이디 앓으는 거.

106019 @ 이거를 뭐렌 불렀수과?

106019 #2 이진 방식으로 이디 앓앗주게. 이디 깰앙 앓앙 이거 흔들지 말게.

106019 @ 으, 흔들지 말게.

106019 #2 흔들지 말게 기자 저 도망가지 말게 깰앙 앓앙 울로 요거 영 들루멍 요레 멘네, 요것도 멘네 헤영 막 물류와사 뻗디. 과상허게 물류와사 소왕소왕 허게 잘 먹주 경 안 허민 안 나가, 안 나가.

106019 @ 음.

106019 #2 경험 물류왕 울로, 울로 맥이주게. 울로 맥이민 요렌 멘네 나와고 요렌 썰 떨어지고.

106019 @ 실 떨어지고.

106019 #2 이렌 실 떨어지곡.

106019 @ 이거는 불르는 이.

106019 #2 요건 둘르는 거.

106019 @ 둘르는 거 즈룩이렌 불러?

106019 #2 어. 즈룩, 즈룩. 물레 즈룩.

106019 @ 이거는 불러난 이름은 생각 안 납수과?

106019 #2 그냥 물레엔만 헤낫저. 멘네 불르는 물레.

106019 @ 멘네 불르는 물레예.

106019 #2 으, 멘네 불르는 물레. 이진 실 뿍는 물레 기자.

106020 @ 실 뿍는 물레.

106020 #2 어.

바농질

106022 @ 이젠 바농질 물어보쿠다. 바농질예. 바농질 허젠 허민 뭐 뭐가 있어야

합니다?

106022 #2 바농질 허젠 허민 바농 잇고 실 잇고 경허민 뉘주게.

106023 @ 바농질 허면 이렇게 촘촘히 허는 것도 잇고 일름이 잇지 안 허여?

106023 #2 일름이 영 행 감추는 거 잇고 텅침 허는 거 잇고.

106023 @ 어, 텅침 허는 거.

106023 #2 흙질 허는 거 잇고.

106023 @ 흙질?

106023 #2 흙질은 그대로 영영 해근에 흔썩으로 영 흔 줄로 나가고 텅침은 뒤로 바농질 흔 번, 앞더레 흔 번 허는 거. 또 감추는 건 기자 우로 영영 감추는 거.

106023 @ 으, 거 세 개.

106023 #2 으, 경해낫저게.

106022 @ 예, 예. 바농질 허젠 허민 바농, 실도 있어야 허지만 손가락 이디 찢르지 말렌.

106022 #2 아, 그건 안 찢 낫주만, 손골메. 그거 잇어.

106022 @ 그거 잇어예.

106022 #2 어, 우리 어머니넌 그거 행 해라. 우리 어머은 그거 해근에 해낫저.

106022 @ 바농질 허는 일 해낫수과?

106022 #2 으, 바농질 우리도 이 노인훼서도이 이천칠백만 원 벌어서.

106022 @ 뭐 행?

106022 #2 저 상복헨에. 우리 노인덜. 우리 해낫저게 흔 멧 년, 흔 칠년인가 멧년 헛저. 상복헨 풀아시네. 장이사예 강. 막 욱 들으멍. 폴레 왓젠 욱 들이민 아고사 줍서, 사 줍서 허멍. 겐 이천칠백만원 헨에 칠백만 원은 개용 거시기리 임시 여금헛단 쓰고 이천만 원은 여금헛당 지금 부락에 저 잇젠 헨게.

재단과 염색

106030 @ 음. 게민 다름질 허젠 허민 뭐 또 필요한 게 있지 안 허여.

106030 #2 다름질은 다르미 잇어낫주게 다름질 허는 거.

106030 @ 다리미엔 합니다, 뭐렌 합니다?

106030 #2 윤디도 잇어나고. 윤디.

106030 @ 다리웨렌 헤?

106030 #2 다리웨. 다리웨엔 현 건 동글랑현 낭폰이 닳은 것에 영 즈룩 돋은 거.

106030 @ 즈룩 돋은 거.

106030 #2 그레 불 담아냥 영 허는 거. 윤딘 쫄랑현 거 영 즈룩 신 거 불 살른디 영 질엇다근에 영 영 다리는 거. 경해근에 멩지웁 헐 때 윤디가 잇어사.

106030 @ 눌러주고.

106030 #2 눌러쥬근에 흔 불 영 나가근에 영 꺾어쥬 영 눌러주고.

106030 @ 눌러주고.

106030 #2 어, 꺼끄는 것도 다 뜯나. 이 저고리도. 이디 거 헐 땀 우터레 꺼끄고 이디 거 헐 땀 두터레 꺼끄고.

106030 @ 아이고.

106030 #2 다 뜯나. 이디 거 헐 때 요레 꺼끄고 요디 거 헐 땀 이레 꺼끄고 다 뜯나. 또 짓 헐 땀 요레 꺼끄고.

106030 @ 음.

106030 #2 문딱 뜯난다게.

106030 @ 윤디는 그런 거 헐 때 꺾어줄 때 사용허는 거라?

106030 #2 으, 윤딘 꺼끌 때 사용허는 거. 저 다리민 다리웨, 다리웨.

106030 @ 다리웨.

106030 #2 다리웬 불 담아놔근에 옷 문 헤어나근에 주름 사지 말게 영 헤영, 꼬 부러지지 말게 다리는 거.

옷 종류

106024 @ 남자옷 종류에 뭐가 잇수과?

106024 #2 남자옷 종류 큰옷, 큰옷 잇고 저 거시기 글아지크냐 어디. 두루막 잇고 정병이 적삼, 바지 저고리 쪼끼. 또 제 헐 때 막 큰옷 거 무시거엔 헨다만은 잇어벤 글아지크냐.

106025 @ 예, 땃수다, 땃수다. 여자옷은마씨?

106025 #2 여자옷은 장옷. 장옷 잇고 치마 저고리, 두루막, 바지, 굴중의.

106025 @ 굴중의.

106025 #2 어, 속곳.

106025 @ 속곳.

106025 #2 그런 거 잇고.

106026 @ 아이들 옷은?

106026 #2 아이덜, 아이덜은 옷은게 체우 걸옷, 소꿉에 옷허고 걸옷이주게. 우이 옷 허고 소꿉에.

106026 @ 아이덜 애기 때 쉬허니까 여기에.

106026 #2 고장정병이.

106026 @ 고장정병이.

106026 #2 어, 이디 영 터근에이.

106026 @ 터근에 쉬 해도 젓지 안허게.

106026 #2 으, 으. 경.

106026 @ 고장정병이.

106026 #2 으.

106027 @ 게민 옷 만들젠 허민 어떻 행 만드는 거? 치마 저고리는.

106027 #2 그거 재단 해 뇌근에.
106027 @ 마름질 해영.
106027 #2 먼 물좌뇌근에 물좌냥 만들주게.
106027 @ 치수 같은 거 다 짬니까?
106027 #2 물을 때 치수가 나와, 물을 때 저 큰 거 작은 거 먼 나오고 옷 하나
민 하나에 혼 가지 싹 물황 내영 그거 만들꼭 허민 혼 사름 가민 하나 허민 기자
뒀주게.
106028 @ 남자들 바지 하면은 명칭이 잇잖아예?
106028 #2 으.
106028 @ 여기는 뒀렌 부를 거?
106028 #2 허리띠, 허리.
106028 @ 여기 부분은 뒀렌 불르는 거 잇수과?
106028 #2 이딘 다님 치고.
106028 @ 다님.
106028 #2 으, 이디 다님. 이딘 허리.
106028 @ 여기는 불르는 이름 엇어?
106028 #2 몰르켜 건.
106028 @ 저고리는?
106028 #2 저고리 곱허고 짓 허고 동전허고. 동전, 짓, 앞섭.
106028 @ 뒀에 간 건 뒀섭?
106028 #2 뒀엔 안 현다. 뒀섭이엔 안 해.
106028 @ 이 뒀에 뒀 대는 거 잇잖아예?
106028 #2 등바데.
106028 @ 으, 등바데엔 허고. 치마는? 이디 영 허는 거.
106028 #2 허리 치마.
106028 @ 여기는 뒀렌 부르는 이름은 엇고?
106028 #2 이디 치마엔 허주게, 허리 치마.
106028 @ 예. 이거 보선이라예. 보선 이 앞부분을 뒀렌 험니까?
106028 #2 앞고지, 뒷고지.
106028 @ 여기는 뒀렌 불르는 이름이 잇어?
106028 #2 건 몰르켜 그거. 앞고지, 뒷고지엔만 해나난.
106029 @ 옛날에 단추, 단추 엇어낫잖예?
106029 #2 단추 므잔에.
106029 @ 그걸 뒀렌 헛수과?
106029 #2 거 무신 단추엔 해낫저만은.
106029 @ 므작단추?
106029 #2 어, 므작단추이엔 해나신가. 므작 메낫저게.

106029 @ 그걸 벌막작이엔 안 헤낫수과?
 106029 #2 벌막작이엔은 안 허고. 막진, 막진 단추엔 헤 난 거 닻다. 막진 단추.
 106029 @ 치메영 물 들영 입어낫잖아예?
 106029 #2 으.
 106031 @ 경 물 들이젠 허민 뭐로 물 들여?
 106031 #2 염색물 사당. 물레 장시 텅겨낫저. 물레 풀레. 붉은 물 풀고, 노린 물 풀고. 저 거시기 검은 물 풀고 문 헤낫저게.
 106031 @ 예. 그거 팔레 다녀낫구나.
 106031 #2 어.

신발

106032 @ 신발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잇수과?
 106032 #2 그건 나 으라 가지 몰라. 고무신 허고.
 106032 @ 고무신 허고.
 106032 #2 반나 허고 운동화, 또시 구두 구두는 일본말 아닌가.
 106032 @ 계난 그거는 요즘이고 옛날, 어렸을 때.
 106032 #2 어렸을 때 초신허고, 초신, 초신.
 106032 @ 초신이지예.
 106032 #2 나박신.
 106032 @ 나박신?
 106032 #2 나박신은 저 거시기 나무로 만든 신.
 106032 @ 기지예.
 106032 #2 나무로 멘들양 이만이 올라온 신. 나박신.
 106032 @ 으, 나박신.
 106032 #2 나박신이엔 헤실 거라게. 경헌 거 닻아 우리. 경헌디 그거 허고 초신 베끼 안 봤저게. 경허고 검은 반나.
 106032 @ 검은 반나가 뭐과?
 106032 #2 검은 반나신, 고무신. 영. 검은 고무신.
 106032 @ 거민 가족신은 엇어낫수과?
 106032 #2 잇어낫주만은 우린 봐 보진 안 허연. 노리가죽신이여 쉐가죽 신이여 허멍 잇어나서.
 106032 @ 예. 결혼 할 때 예복에는 그런 가족신 신어난 거 아니?
 106032 #2 아니 아니.
 106032 @ 아니.
 106032 #2 우린 코신 신어.
 106032 @ 코신 신언?
 106032 #2 으, 으. 지금 신.

106032 @ 지금 신예?
106032 #2 으, 으.
106032 @ 계민 나막신이랑 짚신 같은 건 집이서들 만들양 신어신가?
106032 #2 저 나막신은 몰라. 저 초신은 삼, 삼앗젠 허주게. 그거 만드는 거.
106032 @ 으, 음.
106032 #2 삼으멍 노푼 꼬아근에 거 우리도 해낫저게.
106032 @ 으.
106032 #2 학교에서 해나서 우리도.
106032 @ 학교에서 해서?
106032 #2 어. 학교 간에 짝 가져 간이 학교 간에 거 일제시대.
106032 @ 일제시대. 삼춘 학교도 다니신 거?
106032 #2 초등학교 다녔저게.
106032 @ 초등학교. 공부해신게. 맞아 친정은 잘 살아났지예?
106032 #2 어, 초등학교 다닌디 저 일본글 알긴 아는디 해석을 못 허여.
106032 @ 으.
106032 #2 말을 몰라 노난. 삼학년꺼지 일본글 배왓주게.
106032 @ 으.
106032 #2 겨난 글은 나오민 알아져.
106032 @ 글 나오민 알아지고.
106032 #2 어, 무신 지다 아는디 그거 해석을 못 허여. 겨난 신은 건 나막신 허고 초신 허고 검은 고무신베끼 우린 몰라.
106035 @ 초신 멘들 때 어떻 멘들아낫수과?
106035 #2 저 짝으로 노푼 꼬아근에, 그 노푼 꼬아근에 영 네귀방장허게 해근에 영 발에 낳 이디 영 걸고 이디 영 놔근에 그 짝으로 또 꿰메주게. 짝으로 그거 짝으로 갖다왔다 허멍 꿰메영 짝허게 등기고 또 짝으로 해근에 깎는깎는 허게 실ㄴ치 해근에 짝 베설 막 잘 거시기 해근에 그거 꼬양 이걸로. 손으로 뱅뱅 노푼 꼬듯. 꼬양 그걸 짝 거시기 저 거 무시거엔 곤니, 거 잊어벤 알아지크라. 그 짝신에 그것 그레 놔근에 그걸 여퍼근에 해난디. 그걸 깎이엔 허난디, 깎이엔 허느냐?
106035 @ 으, 깎 만들영.
106035 #2 어, 어. 깎 만들아근에 그걸 그레 여쭈아근에 문 무시거 해근에 경헨 만들어낫주. 영헨 옹포롱허게 해근에. 경헨 신영 땡겨난.
106035 @ 계민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만든 거 그거 직접 신을 수 있는 걸 만든 거?
106035 #2 어. 경헨 우리 영 신영 땡겨나고. 학교서도 영 신영 땡기고. 학교에서 일제시대 그거 짝이영 아정 오랜 해근에 해낫저게.
106036 @ 으. 기민 그 초신에도 어떻 종류가 잇수과?
106036 #2 아니 아니. 종류 잇어 건. 각신, 각신 해근에 영영 해근에 그걸 만들

꼭 해근에 종류 있어 그건. 이제도 그거 푸는 거 있어. 푸는 거 그거주게.

106036 @ 으, 으. 장식품으로.

106036 #2 어, 장식품으로 푸는 거. 그거라 그거. 그거 하나서 우리.

모자 등

106037 @ 기지예. 이제는 모자 물어보쿠다 모자. 모자 종류에도 뭐 잇수과?

106037 #2 모자? 모잔 페랭이 허고 페랭이 허고 무시거 이제 쓰는 거베깁. 페랭이, 옛날엔 페랭이베끼 안 써 봤저. 샷갓.

106037 @ 샷갓.

106037 #2 으, 샷갓 조금 썬 뎡겨난 거 봐난 거 닳아. 우린 안 쓴디. 그 베트남 샷갓 막 쓰는 거 그거.

106037 @ 으, 으.

106037 #2 그거 하르방덜 썬 뎡겨라.

106038 @ 게난 샷갓허고 페랭이는 여름에 쓰는 모자잖아예?

106038 #2 으.

106038 @ 햇빛 날 때 써나신디 그거 말앙.

106039 #2 겨울에?

106039 @ 겨울에는 뭐 어떻 써나수과?

106039 #2 겨울엔 그 애기덜 뎡기 둘러근에 써나서. 애기덜 뎡기 들렁 써나고 우리 우리 시대에 그 뎡기 둘러 거 써나고 그 무시거, 무신 모자 벗어나서, 벗어나서.

106039 @ 뎡기?

106039 #2 뎡기엔 해근에 저 곱닥헌 물색으로 해근에 영 질게 해근에 요레 영, 이레 영 꿰메민 이레 영 지랑허게시리.

106039 @ 아.

106039 #2 뎡기, 뎡기

106039 @ 게민 여기, 목 뒤에 여기 덮어지게?

106039 #2 으, 뎡기 지랑허게시리. 경헨 이디 꽃덜 해근에 여라색, 초록색이여 붉은색이여 파랑색이여 헤영 여기 꼬매고. 여기 뎡 동글락 허게.

106039 @ 음.

106039 #2 꿰매영 영 헨 썩. 이제 사진관에 가민 있어. 사진관에 가민 아이덜 썩와근에 사진 찌는 거 그거라.

106039 @ 아, 영 색동처럼.

106039 #2 으, 색동으로.

106039 @ 경헨가지고 이 뒤에 영 늘어지는 거?

106039 #2 뒤엔 끈으로 끈으로 요만씩, 요만씩 해근에 끈으로 영헨 늘어지게 줄에 영 해근에. 요레 뎡 동글락허겐 꽃 으라 가지 붉은 거, 파란 거, 노란 거 허멍 으라 색 놔근에 포 놔근에 조근조근 경헨 꿰매영 뎡 동글락 허게.

106040 @ 이 동네는 양태 그런 거 안 해놔수과?
 106040 #2 으?
 106040 @ 뭇총 가져가지고 모자 만드는 거 이 동네 안 해놔수과?
 106040 #2 몰라 그건. 뭇총으로 허는 건 그건 아주 옛날.
 106040 @ 예, 아주 옛날.
 106040 #2 으, 우리 시대엔 그거 아니.
 106044 @ 아니. 비 올 때 어디 췌 보레 가젠 허민 이디 영 걸쳐난 거 잇수과?
 106044 #2 우장.
 106044 @ 우장.
 106044 #2 저, 찍으로 멘글아근에 우장. 그거 썩, 그거 하르방덜 썩 땡기는 거 봐났저. 영헨 무똥에 걸쳐다근에 비 와가민 그거 썩근에 가고. 하르방덜.
 106044 @ 여기는 우장 쓰고 우에는 샷갓 썩서 페랭이 썩서.
 106044 #2 우엔 저 페랭이도 쓰고 무시것덜 헨 썩 해서 우장만 영 쓴 거 봐나 서 영 보민. 우장헨 해근에 찍으로 여퍼근에. 찍으로 여핀 거. 새, 새.
 106044 @ 예.
 106044 #2 새로 영 여핀 거.
 106044 @ 여핀 거렌 험니까?
 106044 #2 어, 여핀 거엔 현다. 느람쥐도 새로 여핀다 허고 느람쥐 새로.
 106044 @ 음.
 106044 #2 게난 영 여끄는 거주, 여끄는 거. 우린 여퍼, 여퍼 해놔주.
 106044 @ 으.
 106044 #2 발음이 경. 게난 여끄는 거주, 여끄는 거.
 106044 @ 여끄는 거예.
 106044 #2 으, 여끄는 거여.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이제부터 밥 해 먹어난 거 물어볼 건데.
 107001 #2 으, 옛날.
 107001 @ 옛날에 삼춘 어렸을 때 영 생각해 보멍 곱아주십서.
 107001 #2 밥, 밥 해먹어난 거?
 107001 @ 우선은 밥에 종류에는 무슨 밥 잇수과, 옛날에?
 107001 #2 보리밥, 보리밥, 조팍, 또 좁쌀에 거시기 감자 낱 고구마. 그거 서꺼 근에 해근에 감잔 하영 놓고 저 쌀은 흐끔은 농민 감저만 막 나와 밥 행 나오민.
 107001 @ 음.

107001 #2 또 국은 드르 누물 헤다근에 거멍케 국 끌렁 먹고. 드르 누물 헤다근에.

107001 @ 계난 아까 밥 종류에는 보리.

107001 #2 보리밥.

107001 @ 조팝.

107001 #2 조팝. 좁쌀에 감자 하영 놉근에 그거 밥 행 먹고. 또 믈물 하영 나민 믈물 갈양 그거 감자 하영 놉근에 저 거시기 범벅.

107001 @ 범벅.

107001 #2 어, 범벅 행 먹고 저베기 행 먹고.

107001 @ 저베기 행 먹고예?

107001 #2 어. 묵 거시기 헤근에. 또 밀, 거시기 밧디 강 갈민 밀 헤다근에 ㄹ레 곶아근에 밀 헤근에 밀쳐베기 행 먹고.

107001 @ 여기도 밀도 농사 지어났수과?

107001 #2 어, 그거 헤영 우리도 나도 곶아당 애기덜이영 행 먹엇주게. 그거 허고 보리 또, 보리 곶아근에 보리 밧디 거 해당 저당 짐으로이 멜빵, 이런 멜빵 질게 헤영 영 정 오랑 그거 영영 홀타근에.

107001 @ 으.

107001 #2 그거 두드렁 도께로, 도께로 두드려근에, 그거 도께로 두드려근에 장만헤여근에 이제 그거 곶아근에 게역, 저 미숫ㄹ루.

107001 @ 으.

107001 #2 게역 행 먹고.

107001 @ 게역 행 먹고.

107001 #2 으. 게역 행 먹고 또 보리 저베기 행 먹고. 보리쌀 거 곶아근에 보리쌀 존 건 밥 행 먹고 흐쌀 알맹인 또 곶아근에 게역, 저 거시기 체베기 행 먹곡.

107001 @ 으.

107001 #2 경허멍 우리 헛주게. 경허멍.

107002 @ 계민예, 밥 행 먹젠 허민 쌀 종류, 아까 밥 종류 얘기 헛잖아예. 옛날에 쌀 종류에는 뭐 잇어나시고예? 쌀?

107002 #2 쌀 종류?

107002 @ 쌀.

107002 #2 무시거?

107002 @ 무신 쌀, 무신 쌀 잇어?

107002 #2 보리쌀, 좁쌀, 밀, 저 믈물, 콩, 팔, 두불 콩. 경헤근에 그거 뭐 잇어나서 께, 께도 허고. 께도 콩밧디 놉근에 털어근에 허고 그거 헤낫주게. 지슬도 싱거근에 먹고.

107003 @ 으. 보리밥 하영 행 먹엇잖아예?

107003 #2 보리밥 하영 행 먹엇주. 보리밥 주로 먹엇주게.

107003 @ 주로예.
107003 #2 조팍허고.
107003 @ 조팍허고.
107003 #2 으.
107003 @ 보리밥 헤 먹젠 허민 보리 곶아냥 그거 테작행 왕 어떻 행 보리밥을 지엇수과? 그거 츠츠츠 곶아줍서.
107003 #2 보리밥 허젠 허민이 보리쌀 가근에 보리 그 툄ㄱ레에 보리 곶아다근에 툄ㄱ레 둥글이멍 물 낱 곶아당 저 마당에 와근에 멍석에 널영 또 푸는체로 그거 곶 체 갈라근에, 체 갈랑 또 널어근에 파삭 툄리우민 ㄱ레에 ㄱ아근에 멍돌, ㄱ레 낱 영영 곶멍 헤근에 그걸 치민, 영영 치민 우터레 안 곶아진 거 올라가고 알러렌 곶아진 거 나가곡 허민 거 청, 또 아래 거 치민 곶인 건 알러레 느려가고 중간에 거 행 건 좋은 거.
107003 @ 아, 중간에 건 좋은 거.
107003 #2 으, 건 좋은 거. 경헨 거 보리밥 행 먹고.
107003 @ 우이 게 좋은 게 아니고 중간에 게 좋은 거?
107003 #2 우이 건 또 곶아사.
107003 @ 아.
107003 #2 또 곶아사. 쟁허멍 그거 헤 먹고.
107003 @ 으. 보리밥 행 먹젠 허민 강 툄ㄱ레에 강 곶아오민 ㄱ는 거?
107003 #2 으. 툄ㄱ레에 가 곶아와.
107003 @ 기민 집이 와 가지고 ㄱ레에 안 곶니까?
107003 #2 툄ㄱ레에 곶아다근에 이디 널영.
107003 @ 널영.
107003 #2 널영 툄류민 체 갈라근에. 체, 푸는체로. 푸는체로 푸닥푸닥 허민 저 렌 체 나가고 쓸은 이레 들어오주게.
107003 @ 으.
107003 #2 그거 헤근에 곶앙.
107003 #4 가 베수과? 이수과달?
107003 @ 다들 갈 거?
107003 #2 거 보리쌀도 엇어근에.
107003 @ 기지에.
107003 #2 나도 막 점심 굶어났저게. 허리가 혼 조 헤영 건지 못헤여근에 하하. 엇인 디 시집 와 노난이.
107003 @ 아.
107003 #2 아이고, 첨. 이젯 아이덜은 곶아도 몰라.
107004 @ 반지기밥 알아지쿠과 반지기밥?
107004 #2 반지기밥은 그거 보리쌀에 곤쌀 놓는 거. 곤쌀 ㄱ아근에 허는 거 건 막

부제침이나 행 먹주 못 행 먹어.

107004 @ 아, 기.

107004 #2 곤쌀이 어렵주게 쌀.

107004 @ 곤쌀이 어려우난.

107004 #2 어, 어려우난 옛날엔 산디 같고.

107004 @ 으, 아까 보리쌀 장만허는 거 영 골앗잖아예.

107004 #2 으.

107004 @ 보리쌀 영 장만 행 밥 짓젠 허민 어떻 지어.

107004 #2 밥 짓젠 허민 그 보리쌀 근 거 멧돌에 근 거, 채 아니 중간에 거.

107004 @ 으.

107004 #2 그거 씻어근에 씻어근에 솟디 낱 물 부어. 경헨 알로 아궁이로 혜근에 불 때여근에 솥당 그것이 막 부각부각 허주게. 경허민 부각부각 허민 이젠 불 끼와근에 그걸 톱 자게, 톱 자게 놔 뒷당 폭 허게 톱 자주게. 톱 자민 그 쌀이 익어 흐쌀 익으민 또 불 습아. 불 습으민 흐쌀 늘어. 늘어민 흐쌀 부뜨주게 쓸광 쓸 사이. 경허민 그거 먹엇주게. 경헨 그것이 밥.

107004 @ 그게 밥?

107004 #2 으. 경 안 행은 보리쌀 씻영 놔근에 경헨 솥다근에 솟디 낱 솥다근에 곤쌀 놔. 곤쌀 신 사름은. 건 어려와. 곤쌀 신 사름 엇어.

107004 @ 음.

107004 #2 곤쌀은 막 부제침이나 혜근에 먹고 어디 아방이나 애기덜이나 밥 먹지 못허는 애기덜이나 혼 펜더레 밀려근에 솟디 영 혜영 노민 이쪽더레 혼 펜더레 밀려근에 거 반지기밥. 거 혜근에 먹고.

107004 @ 으, 계난 반지기밥은 보리쌀 낱 먼저 영 솥당?

107004 #2 으, 솥다근에 곤쌀은 말چه.

107004 @ 말چه.

107004 #2 말چه 놔근에 젓어근에이. 경헨 폭허게 행 떡곡, 줍쌀도 보리쌀에 낱 서꺼근에 저 행 먹고. 줍쌀광 보리쌀에 서경. 것도 맛좋아.

107004 @ 기민 아까 반지기밥이렌 현 건 보리쌀에 곤쌀 서끈 것만 반지기밥?

107004 #2 으, 반지기밥.

107004 @ 계민 만약 보리쌀에 줍쌀 서끄면은 그건?

107004 #2 것도 반지기밥이주. 서끈 거 조합헌 거니까.

107004 @ 으. 서끈 건 반지기 밥이레 험니까?

107004 #2 으. 또 보리쌀 솥당 곤쌀 놔근에 솥당 그 우터레 줍쌀 낱. 세 가지도 서경 먹고. 그레 므물쌀 또 놔근에 네 가지도 서경 먹고.

107004 @ 밥에도 므물쌀 놔?

107004 #2 므물쌀 놓민 막 맛좋아.

107004 @ 아, 기과?

107004 #2 으, 복삭복삭. 이 잔치 헐 때도 곤썰에 믰물썰 서꺼근에 잔치 헤낫어. 맛조렌.

107004 @ 아, 맛조렌.

107004 #2 으, 믰물썰 농민, 메밀쌀 농민 막 맛종주게. 믰물이 아니고 메밀 이제 메밀.

107004 @ 지금은 메밀인디 옛날은 믰물이렌.

107004 #2 으, 믰물썰. 경혜근에 그거 서꺼근에 헝 먹고. 경허멍 아이고 옛날사 어떻 헤연 살아시니. 그 감저 마다리 이만이 헝 것에 담아근에 저근에 집이 오고. 아이고 첨.

107004 @ 감저도 그거 밥 헝 먹젠?

103056 #2 으, 밥 헝 먹고 구덩이 팡 땅 파근에 이디 땅 둥그렁허게 파주. 요, 요 영 허민 요딜로 빙허게 파근에 옳더레 조썩 헤근에 세와근에 그레 감저 저당 비여근에 이 가운데 낭 요런 낭 영 꼽아근에 영 헤근에 거 슴통, 건 슴통이라이. 경헝 영 우터레 이레 감저 낭 흑으로 헝 묻어. 이디 조침 놈근에 이레 영 허게시리. 영 헝 흑 썩와. 경헝 요건 슴통.

103056 @ 슴통.

103056 #2 경혜영 또 새 헤여근에 거 느람쥐 멩글앙 느람쥐 둘렁.

103056 @ 음.

103056 #2 느람쥐 둘르고 우인 주지, 주지라고 또 영헝. 나도 그거 헤낫저게. 주지 싸근에.

103056 @ 음.

103056 #2 경헝 영 허민 요레 톡 허게 더끄민 비 안 들어. 비 안 들게시리.

103056 @ 게민 감저 꺼낼 땐 그 주지료?

103056 #2 아니 주지가 안 허영 옳으로 헤근에 또 영영 갈라근에. 영 헝 손 영 견어근에 옳더정 밭 영 허고 옳더정 흐나 꺼내곡 또 흐나 꺼내곡 경허멍.

103056 @ 게민 그 주지는 무사 만들어, 슴통으로?

103056 #2 슴통. 슴통.

103056 @ 썩지 말렌, 공기 통허게.

103056 #2 으, 공기, 공기 통허는 거게. 경허연. 경허멍 헤나고. 에이구 첨. 콩도 헤근에 갈민 가근에 막 놉덜 빌어 강 든 민썩허게 비여농민 멩석 정 가근에 깎아근에 그레 든 낭 도께 도리께. 지금은 도리께이.

103056 @ 도께. 옛날말로 곶아줍서, 옛날말로.

103056 #2 옛날 도께. 도께 헤영 어야호야 허멍 허고 요디 흐 사람 상 요디 거 흑 앓앙 념기곡 거 영 두드려진 거 꺼내여 불고. 또 이디 안 두드려진 건 흑허게 앓앙 념기고. 이디 두드려 난 건 학허게 잡아 둥겨불고. 경헝 양 펜이 사근에 일로 흐 번 절로 흐 번 허멍 콩 경 헝 두드리고. 믰물도 경헝 두드리고. ‘

107005 @ 두드리는 얘기는 이땅 또 물어보쿠다예. 곤밥, 곤밥?

107005 #2 으, 곤밥.

107005 @ 곤밥은 언제 먹어진 거라?

107005 107005 #2 곤밥은 식게 때나베끼 더 먹어게. 식게 때.

107005 @ 생일 때 곤밥 안 줘디가?

107005 #2 어?

107005 @ 생일 때도 곤밥 안 먹언?

107005 #2 옛날 생일이 어디서게. 하하하. 옛날 생일 몰라, 몰라.

107005 @ 몰라.

107005 #2 육지선 생일 헛주만은 이 제주선 몰라. 우린 몰라. 생일이랑 말앙.

107005 @ 예, 이제 곤밥 허젠 허난 곤밥 허는 법 곶아줍서.

107005 #2 곤밥 허는 건 곤쌀 씻어근에 곤쌀게 물에 놔근에 서너 번 씻어근에 그레 놔근에 물 부어근에 영 지프민이 어느 정도 알아져. 쌀 지퍼근에 물 요레 요만이 오민 그거 행 솥으민 곤밥 되는 거주게. 경헨 곤밥 허고.

107005 @ 아맹해도 곤밥이 보리밥 짓는 것 보다는 덜 끓지예?

107005 #2 으, 쉽고.

107003 @ 쉽고. 보리밥은 보리쌀 잘 익으니까 혼불 솥아냥 허진 안 험니까?

107003 #2 으?

107003 @ 혼불 미릿 솥아놔 가지고?

107003 #2 저, 미릿 솥아 낫당도 허주게. 건 저 여끼쌀이엔 헤근에 줍쌀이나 곤쌀이나 셔사.

107003 @ 으.

107003 #2 셔사 그거 놔근에 그거 낱 솥당 그것 또 낱 그것도 젓영 허고.

107003 @ 아까 여끼쌀?

107003 #2 여끼, 여끼엔 헤근에 곤쌀이나 줍쌀이나 그디 므물쌀이나 영 혼합허는 거.

107003 @ 그걸 여끼쌀이렌 헤?

107003 #2 으, 여끼. 여끼쌀.

107003 @ 보리쌀 서꺼근에.

107003 #2 으, 보리쌀 어느 정도 피어나사.

107003 @ 으.

107003 #2 보리쌀 피어나기가 어려와. 보리쌀은.

107003 @ 으.

107003 #2 겐디 요새 거세기 가곤 보리쌀이난에 요샌 피어나기 좋고 먹기 좋고 허주 옛날은 어려와.

107003 @ 막 굵으넵까?

107003 #2 아니 옛날은 요거 보리쌀 하나민 두 쪽으로 쪼개진 거라도 어렵주게. 경헨에 풀풀허지 안 허영 바르르 허게시리 다 밥이 영 병텅이 지지도 안 허여 밥

이.

107003 @ 으.

107003 #2 저 식어사.

107003 @ 식어사.

107003 #2 식어사 병탱이 지주 식지 안 현 때 병탱이 안 지고 저 바르르 헤근에. 케민 애기들 그거 먹으민 그대로 나와. 소화가이.

107003 @ 안 씹영 그냥.

107003 #2 어, 기자 애기덜 맥이민 기자 퍽퍽 퍽퍽 허게 뒤으로 기자 나오주게. 보리쌀만 먹어 놓민. 경허여 옛날은 경해나서.

107006 @ 으. 이젠 조팝 만들어 밥서, 조팝.

107006 #2 조팝은 저 거시기 쓸 놚근에 물 놚근에.

107006 @ 아니, 쓸 장만허는 거부터. 좁쌀.

103023 #2 좁쌀이, 존이 이만이 크주, 이만이 기러기가 크고 이디 또 조코고리가 영 웨민 이거 영 행 허민 이거 조코고리가 영 허여.

103023 @ 예.

103023 #2 이추룩 숙여지민 이거 무꺼당 이거 이 단으로 무꺼근에 지민 사름 영 행 지민 흔 착더레 막 자올아져. 이디 빨리 우터레 가고 고고리는 알러레 가고. 건 무거우난 배난.

103023 @ 무거우난.

103024 #2 배난에 경헨 허민 그거 저다근에 조코고리 영영 심으멍 그걸 손에 놚근에, 밭에 영 앓아근에 호미로 툽툽 끈으멍 조코고리 따로 헤놔 멍석더레. 헤 놔 그거 또 도께로 두드려. 도께로 두드령 브름 불 땀 영 행 솔박 해당 솔박은 낭으로 행 솔박 잇주게.

103024 @ 예, 예.

103024 #2 솔박 해당 거러근에 솔박 거시기 허주게.

103024 @ 불리는 거.

103024 #2 어, 영 행 불리민 저 체 따로 쓸 따로. 조 따로. 경허민 거 또 존 또 물ㄴ레 강 또 글아사.

103025 @ 아, 조도 물ㄴ레에 강?

103025 #2 어. 또 둥그러사 그거 쓸 나와.

103025 @ 예.

107006 #2 그거 쓸 나오민 그걸 저 물 놚근에 습당 좁쌀 놚근에, 좁쌀엔 거시기 물 하영 안 들어 보리쌀추룩.

107006 @ 예.

107006 #2 하영 안 들영 기자 웨주게. 경해근에 감저 놚근에 물 낱 감저 썰어 놚근에 그디 좁쌀 놚근에 경해근에 그걸 무시거 허주게. 그 좁쌀 놚근에 행 불령 놚두민 흐쓸 불 끼왕 잇이민 그걸 폭허게 익어.

107006 @ 음.

107006 #2 경허민 감저에 좁쌀에 박박 짓어근에 혼디 막 서경. 서꺼근에 퍼 낱 먹곡.

107006 @ 아, 그럼 조팝 헐 때는 감저를 먼저 솥당.

107006 #2 으.

107006 @ 우에 좁쌀 놓는 거.

107006 #2 으, 좁쌀 놔근에.

107006 @ 그럼 좁쌀은 금방 익는 거?

107006 #2 으, 제기 익주게. 보리쌀처럼 안 허여.

107006 @ 아.

107006 #2 보리쌀은 익기가 어려와. 저 거시기 이녁만씩 등그는 따문.

107006 @ 음.

107006 #2 경허고 보리밥 허민 냄새 나. 보리쌀 내. 보리쌀 내 나. 경허민 이 비 위 약헌 사름은 나 두린 땀 이 보리밥 못 먹언 내 나근에.

107006 @ 아, 기과?

107006 #2 어. 경허근에 밥 허민 영 코 막으멍 헤낫주게. 허허허. 경허에 보리쌀 은 실허허는 사름은 안 먹는 사름은 안 먹어 잘. 지금은 서끄난에 모든 걸 서끄난 에 반지기 밥처럼 영 허난 먹어지고 옛날은 보리밥은 막 어려왔주게 먹음이.

107006 @ 먹음이.

107006 #2 으, 먹음이 좋지 안 행게.

107006 @ 조팝은 좁쌀만 낱 밥은 안 허고 거이 감저 낱 ㄱ치 헤낫수과?

107006 #2 아니. 건 감저 놓는 건 하렌. 좁쌀만도 놓아.

107006 @ 예.

107006 #2 좁쌀만도 놓민 살락허여 또. 조팝도.

107006 @ 예.

107006 #2 것도 또 소화가 잘 안 웨여.

107006 @ 예.

107006 #2 살락헤근에. 까릿가릿허고 헉쌀.

107006 @ 좁쌀은 종류가 흐린 것도 있고 모인 것도.

107006 #2 흐린 것도 있고 모인 것도 있고. 보리도 흐린 것도 있고 모인 것도 있고.

107006 @ 아, 기과?

107006 #2 산디도 흐린 산디 있고 모인 산디 있고.

107006 @ 계민 조팝 헐 때 밥 허는 거는 흐린 거로 헉니까, 모인 거로 헉니까?

107006 #2 흐린, 흐린 것광 모인 것광 서끄민 좋아.

107006 @ 아, 서끄민 좋아.

107006 #2 으, 서끄민 건 좋고 흐린 쌀만 놓민 밥 행 보민 우인 물 글르지. 물

글르고 아랜 밥 뒤고. 경해도 거 영 퍼가민 글로로 뒤영 먹어져.

107006 @ 아.

107006 #2 건디 흐린 줍셀만 밥 행은 혼엇이 못 먹어. 혼엇이 못 먹어.

107006 @ 아, 무사, 무사 못 먹어?

107006 #2 저 닉닉헤여근에.

107006 @ 아, 기과?

107006 #2 그건 막 끈기가 잇어노난.

107006 @ 그럼 답지는 거? 닉닉허다는 게 뭐?

107006 #2 닉닉헌 건 소곱이 좋지 안 허다 이말이지.

107006 @ 으.

107006 #2 소곱이, 소곱이 닉닉헤여근에.

107006 @ 예.

107007 #2 풋밥 곶아줍서. 풋, 풋으로 밥 허는 거. 팔.

107007 #2 팔?

107007 @ 예.

107007 #2 저, 팔, 팔은.

107007 @ 팔이렌 헐 거 풋이렌 헐 거?

107007 #2 풋, 풋, 풋.

107007 @ 으, 풋밥.

107007 #2 풋은 솥아 낫다근에 건저근에 헛다근에 보리쌀에 낱 서끔도 허고 보리쌀에 놔근에 혼디 솥음도 허고.

107007 @ 음.

107007 #2 풋은 솥기가 어렵주 흐셀 퍼나기가.

107007 @ 아.

107007 #2 보리쌀추룩 퍼 나가기가 어려와. 게난 솥아근에 그레 혼디 낱 밥 행 먹는 게 좋아. 흐셀.

107007 @ 솥기 전에 물 켕 놔 뒷당.

107007 #2 물, 물 켕 놔 뒷당 허는 수도 잇주만은 대개 솥양 놔 뒷당 허주.

107007 @ 솥양 놔 뒷당.

107007 #2 어, 어.

107007 @ 어, 솥양 낫당게.

107007 #2 요즘, 지금은 켕 낫당 헤도 것도 옛날은 몰라. 켕 놔팅 불어나는 걸 몰라서, 몰라서. 지금은 켕 낫당 허여. 옛날은. 경허난 옛날 살아난 무시거사 몰라. 어려와, 우리, 우리 시대보단 더 어른덜은 더 어렵게 살앗주게.

107007 @ 예.

107007 #2 어, 더 어렵게 살앗주게. 우린 두린 때에 우리 할망네여 영 현 거 보면 옷도이 진짜 스몫 갈리갈리 현 거 입고 스몫 맨발에. 양말이 어디서. 양말 엇이

초신, 짝신이. 짝신 신고 경헨 땡기고 어느절에 고무신 신고 하간 거 헤서게. 짝신 신어근에 땡기고 저 비 온 날도 맨발에 발탁발탁허게 기자 물 불르멍 그대로 넘어 가고 경헨주게. 우리 영 두린 때에 할망네 현 거 보민 아이고 반찬도이 고춧입, 깻입이. 고춧입, 유엔 허주게 깻입이.

107007 @ 유입, 유입.

107007 #2 유입. 그 유입, 고춧입 거튼 거 헤다근에 혼디 막 서경 그레 그루 놔근에 버물여근에 그거 숭으멍 그레 버물여근에 반찬.

107007 @ 맞아예.

107007 #2 그레 소금 놓고, 소금 놓고. 경혜영 먹엇주게. 그걸 반찬 막 맛좋아. 하하하.

107007 @ 계난 옛날에도 풋밥은 막 행 먹어젓수과?

107007 #2 풋, 풋, 풋밥. 행 먹는 사름은 혜영 먹고 또 그건 돈 산텐 허멍 폴레 가는 사름은 풀고 헛주게. 경 무시거 현 건 돈 사젠 먹질 안 허고. 어려운 시대난 이.

107007 @ 예.

107007 #2 행 먹는 사름덜도 잇곡게. 이녁냥으로 허난. 밧 에염에 강 영 행 허민 밧 에염으로 담 에염으로, 담 에염으로 풋 싱경 이레 담더레 올려. 그거 타다근에 든 장만허고. 경헨 헤낫주게. 두불 풋.

107007 @ 두불 풋이엔 헤?

107007 #2 어, 두불 풋이엔 현 거 경헨 허고.

107007 @ 무사 두불 풋?

107007 #2 두불 풋이엔 행 줄, 줄 올려근에.

107007 @ 줄 올령. 계민 줄 안 올리는 것도 있고?

107007 #2 줄 안 올리는 건 민짜 같아근에.

107008 @ 피밥 알아지쿠과?

107008 #2 피, 으.

107008 @ 피밥도 행 먹엇수과?

107008 #2 핀 우린 난 헤여 보진 안 현디 나 시집 오난 시삼춘네가 피 헤라게. 핀 허민 들그레에 강 멧 번 곱아사. 혼 번에 못 곱아.

107008 @ 안 뱃겨정?

107008 #2 으, 안 뱃겨정게. 멧 번 곱앙 해 난 거 닙아. 난 해 보진 안 허고 영 허는 거 보민. 경헨 피밥이엔 허멍 행 먹고. 경헨 피밥도 똑 줍쓸 닙아. 똑 줍쓸 닙앙 난 장만도 안 헤 보고 현디 우리 시삼춘네가 헤근에 준 거 보민 꼭 줍쓸과 그타. 똑그타. 경혜근에 그거 장만허기 막 어려와.

107008 @ 장만허기 어려워예?

107008 #2 으, 어렵덴 허멍 경허여.

107008 @ 피도 아무 디나 허는 건 아니잖아?

107008 #2 궂인 밧디.
107008 @ 궂인 밧디.
107008 #2 어, 다른 거 안 돼는 밧디.
107008 @ 맛종긴 험니까, 피밥?
107008 #2 예, 케쌉헝 조팍만이도 못 혀여.
107008 @ 아.
107008 #2 케쌉, 기자 입에 놓면 다 이넉만씩 등글어.
107008 @ 하하하.
107008 #2 어, 밥이 이넉만씩 등글어.
107008 @ 아, 찰지지 았앙.
107008 #2 어, 밥 험도 어렵고. 그거 핀 아무나 헝 먹질 안 혀여. 저 거세기 헤근에.
107008 @ 게난 여기 토평에도 피는 줌 농사 짓긴 헤낫다예?
107008 #2 으, 잇어낫주게. 옛날 할망덜은 잇어낫주게. 경헌디게 아고, 무시거, 다른 것사 무시거 나룩 우리, 우린 신희 살명 허난 이딘, 이 토평은 막 박헌 디. 눈도 엇고 어디 물도 엇고 막 박헌 디고 땅이 나빠.
107008 @ 아.
107008 #2 땅이 나빠 아무 거나 돼질 안 혀여.
107008 @ 예.
107008 #2 보리도 갈민 피지 안 헤근에 곧 죽어불고. 고고리 나오지 못 헤영 죽어불어. 북부리, 북부리 정. 것ㄴ라 북부리.
107008 @ 고고리 안 낭.
107008 #2 안 나는 거 북부리.
107008 @ 북부리엔 곧는 거예.
107008 #2 으, 북부리 정. 고고리 안 나근에 그걸 북부리 저근에 죽어벼.
107008 @ 아.
107008 #2 경헝 이딘 막 널르게 스몫 보릴 갈아도 멧 섬 안 혀여. 멧 섬에 흔 섬이 저 두웨갓들로 쏘, 보리 네 개 놓민 흔 말.
107008 @ 음.
107008 #2 두 웨갓들로 네 개씩 헌 거 열다섯 개 놓민 흔 섬.
107008 @ 음.
107008 #2 경헤근에, 경헝 열다섯 개 낭 흔 섬 헤영 아이고 보리 멧 섬 헛저 경 혀고. 어느 집인 보리 멧 섬 헤연 경 곧고.
107008 @ 맞아마씨.
107008 #2 경헌디 신희 나 살아난 딘 논이 잇고 허민 논이 갈아근에 논 일 혀고 비 와가민 강 논 일 혀고. 거시기 장마 때, 장마 때 강 논일 혀고 나룩 혀고 헤난 디 이딘 나룩이 엇어.

107008 @ 계난 신호에서는 나록 헤나시민 곤밥 먹어나신게.

107008 #2 어, 우린 곤밥 먹고 신호선 호강시리 살꼭게 어무니, 어무니 신 디선. 경헨 나 여름에 보리밥 안 먹으면 다른 밥 행 주고게 어무니네.

107008 @ 아이고.

107008 #2 이딘 오난에 보리밥도 엇영 굶고게.

107008 @ 시집 왕 고생하셨구나, 경허난.

107008 #2 어. 아이고 이딘 오난 보리쌀도 엇고 아무것도 엇언에 굶고, 굶고 나도 점심 먹을 거 엇어. 경허민 애기덜 들앙 신호 밥 얻어먹으레도 가나고.

107008 @ 계민 이디서 신호까지 브디과?

107008 #2 상호 넘어가민 기난 경 멀진 안 허주게. 차거트민 혼 십 분.

107008 @ 아, 바로 즈꿏던게.

107008 #2 으, 바로 즈꿏디. 영헨 이디서 영 바레민 이디 소남, 소나무 잇인 동산을 바레 지네. 것가 신호.

107008 @ 아.

107008 #2 경허난 가까와. 겨난 나 두린 때, 침 애기덜 두린 때 애기 돌아근에 아이고 오라 할망신디 강 밥 얻어 먹영 오게 헨 강 밥 얻어 먹영 쓸 들꼭 행 오고.

107008 @ 아이고.

107008 #2 경헤낫저, 경헤나서.

107008 @ 애기덜 데령?

107008 #2 으. 경헤나서.

107009 @ 아까 감저밥 곶아신디 감저밥 헨 때는 좁쌀만 낫수과?

107009 #2 아니, 곤쌀에도 놔. 지금도이 곤쌀에 놓민 막 좋아.

107009 @ 아, 감저를.

107009 #2 고구마 강 흐나 쌀영 곤쌀에 놔 보라 막 좋메. 나도 이땅 벨미로 경헤 먹어.

107009 @ 아, 기구나 기구나.

107009 #2 그때도, 옛날에도 좁쌀말고도 곤쌀에도 낱 먹고. 저 쓸을 애끼젠게. 쓸을 애끼젠. 경헤근에 감저 놔근에 허민 쓸이 덜 들주게. 하영 안 놔도 뉘난. 경헤 부난 경허고 수정 한 디 주고 감저 기자. 감저 먹엇주게 주로.

107010 @ 음. 무밥도 먹어낫수과, 무밥?

107010 #2 무밥도 헤 먹는 디는 헛자 우린 안 행 먹어 보고.

107010 @ 무밥이 어떤 것과?

107010 #2 늣뻘, 늣뻘. 늣뻘엔 헤근에이 무 썰어놔근에 거 쓸에 혼디 낱 거 밥 허민 뉘는 거주게. 거 벨미로 행 먹어서덜.

107010 @ 거 물 하영 나난, 무 솟으면 물 나잖아?

107010 #2 물 나주게. 계난 무 낫젠 물 더 놓진 말아사주.

107010 @ 그니까, 그니까 쓸 만큼만.

107010 #2 물에 든 물이난 다른 쌀, 쌀에 들어갈 물만 뇌사. 경혜근에 행 먹고
경했주게. @ 계난 아까 밥에 감저도 낡 불렀잖아. 쌀을 애끼젠 낡 혜잖아?

107010 #2 으, 으.

107011 @ 그거 말고 감저나 무 말고 툄 같은 것도 뇌 낫수과?

107011 #2 툄도 낡덜 혜 먹엇젠 곤주게. 툄덜도 놓고 또 저 이 거시기 무신 뇌
물 그튼 거.

107011 @ 뇌물.

107011 #2 으, 그런 푸십새 그런 것도 뇌근에 버물령 기자 어울령 먹젠.

107011 @ 툄밥도 만들어 봤수과?

107011 #2 난 아니 혜 받. 툄밥은 아니 혜 받.

107011 @ 여기는, 여기는 툄평은 바당 거는 좀 구하기 어려워?

107011 #2 아니, 흐쌀 경. 바당은 잇어, 검은여. 바당은 잇어 검은여.

107011 @ 물질 허는 사름은 별로 엇수과?

107011 #2 물질 허는 사름 흰 멧 잇어.

107012 @ 잇지예. 계민 툄밥도 삼춘은 안 혜 보고 패, 패?

107012 #2 패. 패 혜당 씻어근에 그건 영 뷰으민 맛좋아.

107012 @ 패를 밥에 뇌 보진 안 허연?

107012 #2 안 허연. 기자 보짱 먹언 봐도.

107012 @ 아, 보짱 먹어도.

107012 #2 툄도 혜당 그대로 기자 무청 먹어 봐도 밥은 안 혜 보고.

107012 @ 계민 삼춘이 주로 혜 먹어난 건 보리밥.

107001 #2 보리밥, 조팍, 뇌물, 콩도 허고 감자도 허고.

107001 @ 계민 콩밥은 쌀에 낡?

107001 #2 으, 콩은 숲앗당 쌀에 뇌사주.

107001 @ 곤썰에?

107001 #2 아니, 보리썰에.

107001 @ 뇌물밥은 어떻 헛수과, 뇌물밥?

107001 #2 뇌물밥은 뇌물 그레에 곶아근에 막 채로 치멍 푸는체로 치멍 혜여근
에 보리밥 혜여근에 거자 웨여가민 그 우터레 뇌근에 저 불르민 따시 불 습양 불르
민 밥 웨는 거.

107001 @ 뇌물밥도 뇌물쌀만 하는 게 아니고 보리쌀이영.

107001 #2 그치 뇌근에. 뇌물죽 썩 먹고.

107001 @ 뇌물죽 썩 먹고.

107001 #2 으, 뇌물죽 썩 먹고.

107013 @ 밥 혜시난 이제 국 가 보쿠다.

107013 #2 국?

107013 @ 예, 국 종류에 뭐 뭐 잇수과?

107013 #2 드르 낙물도 행 먹고.

107013 @ 드르 낙물.

107013 #2 어, 낙물국. 배추허고

107013 @ 으, 배추허고.

107013 #2 어, 무시거 무우국도 행 먹고 미역국 행 먹고.

107013 @ 미역국. 미역이렌 곶앗수과, 메역이렌 곶앗수과?

107013 #2 메역, 메역.

107013 @ 무우도 무수렌 곶아서예?

107013 #2 늪빠, 늪빠.

107013 @ 예. 늪빠, 늪빠. 계난 무수국도 잇고 늪빠국도 잇고.

107013 #2 으.

107013 @ 또?

107013 #2 또 무슨 국 잇어?

107013 @ 그때는 성계국 같은 거 엇어나서예?

107013 #2 아이고 그 어느절에.

107013 @ 하하하. 어느절에.

107013 #2 어느절에 고기국 먹고 하간 거. 고기국도 식게 때나 먹고 멧질 때나
퀘기 먹주 먹어지느냐?

107013 @ 퀘기국이렌 허면은 돛퀘기국?

107013 #2 아니, 이디 솔라니국 거튼 거 그거 퀘기국계. 아무 고기라도이 멧질
때나 허고 식게 때나 먹주 못 먹어. 곤밥도 식게 때나 허고 멧질 때나 허주 곤밥
못 봐, 못 봐. 보질 못 허여. 먹어 어느절에 행 먹고 하간 거. 몰라 부제칩인 행 먹
어주. 허허허.

107014 @ 그럼 낙물국이우다, 낙물국. 낙물국 어떻 만들앗수과?

107014 #2 물 놔근데 웬장 풀어 놔근에 끓이당, 불 아궁이로 솜다근에 퀘민 그
레 낙물 무지려, 손으로 복복 무지려 놔.

107014 @ 무지려 놔.

107014 #2 으.

107014 @ 계민 웬장은 물 끓기 전에?

107014 #2 으, 경 놔사 좋아. 기사 웬장 내 안 나고.

107014 @ 아, 기과?

107014 #2 으, 익은 다음에 놓면 내 나 웬장내.

107014 @ 웬장내 나?

107014 #2 으.

107014 @ 뭐 다시 같은 건?

107014 #2 옛날에 그거 어디 셔 당초. 그 장도 엇영 소금도 낡 먹곡계.

107014 @ 아. 웬장도 엇영.

107014 #2 으, 어느절에 저 다시다 가튼 거 하간 거. 메루치가 어디 셔게.

107014 @ 게도 웬장은 담양 먹지 안 헨?

107014 #2 으. 웬장은 담양주게. 경허민 혼 사람이 일 년 먹젠 허민 콩 혼 말. 으답 식구 허민 으답 말 숯아사. 열 식구 허민 열 말 숯아사.

107014 @ 한 사람이 혼 말?

107014 #2 혼 말 먹넨. 혼 말 그거 안 먹는 거. 기자 장만, 장만 먹으난. 밥 출려 놓민 짐치 허고 장베끼 엇주게.

107014 @ 기지에.

107047 #2 짐치도이 대사니 흐뎡 뵈아 놓는 채 헤근에 고춧가루도 엇영 즐바로 안 놔.

107047 @ 음.

107047 #2 경헨 흐는 채 헤근에 그자. 바당에 가근에 녹물 해당 싹영 오라근에 물 정 오랑 그것에 죽영. 바당물에.

107047 @ 아, 바당물에 죽영.

107047 #2 소금 애경. 소금 애경.

107047 @ 아, 소금 절이는 대신에 바닷물에 절이는 거라?

107047 #2 으, 그거 헤근에 어느절에 꿏가루 넣고 하간 다시다 넣고? 고춧가루도 흐뎡 놔근에 버무리는 채 허민 기자 그거 헤근에 기자 찹찌랑허민 먹고. 그것가 짐치.

107047 @ 그것가 짐치.

107047 #2 겐 웬장 허고 그거 짐치. 게민 부제칩인 자리젓 행 먹고 멜젓 행 먹고.

107047 @ 으.

107047 #2 부제칩 안 헨디 자리젓도 못 허여. 돈 엇영 못 사난.

107047 @ 그지에. 나중에 자리젓 만드는 거랑, 짐치 만드는 거랑 흐나씩 물어보쿠다예.

107047 #2 으.

107015 @ 녹물국 끓여시난 이제 콩녹물, 콩묵물예. 콩녹물국 끓여 줍서.

107015 #2 콩녹물도게 물 놔근에, 물, 저 웬장은 자꾸 풀어 낱게. 경헤근에 퀘민 녹물 놔근에 콩녹물.

107015 @ 게민 콩녹물은 집이서 키운 거?

107015 #2 집이서 키운 거.

107015 @ 콩녹물 어떻 질렀수과?

107015 #2 저 시리에, 떡 치는 시리에.

107013 @ 국부터 다시 혼 번 물어보쿠다.

107013 #2 으.

107013 @ 국 종류가 뭐 뭐 잇수과?

107013 #2 국 종류. 나물국, 콩나물국. 미역국.
107013 @ 나물이엔 곱읍니까, 녹물이엔 ㄹ읍니까?
107013 #2 녹물.
107013 @ 옛날말로 곱아줍서.
107013 #2 으. 녹물, 녹물.
107013 @ 녹물국.
107013 #2 녹물, 점 찍는 거라. 하하하.
107013 @ 하하. 삼춘 글자도 알람신게.
107013 #2 어?
107013 @ 삼춘 글자도 알람서.
107013 #2 알주게. 글자 알주게. 녹물국, 미역국, 또 콩녹물국 또시 저 거시기 소고기국, 또 이 해산물 국이. 저 거시기 바닷고기국.
107013 @ 으.
107013 #2 돼지 국도 끌리주게.
107013 @ 돼지고기 국?
107013 #2 어, 옛날은 돼지 국 끌려서. 요즘은 잘 안 끌려도.
107013 @ 으. 돛, 돛고기
107013 #2 돛고기.
107013 @ 꿩?
107013 #2 돛꿩, 돛꿩국. 켜에 국에 녹물국, 콩녹물국, 미역국, 돛꿩국, 소고기국, 조기 저 거시기 바닷고기, 바닷고기 국.
107014 @ 녹물국을 끌려보십서 이제.
107014 #2 녹물국 끌림은 물 놔근에 그레 웬장 풀어 놔근에 경헨 꿩민 녹물 놔 불민 되는 거.
107015 @ 콩녹물국 끌려 보십서.
107015 #2 콩녹물도 물 놔 끌리다근에 웬장 놔근에 저 끓이면 콩녹물 놔근에. 콩녹물국은 콩녹물 흐쓸 오래 끌려사주 경 안 허민 비린내 나.
107015 @ 아.
107015 #2 흐쓸 두루 솟아지민 비린내 나. 녹물국은 살짝 끌여사 맛중구.
107015 @ 껌민 콩녹물국 끓일 때 두껍 막 오래 더꺼듭니까?
107015 #2 어, 오래 더꺼도 좋주게. 거. 저 녹물국은 오래 더끄민 곳고.
107016 @ 으. 무국, 어떻 끌립니까?
107016 #2 늪뻘. 늪뻘국.
107016 @ 늪뻘국 끌려 보십서.
107016 #2 늪뻘국은 또 물 놔근에 끌리다근에 그 웬장 풀어놔근에 물 웬장 막 풀어놔근에 끌이다근에 늪뻘 놔근에 익으민 되는 거. 것도. 다 그 종류주게. ‘
107017 @ 콩국은 어떻?

107017 #2 콩국은 저 물 놔근에 끌리고 콩ㄹ루 사발에 카근에 저 흐쓸 영 너미
웨지 안 허게 카근에 물 끌이민 그레 그 콩ㄹ루 칸 걸 놔근에 젓어사.

107017 @ 예.

107017 #2 경 안 허민 놀어. 그걸 계속 젓어사. 경 안 허민 부껴. 우터레 막 부
끄주. 손 이거민 요만썸 물 놓민 이ㄱ장 부껴와. 경허민 불 족게 헤근에 불 족게 헤
근에 영영 부껴가민 소금을 흐쓸 조록허게 놓으민 부끄는 거 곱아왔고. 또시 또 부
껴가민 조록허게 놓고.

107017 @ 소금을 물에 캣당,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107017 #2 그자 물에 캣당 물에 캣다근에 경허민 톡허게 곱아얏곡, 곱아냏곡 헤
근에 끌여져가민 따신 부끄지 안 허여. 그거 익어가민.

107017 @ 음.

107017 #2 경헌디 것도 경허명 슣당 또 녹물 놓고.

107017 @ 녹물 놓고.

107017 #2 어, 녹물 낱 끌이당 두께 더끌 때 소금 우터레 흐끔 간 웨게. 경헌
두께 톡 더경 놔두민 저 거시기 저 뭐 두부추룩 다박다박 허주게.

107017 @ 아.

107017 #2 언주어근에, 언주영 다박다박 허고.

107018 @ 으. 이젠 호박입국 끓여 주십서.

107018 #2 어?

107018 @ 호박입국.

107018 #2 호박입국. 호박입국은 놔근에 저 웬장 놓민 건 호박입은 우린 간장
놔서. 장물. 간장이엔 안 허영 장물. 져 그거 놔근에 끌이당 레민 호박입 놔근에 또
저 레민 그레 ㄹ루 카 놔.

107018 @ 으.

107018 #2 ㄹ루 무신 밀ㄹ루나 저 ㄹ물ㄹ루나. 카근에 행 경 그레 놔근에 흐쓸
허민 폴폴허게 경헌 먹어냏주게.

107018 @ 호박입국 끓이젠 허민 호박입 영 다듬아야 허는 거 아니?

107018 #2 호박입 저 거시기 이파리 다듬아근에. 씻어근에 그거 막 찢어근에 즐
게이, 즐게 찢어근에 낫다근에 거 끌일 때 놓주게. 경허영.

107019 @ 모자반, 몹국도 끌여나수과?

107019 #2 어?

107019 @ 몹국?

107019 #2 ㄹ물?

107019 @ 몹, 몹, 몹국.

107019 #2 아, 저 몹국.

107019 @ 으.

107019 #2 몹국도 원 그대로 끌리메. 그것도이 우리 그 큰일 헐 때. 저 영장 난

때 조반이나 점심이나 혈 때 물 뇌근에 끌이다근에 그레 저 거시기, 물 낱 끌이민
몹, 몹 그거 썰어근에 그레 뇌근에 ㄹ루 카근에 놓주게.

107019 @ 으.

107019 #2 ㄹ루 칸 낱 젓어근에 또 케민 그레 마농, 파. 파 영 썰어근에 뇌근에
허민 되는 거. 경허민 폴폴 허주게. ㄹ루, ㄹ루 카 놓민 폴폴헤여.

107019 @ 아맹해도 몹국 끌이는 거는 막 큰일 이실 때잖아예.

107019 #2 으, 큰일 이실 때. 경허영 도새기 팡 숲아뇌근에.

107019 @ 예.

107019 #2 숲아난 그 물에 헤근에 그거 끌이민 막 맛 좋텐 허여. 도새기 팡.

107019 @ 계난 큰일 혈 때 말앙 집이서 먹젠도?

107019 #2 아이고 먹젠 거 분주허텐 허멍 잘. 허는 사름도 잊주게. 도새기 팡이
나 어디 강 그것도 사오나 빌어오나 헤지민 허는 사름도 있어. 경헤영 그추룩 끌영
먹주게.

107020 @ 여기에 바닷케기, 바닷케기는 어떤 종류를 국으로 끌려 먹읍니까?

107020 #2 바닷케긴 돔.

107020 @ 돔.

107020 #2 으, 돔 허고.

107020 @ 돔을 여기서 뭐렌 골아났수과?

107020 #2 돔 케기엔 골아나서 기자 것베낀 몰라.

107020 @ 아, 그거 솔라니렌 안 허고?

107020 #2 솔라니, 솔라닌 다른 거.

107020 @ 다른 거?

107020 #2 돔과 뜯난 거.

107020 @ 예.

107020 #2 솔라나, 조기 그디 케기가 여러 가지 시난게. 계난 솔라니 케기도 물
케민게 장 문저 뇌사. 솟디 물 뇌근에 간장, 저 장물.

107020 @ 으, 장물 낱.

107020 #2 숲앙 케민, 케민 그 고기 도막 내영 썬 거이, 즐게 썬 거 뇌근에 경
허영 장물 안 놓민 케기가 카져며.

107020 @ 아.

107020 #2 장물 문저 뇌근에 출렐 문저 뇌베사. 경 안 허영 출레랑 말째랑 놓고
고기 문저 낱 장 말째 놓민 장내나고 카져불고.

107020 @ 바닷케기가 카져부는 거?

107020 #2 으, 카져부는 거.

107020 @ 바닷케기도 온차 놓는 게 아니고?

107020 #2 썰영게 썰영. 흥쓸 흥쓸 썰영 먹기 좋게. 도막도막 썰영.

107020 @ 예. 그 바닷케기로 제사혈 때도 그렇게 썰영 헤?

107020 #2 으.

107020 @ 가시 안 발라냅니까?

107020 #2 아, 요즘은 가시 블라. 옛날엔 가시 블를줄 몰라. 두련. 옛날은 일절 가시 안 블라.

107020 @ 경혜부난 잘게 썰엄구나.

107020 #2 으, 이젠, 지금은 가시 블라 우리도.

107020 @ 온차 낱 끝이당 익으민 가시 발라덩.

107020 #2 저 그 가시 블를 땀 물에 놔근에 솔라니 영 놔근에 흐졸만 케민 건져내사주이 오래 헤블민 카져블고 안 웨여.

107020 @ 예.

107020 #2 게난 켐만 허민 건져내민 가시 툽툽 떼지주. 솔 따로 툽툽 떼여. 오래 솟으민 안 웨여.

107020 @ 오래 솟으민 안 웨.

107020 #2 경헨 가시 블랑 떼여 냇다근에 국 끌릴 때 들이쳐 놓고. 경헨 그거 놔근에 케민 또 미역 놓고. 메역. 메역이엔 헛주, 메역.

107020 @ 메역. 아멩해도 식게 때 국 끌여난 거는 솔라니 국이라예.

107020 #2 어, 솔라니 대개.

107020 @ 대개는예. 케민 솔라니 국 말고 평상시에 바닷케기 가정 국 끌렁 먹는 게 잇수과?

107020 #2 바닷고기 말고?

107020 @ 바닷고기로. 솔라니 말고.

107020 #2 말고. 조기.

107020 @ 조기.

107020 #2 조긴 싸주게.

107020 @ 조기도 게난 국 끌려 먹어?

107020 #2 으, 조기영 그 눈 별경헌 케기도 헤다근에 국 끌렁 먹고.

107020 @ 눈 별경헌 케기는 이름이 뭐라?

107020 #2 거 몰라.

107020 @ 우럭 말고?

107020 #2 우럭 말고. 게고 납세미 ㄴ튼 거 헤다근에 국은 안 끌려 보고 기자 우리 거 졸영. 보까근에이 옛날말로 보짱. 보짱 먹어.

107021 @ 으. 메역국은 어떻 끌렛수과?

107021 #2 메역도게 물 놔근에 그레 거시기 메역도 저 간장보단 간장보단 웬장이 맛 좋아.

107021 @ 미역국이?

107021 #2 어. 메역국에 간장보단 웬장에가 맛좋아.

107021 @ 기?

107021 #2 어, 메역국에 거시기 메르치 쪼끔 놓고 다시마, 다시마 미역 삶은 거.
107021 @ 예, 미역 삶은 거.
107021 #2 그거 쪼끔 놓고 행 끌리민 고기국 삶아.
107021 @ 아.
107021 #2 경헨 그걸 끌이다근에 그레 해근에 저 웬장 풀어짜근에 거 건져불고.
건져똥.
107021 @ 예.
107021 #2 오래 끌이민 것도 맛 엇어. 너미 오래 끌이민. 경혜영 메역 짜근에.
107022 @ 여름에는 냉국 행 먹었지예?
107022 #2 으?
107022 @ 냉국.
107022 #2 냉국 행 먹주. 메역으로도 허고 녹물 스팀양 허고.
107022 @ 냉국 만들 때는 간장 메우는 것보다.
107022 #2 아니, 웬장.
107022 @ 예, 웬장. 웬장 메우는 것서부터, 양념허는 것부터.
107022 #2 웬장에 양념 안 허.
107022 @ 안 해.
107022 #2 어, 안 행 기자.
107022 @ 냉국 허젠 허민 어떻게.
107022 #2 냉국 허젠 허민 웬장에 저 거시기 물 풀어근에 물 풀영 맛 보멍 그
레 해근에 웬장 해근에 맛 짜근에 그레 식초 놓고.
107022 @ 음.
107022 #2 경허민 맛잇주게. 설탕 짜사 맛잇어. 설탕 조금 놓고. 사탕.
107022 @ 음, 사탕 놓고. 게민 그 냉국 끓일 때 녹물은 무슨 녹물?
107022 #2 아무 녹물이라도. 찰녹물도 뉘고, 저 배추도 뉘고 허는 디 배추 녹물
해사 맛좋고. 스팀아근에 기자 먹는 딴 찰녹물이 맛좋고. 그 스팀아 먹는 딴.
107022 @ 스팀아 먹는 딴.
107022 #2 으, 찰녹물이 맛좋아. 쉼에 찰녹물은 폭 스팀아사 맛좋고 무랑허게. 또
배추녹물은 약간 기자 경혜사 맛좋고.
107022 @ 음.
107022 #2 경헨.
107022 @ 게난 그거 녹물은 약간 스팀아가지고 썰영 웬장.
107022 #2 으, 웬장 무쳐근에. 경 웬장에 녹물 짜근에 막 무쳐 짜근에 그레 물
짜근에 경헨 또 식초 놓고.
107022 @ 식초 놓고.
107022 #2 어.
107022 @ 거기 뉘 새우리나 안 썰어 짜?

107022 #2 아, 새우리 씨나 쪽팔 씨나 행 놓고.

107023 @ 예, 예. 뭐 성계국 같은 건 요즘에야 허는 거라예?

107023 #2 성계국도 저 다른 것과 ㄹ치 저 우리 잔치혈 때 우리 방상에서 잔치혈 때 우리 느랑 끌어놋주게. 겨민 성계 혜근에 성계 하영 놉근에 이 소쿠리에 혜근에 더운 물 막 그레 거시기 들이쳐근에 그거 익게시리 혜근에 그물 거러 낱 그레 성계 흐쓸 농멍 잔치 땀 먹어나서 경헌디 그 잔치 땀 경 하영 허는 거난 경헨 건져 냉 먹엇고. 기자 끌이는 건 물 끌어근에 그레 성계, 성계 들이쳐근에.

107023 @ 예.

107023 #2 경혜근에 기자 미역 놓고, 메역 놓고.

107023 @ 음.

107023 #2 메역 농곡 허민 맛종주게. 그것도.

107023 @ 보말국?

107023 #2 보말도 그추록 행 끌리주게.

107023 @ 그추록.

107023 #2 물 풀어놉근에 그레 장 혜 놉근에.

107023 @ 게민 이 동네에서도 보말 막 잡으레 텅기고 헛수과?

107023 #2 우린 텅기지, 텅겨보지 안 허연 잘.

107023 @ 아. 어쨌든 토평이 저 바닷가까지 있는 거잖아예?

107023 #2 겐디 우린 두린 때서부터 바다 엇인 디서 신호서 사난 바단 원 보진 안 허난.

107023 @ 넙패는 국 끓여 먹엇수과?

107023 #2 어, 넙패도 국 끌려 먹어.

107023 @ 넙패국 끓이젠 허민 어떻 해야웨?

107023 #2 넙패인 그거 넙패 헤여지민 돌에서 바당에서 돌에 놉근에 탁탁 삐정 와이. 삐져근에 그거 막 시치지. 경헨 오랑 그거 또 슷디 낱 보까. 슷디 낱 보끄민 복삭허여 익어근에. 복삭허민 폭 저 물 놉근에 그레 장 풀어 놓고 혜근에 끌이다근에 그레 그건 넙패국은 장물 놉도 좋고 웬장 놉도 좋고 허는 거라라. 아무 거라고 기자 출레로, 기자 장 엇인 사름은 소금도 놉.

107023 @ 으.

107023 #2 경헨 그거 놉근에 ㄹ물ㄹ루나 저 밀ㄹ루나 혜근에 사발에 그거 풀어 낱당, 풀어 낱당 그거 저 넙패 놉근에 끌여, 물이 끌어지민 그레 놉근에 또 풀어 낱. 경헨 허민 그레 마농 썰어 놉사 맛종아. 마농 썰어 낱 코시롱허게. 넙패국은 막 맛종아.

107023 @ 아. 그거 막 질긴 거니까 두드렁 먹는 거?

107023 #2 어. 건 질기난에 복삭 두드리민 그 까지주게. 경헨 오랑 집이 오민 막 슷아. 보까.

107023 @ 보깡예.

107023 #2 어, 솟디 놔근에.

107023 @ 폰레국, 폰레?

107023 #2 폰레국도 그추룩 허주. 나 우린 끌러먹어 보지 안 헐디.

107023 @ 예. 물헨?

107023 #2 물헨 저 거세기 고기 썰어놔근에.

107023 @ 물헨 허젠 허민 무슨 고기 주로 해놔수과?

107023 #2 물헨허젠 허민 자리 헛주, 주로 자리. 자리물헨 기자 그 자리 썰어 놓고 그 거세기 제피. 제피 놔사 좋주게. 제피 그디 또 새우리 그런 거 헤여근에 놔근에 웬장 저 그것에 버물영 버물영 그레 물 놔근에 식초 놓고 설탕 조금 놓고 경허민 맛 좋주게. 겐디 장맛이, 장이 맛 좋아사. 웬장이 맛 좋은 웬장 잇고, 맛 엇는 웬장 잇주게. 경헨 장이 맛 좋아사.

107023 @ 아무 국 끓여도 웬장이 맛 좋아사.

107023 #2 으. 집이서 먹는 것도 다 장이 맛 좋아사.

107023 @ 어떻 삼춘은 장 잘 담가놔수과?

107023 #2 장 느랑 담양 서울도 아저 가고 서귀포도, 딸도 아저가고 아덜도 아저 가고 된 아저 간다게.

107023 @ 지금도 돕급니까?

107023 #2 지금도 돕가. 올리도 두 말 돕간. 지금.

107023 @ 아, 지금도.

107023 #2 어. 막 맛 좋덴 허명 우리 큰 메누린 저 서울 부천 살주게. 겐 오랑 된 아저 간다.

107023 @ 아저 가?

107023 #2 으, 사 먹지 안 허영. 장물도 아저 가고. 하하하.

죽류

107024 @ 이번엔 죽 물어보쿠다, 죽.

107024 #2 죽?

107024 @ 예. 죽 종류예. 죽 종류에는 무슨 죽, 무슨 죽이 잇수과?

107024 #2 죽은 곤죽 잇고 콩죽 잇고 팥죽 잇고 믰물죽 잇고 또 곤썰에 믰물썰에 서경도 죽 썩 먹고.

107024 @ 아, 기?

107024 #2 그건 막 맛 좋메.

107024 @ 곤썰에 믰물썰에 서경도?

107024 #2 으, 곤썰 놔근에 썩다근에 어느 정도 풀어지민, 거자 썩져사 믰물썰 놓주. 믰물썰은 농민 익어.

107024 @ 농민 익어.

107024 #2 어, 곤썰은 막 오래 썩사 익고. 경허민 그거 놔근에 믰물썰 놔근에

기자 흐쌀 웨민 기자 흐끔만 잇이민 맛 좋아.

107025 @ 계민 하나씩 물으쿠다예. 곤죽 끝여 줘시서, 곤죽?

107025 #2 곤죽은 쌀 씻어 놔근에 끝이멍 기자 거 오래 끌어 가민, 풀 나가민 젓어사. 젓지 안 허민 놀어.

107025 @ 놀어 불어.

107025 #2 어, 솟디 놀어벼. 경헨 젓어근에 헤근에 기자 영 쌀 씹어보민 흐쌀 도끗도끗 헤여 가민 헤영 솟두쟁이 흐쌀 영 더경 놔두민 풀풀허주게. 너미 썬민 굵어 또. 밀씩허연. 너미 썬 불민 밀씩허영.

107025 @ 어떤 때 곤죽을 끓여 먹엇수과?

107025 #2 곤죽? 옛날엔 곤죽 쌀 엿영 못 썬 먹엇주게. 이젠 썬 먹어진다. 우리도 이땅 가끔 썬 먹어. 이땅 밥 먹기 싫은 때 기자. 점심 때나, 저녁 때 기자 밥 먹기 싫은 때 곤죽 썬민 좋아. 경허고이 지금은 영장 나민 나가 만일에, 우리 삼춘이 돌아갓다 허민 나가 장손이난 거 곤죽행 썬당 문 맥이주게. 방상에 사돈 죽엄저 행오민.

107025 @ 팔죽 말고?

107025 #2 아이고 곤죽 썬 번 먹영, 곧 돌아 갈 때.

107025 @ 아, 오늘 돌아가셨다 허민.

107025 #2 허민 이제 곧 먹어. 팻죽은 흐끔 시간이 지나사. 경헨 나도 삼춘, 시삼춘네 시하르방네 문 죽은 때 여라 번 경헨 썬 봤저. 곤쌀 헤근에 썬 번은 곤죽을 먹주게. 옛날은 지금은 팻죽으로 허고 지금은 대 걸렁 허는디 옛날은 썬 번 영장 낫다 허면 곤죽 먹어나근에 그 다음은 팻죽. 건 사돈침이서 썬 오고 그자 어디서 썬 오민.

107026 @ 계민 조축, 조로 만든 조축?

107026 #2 조축도 그추록 행 썬주게. 조축은 제기 썬저.

107026 @ 제기 썬저. 으, 물에 놔근에 허민 줍쌀은 줍지고 허난 제기 풀어지주게. 조축은 그레, 그레이 누물 썬어 놓고이, 우리도 먹어 봤저 옛날에 줍쌀에 끝이당 그레 누물 썬어 놓고 마농 썬어 놓고 헤근에. 그건 국죽, 국죽이엔 헤나서 누물 썬어 놓고 하간 거 놓민.

107026 @ 계민 줍쌀로만 허는 건 아니고 거기에?

107026 #2 누물도 농곡 마농도 놓고 경헨 썬근에. 국죽, 국죽.

107027 @ 아. 팻죽 끓여 볶서, 팻죽?

107027 #2 팻죽은 팻 솥양, 옛날은 저 고압솥이 어신디 지금은 고압솥이 시난 팻을 고압솥에 낱 푹 끝이민 말젠 시간 웨민 열양 보민 물씩허주게.

107027 @ 옛날에 끓이던 걸로?

107027 #2 옛날엔 옛날엔 기자 저 팻 솥아근에, 솥양 그거 문두데겨근에, 영영 문두데경 그거 걸렁.

107027 @ 손으로?

107027 #2 어, 어. 그거 걸렁, 걸렁 거 푯 겁죽은 저레 비껴붙고, 저레 내려붙고 쓸허고 물허고 헤근에 그 곤썰허멍 그레 혼 뉘 놓민 노멍싸라 젓어사주 경안허민 놀어벼. 그건 걸러 논 거난 걸러 논 거난. 기자 쓸에 그것에 혼디 놓멍 젓어사 계속. 계속 젓어사 허주.

107027 @ 경헨 걸러난 우이 거는 데껴붙어?

107027 #2 우인 건 겁죽. 푯 겁죽이난.

107027 @ 겁죽이난.

107027 #2 으, 겁죽이난 내려 붙고.

107027 @ 내려붙고.

107027 #2 경헨 막 물에 데겨근에 영영 거시기 체로 영영 허민 우터러 그거 뜨 주게. 뜨민 건정 내려붙고. 아랜 알맹인 쓸 저거 쓸 푯 들고 물도 알러레 그건 죽에 놓고. 경헨 그건 자꾸 젓어사주 멍심안 허민 거시기 놀어.

107027 @ 놀어 붙어.

107027 #2 게민 눈 내 팍팍 나고 그건 막 멍심행 젓어사.

107027 @ 게난 아까 흰죽은 돌아가시민 곧.

107027 #2 곧 먹고.

107027 @ 푯죽은 무슨 제 끝난 다음에 먹는 것파?

107027 #2 아니. 제 전이, 성복제 전이. 성복제 넘으민 안 먹어. 성복제 전이.

107027 @ 푯죽은 누가 말앙 꿩영 오는 것파?

107027 #2 사둔칩이.

107027 @ 사둔칩이서예.

107027 #2 나가 죽으민 시어멍네나 동생네나 또 메뉴리 어멍이나 메뉴리 시누 이나 동생이 경헨 썩 오는 거.

107027 @ 게난 옛날에 푯죽 썩 어디에 담앙 갖수과?

107027 #2 허벅.

107027 @ 허벅예.

107027 #2 어. 허벅에 담앙 영 저근에. 정 땡겨났저. 정 땡겨났저 스몫 등따리 떼붙어, 등따리 떼붙어이.

107027 @ 맞아, 맞아.

107027 #2 경헨 정 다니멍 저근에 멧 밧디 가났저. 스몫 썩근에 여름에 막 더웁 스몫 허고.

107027 @ 경 거기에 온 손님덜안티 다 주는 거?

107027 #2 어, 다 주는 거. 경허민 어느 딸신디 푯죽 오랏저. 어느 메느리신디 푯죽 오랏저 허멍. 지금은 푯죽 안 허영 기자 라면 사 가곡게. 지금은 경해도 옛날 은 그런 거 엇이난 기자 죽으로만.

107028 @ 콩죽 끓여줍서, 콩죽.

107028 #2 콩죽은이 기자 맛좋아. 푯죽보다. 푯죽도 맛좋주만은 푯죽은 흐쓸 답

지고 이 사름 흐쌀 기운 엇인 사름은 답져. 콩죽은 사름 먹으면 솔져.

107028 @ 아, 콩죽 솔져?

107028 #2 으, 사름 저 기 부족헌, 기 부족헌 사름 먹으면 좋아 콩죽은. 콩ㄱ루 사당 죽 썩 먹으면 막 좋나. 콩죽은 솟디 물 놔근에 끓이다근에 콩ㄱ루 사발에 놔 근에 영 카근에 ㄱ루 병텅이 지카부덴 허다근에 물 레민 그레 낱 젓어사. 젓으면 것도 막 부꺼이. 국 끌리듯. 국추룩 막 부끄어 가민, 부꺼 가민 부끄지 말렌 불 또 약허게 영헤근에 놔근에 슴으멍 젓으멍. 젓어근에 쓸에 혼디 헤 놔근에 경헨 끝이 주게.

107028 @ 게민 콩죽 끓일 때 쓸을 먼저 물에 낱 끓입니까?

107028 #2 어, 어. 콩죽 몬저. 경 안허민 또 쓸광 콩ㄱ루광 서경, 서경근에 물 레민 그레 비와냥. 그것이 쉬워 또.

107028 @ 아, 끓이는 거 쉬운 게.

107028 #2 어, ㄱ치 서꺼 낱.

107029 @ ㄱ물축 끓여 줘서, ㄱ물축.

107029 #2 ㄱ물축은 쥬 쉽나게.

107029 @ 아, 쥬 쉬워.

107029 #2 물 끓이민 그레 ㄱ물쓸 놔근에 기자 레민 그 두경 영 더끄민 거 ㄱ물축 돼는 거.

107029 @ 끝난 거?

107029 #2 어, 그건 끝난 거. 쥬 쉬와. 쌀 피와나기가 쉬와.

107029 @ 아, 금방 익는 거난?

107029 #2 어.

107029 @ 어쨌든 조보다는 ㄱ물이 더 피기가 쉬운 거다예?

107029 #2 어.

107029 @ 금방 끓여지는 거난.

107029 #2 어. 금방 끓여지주게. 견디 조, 줍썰보다 ㄱ물축이 더 쉬워. 줍썰은 흐쌀 영 젓어사.

107029 @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감기 걸리거나 허면.

107029 #2 ㄱ물축 먹어 낫저.

107029 @ 예, 예. 감기 걸렸을 때 ㄱ물축 끓여 거기엔 잔과 썰어 낱.

107029 #2 어, 어. 경헨 먹고. 또 저 거시기 낱저 어른은 막걸리 낱 먹으면 감기 돌아난덴 허멍. ㄱ물축에.

107029 @ 아 ㄱ물축에.

107029 #2 어, 그거 서경 먹어낫저.

107031 @ 예. 이제 득죽 끓여줍서. 득죽.

107031 #2 득죽은. 원 똑ㄱ튼다게 죽 썩은. 물 레 가민 그레.

107031 @ 득 슴아 놔야 헐 거 아니?

107031 #2 득, 득 숲아근에 그거 다듬아근에 문 다듬아근에 그레 쓸 혼디 낳 것 영. 경 안 허민 건져근에 다듬아근에 놓고 물 끌영 숲앙 거자 끌여져 가민 꿰기 놓고 경헨 먹으나. 경 안 허민 또 저 꿰기광 쓸광 ㄴ치 낳 젓어근에 ㄴ치 기자 쭈나.

107031 @ 으.

107033 #2 겐디 요즘 저 우리도 가끔 거시기 해당 먹는다 오리. 득 안 먹은난 오리 먹는다이 오리 숲앙 건져내영 그거 빼 딱로 저 고기 딱로 문 다듬아근에 낳다 근에 쓸 낳 젓당 거자 풀어져근에 쓸이 어느 정도 풀어져 가민 그 고기 놔근에 허 영 조금 놔근에. 간 맛좌근에.

107033 @ 으.

107033 #2 간 맛좌근에 솟두쟁이 더경 놔두민 뉘주게. 경헨 먹어낳주.

107033 @ 오리죽 자주 행 먹엇수과?

107033 #2 어게, 오리죽 자꾸 끌령 먹나 여름에영.

107033 @ 아.

107033 #2 여름에.

107031 @ 득죽은 안 허고.

107031 #2 득죽은 안 먹어. 못 먹어 나.

107031 @ 누게가 못 먹어? 삼춘이?

107031 #2 나가 못 먹주. 나가이 시집 스물두 설에 오랑, 스물네 설 나는 헤에 입이 트라정.

107031 @ 병 걸린.

107031 #2 어게 저녁헨에 어스령 현 디 우로 비행기 소리가 팡팡헨게 이디가 부떠변. 말 사흘을 못 곺아.

107031 @ 어.

107031 #2 아이고 사흘 못 곺으난 그때 무시거 헨 우리 시하르방이 침을 쫓주. 이디선 허민 저 농협만 현 디. 그디 강 침 맞고, 침 맞고 사흘을 말 못 곺아. 먹음 은 헤져도.

107031 @ 으.

107031 #2 이디가 이디가 부떠며. 이짜 영 헨 영 헨 막 툐아져변.

107031 @ 아.

107031 #2 경허난 그걸 침 매날, 매날 침 맞으멍 헤가난 돌아완게이 혼 삼 년은 겨울 들영 추우민 말 즐바로 못 곤고 이제사 흐뎡 말 잘 곺아점저.

107031 @ 아, 기과?

107031 #2 스물네 설에 경헨 거.

107031 @ 아고, 고생헨구나. 무사 경 현 거?

107031 #2 어떻헨 산디 웨살풍 걸린 거주게. 경허난이 이제 혼 삼 년 뉘주만은 삼 년 전이 까지 한의원에 침 맞으레 가민 그거 곺아. 알아. 입 툐아져낳젠. 보민 알아.

107031 @ 음.

107031 #2 견디 지금 어린 의사들은 몰라. 나이 한 의사들은 안다게.

107031 @ 아니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전혀 몰르쿠다게.

107031 #2 지금은이 혼 삼 년, 삼 년이나 이 년이나 혼 쓸 줄바로 말 곧주 추위도 말 잘 못 곧고. 또 이깁정은 알아도 느시 꺼내지 못 허고. 경혜라게.

107031 @ 고생했구나. 지금 말씀 좋으시우다. 발음도 좋고.

107031 #2 말 좋고?

107031 @ 예.

107031 #2 아이고 몰르켜 권 막 막안.

107031 @ 하하.

107031 #2 권이 이디 혼 쓸 막은디 다리 강 두 착 수술헤 와 부난 톱 막아벤게.

107031 @ 아.

107031 #2 귀 혼 착은 안 막고 이 착은 톱 막아베라게.

107031 @ 잘 들으셈신게. 한 쪽 잘 안 들리는 것과?

107031 #2 으, 이 착은 잘 안 들려.

107031 @ 으.

107031 #2 일로 말 곱으민 잘 몰라. 경허난 이 다리 수술헤연 나오난 이 착은 탁 막고. 경헨 오난 말을 잘 안 들리난 보청기 헛지. 보청기 사다 놔도 줄바로 못 허난. 이제라가난 기운 나 가난 기운 나 가난 이 착 귀도 혼 쓸 잘 들려.

107031 @ 아.

107031 #2 기운 나난. 이거 연결 웨신귀라. 경헌디 나만 그거 아니고 할망덜이 다 그거. 다 다리 수술헤 나민 귀 톱 막아벼.

107031 @ 아.

107031 #2 겨난 그 물리치료 허는 디 가민 물리치료 원장이 하이고 속상헨 못 살쿠다. 무사마썸 허민, 할망덜이 다 귀 막아 놓난 영 곱아도 몰르고 정 곱아도 몰르고. 날ㄴ란 경헤도 아는 펜이엔.

107031 @ 기니까. 잘 들엄수다게.

107031 #2 아는 편이엔 허명. 경헤도 나 보청기도 백십오만 원 권에 헤다 냇기 냇 잇저게. 나 이제 안 꺾져. 이거 혼 쓸 영 거시기 헤가난 웨연게. 췌 번은 원 들란 게.

107031 @ 아, 아멩헤도 여기가 건강해사.

107031 #2 어, 어게. 이거 따문에 온 통에 무시거 헨ㄴ라게.

107031 @ 계난 영 걸으러도 자꾸 다니셈지예. 걸으레예?

107031 #2 어게. 계난 이 다리 수술 안 헨 땀이 아관 걸지 못 헨. 나 췌셋에서 부터 아팠주게. 췌셋에 어떻헨 아파신고 허민 갑상선 걸련. 갑상선에도 연관 잇넨 다리. 연관 잇넨 헤라게. 계난 온몸에 다 들어 보난 느시 걸지 못 헨에 제주시 병원에 강 스십칠일 간 입원헛단 이 제주시에서 저 거시기 서울러레 병원 서울 병원더

레 연결현에 보내 줘라게. 이젠 비행기 탈 수 잇이난. 나 죽넨 해낫주게. 죽는 걸로 막 해난.

107031 @ 아고, 아고.

107031 #2 경헌디 비행기 타지크메 이젠 서울 가렌. 서울 간에 이젠 가난에 느시 다릴 걷지 못허난 이착 느시 이착은 꾀고 이착은 흐뎀 뉘 허민 꾀지 못허난 우리 메뉴리 이디 심영 차레 해근에 올리고. 차레 영 심영 느리고 허단 연세대 병원 앞이 가난 데모허난이 우리 메뉴리 나만 내베딩 오꾀 돌아나변.

107031 @ 아, 하하.

107031 #2 막 총 쏘우명 그 수루탄 무시건가 념새 나지 안 허느냐. 그거 쏘명 막 학생덜 나왕 막 데모해가는 디 사름 죽어도 몰라. 아고 스뎀 이디가 왯왯. 그 수루탄으로 막 쏘아 놓난. 이디가 왯왯허고 허난 난 질 으피 강 영 헨 앓아시난 막 말째사 우리 메뉴리 왕 아고 나 저 거시기 므스우난 오꾀 돌아나베전에 돌아난 이딴 보난 어머니 내베딩 가져서렌.

107031 @ 아이고.

107031 #2 하하하. 그 생각허민이. 그때 원 걷지 못 해낫주게. 경헨 글우후제 이다리가 아픈 거. 쉼셋에부뉘.

107031 @ 고생헛수다.

107031 #2 경허난 작년이 이거 수술헌 디, 작년 삼월 달에 이거 수술헌 디 작년 삼월 달 전인 저 집이서 우리 집이서 이디 저디 가젠 허민 흰 이백메다 삼백메다 허주게. 먼다 흐썰. 오젠 허민 쉬엇당 오고 쉬엇당 오고.

107031 @ 경해도 걸영 다니셔야 헤예.

107031 #2 으. 경헨 헌 디 이젠 쉬지 안 해도 가져. 이거 허난.

107032 @ 그 쟁죽, 쟁이죽?

107032 #2 쟁이죽?

107032 @ 예.

107032 #2 쟁이죽은이 이 방에에 낵 막 꾀앙 우리도 헿 먹어뵘저. 방에에 낵 꾀아근에 그거 해근에 물 걸러근에 게민 우이 격죽은 저 소쿠리에 헿에 영 헿 걸르민 옛날엔 차룽에.

107032 @ 차룽에.

107032 #2 저 소쿠리가 어디서 저 차룽에.

107032 @ 어디서.

107032 #2 으, 차룽에 영 헿 걸르민 그걸 저 물 걸러지민 물에 물 낵 꾀여가민 썰에 그 쟁이 물, 물 따라 논 거, 물 따라 논 것에 물에 서꺼근에 기자 흘만이 놉근에 썰에 꾀치 낵 느랴 계속 젓어사.

107032 @ 으.

107032 #2 젓어근에 허민 맛좋아 것도. 경해근에 익어근에 허민 먹어뵘저. 그췌 룽베깁 안 해뵘.

107033 @ 맞아, 맞아. 꿩죽도 행 먹어놨수과?
 107033 #2 꿩죽은 나 썩 먹어보진 안 허고 고긴 먹어나도.
 107033 @ 아, 고기 먹어나도. 이거 말고 다른 죽 뭐, 호박죽, 호박죽?
 107033 #2 호박죽, 어 호박죽도 썩 먹어놨주. 호박 즙질게 썰언에 막 삶아가민 카져. 켜 그레 썰 난에 젓엉 썩 먹어봤저게.
 107033 @ 음.
 107033 #2 으, 짓도 맛좋아라.
 107033 @ 계민 호박 삶아가지고 그거 막 으깨여?
 107033 #2 아니, 호박 저 갑 내영 겹죽 뱃겨뒤근에 썰어근에 솟디 낱 삶으민 그 거 문작혜근에 막 대겨근에이. 그레 썰 놔근에 짓어.
 107033 @ 그거 말고 또 죽 혜 먹어난 거 잇어?
 107033 #2 어?
 107033 @ 죽 혜 먹어난 거 잇인가? 죽 이거 말고 또 혜 먹어난 거?
 107030 #2 녹디죽도 그추룩 행 먹곡.
 107030 @ 녹디죽도 행 먹언?
 107030 #2 으, 녹디죽도 썰에 녹디 저 거시기 혜근에 경 행 먹고게.
 107030 @ 녹디죽도 녹디 삶아가지고?
 107030 #2 녹디 저 삶아근에 걸러근에.
 107030 @ 걸렁가지고.
 107030 #2 으, 경허영, 경허영 겨민 격죽 잇어 우이. 격죽은 던져 불고.
 107030 @ 던져 불고. 아까 풋죽 끌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107030 #2 똑ㄴ트주게. 똑ㄴ타.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예. 저기 범벅이랑 수제비 물어보쿠다.
 107034 #2 범벅은 믈물ㄴ루 넣고 감저 썰어놔근에 지금 고구마지 감자.
 107034 @ 감자.
 107034 #2 으, 감자 썰어 놔근에 감저 놔근에 물에 놔근에 불탁불탁 삶으민 익 으민 감저 익으민 그레 믈물ㄴ루 낱 막 짓어. 짓으민 금방 웨여.
 107034 @ 음.
 107034 #2 감저만 익으민 믈물썰은 제기 익으난. 믈물ㄴ루.
 107034 @ 으, 기구나. 감저만 익으민 거기에 믈물.
 107034 #2 으, 믈물ㄴ루 놔. ㄴ루 낱 막 짓어근에 맛좋아 그거.
 107034 @ 계민 범벅은 그거뿐? 감저 낱 허는 것뿐? 다른 범벅은 엇수과?
 107034 #2 다른 범벅은 저 흔다게. ㄴ물도 놔근에 허고 이땅 테레비 나는 거 보 라게. 그 먹을 거 엇인 때 하간 푸십새 놔근에게. 하간 거 하렌.
 107034 @ 아, 하간 거?

107034 #2 으. ㄹ룬 ㅈ굵만 허고 푸십새 ㄴ물 ㄹ튼 거, 무시거 산에 강 무시 것
덜 허당 그레 낱 엄불렁.

107034 @ 으. 푸십새 아까?

107034 #2 푸십새 ㄴ물이나 무시거 모든 거시기 채소.

107034 @ 채소 종류.

107034 #2 으, 채소 종류. 푸십새.

107034 @ 으, 그런 거 ㄴ 가지고예.

107034 #2 으, 푸십새엔 현다.

107035 @ ㄹ베기는?

107035 #2 저베기는 저 칼저베기 ㄹ물ㄹ루 물 ㄹ민 ㄹ물ㄹ루에 ㄴ근에 영 달황
밀어. 영 행 밀어근에 영 영 썰어근에 건 물 ㄴ근에 ㄹ민 저 썰어 ㄴ 거 영 들이치
민 금방 익주. 경허민 그레 마농 썰어 놓고 ㄹ루 놓고 허미 맛좋아 거. 경허영 저
ㄹ물저베기 막 맛좋게 경헨 먹고. 또 그 그 저 영 밀어근에 허는 건 공들민 공들지
안 허게시리 ㄹ물ㄹ루에 ㄹ는, ㄹ는 물 ㄴ어근에 영헨 것어근에 그레 토박토박 썰
어, 거러근에 물 ㄹ는 더레 ㄴ.

107035 @ 순구락으로 거러 ㄴ?

107035 #2 순구락으로 똑똑허게 거러 ㄴ근에. 그레 소금 ㄴ. 소금ㄴ근에 ㅈ찌렁
허게 경헨근에 ㄹ주게 ㄹ물저베기.

107035 @ 예. 계난 저베기 종류가 두 ㄴ개예. 칼.

107036 #2 칼저베기, 그추룩 기자 거러 놓는 저게비 . 저 밀ㄹ루도 그추룩 행
또 ㄴ아근에

영영 알룩게 헨근에 헨도 허고 경 한 행 밀어근에 또 ㄹ물ㄹ루추룩 헨도 허고 또
그추룩 안 행 이 순구락으로 걸여ㄴ근에 헨도 허고.

107036 @ 계난 저베기도 ㄹ물ㄹ루만 허는 게 아니고 밀저베기도 있는 거라?

107036 #2 아고 밀저베기 맛좋나게.

107036 @ 맛좋아?

107036 #2 맛좋아.

107036 @ 밀로도 칼저베기 만들고?

107036 #2 으, 칼저베기 만들고.

김치

107037 @ 예, 예. 이제는 김치 물어보쿠다. 김치.

107037 #2 김치?

107037 @ 예, 옛날에 김치렌 ㄴ앗수과, 김치렌 ㄴ앗수과?

107037 #2 김치.

107037 @ 김치예.

107037 #2 김치가 아니고 김치.

107037 @ 계난 옛날말로 곱아줍서.

107037 #2 으, 짐치.

107037 @ 짐치 종류에는 무슨 짐치가 잇수과?

107037 #2 저 거시기 배추짐치 허곡이 드르느물 캐당. 드르느물 느네 몰르지.

107037 @ 드르느물 알아집니다.

107037 #2 알아져. 드르느물도 캐당도 허고. 쓴다 흐쫌 써.

107037 @ 예, 써.

107037 #2 드르느물 짐치도 행 먹고 저 늠삐짐치.

107037 @ 늠삐짐치.

107037 #2 어, 늠삐짐치 행 먹고. 그런 거베긴 안 봤저 우린.

107037 @ 뭐 새우리 짐치, 파짐치.

107037 #2 아, 파짐치 허주게. 새우리 짐치도 허고 파짐치 허고.

107037 @ 계도 막 옛날에는 새우리 짐치, 파짐치?

107037 #2 그런 거 안 헤서, 안 헤서. 헐 충 몰랑.

107037 @ 헐 충 몰란?

107037 #2 어, 먹을 충을 몰란.

107037 @ 이제사.

107037 #2 으. 이제난 쪽과 짐치 ㄱ튼 거영 험주 안 헛저게. 늠삐짐치허고 기자 드르느물 짐치허고 배추짐치.

107037 @ 배추짐치.

107038 #2 배추느물, 배추느물 허멍. 하하하.

107038 @ 배추짐치 만들젠 허민 소금 절이는 것부터, 배추는 어디 강 상 와?

107038 #2 배춘 집이 갈아근에 행 먹고게. 옛날은 배추 지금처럼 시장에 안 팔 앓저게. 갈아근에 헤 먹주. 갈앙 허민 속 안 앓아. 기자 삐짜삐짜 현 거 그거 기자 헤다근에 저 소금에 절이는 채 헤근에 고춧ㄱ루도 이녁 갈앙, 지금은 요즘은 갈아 근에 고춧ㄱ루 하영 헤 먹엄주만은 그걸 못 허연. 그걸 못 허연 고춧ㄱ루 엇영이. 고춧ㄱ루 헐 중도 몰랑 고추 썰어 낱, 듬박듬박 썰어 낱 그것에 버물영 먹엇주게. 경헐 소금에 절엿다근에.

107038 @ 계도 소금에는 절여졌수과 아니면 바닷가 강 물에.

107038 #2 경헌디 배춘 대개 집이서 소금에 절영 우리가 집이서 행 먹어보고. 춤느물, 춤느물은 이만씩 현 거 행 강 바당물에 강 그것이 밀멍 씻으멍 헤영 죽이 여근에.

107038 @ 으.

107038 #2 또 물 흔 허벽 저근에.

107038 @ 바닷물?

107038 #2 으, 바닷물. 정 오랑 그것에 죽이고. 장 됴을 때도 바닷물 저당 소금 앓경, 소금 엇이난 그 저 바당물로 헤근에 장 됴고.

107038 @ 바닷물에.
107038 #2 으, 계민 소금 반도 안 들주게.
107038 @ 아, 맞아마씨.
107038 #2 으, 소금물, 저디 바닷물이난.
107038 @ 바닷물이난.
107038 #2 그처럼 헨에 짐치도 그처럼 헨 먹고.
107038 @ 음.
107038 #2 겨민 녹물, 찰녹물 짐친 바당에 강 밀어다근에 단지에 해당 딱 단으
민 고치도 안 허고 아무것도 안 놔. 기자 딱 담양 돌 딱 지들황 놔두민 누렁허민
딱 맛좋아 새콤새콤.
107038 @ 아니, 양념 아무 것도 안 행?
107038 #2 어 아무 것도 안 놔. 새콤새콤 허게 딱 맛좋아.
107038 @ 뭐 자리젓 같은 것도 안 놔?
107038 #2 감저 치민 감저 해근에 그것에 먹엇주게.
107038 @ 아, 기과?
107038 #2 어게. 하하하.
107038 @ 맛있겠다.
107038 #2 옛날엔 이것저것 헤시냐게, 안 헛주게.
107038 @ 맞수다.
107038 #2 헛자 이디 그슴 서도 헨 중도 몰르고 시간도 엇고. 밧디 강 일 허젠
허민.
107038 @ 밧디 강 일허젠 허민.
107038 #2 으, 시간도 엇고게. 시간도 엇고 헨 중도 몰르고.
107038 @ 으, 계민 이제 배추 김치 물에 절여가지고?
107038 #2 지금은 절영, 아니 옛날도 절여근에 건져근에 그레 고추 두박두박 그
레 썰어놔근에 그레 대사니 흥끔 빼져 놓고. 그축 해근에 기자 행 먹엇주. 짹짜랑
허게.
107038 @ 짹짜랑예. 고춧가루덜 엇이난예.
107038 #2 어게.
107039 @ 열무짐치 같은 것도 헤낫수과?
107039 #2 지금이 열무짐치주 옛날에 열무가 어디 서 시니?
107039 @ 으.
107039 #2 늣뻐 기자 늣뻐.
107039 @ 늣뻐. 열무짐치 지금 헤 먹는 건 어떻 헉니까?
107039 #2 지금 헤 먹는 것도 소금물에 돕갓다근에 건져근에 다른 짐치 허듯
뚝그치 양념해근에 허미 맛좋아. 양념 대사니 그레 저 열무 짐친 대개 젓갈 놔사
맛좋아, 젓갈. 젓갈이 들어가사.

107039 @ 아.

107039 #2 이 무 짐치도 짓같이 들어가사 맛좋고.

107039 @ 으, 무슨 땀찻?

107039 #2 으, 그거 쪼금 넣고. 하영 농민 저 냄새나고.

107039 @ 냄새나고예.

107039 #2 으, 쪼금. 쪼금 놔근에 그레 양념 든 헐 때 그레 양념에 서꺼근에. 경
혜근에 헤 먹주게. 경헌디 지금은이 다, 나도 요자기도 김치 헐디, 메루치 넣고 다
시, 다시마. 메역 닳은 거이. 다시마 넣고 무 썰어 넣고 다마네기 헐나 헤 넣고이
경헐에 막 끝연에 그 물, 그 물 걸러에 그디 배 곶아놓고 다마네기 곶아놓고 계난
막 김치 맛좋아라.

107039 @ 맛있겠다.

107039 #2 어, 겨난 맛좋아라게.

107039 @ 거기에 고춧가루 넣?

107039 #2 으, 고춧가루영 놔근에 마늘, 마늘 다진 거 허고 생강 다진 거 허고
경허연에.

107039 @ 설탕도 넣고?

107039 #2 으, 설탕도 쪼금 넣고 기자 혜근에 계난 무시거 다른 거 이 미원 거
튼 건 일절 안 써도 맛좋아. 그거 끝이난에. 메르치 허고 그런 거 끊이난게.

107039 @ 맞수다.

107039 #2 시원허고.

107040 @ 물짐치도 만들어 봤수과?

107040 #2 물짐친 기자 나 누물, 늬삐 물짐치 늬삐 나박나박허게 썰영 나박나박
허게 거시기 알롭게이, 알롭게 썰어 넣고 또 거시기 춤누물 썰어 넣고 그레 혜근에
죽여다근에 죽옛당 그레 물 넣고 소금물 헐썰 헤 넣고 그레 또 저 밀가루나 마루
쪼금 풀어 넣 풀마치 썩근에 놔근에이 경허근 시원허게 허민 먹어저라게.

107040 @ 음.

107040 #2 경헐 냉장고에 놔 두민 시원행 기자.

107040 @ 시원허게예.

107040 #2 으, 그레 새우리 썰어 넣고 파 헐썰 썰어 넣고 혜근에게.

107040 @ 경헐 요즘에도 행 먹는 거예?

107040 #2 이땅 어떤 땐 행 먹고, 어떤 땐 실프민 말고. 경헌디 아이덜 클 땐
이것저것 헤지는다 나 허고 하르방만 사난 허마정을 안 혀. 허마정을 안 혀.

107040 @ 아.

107040 #2 허마정을 안 혀. 실평 간세로.

107041 @ 예. <중략> 동지짐치는 뭘 동지짐치렌 험니까?

107041 #2 동진 동 산 누물.

107041 @ 음.

107041 #2 동 꺼꺼다근에 그것에 다른 짐치 허듯 기자 배추 동이나 찰늬물 동이나이. 찰늬물 동은 배추찰늬물 동만이 맛엇영 숲아서 맛잇어.

107041 @ 음.

107041 #2 찰늬물 동은 숲으민 막 맛좋아. 그거 헤근에 물에, 소금물에 죽엿다근에 양념 된 다른 거 허듯 메르치 다시다물이영 하간 거 된 그레 고춧ㄱ루, 고춧ㄱ루 언주영 놓고 생강 놓고 된 헤영 다른 짐치 허듯게. 기자 ㄱ치 헤영 서경 허민 동치미 짐치 또 오래 잇엇다근에 먹어사 맛좋아. 노리롱 헤사.

107041 @ 예. 익어야.

107041 #2 으, 익어사, 익어사 맛좋아.

107042 @ 예. 늬삐 짐치 헤 볍서. 늬삐 짐치.

107042 #2 늬삐 짐친 기자 크게 써는 건 크게 썰고 죽게 써는 건 죽게 썰어근에 저 늬삐, 늬삐 죽일 땐이 저 거시기, 튀어만은 당원 아니고 거 튀엔 곧나만은 저 설탕 아니고 된 거 잇나게.

107042 @ 사카린.

107042 #2 사카린 아니고. 당원 님은 거 이디 풀주게. 그거.

107042 @ 옥수수 숲을 때 넣는 거.

107042 #2 어?

107042 @ 옥수수 숲을 때 넣는 거.

107042 #2 그걸 거여게. 그것에 소금에 혼디 절여사 맛잇서. 경혜사 아삭아삭 허여. 저 설탕은 놓민 거시기 아삭아삭 안 허영 거시기 그 재료가 된 죽여변 물씩 헤불고. 짐치에도 설탕 하영 놓민 물씩헤 분다.

107042 @ 물씩헤 불어예.

107042 #2 으, 쪼끔만 놔사 아씩. 게난 그 늬삐짐치 헐 땐 그 튀엔 곧젠 허난 못 굴으켜. 당원 님은 거 저.

107042 @ 알쿠다, 알쿠다 뵤지.

107042 #2 저 폰다 저 설탕도 아니고. 그거 놔사 아삭아삭 허게 기자 늬삐 언 때라도 바삭바삭 허게 곧 헐 짐치 거치. 그것에 혼디 죽여사.

107042 @ 게난 소금이랑 그거랑 ㄱ치 냥.

107042 #2 으, ㄱ치 냥 ㄱ치 죽여. 갱허민 맛좋아.

107042 @ 양념 허는 건 같고?

107042 #2 어, 똑ㄱ트고게.

107043 @ 파짐치?

107043 #2 파짐치도 똑ㄱ타게.

107043 @ 똑같아.

107043 #2 어. 양념 똑ㄱ치 헤근에 똑ㄱ치. 건디 파짐치엔 생강 허고 대사니 안 들어가도 좋아.

107043 @ 게니까 다 잇이난.

107043 #2 어. 그건 안 들어가도 좋아.

107044 @ 예, 예. 드르마농집치?

107044 #2 드르느, 드르마농도 그거 ㄴ트고. 경헌디 드르마농이나 파짐치나 멜
젓 들어가사. 멜젓 들어가사 맛좋나.

107044 @ 아. 파짐치엔 곱습니까, 마농집치엔 곱습니까?

107044 #2 마농집치. 요샌 파짐치엔 헨다만은 옛날은 거 헤 먹을 줄 몰란. 그
짐치 안헤봤저게. 옛날은. 그자 숭양이나 먹고. 짐치 헨 중 몰랑.

107045 @ 아 예. 갓짐치.

107045 #2 갓짐치도 ㄴ뜨주게. 갓짐친 갓느물 아냐게.

107045 @ 예, 갓느물, 갓느물짐치.

107045 #2 어, 갓느물. 갓느물 것도 똑ㄴ튼다게. 다른 것광 ㄴ치 기자. 그 갓느
물 놈근에 물짐치 해도 좋아. 물 하영 놈근에 시원하게. 경허민 그거 막 좋나.

107046 @ 예, 예. 새우리집치는?

107046 #2 새우리집치도 다른 것광 똑ㄴ트꼭게. 파짐치 허듯.

107046 @ 파짐치 허듯.

107046 #2 어, 새우리도 저 젓갈 들어가사 좋고.

107046 @ 여기도 마농 안 놓고.

107046 #2 으, 것도 안 놈도 좋아.

젓갈

107048 @ 이젠 젓갈 물어 보면, 젓갈에 무슨 젓갈 잇수과?

107048 #2 젓갈 종류사 바당에 나는 거 다 젓갈 돼주게. 갈치 젓갈도 잇고 저
조기 젓갈도 잇고 다 잇나. 꿩기 나는 건 다 잇어.

107048 @ 예. 우리 주로 헤 먹는 건?

107048 #2 자리젓, 멜젓, 저 새우젓.

107048 @ 새우젓. 경헨엇던 거예. 삼춘은 무슨 젓갈 담아놨수과?

107048 #2 아, 집이서 저 자리젓 허고 멜젓.

107048 @ 두 개만예?

107048 #2 어, 두 개만. 새우 거튼 건 못 허여.

107049 @ 자리젓을 먼저 담가 줘서, 어떻 담가난?

107049 #2 자리젓은이 소금이 스대 일, 스대 일로 담아진 거 닷다.

107049 @ 계민 자리가 사, 소금이 사?

107049 #2 자리가 사.

107049 @ 소금이 일.

107049 #2 어, 일. 경헨 담아진 거 닷다.

107049 @ 자리 담그젠 허민 어떻게?

107049 #2 자리 사 오랑.

107049 @ 보통 얼마나 사 와났수과?

107049 #2 보통 이키로.

107049 @ 이키로?

107049 #2 어, 흠쉴. 기자 경허민 으, 혼 말, 혼 말도 해났저. 혼 말은 팔 키론 가.

107049 @ 으.

107049 #2 경허민이 그거 쳇 번으로 소금에 절였당, 소금 조금헤여근에 오닐 헤 영 널 아칙을 벨씩허주게. 경허민 그거 훌훌훌 헤우멍 곳인 거 문 빼여덩. 자리 놔 근에 그 물 툄라근에 걸려. 곳인 거 걸려.

107049 @ 걸려예.

107049 #2 걸렁 물은 또 자리에 놓고 소금 족암직 허민 그레 소금 자리에 더 냥.

107049 @ 예.

107049 #2 경혜영 콩콩 누뜨렁 우이 무시거 더꺼베사 좋주 더끄지 안 허영은 우터레 곳주게.

107049 @ 뭘 더퍼?

#2 우이 험벅이나 비니루나 혜영 더꺼. 비니루 알룬 거 혜영 더경 놔 두민 좋아. 경혜여근에 두께 더꺼. 소곱에 툄허게.

107049 @ 음.

107049 #2 장도이 저 거시기 웅장도 헤 놔근에 우터레 비니루 툄ㄴ트게 헤근에 그레 툄 더꺼근에 툄 허게시리 맞게시리. 경헨 헤사 곰생이 안 피고.

107049 @ 아, 경혜야 곰생이 안 퍼.

107049 #2 으, 곰생이 안 피고 기자 그대로 잇주게. 우터레 툄허게 더꺼베사. 경 헤근에 자리젓도 경혜근에 더경 경헨다근에 자리젓은 대막데기 헤당 영 쫄앙. 영 알러레 녹들게. 자릴 알러레 녹들게 울러레 트지 못허게.

107049 @ 아, 게민 둘 같은 거 지들르진 안 허고?

107049 #2 둘도, 둘도 지들루고.

107049 @ 아, 지들르고예.

107049 #2 대막덩이 영 행 네커리로 놔근에 사각형으로 영 혜영 요레 둘 툄허 게 지들루고. 경혜여근에.

107049 @ 아, 우에 뜨지 말라고.

107049 #2 어, 뜨지 말렌.

107049 @ 게민 우에 뜨민 거기에 뭘 생겨?

107049 #2 그디 곳주게. 그 자리가 빨강 안 허여, 곳어.

107049 @ 검영헤부난.

107049 #2 으, 검영헤영 그건 맛이 엇어.

107049 @ 물 우터레 떠 부난.

107050 #2 으, 물 우터레 떠 부난. 아래 지돌라져사주. 멜컷은 멜은 흐끔 짜주게. 멜은 스대일 녀영 흐쓸 하영 헤사 멜은 카지지 안 허영. 흐쓸 하영 소금 하영 낱.

107050 @ 자리젓보다는 소금 하영 낱?

107050 #2 으, 하영 놘근에.

107050 @ 멜컷은 얼마나 담가놔수과?

107050 #2 아, 멜컷은 흐끔은 사당 담아놔저게. 쪼끔 담으민 기자.

107050 @ 젓갈 많이 안 담아놔구나.

107050 #2 어, 하영 안 담아.

107050 @ 하영 안 담아?

107050 #2 으. 저 우리 친정에 신 땀 멜 댕 말씩 담아놔저 친정엔. 난 이디 시집은 오난 이것가 엇언. 하하하.

107050 @ 예.

107050 #2 이것가 엇언에 그추룩 흐끔씩 흐끔씩 헤당 먹고 우리 친정엔 이거 나 거 자랑이 아니고이 호화허게 잘앗주게. 아버지도이 막 거시기 현 어른이난에 우리 일도 안 시키고 놉만 빌영 허고 막 저 부제랏저게 아버지네가.

107050 @ 예. 경 어떻헐 시집왕?

107050 #2 경허난 시집은 오느디 이딘 아무것도 엇어도 사름 환에.

107050 @ 아.

107050 #2 사름 환. 아무것도 엇인 디 폴아놓난에 어려울 거 아니. 계난 이디선 흐끔씩 사단 혼 뉘 사당 담양 먹고 헤놔저게.

107050 @ 김치 헐 때도 썰던 거 아니 멜컷?

107050 #2 어?

107050 @ 김치 헐 때도 막 썰던 거 아니?

107050 #2 멜컷 국물 툇양 놓고 그 국물 엇이민 멜 놘근에 끓영 끓이민 물 나 온다게.

107050 @ 예, 예.

107050 #2 물 나오민 영 거시기 걸렁.

107050 @ 걸렁?

107050 #2 으, 사나 무시거 놘근에 사 바쳐근에 걸렁 놓고.

107051 @ 아감젓도 헤놔수과?

107051 #2 어?

107051 @ 아감젓, 아가미젓?

107051 #2 안 헤놔저.

107051 @ 안 헤난?

107051 #2 으,

107052 @ 게젓?

107052 #2 게겏도 안 헤, 아, 갱이겏은 헤낫저. 소금에 흐쑈 영 절여 놔두난 거 갱이겏 웨는 거라라.

107052 @ 갱이를?

107052 #2 으, 기자 소금에 기자 버물영 영 행 놔두난 소금에 영 헨 맛좋은 거라라게.

107052 @ 예. 아까 갈치겏도 얘기허고 조기겏도 얘기헛잖아예. 그런 거 만드는 겏도 안 봐낫수과?

107052 #2 헤 보진 안 허고 먹언 봤저. 먹언 본 디 갈치 영영 썰어 난에 다른 겏 허듯 현 거 닳아라. 조기겏도 경허고.

107052 @ 으.

107052 #2 그추룩 똑츄치 소금 기자 낱. 대개 간 맞추멍 난에.

107053 @ 아까 자리겏이나 멜겏 만들 때 상 왕 물에 췏영 소금에 버무리는 겏과?

107053 #2 물에 췏으민, 언물에 췏으민 안 웨여. 그대로, 그대로. 소금 바닷물에 나오는 거 그대로 헤사.

107053 @ 아.

107053 #2 거 언물 적져나민 잘 안 웨고. 저 냉장고에 들어가난 자리도 겏 안 웨고. 안 웨여.

107053 @ 아, 냉장고에 들어가난 겏도.

107053 #2 어, 안 웨여. 자리겏 안 웨여.

107053 @ 예, 예.

107053 #2 소금에 절여근에 들어가민 들어가사주.

107054 @ 예. 출레헨 허는 건 뭘 출레헨 헛니까?

107054 #2 출레헨 장도 기고 자리겏도 기고 멜겏도 기고 출레헨 짠 거.

107054 @ 짠 거를 출레헨.

107054 #2 출레. 밥 반찬. 장도 출레헨 헤여.

107054 @ 장도 출레헨 허고?

107054 #2 으, 으.

장아찌와 회

107055 @ 지시에, 지시?

107055 #2 으?

107055 @ 어떤 걸 지시헨 헛니까? 지?

107055 #2 지?

107055 @ 예, 지.

107055 #2 장아찌 저.

107055 @ 지금은 장아찌헨 허주만 옛날엔 삼춘 지헨 곶안, 지시헨 곶안?

107055 #2 지, 지.

107055 @ 마농지?

107055 #2 마농지. 마농지엔 헨 거 거 대사니민 대사니 썰어 낱 그레 장물 낱
혜근에 낫다근에 또 흐룻밤 자근에 그 국물 뜰라 낱 데와. 데와근에 식영 또 놓고.
그거 저 거시기 허카부덴 벤허카부덴. 벤허카부덴 그 물 뜰라 낱 두 번, 세 번까지
만 끌여근에 놓민 어떻 안 허여 벤허지 안 허여. 오래 놔 두민 벤허카부덴. 지엔 헨
건 짠 맛이주게. 짠 맛으로 오래 먹는 거. 지.

107055 @ 계난 지 담가 먹어난 거 아까 마농지 담양?

107055 #2 저 대사니 마농.

107055 @ 대사니 마농?

107055 #2 으, 그거나 그거 반치지.

107055 @ 반치지?

107055 #2 으, 반치지. 거시기 뭐이니 파인애플 말고 이디 무시거 거 반치엔 헨
거 알아지크냐? 모르지?

107055 @ 예, 말은 들어났수다. 집 넝쿨에 영 열리는 거.

107055 #2 영 혜근에 영 올라가는 거 입사귀 올라가고.

107055 @ 예, 예.

107055 #2 그거. 그거 쫄라근에 반치지 행 먹주게.

107055 @ 아.

107055 #2 그거 행 장물에, 장물에 그거 놔근에 낫다근에 건져근에 께와근에 또
놓고 경혜근에 그거 지 담양 먹어.

107055 @ 아, 반치지.

107055 #2 경 안허민 그거 썰어근에 장에 ㄹ치 담양 할망덜 ㄹ치 장항에 놔라
게. 장항에.

107055 @ 아, 장 담글 때 그냥.

107055 #2 어, 어. ㄹ치 낱에. 경헨 건져당 먹고. 늣삐도 경 행 먹고. 할망덜 경
행게.

107055 @ 장에 그냥 늣삐를 담아?

107055 #2 으. 난 경 안 헤봤저만은. 할망덜 경허민 막 짱 못 먹어. 막 짱.

107055 @ 아.

107055 #2 경헨 먹언게 그 반치진 썰어근에 장물 놔근에 장물이 흐쓸 우터레
올르 듯 혜사주 경 안 허민 곰생, 곰쟁이 피고.

107055 @ 예.

107055 #2 경혜난 그거 물 뜰라 낱 께와근에 그거 벤허지 말게. 또 식이여근에
놓고. 두 번, 세 번 경만 허민 어떻 안 허주게.

107055 @ 음. 계민 한 번 끓영 식영, 한 번 끓영 식영, 한 번 끓영 식영 경헨
놓는 거라.

107055 #2 으, 경허는 거.

107055 @ 계민 아까 마농지, 반치지, 또 다른 거 지 행 먹어난 거 잇수과?

107055 #2 무시거 반치지나베끼, 마농지.

107055 @ 여기는 양에나?

107055 #2 양에 잇나.

107055 @ 양에도 지 행 먹어났수과?

107055 #2 으, 양에끈.

107055 @ 양에끈.

107055 #2 으, 양에끈 해근에 장에 것도 그추룩 버물여. 장에 뇌근에 끌영 놓고 끌영 놓고 해근에 양에끈.

107055 @ 몹은?

107055 #2 어?

107055 @ 몹은 지 안 행 먹어난? 몹, 몹.

107055 #2 몹?

107055 @ 으.

107055 #2 그런 건 안 해났저.

107057 @ 그럼 휘 종류, 휘 종류는 어떤 게 잇수과?

107057 #2 휘 저 바닷고기덜게 해근에 허민 자리, 돛.

107057 @ 여기서 돛은 그냥 돛이렌 굴아난?

107057 #2 으. 경허고.

107057 @ 자리, 돛?

107057 #2 거 바다에 나는 건 다 저 파닥파닥 툴 때 다 해 먹언게. 저 거세기도. 오징어, 오징어 ㄱ튼 거이. 또시 저, 거 무슨 레기니? 곧젠 허난 알아지크라.

107057 @ 상에?

107057 #2 어?

107057 @ 상에, 상어 말고?

107057 #2 상어도 휘 행 먹고.

107057 @ 으.

107057 #2 상어도 휘 행 먹어. 휘 행 먹고. 아고 나 몰르켜. 하이건 바닷레기 다 휘 행 먹어. 다 행 먹어.

107058 @ 계민 우리 봄에는 어떤 거 먹고 여름에는 무슨 반찬 먹어나고 가을이던 무슨 반찬 먹어나고 허는 거 잇수과?

107058 #2 아이고.

107058 @ 엇어? 봄에는 뭐 하영 먹어신고?

107058 #2 봄엔.

107058 @ 녹물?

107058 #2 녹물 기자 허고 마농 같은 거게. 마농, 대사니 그런 지 허고 다마네

기 지 담양 먹고.

107058 @ 예.

107058 #2 저 양파이.

107058 @ 다마네기 지도 해 먹었구나.

107058 #2 으. 그거 해 먹고 또 무, 무 삼각형추록 해근에 알뜰게 썰언에 장물에 요새 뜨는 장물. 뜨는 장물은 들주게. 흐졸이.

107058 @ 예.

107058 #2 그것에 돕가 낫당 먹으난 거 막 좋아라 반찬.

107058 @ 아.

107058 #2 그 늬뻬 흐졸 썰언에.

107058 @ 예, 예.

107058 #2 것도 막 좋아라.

107058 @ 예. 여름에 돼민 냉국 행 먹고.

107058 #2 냉국 행 먹고. 물에 기자 웬장 기자 카 낱도 먹고. 녹물 엇이민.

107058 @ 녹물 엇이민.

107058 #2 웬장 카 낱도 먹고. 경 시원허여.

107058 @ ㄱ슬 들민?

107058 #2 어?

107058 @ ㄱ슬 들민?

107058 #2 가을 들민. ㄱ슬 들민, ㄱ슬 들민이 이 ㄱ슬 나가민 양에끈, 대개 양에끈. 그때도 늬뻬, 녹물 것베끼 엇주게. 늬뻬, 녹물 기자.

107058 @ 겨울 돼가민 감저나?

107058 #2 감저. 어, 그런 거베끼게.

장 담그기

107059 @ 그럼 장예, 웬장이나 간장은, 장은 언제 담굽니까?

107059 #2 장은이 선달 그믐에. 이 제주돈.

107059 @ 아.

107059 #2 제주돈 선달 그믐에 돕고 육진 삼월, 삼월 삼일날 돕넌 해라.

107059 @ 아, 삼짓날.

107059 #2 어, 육진.

107059 @ 선달 그믐에예.

107059 #2 으, 선달 그믐. 선달 나민 장 돕아.

107060 @ 계민 삼춘은 장 담아 먹어난 건 웬장이랑 간장인 거라예.

107060 #2 으, 으.

107062 @ 이제 웬장 담그젠 허면, 웬장 담그는 거 콩 삶으는 것부터 곱아줍서.

107062 #2 콩? 콩 저 이녁 거나 사당을 허나 해도 물에 시치민이 콩은 씻어가

민 거끔 나.

107062 @ 으?

107062 #2 거끔 난다. 그거 저 거시기 당 그 거시기 것도 거시기 것도 무신, 무시거엔 곤느니. 콩은 씻어 가민 무시거 흰 거주. 좋은 거주, 좋은 거. 그거 나 가민 확하게 굿인 물 든 씻어근에 돌 일어근에.

107062 @ 예.

107062 #2 돌이나 들으시카부덴 막 일주게. 일으시카부덴 솟디 낱 쌀, 경헨 솟디 낱 불 솟당 퀘여 가민 솟두쟁이 흐쌀 베평허게 경 안 허민 막 부각부각 넘어.

107062 @ 아.

107062 #2 흐쌀 베평 해근에 너미 불 달게 말아근에. 흐쌀 흐쌀 그자 베평베평허게 그자 켜만허게. 불 달게 허민 우터레 옥곽 헨 부꺼며. 게난 흐쌀 흐쌀 허영 흐끔 오래 솟아사.

107062 @ 음.

107062 #2 경헨 것도 콩도 자꾸 뒤집어사주 놀어.

107062 @ 아, 밀에.

107062 #2 장 듬을 콩도 눈다. 그레 딱 부뜨민 스몫 칸내가 싹 헤여.

107062 @ 예.

107062 #2 게난 것도 물 퀘왕 백뜨지 안 허게 막 정성혜사 허여. 막 젓고 자꾸 젓영 보곡, 보곡 물 백땀신가 안 백땀신가 물 백따가민 흐쌀 놓고. 자꾸 우터레 넘어 가민 또 솟두쟁이 흐쌀 영 허고 경허명 해근에 그걸 든 익영 물싹허게 익어근에 허민 솟두쟁이 폭 더경 놔두민 폭허게 줌 자민 그자 메지근 현 때 퍼 내영 물을 막 뜰라내영 소쿠리에 건져근에 다라 바침 영 놔 두민 물 영 막 알려레 내려 와불주게. 경허민 우이 건 물, 물기 엇이민 저 무시거 마다리 곤 거 해근에 그레 담아근에 이 나 허는 식으로.

107062 @ 예, 예.

107062 #2 마다리에 담아근에 그거 봉지 줄라메영 이디 아래 무시거 끌아근에 이디 무시거 낱 그거 발로 뽀주게.

107062 @ 블라.

107062 #2 블르민 문딱 뽀아져.

107062 @ 예, 예.

107061 #2 문딱 뽀아지민 그거 퍼내영 접앙, 똑똑 접아근에 영 헤영 무시거 더경 놔 두민 터. 두각허게.

107061 @ 예.

107061 #2 트민 또 영 거뵈 내불민 전인 영 들아메낫저만은 짝 엇어 놓난. 짝 잇인 땀 짝이 쉼 존 거.

107061 @ 아.

107061 #2 짝 헹 들아뻬주만은 들아메지 안 헤영 난 기자 아래 영 널영 걷어근

에 영영 알룬 거 더경 내불민 트멍 몰르멍, 트멍 몰르멍 헨다게. 경허민 선들 나민 멩질 넘어가민 스무만 넘어 가민 기자 날 봐근에 돕주게.

107061 @ 음.

107061 #2 올리도 저 선들 웨연 멩질 전이 개날 웨난 돕앗주게.

107061 @ 게난 장 담는 게 선달 그름인 거고?

107061 #2 으.

107061 @ 메주 삶는 건?

107061 #2 메주 삶는 건 기자 제기 장이 엇영 제기 먹을 사름은 콩 장만 헤지민 허고.

107061 @ 으.

107061 #2 경 안 현 사름은 동짓덜.

107061 @ 아, 동짓덜.

107061 #2 동짓덜 보름 고비에 허민 선들 7장 트멍 몰르멍 허주게.

107061 @ 그 몰르는 시기가?

107061 #2 흔 들, 흔 들.

107061 @ 흔 들예.

107061 #2 으, 흔 들.

107061 @ 흔 들 몰려근에.

107061 #2 경허민 날 봐근에 기자 개날이나 저 옛날은 그 집 식구가 그 띠 엇인 날. 개날이나 토날이나 모날이나 그런 날만 담주게. 그, 그 집 식구가 그 장, 장 돕는 날에 띠가 잇이민 그 띠 신 사름이 손을 알리나 그 발을 알리나 헨덴.

107061 @ 아.

107061 #2 그런 전설이 있어.

107061 @ 아, 기구나.

107061 #2 경허난 띠 엇인 날로 돕아.

107061 @ 아, 예, 예. 경헨 정월 덜에 삶양 선들에.

107061 #2 돕아. 지금 막 익엇저. 돕으난 지금 발강헿저 우리도 장.

107061 @ 게민 선들에 담은 건 언제서부터 먹을 수 있는 거라?

107061 #2 아, 선들에 담으민 장 엇이민 제기 허민 흔 들, 두 들만 시민 먹을 수 잇고. 흔 들만 웨도 장 엇이민 먹어지고.

107061 @ 먹어지고.

107061 #2 으. 경 안 허민 또 칠십 일 웨민 장물 거려. 칠십 일.

107061 @ 예, 예. 게난, 게난예. 메주 헤 가지고 장을 담을 때 메주 씻을 거?

107061 #2 어게. 문 씻영 물에.

107061 @ 문 씻어.

107061 #2 씻영 소금을 또 전에, 흔 삼일 전에 소금을 캣다근에 다라에 물 놓고 소금 어느 정도 낱 영 짝영 먹어 보멍 짹짹 허민 영 낱당. 소금도 영 굿인 아쟁

이가 하.

107061 @ 음.

107061 #2 경허민 거 우로 영 뜯봐근에. 경허영 메주 항에 문딱 낱. 꺾사거치 대막탱이 헤다근에 네모로 꼭꼭 지들봐근에 메주 트지 안 허게.

107061 @ 올라오지 안 허게.

107061 #2 으, 우터레 올르지 안 허게. 경혜여근에 그레 물 부어 낱 봐 두민 경헨 계란, 저 육지선 보민 계란도 놓고. 어제도 허는 거 보난 동태도 물론 거 봐라. 고치도 놓고 문 해도 난 그런 거 봐 보지 안 허고 기자. 숯도 놓고.

107061 @ 냄새나지 말렌.

107061 #2 으, 경덜 헨게. 경헨게 나 작년인 숯도 놓고 고치도 놓고 현디 올린 그거 안 봐도 어떻 안 허고.

107061 @ 아.

107061 #2 경헨에 기자 지금 발강했저.

107061 @ 게난 고추장은 안 만들어 봤수과?

107061 #2 고추장은 저 난이 기자 아멩이라도 헿 만들어 보는데 저 거시기 콩 ㄹ루라도 곱아다근에 저 밀ㄹ루, 저 거시기 찹쌀ㄹ루.

107061 @ 예, 찹쌀ㄹ루.

107061 #2 찹쌀ㄹ루 썬어근에.

107061 @ 예.

107061 #2 으, 찹쌀ㄹ루 썬어근에 그레 간장, 물장. 물장 낱 허는 사름, 그레 소금 헿 놓는 사름 허여. 난 물장 봐근에 그레 찹쌀ㄹ루 헤여 놓고 고춧ㄹ루 놓고 경헨 젓영 먹어낱저게.

107061 @ 아.

107061 #2 경허고 경 안 허민 콩 톱은 ㄹ루 그것도 서끄고. 경혜연 먹어난.

107061 @ 아.

107061 #2 밀, 밀 톱와근에 콩추룩 톱은 거. 거 풀주게.

107061 @ 으.

107061 #2 그거 사다 놓고 헤근에.

107061 @ 고추장도 담강 먹어낱구나.

107061 #2 으. 경혜근에 막 젓어근에 허민 그때부터 먹어져.

107061 @ 그거 만들영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107061 #2 으, 바로 먹어져.

107061 @ 게난 고추장 만들 때는 장물로만 허는 게 아니고.

107061 #2 소금물도 현다. 소금물도 헤라게. 게난 설탕도 놓고 그레 또 설탕 안 놓는 사름은 꿀도 놓고. 든 거난.

107061 @ 아, 양념허는 거구나.

107061 #2 으, 꿀도 놓고.

107061 @ 꿀도 넣고. 그럼 아까 장 담글 때에 뭐 허지 말렌 허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수과?

107061 #2 어?

107063 @ 장 담글 때, 장 담글 때에 뭐 허지 말렌 허는 그런, 그런 것들 이수과? 아까 띠 잇인 날은 그날 안 헌덴 헛잖아?

107063 #2 으, 으.

107063 @ 그 웨에 또 장 담그는 날 뒤희진 말렌 헌 거 그런 거 엇어?

107063 #2 장 돕는, 장 돕는 디 부정헌 사름은 텡기민 안 뒤희. 영장밧디도 가 오민 안 뒤희고.

107063 @ 안 뒤희고예.

107063 #2 으. 장 익기 전에이 영장 밧디 가 왕 장항 을양 문직으민 거 안 뒤희여, 안 뒤희여.

107063 @ 으.

107063 #2 안 뒤희여근에 내 나분다. 내 나. 거시기 제라허게 뒤희질 안 허여.

107063 @ 계난 장 헐 때 부정 타민.

107063 #2 으, 부정 막 타 장은. 제일 부정 탄다 그거. 부정헐 때 그디 안 텡겨사.

107063 @ 예, 예.

떡류

107064 @ 이제는 이제는 떡 허는 거.

107064 #2 떡 허는 거. 하하하

107064 @ 떡 종류에는 어떤 떡이 잇수과?

107064 #2 솔벤, 절벤, 또 인절미, 또 중괘, 약괘. 중괘, 약괘 저 시리떡, 저 인절미 거시기 인절미도 막 으라가지.

107064 @ 음.

107064 #2 곤인절미 잇고, 찹쌀 인절미 잇고 속 인절미 잇고 인절미도 막 으라가지여.

107064 @ 인절미 속인절미 그런 건 재료에 따라 다른 거?

107064 #2 으, 으. 재료에 따라.

107065 @ 계민 먼저 시리떡부터 물어보쿠다예?

107065 #2 으.

107065 @ 여기 시리떡이엔 곱읍니까?

107065 #2 시리떡.

107065 @ 침.

107065 #2 침떡.

107065 @ 침떡이렌 헉니까?

107065 #2 어, 침떡.

107065 @ 침떡예?

107065 #2 어. 시리 침떡.

107065 @ 시리떡이엔 곤는 건 이제사 곤는 거 아니?

107065 #2 옛날에도 시리떡이엔 헛저게. 시리 침떡. 옛날에도 시리떡, 시리떡 헛저. 시리가 동글랑 현 거 구멍 난 거 시난 그것에 치난 시리떡.

107065 @ 음. 게민 시리떡 만들젠 허민 재료, 뭘로 시리떡을 만듭니까?

107065 #2 풋 숲아근에 곶아 놓고 곤쫘 곶아근에 곤쫘 컷다근에 건정 방앗간, 저 옛날은 방에에 저근에 방에에 서이, 너이 정. 아이고 방에 지젠 허민 손이 문 터져.

107065 @ 하하하.

107065 #2 땀이 잘잘허고 비치락질 허멍 이여 이여 이여 허멍 서이가 허다근에 데가리 탁 조지고.

107065 @ 이거, 이거.

107065 #2 이거 허다근에 잘 못 허영.

107065 @ 아이고 아파.

107065 #2 잘못 허민. 땀이 잘잘 나게 그거 헤근에 또 흐쫘 저 방에 젖으민 저 거려내여근에 이젠 채로 쳐근에, 아래 건 ㄱ루 췌 거. 우이 건 또 뻗고. 또 이여 이여 허멍 비치락질 허멍 허리도 막 아프주게 영영 허멍 그거 헤근에 ㄱ루 헤근에 이젠 집이와근에 저 다라에 놔근에 저, 도고리, 도고리.

107065 @ 도고리.

107065 #2 저, 나무 도고리. 그것에 낭 도고리에 놔근에 물 놔근에 영영영영 막 헤근에 막 젖어근에 젖어근에 그걸 영영영영 문 복삭하게 젖어. 부벼. 경헤근에 시리에 풋, 쳇 번 이디, 요거 시리민 요레 험벅 곶앙이. 요레 험벅 동글랑 험벅 곶앙. 그레 풋 영영 풋ㄱ루. 풋 숲아근에 곶도 방에 뻗아근에 치나 안치나 헤근에 치민 하영 써지고 안찌민 하영 들어가 불고. 경허주게.

107065 @ 아.

107065 #2 경허주게. 치민 ㄱ늘게 허민 하영 써지고 안 치민 그 ㄱ슴이 하영 들어가 불고. 그 험벅 곶민 그레 영 놔근에 이젠 ㄱ루 흐, 흐 사발 허민 어느 정도 췌다 헤근에 요 높이 헤근에. 옛날엔 엇이난 막 ㄱ늘게 헛저게. 지금은 이만이 헤도. 경헨 영 헨 메 쭈와근에 영 메 쭈왕 그레 풋 흐 도리 영 놔근에.

107065 @ 예.

107065 #2 또 ㄱ루 흐나 낱 영 놓고. 경헨 우터레 흐 으답 도리 췌 거라, 으답 도리.

107065 @ 여덱 징을 허는 거라?

107065 #2 어, 징을. 경허민 그거 세 빛, 흐나에 세 빛.

107065 @ 예, 예.

107065 #2 갱허민 에염에 건 동글락허게 흐쓸 죽고 가운데 건 네귀방장 크곡.
갱허민 어른신딘 가운데 거 안네고 아이덜은 에염에 거 주고.

107065 @ 에염에 거 주고.

107065 #2 어. 시리떡 경헛저게.

107065 @ 시리헛 때 속에는 쓸 허고 우이는 풋?

107065 #2 으, 풋허고.

107065 @ 조로는 안 허고마씨?

107065 #2 조, 조 시리도 그추룩 허고. 또 곤떡 곤쓸 혼 도리 영 낱 줍쌀 그레
혼 도리 영 놔근에 허민 영 행 말제 내영 보민 혼 착은 곤쓸, 혼 착은 줍쌀. 그런
떡 잇어났저.

107065 @ 그거는 무슨 떡이렌 안 험난?

107065 #2 어?

107065 @ 그거는 조침떡이렌 안 험난?

107065 #2 조침떡. 어, 어. 저 조로만도 행 조침떡 허고 또 감저 썰어 낱 서꺼근
에 조침떡. 그것에도 허고 감저 빼떼기 들류와근에 곶아다근에 그레 감저 썰어 낱
거 치민 막 맛 좋아.

107065 @ 아.

107065 #2 빼떼기 곶양 감저 마루 험근에 그레 감저 썰어놔근에 또 그추룩 치
민이 막 맛좋아.

107065 @ 아, 그니까 그 감자 빼떼기에 옆에는 감저 빼떼기 간 가루.

107065 #2 마루, 마루. 간 마루.

107065 @ 완전 들큰게.

107065 #2 으.

107065 @ 와, 맛있겠다.

107065 #2 겐 거 막 맛좋나.

107065 @ 그거는 뭐 그것도 그냥 시리떡이렌?

107065 #2 시리떡.

107065 @ 감자 시리떡?

107065 #2 게난 시리에 치난 시리떡. 건 시리에 들어가민 시리떡이라.

107065 @ 아.

107065 #2 거 영 동글랑헌 것에 들어가민 시리떡.

107065 @ 어쨌든 곤쌀로 험도 시리떡.

107065 #2 줍쌀로 험도 시리떡.

107065 @ 감저로 험도 시리떡.

107065 #2 으, 으 게도 시리떡.

107065 @ 게민 이거를 곤시리떡이렌은 안 허고?

107065 #2 곤시리떡이렌 험다게. 곤 건 곤시리떡.

107065 @ 조시리떡?
107065 #2 어.
107065 @ 감저 시리떡?
107065 #2 어, 어. 고달, 고달 시리떡은 저.
107065 @ 고달?
107065 #2 고달 시리떡은 곤썰을 현 걸 영 낵 우이 저 좁썰 놔근에 우이 풋 낵 허민 고달 웨여근에 곤썰광 좁썰광 혼디 조합뵈 거.
107065 @ 예.
107065 #2 거 혼 착썩. 게난 고달시리떡.
107065 @ 고달시리떡?
107065 #2 으.
107065 @ 곤썰 하영 엇어부난?
107065 #2 으.
107065 @ 곤썰 하영 엇어부난.
107065 #2 으. 고달시리떡.
107066 @ 송편은 옛날에 송편이렌 헛수과?
107066 #2 송편?
107066 @ 으, 송편.
107066 #2 송편. 송편 헛주게.
107066 @ 송편 잇엇수과?
107066 #2 어. 아이고 막 옛날엔 엇엇저. 중간에사.
107066 @ 그럼 예전에는?
107066 #2 절벤, 솔벤. 솔벤, 절벤 또 인절미 중궤, 약궤 저 거시기 웃썩.
107066 @ 으.
107066 #2 웃썩.
107073 @ 게민 절벤이랑 솔벤 그거 만드는 것 줌 곱아줍서. 절벤은?
107073 #2 절벤. 절벤 만들 땐 ㄱ루 곱양 올 건 다 ㄱ튼 거 아냐?
107073 @ 예.
107073 #2 ㄱ루 곱아다근에 물에, 곤썰 ㄱ루 곱아다근에 물에 버물여근에. 물 궤왕. 물도 언물 아니. 궤왕. 궤왕 놔근에 버물러근에 그걸 영영 버물영 흐썰 흐썰 툷아 낵 저 솟디 낵 처.
107073 @ 음.
107073 #2 썩. 바드랭이 놔근에. 썩근에 그걸 익으민 이레 물썩물썩 헤근에 막 달뵈. 달뵈근에 영영 밀어근에 흐썰썩 허멍 절벤 멘들주게. 동글랑 동글랑 허게 헛 두 개 부썩.
107073 @ 아니 동글랑 동글랑 허게 헛 뵈로 썩어내는 거 아니?
107073 #2 썩어내는 절벤 저 거시기가 잇주. 저 본이 잇주.

107073 @ 절벤 본.

107073 #2 으, 솔벤 본 잇고, 절벤 본 잇고. 인절민 기자 칼로 잘라내고.

107073 @ 그럼 절벤은 동글랑 동글랑 허게.

107073 #2 동글랑 동글랑 두 개 부짱. 우로 꼭 누뜨렁. 솔벤은 그 물 꿰와근에 거 그루 거시긴 달화근에 밀어 밀어. 돤베에 놉근에 벵 헤다근에 영영 밀어근에 솔벤 본 영 행 영 현 거 잇주게. 영 현 거. 그걸로 툽툽 찍어내영 썸.

107073 @ 썸.

107073 #2 썸민 그거 솔벤. 솔벤에 뭐 거시기 솔입, 솔입 헤다 낱. 솔입 해당 썸민 솔입 내 코시롱 허고 저 문 그레 그려지고. 문 그려져.

107073 @ 그럼 찢 때 물에 낱 썸는 거 아님?

107073 #2 물 놉근에 바드렁이 놉근에 우터레 징만 올리는 거. 징 올리는 거.

107073 @ 게민 바드렁이에 솔입을 까는 거?

107073 #2 깔아근에 솔입 흔착, 흔도리 낱 우터레 또 솔입 놉근에 경헤근에 썸는 거. 경허민 문 기려지고 솔벤에 문 기려지고. 지금은 솔벤 헤도 저 방엿간에 강헤 오난 그대로 밀영 그대로 썸는 거.

107075 @ 우짱은 어떤 것과?

107075 #2 우짱은이 우짱은 그추룩 떡 꿰는 물에 헤근에 즐게 헤근에 즐게 행 동글랑허게 잔으로 툽툽 떠내영 게민 동글랑허게 요만썸 현 거 썸 우이 올리는 거.

107075 @ 우리집은 그거 지름떡으로 험니다. 요만이 현 거.

107075 #2 지름떡은 크주 커. 건디 우짱이 딱로 잇나. 우짱이 딱로 잇어. 요만썸 헤근에.

107075 @ 게민 아까 영 떠근에.

107075 #2 으, 잔으로 툽 헤근에.

107075 @ 그럼 그거 떠근에 슴으는 것과?

107075 #2 썸, 썸. 솔벤에 흔디 낱 썸. 경 안허민 기자 슴안에 밀어내영 그것도 뜨고 허는 거주. 경현디 정성들영 허는 건 솔입 헤다 낱 썸는 거.

107075 @ 으.

107075 #2 솔입 헤다 낱.

107075 @ 게민 이디 지름떡은 따로 안 험니까?

107075 #2 아니, 지금덜은 먹젠 현다게. 우리도 멩질 맨 느랑 현다. 아이덜 지름떡, 지름떡 허난.

107075 @ 겐디 옛날에는 맨 우이 올리는 거 우짱인 거라예.

107075 #2 또 올리는, 상에 썸시 험 때 시리떡 영 놉 낱 우이 중케 놉근에 그 다음 약케 놉근에 그 다음 인절미 놉근에 그 다음 절벤 놉근에 그 다음 솔벤 놉근에 그 우터레 우짱 세 개.

107075 @ 우짱 세 개. 하하하.

107075 #2 우짱은, 우짱은 별.

107075 @ 별.

107075 #2 솔벤은 달.

107075 @ 달.

107075 #2 절변은 저 해.

107075 @ 예.

107072 #2 또 인절민 거 뭐라고 허더라만은 또 저 시리떡은 땅. 그거 다 거 의
미가 있는 거.

107072 @ 의미가 있는 거.

107072 #2 어.

107069 @ 게민 그렇게 올리는 거 제사 때나.

107069 #2 멩질 때나.

107069 @ 멩질 때나 ㄱ튼 거잖아예.

107069 #2 으.

107070 @ 상 낫을 때, 장례식 헐 때는 어떻습니까?

107070 #2 상 난 때?

107070 @ 상 난 때 떡은 어떤 떡 헐니까?

107070 #2 그거 그거 저 옛날엔 다 헛주게.

107070 @ 으.

107070 #2 다해도 요샌 절벤, 솔벤 허고 인절미, 시리떡. 거베끼 안 허여.

107070 @ 옛날에 다 헛텐 허민 어떤 떡?

107070 #2 중궤, 약궤. 중궤이 어떤 건고 허민 이추록 쫄랑헌 거. 약궤 네귀방장
헌 거.

107070 @ 중궤 영 길쭉헌 거?

107070 #2 어, 길쭉헌 거.

107070 @ 게민 이것도 곤썰로 허는 거.

107070 #2 곤썰 헤근에 요추록. 요 정도 허주게. 또 약궤 영 헨 네귀방장 허영
고망 네 밧디 딸랑 영 헨 영 헨 요 중궤나 약궤나 지름에 튀겨. 지름에 또 이 후라
이팬에 튀겨.

107070 @ 아, 지저근에.

107070 #2 으. 튀경, 중궤, 약궤 튀기고 약궤 고망 딸르고 중궤 쫄랑헌 거. 또
인절민 영 헤영 쪼끔 이 길인 흐썰 길고 세론 흐썰 쫄르고. 경헤여근에 네모나게
헤근에 건 인절미. 그 다음 그 다음은 또 우터레 올리는 건 절벤 동글랑헌 거. 그
다음은 솔벤 들. 또 그 우인 별.

107070 @ 별, 우썩.

107070 #2 어, 우썩.

107066 @ 이제는 송궤도 허잖아예?

107066 #2 으, 송궤도 헌다게.

107066 @ 송편 만들어 줘서.

107066 #2 송편 허는 건 기자 저 거시기 꿰는 물에 ㄱ루혜근에 막 달화근에 저
쪼끔 솟아내여근에 반반 솟아내여근에 허는 사름이 잇고 그대로 허는 사름이 잇고.
그 반반 솟아근에 그 새미떡에 어울렁 달랑 허민 흥기가 손쉽고.

107066 @ 아.

107066 #2 영, 영 밀지 안 해도. 또 원 안 솟앙 그대로 달루민 영 해도 케씩, 영
해도 케씩 어울어지질 잘 안 허여.

107066 @ 예.

107066 #2 게난 쪼끔 솟앙 허민 잘 어울어정 만들기가 좋아. 겐 만들 때 똑 조
개 솔벤 허듯이 영 동글랑허게 행 요레 앙꼬 담아근에 뽕뽕 돌리민 송편 뒤는
거.

107066 @ 앙꼬는 뭐로 쓰는 거?

107066 #2 앙퐁, 앙퐁이 요새 콩게역도 잇고 풋도 솟앙 허고. 또 기자 두불콩도
솟앙 허고 건 기자 종류대로 또 만두콩도 잇고.

107066 @ 콩이랑 두불콩이랑 트납니까? 두불콩이 뭐?

107066 #2 두불콩은 저 흥 해에 두 번 허는 거. 별경헌 거.

107066 @ 아.

107066 #2 별경헌 거 요만씩 훑은 거. 기자 장콩은 흥 해에 흥 번 허는 거 존존
헌 거. 그런 거 솟앙 빠저근에 그레 담고. 풋도 솟앙 그레 담고. 또 마농 콩 요새
맛준 거 마농콩 나와 그거 혜근에 허고. 또 콩ㄱ루, 콩게역.

107066 @ 마농콩은 퍼렁헌 거.

107066 #2 퍼렁헌 퍼렁 거. 또 콩게역. 콩게역도 담고.

107067 @ 여기 빙떡은 빙떡이엔 험니까?

107067 #2 쟁기. 쟁기.

107067 @ 쟁긴 어떻 만듭니까?

107067 #2 쟁긴 ㄱ물ㄱ루 언물에 카근에. 것도 카젠 허민 병댕이 안 지게 카사.
잘 혜사주 저 서튼 사름 허민 병댕이 저 뽕 안 뒤여.

107067 @ 음.

107067 #2 그 물을 알맞게 놔근에 슬슬 짓어가멍 혜사주이 흠치 물 바락 놔도
안 뒤고 죽영 놔도 안 뒤고 그건 물 맞게 카사. 경헨 막 카근에 솟디 영 지지멍게
늪뻐 솟아근에 마농에 서꺼근에, 마농에 꿰ㄱ루에 늪뻐에 영 서꺼근에 담으멍 뒤민
거 정기주게. 정기 거 맛좋아.

107067 @ 음. 정기?

107067 #2 으.

107068 @ 여기 상웨떡은 안 혜낫수과?

107068 #2 상웨떡은 밀ㄱ루 혜근에 막걸리 사다 놓고 우유 사다 놓고 혜여근에
그것에 저 흥디 몰아 그거 놔근에.

107068 @ 예, 예.
107068 #2 계란도 카 놓고.
107068 @ 계란도 카 놓고.
107068 #2 으, 계란은 카 놓민 복삭복삭 허여. 경헨 그 상웨떡을 톨앙 더꺼근에
흔 멧 시간 놔 뒤사. 듯게시리 저 거시기 온돌방에.
107068 @ 음.
107068 #2 온돌방에 이불 깔고 이불 더끄고 헤근에. 멧 시간 놔 두민 우터레 부
각허게 나 가. 경허민 밀엉. 밀멍 쳐도 웨고 밀엉 흐뎡 놔 뒤사 좋고.
107068 @ 예.
107068 #2 경헨 것도 잘 웨여.
107068 @ 상웨떡은 제사상이나 상에 안 올립니까?
107068 #2 상에 올린다.
107068 @ 올려. 게민.
107068 #2 으, 옛날은이 옛날은 시리떡 올리고 상웨떡은 아니 올려난 생이라.
그거 먹을 걸로 행. 경헌디 요즘은 그거 아니.
107068 @ 예.
107068 #2 요샌 다 올려.
107069 @ 솔벤, 절벤을 안 올리는 거 아니?
107069 #2 으, 안 허는 디도 잇고 허는 디도 잇고. 솔벤, 절벤 안 허영 그 인절
미, 첨 송편, 송편만 허는 디 잇고 조개송편 또, 들 영 헨 들거치 허는 거, 접는 거.
107069 @ 예, 예.
107069 #2 만두거치이 만두거치.
107069 @ 아, 조개 송편.
107069 #2 으, 조개. 조개 닻으난 조개 송편이엔 허여.
107071 @ 설기떡이엔 현 거 알아집니까?
107071 #2 어?
107071 @ 설기떡.
107071 #2 설기떡?
107072 @ 예. 인절민 어떻 만듭니까?
107072 #2 인절미도 똑ㄴ타. 이거 밀어근에 떠 내는 거. 저 중괘, 약괘도 밀엉
떠내영 영 약괘 고망 톨라근에 지저 내고.
107072 @ 지저내고.
107072 #2 옛날베긴 안 헨다 이젠.
107072 @ 인절미에 우에 콩ㄴ물 무치고 그런 건 안 헤.
107072 #2 콩ㄴ구 무치고 허는 건 상에 잘 안 올리고 먹는 거.
107072 @ 먹는 건 무치고?
107072 #2 어. 먹는 거 콩ㄴ루 미치고 속떡이여 무시거 허는 건 거 먹는 거. 상

에 예비로 올림은 해도 춤상으론 안 올리주게. 예비, 예비.

107076 @ 고사나 당에 갈 때, 당에 고사허레 갈 때 그 때는 어떤 떡 해난.

107076 #2 그땐 흰가루 곁아당 저 꿩은 물 뇌근에 돌레떡 맨들아. 영영 맨글앙
숭아. 숭양 건져 내근에 경헨 가낫저게.

107076 @ 그걸 무슨 떡이렌 험니까?

107076 #2 어?

107076 @ 그걸 무슨 떡이렌 곁아?

107076 #2 그건 저.

107076 @ 일름이? 돌레떡?

107076 #2 돌레떡. 어, 돌레떡.

107076 @ 돌레떡예?

107076 #2 어.

107076 @ 게민 그건 곤쫂로도 허고.

107076 #2 믱물쫂 허고.

107076 @ 믱물쫂 허고?

107076 #2 어, 믱물쫂 허고.

107076 @ 게난 당에도 삼춘도 땡겨낫수과?

107076 #2 으, 땡겨낫저. 막 땡겨져. 막 땡경 스뭇 밤 중에 해근에 막 땡겨져.

107076 @ 언제 당에 갑니까? 메칠날?

107076 #2 저 거시기 유월 초 일뤼날 열여, 춤 열에일뤼날, 스무일뤼날 허고 동
짓덜 초 일뤼날 열에일뤼날, 스무일뤼날 경헨 당에 거주 이디. 경헌디 다른 딴 정월
덜에 땡기는 디도 있어.

107076 @ 있어.

107076 #2 으. 우린 이 토평은 유월광 동지덜 그때 땡겨낫저.

107076 @ 게민 그거는, 여기 토평에 잇인 당은 무슨 당이렌 곁아낫수과?

107076 #2 감동당이여 본향이여 경 곁아낫저.

107076 @ 아.

107076 #2 감동당이엔도 곤고 본향이엔도 곤고.

107076 @ 곳 험 때는 어떤 떡덜 해낫수과?

107076 #2 돌레떡게.

107077 @ 곳 험 때 돌레떡?

107077 #2 돌레떡 기자. 돌레떡베끼. 먹을 떡을 상웨떡거튼 거 허고 일반 먹을
떡은. 손님덜 가민 대접허는 거.

107077 @ 그거 상웨떡 허는 거.

107077 #2 으, 상웨떡 허고 돌레떡 기자.

107078 @ 아까 곁앗던 떡덜 중에 안 곤 거 무슨 속인절미니? 속떡?

107078 #2 으, 속떡.

107078 @ 그건 어떤 거라?

107078 #2 속떡은 속 캐당 삶아근에 저 그 ㄹ루에 낱 ㄹ치 찌는 거. ㄹ치 썩 만 드는 거.

107078 @ 으. 속 찌근에 서끄는 것과?

107078 #2 으, 서꺼근에. 서경, ㄹ루에 서꺼근에.

107078 @ 예.

107078 #2 그거 시리에 낱 찌근에. 그거 납작하게 헤근에 밀어근에 경험 떠내는 거. 방앗간에서 다 경험주.

107078 @ 계민 그것도 제사상에 올려 아니면?

107078 #2 예비, 예비.

107078 @ 예비로 먹는 거예?

107078 #2 으, 먹는 거 예비.

107078 @ 또 뭐 잇수과? 그거 말고.

107078 #2 그거 말고 몰르켜 나. 동글랑 떡 요새덜 요만씩 험 것덜 잘 나완게.

107078 @ 하하하.

107078 #2 요즘덜.

107078 @ 동글랑 떡.

107078 #2 어. 요만씩 험 것덜 빨간 물, 푸린 물, 노란 물 들이명이 요새.

소와 고물

107079 @ 아까 송편 만들 때도 물어봤수다만은 영 안에 넣는 거.

107079 #2 앙꼬.

107079 @ 그거는 뭐 뭐 헤신고? 앙꼬는 아까 콩도 허고 팥도 허고?

107079 #2 저 두불콩이나 저 기자 보리콩도 허고.

107079 @ 보리콩도 허고.

107079 #2 콩 ㄹ루도 허고 저 계역, 계역.

107079 @ 계역.

107079 #2 보까근에 ㄹ는 거. 저 만두콩도 허고 요새는이. 옛날엔 만두콩 엇엇 저.

107079 @ 음.

107079 #2 옛날은 팥 대개.

107079 @ 만두콩은 어떤 거라?

107079 #2 만두콩은 저 거시기 콩. 두불 콩 닳은 거말고 동글랑 콩인데 물 들여 진 거라.

107079 @ 거 만두콩이렌 험니까?

107079 #2 으, 만두콩이렌 험 이 방앗간에 나와.

107079 @ 예, 예.

107079 #2 요새 나온다. 퍼렁헌 거이. 거 돈 쥘 사민 돼는 거고. 경 안허민 풋
 숲아근에 쳐 내여근에 그거 놓민 돼고 또시 콩계역.
 107079 @ 콩계역?
 107079 #2 콩계역 그것에 집이 왕 설탕 놔근에 버물영.
 107079 @ 버물영.
 107079 #2 물 쪼금 놓고.
 107079 @ 그거는 안에 넣는 거지예?
 107079 #2 으, 속에 담는 거.
 107080 @ 속에 담는 거고 무치는 거는 우에?
 107080 #2 우엔 저 무시거 무치지 안 허여 다.
 107080 @ 아니, 침떡 헐 때. 시리떡 헐 때.
 107080 #2 시리떡 헐 땀 풋, 풋.
 107080 @ 쿵은 안 험니까? 녹디나?
 107080 #2 녹디 험다게. 녹디도 허고 경해도 주로 풋.
 107080 @ 주로 풋.
 107080 #2 으, 주로 풋. 겨고 아니 놈도 허고 기자. 경헌디 옛날은 솔벤, 절벤
 문 올린 땀 풋 안 낡 풋은 저 귀신신디 반대허는 거엔.
 107080 @ 맞아.
 107080 #2 아니혜근에 흰시리, 그거 혜나신에 옛날은.
 107080 @ 귀신 쫓는 거렌예.
 107080 #2 으. 풋은 경허는 거엔. 경험 안 놔낫주게. 상에 올릴 건 요새도 허는
 던 저 상에 올리는 건 흰 시리 허고 먹는 건 풋 낡 험저.
 107081 @ 예. 떡 헐 때 뭐 하지 말렌 험 거 잇수과?
 107081 #2 어?
 107081 @ 떡 헐 때 뭐 허지 말렌 허는 금기사항 잇수과?
 107081 #2 시리떡 칠 때이 정짓간으로 여저 들어오지 말렌.
 107081 @ 여자 들어오지 말렌.
 107081 #2 어. 여자 정제 들어오지 말렌. 시리 익지 안 현덴.
 107081 @ 아이고, 무산고?
 107081 #2 떡 익지 안 현덴. 경험 문 흐쫂 베퉁허고 여잔 보도 안 허고 그레 들
 어오민 안 웬다. 시리떡 익지 안 현덴.
 107081 @ 시리떡 치젠 허면 짐 나가지 말렌 뭐 허지 안 험니까?
 107081 #2 으, ㄱ루혜근에 빙 허게 문딱 무치고.
 107081 @ 계난 시리떡 잘 쳐낫수과 삼춘은?
 107081 #2 어게. 천 혜낫저게.
 107081 @ 파분내는 거 옛어난?
 107081 #2 아이고 설영, 익지 안 혜영.

107081 @ 설영 익지 안 혜영.

107081 #2 청 보민 혼 착은 익고 혼 착은 설영.

107081 @ 예.

107081 #2 경허민 또 그건 차롱에 낱 또 치고. 경혜낫저게.

107081 @ 예.

107081 #2 경헌디 옛날엔 그걸 몰랑 거주. 이 공, 저 브름이 들어간 디 떡을 안 익고 브름 안 들어간 디 떡을 익은 디 옛날엔 그걸 몰랑 거라. 머리가 흐쓸 어둑우 난.

107081 @ 하하.

107081 #2 경헌 정젯문으로 들어오지 말렌 허난 정젯문 더껏당 사름 들어가민 브름 들어가민 경허는 걸.

107081 @ 맞아.

107081 #2 걸 물론 거. 경혜근에 불꽃을 잘, 골로로 가게시리 해야 뉘는 건디 요샌 아멩해도 뉘는 건디게.

107081 @ 예.

107081 #2 게난 아메도 옛날은 어두원.

별식

107082 @ 저기 수웨도 혜 먹어신가예?

107082 #2 어?

107082 @ 수웨.

107082 #2 수웬이 대사니도 썰어 놓고 쪽파도 썰어놓고 파도 썰어 놓고 하간 거 막 혜여 놔근에 므물궤루 혜근에 그레 밀궤루 흐쓸 서꺼. 경안허민 게실게실 허 난. 밀궤루 흐쓸 서꺼사 좋아. 저 정기떡 헐 때도 저 므물궤루에 밀궤루 쪼끔 멧 분 지 일, 막 흐쓸은 흐끔은 놔사 거 폴폴헿 좋아. 곱고 윤지고.

107082 @ 윤지고예.

107082 #2 어, 거 밀궤루, 므물궤루에 밀궤루 흐쓸 들어가사. 수에 헐 때도 흐끔 들어가사 좋아. 건디 밀궤루만도 수웨 담나 이젠. 밀궤루만도 므물궤루 안 헴실 거 여. 으, 그거 담는디 므물궤루에 그것에 거시기 마늘 거튼 거, 파 거튼 거 하간 거 양념 혜가민 맛중주게. 경허민 수웨도 우리 담아가민이 영 헿 숨뻑 놓민 안 뉘여.

107082 @ 으.

107082 #2 흐쓸 멧 분지 일 냄겨사. 그것이 익으면 영 골라져. 경혜근에 익어 나서.

107082 @ 예, 예. 그럼 수웨는 언제 혜 먹어난 거라?

107082 #2 큰일 헐 때 도새기 잡을 때.

107082 @ 보통 땀 아니고.

107082 #2 예, 예 당초 어디 시니게. 도새기 잡앙 잔칠 허나 영장을 허민 그때.

107083 @ 그때. 예, 예. 둌비도 큰일 헐 때 헐난 거 아니?
107083 #2 둌비 헐낫저만은 우린 안 헐 봤저 우린 둌비.
107083 @ 안 헐낫수과? 게민 이 둌넌 둌비 안 헐 받?
107083 #2 안 헐 받, 안 헐 받. 사단만 허주 기자.
107083 @ 옛날에 어디 강 사와?
107083 #2 옛날엔 몰르켜게 어떻사 헐신디. 둌빈 안 헐 받.
107084 @ 예. 메밀묵 헐낫수과, 믰물묵?
107084 #2 어, 묵 썩. 거시기 믰물썰 저 믰물꺾루 행 믰물묵 허는 건 저 물 뇌근에 쏘, 물 뇌근에 쏟디 켜우고 믰물꺾루 다라에 영 카고. 영 캉 그거 물 켜여가민 낱 젓어. 막 젓어근에 영 들르민 툃툃허게 안 행 지랑허게, 거무룽 헐사.
107084 @ 음.
107084 #2 익는 게 거무룽헐사 익주 헐영헌 뎀 거 선 거.
107084 @ 아, 예.
107085 #2 거무룽헐사 막 쟈트멍. 경허고 또 청묵. 청묵을 믰물썰 사다근에 저 거시기 잘리에 담아근에 물 뇌근에 물 하영 안 낱 흐뎡만 낱 막 손으로 밀려.
107085 @ 예.
107085 #2 경헐영 칭 내영, 경 헐영 칭 내영 그 물로 썩민 청묵.
107085 @ 아.
107085 #2 그건 더 꺾늘고 더 거시기 헐 거 청묵. 경헐낫저게.
107085 @ 만들기 어려운 건 청묵이 더?
107085 #2 청묵 어렵주게. 손으로 막 문질러사. 저 믰물, 청묵 아닌 썩곡. 꺾루 사당 그냥 썩고. 쟈디 저 두루 썩민이 먹지 못허고 게실게실 찰찰 홀터벼. 두루 썩민. 막 익여사 잘 익여사.
107085 @ 음.
107085 #2 영 들르민 기자 영 행 썩런허게 거시기 헐저사 거시기 칼칼허민 안 뉘여.
107086 @ 음. 게역은 어떻 헐낫수과?
107086 #2 게역은 보린 쏟디 보까근에 꺾레에 곱앙 영 행 처 냉 먹어나고 저 게역 보리게역.
107086 @ 보리게역.
107086 #2 또 콩게역은 콩 보까근에 꺾레에 곱아근에 또 영 행 체로 치민 우알 이실 거 아냐게.
107086 @ 으.
107086 #2 가루 곤 거 잇고 훗은 거 잇고 허민 훗은 거 또 곱고. 꺾루 아랫 건 뇌 두고. 훗은 건 기자 치명 훗은 건 또 곱고 또 곱고 허명.
107086 @ 게민 보리게역은 보리 깍기 전이라예?
107086 #2 보리게역은 보리 비영 거 장만헐지민 기자.

107086 @ 장만해지민?
107086 #2 어.
107086 @ 보리 장만 어떻 해가지고.
107086 #2 보리 장만은 보리 비여당 영 행 그 클 있어났저. 영 헨 보리 홀트는 거.
107086 @ 예, 보리클.
107086 #2 으, 그것에 홀텡 마당질 허멍, 어야호야 허멍. 마당질 행 보리 해근에 그거 장만 해근에게. 보리 장만허민 보리쌀 나오주게.
107086 @ 으.
107086 #2 경허민 그거 솟디 보까. 보리쌀을 보리, 보리 겁죽 신 거.
107086 @ 게니까 겁죽 신 거예?
107086 #2 으, 신 거. 쌀이 아니고.
107086 @ 예, 그걸로 솟디 낱.
107086 #2 으, 보까. 경혜영 보리게역게. 슬보리도 경허고 줄보리도 경허고. 줄보리 잇고 슬보리 잇고.
107086 @ 줄보리 잇고 슬보리 잇인디 게역은 줄보리 슬보리 다 헵니까?
107086 #2 다 해났저.
107086 @ 밥 먹는 거는?
107086 #2 밥 먹는 건 줄보리쌀이 저 치근허고 흐쌀 चु쌀거치 치근허고 슬보리쌀은 흐쌀 살락해도 슬보리쌀이 양이 하주게.
107086 @ 아. 게민 삼춘네는 주로 줄보리 헷수과, 슬보리 헷수과?
107086 #2 줄보리도 혜영 먹어 보고 대개 슬보리. 대충은 슬보리.
@ 슬보리가 양이 많이 나니까.
107086 #2 어. 슬보리.
107087 @ 지지미도 행 먹어난마씨?
107087 #2 지지미도 그 ㄹ루해근에.
@ 예.
107087 #2 ㄹ루해근에 기자 물에 거시기 목 카듯 캥 지져가민 돼주. 저 무시거 쪽파나 하간 거 썰어 낱게. 쪽파나 거시기나 다마네기 거튼 거 그런 거 썰어 놓민 좋아.
107088 @ 음. 오메기술은 어떻 담아났수과?
107088 #2 고메기죽?
107088 @ 아니, 아니 오메기술?
107088 #2 아, 오메기술?
107088 @ 예.
107088 #2 오메기술은 좁쌀 ㄹ루 곶앙.
107088 @ 예.

107088 #2 나도 흔 번 헤 낫저.

107088 @ 예.

107088 #2 좁쌀 ㄹ루 곶아근에 그 ㄹ루에 께는 물 ㄴ근에 달좌근에 영영 접아, 영영 멘글앙이, 영영 멘글아근에 솟디 ㄴ궁 ㄴ아근에.

107088 @ 으.

107088 #2 ㄴ양 것가 오메기.

107088 @ 아, 게민 좁쌀 곶앙 반죽헌 것이 오메기?

107088 #2 으, 반죽헤근에 그거 ㄴ아내영 허민 거 오메기떡. 것가 오메기떡 영 동글랑허게 저 거시기거치 멘글민. 거 동글랑허게 멘글민.

107088 @ 술 허젠 허민.

107088 #2 술 허젠 허민 거 경헨 오메기떡 ㄴ양 ㄴ근에 또 물 ㄴ궁 그거 ㄴ근에 막 께여. 막 주물러 가민 막 풀어질 거 아냐. 풀어지민 풀풀허지 경허민 그레 누룩 ㄴ근에. 누룩 ㄴ근에 헤여근에 항에 담양 흥쌀 ㄴ 두민 부각부각 허주게. 께여.

107088 @ 근데 불 슴는 거?

107088 #2 아니, 저 불 슴지 안 허영 그자 오메기떡 헤여근에 그거 막 주물러 저 누룩 ㄴ궁 서꺼근에 항에 담양 ㄴ 두민 불 안 슴아도 께여.

107088 @ 아.

107088 #2 겐 부각부각 헌다게. 경허민 그디 헤근에 오래민 청 앓곡 문 허주게. 경헤영 술 헤영. 경 헤영 고소리 헤근에 술, 술 다까나고.

107088 @ 술 다까나고. 고소리 헌 그게 잇잖아예. 술 다끄는 그 단지렌 험니까, 향이렌 험니까?

107088 #2 고소리.

107088 @ 예, 고소리에. 그 고소리에 일름 알아지쿠과 흑시? 고소리에 이렇게 주둥이 부분도 잇고.

107088 #2 주둥이, 주둥이에 무시거 바투와근에 허민 그레 출출 나오주게.

107088 @ 예. 게민 술 담을 때는 이 고소리를 불 때는 거 아니?

107088 #2 아니. 솟디, 솟디 술 ㄴ근에.

107088 @ 여기.

107088 #2 아, 이디 잇구나. 이거 고소리에.

107088 @ 예, 고소리.

107088 #2 일로 술 나온다. 요디, 요디 솟 ㄴ궁 이디 무시거 ㄴ근에 저 ㄹ슴.

107088 @ ㄹ슴.

107088 #2 어. 저 감저술이민 감저술, 기자 술이민 기자 술 요디 솟디 ㄴ근에 우터레 ㄴ근에 ㄹ루 버물영 요디 딱 막아.

107088 @ 막아.

107088 #2 막앙 짐 나오지 말게.

107088 @ 예.

107088 #2 경허민 요디 물 놓고 허민 요디로 요 짐으로 행 출출출 나오주게 이 짐으로.

107088 @ 짐으로.

107088 #2 어, 이레 출출출출 나와. 경헨 술 나왕 술 영 먹으민 흥쓸 기자 도꿏 허고 헌다게.

107088 @ 이 부분을 그냥 주둥이렌 글아?

107088 #2 으, 이거 주둥이.

107088 @ 이걸 뭐렌 불르는 일름이 잇수과?

107088 #2 몰르켜 나.

107088 @ 그냥 이거 주둥이렌만?

107088 #2 으, 주둥이.

107088 @ 기민 아까 오메기술 허젠 허민 오메기떡 만든 거에 뭐를 낫잖아예, 뭐과?

107088 #2 누룩.

107090 @ 누룩. 누룩은 어떻 만들어?

107090 #2 누룩은 보리쌀 글아근에이. 보리쌀 글아근에 그거 물 놔근에. 거시기 돌레떡 ㄴ치 만들앙 놔 두민 트주게. 콩 트듯. 트민 그게 누룩.

107090 @ 아, 그게 누룩이과?

107090 #2 으, 그거 듯게 행 놔두민 박삭 튼다게. 것이 누룩이라.

107089 @ 누룩. 게민 쉰다리는마씨? 쉰다리.

107089 #2 순다리는 순다린 누룩도 놔근에 허고 보리, 보리밥 헤근에 우리 순다리 행 먹어놋저. 지금도 이 순다리 행 먹주게. 누룩 장에 강 사다근에이.

107089 @ 음.

107089 #2 밥 놔근에 메지근허게 물 데와근에 밥에 풀어 놔근에 거 누룩 들이 치민 팔닥팔닥 퀘여. 경혜영 순다리 행 먹어.

107089 @ 아, 순다리 행 먹어.

107089 #2 어, 그거. 갱 행 누룩은 건져 불고.

107089 @ 예.

107089 #2 거 밥만 헤근에 죽 ㄴ치. 경혜영 그거 짜근에 지금 우리 행 먹음은. 짜근에 물로 헤근에 냉장고에 놔 두민 시원허고이 막걸리 ㄴ치 경헌다게.

107089 @ 아.

107089 #2 식은 밥 한 뎨 여름에 경 헌다.

107089 @ 아.

107089 #2 누룩 사단, 영 돌레떡 닳은 거 누룩 풀주게. 그거 사다 놔근에.

107089 @ 사다 낱.

107089 #2 으.

107089 @ 이제도 쉰다리 행 먹읍니까?

107089 #2 으, 행 먹엄저 우린.

107089 @ 하하하.

107089 #2 나 지금 누룩 사다 논 것도 있어. 작년이 사다 논 거.

107091 @ 옛도 멘들앙 먹어났수과?

107091 #2 옛은이 난 만들어 보지 안 허고 저 무신 옛 만들어 봤저, 미짱옛. 미짱 헨에 미짱 벧견에 알맹이만 까 난에 솟디 하영 헤 난 거 젧으멍 설탕 놉근에 젧으멍 기자 헤가민 그거 문딱 녹앙 물 웨여. 그레 설탕 하영 놉근에 그걸 막 쫄라.

107091 @ 예, 예.

107091 #2 막 쫄르민 폴폴허게 헤근에 그거 떡 사다근에 그거 찍영 먹으민 맛 좋아. 거 식빵 헤다근에 블라근에.

107091 @ 옛이 아니고 찜인게 찜.

107091 #2 어, 찜. 그추룩 헤근에 행 먹어났저.

107091 @ 옛날에 꿩옛 같은 건 안 헤났구나?

107091 #2 안 헤났저.

107092 @ 예. 이거 말고 뭐 특별허게, 맛 좋게 만들어 먹어난 거 잇수과?

107092 #2 몰르켜. 무시겨 만들앙 경 먹어나지 안 헨 거 닥아.

107092 @ 하하하.

107092 #2 이거 어려완 이거 어려완.

107092 @ 이거 어려원.

107092 #2 어.

107092 @ 어디 강 뭐 따당 캐당 경헨 만들어 먹엇던 거?

107092 #2 예, 예. 그런 거 옛어.

107092 @ 바닷가 강 뭐 보말 잡아당도 안 먹어나고?

107092 #2 으, 바당에도 안 가고이. 물론 밧디서만 몰랏주게. 하하하.

107092 @ 아, 물론 밧디서만 몰란.

107092 #2 어, 하하하.

8. 주생활

구조

108001 #1 늪의 집 멧 년 살단 왔저게.

108001 @ 늪의 집 멧 년 살단 어느 집 살단 와서?

108001 #1 요 동네거리엔 헨 디. 동네거리엔 헨 디 빌언에, 빌언에 이제 살단에 아이고 옛말 곶아사주. 요, 요 이 터도 침 늪의 집 사는 사름신디 나가 속안 와전 게. 침 이턱 막살이 하나 옛인 사름을 들러져서라게. 원 원 몰랑 속앗주게. 원 원 혼 믱슬에 살아도이 몰란게. 경허난에 늪의 집 살 때에 시집을 왔저게.

108001 @ 음.

108001 #1 늬의 집 살 때 시집을 오난 이젠, 옛날은 늬의 밧을 버슬어도 감젓메
뉘살 거 아니냐이. 감젓멜 놓젠 허난 이거 집 안 짓언에 밧으로 잇어낫저 이거 백
오십 평인디. 밧으로 잇이난에 동네 사름이 이걸 버슬엇저게. 버슬어난디 나가 이제
흔 판이 옛날은 밧 버슬젠 밧 이제 샳 내젠 허민 이젠 돈이주만은 옛날은 조 서말
젓저게. 아, 예.

108001 #1 조, 조 서말 쥬에 이 터를 오란 빌어서. 오란 감젓메 놓멍, 나가 감젓
메랑 놓멍이 나 중심에 여산이, 늬의 집 살아지난.

108001 @ 음.

108001 #1 아이고 요 터랑 나라시민 막살이라도 짓영 나가 살아볼컬 현 것만
나가 꿈을 게나제나 오랑 감젓메 노래 오랑 이 터만 나가 기자.

108001 @ 탐낫구나.

108001 #1 막 탐을 나라. 워낙 엇어 놓난.

108001 @ 음.

108001 #1 하이고 요거 나 거라시민 하이고 기자 요것만 나 거라시민 이녁집
엄막을 메여도이 엄막을 메여도 늬의 집 사는 것 보다는 낫주 현 생각을 헤져라게.
게난 이젠 요걸 이젠 오란 감젓메 낫에 이젠 그 감저쿨 헤연 헤 낡 가멍 이젠 이
밧 관리허는 사름신디 이 밧 임젠 이젠 생효 강 죽어벧저만은 돈이 어디 잇느니게.

108001 @ 음.

108001 #1 돈이 아무것도 엇이난 이제 나 친정에서 나 시집오난 들은 하나 쥬
라게. 들 하나 주난 그거 풀안에, 옛날에 팔천 원. 팔천 원도 큰 돈이주게. 팔천 원
받안 그 돈을 늬 주멍, 생효 사름, 누물 장시허는 사름 쥬단 이제 원텡이도 못 받안
내벧저게. 그것도게.

108001 @ 무사 쥬서?

108001 #1 쥬 쥬.

108001 @ 아이고.

108001 #1 이제 스폰 내올 때난 새끼 내우젠.

108001 @ 아이고.

108001 #1 이 우녁 집 사름도 안다. 우녁 집 사름도 그 사름 돈 쥬쥬단 이제 못
받안 나영 벧 햐저만은. 그 돈을 열 번을 받으레 가도 못 받안게. 못 받으난 내 벧
주게. 내 부난 그디 몬딱 죽어벧저게.

108001 @ 으.

108001 #1 죽어 벧저만은. 아이고 늬의 밧 버슬언에 감젓 싱거 버슬영 이걸 이
털 사시네게. 아이고 이거 멧 년이니? 이거 만오천 원 쥬에, 만오천 원 쥬. 만오천
원도 그때는 어려워라. 이거 흔 육십 년 돼 가난게. 흔 육십 년이 무시거라 흔 칠십
년 뵈주.

108001 @ 기지에.

108001 #1 계난 이거 만오천 원 쥘 사서. 사난 요만헌 막살이도 못 헤라 돈 엇 이난.

108001 @ 음.

108001 #1 저, 요만헌 방 하나 허고 무시거 저 춤 전기 하나. 경헌 이거 엄막 짓엉 살단에 살단 어뎡 어뎡 허명 돈 흔 폰씩 모연에 이거 안팓거릴 짓엇주. 그뎡 이거 좋은 집으로 지엇저. 이거 흔 칠십 년 돼난. 그뎡 이건 완전 좋은 집으로 짓은 거라.

108001 @ 기지예.

108001 #1 요 중간에 짓어서민 이추룩 허느냐게. 흐썰 높직허게더 짓고 방도 크게 허고.

108001 @ 움막 짓엉은 얼마난 살앗수과?

108001 #1 흔 삼 년.

108001 @ 흔 삼 년.

108001 #1 삼 년 살명 우리 시할망이 잇어났저. 시할망 죽영 원 집이서 삼 년 헤시네게. 대소상을 문 집이서. 우리 시어머니도 경 헛저만은. 우리 시어머니도 경 아무것도 엇영 경 그추룩 헛저만은. 경허난 오랑 시어머니 죽영 삼 년 시할망 죽영 삼 년 날거치 고생헌 사름 세상 하늘나라에 엇다.

108001 @ 아.

108001 #1 하르방, 나도 시집 왕 보난 아무것도 엇고 나도 속아지난 나 안 살젠 돌아냥 막 나도 돌아난 텅기고 무시거 헤신디 사름이 어질언이 순허연 침, 흔 번 싸워 보지 안 허고 귀야지 흔 번 안 맞아 보고 침 문 이 우녁집이나 동녁집이나 술 먹영 두가시 와삭와삭 헤도 우린 원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놀러 본 일 엇고 사름 이 순헤라게. 계난 우리 친정어뎡이 안 살앙 가시난 술 먹영 지랄허고 이제 부량헌 사름보다 낮으메 돈 엇어도 애껴주는 것이 펜안헌 거 아이넨.

108001 @ 으, 맞수다.

108001 #1 느시 친정에 강 못 살게 허난, 가민 다올리고 가민 다올리고 허난 이젠 벗신디 친구네 집 셋동네 가시네. 친구네 집이 강 살명 곱안 살앗저게. 곱안 살아도이 막 좃이레 오랑 우리 어뎡신디 강 원 돌아나번 엇수덴 허명 막 내놓렌 허명 헤가난이 침, 원 테움사 헤져신디 경 돌아난 텅기당도 사름이 너무 순허고 경헌디 난 너미 순헌 것도 이젠 안 좋아 뵤다게.

108001 @ 하하하.

108001 #1 와썩 떼려덩 스정허고 그 시간에 파급헤야지 너무너무 아무 거엔 글아도 속숨.

108001 @ 속숨.

108001 #1 아구리질을 헤도 속숨. 허단 보민 돌아나벼.

108001 @ 하하하.

108001 #1 경허영 난 그걸 막 굿어벤 허는디 늠덜은 호강저운 소리엔 날궤라

헌다게. 경헌디 애기덜이 착혜영 경해도이 돈 혼 폰 안 썬 첨 대학교꺼장도 돈 혼
폰 안 썬 살았저게. 경허난 어떻 어떻 모이명 우이 강 저 밧 혼 이천 썩 샷저게 나
온 후제. 밧 혼 이천 썩 사고 요거 요거 집 짓고. 그거 넘어 못 헤라게.

108001 @ 움막은 삼춘네가 직접 지은 거 아니?

108001 #1 우리냥으로 움막 짓언게.

108001 @ 움막 지을 때 어떻 지어난 거 생각나는 거 곱아줍서.

108001 #1 아이고, 하르방 도벌낭 산에 간에, 짓도 모르게 숙대낭 끈어당 하르
방냥으로.

108001 @ 으, 하르방냥으로.

108001 #1 목시 돈 쥐사 짓주게.

108001 @ 으.

108001 #1 하르방냥으로 엄막헨에 살단에게.

108001 @ 흑은 어떻헨 왕?

108001 #1 흑은 흑 파당 흑질허고.

108001 @ 으, 게민 요 옆이 거 파당?

108001 #1 으, 경허고 헨 살단 요거 경해도 짓으난 바로 요거 대통령 삶인가 헤
져라 그때.

108001 @ 아, 처음 들어왔을 때.

108001 #1 아이고, 첨. 경허영 스뭇 우리 아덜은 이제 오랑 이거 고치지도 못허
게 허고 돈 들이지 마셴. 이디 안 살켬 허멍.

108001 @ 으.

108001 #1 이디 안 살앙 어디 시원헌 디 강 이디 안 살켬 헌다만은 이 토평도
땅값 비쌌 사도 못 허고 이거 기자. 난 아파트 강 샅셴 허멍 아파트가 스뭇 듯으고
죤덴 허멍 난 나 짓은 고망에서 살단 죽어 불건 느네냥으로 아멩이라 허라게 경헨
주게.

108001 @ 맞수다.

108001 #1 아덜 세 성제난 줄 거 시냐. 저 우이 거 이천이백 평이난 성제 쥐 불
고.

108001 @ 으.

108001 #1 요디 거 하우스 헌 거 혼 오백 평 거 죽어분 놈 찍시난 이제 아덜
군인 가난 거 쥐 불고.

108001 @ 예, 예.

108001 #1 경허난.

108002 @ 옛날에는 집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잇어났수과, 옛날?

108002 #1 옛날 이간집이여 삼간집이여.

108002 @ 예, 예. 지붕은?

108002 #1 지붕 기자 상모루 기자 무시거 삼간집 상모루 기자 멧 칸. 혼 칸, 두

칸 기자. 삼칸집 허민 상모루가 삼칸으로 하고.

108002 @ 삼칸으로 하고.

108002 #1 이칸집이민 이칸으로 하고 경혜영 이칸, 삼칸.

108002 @ 지붕은 지금은 스투뜨집이우다만은 옛날엔 무신 집이었수과?

108002 #1 초집계.

108002 @ 초집 잇어났고.

108002 #1 으, 초집이랏주 다.

108002 @ 토평리에 잘 사는 어른덜 잇어났수과?

108002 #1 무사 잇어.

108002 @ 그 집도 초집이랏수과?

108002 #1 어. 다 옛날 부제 초집이랏져.

108002 @ 지에집 잇어났수과?

108002 #1 엇다. 기와집 하나도 잇엇져.

108002 @ 잇어난.

108002 #1 다 부제도 초집이랏단 새로 짓은 집.

108002 @ 아.

108002 #1 다 새로 짓은 집덜 아니냐.

108002 @ 으, 으.

108002 #1 경허난 이 완전 부제 삼칸집이여 이칸집이여 안팍거리. 완전 부제칩은. 마당도 막 널르고.

108002 @ 보통 다 삼칸 아니과?

108002 #1 어게, 스칸집 짓은 사름덜이 부제. 경헨 삼칸집 스칸집 경혜났져 초집도.

108002 @ 이거 삼칸집 아니라?

108002 #1 이거 삼칸집도 안 돼여.

108002 @ 안 돼여?

108002 #1 이거 저 십오 평 아니냐게. 십오 평이난 저 삼칸집 안 돼여 이칸집이주.

108002 @ 형태는 삼칸이잖아예?

108002 #1 으, 형태는 삼칸집으로 뵈주. 경혜났주. 옛날에 무신 기와집 잇어났져.

108002 @ 다 초집이라예.

108002 #1 으, 부제칩도. 부제칩도. 기자 안팍거리.

108003 @ 저기 안커리, 밧커리 그렇게만 잇어난?

108003 #1 으, 안커리, 밧커리, 몽커리.

108003 @ 몽커리도 잇어난?

108003 #1 으, 율이 짓은 건 몽커리.

108003 @ 계민 안커리, 밧커리, 몽커리?
108003 #1 으.
108003 @ 쉼막 따로 잇고?
108003 #1 으, 쉼막 따로 잇고.
108003 @ 계민 네 개 댜겠다예.
108003 #1 어거. 경허민 부제칩덜은 그 송청거리.
108003 @ 송청거린 뉘과?
108003 #1 송청거린 옛날게 큰어른덜 앗앙 영 이제민 첨 어디 큰어른덜 뉘 허민 송청거리엔 현 디는 영 하르방덜, 문세 가진 하르방덜. 문세 가진 하르방 송청거리엔 집 잇고 경헤낫저게. 올레거리에.
108003 @ 계민 안커리, 밧커리, 몽커리, 송청거리, 쉼막?
108003 #1 어. 어게 부제칩덜은 막 몽커리여.
108003 @ 예.
108003 #1 밧커리여, 안커리여 이제 스뭇 첨 송청거리여, 쉼막. 경헌다.
108003 @ 음. 계민 송청거리는 집이 들어오는 올레에 잇어난 거?
108003 #1 으, 올렛거리에 영 송청거리라고 그건 아무나 경 그디 첨 남자어른덜 영 모이고 허주게. 우잇어른덜.
108003 @ 우잇어른 거기서 즘자고도 헛던 거?
108003 #1 아니, 즘은 안 자고 영 영.
108003 @ 사랑방처럼 놀앗던 거?
108003 #1 사랑방이주, 사랑방.
108003 @ 거기 앗앙 놀앗엇던 거예.
108003 #1 으, 으. 어른덜 가민 기자.
108003 @ 예, 예. 계민 삼칸집 짓젠 허민 낭도 헤오고 흑도 헤와야 허잖아예.
108003 #1 하이고.
108004 @ 삼칸집 짓는 과정을 즘 곁아줍서.
108004 #1 과정은게 삼칸집 헤영 문 짓어놓민게 흑질허민 우리 흑질 문 돌아가 멩 흑질 물 질레 허벅덜 정, 아이고 오닐 그 집이 흑질 헐 거. 흑질 헐 거 문 우리 동네에서 문 흑질 물 허벅으로 지영 강 문 비왕 점심 얻어 먹고 그디서.
108004 @ 음.
108004 #1 경헤나시네. 영 집 짓젠 허민 문 경헤나서.
108004 @ 집 짓젠 허면 경 동네 사름덜이 도와 줬던 거?
108004 #1 어게 도와준다게. 도와 줘.
108004 @ 으.
108004 #1 그 흑을 쉼 잇인 집은 흑 그 옛날 삼칸집이라도 짓젠 허민 흑질을 헤야 허주게, 흑질을.
108004 @ 예, 예.

108004 #1 허민 그 흑을 기신새 놔근에 불러사주게.
108004 @ 기신새 낵예.
108004 #1 으, 기신새 낵 그 흑을 막 불러. 출, 출지게, 출지게 막 불러.
108004 #1 경헨 그걸로 착착 데끼멍. 장갑을 찌카. 장갑도 안 쟁 그냥.
108004 @ 계난, 계난 흑질 허는 건 나중이잖아.
108004 #1 어, 나중에. 돈 짓어 낵.
108004 @ 가장 먼저 허는 건 뭐과.
108004 #1 먼저 허는 건 낵 해당게. 낵 해당 옛날에사 이녁냥으로 낵 해당 헛주 무신 낵 상 허는 사람이 멧 개나 잇이니까.
108004 @ 예.
108004 #1 돈 이녁냥으로 해당 짓엇주게. 도별냥, 도별냥 해당 스몛 낵 해당. 우리도 이 안거리 이거 하르방냥으로 짓으켄 허멍 이 낵 해당 늡의 대왓디 곱전 놔두 난 살림청에 왕 켜런 돈 시꺼 가불언.
108004 @ 아고, 아.
108004 #1 돈 시꺼 가 부난 이거 낵 산 해서 상. 이녁 낵 돈 일허부난. 낵 산 헛저게 산. 경허민 목시 빌영 돈 이거. 옛날은 목시가 주장 아니가게. 이제는 사깡 이 주장이라도이 옛날은 목시가 주장이여게. 낵으로 돈 그 스몛 그 집이나 저 집이나 서리. 서리엔 현다. 이 가쟁이 놓는 것이, 툃툃 걸치는 것이.
108004 @ 어디, 지붕에?
108004 #1 어, 지붕에 걸치는 것ㄴ라.
108004 @ 벽에도 서리 걸칩니까?
108004 #1 벽에는 서리엔 안 현다. 벽에는 서리엔 안 행 상모루 걸쳐 낵 그 버금은 서리 걸친덴 현다. 상모루 걸쳐 낵.
108004 @ 우선은 이 지등을 먼저 세울 거 아니?
108004 #1 지등 영 세우주.
108004 @ 세우고.
108004 #1 주춧돌 놔근에.
108004 @ 주춧돌 먼저 놓고.
108004 #1 으, 으. 주춧돌 낵 낵 가장 세와 낵 이제 방 네 개민 네 개 세왕 그 우터렌 또 이젠 천장 멘들앙.
108004 @ 멘들앙.
108004 #1 마지막엔, 마지막엔.
108004 @ 상모루 행 천장 메와.
108004 #1 건, 마지막 막 마지막. 상모루 멘드는 건 마지막 아냐. 아이, 그 집인 오늘 상모루 헤영 서리 걸친덴. 경 곴아났저.
108004 @ 예.
108004 #1 경헛저 무신. 이레 오라. 왕 감저 친 거 먹으라.

108004 @ 이레 오십서.
108004 #1 감제 친 거 먹으라.
108004 #5 감저 친 거 셔네.
108004 #1 이 집 짓은 거 곶암저 집 짓은 거.
108004 #5 잘 곶암수다.
108004 @ 이 상모루 걸치는 거.
108004 #1 어게, 상모루 걸쳐 놔사 서릴 걸치주게. 아멩헤도. 우리 이거.
108005 @ 들포엔 현 거 뭐?
108005 #1 들포? 들포엔 현 건 이 상모루포 말이주게.
108005 @ 상모루포. 도리는 뭐과, 도리?
108005 #1 도리? 도리엔 현 거는 꺾텡이ㄴ랑 도리엔 험실 거여, 꺾텡이ㄴ라 도리. 서리 꺾. 서리 꺾이 도리라.
108005 @ 계민, 계민 어쨌든 주춧돌 낱 지둥 세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도리 허고 서리 허고.
108005 #1 어게 저 상모루 걸치고. 상모루 걸쳐 낱 마지막엔 서리 걸치는 거 아니냐게.
108005 @ 예.
108005 #1 서리 걸쳐 낱 또 이제 가시새, 가시새엔 현 거 준 거 빠지지 안 허게 서리 걸청. ㄴ루 ㄴ루로 논 거.
108005 @ 예.
108005 #1 ㄴ루 ㄴ루 놓는 거여 그 가시새엔 현 건.
108005 @ 가시새예?
108005 #1 으, 서리 막는 거.
108005 @ 아, 서리 막는 거.
108005 #1 으. 이젠 베니다로덜 탁탁 막암주만은 옛날은 우리 거 가시새로덜.
108005 @ 가시생이?
108005 #1 가시새, 가시새 헤낫저게. 아이고 이 집 현 거리치 우리집 하르방 헤당 바깿 우영에 데멧당 오꼳 산림청에 꺾렁. 이거 문 상 헤서 상. 우리 하르방 현 거리치 이거 헤 오라지 안 헤시냐?
108005 #5 곶로로 문 헤다근에.
108005 #1 문딱 헤당 바깿 우영에 늘영 놔두난 오꼳 밀세사 헤벼신지 꺾런, 꺾런 오꼳.
108006 @ 삼춘 간테기, 고데, 게워 그런 거 알아지쿠과?
108006 #1 간테긴 몰르켜.
108006 @ 고데?
108006 #1 고덴 뵈산디. 고덴 이 상ㄴ리 올리는 것ㄴ라 고데엔 허주게. 상ㄴ리 올리는 것ㄴ라 고데 올림저. 고데 올림저.

108006 @ 예. কেවنے?

108006 #1 কেവн 모르켜 나.

108006 @ 천아반귀틀?

108006 #1 으?

108006 @ 천아반귀틀?

108006 #1 천아반귀틀도 이 집 짓는디 문 들어가는 걸 겨여만은 나.

108006 #5 반귀틀은 몰라도 천아반, 천아반 헤났저.

108006 #1 어.

108006 @ 우에, 우에 올리는 거?

108006 #1 어게. 천아반.

108006 @ 천아반예?

108006 #1 으.

108004 @ 이거 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 흑질을 할 거과?

108004 #1 흑질이사 이거 문짜 헤여 낡 허는 거주게. 완료 쁘 후에.

108004 @ 그럼 맨 마지막에 흑질을 허는 거예?

108004 #1 으, 흑질은 마지막에 허는 거주게.

108004 @ 게민 그 흑질을 헐 때 동네 사름덜이 다 왕 도와주는 거?

108004 #1 으, 옛날은이 흑 불령 그신새 낡 흑 불려가민 우리.

108004 #5 옛날은 돈 안 쥐도 왕 헤주고 그자 밥만, 점심만 헤주고.

108004 @ 으.

108004 #1 점심 헤 주민 우리 얻어 먹고.

108004 #5 물도 이 수도가 엇이난 허벽으로 물 저다근에 동네 여자덜이 와근에 물 저다근에 흑 헐 때 물도 저다 주고.

108004 @ 저다 주고예.

108004 #5 서로 어우, 서로서로 ㅁ찌 어우리멍 허는 거.

108004 @ 게난 겨난 물 저다주는 게 완전 부주 허는 거 아니과?

108004 #1 부지 허는 거 우리 부지 허게 서로.

108004 @ 기지예.

108004 #1 수눔영.

108004 @ 수눔영예.

108004 #5 점심밥만 얻어 먹어 강.

108004 #1 점심밥만 얻어 먹는 거.

108004 @ 그럼 집 주인이 점심밥을 내는 거?

108004 #5 으, 집 주인이 점심밥을 헤주는 거.

108004 #1 우리 얻어 먹으레 얻어 먹으레게. 물 질영 강 얻어 먹으레.

108004 #5 옛날엔 서로서로 그추록 안 허민 일은 못헐주게.

108004 @ 예, 예. 그럼 흑은 누게가, 집 주인이 다 헤다 놓는 거?

108004 #1 주인이 흑이사계 파 놓주게.
 108004 @ 파 놓고.
 108004 #1 으, 이녀 우жат 안에 엇이민 어디 강 시꺼 와사. 팡 시꺼 와사. 경혜영 그 그신새 놓고 물 비우고. 경혜영 흑질 허는 거라. 그 경 무신 흑은 지냥으로 나오 람시냐. 아이고.
 108007 @ 계민 이제 방 물어보쿠다 방예. 이디를 무슨 방이렌 험니까?
 108007 #1 이거 무슨 방이렌 헤, 이거 큰구들이엔 곤.
 108007 @ 큰구들?
 108007 #1 어. 족아도 큰구들 우선, 부억 부튼 거 큰구들이엔 현다. 이 제주돈. 부억 부튼 건 큰구들.
 108007 @ 예, 그 다음?
 108007 #1 작은 구들.
 108007 @ 작은 구들, 족은 구들이엔 허지 안 험니까?
 108007 #1 족은 구들 옛날은. 옛날말론 족은 구들.
 108007 @ 옛날말로 곱아주십서.
 108007 #1 큰구들, 족은 구들 하하하.
 108007 @ 족은 구들.
 108007 #1 항상 이 정지 부튼 거 큰구들. 경현다. 이 부억 부튼 건. 어떤 집이라 도.
 108007 @ 근데 이거는.
 108007 #1 찾방.
 108007 @ 찾방?
 108007 #1 으, 찾방.
 108007 @ 찾방예. 이거는 현대식으로 지으난 정지가 여기 있는 거 아니과? 이 쪽에 정지 항상?
 108007 #1 저쪽에가 정지 헤낫저게. 저쪽에.
 108007 #5 저쪽에 싱크대 논 디는 정제. 여기는 밥 먹는 디난 찾방.
 108007 @ 아, 정제 들어갈 때 여기 하나 있는 게.
 108007 #1 어, 찾방 걸척 들어가는 거.
 108007 @ 찾방 거쳐 정제 들어가고. 계민 방에는 큰방엔 큰구들이엔 백장 잇수 과?
 108007 #1 우리 시렁 잇이네게.
 108007 #5 옛날 백장 다 헤 낫주.
 108007 @ 삼춘 저거 시렁이렌 곱앗수과, 백장이렌 곱앗수과?
 108007 #5 시렁, 시렁. 옛날엔 시렁.
 108007 #1 시렁이엔도 곤고 백장이엔도 곤고. 꿩도 저 소굽에 잇저게. 옛날 꿩.
 108007 @ 계난 여기는 시렁에 영 문 들앗수다예.

108007 #5 아니, 옛날에 문도 안 들었져.

108007 @ 그니까 벽장으로 행 이렇게만.

108007 #1 야, 옛날은이 백장에 이불을 칭칭 답았주께. 경혜신디 이거 고쳐시네. 글후제 고친 거.

108007 @ 아.

108007 #1 옛날 집 헛당 이거 문을 든 거.

108007 @ 계난 시렁이랑 백장은 ㄴ튼 것과?

108007 #1 ㄴ튼 거.

108007 @ ㄴ튼 거. 겐 문 든 거는 이제사.

108007 #1 으, 그거 고친 거. 멧 년 전에 것도. 저거 고친 것도 오래서이. 이것도 신식으로 고친 집. 아이고.

108007 @ 계민 그 백장 우에는 궤 올려 놓고?

108007 #1 으. 이불게.

108007 @ 이불 놓고. 계민 방 딱뚝한 디는 뭐렌 곱읍니까?

108007 #1 온돌방. 굴묵 진영.

108007 @ 아니, 아랫목?

108007 #1 아랫목이 득뚝헛져. 헤여. 아랫목이 득뚝헛져. 아랫목이엔 굴묵 진으민 아랫목이 득뚝헛져 헤영.

108007 @ 득뚝헛져 허는 거고예.

108007 #1 아고 옛날이사.

108008 @ 여기는 뭐렌 불럿수과, 여기는.

108008 #1 상방, 상방이엔 헛주.

108008 @ 상방이렌 불럿고예.

108008 #1 으, 상방.

108008 @ 계민 옛날에는 상방이 지금은 마루 이거, 옛날 마루덜 보민 널찍널찍 현 마루덜.

108008 #1 저, 옛날 낭은게 저 네귀방장, 네귀방장.

108008 @ 네귀방장 요만큼씩 허멍 영 궤여 맞추멍.

108008 #1 어게, 어, 어. 경헌디게 이 마린게 길쭉길쭉 허게시리.

108008 @ 계민 이렇게 만든 마리를 널마리렌 곱읍니까?

108008 #1 널마린 널로 현 거난 널마리주께.

108008 @ 널마리에.

108008 #1 으, 널마리. 삼방이엔도 허고 마리엔도 허고.

108008 @ 삼춘 옛날집은 널마리랏수과?

108008 #1 어게, 옛날집은 널마리주께. 아주 옛날집은 널마리 아니냐게. 아주 옛날은.

108008 @ 그니까 어렸을 때 집은예.

108008 #1 옛날집은 널마리 허고 이 널마리 가운데 부섭, 부섭이엔 안 허느냐.
108008 @ 으, 부섭.
108008 #1 돌부섭해영.
108008 #5 돌로 이렇게 네귀방장 허영 모다냥 불 초고.
108008 #1 으, 불 초고. 경해낫주게.
108008 @ 거기서 뭐 구워먹기도 허고?
108008 #1 게. 구워도 먹고게 불도 초꼭게.
108008 #5 추워 농난 불 초앗주게. 이제거치 난로 같은 거 엇이난애.
108008 #1 아이고 이제 난로 앓다 냥 호강도.
108008 @ 계난 옛날 초집애, 삼춘네 어렸을 때 부섭이 다 잇어낫수과?
108008 #1 어. 부섭 엇인 집 엇다. 부섭 엇영 살아지느냐 추웁.
108008 @ 추웁?
#1 으, 부섭 엇영 살아지느냐. 화리, 구들엔 화리 앓다 놓고. 화리, 옛날 화리.
108008 @ 으.
108008 #1 이젠 열어가민 보일라 틀고 어느 절애. 나 이제 저 매트도 턴 내벳저.
108008 @ 영 마리에 들어오면 부섭은 가운데 놓니까?
108008 #5 조금 안내.
108008 #1 영 이레, 뒷문 ㅼ디게.
108008 @ 뒷문 ㅼ디게예?
108008 #1 으, 앞으론 손님 땡기는 따문.
108008 @ 예, 예.
108008 #1 뒷문 ㅼ디게.
108008 @ 이쪽애는 뭐 엇어낫수과, 물건 놓는 거? 살레 같은 거 엇어난?
108008 #1 살레?
108008 #5 살레는이 부억애.
108008 #1 아, 부억애 낫주 옛날. 살레, 살레 허멍.
108008 #5 찻장ㄱ라 살레엔 헛주.
108008 #1 어.
108008 #5 사발 어프는 거.
108008 #1 아고 옛날 살레사.
108008 @ 그거 말고 삼방 끝에 뭐 물건덜 놔 두는 공간은 엇어낫수과?
108008 #1 우리 기억으론 마리 뒤에 무시거 엇어.
108008 @ 엇어난.
108008 #1 저런 신장도 엇어나고 아무 것도 엇어나서.
108009 @ 계민 고평은?
108009 #1 고평 잇주게. 옛날 고평. 고평은 어드레 허느냐 허면은 저 부억 저거

허지 안 허느냐이. 저디 부억이민 경허민 영허영 안팡이라고 소랑허게 올로 요만인 허주, 안팡 그것 마라 고팡.

108009 @ 부억 안내 고팡이 있어?

108009 #5 켈 안내 고팡.

108009 #1 켈 안내가 고팡. 허쉴 허민 고팡에 강.

108009 @ 큰방, 큰방 옆에, 큰구들 옆에 고팡이 있는 게 아니고?

108009 #1 큰구들 옆에 잇지 안 허고 그것도이 저 집집마다 꼭 마트진 안 현다.

108009 #5 마트진 안 허여.

108009 #1 마트지 안 현다게.

108009 #5 부억 부짱도 잇고.

108009 #1 부억 부짱도 고팡이 잇고 마리에 부짱도 고팡이 잇고 경헛저 옛날은 꼭 허식으로 허질 안 헛저. 옛날 집은.

108009 @ 음.

108009 #1 경허질 안 허여.

108009 @ 고팡에 옛날.

108009 #5 향아리 고팡에 양쪽으로 쭉 놔가지고 보리썰, 쭌썰 다 그건 거, 농사 헛 때는 그런 거 놓는 거 고팡이주게.

108009 @ 예, 향아리들 낱 곡석 향들.

108009 #1 양펜이 쑥허게시리 낱 곡석 마득으민.

108009 @ 옛날에는 고팡에 창문이 엇어낫잖아예, 뒤가 엇어낫수과?

108009 #1 왯왯, 왯왯.

108009 @ 경해도 바람 통하렌.

108009 #1 바람 통헛 거 앞이 베끼 엇영 무시거 창곰 허곰 고팡 뜰랑.

108009 @ 창곰 엇어낫지예?

108009 #1 으, 경헛주. 문이 어디 잇느니게. 아이고 문 안 헛 봤저 옛날에.

108009 @ 창곰은 엇어나서예. 공기 통허렌.

108009 #1 으, 우리 어멍네 고팡 봐낫주 난 기자.

108009 @ 예.

108009 #1 우리 어멍네 고팡 봐 낫주.

108009 @ 계난 그 고팡에서 식게 허젠 허민 거기 안칠성도 모시고 헛니까?

108009 #5 어게, 안칠성에 밥 거려 가라.

108009 #1 안칠성, 그 칠성도 여라가지라. 일뤼 잇고.

108009 #5 그냥 보통으로만 곱아붙서.

108009 #1 보통으로 안칠성은 어떤 집이라도 어떤 집이라도 건 모신다. 안칠성이난.

108009 @ 음.

108009 #1 경헤여근에 고팡에 모신다.

108009 @ 경혜영 식계 헐 때 어떻 험니까?
108009 #1 어떻허느니? 메 거렁 올림주. 식계 헐 땀 메 거렁 올림주.
108009 #5 이 상에 올리듯이 다 조금 조금 올려.
108009 #1 이 상에 올리듯, 상 싱그지 안 허느냐게.
108009 @ 예, 예.
108009 #1 그런 거 떨어지지 안 허영 올린다.
108009 #5 그것만 아니. 부억에도 그거 해당 놔 부억에도.
108009 @ 계민 부억엔 따로.
108009 #1 일월이라고 그건 조왕 할망.
108009 @ 조왕 할망?
108009 #1 으, 조왕 할망이엔 헐 조왕 할망에도 올려놔주게.
108009 @ 계난 계민 안칠성 상 따로 차리고 조왕 할망 상 따로 차리고.
108009 #1 어, 어게, 어게.
108009 @ 여기, 여기 분상 따로 차리고 문전상도 따로 차릴 거 아니과?
108009 #1 이 문체는 옛날도.
108009 #5 허는 집 안 허는 집.
108009 #1 허는 집 안 허는 집 현다 문체는. 문전 모른 공서가 어디 시리 해도
이.
108009 @ 예.
108009 #1 우리 오침은 안 허여.
108009 @ 아, 문전상 안 해마씨?
108009 #1 으, 우리 오침은.
108009 #5 우리도 안 험니다게.
108009 #1 느네도 안 허느냐?
108009 @ 아고.
108009 #1 견디 문체허는 집이 멧 개 안 허여. 우리 호근리 강 보민 전시 안 허
여, 우리 호근이 집인디 전시 문제 안 현다.
108009 @ 삼춘 문전상을 문체렌 험니까?
108009 #1 어.
108009 @ 어.
108009 #1 저 영 문전에 올리는 것그라 문체, 문체.
108009 #5 계민 거 제사 지낼 때도 다른 큰 제사보단 앞이 지내여 것이.
108009 @ 예, 예.
108009 #1 앞이 지내주게. 경헌디 우리 오침인 안 현다.
108009 @ 아.
108009 #1 부침이도 안 허여.
108009 #5 안 허여.

108009 #1 아, 난 험시카부덴.
108009 #5 아니. 우리 상호서 오침이 친정에는 헤나신디 이 시집이 완 보난 안 험십디다.
108009 #1 으음.
108009 #5 그것도양 혼 가지 좋아양. 것도 허젠 허민 하영 해야 돼고.
108009 #1 막 좋주.
108009 #5 램시 혼 번은 더 해야 돼는 거난.
108009 #1 우리 옷동네 아주망네 집이 허느네.
108009 @ 예.
108009 #1 우리 아주망네 집인 허여.
108009 #5 허는 집 막 하메.
108009 #1 어. 문체, 문체 허멍덜 스몫. 하이고 것도 원체 복잡헤라게. 복잡허여.
108010 @ 이제는 정지 물어보쿠다 정지에. 정지에 들어갓수다. 정지렌 험니까, 정제렌 험니까?
108010 #5 정제, 정제. 부억ㄴ라.
108010 #1 정제. 정제 강 봐사켜, 정제 강 봐사켜.
108010 @ 정제에 들어가민 정제에 뭐 뭐 잇수과?
108010 #1 무시거 잇느니.
108010 #5 정제엔 불 슴양 밥 허는 것베끼.
108010 #1 불 슴양 밥 허는 것베끼 더 잇느냐.
108010 @ 계민.
108010 #1 물항, 물항 놓고.
108010 @ 물항 놓고.
108010 #1 그디 강알 낱 솿 맞지고.
108010 @ 솿 맞지고.
108010 #1 기자 무시거 여라 가지 경 엇나게. 돔베나 놓고.
108010 @ 돔베나 두고.
108010 #1 무시거 경.
108010 @ 살레 잇고?
108010 #1 살레 원 원 이젠 찻장으로 헝 정 찻장 놔 부난 무시거.
108010 @ 찻장 놓고. 영 들어가는 게 찻방이렌 허고예.
108010 #1 어게 일로 들어가는 건 찻방.
108010 @ 계민 솿 허젠 허민 솿은 뭐 우에 었을 거 아니? 이 밑에 이거 뭐렌 험니까?
108010 #5 거 솿덕, 솿덕.
108010 #1 솿덕.
108010 @ 예. 솿덕에 솿을 었어수다예. 솿은 멧 개나 놔 낫수과 삼춘 옛날에?

지금 말앙.

108010 #1 옛날에, 옛날에 우리 감저 청 먹을 땐 세 개.

108010 @ 아, 세 개.

108010 #1 감저 청 먹을 때 기자 두말떼기, 두말떼기. 감저 청 먹을 때.

108010 #5 기자 세 개, 네 개 보통 현다. 세 개, 네 개.

108010 #1 세 개, 네 개 기자 하사.

108010 @ 계민.

108010 #1 온돌은 네 개 멘들앗저만은. 세 개.

108010 @ 족은 솟.

108010 #1 큰솟.

108010 @ 큰솟.

108010 #1 감저 쳐 먹는 솟. 콩 옛날 메주 솟주게.

108010 @ 그럼 요거는 몇 대들이. 족은 솟은?

108010 #1 아, 족은 솟은 쓸 혼 뉘 아니민 두 뉘지.

108010 @ 이거는 몇 대?

108010 #1 거 국 끌리는 솟 허고.

108010 @ 국 끌리는 솟 이거는 혼 말짜리?

108010 #1 아니, 경 크지 안 현다. ㄱ타 ㄱ타.

108010 @ ㄱ타?

108010 #1 경허고 큰솟은 콩 혼 말 솟는 거.

108010 #5 막 큰 솟 하나만 크주이 경 크지 안 현다.

108010 @ 아.

108010 #1 나머진 ㄱ타.

108010 @ 기민 이거는 이 솟에는 웬장도 솟고 헐 거 아니과?

108010 #1 으, 감저도 청 먹고.

108010 @ 감저도 청 먹고.

108010 #1 으.

108010 @ 기민 이거 완전 큰게.

108010 #1 물도 데우고.

108010 @ 물도 데우고. 이건 몇 말들이?

108010 #1 아, 큰솟이사게 그자 혼 말들이도 뉘고 두 말들이도 뉘고. 두말떼기
엔 현다, 두말떼기.

108010 @ 으. 삼춘네 두말떼기 잇어난? 삼춘네 두말떼기 뉘난?

108010 #1 으. 두말떼기, 두말떼기 이제도 잇어.

108010 @ 두말떼기 잇어예.

108010 #1 어, 잇어 이제도. 콩 솟젠 허난.

108010 @ 아, 콩 솟젠 허난. 그 솟은 어디 낡 엇엉 솟을 거라?

108010 #1 이젠 바라에 험시네. 큰 바라. 아이고 솟 앓질 디가 잇어게. 솟 앓정
허고정 헤도.

108010 @ 아.

108010 #1 ㄹ득은 낭에. ㄹ득은 낭 솟 앓질 디가 시나게. 솟 앓질 디가 엇영.

108011 @ 이젠은예 문입쟁이 물어보쿠다. 문입쟁이. 문, 문, 문 드는 데.

108011 #1 문입쟁이.

108011 @ 요거를 뭐렌 곶아? 문 전체를?

108011 #1 이젠 무시거엔 곶는고 와쿠렌 곶주.

108011 @ 와쿠 하하하.

108011 #1 와쿠 세와 놔사 문을 들주.

108011 @ 그거는 그거는 와쿠는 일본말 들어온 거고.

108011 #1 와쿠엔 곶아 경해도 우린.

108011 @ 으. 옛날에 이 문 말고 우리.

108011 #1 지게문.

108011 @ 이렇게 열고 닫는 문 있지예?

108011 #1 어, 지게문 그거. 쌀문.

108011 @ 쌀문이엇잖아예. 케민 그 옆이 그거 일름 알아지쿠과?

108011 #1 나 그거 일름 모르켜.

108011 @ 모르크라.

108011 #1 문, 지게문 돌아놔주.

108011 @ 문입쟁이렌 현 디가 어디라?

108011 #1 문입쟁이엔 원 이것ㄹ라 문입쟁이렌 곶주.

108011 @ 어디?

108011 #1 이런 옆이ㄹ라. 문입쟁이, 그런 것ㄹ라 우린 문입쟁이. 와쿠엔도 허
고. 와쿠엔도 허고 문입쟁이엔도 허고. 지게문은 돌아나도 몰라. 지게문 우리 옛날
에사게.

108011 @ 이렇게 여는 곶 지게문이렌 허는 거?

108011 #1 어, 쌀문.

108011 @ 문 열젠 허면 손잡이가 있잖아예? 그곶 불러난 이름 알아지쿠과? 돌
저귀, 돌처귀?

108011 #1 돌, 돌챙이.

108011 @ 돌챙이.

108011 #1 아니, 아니. 도, 돌 무시거?

108011 #5 드는 거 도절귀.

108011 #1 도절귀. 도절귀, 도절귀. 문 드는 건. 도절귀여 거 도절귀.

108011 @ 도절귀예.

108011 #1 으, 도절궐 등겨사. 등겨사 올라지는 거.

108011 @ 그민 하나는 등기는 거고 우리 문 잠그젠 허민 영 영 씩우잖아. 영
동글랑 현 거 영 씩우잖아?

108011 #1 으.

108011 @ 계민 이거 불르는 이름이랑 이거 불르는 이름이 트낫수께.

108011 #1 씩우는 건 모르켜. 도절귀 박아 낱, 도절귀 박아 낱근에.

108011 #5 문고리 아닌가양? 동글랑 현 거 잇주게.

108011 #1 문고리, 문고릴 거여. 도절귀 박아 낱 문고릴 돌아사 경헤여.

108011 @ 암도절귀, 솟도절귀 허는 말은 안 써 봤수과?

108011 #1 으, 암도절귀, 솟도절귀 암컷, 수컷 우이 거, 우이 끼우는 것사 솟귀
주만은 그거 아래 끼워난 건, 으, 암도절귀엔도 곱아서. 암도절귀, 솟도절귀. 정도
곱아난 거 닳다. 암도절귀, 솟도절귀.

108011 @ 으.

108011 #1 암도절귀, 솟도절귀.

108011 @ 경헤난 거. 여기는 뭐렌 곱읍니까?

108011 #1 그거 무시거엔 곱아 문대방이주.

108011 @ 문대방. 문지방 안 허고 문대방.

108011 #5 문대방.

108011 #1 대방이엔 헛주, 대방.

108011 @ 문대방이엔 곱안예. 여기는예.

108011 #1 이제랑 그만 들으라, 곤지 못 허켜.

108011 #5 오늘 행 가민 마지막 아니?

108011 @ 아니, 아니. 앞으로 더 올 거우다. 조금만 더.

<중략>

108013 @ 호령창이렌 현 말 들어봤수과?

108013 #1 호령창?

108013 @ 으.

108013 #1 호령창이사 욱 허는 거베끼 더냐? 욱 허는 것ㄹ라 앓따 호령창도.

108013 @ 그거 말고.

108013 #1 뭐.

108013 @ 문에 구멍 낱 누게 왓시니 바레난 거 그런 거 엇어낫수과?

108013 #1 아, 문고망?

108013 #5 문고망은 무신 종이문, 옛날에 종이문 헐 때 고망 뜰랑.

108013 #1 종이문에 문고망 손으로 뜰랑 무시거 현 거베끼 더 곱아나시냐? 종
이로 불르미 기자.

108013 @ 호령창이렌 현 말 안 들어 받?

108013 #1 호령창은 우린 욱허는 거베끼 안 들어 봤저.

108014 @ 예, 예. 그럼 굴묵, 굴묵.

108014 #5 굴뚝은게 방 뜨거우렌 불 때는 거주.

108014 @ 으, 불 때는 거. 굴뚝 질는 얘기는 아까 헛엇고. 방마다 다 굴뚝은 잇 수과?

108014 #1 방마다 옛날이사 구들마다 헤사게. 굴뚝을 만들어사 낭을 떼엇든 ㄱ 슻락을 떼엇든 험시네게. 실려왕 살아지느냐?

108014 @ 계난 굴뚝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

108014 #1 어느 쪽으로 들어가 어귀 멘들암주 굴뚝은?

108014 @ 어귀로?

108014 #1 으, 어귀 멘들다. 요추룩 어귀 멘든다. 돌 쌓아근에 어귀 멘들앙.

108014 @ 이 구들은?

108014 #1 이 구들 만약 허게 웨민 절로.

108014 @ 절로. 저 구들은?

108014 #1 저 췌이. 앞으론 안 현다. 항상.

108014 @ 뒤로예.

108014 #1 어. 늣 못 바레는 딜로 헝 앞으론 안 현다.

108015 @ 예, 예. 여기 초집헝 때 비 올 때 앞이 쳐난 거 잇잖아예?

108015 #1 풍채베긴 더 잇어?

108015 @ 예, 풍채. 계민 이거 비 올 때 영 세우고 비 안 올 때 영 내리고?

108015 #1 으, 그거이 비 안 올 때 세와. 비 오라가사 누리우주게. 비 올 때 누리와사 비 들이빠여.

108015 @ 계난 날 좋은 날은 영 올려 불고 비 오민 영 내려 불고.

108015 #1 으.

108015 @ 올릴 때 영 바춰야 헝 거 아니?

108015 #1 바투와사주게.

108015 @ 뭐 바투아?

108015 #1 무시거 바투 낭 그차낭 아무거라도.

108015 @ 낭 그창.

108015 #1 작데기 영 헤근예.

108015 @ 예, 작데기 헝 풍채를 받출 거라예. 계민 이 풍채도 여기 달령 잇는 거잖아예.

108015 #1 풍채 달령 잇는 것도 잇고 기자 기냥 헛당 바투왕 허는 것도 잇고 현다.

108015 @ 아, 세우는 것도 잇고?

108015 #1 어, 세우는 건 풍채 양췌이 지등을 세와사 풍채가 웨는 거주.

108015 @ 예, 예.

108015 #1 경허는 거주. 아니헝 웨느냐?

108015 @ 계난 지붕에 들려 잇는 것도 잇고 세우는 것들도 잇고.

108015 #1 으, 으.

108016 @ 물팡은 뭐과?

108016 #1 허벅 놓는 게 물팡이주.

108016 @ 허벅 놓은 거.

108016 #1 으, 우리 물 질어다근에 항더레 비와 나민 어드레 허벅 놓는니게. 진냥 강 부렛주, 똥꼬망 내 낱 부렁. 이추룩 만들어 노민 또꼬망 내와당 그레 강 허벅.

108016 @ 계난 허벅도 여기 올려 놓는 거주만은 아멩해도 허벅 부리기 쉬우렌 허는 거?

108016 #1 어. 쉬우렌도 허곡게 놔 두는 거여. 그디.

108016 @ 계난 물 질영 오젠 허민 필요헌 게 뭐가 잇수과?

108016 #1 필요헌 게 무시겨 잇느니게. 물 강 질어오민게 첨 승키나 아정가민 승키 싯정 오고 집이선 물 엇이민 승키 아정 강 싯정 오고.

108016 @ 수도 엇이난 이디선 어디 강 물 질엇수과?

108016 #1 도내코도 가고 저 옛날에 수도 엇인 때 저 구상물이엔 현 디 생효도 가고.

108016 @ 아, 생효도 가고.

108016 #1 으. 우리 도내코 물 주로 먹엇저.

108016 @ 도내코. 계민 거기 물 질러 가젠 허민 가정 갈 거?

108016 #1 허벅 정 가고.

108016 @ 허벅 정 가고. 허벅 지젠 허민 뒤에 놔?

108016 #1 대 바타근에.

108016 @ 대 바탕에.

108016 #1 어. 박세기 톡허게 꼭박세기나 놓고.

108016 @ 예, 경혜영 이디. 이거 질팡? 지는 거? 지는 끈. 베?

108016 #1 베, 베.

108016 @ 예. 베로 정.

108016 #1 물베.

108016 @ 물베?

108016 #1 으, 허벅 정 땡기는 건 물베.

108016 @ 그건 물베렌 험니까?

108016 #5 딱 그거 그냥 고정시경 헛어. 탄 거 안 헤근에.

108016 #1 기자 허벅에, 물허벅에 기자 끼왕 내불민 물베.

108016 @ 으, 물베가 똤는구나.

108016 #1 으, 물베.

108016 @ 큰 허벅을 구벅에 낱 지잖아예. 겐디 아이덜도 물 질러 다니지 안 험니까?

108016 #1 대바지.
108016 @ 대바지.
108016 #1 쪼글락헌, 두 뺑 들이도 잇고 쪼글락 헌 것도 잇고.
108016 @ 음
108016 #1 우린 두린 댐 요만이 헌 거 저 낫저.
108016 @ 계난 그때는 애기덜안테도 물 질영 오렌 시켄.
108016 #1 안 시키민 어떻힐 말이니. 하이고 침. 늦도 안 씻영 살았저 그땐. 어느 제민 침 밧디 강 오랑 목욕허고 허카부덴.
108016 @ 삼춘은 뭇 살때부터 물 질어난 거 같으과?
108016 #1 뭇 살 때부터 허여 혼 여남은 설 나가난 짐 시작했주.
108016 @ 아.
108016 #1 짐 시작허영 나도 혼 스무설ㄱ장은 돈내코 물 질어서. 스무설ㄱ장은 돈내코 물. 경허당 기자.
108016 #5 돈내코 갓구나. 우린양 상호 사름덜 조가물양 밑으로 막 나는 물이 시난.
108016 #1 조개물도 우리 가낫저만은 조개물.
108016 #5 몰령 못합니다.
108016 #1 몰련에 나 혼 번 갓단에.
108016 #5 사름 하영 못 질어.
108016 #1 아이고 브딤은 헤도 몰리난 돈내코 두 번 가 와서라. 나 상호도 와 나시네.
108016 #5 우린 상호 조가물 먹으난.
108016 #1 아이고 구천 몰람주. 아이고 구천 몰람주. 우린 돈내코 가젠 허민 이제 그 법환리집 사는 그 허금동산 글로 헤영 셋질로 헤영.
108016 #5 으, 으.
108016 #1 아이고, 허벽 지영.
108017 @ 삼춘 여기 초집이라예. 옛날에는 집에 들어오젠 허민 질이 있었잖아예?
108017 #1 어, 올레.
108017 @ 올레예.
108017 #1 어.
108017 @ 올레 곧작허게 만들엇수과 아니면 영 휘여지게 만들엇수과?
108017 #1 휘여진 올레도 잇고 곧작헌 올레도 잇고. 그거 ㄱ트느냐게.
108017 @ 곧작헌 올레도 잇어난?
108017 #1 게, 곧작헌 올레도 잇주게. 경헌디 대부분 영 보민 고부라전. 올레 경 곧작 안 헌덴 옛날은.
108017 @ 그니까.

108017 #1 이 저 식이.
108017 @ 으, 식이.
108017 #1 아뿔 부제칩은 올레가 더 긴텐 허고.
108017 @ 으.
108017 #5 이제논이 가까운 집이 좋아도 옛날은 부제칩은 아주 쪽 잇어서. 올레가 길쭉허게.
108017 #1 이 성안이, 성안 올레쭈은 오죽 길어나시냐. 스몛. 우리 성안에 가젠 허민 잘도 길어낫주.
108019 @ 기지예. 예, 예. 게민 집이 오랑 출을 놀어낫수과?
108019 #1 집이 왕 출 놀주 어디 강 누느니?
108019 @ #1 #5 하하하.
108019 #1 맞디서 놀엇당.
108019 @ 맞디서 놀엇당.
108019 #1 또 집이 시꺼단.
108019 @ 시꺼단.
108019 #1 집이 오랑 또 놀고.
108019 @ 예, 게민 쉼 집이 있는 동안은 출놀이 옆이 잇어나서예?
108019 #1 게. 잇주게.
108019 @ 출놀 놀고 다른 것도 집이 왕 놀어낫수과?
108019 #1 게, 다른 것도 놀주.
108019 @ 조도 허민 시꺼당 놀고 보리도 허민 시꺼당 놀고 놀엇주게.
108019 #1 아이고 침 아니 눈 게 잇어게. 문 올레 안내 문 스몛 놀 천지주. 지들커도 헤당 데미고.
108019 @ 지들커도 헤당 데미고예.
108019 #1 게. 출 빌 때엔이 우선 불 슴을 검질도 비고.
108019 @ 예. 경 놀 잇이민 아이덜 곱을락 험 때 거디 강 곱기도 허고
108019 #1 하하. 어, 곱을락도 헛저. 곱을락 잘 헛주. 스몛 놀 뒤에 강.
<중략>
108020 @ 집이 통시도 잇어 나서예?
108020 #1 통시 잇주. 도새기 질루고.
108020 @ 도새기 질루고.
108020 #5 것ᄃ란 돛통.
108020 @ 돛통.
108020 #1 옛날에 저 보리썩 앳다 놉근에 또꼬망, 보리썩 빠근에 또꼬망 썩고.
108020 @ #1 #5 하하하.
108020 @ 게나 토평은 돛통이렌 불러난?
108020 #1 어, 돛통.

108021 @ 계민 여기 볼 일 보는 디도 잇고.
108021 #5 지들팡 놔근에.
108021 #1 팡. 건 디들팡이엔 현다.
108021 @ 지들팡?
108021 #1 디들팡.
108021 @ 디들팡.
108021 #1 으, 디들팡.
108021 @ 예.
108020 #1 돛도고리.
108020 #5 돛도고린 도새기 것 주는 거.
108020 @ 돛도리린 것 주는 거.
108020 #1 도새기 것 먹는 거.
108020 @ 계민 도새기 비 맞지 말렌.
108020 #1 거 집 짓어 준다. 주쟁이 차근에 집 짓어 주주.
108020 @ 돼지집 지어 주고예.
108020 #1 집 짓어 주주게.
108020 @ 겐 영 도새기 질룰 때 도새기 담 튀어 넘어 베꼈디도 가 불고 허고.
108020 #1 어, 막 돌아남 도망. 돌아남도 현다게. 돌아남도 행 이땅 암토새기나 질룰 때논이. 수툯 좇앙 뎡기주게. 수툯 좇을 뎡이 새끼 가지젠 허민. 저 새끼 가지젠 허민이 막 암토새기가 수툯을 좇앙 막 담 커 불고 막.
108020 @ 꺼꾸로 아니?
108020 #1 꺼꾸로 꺼꾸로. 야 이 도새기만은 꺼꾸로 뉘다.
108020 @ 아.
108020 #1 남저신디 남저신디 몰아가고. 몰아당 새끼 베왕 오랑 새끼 나고.
108020 @ 아, 새끼나고.
108020 #1 아이고 어뎡 허난 처레 앓이니.
108020 @ 도새기 도망가지 못 허게 담 다잖아예?
108020 #1 으.
108020 @ 거기에 뭐 가시낭덜 갖다 놓곤 안 험니까?
108020 #1 안 현다. 경 안헤도 어뎡 안 현다.
108020 @ 으.
108020 #1 도새기도 지 경 수툯 좇을 때만 그 남자 좇을 때만 폐까롭주. 경 안 허민 먹어지민 녹고 먹어지민 녹고 경현다. 어질어.
108020 @ 어질어.
108020 #1 으, 베고프지만 말민.
108023 @ 여기 쉼막 잇어나잖아예?
108023 #1 쉼막 저거 아냐.

108022 @ 저게예. 쇠막도 잇고 이, 이 농기구덜 보관허젠 허민 헛간도 잇어낫수과?

108022 #1 헛간도 잇주게. 헛간 잇주게.

108022 @ 아, 헛간도 잇고.

108022 #1 헛간 잇주.

108022 @ 쇠막 따로 헛간 따로?

108022 #1 어, 쇠막 따로. 연장 밧디 강 쟁기, 뭇 지게 거튼 거 문. 췌이, 췌스 량, 문 밧디 강 삽 그런 거 놓는 디 영헛 따로.

108022 @ 아, 따로 만들고.

108022 #1 으, 따로 만들어낫주게. 풍채 청.

108022 @ 뭇?

108022 #1 풍채, 풍채.

108022 @ 풍채.

108022 #1 풍채가 잇나. 영 느람쥐로 만들앙 영 풍채 영 흐쌀 영 이런 집 잇이 민 영 혜영 의지 허는 거.

108022 @ 아, 큰 공간 흐나가 아니고 쪼금만 허게.

108022 #1 으, 풍채 청 터가 잇이민게. 터가 잇이난.

108022 #5 큰집 허는 사름도 잇는데.

108022 #1 큰집 허는 사름도 잇주게.

108022 #5 땅이 족으민 족으대로.

108022 #1 우리거치 잇인 사름은 영 풍채 청.

108022 @ 으, 거기에 다 보관을 헛던 거.

108022 #1 보관해서. 자꾸 벧 맞앙 안 뒤주게.

108022 @ 예, 예. 게민 여기 뒤장 담고 간장 담은 향아리 잇잖아예. 그거는 어느 쪽에 놔 낫수과?

108022 #1 저 집 뒤에. 저 뒤에 놓주 뒤에.

108024 @ 그럼 여기는 뭇 장항굽이렌 헛니까. 뭇렌 헛니까?

108024 #1 어게, ㄹ레. ㄹ레짜 낵.

108024 #5 ㄹ레착 밑에 놓고.

108024 #1 동골락 ㄹ레 알아?

108024 @ 예.

108024 #1 그거 밑에 낵 그것더레.

108024 @그럼 그게 장항 굽이 되는 거?

108024 #1 어, 장항굽, 장항굽.

108024 @ 게민 그 항덜 다 모아 잇이난 그곳 전체를 뭇렌 곶아?

108024 #1 뭇렌 곶아 장독대렌 곶주.

108024 @ 그거는 표준말이고 제춧말로 곶는 거 잇수과?

108024 #1 제죽말은 거 그냥 뒤에 놔근에 이땅 영, 옛날 어른덜 영 보민 장항광
돗통은 멀어사 헌텐 허멍 장항은 영 집 뒤에 놓고 화장실은 멀게 허고 헤낫저게.
돗통은 멀리 허고.

108025 @ 계난 옛날 수도 엇이난 빗물도 영 받아낫잖아예?

108025 #1 아이고, 눈도 녹영 먹어낫저.

108025 @ 하하.

108025 #1 눈 오민 다라에 녹여근에 그거는 그거 먹어낫저.

108025 @ 으, 눈도 녹영 먹어나고.

108025 #1 으, 눈도 녹영 먹고 빗물도 받주게.

108025 @ 집이 큰낭 잇이민 거기에 줄, 줄 메영 영 향아리 낱 그물 받아낫잖아
예. 그거 뭐 받는덴 험니까?

108025 #1 지순물 받는 거주.

108025 @ 지순물 바든 거. 그거 뭐 춤 받는덴 안 허여?

108025 #1 으?

108025 @ 춤, 춤. 춤향? 여기 향아리 갔다 낱 여기 새끼줄 꼬은 거 갔다 낱 물
내리게예.

108025 #5 그런 것도 잇는 집 엇는 집 허여.

108025 #1 그거이 아무 집이나 건 엇나게. 잇는 집도 잇고 엇는 집도 잇고. 그
건 아무 집이나 엇나.

108025 #5 보통은 이 집이서 내리는 물. 보통으로 우린 영 지순물이엔 현다. 지
순물.

108025 @ 초집에서 영 내려오는 물 똑똑 떨어지는 거.

108025 #1 으, 으. 어게. 지순물 받아근에 우리. 먹진 안 해도 초불, 승키 거튼
거 우리 빨래허고 문 헤나시네게. 지순물 반양 하영 췌주 옛날에사.

108025 @ 기지에.

108025 #1 어, 눈 녹인 물도 곱닥헌 디 눈 해당 녹영 밥도 행 먹엇저.

108025 @ 그럼 춤향이렌 현 말은 안 들어봤수과?

108025 #1 어?

108025 @ 춤향. 춤향.

108025 #1 춤향?

108025 @ 예, 춤향.

108025 #1 장항 말사 들어봤주만은 춤향이엔은.

108025 @ 안 들어 반예.

108025 #1 으. 안 들어 봤저.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초집 지으면 초집은 지붕을 곱아줘야 험니께.

108026 #5 매해마다 혼 번은 우에.
108026 #1 일년에 혼 번 곱아사. 딱 일년에 혼 번. 안 곱앙은 못 살주게. 비 새
랑.
108026 @ 예.
108026 #1 새 해당 문 곱암주게.
108027 @ 예. 게민 새는 준비헤야 될 거. 새랑.
108027 #1 새 준비헤여 각단 준비헤여. 경헤영 줄 놔.
108027 @ 새는 뭐고 각단은 뭐?
108027 #1 각단은 쫓른 거. 줄 놓는 거 뽕뽕. 새는 더끄는 거.
108027 @ 더끄는 거. 게민 각단으로 행, 새도 비여왕 데며 놓고.
108027 #1 으. 각단도 헤다 놓고.
108028 @ 줄을 만들어야쿠다예?
108028 #1 으, 호렝이 멘들앙 이제 그 줄을 비여. 놓는 사름 행 줄을 비여.
108028 @ 집줄 놓젠 허민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허여?
108028 #1 췌 번은 두 사름이민 돼는디 어울릴 땐 세 사름 네 사름 들어.
108028 @ 네 사름예.
108028 #1 으. 줄 어울려사, 줄 어울려사.
108028 #5 맞아. 네 사름.
108028 #1 네 사름 빌어사.
108028 #5 들리가 비고 혼 사름 가운데 사고 또 한 사람 헤사.
108028 #1 영 허영 영 줄 어울렝 영 노 꼬앙 멘들아 가지고 그 사름 하나. 뒤으
론 뽕뽕 허는 사름 하나. 또 두 밧디서 영영 비고.
108028 #5 두 개가 어울리제 허민.
108028 #1 경헨 네 사름.
108028 @ 네 사름.
108028 #1 일 년에 혼 번은 푹 지봉 곱아사. 느랑 하이고 얼마나 걱정헤나시니.
우린 이녁밧 엇이난이 새철 나오라 가민 스몏.
108028 #5 거 봉그레 산에.
108028 #1 하하하.
108028 @ 비레.
108028 #1 으, 산에 봉그레.
108028 #5 봉그레, 봉그레. 이녁 밧 엇이난.
108028 @ 뭇 봉그레.
108028 #1 새 봉그레. 새가 쫓금씩 쫓금씩 봉가와야지. 가민이.
108028 @ 아, 그걸 봉근덴 험니까?
108028 #1 으, 우리 봉그레 간 거주게.
108028 @ 비레 가는 거주.

108028 #1 비레 무신.

108028 #5 새 봉그레, 새 봉그레 현다.

108028 #1 새 봉그레 우리 가노렌 현다.

108028 @ 계민 요기 강 흐 줌

108028 #1 어.

108028 @ 요기 강 흐 줌 비고 또 저디 강 흐 줌 비고?

108028 #1 저 멩게낭 엠에라도 시민 그거 강 흐 줌 비고. 우리 경 설롭게 살았저.

108028 @ 아이고게 고생헛수다.

108028 #1 부제칩인 이녀 새왓 잇수게. 우린 출이나 새나. 경허난 원 침. 사름이 옛영 살 건 아니주, 벨 거 다 행 살았저. 각단 거, 강정침이ㄴ라 각단 흐쉴 도렌 허난, 아이고 우린 비단 남으카 원 남으카 헨게.

108028 @ 하하. 계민 각단으로 줄을 영 만들앗수다, 꼬앗수다예.

108028 #1 으, 으.

108028 @ 줄은 길게도 꼬고, 진줄도 만들고?

108028 #1 이 집에 맞창.

108028 @ 이 집에 맞창.

108028 #1 삼간집이민 삼간집이 맞추고 스간집이민 스간집이 맞추고 긴 줄.

108028 @ 으.

108028 #1 즈른 줄. 이건 즈른 줄.

108028 @ 긴 줄이렌 헛수과, 진 줄이렌 헛수과?

108028 #1 긴 줄이렌 안 허영 옛날은 건 줄 건 줄 헛저. 옛날엔이 옛날말은 건 줄 썩른 줄. 경헤났저.

108028 @ 아.

108028 #1 영 ㄴ로 허는 건 썩른 줄.

108028 @ 썩른 줄.

108028 #1 영 길게 허는 건 건 줄. 경헤났저. 경허난 맞추앙 줄 놓는네게. 맞추앙.

108028 @ 예.

108028 #1 진 줄 즈른 줄 맞추앙 경 아무상 잇이 허는 건 아니.

108028 @ 계난 그 줄 만들젠 허민 뭐가 필요허여, 아까?

108028 #1 각단.

108029 @ 각단 말고 영 돌리는 거?

108029 #1 호렝이.

108029 @ 뒤에서 영 꽃앙 세우는 거?

108029 #1 그거ㄴ란 줄 어울리는 거 어디 강 아져 오라, 아져 오라 허주. 우린 비는 건 호렝이렌 헤났저.

<중략>

108030 @ 계난 영 하면 초집 밑에 뭘 대잖아예?

108030 #1 계, 대 돌아맨다. 대 돌아맨다. 서리 끝에.

108030 @ 서리 끝에.

108030 #1 서리 끝에 헤영 대 영 헤영 무끄주게.

108030 @ 예.

108030 #1 경헨 무꺼근에 대 영 딱딱 텅인다가 텅영 낫당 줄 등경 그 줄에 무 끈다게.

108030 @ 그 대를 뒤편 곶읍까?

108030 #1 왕대.

108030 @ 왕대. 그거 거왕이렌 허는 말 안 써?

108030 #1 거왕이엔 말 나 안 들어봤저.

108030 @ 벵두암, 썩고대 안 들어 봤? 그냥 왕대렌만 허는 거예?

108030 #1 왕대 끈어와사 이 서리 끝 무끄컬 헤낫주. 우린 왕대도 엇고 족대도 엇고 허민. 것도 빌어 와사. 이젠 공짜로 안 줄 거여. 옛날은 그자 공짜덜 하난 빌어 왔주.

108032 @ 계난 영 줄 헤나면 집줄 남으민.

108032 #1 남으민 호미로 끈영.

108032 @ 남으민 호미로 끈영. 재미 남은 거 가정 뵈도 만들고 험니까?

108032 #1 남은 걸로 흘 거 엇나. 기자.

108032 #5 집 뵈 거, 뵈 거.

108032 #1 밥도 험 먹고.

108032 @ 방석 같은 거 안 만들고?

108032 #1 아니. 방석 못 만들야.

108032 #5 방석을 새로 줄 헤근에 다 만들양 앓아.

108032 @ 아, 어쨌든 찌른 거 요만이 허게.

108032 #1 경허난이 줄 일단 걸게 놔진 건 하영 남아도 경 하영 남지 안 현다. 맞추양덜 놓는 따문 남지 안 현다. 」

108032 @ 아. 맞추양.

108032 #1 아이고, 옛날에 큰집덜이사 새 오죽 하영 들어서냐게. 새 하영 들언.

연장

108033 @ 계민예. 집 짓젠 허민 연장덜이 필요험 거잖아예.

108033 #1 집 목시 연장 목시가 알주.

108033 @ 계니까 일름 알아지는 것만 곶아줍서.

108033 #1 알아지는 거 뵈 나 모르켜. 옛날에 자귀허고.

108033 @ 자귀.

108033 #1 자귀 허고 무시거 번자귀여 뭐, 대패여 뭐 거베긴 엇어.
108034 @ 낭 자르젠 허민?
108034 #1 톱.
108034 @ 톱. 그런 거 잇어야 헐 거.
108034 #1 으, 그런 거.
108034 @ 기민 톱은 자르는 거라예.
108034 #1 낭 그치는 거. 또 대패엔 현 건 낭 미는 거. 자귀는 닥닥 찍는 거.
108035 @ 게민 못 박을 때는?
108035 #1 못 박을 땐 무시거니?
108035 @ 못 박는 거.
108035 #1 못 박는 것ㄴ라 무시거엔 허느니? 아이고 거 끝나만은 잇어벳저 것도.
108035 @ 예, 예. 좋수다, 좋수다.
108035 #1 두 가지 돋은 걸로 행 두 가지 돋은 걸로 못 박나.
108035 @ 예, 예. 그럼 이걸로 못 빼고.
108035 #1 박고. 못빼기엔 굴아 지금은. 못빼기엔 굴아났저. 못빠는 거난 못빼기
라 거.
108034 @ 예, 예. 톱에도 여러 종류가 이실 거 아니?
108034 #1 아이고, 잇주게. 큰 거 죽은 거 다. 그 톱ㄴ라도 무신.
108034 #5 양 큰 톱은 거뒤양.
108034 #1 거뒤. 완전 큰 톱ㄴ란 거뒤엔 허고 또 죽은 톱ㄴ라 다 일름은 잇어.
108034 #5 죽은 톱은 톱이엔 허고 큰 톱은 거뒤엔.
108034 @ 음.
108034 #1 거뒤 허고 죽은 톱일 거여.
108033 @ 예. 영영 벳기는 건?
108033 #1 자귀.
108033 @ 자귀예. 집 짓는 목수는 자때도 이실 거라예?
108033 #1 아이고 잇고 말고. 엇인 거 엇나게.
108033 @ 엇인 거 엇어예.
108033 #1 으.
108039 @ 우리 여기 뭐 헐 때, 흑 벳를 때. 흑 벳를 때 쓰는 거.
108039 #1 췌손.
108039 @ 옛날에 흑손이엔도 굴아났수과?
108039 #1 옛날은 췌손으로 안 헐다게.
108039 @ 예.
108039 #1 낭으로, 낭으로이 즈룩 돈양 멘들주게.
108039 @ 멘들양.

108039 #1 으, 멘들양 그것ㄴ라 것도 일름 잇엇저만은 몰르켜. 멘들아근에 크게 멘들양 짝허게 손으로 앓양 착허게 부지데기명 헤 왕 그거로 짝 민다.

108039 @ 으.

108039 #1 경헨 꼭꼭 누르뜨고.

108039 @ 누르뜨고.

108039 #1 고망더레 찢러사주게 후.

108039 @ 그니까 잘 들어가게예.

108039 #1 으, 으. 그 담 고망더레 들어가사 헐 거난.

108039 @ 예.

108039 #1 꼭꼭 누르뜨다. 낭으로 허영.

108039 @ 으.

108039 #1 이젠 췌손으로 허주만은 그땐 낭. 낭손.

108039 @ 낭손. 낭손이렌 곁아난?

108039 #1 으, 낭손. 옛날은 낭손.

108039 @ 게민 목수는 영 선 그리젠 허난 뵈도 그리는 것도 가정 다닐 거 아 니?

108039 #1 목수사 다 가정 다니주.

108038 @ 거 먹통 먹줄 들어 봤수과?

108038 #1 으, 먹통 먹줄. 먹통 먹줄 아정 다니고게, 자 아정 다니고 문딱 아정 다닌다 목췌게.

108038 @ 목췌예. 겐 집 짓을 때 췌던 거라예.

108038 #1 으, 다 췌 옛날이고 이제고 목췌는 그 연장을 아정 뵈긴다.

108038 @ 예.

108038 #1 초집 짓을 때나 이제 집 짓을 때나. 이젠 기술이 더 종양 기계로 험 시네게.

108001 @ 게민 이 집 짓을 땐?

108001 #1 이 집 짓을 땐 그추록 안 헛저게. 이건 신식 집으로 짓은 거난. 하이 고 이거 옛날에 이거, 이거 짓건 디도. 이거, 이거 흔 칠십 년 뵈 거 님다.

108001 @ 칠십 년 아니. 삼춘이 지금 여든하나니까. 시집 왕 몇 살에 지엇수과?

108001 #5 나 이거 흔 오십췌에 짓어져실 거여.

108001 @ 오십이난 얼마 안 뵈수게.

108001 #1 아니, ㄴ만시라 더 뵈저, 더 뵈저. 나 우리 저 누게가 물애기 때 나 수술, 수술.

108001 #5 이거양 흔 오십 년은 뵈서.

108001 #1 오십 년 넘어서. 오십 년 넘엇저. 난 흔 칠십 년 뵈 줄 아는 디.

108001 @ 칠십 년이면 삼춘 열 살 때우다. 열 살 때고.

108001 #1 으, 여든 ㅎ나난이. 이것이 나 간장염 수술헐 때난.

108001 #5 오래됐여사 흔 오십 년이우다.
 108001 @ 예, 예.
 108001 #1 간장염 수술할 때가 오십 년인디 그때 헤져신가 원.
 108001 @ 큰아이 몇 살 때쯤?
 108001 #1 아이고 것도 모르켜.
 108001 #5 아이덜 다 이디서 낫수과?
 108001 #1 아니여 동네커리에서 낫저게. 늬의 집 살 때 낫어. 늬의 집 살 때.
 108001 @ 으.
 108001 #1 늬의 집 살 때 큰년 나고 큰놈 나고 저 셋놈은 기하네 집이서 나고
 죽은놈 이디 왕 낫구나. 경허난애.
 108001 @ 죽은놈이 몇 살이과?
 108001 #1 이거 흔.
 108001 #5 승희가 지금 마흔 다섯인가 으섯인가?
 108001 @ 계난 오십 년 정도 돼신계.
 108001 #1 그자 오십 년. 오십 년이여계. 이추록 곶을 줄 알아시민 문딱 적엉
 놔 둘 거.
 108001 #1 @ 하하하.

9. 신앙

109001 @ 이번엔 신앙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쿠다. 그 가신이라는 거, 집 신,
 가신이라는 거 알아지쿠과?
 109001 #1 가신?
 109002 @ 집에 있는 신. 그럼 집 지으면 성주허잖아예?
 109002 #1 어, 성주 내는 거.
 109002 @ 성주 내는 거. 성주 내는 거 어떻 험니까?
 109002 #1 심방 돌아당.
 109002 @ 언제 성주를 냅니까?
 109002 #1 옛날엔 집 짓으면 똑 백일 안에 헤낫저만은 이젠 기자 일 년 가도
 좋고 멧 년 가도 좋고 또 구신 올리지 안 행도 허고. 경험 성주는 꼭 낸다.
 109002 @ 집 다 짓기 전에?
 109002 #1 아니, 다 짓어냥, 완료헤 낵. 완료 헤 낵 성주낸다게. 경험 슨님도 들
 아당 허는 사름도 잇나만은 심방을 돌아당 허주게. 대개 경우는.
 109002 @ 심방 돌아당. 계민 그날 흐루종일 험니까?
 109002 #1 으, 흐루종일. 단지 오랑 성주만 내지 안 허주게. 성줄 내젠 허면은
 뭐 앓은 제도 앓은제 부청도 허고 일월 맞이도 허고 칠성 맞이도 허고 갱험 허는

따문 혼, 앓은제 허젠 허민 혼 삼일도 성주 걸청 허고.

109002 @ 아.

109002 #1 또 문딱 헤진 사름은 단지 성주만 내젠 허민 오랑 혼 멧 시간 낮 전 이 행 가고 경헌다.

109002 @ 계민 동네 사름덜도 먹으레 오는 거.

109002 #1 어게. 아고 거기 성주 념젠, 앓은제 험젠 우리 문 보레 간다.

109002 @ 앓은제?

109002 #1 으, 앓은제엔 현 건 삼일 허는 것ㄴ라 앓은제엔 현다.

109002 @ 아, 삼일이냐?

109002 #1 큰곳은, 큰곳은 옛날엔 혼 오일 허주. 큰 제 세왕. 경허는 건 큰곳 그 집이 험젠. 이 죽은곳은 앓은제. 죽은곳은 삼일 안에 허는 건 앓은제엔 헤낫주 우리 그뻐. 경헤근에 헤낫저. 나도 앓은제 헤낫저 이디서.

109002 @ 앓은제, 계니까 집 짓고나서예?

109002 #1 으, 삼일.

109002 @ 그거 집 짓영 성주 허는 거 말고도 집이서 곳을 헤낫수과?

109002 #1 아프나 누게 무시거 허민.

109002 @ 누게가 아프민.

109002 #1 푸다시. 아프민 아무라도. 아이가 아프난 어른이 아프난 허민 푸다시 허고.

109002 @ 삼춘네는?

109002 #1 우리도.

109002 @ 누게 아팠 헤낫어?

109002 #1 아이덜 흐졸 저 녁 난 일이 잇언에.

109002 @ 으.

109002 #1 동창인디, 동창인디 이 알동네 아이 ㄴ튼 동창인디 어떻헨에 이 동창 각시가 야개 돌아정 죽어불언게. 육지 강. 육지서 야개 돌아정 죽은디 이젠 그 동창 이 우리 큰놈신디 전날 간 거라. 전나 가난 흐졸 천천히 오주만은 경찰관보단 먼저 오난 지렝이 돌아진 걸 받게. 아이가 녁 나벳주게. 경허난에 나 녁 들여줬주, 심방 행. 녁 들여 줘낫저. 경헨 푸다시 이 알드르로 강 푸다시 헤낫저. 푸다시엔 끝나.

109002 @ 계난 우리 영 집안에 신이 잇덴 생각허는 거 아니예?

109002 #1 그자 집안에서 허주게. 신은 초상덜은 문 불러들이는 거.

109002 @ 불러들이는 거.

109002 #1 심방이. 문 읍센.

109002 @ 읍센.

109002 #1 읍센, 오늘 영 험수덴 불러들이는 것ㄴ라 신 청헤, 신 청헤 경헤낫저 게. 신 불러들이는 거엔 헤낫주. 심방이 불르는 거. 경헤영, 경헤영 문 이 저 질 쳐, 질 쳐. 느네 이 질 치는 것도 들어봐실 거여. 이 문 초상덜 질 치는 거엔. 경허민이

문 열두 문에 이디 영 대 세와, 대 세왕 열두 문에 인정 들양 이제 돌아상 *** **
*** 경헨 문 신긋.

109002 @ 신긋.

109002 #1 신긋 경허멍 헌다게. 경헤낫저. 굿도 혼 두가지냐게 멧 가지주. 스뭇
멧 가지 천 가지주.

109002 @ 음.

109002 #1 굿허는 것이.

109002 @ 계난, 계난 삼춘네는 아까 큰아들이 그때 헤 보고 집 짓엇을 때 헤보
고.

109002 #1 으.

109002 @ 경헨거라예.

109002 #1 으, 셋놈도 혼 번. 보렌 헨 푸다시 허고.

109002 @ 녁들이는 걸로예.

109002 #1 으, 녁들이는 걸로.

109002 @ 옛날에는 경 동네에 굿허는 게 하영 잇언예. 저도 어린 때.

109002 #1 아고, 글로도 둥둥 일로도 둥둥. 이제난 엇엄주.

109002 @ 그니까. 이제난 엇엄주예.

109002 #1 옛날에 기자 쾡쾡 부수우는 디가 천지.

109002 @ 예.

109002 #1 천지백가. 이젠 침 신식이여.

109002 @ 계난예.

109002 #1 나도 이젠 다 손 낱 우리 메뉴리덜 육지서 절간에 탕기난 기자. 침
이젠 난 손 낱 아무것도. 으든이 넘어가민 이젠 원 헐 무시것도 아니주게.

109002 @ 계난 당에는 다녀난 거 아니예?

109002 #1 으, 어게. 일뤼 으드레에 가꼭게. 유월나민이 유월 초 으드레 초 일뤼
경헨 알당에 가고.

109002 @ 음.

109002 #1 정월 나민 집이서 올레 코시 허고.

109002 @ 올레 코시 허고?

109002 #1 으, 경헤근에 헤낫저. 늘 헤낫저. 경헌디 이젠 나가 으든이 넘어 가
민.

109002 @ 이 토평에 당이 멧 개나 잇어낫수과?

109002 #1 이 감동당.

109002 @ 으, 감동당.

109002 #1 이 저 감동당 허고 또 알드르, 알드르 당. 알당, 알당.

109002 @ 예. 두 개예.

109002 #1 으, 두 개. 당은 두 개.

109002 @ 삼춘이, 삼춘이 다녔던 건.
109002 #1 어, 난 두 밧디.
109002 @ 두 밧디 다 다녔?
109002 #1 어. 알뜨르 강 알당에 가사게 일뤼, 으드렌 알당에 가고.
109002 @ 어.
109002 #1 감동당에 땡겨 낵 알뜨르 가는 거 아니냐.
109002 @ 여기 먼저 가는 거?
109002 #1 일뤼날은이.
109002 @ 예.
109002 #1 일뤼날은 이 토폽 알당에 가고.
109002 @ 예.
109002 #1 으드레 낵은 바당에 알당에 가고. 경헌다게. 이딘 이틀.
109002 @ 아, 바당이 알당?
109002 #1 이제도, 이제도 땡겜서.
109002 @ 땡기는 사름 잇갯주마씨.
109002 #1 아고 이제도 땡긴다. 이 우녁집인 땡긴다게. 젊으난. 나보다, 나광 이젠 열나 차이난.
109002 @ 으.
109002 #1 땡겜저게. 경헌디 이 칠십 넘어가민 모든 거 다 구신이 돌아사분덴 허주게. 경헌디 난 기자 으든 나가난 설러벳주.
109002 @ 으.
109002 #1 이젠 마지막으로 심방 돌아당 마지막이우다 허영. 나 경 수술도 하영 받고 아프고 헤가난 마지막이우다 행 이제 돌려시네. 경헤영 심방 돌아당 빌언.
109002 @ 아, 그거 끝낼 때도 심방?
109002 #1 어게. 아이고게. 빌어사주게. 경헌 마지막이우다. 나가 아프니까. 경헌 설러벳저.
109003 @ 문전은 뭐과, 문전?
109003 #1 문전, 문전은게 이 문전에 출려 낵 허는 거.
109003 @ 식게 때?
109003 #1 으. 문전제, 문전제.
109003 @ 문전제, 문전제 헛던 거.
109003 #1 으.
109004 @ 조왕에 대해서?
109004 #1 조왕제, 조왕제 그거는 조왕제엔 현 건 이 심방을 때. 체서 때엔 안 현다 조왕에. 이 심방 올 때엔 조왕제렌 현 조왕에. 조왕 모른 공스가 어디시린 글로 음식허는 따문이.
109004 @ 음.

109004 #1 글로 음식히는 따문 심방 올 땐 빌어. 경헨 조왕제 헤낫저게. 제서 땐 조왕제 안 헨다. 일월엔 논다.

109004 @ 일월에?

109004 #1 으. 일월에 냐.

109005 @ 고평제 험니까, 제사 때?

109005 #1 고평제가 일월제주게. 이 저 칠성제가 고평제주.

109005 @ 아, 칠성.

109005 #1 칠성이 고평제 아니냐.

109005 @ 예.

109005 #1 경허민 칠성 일월은 어떤 집이라도 잇주게.

109005 @ 예.

109005 #1 경헨 잇이민 그 일월도이 선씨 일월 이시 일월, 오씨 일월 경허주게. 경허민 우린 이씨 할망 막 어진 할망, 순한 할망이엔 허주. 선씨 일월 잇인 집인 막 **허고 헨다. 잘 아니 모시민.

109005 @ 아니, 그 할망덜도 다 성씨가 잇어? 오씨, 이씨?

109005 #1 어, 어 잇고. 아이구.

109005 @ 아이구.

109005 #1 성 엇인 할망이 잇느냐?

109005 @ 아. 게른 삼춘네는 이씨 할망?

109005 #1 이씨, 으, 우리집인 이씨 할망. 막 순헌 할망이엔 곤나게. 이씨 할망은. 우리 오침인. 경허고 이 김침이나 고침인 선씨 일월. 선씨 일월 신 집인 막 선씨. 딸에도 좇아간덴 옛날에 새각시 우리 옛날 할망덜 새각씨 구허젠 허민, “에, 그 집이 딸 구허지 말아 선씨 일월 잇어.” 영 곺아낫저.

109005 @ 아.

109005 #1 선씨 일월이 췌여.

109005 @ 아, 여저안티 따라가는 거?

109005 #1 으. 선씨 일월이 막 췌텐 헨다게. 느네 어무니 살아시민 그런 거 저런 거 다 알 거여만은.

109005 @ 계난예. 살아계실 땐 그런 거 물어볼 생각도 못허고예.

109005 #1 아고 맞다. 맞다, 맞다. 곺아도 느네 알도 안 허고.

109005 @ 예.

109005 #1 알도 못 헨다. 우리 딸덜 이제 곺아도 저 어멍 저 허주겅이 곤는 거. 에이구. 베고파나ㄴ렌 허민 우리 족은놈 라면이라도 끌렁 먹주.

109005 @ 하하하.

109005 #1 어느절에 라면이 어디서. 아이고 원 원 곺은 필요도 엇고.

109005 @ 예, 예.

10. 세시풍속

1월

110001 @ 이젠 세시풍속이우다. 세시풍속은 정월달은 뭐 해 나고, 이월달은 뭐 해나고 시기별로예. 우선 정월달부터 물어보쿠다.

110001 #1 정월달에사게 무신 정월달에 일러근에 곡석은 안 해 봤저게. 이월 삼월 나사 헛주게.

110001 @ 정월명절을 곁아줍서. 정월명절을.

110001 #1 정월명절은 초흘날.

110001 @ 초흘날. 계민 초흘날 뭐 허는 거라 정월명절에는?

110001 #1 정월명절에 무시거 허느니 기자 떡 허고 떡 행 올리고 스몏 이제 하간 거 원. 이제 허듯 이때 허듯 험주. 이제 잘 출렁 올리고. 옛날엔 엇이난 기자.

110001 @ 계난 지금이야 우리 명절 해 먹는 거 전날 음식 행 다음날 명절날 제만 지내불민 끝나잖아예. 옛날엔 경 안 해실거 아니?

110001 #1 옛날은 세배 오는 따문.

110001 @ 음.

110001 #1 세배 오는 따문 옛날은 삼일은 걸쳐 정월 명절엔.

110001 @ 정월 명절엔.

110001 #1 삼일 동안은 한복 벗지도 안 허여. 세배 경 텅기는 이 부락. 부락 세벨 경 텅것주게.

110001 @ 기지에.

110001 #1 어, 부락 세벨 경 행 텅기민 삼일 동안은 골감주 해 낫다근에 기자 이제 문 허고. 또 방상에 웨방서나 완직 허민 떡국도 행 낫당 뒷날꺼장은 또 뒷날 삼일 동안은 정월 명절은 삼일 동안은 원. 옛날은 처갓집이 가젠 허민 삼일 후제사가 낫주 손님 문 받아나사.

110001 @ 예.

110001 #1 이젠 그날덜 문 친정에 가켜, 친정에 가켜. 경덜 헛주.

110001 @ 으.

110001 #1 옛날은 딱 삼일 정월 명절은.

110001 @ 기지에. 세배 받젠 허난.

110001 #1 어게. 경헛주. 팔월 명절은 해 먹으민 어가라 출 비레. 앓을 시간이 어디서 날만 좋으민 출 비레.

110001 @ 으.

110001 #1 아고 출 강 데싸사켜. 흐저 강 무꺼사켜. 아이고 앓을 시간이 어디 잇느니.

110002 @ 저기 정월 보름도 해낫수과?

110002 #1 옛날이사 보름 한식 하이고.

110002 @ 계난.

110002 #1 한식 멩질, 보름 멩질 문 옛날엔 문 헤낫저만은. 오월 멩질에도 단오, 오월 단오엔 허멍 단오에도 문 무시거 헤나고. 이젠 그런 거 저런 거 오월 멩질도 설르고 이젠 한식도 설르고 문딱 설러부난 이젠 윈 윈. 기자 팔월 허고 정월만 험주.

110002 @ 정월 보름에는 뭐 험니까?

110002 #1 정월 보름엔 옛날엔 저 보름 떡 처근에 제를 지내나서 정월 보름날 저녁. 이 옛날 어른덜 무시거 젤 지내낫주만은 그거 우린 흐썬 허단 설러불언.

110002 @ 아, 헤낫수과?

110002 #1 으, 흐썬 허단 설러저. 정월 보름에 저 이디 시할망 죽어부난. 시할망 산 땐 헤낫저만은.

110002 @ 아, 아 할무니 계실 때.

110002 #1 시할망 돌아가난 설러벤.

110002 @ 시할망이 시어머니 얘기허는 거예?

110002 #1 시어머니님 시어멍.

110002 @ 아.

110002 #1 나에 시할망.

110002 @ 계민 시어머니랑 시할머니랑 다 같이 살아난 거?

110002 #1 ㄱ친 안 살안에 우리 시할망은 따로 살았저게. 따로 살아.

110002 @ 아.

110002 #1 쟁험 그 할망이 다 우리 시어머니신디 물러줘낫저게.

110002 @ 으.

110002 #1 쟁 물러쥬 우리 시어머니대에 흐썬 허다근에 한식도 시할머니 돌아가난 설러불언.

110003 @ 것도 설러불고예. 저 방세, 액막이?

110003 #1 액막이 ㄱ튼 것사 우리 므슬 갈 때 영 발로 영 바랑 자로 석자 두치가 액뻘이 접는 거여게. 액뻘이엔. 아고 액뻘이 접앙 놔 뒤사, 액뻘이 접앙 놔 뒤사. 밤이 접아사느네 낮이 어멍 한걸이 앳앙 접는니게.

110003 @ 예.

110003 #1 그 저르질 때 그 농서 짓고 허민이.

110003 @ 건 무사 접는 거, 액뻘이?

110003 #1 썬 기레 답아, 썬 답아. 양펜이 담주게 잘리 영 흐 발 바라근에이. 요만인 줍주게. 주워근에 썬 흐 뒤썬 그레 답나게. 썬 흐 뒤썬 담으민 그 썬에 이 아 이덜이 펜안허고 굿고 쟁고 현 거 썬앙 제비 썬앙 주는 거.

110003 @ 아.

110003 #1 액뻘이 행 가민. 쟁허는 거 아니냐.

110003 @ 예, 경헨 액뎡이 허는 거.
110003 #1 어.
110003 @ 방세는 마씨?
110003 #1 방세?
110003 @ 예, 건 몰라? 방사, 방세.
110003 #1 방세는 잘 모르켜. 액뎡이엔 현 거는 영 액뎡이엔 영 현 건 밥이영
쫄이영 밥부터 낳 영 주먹만이 췌영 액뎡이 바당도 강 액뎡이엔 헤낳저.
110003 @ 거 데껴부는 거 바당에?
110003 #1 어게 바당물에 강 들이치는 거 액뎡이.
110003 @ 으.
110003 #1 경헤낳저.
110004 @ 여기 토평리 포제 헤낳수과, 포제?
110004 #1 어, 인정오름에 헤낳저. 포제 헐 때는.
110004 @ 인정오름?
110004 #1 어게. 이 인정오름. 토평에 인정오름.
110004 @ 예.
110004 #1 그디 포제 허단 이제 설러부난 젊은 아이덜 하영 죽엄저 무시거엔덜
곧나 어른덜.
110004 @ 아. 이제 안 헤 부난.
110004 #1 어게, 어게.
110004 @ 언제 없어진 거라? 한 몇 년?
110004 #1 이거 혼 이십 년.
110004 @ 아, 오래 뵈구나 여긴예?
110004 #1 어게. 여긴 생효는 이제도 험실 거여.
110004 @ 아니 남원 같은 데도 이제도 험십디다.
110004 #1 아, 생효도 이제도 험서. 우리 토평만이 어뎡헨 이장을 첨 호근리 살
단 사름이 저 토평 성안이 부제칩이 우리 오칩이 사름이라. 오칩이 일가라. 양젤 들
아왔주게. 우리 오칩이 양젤 돌아와신디 그 이장대에 확 설러라게.
110004 @ 음.
110004 #1 그걸 확 치와베라게. 경 치와베신디 그거 안 헤부난 토평 젊은 아이
덜 하영 죽엄젠 곧나게.
110004 @ 음.
110004 #1 그거 안 헤부난 이제내낭 곶아.
110004 @ 계민 옛날에 포제 헐 때 생각해 보면 막 금줄 메고 경 헤낳수과?
110004 #1 금줄만이라게. 포제 허젠 허민이.
110004 @ 예.
110004 #1 우리 하르방도 나간 헤낳저만은 딱 정성이 일주일이라. 올레 베꼈디

안 가.

110004 @ 안 가.

110004 #1 올레 베꼈디도 안 가고 올레 베꼈디 사름 들어오게도 안 허고. 경헌 이제 그 안에 제관들은 그디 멧 사름, 그디 포제 막을 사름덜은. 제라헌 제관은 원 첨 제라허게 정성을 이만저만 안 해 낫저.

110004 @ 계민 제관을 어떻 정허는 거라?

110004 #1 어떻헌 정허느니게. 제관은 그 축 읽을 제관. 그디 가근에 그 축을 읽는 따문 제관도 아무나게 경 축, 대학교 나오랏다고 그 축 못 읽어. 경허난 한문 배운.

110004 @ 어른덜.

110004 #1 으, 한문 배운 어른덜 그 제관으로 논다게. 경허민 그런 제관덜은, 그디 강 입을 옷도 도복이엔 현다. 도복.

110004 @ 으.

110004 #1 베로 행 즘진 베로 행 도복 헛단 그 도복은, 제 지내는 디 도복은 아무나 빌려 주지도 안 허여. 그추록 정성행 허단 이제 안 허난에게 스뭇 이 젊은 아이덜 액 굿영 죽엄젠 현다게. 젊은 아이덜 막 하영 죽엇저 우리 토평. 이상케 젊은 아이덜 하영 죽엇저 원 원.

110004 @ 음.

110004 #1 이제도 젊은 아이 아판에 가이 이제 혼 오십 넷, 오십 넷 난 아이도 이제 오닐 널, 오닐 널 험저게 원 남저 아이. 경허난 재산 망허고 사름 망허고 험저게. 계난 우리 토평만 제 안 해부난.

110005 @ 안택은 뭐과, 안택?

110005 #1 안택이엔 현 것ㄴ라 올레코시엔 현다. 안택.

110005 @ 아, 이거 올레코시?

110005 #1 어. 올레코시 허젠 허민 안택 안 넘겨. 올레코시엔 안 곶아 안택이엔 곶아.

110005 @ 계난 삼춘 올레코시 헐 때 어떻 헤낫수과?

110005 #1 올레에 솟 매고.

110005 @ 솟 매고.

110005 #1 솟 매고 헤근에 이제 심방 들어오라사. 삼일 솟 안 매주.

110005 @ 으.

110005 #1 삼일 솟 딱 멧당 그 심방 들어오민 클른다게.

110005 @ 으.

110005 #1 클렁 허민게 오랑근에 안택이엔 현 거 이제 집안에.

110005 @ 편안허렌.

110005 #1 어, 든 안택 든 제물, 이 돌레떡 해 놓주게.

110005 @ 예.

110005 #1 그슬리는 식물줄 해근에 ** 하나도 엇이 우리 정성 해영 혼 말 강
굴아당 돌레떡을 집어서 만들주게. 만들고 제숙은 혼 일곱 개곱 나게. 줌지롱헌 거
해당 일곱 개곱 나게 허고 허민 안택이라고 문 안내서 문딱 허영.

110005 @ 떡은 돌레떡만 허여, 다른 건 안 허여?

110005 #1 아니, 돌레떡 허고 과일 허고 제숙 허고 원 그거주. 그거 허영 득 질
룬다. 득. 득은 장득. 장득은 죽여사 목숨 하나 바찌는 거엔 허영 장득 질룬다게.

110005 @ 아.

110005 #1 장득도 우는 거. 아니 우는 건 안 돼여. 우는 거 해다근에 저 문전에
탁 허게 문전에서 야가지 탁 그창 문전에서 놀리민, 올레레 놀리민 그것이 올레코
시.

110005 @ 아.

110005 #1 경허는 거 아니냐.

110005 @ 기과?

110005 #1 으, 경헨 올레코시. 올레코시가 그거. 경헨 올레로 이 문전에 놔 난
거 다 케우리민 올레코시주. 집안에서 현다 안택. “그 집이 안택 념건.” 경허주.

110005 @ 기민 그 죽인 닭은 먹어?

110005 #1 어게. 어떻 안 현다.

110005 @ 어떻 안 헤.

110005 #1 건 먹나. 저 데가리만 우영더레 강 데가리만 물어 분다. 경헨 그 득
을 꼭 놀리민이 그 득이 데가리가 올레레 가면은 막 그 집이 좋덴 허고 돌아오면은
올레레 가도록 스못 케우리명 술 비우명 막 올레레 돌아가도록 데킨다. 그 득 데껴
보면 안다.

110005 @ 어쨌든 부정헌 건 다 득안테 담양 데껴부는 건게.

110005 #1 으, 으. 안택할 때 득은. 안택이 올레코시주.

110006 @ 올레코시에. 그 정월에 보리 밟기 험니까? 보리밭 밟기.

110006 #1 어, 정월에 보리밭 정월에 밟나. 시월달에 보린 가는 거난.

110006 @ 예, 가는 거난예.

110006 #1 정월 나가민 고사불주게. 밟이 고사. 경허민 기자 뽕뽕뽕뽕 블라. 나
도 보리밭 블르레 가 왔저. 부정게 부정.

110006 @ 부정.

110006 #1 뽕뽕 블르민 보리가 밟 부떠근에 막 좋아.

110006 @ 으.

110006 #1 경헨 문 블르주게. 메칠 가왔저.

110007 @ 걸궁은마씨 걸궁?

110007 #1 이 걸궁이엔 현 건 우리 부락에서 일 년에 혼 번도 허고 혼 멧 번
이 걸궁도 헤 봤저만은 스못 칼잡이영 잇고. 이제 그 걸궁 원 그 식이주, 아이덜 허
지 안 허느냐 학생덜 그 식인다. 북 뛰영 두드리명.

110007 @ 음, 두드리멍, 팽과리 치멍.

110007 #1 또 저 대영 허멍 대영 소리 덩덩 나멍 올레마다 돌아. 그것ㄴ라 걸궁. 혼 멧 번 우리 부락에도 허단 이 포제 설르고 헤 가난 설러시네.

110007 @ 것도예.

110007 #1 으, 헤낫저게.

110008 @ 여기 입춘 때 뭐 험니까? 입춘 땐.

110008 #1 입춘 때 무시거 안 현다.

110008 @ 우수 때는?

110008 #1 기자 저 입춘 땐 그자 “오닐이 입춘 오람젠.” 영헛주. 입춘 때에는 기자 입춘이엔 현 건 이제 그것이 겨울 들어가민 것ㄴ라 무시거엔 곧느니 아이고 곧젠 허난 못 곶으켜.

110008 @ 음.

110008 #1 그거 이제 오닐이 입춘날, 입춘날 헤영 여저덜 늬의 집이 가지 안 현다.

110008 @ 아, 예, 예.

110008 #1 여저덜. 이젠 그 날도, 저 날도 보지 안 현다.

110008 @ 아.

110008 #1 경헛 여저덜은 가민 밧디 검질 진덴 허멍 제수 엇넨 허멍 허곡 남저덜은 오민 옛날에 무신 입춘이 그거여게. 경헤낫저. 친구간 들민 친구간 친구간 허멍 친구간 들민 기자 이 집도 고치고 어디 땅, 친구간 전이 땅도 아무디나 무똥 안 파고. 이젠 원 그런 거 저런 거 안 본다만은. 옛날은 그런 거 봤저게. 아이고 친구간 들건 허주게. 친구간 전이 그디 헤부난 무슨 일 낫젠 경허멍 그런 거 곶앗주. 이젠 토평 포제 안 허고 허난 아무것도.

110008 @ 우수, 우수날 뭐 허는 거 잇수과? 절기 상으로 우수.

110008 #1 정월 우수엔 무시거 허는 거 몰라. 정월 보름에만 기자 무시거 허는 거 알아저도.

2월

110009 @ 예, 이월덜 넘어가쿠다예. 음력 이월에 영등하잖아예, 영등?

110009 #1 영등 할망 이월 보름에게 저 들어오랑 삼월 보름에 나가는 거주게.

110009 @ 게, 영등이 뭐과, 영등할망?

110009 #1 영등 할망이에 현 거는 옛날에 이제 비웃 입, 입는 할망이 잇고 곱닥 허게 한복 입는 할망이 잇고. 거 옛날 **주게 아멩헤도 옛날 어른덜이 경허민 똑 이월 보름 똤민 이 비가 하영 오나 이디 무시거 허민 “아이고, 우장 쓴 할망 왔저.” 경 곶아낫저.

110009 @ 음.

110009 #1 아이고 우장 쓴 할망.

110009 @ 아, 그럼 그 해에 따라 다른 거?

110009 #1 으, 으. 매해 다르주게. 올리 이거 비 하영 오난 올리 우장 쓴 할망 오라갓저 곶아라. 겨난 가불어도 비 오느네, 이젠 가부난 흐쓸 날 좋을 거라 허멍 요자기도 곶앗저만은 그거는 저 해 해마다 틀린다.

110009 @ 예.

110009 #1 경 어딜로 이 천지박사로 것도 문 아는 거주. 우장 쓴 할망 왔저. 비 완 오랑 날 좋아가민, 한복 입영 곱닥헌 할망 왔저. 이 날 따라 곤는 거.

110009 @ 계민 이 영등할망은 어디로 들어왕 어디로 나간덴 험니까?

110009 #1 원 제주도, 원 제주도 전체 기자 영등할망이 원 온덴 허는 거라.

110009 @ 그럼 이 기간에 뭐 허지 말렌 허는?

110009 #1 그런 건 엇고.

110009 @ 엇고예.

110009 #1 으, 그런 건 엇나.

110010 @ 경칩 알아지쿠과? 개구리 깨어 난다는 경칩. 몰라예. 농사랑 관계엇지 예?

110010 #1 그런 거 관계엇고.

110010 @ 춘분. 춘분도 농사랑 관계 엇고.

110010 #1 춘분에 뭐 엇저.

3월

110011 @ 삼월달에 한식 명절 옛날에 해났잖아예. 한식 멥질, 한식 멥질 댐 뭐 해났수과?

110011 #1 것도 그자 그냥 멥질허듯 헛주.

110011 @ 제 지내는 거?

110011 #1 어, 원 제 지내는 거, 한식도게.

110011 @ 음식 뭐 행?

110011 #1 음식게 그자 메 해영 올리고. 꼭 ㄴ튼 멥질이여. 오월 단오나.

110011 @ 예.

110011 #1 한식 멥질이나 꼭 ㄴ튼 거여. 경허단 치와벳주게.

110011 @ 정월 멥질, 한식, 단오, 팔월 멥질.

110011 #1 어, 오월 멥질, 팔월 멥질 경헛주게.

110011 @ 으.

110011 #1 오월도 단오 잇고 오월 멥질 잇고 경허여. 스몓 옛날엔게 경 허단 줄 연에 안 험주.

110012 @ 청명 때 뭐 험니까?

110012 #1 청명에 아무것도 안 현다. 무시거 안 해 봐서. 오늘이 청명, 청명 해도 뭐 아무것도 안 현다.

110012 @ 곡우도 안 허고예?

110012 #1 으.

110012 @ 곡우 안 허고.

110012 #1 으.

4월

110013 @ 사월덜예. 사월 초파일엔?

110013 #1 초파일은 저 부처님 오신 날이엔 허멍 기자 초파일엔 절가에덜 가낫 저.

110013 @ 절간에예.

110013 #1 절간에 다니는 사름 초파일에 우선은 절간에덜 감시네. 하영덜 가 초파일에.

110014 @ 입하?

110014 #1 입한 몰르켜.

110014 @ 소만?

110014 #1 으?

110014 @ 소만? 몰라예?

110014 #1 으.

5월

110015 @ 오월덜이우다. 단오명절 아까 한식 명절이영 같을 거?

110015 #1 으.

110016 @ 망종?

110016 #1 스월망종.

110016 @ 예.

110016 #1 스월 망종도 무시거 허진 안 현다. 기자 망종에 보리 ㄹ슬 기자 망종에 보리ㄹ슬 헤여, 보리 ㄹ슬 헤여. 망종 그건 이 절기 오는 말이주. 절기 오는 말 망종, 스월 망종.

110016 @ 하지?

110016 #1 하지도 이제 그 해에 망종 하지 들엇젠 허는 거주, 것에 뭐 무시거 현 건 엇어.

6월

110017 @ 유월덜 갑니다 유월덜 가면, 음력 유월에 득 잡아 먹는 날이 잇수과?

110017 #1 스무날.

110017 @ 스무날.

110017 #1 똑 유월 스무날엔 득 잡아 먹고.

110017 @ 으.

110017 #1 이제도 잡아 먹는 사름은 잡아 먹나만은 나 득케기 안 먹은 때가 막 오래난 우리 하르방 나따문 득이엔 현 거 맛 못 보켄 현다게. 경해도 나 이땅 흔 번씩 아이덜 신 뎨 유월 스무날에 득 사단 잡아 쫓져. 꼭 유월 스무날엔 시장 강 보라. 나라비라.

110017 @ 나라비.

110017 #1 사지 못 허여.

110017 @ 하하하.

110017 #1 유월 스무날엔 옛날도. 옛날엔 거 방쉬여게. 이디 이제 옛날에 막 나 한 하르방이 살아나신디

110017 @ 예.

110017 #1 나 아이덜 키울 때 옛날은 우리 득 질와났저게. 돈 어디 성 사 먹느 니 질왕 먹주게. 빙에기 해단 질루난 득을 이제 잡아양 그 비에기를 흔놈이 하나씩 잡아양 아이덜은 이제 일러근에 아침이 해 터 올 때이. 해 터 올 때 아이덜을 일렁 이제 이 마루에민 마루에 동더레 돌아 앓아 해 트는더레만. 이 남향 집이고 동향 집이고. 해트는더레 아이덜을 앓지렌 허주게. 우리 아이덜 ㄹ라 나 경헨 그 하르방 말 들은 흔 번은 득 잡아양 열 스무날에 눈 비비멍덜 일어난 이디 오란 앓으난 야 요 레 돌아앓으라, 요레 돌아앓으라 곱으난 우리 셋놈 무시거엔 곤는 처레 허면 “아, 일렐로.” 츠레로 앓으렌 험시카부덴 일렐로 해낫저게. 동더레 돌아앓으렌 현 말은 못 곤고 그자 그 하르방 말 곤지 말젠, 이레 돌아앓으라, 이레 돌아앓으라 먹을 걸 저레 앓다 난.

110017 @ 으.

110017 #1 하하하. 정 안 해도 사는 걸.

110017 @ 하하하.

110017 #1 동더레 돌아앓지젠. 그거 방쉬엔 해라게. 방쉬엔.

110017 @ 계난 삼춘 그런 거 막 멍심헿 해낫구나.

110017 #1 계, 누게 무시거엔 곱으민. 계난 우리 하르방이 경허데 저 사름은 무시거 늑의 말 들어오랑 사름 보끄는 것에 원.

110017 @ 하하하.

110017 #1 우리 하르방은 그 말 곤나게.

110017 @ 으.

110017 #1 계난계 하르방이 “득 잡아먹어, 득 잡아먹어 저 사름넨 빗을 알양 잡아 먹엄서.” 경 곱아라게. 아, 경 곱으난 “양 어떻헿니까 기자 우린 유월 스무날 잡아 안 아이덜만 줍수다.” 허난 “거 경 허는 거 아니라.” 경 곱아라게 하르방이. “어떻 헿니까?” 허난 득을 잡아양, 흔놈이 하나씩 잡아양 동더레 돌령, 돌려근에 아이덜 주클 라 아이덜도 돌아앓정 주렌게.

110017 @ 으.

110017 #1 경허난 우리 아이덜 다섯 개 동더레 돌아왔지젠 허난 어려왔저게. 이 구석더레 앓아, 저 구석더레 앓아, 절로 이레도 앓지고 허민 이레 영.

110017 @ 경 줄줄이 앓전 동더레?

110017 #1 아이고 경 허난 우리 하르방은 원 중중 이녁만이 중중중중 헤난 도래가 잇저.

110017 @ 하하.

110017 #1 나 이 휘관에 강 골민 아이고 이 향숙이 어멍, 향숙이 어멍 헤낫저게. 경허단 그 하르방 죽어분 후젠 원체. 경헨 우리 아인 셋아인 아, 일렬로, 저레 강 영 마주앓으면 요레 영 돌아앓으라, 돌아앓으라 허민 아 일렬로 놈의 또꼬망에 강 앓젠 허고. 하하하. 아이덜 다섯 개 앓지젠 허난 신경 쓰지 안 허느냐.

110017 @ 예, 맞수다게.

110017 #1 생각만 해도 나 막 우습나게. 경헤낫저 그 놈의 하르방 말 들었 나.

110018 @ 계난 삼복이 뭐과 삼복?

110018 #1 상복?

110019 @ 아니, 삼복, 삼복? 몰라. 절기로 소서도 알아지쿠과?

110019 #1 소서 알주게.

110019 @ 이때 뭐 허는 거 엇수과?

110019 #1 아무것도 엇다. 소서나 뭐 아무것도 엇다. 무시거 그것에 꼭 허는 건 엇다. 유월절 허고.

110019 @ 유월절이 언제라?

110019 #1 유월절은 유월 나서.

110019 @ 으, 유월예.

110019 #1 유월 나민 옛날에 유월 절 전이 감저 싱그면은 살고. 아멩 벳 나도. 유월절 념경 심는 건 살림 어렵넨 그말은 들었저게. 그 절기 오랏젠 무시거 허는 건 엇어. 그 정월 보름 허고 그 저.

7월

110020 @ 칠월 덜 물어보쿠다, 칠월 덜 몇 개만예. 칠석이 뭐과 칠석?

110020 #1 칠월 칠석엔 거 절간에 가는 날.

110020 @ 절간에.

110020 #1 으, 칠월 칠석. 칠석 불공 험젠 헨 나도 가왔저게 젊은 땐.

110020 @ 예, 예.

110020 #1 칠석 때는.

110021 @ 백중은?

110021 #1 백중도 불공허레 가고. 백중은 옛날 백중 집이서 헤낫저.

110021 @ 으.

110021 #1 집이서 우리 하르부지 산 땐 백중 칠월 열나흘날 현다. 열나흘도 허

고 보름도 허고. 경헨 백중. 백중 그 칠월.

110023 @ 이 백중 때 물맞으레 모래 째질 허레?

110023 #1 아이고, 막 하영 갓주 돈내코.

110023 @ 돈내코에.

110023 #1 나도 저 하도 이 허리 무시거 현 때 하르방 들앙 돈내코 가난. 겨난 이 물맞아 나난 더 헛젠 현다게.

110023 @ 예.

110023 #1 빼 물려난 걸이 나 경허난 돈 물어나 불언 이추록. 병완장 수술도 못 해시네게.

110023 @ 으.

110022 #1 경허연 나도 막 물맞으레 멩기고 또 모래 뜸 허레 유월 보름 넘어가 민 모래 뜸 허레 바당에도 가고.

110022 110022 @ 어느 바당에 갓수과?

110022 #1 이 바당에 검은여 바당에.

110022 @ 검은여 바당에.

110022 #1 검은여와 이 새미알 흰동산 우리 토평 바당에. 경허연 그디 가낫주.

110024 @ 으. 입추 댐 뭘 허는 거 엇수과?

110024 #1 입추 댐.

110024 @ 처서? 허는 거 엇어예. 입추, 처서?

110024 #1 으, 처서 돌아왔저, 입추 돌아왔저 해도 뭘 그런 거 저런 거 무시거 안 해 낫저.

8월

110025 @ 팔월 들어가쿠다예. 팔월에 벌초 허지예?

110025 #1 팔월 초허루.

110025 @ 으, 초허루.

110025 #1 건 원 초허를 날은 모듬 벌초.

110025 @ 모듬 벌초.

110025 #1 막 옛날은 팔월 초허루 모듬 벌초허고 집이 벌초도 허고 허는 디 이젠이 일요일만 걸청 현다게 일요일. 팔월덜 나민 공무원덜이라부난.

110025 @ 으.

110025 #1 경헨 해도 우리 방상에는 팔월덜만 나민 챗 일요일, 챗 일요일. 초허루 이땅 일요일 들 때가 잇주게. 경허민 그때 휴가 받았덜 토요일 잇당 일요일 벌초덜 우리 아덜덜도 오랑 현다.

110025 @ 으, 챗 일요일예.

110025 #1 으게. 보름엔 멩질허고. 그 두가지 베긴 엇다. 초허를 기자 벌초 허고.

110025 @ 계난 지금도 벌초허레 내려 옵니까?

110025 #1 어. 죽장 와사주 누계가 허느니게.

110025 @ 그니까.

110025 #1 산 문딱 흔 밧디 우리 공동묘 산 메와노난 흔 밧디 그디 저디 문엇 단 문 메와 농난 무시거. 기계 사단 놓고 허난 그자 기계로만 작작 거. 오월 단오날 은 할망 하르방이, 나 가근에 술 행 강 케우리고 과일이나 강 케우리고 헤영 풀 흐 쓸 메불고 허난. 단오날은 느량 간다.

110025 @ 아. 감수과 삼춘네가.

110025 #1 으, 단오날은 느량 감저. 오월 단오엔.

110027 @ 절기로예, 팔월 멩질은 아까 얘기 헛고, 절기로 백로 추분 때 뭐 허는 거 잇수과?

110027 #1 엇나, 엇어.

9월

110028 @ 상강 때 뭐 안 험니까?

110028 #1 어, 어. 이 친구간 허고 저.

110028 @ 농사 짓는 거 상관 잇잖아?

110028 #1 으?

110028 @ 농사 짓는 것들은.

110028 #1 농사 짓는 거 옛날 어른덜은 어느 절기에 헤 어느 절기에 헤 곱아낫 저만은 이젠이 기자 첨 그 절기 돌아완젠 영 월력덜에 문 잇이난 월력에 잇이난 월력 보멍 절기, 아무 절기 돌아왓저, 아무 절기 돌아왓저 그자 경.

10월

110029 @ 시월덜에 입동, 소설도 뭐 허는 거 엇고예?

110029 #1 으. 친구간에만 동지덜 친구간에.

110029 @ 십이월.

110029 #1 동지덜에 친구간만 보주 다른 건 안 본다.

11월

110030 @ 예. 십일월덜 돼민 동짓날 동지 풋죽 먹잖아예?

110030 #1 동지 풋죽 우린 안 썬 봤저.

110030 @ 아, 안 썬 봤수과?

110030 #1 절간에덜 강 문 썬 먹주. 이 동지 풋죽이, 동지가 얘기 동지 잇고 어 른 동지 잇넌 현다.

110030 @ 예.

110030 #1 얘기 동짓날 몰라근에 몰랑덜 동지 오랏저 허민 풋죽 썬 먹으면 아

이고 거 잘 못 헛젠덜 스몯.

110030 @ 아, 애기 동지땀 안 먹는 거?

110030 #1 일절 안 헛다. 일절 원 침. 난 몰란도 경 곧나 어른덜이. 경헛 애기 동지엔 안 썩고 주로 이 동지에 문 절간에덜 감시네.

110030 @ 음.

110030 #1 절간에덜 문 간다. 경헛 허주 나 집이선 헤보진 안 헛저. 거 혼 번 썩 나민 죽도록 헛덴 허난.

110030 @ 하하 혼 번 시작허민?

110030 #1 으, 시작허민. 아니 시작헛저.

110031 @ 납평날 알아지쿠과? 몰라예.

110031 #1 으.

110032 @ 대설?

110032 #1 어, 그런 건 알고. 대설, 소설 그건 알고.

12월

110033 @ 예. 십이월덜 가쿠다. 친구간은 어떤 날이과?

110033 #1 친구간은, 친구간은 절긴 기자 딱 혼 덜어주게. 기간이. 혼 덜 허민 천리도 허고 집도 짓고 이제 고침도 허고 숭이 엇넌 헛다 친구간에 구신이 돌아나면. 경헛 친구간이여. 경 친구간 때 허주, 친구간 때 허주. 경허명. 이 저 삼월, 이제 삼월 덜에도 흘 수 엇인 건 헛다만은 대부분은 친구간을 좇나. 이 천리허는 거나.

110033 @ 예.

110033 #1 집 짓는 거나 고치는 거나 아무 거라도 친구간을 좇주.

110033 @ 예, 친구간에 허는 거.

110033 #1 그거 원 주로 허주.

110033 @ 옛날에 이사 갈, 옛날에도 이사 텅겅잖아예?

110033 #1 하이고 이사 텅겅주.

110033 @ 계난.

110033 #1 이 친구간 좇고.

110034 @ 계난 이사 텅길 때 집은, 지금은 부동산 잇고 신문 잇고 헛디 옛날엔 어떻 이사갈 집을 좇아신고예?

110034 #1 하하하. 기자 옛날에도 이사갈 방향도 좇고.

110034 @ 으.

110034 #1 방향도 좇고, 아 올리. 그 책 보는 어른덜 옛날도 책 보는 어른덜 시네게.

110034 @ 예.

110034 #1 이사 가젠 허민 책 보레 가주게.

110034 @ 예, 그거 보는 디 집은 어느 집이 비어신지 허는 거는?
 110034 #1 아, 빌어 낱. 집을 이제, 집을 옛날은 집 빔도 쉬웠저게.
 110034 @ 아, 기과? 동네에서 알아집니까?
 110034 #1 옛날은 집 빔도 게고 우리집이 왕 살렌도 곤고.
 110034 @ 아.
 110034 #1 이제 ㄴ치 경 어렵지 안 헛저 옛날은게. 경혜영 우리 밧거리 놀암서 밧거리 오랑 살아 허민 그 집 강 좋느냐 말앙 좋느냐 책 보레 가느네.
 110034 @ 아.
 110034 #1 방향이 어딜로 가느디 곤고. 경헌 거주.
 110034 @ 집 구허는 거 어렵지 앓고예?
 110034 #1 으, 옛날은 집 구험 어렵지 안 헛저게.
 110035 @ 이사 가젠 허민 뭘부터 가져 갑니까?
 110035 #1 솟부터.
 110035 @ 하하.
 110035 #1 밥을 강 헤 먹어사. 우선은 솟 아정 강 그디 강 덕더레 앓저덩 쫄 쫄 영 커덩. 우선은 밥이 주로주게.
 110035 @ 어쨌든 밥 먹젠예?
 110035 #1 으, 하하하. 살젠 허민 어뭇 말이니.
 110035 @ 예.
 110035 #1 원 솟부터. 경허고 두 번찬 요강.
 110035 @ 아, 두 번차 요강?
 110035 #1 으. 요강은 원 우선 아정 간덴 현다. 이견 무사 경험신고 허면 나가 이제 늑은 어른신디 들얼 밧주.
 110035 @ 예.
 110035 #1 시집 강 안 산 사름도 그 요강 아정 나간덴 현다. 경허민 무사 그 요강을 아저 가느넌 허민 그 요강이 것도 방쉬라근에 요강 벌리지민 궂고 시집 갈 때.
 110035 @ 아.
 110035 #1 시집 갈 때 옛날엔 사기 요강. 그 중간에 스텐 요강 나 낫주게.
 110035 @ 예.
 110035 #1 옛날엔 그 사기 요강을 허난 그 요강 벌리지민 그 시집 살지도 못 허고 궂고.
 110035 @ 궂고.
 110035 #1 거울 벌러져도 궂고, 요강 벌러져도 궂넌 옛날 어른덜 곶아라.
 110035 @ 깨지는 건예.
 110035 #1 어. 깨지는 거. 경혜영 우선 시집 안 살앙 갈 때는 우선은 요강을 아정 나간덴 현다. 그게 아멩해도 무신 방법인 ㄴ라. 방법 닳아.

110036 @ 요즘엔 친구간에 이사하면, 아니면 자기집 상 가면 집들이허잖아예. 옛날에도 집들이, 집알이 그런 거 있어났수과?

110036 #1 옛날이사 경 집들이여 무시겨여 경 안헤났저게. 기자 무시겨 이사가 민 밥 흥쓸 헤영 동네침이 가져가났주.

110036 @ 이사간 사람이.

110036 #1 어. 이제거치 집들이엔 헤영 잔치ㄴ치 안 헤났저게. 옛날엔.

110036 @ 음.

110036 #1 옛날엔 경 집들이 허고. 집 짓영 가도 안 허고 헤났저. 뭐 우리도 집 짓을 때 집들이랑 마랑 어디 경 집들이 허고 하간 거 허느니. 잇인 사름도 안 헛저게.

110036 @ 으.

110037 #1 어신 사름덜. 이 어신 사름덜 강 얻어 먹어 놓민 저들고. 집들이 허 켜 헤가민 성냥덜 상 갖주게. 상 가는 거.

110037 @ 성냥.

110037 #1 으, 초, 성냥.

110037 @ 아, 초, 성냥 예, 예.

110037 #1 돈이 어디서. 하하 성냥 상 가났주.

110037 @ 부주는 안 허고.

110037 #1 어게. 아이고 옛날이사 부주 헐 게 어디 시니게. 그 때는 그 우리 살아온 시대는 저 오 원이여, 백 원이여, 십 원이여 헨 살 땀디 어떻헤영 이제ㄴ치 천 원 만 원 웨느냐게. 거 당추.

110037 @ 맞수다.

110037 #1 돈이 스몏 얼마나 어려운 때라.

110038 @ 예. 소한, 대한 알아지쿠과?

110038 #1 소한, 대한 게 소한 대한. 대한에 나간 사름이랑 뒤돌아보지 말렌. 대한이 무서우니까 눈 많이 오랑.

110038 @ 아.

110038 #1 브름 눈 많이 오랑, 이 북풍 몰아칠 때. 대한에 나간 사름이랑 돌아보지 말아. 겨울들민 윈. 소한 대한 넘어불민 겨울이 흥쓸 이제 봄 나트구나.

110038 @ 예.

11. 놀이

111001 @ 오늘은 놀이, 놀이 옛날에 놀아난 거.

111001 #1 놀이 옛날엔 눈만 오민 느려와주게.

111001 @ 아니 아니. 노루말고, 노루말고. 장난허멍 놀아난 거.

111001 #1 아, 놀아난 거. 야, 우린 논 것사 공기베끼 더 잇이나.

111001 @ 연날리기 같은 거.

111001 #1 옛날에 공기 허멍 옛날에사 무신 흑밥허고 공기베끼 더 잇이나?

111001 @ 흑밥 허고 공기?

111001 #1 으, 흑밥 허고 기자 공기. 원 그거주게. 베뿔락 허고 원 원 노는 게 그거주.

111001 @ 계난 남자덜 놀아난 것도 알아지는 거?

111001 #1 남자덜도 그거주, 남자덜 뭐 벨난 거 놀아시냐?

111002 @ 연날리기?

111002 #1 장난치멍 그거주. 옛날 애긴 무슨 옛날 애기?

111002 @ 아니 아니 연날리기.

111002 #1 연날리긴 우리도 아무라도 헛주.

111002 @ 아. 아무라도 헨?

111002 #1 연날리긴 막 하영 헛저.

111002 @ 아, 연날리기?

111002 #1 연날리긴 막 연 하영 만들양 집이서.

111002 @ 집이서.

111002 #1 집이서 종이에 헨.

111002 @ 어떤 연을 만들앗수과?

111002 #1 풀렝이 돋은 것도 만들고 영 삼각형으로도 만들고 그거 우리 하르방도 만들양 문 저레 나강 만들어 주민 난 실로 허여근에 영 뽕뽕뽕뽕 감는 거 잇잖아게.

111002 @ 예.

111002 #1 그거 헿 하늘 높이 올라강 또 가불민 느려오고 헤낫주게. 원 노는 게 그거여 옛날이사게.

111002 @ 기민 그 연을 불러난 이름을 알아지쿠과?

111002 #1 연 불러난 이름은 원 모르켜게 우리 연날리레 가게 경만 헤낫주. 우리 하르방 서시민 알아지킬. 우리 하르방은 연날리기 하영 헤낫주게.

111002 @ 연날리기 하영 헤나서예. 아이고 계서시민 물어보킬.

111002 #1 못 가게 헤시민 물어봐시킬 가 부난 뉘. 하하하. 차에 기름 놓레 가고 저 밧디 기름 놓레 가고 허켄 허멍.

111003 @ 예. 기민 연 만드는 거 봐나지 안 헨예?

111003 #1 연 기자 만드는 건 봐낫저만은 나 이제 만드진 못 허켜.

111003 @ 예, 만드진 못 허는디 뉘 가정 헷디과 만드 때?

111003 #1 풀 썬 낱게.

111003 @ 풀 썬 낱.

111003 #1 풀 썬 뇌근에 기자 이 마루에 낱. 마루에 낱 그 종이로 문 곳양 연

늘개 문 부치꼭게.

111003 @ 음.

111003 #1 늘개 ㄴ랑ㄴ랑 돌져사 것도게 경 돌지고 꼰렁이 돌지고 겨난 그 연 일름도 잇긴 잇저게. 나가 곧질 못허난 거주. 으라 가지로 만드난.

111003 @ 종이는 무슨 종어로 써서?

111003 #1 창호지. 창호지엔 헌 거 이 옛날에 문 불르는 창호지. 그게 질긴다 창호지가 영 행 삼각형으로도 만들고 네귀방장 허게도 만들고 꼰렁이 돌정도 만들고 우리.

111003 @ 으.

111003 #1 그거 학교에도 강 늘리고.

111003 @ 겨난.

111003 #1 이제사 낭씨리이 하부난 거주 낭씨리가 신 디선 못 허주게. 경허민 우리 학교에 강 흑교 마당에서 늘리고. 연늘리고.

111003 @ 예.

111003 #1 우리 얘기덜 클 때에도 연 혼엇이 안 헛어. 것도 신식 오랑. 우리 대 엿주.

111003 @ 으.

111003 #1 우리 더, 우리 애에 허난 우리 후 때는 우리 얘기덜 난 후제는 연 치 왔저. 혼엇이. 혼엇이 안 헤 봤저.

111003 @ 게난 보리밭디 밟아줘야 허니까 거기 아이덜 디밀렁 연날리게도 헛수과?

111003 #1 어, 보리밭디 가근에 다려지난, 다려지난 보리밭디 가근에. 우리 밧디 강 연 날리라, 우리 밧디 강 연 날리라 그건 알아지켜게. 하하하.

111003 @ 맞아마씨.

111003 #1 그건 알아지켜게. 보리밭디 블라살 겨난. 그건 연 늘리는 건 아니냐게. 기자 그건 밧디 강도 늘리우고. 이젠 이추룩 헤놓난 연늘릴 디가 엿어. 낭에 걸 어지카부덴.

111003 @ 기지에.

111003 #1 그펜이 낭이 엿엇주게. 옛날 폭낭이나 허고 먹쿠실낭 먹쿠실 우리 타 먹고. 아이고 먹을 거 시냐. 폭 타 먹고. 먹쿠실도 막 타 먹으메.

111003 @ 예.

111003 #1 경헤도.

111004 @ 연 날리젠, 연 만들젠 허민 창호지가 잇어야 허잖아? 낭도 잇어야 텔 거 아니?

111004 #1 게. 대, 대, 대. 대 끈어당 헤사, 대 끈어당 헤사 경헤영 연 헤영 늘리민 막 높이 올라가민 스몫 브름이나 쉼 뎀 스몫 끈어지카부덴 스몫. 거 늘리는 실은 이제 저 무시거니 막 여라가지 헛저. 저 신사라 행 빵도 헤나고 또 옛날 거 뭐

니 스끼 막 ㄴ는 스끼 헤근에 것ㄴ라 이런 이런 줄 행 무시거엔 글아낫저만은.

111004 @ 나이롱 줄?

111004 #1 나이론 줄은 엇나 그때 나이론 줄이 어디 시니?

111004 @ 기지에.

111004 #1 나이론 줄 엇어근에 나이론 줄 중간에 낫주. 무시결로 꼬아근에 문 내녕실로도 허고 그 실을 질겨사 그게.

111004 @ 예. 게민 실 질기게 허젠 막 풀도 맥이고 허여?

111004 #1 아이고 풀도 맥이고게, 질기게 허젠 허민 스몛 풀도 맥이고 뱅뱅뱅뱅 감으민 잘 감아지게시리 스몛 짹짹 홀타근에. 잘 풀어져사주게. 영 허민 기자 삭삭 삭삭 영 돌려가민 기자 짹짹 올라가고.

111004 @ 예.

111004 #1 또 돌리민 느려오고.

111004 @ 게민 이거 돌리는 걸 이걸 뭐렌 헤난? 이거 얼레렌 헤난?

111004 #1 얼레, 어 얼레거여 얼레. 얼레엔 헛주. 영 돌리는 것이 뱅뱅뱅뱅. 얼레 돌려, 얼레 돌려. 경헤난 거 닻다. 얼레 돌려 얼레 돌려. 손으론 안 헤 봤저. 그 돌리는 거 헤사주 손으론 췌여.

111004 @ 췌여.

111001 #1 하늘 우터레 올라불민이 손 끈어짐직 허메. 질겨 것도. 게난 그 돌리는 걸 심어사. 막 췌여 높이 올라가민 경헤영 그 연놀리기 허고. 거 허단 버치민 방 툴락 마당에 방 기려근에 방 툴락 허고.

111001 @ 으.

111001 #1 공기 허고 스몛 침 그런 거나베끼사 옛날에사 새각시풀 헤영 우리 저 두린 땀 새각시 풀 얼랑얼랑 현 거 해당 영 머리 꽃앙 영 새각시풀 허고. 저고 리도 만들앙 입지고 영 헤영.

111001 @ 아, 인형 같이 만들앙.

111001 #1 으, 인형 만들앙 헤낫저게.

111007 @ 쪽기차기도 헤낫수과?

111007 #1 어, 그런 건 남저덜.

111007 @ 남저덜.

111007 #1 남저덜 하영 헛저. 우린 쪽긴.

111007 @ 못 해?

111007 #1 허는 건 봤저만은 쪽긴.

111007 @ 쪽기 어떻 만드는 지 알아지쿠과?

111007 #1 쪽기 영 헤여근에 쉬엄 그랑그랑허게 영 상투 헤영 영 무꺼 낱 쉬엄 그랑그랑 허게 헛 툵툵툵. 허는 사름이사 문 백 개 천 개라도 허주. 우린 그런 거 못 헤 봐저만은 남저덜은 뭐 쪽개 남저덜 연 놀리게 허고 쪽긴 기자 그 쪽기 그런 거 허고.

111007 @ 으.

111001 #1 공기도 흐쓸 헤낫저만은 방치기, 방치기 방치기 허멍 방치기도 흐쓸 헤낫저만은.

111001 @ 방치기가 어떤 거?

111001 #1 방치긴 영 방 만들아근에 우리 돌 데끼멍 그 선 안터레. 이제 이제민 녀동박식일 거여.

111001 @ 예.

111001 #1 우리 그냥 방치기 허게, 방치기 허게.

111001 @ 땅에 방 그려 낱.

111001 #1 그릇 굿어 낱.

111001 @ 그릇 굿어 낱. 그레 돌 툯 던져근에.

111001 #1 으, 툯 던정. 그 선터레 거치지 안 허민 뉘는 거.

111011 @ 자치기는마씨?

111011 #1 자치기는 요만씩 요만씩 만들어근에 영 데끼민 것도 선 베졌더레 가지 말아사주. 그 자치기는.

111011 @ 음.

111011 #1 이제민 녀동바길 거여.

111011 @ 영 낱이 두 개 잇어야 뉘는 거 아니, 자치기는?

111011 #1 낱 두 개?

111011 @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는 밑에 낱 딱 떼리민 올라 왕 치는 거.

111011 #1 어게, 영 두 개 헤여근에이 두 개 헤영 하난 영 농곡 하난 영 이제 무시것에 쥘져실 거여. 경헨 탁 튀게 것ㄴ라 자치기, 자치기.

111011 @ 자치기, 자치기.

111011 #1 것ㄴ라 자치기주.

111012 @ 그때 낱은 무슨 낱 헤난지 잘 모르겠지예?

111012 #1 자치기 험 때? 낱은 그때 그런 낱이 무시거 저 서이낱 ㄴ튼 거 헤실 거여. 이 쁘이 엇인 거. 흐쓸 쁘이 엇어야주게.

111012 @ 아.

111012 #1 쁘이 엇인 거주게. 다른 낱덜 이디 낱덜은 쁘이가 잇어불민 쁘이 엇인 걸로 복탁낱 같은 거.

111012 @ 으.

111012 #1 복탁낱 주로 헤실 거여.

111015 @ 으. 몰탈락?

111015 #1 몰탈락은 나도 막 두린 때는 흐쓸 몰 타봤저만은 몰 탈락도 흐쓸 헛주. 쉼도 타고 몰도 타고 옛날에사게.

111015 @ 진짜 몰 타는 거 말고 아이덜 놀이로 영 업더정 놀이로 허는 거?

111015 #1 어게. 놀이로도 경 몰탈락도 허주게. 업더정계 영 업더저근에 몰탈락

도 헛주. 이제 우리 여저, 여저덜찌레.

111015 @ 여저덜찌레?

111015 #1 으, 여저덜찌레. 남전 남저덜 찌레 허고.

111015 @ 아, 서경 안 해가지고?

111015 #1 으, 경헨 뭉탈락도 해낫주게. 우리 두린 때사 침 그런 거 저런 거 베
깁이. 아이고.

111015 @ 으.

111015 #1 무신 우리 아이덜 커 올 때엔 당초 그런 거 안 헛저. 우리 애기덜 난
커 올 땐 일절 그런 거 몰라. 옛날 해 온 거 몰라.

111015 @ 아, 몰라마씨?

111015 #1 당초 모른다게. 우리 큰년 우리 큰놈도 연놀리는 건 흐뎡 알아.

111015 @ 음.

111015 #1 그런 건 흐뎡 안다. 연놀리는 뭐 건 그런 것가 이젠 엇어테겨불언 허
난 햄주 이젯 아이덜은 그런 거 놀리젠도 안 허고.

111020 @ 음. 다마치기 알아지쿠과?

111020 #1 다마치기?

111020 @ 으.

111020 #1 다마치기도 그 무시겨주 다마치기엔 현 거. 영 동글랑 현 걸로.

111020 @ 으.

111020 #1 동글랑 현 걸로 허여근에 영 우리 영 행 그거 맞출락이주 다마치기.

111020 @ 하하, 예.

111020 #1 맞칠락. 영 저 멧 센치 사이에 낱 그걸 다마치기엔 현 건 톡 강 그거
맞아사. 우리 뉘는 거.

111020 @ 뉘는 거.

111020 #1 안 맞으민 안 뉘는 거.

111020 @ 안 맞으민 안 뉘는 거.

111020 #1 그런 것도 해 낫주게. 공기 허고 다마치기 허고 기자.

111041 @ 공기는 어떻 만들양 헛수과?

111041 #1 공기는 동글랑 동글랑 우리 내에 가근에 막 동글랑 동글랑 바당에
강 귀 난 것도 아니랑 완전 동글 동글 현 거 그거 봉가오주게. 그거 봉가오민 기자
공기 영 이디 깎아 낱 하나 허민 문딱 쉼주게.

111041 @ 아.

111042 #1 영 올령 쉼고, 올령 쉼고. 경헤난 거. 공기.

111042 @ 경헨 점수 나는 거.

111042 #1 으, 점수 나는 거. 것도 내기 허는 거.

111042 @ 내기 허는 거라예.

111042 #1 내기 엇인 게 무시겨 잇느니게. 옛날은 주로 매 맞을락 헛저. 줄 거

엇이난.

111042 @ 매 맞을락.

111001 #1 으, 매 맞을락 헤낫저게. 돈 치기 허고. 십 원 내기도 그 십 원짜 난 후제도 흥쓸 돈치기도 헤나고. 십 원내기 돈 뒤쓰는 거.

111001 @ 아, 돈 뒤쓰는 거.

111001 #1 거 약간 헤낫주.

111028 @ 종이 가정 뺏지치기 같은 것도?

111028 #1 뺏장치기.

111028 @ 뺏장치기, 어.

111028 #1 뺏장치기엔 곤는 거. 뺏장치기 영 그건 종이로 네 귀 영 툅 허게 멘 들아근에 그걸로 착 치민 그것도 뒤싸져사 뒤는 거.

111028 @ 뒤싸져사 뒤는 거.

111028 #1 어.

111028 @ 옛날에 종이가 엇이민 뒤로 만들어? 거 무슨 종이로 만들어낫수과?

111028 #1 옛날도 뒤 히여뜩헌 종인 잇엇주게. 구들 영, 창호지 블르다근에 꺾 전도 잇고게.

111028 @ 음.

111028 #1 영 구들 블르는 종이 잇어나난. 영 그런 건 블르당 주쟁이 나민 뺏장 만들고. 경헛저게.

111028 @ 음, 주쟁이 나면?

111030 #1 으, 주쟁이 나면 어디 경 종이가 잇느니게. 뺏장치기도 헤낫저게. 그것도 착 헤근에 그것도 뒤싸사 점수 먹는 거.

111030 @ 점수 먹는 거.

111030 #1 뒤쓰지 못 허민 못 먹는 거. 하하.

111032 @ 곱을락은 어떻 헤낫수과?

111032 #1 곱을락은 기자 침 옛날은 놀이 해주게.

111032 @ 예.

111032 #1 검질놀, 곡석놀 문 잇이민 놀 트명에 강 영 잇이민, 영 눈, 눈 곱양 기자 좇는 거. 좇는 사름은 눈 곱양 좇는 거.

111032 @ 으.

111032 #1 눈 곱으레 헤근에 문 곱으민게 스뒤 나 좇아 봐 나 좇아 봐 허민게 기자 좇아질 때 못 좇을 때 잇고. 놀덜이 막 메족메족 하 놓민 어디 담 엠에도 강 곱고 곱을락은. 곱을락도 하영 헤낫저.

111034 @ 놀 트명에도 강 곱고.

111034 #1 으, 놀 트명에도 강 곱고 담 엠에 강 곱고 구석에 곱고. 하하.

111034 @ 아. 굴목에도 들어가볼고.

111034 #1 아이고, 굴목에 들어가볼민 또 못 좇고.

111034 @ 못 좇고. 하하하.

111034 #1 못 좇고 해놔저게.

111034 @ 곱을락은.

111035 #1 어느저리에. 아고. 경허다근에 스못 밧디 텡기고. 스못 밧디 가근에 일 헤산덴 허멍 밧디 텡기고. 옛날 아이덜이사 놀아 봐시냐?

111035 @ 계난예.

111035 #1 학교 다니는 아이덜은 흐쉴 놀았저만은 우리 당시에도 학교 다니는 아이 멧 멧 잇어근에 헛주만은 나 동갑은 정 공부헌 아이 엇다 혼 엇이.

111035 @ 혼 엇이 공부헌 아이 엇어예?

111035 #1 으. 나대엔.

111035 @ 그때엔 먹지 못 허난게.

111035 #1 배 고팡 먹지 못허난. 밥을 먹어사주게. 이제는 공부만 시키젠 헐 때고. 그때는 버슬영 먹젠만 헐 때난 아이고 어멍 아방덜 스못 어느절에 저 할망 하르방덜 문 밧디 강 일허는 디 어느절에 공부 강 헐 생각. 침 공부엔 헐 건 못 헤밧저 난.

111036 @ 음. 실패쓸락 알아지쿠과? 영.

111036 #1 어게, 그것도 나 막 해놔저. 그것도 실 헤근에 영 홀타근에 영 허곡 영 허곡.

111036 @ 손가락으로?

111036 #1 어, 손가락으로 문 만들앙 또 영 헤영 웨쓰곡.

111036 @ 근데 무슨 실로 허여.

111036 #1 옷, 옷 주는 미녕실. ‘

111036 @ 아, 미녕실로.

111036 #1 그건 나 이제도 헤지켜.

111036 @ 하하하.

111036 #1 영 허고 영 허고 또 영영 허민 뜯 사름은 앞이 앓은 사름은 영 행 꼬으민 또 영 행 꼬고.

111037 @ 이 새끼손가락도 쓸 일이 잇수과?

111037 #1 으, 새끼손가락도 쓸 일 잇나게. 영 영 행. 손가락 안 쓰는 거 엇나게.

111037 @ 아.

111037 #1 원 영 헤근에 영 행 쉼여 놓민 또 영 헤영 허고 또 영 헤영 허고 것도 막 여러식이여.

111037 @ 여라식이라예.

111037 #1 으. 나 그건 이제 헤지켜.

111037 @ 하하하.

111037 #1 누게 허렌 허민 나 문 쥼아지켜. 잇어볼지 안 허여. 그건.

111044 @ 곤질, 꼬녀렌 현 거 알아지쿠과? 그런 건 안 들어 받?
111044 #1 으.
111044 @ 사그마친 뭐를 사그마치렌 험니까?
111044 #1 사그마친 사기 사발 벌러진 것이라 사그마치엔 헛주게.
111044 @ 그 사그마친 뭐 험 때 써 낫어?
111044 #1 사그마친 기자 그 사발 벌러진 거 헤영 사그마치 사그마치 헤낫주.
옛날에 경 사그마치로.
111044 @ 뭐 방치기 험 때 사그마치로?
111044 #1 아녀, 아녀.
111044 @ 아니.
111044 #1 방치기 험 때 우리 납작헌 돌, 납작헌 돌로 툽 데겼저. 사그마치로
못 현다게. 당초. 사그마친 사기 사발 벌러진 것이라 사그마치.
111044 @ 사기 사발 벌러진 거 사그마치예?
111044 #1 으.
111049 @ 땅따먹기?
111049 #1 째짜먹기?
111049 @ 땅따먹기. 땅, 땅따먹기.
111049 #1 땅따먹기?
111049 @ 으, 그런 거 따로 엇어난?
111049 #1 땅따먹기엔 현 건 방치기 험 때 땅따먹기엔 현 말을 헤낫저게 우리.
111049 @ 아, 그게 방치기라예.
111049 #1 으, 방치기 험 때 방치기 험 땅따먹게 험 그런 거.
111053 @ 예. 웃놀이 남자덜 허잖아예.
111053 #1 어.
111053 @ 어떤 때 웃놀이를 하영 헤낫수과?
111053 #1 큰일 날 때.
111053 @ 큰일 날 때.
111053 #1 영 험 옛날엔 집이서덜 허잖아게.
111053 @ 음.
111053 #1 옛날은 집이서덜 허민 남저덜은 놀게 돼주게. 여저덜은 음식을 출려
도 남저덜은 놀게 돼민 기자 웃놀이, 주장 웃놀이 헛저게. 웃놀이 헤영 그거 이제도
허긴 험주만은 종지에 헤근에 종지 험에 그거 요만씩, 요만씩 현 거 헤근에 그거
웃놀이 헤낫주.
111054 @ 무슨 낭으로 웃을 만들어?
111054 #1 웃놀이 허는 낭 딱로 실 거여.
111054 @ 으.
111054 #1 그것도 웃놀이 허는 낭도 툽톡 깨져사 허는 거난에 툽톡 잘 깨지는

거난에 그것도 복닥냥도 허고 저 복닥냥도 허고 이제 서이냥 그튼 거 해낫주.
 111054 @ 으.
 111054 #1 감냥은 안 해실 거여. 감냥은 안 해낫저. 경헨 헛주 잘 깨지는 거.
 111054 @ 잘 깨지는 거.
 111054 #1 속도 잘 깨지는 거.
 111055 @ 계민 여기 뭐 폐와 낡 허잖아?
 111055 #1 명석.
 111055 @ 명석 폐와 낡.
 111055 #1 우리 스몏 명석 멧 질 잇저.
 111055 @ 으.
 111055 #1 이 큰일 낡 여라번 헨난 사름이난 기자 큰일 허젠 허민, 옛날에 큰일
 허젠 허민 우리 하르방도 명석 즐안 이녁냥으로 즐앗저게.
 111055 @ 아, 저 남자 삼춘이?
 111055 #1 어.
 111055 @ 명석 즐아난 직접?
 111055 #1 어. 명석 즐아낫저.
 111055 @ 아고.
 111055 #1 우리 클 때도 헛주만은 클 때덜 봐 나난게.
 111055 @ 봐 나난.
 111055 #1 하르방덜 헛 때 봐 나난. 우리 명석 잇서.
 111055 @ 그럼 그 명석 판에 뭐를 그려야, 그리잖아예.
 111055 #1 그 저 이제민 녁등박 허듯, 그 공기놀이 헛 때, 공기놀이 헛 때 옆이
 앳앙 그것도 쓰느네게.
 111055 @ 으.
 111055 #1 어느 짝이 이기고, 마주사면은 어느 짝이 이기고 지는 거 돌아앳앙 들
 쓰는 거라고.
 111055 @ 들 쓰는 거라고예, 그 명석에 들판 그려낡 예?
 111055 #1 어, 어.
 111055 @ 그럼 그거 그릴 때는?
 111055 #1 슷, 슷. 옛날에사 슷베끼 더 잇이냐게. 이젠 먹, 그 무신 침 잇주만은
 옛날엔 슷 헤영 빅빅빅빅.
 111055 @ 빅빅 그렇. 그럼 그거 뭐렌 헛니까? 도, 개, 걸, 웃, 모 헤?
 111055 #1 어. 걸.
 111055 @ 으.
 111055 #1 토, 캐. 윈 옛날도 그거여.
 111057 @ 예. 그거예. 멧 개 나와야 이긴 것과?
 111057 #1 그게 다 나온 것이 걸이난. 다 나오면은 그게 다 나오면은.

111057 @ 이 나무 가래기가 몇 개라?
111057 #1 네 개 나무 가래기가 네 개. 네 개 다 뉘싸지나 나 얹어지나.
111059 @ 으. 팽이치기도 해놔수과?
111059 #1 팽이치기?
111059 @ 으.
111059 #1 남자덜이사 팽이치기 하영 헤시네.
111059 @ 으.
111059 #1 동글랑허게 그 팽이도 잘 멘들아. 그거 허영 스키는 흐쉴 쉼지 않은 스키여게. 그건 신사라라도 꼬고 영 그자 꼬아근에 그디 동글랑헌 거 팽허게 삭허게 풀민 도르르르 허게 둥근다게. 경허민 그걸로 착착착 친다. 그게 팽이치기주.
111063 @ 체를 만드는 냥이 뭐?
111063 #1 잇인 냥덜 헛주.
111066 @ 예. 굴렁쇄, 영영 돌리는 것도 잇어나신가. 지금은 자전거 바퀴로 허는 디?
111066 #1 어게. 구루마 바퀴 닳은 거.
111066 @ 구루마 바퀴 닳은 거.
111066 #1 구루마 바퀴 닳은 거 행 무시거 대 헤근에 줄줄줄 줄 쓰러지지 않허게 쓰러져 불민 안 되는 거.
111069 @ 예. 깡통에 돌멩이 낱 통차기, 깡통차기?
111069 #1 깡토에 돌멩이 낱 안 헤 봤저.
111072 @ 안 헤 환예. 팽이치기
111072 #1 팽이치기?
111072 @ 팽이, 팽이?
111072 #1 팽이치기?
111072 @ 출왓디 팽이 나는 거로 뭐 안 헤 환?
111072 #1 그자 먹음은 헛주. 팽이 우리 빠당 막 먹음은 헛저.
111072 @ 아.
111072 #1 팽이 빠당 막 우리 팽이 빠레 스몓. 새왓디 영헨 출왓디 그 팽이가 기자 뽀죽뽀죽 막 맛있어. 나가민 스몓 그 팽이 새 불카부텐 새지 안 헐 때 빠레 막 들어가났저. 경헨 이만인 빠당 앓앙.
111075 @ 먹어난 거. 예. 고무줄 놀이?
111075 #1 고무줄 놀인 기자 그 고무줄 헤근에 영 둘렁줄. 고무줄 잡앙 영 튀명.
111075 @ 것도 여자덜이라이, 고무줄 놀이?
111075 #1 여자덜, 여자덜. 건 여자덜 헤놔저.
111075 @ 예.
111075 #1 학교 안 헤영 그것덜이나 헤놔주 무슨. 학교 안 헨 사름은 것덜베끼

더 하시냐게.

111078 @ 으. 베떨락?

111078 #1 베떨락도 헤나고. 나 이제도 헤진다 베떨락. 이제도 헤진다. 이젠이 으든 넘어가난 줄넘기 나만 허는 건 기자 혼 오십 개 육십 개.

111078 @ 헤에!

111078 #1 경 헤진다. 나 이제도 잊져 저디.

111078 @ 험니까?

111078 #1 나 이제.

111078 @ 운동 삼양?

111078 #1 으.

111078 @ 아이고 대단허다.

111078 #1 운동으로 저디 잊이네. 이거 이거.

111078 @ 계난.

111078 #1 이거 우리 손지 사다 줘라. 이거 나 줄넘기 헤가난 우리 손지 사다 줘. 이걸로 혼 칠십 개깎장 허고.

111078 @ 아이고.

111078 #1 경헤진다게. 난 두린 때 헤난 거 저건 잊어볼지 안 허여. 영 영 난 항상 몸이 게볍기 때문에 영 돌리가 상 허지 안 허느냐이 돌리가 상. 이제도 험주 만든 대결 가민. 경허민 나 몸 게벼우난 그런 것도 잘 헤지고. 나만 허는 것도 저거 헤지고.

111080 @ 예. 그네도 타났수과 어릴 때에.

111080 #1 그네, 그네도 타는 사람은 탓저만은 난 그넨 아니 타났저.

111080 @ 안 타난예. 혼다리인다리가 뭐과?

111082 #1 혼다리인다리런 것도 영덜 앓으민, 것도 일 엇이민 영 앓앙.

111082 @ 앓앙.

111082 #1 마주앓앙.

111082 @ 마주앓앙 다리 끼왕.

111082 #1 영 현다게. 이추록 혼다리인다리(노래) 하하하.

111082 @ 노래 불러봅서.

111082 #1 하하하. 아이고 잊어볼엇저 문딱 불러나신디.

111082 @ 그니까예. 노래 불르명.

111082 #1 어게, 혼다리인다리(노래) 셋동네 성님은 알 거여. 거 들어보라.

111082 @ 예.

12. 통과외례

출생

- 112001 @ 삼촌 자식이 몇 명이나 됩니까?
112001 #2 나 삼남매.
112001 @ 삼남매
112001 #2 으.
112001 @ 맨 우에가?
112001 #2 으?
112001 @ 맨 우에가 아들?
112001 #2 아들. 우로 두 개.
112001 @ 아.
112001 #2 밑에 딸.
112001 @ 아, 밑에 딸.
112001 #2 으, 으.
112001 @ 계민 옛날에 애기 갖으민 태교라는 거 헛수과?
112001 #2 으?
112001 @ 태교, 태교.
112001 #2 어, 어.
112001 @ 뱃 속에 잇일 때 아이고 애기 잘 크라 허멍 뭐 말도 곱아주고 노래도.
112001 #2 아니, 옛날엔 경 안 헤 봤어.
112001 @ 안 헤 봤어예.
112001 #2 요즘은 경 허는 거 다향.
112001 @ 으.
112001 #2 요즘은 경허는 디 옛날은 당초 경 안 허고 비끄럼만 허고.
112001 @ 무시 비끄러와?
112001 #2 아이고 지금은 그걸 뭐 헌디 옛날은 막 애기 벤 사름 막 웃고 경헤 낫어.
112001 @ 무사 웃어신고?
112001 #2 계난 것가, 거가 멩청힘이주게.
112001 @ 하하.
112001 #2 으, 옛날엔 경 헨 허민 사름 신더레 넘어가젠 허민 배 영 행 불룩 나오민 그걸 비끄러왕 스못 영 헤영.
112001 @ 어.
112001 #2 경헤낫어. 경허민 그 남저덜은 저 애기 벤 거 넘어감저, 넘어감저 웃고.
112001 @ 어.
112001 #2 옛날엔 경 헤낫저게.

112001 @ 으.

112001 #2 요즘은 그것가 아니다.

112001 @ 계민 태교 같은 거 전혀 못 해봤다예?

112001 #2 으.

112002 @ 계민 얘기 낱젠 허면 영 준비를 해살 거 아니과?

112002 #2 어.

112002 @ 어떤 준비를 험니까?

112002 #2 짹, 짹 헤다근에이, 베깃 디 그 나룩짹이나 산디짹이나 보리짹이나 잇주게. 헤난 거 두드려 난 것덜 그거 아무 거나 이신 걸로. 저 쥬 좋은 건 나룩짹 이주게.

112002 @ 으.

112002 #2 벼짹이.

112002 @ 으.

112002 #2 나룩짹 그거 아저당 구들에 깎아근에.

112002 @ 으.

112002 #2 깎앙 그디서 얘기 나나민 그레 막 피 흘릴 거 아냐게?

112002 @ 으.

112002 #2 피 흘리민 그거 걷어 불 걸로.

112002 @ 이 동네 나룩이 잇어났수과?

112002 #2 아이, 엇엇저.

112002 @ 계민 나룩짹을 어디 강 헿 왕?

112002 #2 계난 이디선 저 보리짹.

112002 @ 보리짹.

112002 #2 으, 보리짹. 새 ㄴ튼 거. 그런 거 ㄴ튼 거주게.

112002 @ 기지예? 나룩짹 엇어부난.

112002 #2 으, 엇어 부난.

112002 @ 예. 계민 낱기 전에 미릿 지성귀나 같은 거 준비 안 헿어?

112002 #2 아이고, 준비허는 사름 엇어실 거여. 어려와 놓난.

112002 @ 아.

112002 #2 그때 경 헿 얘기 나나민 끌일 거 엇이민 어멍 치메 헤근에 학 끈으 고. 치메로 허민 쓸어진덴 얘기가. 얘기가 쓸어진덴 허멍 치메 안 끌영 저 저고리라도 끌이곡.

112002 @ 예.

112002 #2 학 허게 끌일 게 엇어.

112002 @ 끌인다는 게 무슨 말?

112002 #2 얘기 학 영 둘러싸는 거.

112002 @ 아.

112002 #2 둘러 쌀 그것가 엇엉.
112002 @ 예.
112002 #2 학 허게 어멍 치메 잇이민 치메로 끌이고 우이 거 잇이민 우에 거로 끌이고. 저 기저귀, 지성귀, 지성귀 헛주게. 기저귀가 아니고.
112002 @ 예.
112002 #2 지성귀 헐 것도 엇엉 현 옷이.
112002 @ 으.
112002 #2 하르방 신 딘 갈옷 입어난 정벙이 그튼 거. 그런 갈옷 현 거.
112002 @ 으.
112002 #2 입지 못 헐 거, 버릴 거 그거 혜근에 애기 지성귀 허곡 깰양 늑지곡 그거 더끄곡.
112002 @ 아.
112002 #2 그걸로 혜.
112002 @ 현 옷으로.
112002 #2 으. 애기구덕 혜근에 대로 질아. 애기구덕 뱅동글락허게 대로 질아근 에 그디 혜근에 짝 깰아근에 그 우터레 갈옷 더꺼근에 그레 애기 늑저.
112002 @ 이게 바닥이면 우에 사이에 뭘로?
112002 #2 영 헨 우에 사이엔 저 무시거 행, 저 여름엔 무시거 노꽃 꼬와근에.
112002 @ 예.
112002 #2 저 아무 걸로라도 노꽃 꼬와근에 여름엔 영헨 얽엉 메곡.
112002 @ 예.
112002 #2 겨울에 짝만 하영 깰민 뜻곡.
112002 @ 아.
112002 #2 여름엔 더우니까 그레 당가 메영 그레 지성귀나 우에 뇌근에.
112002 @ 그니까 바닥보단 우에 뜨게.
112002 #2 으, 우에 뜨게.
112002 @ 예, 예.
112002 #2 건답게.
112002 @ 건답게.
112002 #2 으, 강혜낫주게.
112002 @ 더우카부덴 경 현 거구나. 바닥에.
112002 #2 어, 짝각허영 깰 뎌 뜻으렌 경허고.
112003 @ 그 왜 태어나면 애기 태랑 탯줄이 잇잖아예?
112003 #2 슬아. 올레 강 슬아. 슬아근에 내려분다.
112003 @ 아, 다 슬아부는 거.
112003 #2 어. 슬아벼.
112003 @ 어디 강 슬아 부는 거라?

112003 #2 올레, 올레.

<중략>

112004 @ 계민 얘기 나면은 산모안테 뭐 줘니까 먹을 거?

112004 #2 밀크루 저 보리 찜, 믹물크루. 믹물크루 해근에 저 학 허게 챗 번은 언물에 카근에 들으싸고. 저 거시기 우유크치.

112004 @ 믹물크루 그냥 언물에?

112004 #2 어. 언물에 캉 학 들이싸렌 헤라게. 경헨 학 들이싸고 말젠, 그 다음은 췌는 물 놔근에 제베기 멘글앙.

112004 @ 으.

112004 #2 제베기 멘글아근에 그거 메역 놓고 그레. 경허근에 그거 먹고.

112004 @ 메밀처베기.

112004 #2 믹물, 믹물 헛주. 믹물.

112004 @ 믹물저베기 먹어난 거?

112004 #2 어. 그거 막 맛 좋아. 나도 헤 주난 막 맛 좋게 먹어났저.

112004 @ 근데 처음에는 그냥 언물에 믹물크루를?

112004 #2 그거 학허게 칸에 쥐라게. 우유거치 언물에 칸.

112004 @ 누게가 경 카 준 거라?

112004 #2 시어멍.

112004 @ 계민 텃줄 자를 때는 누게가 왕 자르는 것과?

112004 #2 건 시어멍이 잘라 쥐라게. 췌 안 허민이 또 누게 돌아와라 흐쓸 막 얘기 낱지 못 헿 헤가난에 그 흐쓸 영 아는 사람 들앙 와라 할망. 나도 경헨 누게 돌아완에 막 이디 누뜨러 주꼭 헤라.

112004 @ 아. 계민 아기 날 때 똥 가면 영 배 아파 가면은.

112004 #2 으.

112005 @ 짹 끌아 놓고, 짹 끌아 놓고 얘기 나면 목욕도 시켜야 될 거 아니?

112005 #2 목욕 시키주게.

112005 @ 계민 물도 막 데평 놔 두고 헤야큰게.

112005 #2 난 후젠 물 매지근 허게 데퍼근에 시쳐. 매지근 허게 옳더레 영 뒤근에 강 매지근허게 데와당.

112005 @ 계민 얘기 낱자마자 경 물 데우는 거?

112005 #2 아니 아니 나 놓민.

112005 @ 계민 얘기 목욕은 언제 허는 것과?

112005 #2 나 낱 그때 그자 물만 데와지민 즉시 허주게. 경허민 껌껌 울어.

112005 @ 으, 애기가?

112005 #2 경허민 껌껌 들어가민 저 거시기 꿀. 꿀 신 딴 꿀물 허고 경 안 헌딴 설탕물 카근에 들코롬허게 헤근에 솜, 솜 헤근에 요만이 헤근에 입더레 영 놓민 쪽쪽 빨아.

112005 @ 하하하.

112005 #2 숨, 그 들코롬헌 물 영 농민 쪽쪽 빨고, 쪽쪽 빨고.

112005 @ 목욕시킬 때는 뭐로? 지금처럼 비누가 있을 거 아니잖아예? 그때는 뭐로?

112005 #2 어, 그대로 그자 거시기 요만이 헌 험벅 헤근에 미녕 험벅.

112005 @ 으.

112005 #2 미녕 험벅, 베 험벅. 그거 헤근에 그자 시쳐라게.

112006 @ 으, 그 애기 금방 태어나민 옷 입히는 것 중에 베?

112006 #2 옷 입히는 건 저 붓대옷.

112006 @ 으.

112006 #2 미녕으로 허나 베로 허나 멩지로 허나 헤라.

112006 @ 그거 미룻 만들어 놓는 것과?

112006 #2 겨난 미룻 만들어 놓는 사름 잇곡, 못 만드는 사름 잇곡. 또 빌어단 입지곡.

112006 @ 삼춘은 어떻 헛수과?

112006 #2 난 췌 번 날 땀 친정어무니 해주난 친정어무니 멩지가 하난 멩지로 헨 놔 뒷어라.

112006 @ 아, 아기 낳기 전이 미리?

112006 #2 으, 멩지로. 붓대옷.

112006 @ 붓대옷.

112006 #2 경헨 이디 영 지랑허게 이디 터지게 이추룩, 이추룩 헌 거 이추룩.

112006 @ 으.

112006 #2 경헨에 헿 놔 뒷어라. 소미 영 질게 헨에.

112006 @ 친정어무니가 멩지를 헤낫수과 집이서?

112006 #2 친정어명이영 우리영 막 그디서 막 헤낫주게.

112006 @ 아, 멩지를?

112006 #2 멩지 헿 우리 니랑 풀고 그걸로 막 우린 멩지 헤근에 입으민 그 옛인 사름덜은 무녕옷 입고, 미녕.

112006 @ 미녕옷.

112006 #2 미녕옷 입곡 우린 멩지 입으민 아이고 저 집이 딸덜 문 멩지옷 헤 췌 멩지옷 헤 췌 허곡, 우리도, 우리 아버지네가 친정아버지네가 세 오누인디 아래덜은 헿살 못 살고 우린 잘 사난.

112006 @ 으.

112006 #2 그 우리 셋아버지네나 족은아버지네나 미녕옷 아이덜 헤취 우리 스춘덜은. 이제도 어디 가근에 모영 놀민 성님넨 두린 때부터 멩지옷 입고, 멩지옷 입고 막 사름ㄴ라 헌다.

112006 @ 으.

112006 #2 가넨 그냥 미녕웃만 입곡.
112006 @ 으.
112006 #2 우린 어머니가 침 흐쓸 유식허고 뭐 어떻 허신ㄴ라 그런 곳인 걸 안
헤 줘라게.
112006 @ 으.
112006 #2 곤 거만 헤 주젠 허곡이 머리도이 두린 때 요만이 현 때부터 늦 썩
으멍 머털 곱으렝만 매날.
112006 @ 으.
112006 #2 매날 곱으렝 허민 니 안 일어.
112006 @ 으.
112006 #2 겐 어떤 아이덜은 머리 안 곱지민 니 막 일어났어. 머리에 오죽 니
하, 는 몰라.
112006 @ 그니까.
112006 #2 우린 게난 니 안 일어났저. 머리에.
112006 @ 아니고.
112006 #2 매날 머리 곱으렝만 헤라. 저 발, 손, 머린 매날 헤산다 헤산다 허멍
안 헤 가민 돌아당 심영 누뜨렁 요만씩 혈 때. 드러 영 두드리멍. 이거 헤산다, 헤
산다 허멍. 경헤라게.
112006 @ 어무니가 잘 시켜나신게예?
112006 #2 어, 경허난 경허고이 무시겨 만들양 늡, 늡 갈랑 먹어사 헌덴 허멍
이넉만 먹는 거 아니엔 허멍. 그런 걸 막 시켜라게.
112006 @ 게민 큰아이는 웨할망은 경행 멩지로 헤주고?
112006 #2 헤 주고.
112006 @ 둘째랑 셋째는?
112006 #2 둘젠 그거 입저난 거 문 입젓주게.
112006 @ 물렁 입지고예?
112006 #2 으, 그거 아저단 문딱 입젓수게.
112006 @ 게난 출산 준비헐, 애기 낳기 전에도 준비헐 때도 큰아이 헐 때만 붓
댓웃 허면 나머지는?
112006 #2 어게 나머진 그거 허난 거, 옷도 입어난 거 문딱 놔뒀다근에 그거 입
곡.
112006 @ 물려근에 입고.
112006 #2 어, 지성귀도 헤난 거 놔다근에 문 그거 허고.
112006 @ 게민 큰아이 낳 때는 원래는 지성귀 엇어 낫잖아예?
112006 #2 으.
112006 @ 게니까 현 옷 가정당 지성귀 만들양 쓰곡 헤신디 둘째랑 셋째 헐 때
도 지성귀 엇어낫수과?

112006 #2 그 큰아이 해난 거 그냥 츠츠 영 헝 저 허멍 미녕도 헝 지성귀 멘글고 광목도 헝 멘글고 그런 거 봉그멍 멘글양게.

112006 @ 으.

112006 #2 이젠 이 지성귀여 뒤여 나왔주만은 그거 안 헤 봤어.

112006 @ 으.

112006 #2 으, 기자. 애기구덕에 녹지민 똥 싸민 똥고망 영 썰어뒤근에 꼬부려 낡 그레 녹지고. 그러 빨지 안 허고.

112006 @ 예.

112006 #2 어게, 그것도 꼬부려 낡 그레 또 영 헝 녹지고. 경헝 하영 싸 놔사 강 빨고.

112006 @ 아이고.

112006 #2 물도 어렵고.

112006 @ 아, 물도 어렵고. 경헝부난.

112006 #2 그거 영 똥고망 썰어근에 이거 영 헝 또고망 썰어근에 뒤집어 낡 뒤집어 놓민 그거 더꺼질 거 아냐?

112006 @ 예.

112006 #2 더꺼지민 또 그레 애기 녹지고.

112006 @ 하이고. 하하.

112006 #2 또시 경허민 또 경허고. 오줌 싸민 적으민 그거 영 헝 옆더레 내베덩 젓지 안 현 걸로 영 등겨놔근에 녹지고. 하하하.

112006 @ 아, 경도 허멍 키웠구나.

112006 #2 어, 하하하.

112007 @ 애기는 왜 우리 삼신할망이 점지혜 주는 거렌 허잖아예?

112007 #2 어.

112007 @ 계난 영 할망상 츠리고 헤낫수과?

112007 #2 애기 어떻헝 올 때이, 올 때 할망상 츠련에 심방 빌어단 빌어낫저.

112007 @ 무사 올 때?

112007 #2 애기가 어떻헝 무시거 거시기 헤근에 막 올멍이.

112007 @ 으.

112007 #2 흥쓸 아프는 거 닥아.

112007 @ 으.

112007 #2 자꾸 올멍 무시거 먹도 안 허고. 경허난 심방 돌아단 거 헛 거. 감길 걸리나 어떻 허민 거 우는 건디 옛날은 심방 돌아당 빌만 헛저. 애기 좋게 헤 줘서, 좋게 헤 줘서 허멍 밥 헤 놓고 그디 국, 저 퀘기국 끓여 놓고 곤밥 헤 놓고 경헤근 에 든 출려근에 겐 심방 해당 막 절 허멍.

112007 @ 절 허멍?

112007 #2 어, 영 헝 절 허멍 애기 좋게 헤 줘서 허멍 애기 신더레 강 춘물 떠

뇌근에 허민 그거 촌물 블라당 머리에 영영 찢어주고.
 112007 @ 아.
 112007 #2 심방 해당. 경해났저. 경해났어. 경허민 흐쓸 낮아.
 112007 @ 아, 낮아?
 112007 #2 어.
 112007 @ 효과가 잇인게?
 112007 #2 잇어. 경허난 그걸 허는 거주게.
 112007 @ 삼춘만 말고 동네에서 어른들이 얘기 키우멍 다 그렇게덜 헛던 거잖아?
 112007 #2 경 헛주게. 다 그걸 누게나 경 해라게.
 112008 @ 얘기 배속머리렌 헛니까, 태어날 때 머리.
 112008 #2 어, 머리.
 112008 @ 그건 어떻 헛니까?
 112008 #2 그건 그대로 헤근에 얘기 낭 보민 머리 까망허영.
 112008 @ 예.
 112008 #2 까망 헤근에 기자 살다근에 스월초파일날.
 112008 @ 예.
 112008 #2 초파일날 민짜 까까라.
 112008 @ 사월초파일이면 돌 텔 때 사월초파일?
 112008 #2 돌도 텔 때 잇곡 쪼금 낭 메칠 안 텔 때 잇곡 건 나는 날, 날과 거시기 허난게.
 112008 @ 예, 처음 돌아오는?
 112008 #2 어, 돌아오는 초파일. 그때 문짝 깎아. 이제도 깎으는 애긴 깎아. 경허민 머리가 좋넨.
 112008 @ 그때 깎아볼민?
 112008 #2 으, 머리가 좋넨.
 112008 @ 그 깎은 배넛머리는 어떻 헛니까?
 112008 #2 아, 내볼어. 데껴볼어.
 112008 @ 그거는 아까 베포롱 줄처럼 술아볼거나?
 112008 #2 안 헤, 안 헤.
 112008 @ 그런 건 아니고예?
 112008 #2 으.
 112008 @ 예, 예.
 112003 #2 겨고 베포롱줄은이 저 슬지 안 허여. 태만 슬주.
 112003 @ 아.
 112003 #2 베포롱줄은 일주일이나 으드레나 열흘이나 셔야 떨어져. 요만이 헛거 떨어지민 그건 약 웬덴 허멍이 나도 막 오래 실에 돌아맹 거 걸영 내벼났저.

112003 @ 예.

112003 #2 계민 빠짝 몰라. 그거 허물 난 때 종기.

112003 @ 예, 예.

112003 #2 허물 날 땀 그거 술양 부르민 종넨 허주게 옛날에. 허물 날 때. 경혜 낫저.

112003 @ 경허민 텃줄은?

112003 #2 슬아 불고.

112003 @ 슬아 불고 베포롱줄은.

112003 #2 으.

112003 @ 물령 보관을 헛던 거라.

112003 #2 으, 경현디 이 텃줄도이 우린 문딱 슬아 분디 단지에 놔근에 땅 팡 묻는 디도 잇고. 땅 팡 묻엇단 그거 약 웬덴. 저 줌 우치는 땡, 기절허는 병.

112003 @ 예.

112003 #2 그거 아이덜 막 잇당 기절허주게. 경허민 그 물 해당 맥이민 종넨 허 멩 정도 말이 잇어낫어.

112003 @ 아.

112003 #2 경허영 나 이디 시집 온 후제도 우리 이디 우녀 집이 나 우리 사는 이걸 살민 이 집일 우녀집이엔 허주게. 그 집이 아덜이 경 줌 우쳐 가난 그디 어멍 이 얘기 날 때 미룻 날 때 행 놔 뒷당 그거 해당 맥이고 헤라게.

112003 @ 으. 줌 우쳐 가난?

112003 #2 으, 줌 우쳐. 기절허는 것ㄴ라 줌 우쳐젠 현다.

112003 @ 아. 기절허는 것ㄴ라 줌 우친덴?

112003 #2 땡기단이 땡기단 탁 씨러전 기절허는 거 아냐?

112003 @ 예.

112003 #2 것ㄴ라 줌 우친덴 현다 줌 우친덴. 아이고 저디 줌 우친.

112003 @ 아. 그럴 때 그거 놔 뒷던 거?

112003 #2 어. 경혜단 그물 해당 맥여라게. 우리 우녀 집이. 그거 허난 거 나 봐 낫죽게.

112003 @ 아까 베포롱줄은 물렛단 여기 종기 나면?

112003 #2 어 허물에 블라. 술양.

112003 @ 아, 술양, 술양 그 재를?

112003 #2 으, 재를 영 놔 두민 물 빨아져근에 경헨 좋아.

112003 @ 예.

112003 #2 옛날에 약이 엇인 때.

112003 @ 약이 엇인 때.

112003 #2 으, 약이 엇인 때.

112009 @ 계난 삼춘네 아이덜은 천연두 걸리고 홍역 걸리고 안 헛수과?

112009 #2 홍역 헛저게. 홍역 문딱 헛저게.
112009 @ 으, 홍역 혈 때 어떻 험니까?
112009 #2 홍역 혈 때 사름 못 오게, 못 오게 허여. 브름, 브름도 들이지 말고.
112009 @ 아.
112009 #2 막 이디 숫아라이.
112009 @ 으.
112009 #2 이디가 과작 숫앙 별경허고.
112009 @ 으.
112009 #2 눈도 별경허고 이디 뽀족 뽀족 뚝뚝기 닳은 거 바짝허여.
112009 @ 으.
112009 #2 경헨 혼, 혼 이틀 잇이민 이제 거 삭아져 간다 츠쳐 츠쳐.
112009 @ 으.
112009 #2 혼 이틀은 막 아이 경허영 아이 열 나근에 벌떡벌떡 뛰지게 그거. 이젠 우두 놓곡 허난 그걸 안 험주.
112009 @ 으. 경허민 뉘 헤 먹입니까?
112009 #2 그거 헤 뻘이는 건 집이서 기자 먹는 거 떡곡 사름 텅기지 못 허게 허곡 저 무시 거 어디 강 무시 거 쓸지도 안 허고 누게, 옛날은 쓸도 꾸레 땡겨놔주게.
112009 @ 예.
112009 #2 쓸도 꾸 주젠 안 허고.
112009 @ 아, 우리집이 홍역이민 늬이 집이 꾸 주지 안 허는 거?
112009 #2 아니 안 주고. 올레 거 무시 거 주지 안 허여. 늬신디. 주지 안 허고 그건 큰 스못 큰 어른이엔 허멍.
112009 @ 으.
112009 #2 아이고 막 큰어른 들언, 큰어른 들언.
112009 @ 큰마누라?
112009 #2 으, 큰마누라 죽은마누라 허주게. 경허민 막 심허게 허는 사름 잇곡 죽게 허는 사름 잇곡.
112009 @ 예.
112009 #2 으, 경허민 그거 혈 땀 막 아이 저 혼 이틀은 막 뉘다 뛰여서. 못 전더 혀. 막 독허게 허는 사름 잇곡. 게난 우리 애기덜은 다 그추룩 헨 허고, 막 그땀 우두산디 무시거 논 거 닳다.
112009 @ 아, 기과.
112009 #2 이제 오십오 쉐디 가이가 우두 놔 준 거 닳아.
112009 @ 오십오 세가 몇 번째마씨?
112009 #2 쉐 막내.
112009 @ 아, 막내가 오십오 세. 그니까 쉐 큰 아이는?

112009 #2 욕심하나.

112009 @ 그 아이 혈 때는 뭐 엇어났잖아예?

112009 #2 어, 그자 기자 헤라게. 경헌디 우리 아이덜은 경 심허게 안 헤영 간단 간단허게 헤라게. 간단 간단허게.

112009 @ 계난 홍역 들엇을 때 제사 하게 되면 제사는 허잖아예?

112009 #2 어, 겐디 우린 홍역 든 땐 제사 안 헛저. 겐디 상 안 아저 다니는 거 주. 밥 먹을 때도 상 안 출리고.

112009 @ 으.

112009 #2 그거 홍역 든 땐 상 아저 텅기지 안 헌덴. 그 홍역이 쥬얼 큰어른.

112009 @ 계난 고기 뭐 안 허는 거, 그런 건 엇수과?

112009 #2 그런 건 우린 옛날에 먹어보진 안 허난. 그런 건 아니 아저 텅견. 고기 같은 것도 나쁘주게.

112009 @ 꿩기도 안 좋은 거?

112009 #2 으, 안 좋은 거주게. 겐 기자 죽이나 썰 먹고 애기 신 디 강 무시거 곧도 안 허고.

112009 @ 으.

112009 #2 무시거 허지렁헌 말도 안 곧고 경혜근에 막 조심행 그 애기 홍역허는 디 누게 들어오지 못 허게 허고.

112009 @ 으.

112009 #2 그디 홍역 헛저 허민 동네에서도 누게 안 가. 안 가 저디 홍역 헛젠 허명. 마누라 험젠 마누라. 홍역이 아니고 마누라 험젠.

112010 @ 맞수다, 맞수다. 저, 출산혈 때 출산, 저 집이 애기 낫저 허민 뭐 금기허는 거 엇수과?

112010 #2 금기허는 거 엇고 올레 줄 멘다게.

112010 @ 올레예?

112010 #2 어, 저 부정허지 말렌이 올레예 줄 메여. 요샌 고치 돌아메고 허는 게 옛날엔 고치 안 돌아메고 그자.

112010 @ 그냥 줄만 메는 거?

112010 #2 어.

112010 @ 계민 그 줄 멩 잇이민 그 집에는 몸 비린 사름 가민 안 돼는 거?

112010 #2 어, 안 돼주게. 부정헌 사름 안 가고.

112010 @ 부정헌 사름 안 가고예?

112010 #2 으, 부정은 쥬얼 탄덴 헌다.

112010 @ 부정헌 사름덜이 어떤 것과, 아메도 몸 비린 사름 아니?

112010 #2 부정헌 사름은 영장밧디 가 오나.

112010 @ 예.

112010 #2 어, 영장 밧디 가 오나 곳인 일 헌 사름게. 그거, 그거. 부정헌 사름

덜은 일절, 그 마누라 헐 때도 일절. 경허민 마누라 헐 때도 그 애기 어머은 혼 엇 이 어디 안 다니주게, 올레 베꼈디레. 그건 막 주의혜근에.

혼례

112011 @ 이번인 결혼식 관련행 물어보쿠다.

112011 #2 으.

112011 @ 옛날에 삼촌 결혼허실 때, 옛날 결혼식에 요즘 말고.

112011 #2 으.

112011 @ 옛날 결혼식은 어땡 헤낫수과?

112011 #2 옛날엔이 저 딸 푸는 딴 도새기 혼 머리 잡아 놓민 허고 아덜은 혼 머리로 죽고. 딸은 낫전 잔치행 말고.

112011 @ 예.

112011 #2 아들은 저물양 헐 거난, 새각시 돌아와도 헐 거난 두 머리 잡고 딸은 혼 머리 잡아. 보리쌀이 아시날 막 숭고 아시날 도새기 잡곡 췌당덜 오라근에.

112011 @ 예.

112011 #2 도새기 숭아근에 저 통보리쌀이엔 혜근에 보리 저 물ㄴ레에 곶아단 널엇단 거 푸는체에 평 문 헛단 또 물ㄴ레에 강 멧 불 곶아.

112011 @ 으.

112011 #2 멧 불 거, 요새 깎은 보리쌀추록 멘글젠 허민 멧 번 곶민 곶주게.

112011 @ 으.

112011 #2 가근에 등글여당 푸는체로 퍼근에 또 등그령당 또 경허민 서너번 허민 깎은 보리쌀이 웨여. 경허민 그걸 숭아이.

112011 @ 으.

112011 #2 그걸 풋 저, 숭아근에 풋이여 혼디 서끄는, 서경 숭는 디 잇고.

112011 @ 으.

112011 #2 풋 따로 보리쌀 따로 숭는 디 잇고 경허민 옛날은 짝, 짝 혜근에 저 영 행 멧텅이 절앗주게. 멧텅이 절민 어느절에 요새추록 무슨 낭퐁이가 서시냐, 무슨 다라가 서시냐?

112011 @ 으.

112011 #2 도고리 기자, 낭도고리 동골랑허게 팡 그자. 경허민 그 짝 혜근에 맥 에, 그 보리쌀 숭은 걸 그레 퍼 놔. 멧석에 널엿 것엿 영영 솔박. 솔박도 잇주게. 영 현 거.

112011 @ 으, 으.

112011 #2 솔박으로 영영 허다근에 그 보리쌀 식으민 그 맥더레 퍼 낫당 또 이 제 아시날 문딱 준비허주 널 오랑 먹을 거, 손님덜 오민 먹을 거. 보리쌀 무신 열 말 숭앗저, 닷말 숭앗저, 혼 섬 숭앗저 허주게. 경허민 그디 곤쌀 흐쌀 옆이 낫단 듯날은 그 보리쌀 솟디 물 놔근에 웨여가민 그 보리쌀 낱 웨여가민 곤쌀 놔근에 거

젓어근에 밥 맨그는 거.

112011 @ 으.

112011 #2 경혜영 반지기 밥 혜영 떡곡.

112011 @ 아.

112011 #2 풋이영 혼디 서꺼근에. 경허영 사발에 혜근에 통사발에 영영 무릅무
릅 거렁. 저 곤쌀은 곤쌀은 아메도 보리쌀 혼 다섯 개민 곤쌀 하나쯤 낫주.

112011 @ 아, 하하.

112011 #2 쪼끔은, 하나씩 낱 그것이 경 맛 좋아.

112011 @ 아.

112011 #2 잔치 먹으레 가민 그거 혼 사발 허고.

112011 @ 예.

112011 #2 국 끌린 것도 퐁망 놓고 도새기래기 팡 삶은 물에 퐁망국 혜근에 그
레 ㄹ루 카 낱 거 막 쥐이.

112011 @ 으.

112011 #2 그거 놓고 보리밥, 보리쌀 반지기밥 놓고 저 래기반, 래기 석 점 아
니민 녁 점 놓고 늣삐 삶아근에 늣삐 삶아근에 저 거시기 요만이 현 점시 영, 이젠
사라여 무시거여 허주만은 요만이 현 정반에이.

112011 @ 으.

112011 #2 그 늣삐 놔근에 ㄹ물, ㄹ물ㄹ루 혜근에 영 널르게 목, 목 지정.

112011 @ 으.

112011 #2 그거 네귀 방장, 요거민 영 허고 영 허영 기창 요거 하나씩 톡톡 더
경.

112011 @ 으.

112011 #2 경헨 그거 주고.

112011 @ 으.

112011 #2 그건 잘 허는 디.

112011 @ 그니까 잘 허는 디는 고기영.

112011 #2 그 늣삐 삶은 거영 저 반지기 밥도 곤쌀 하영 놓고.

112011 @ 으, 으.

112011 #2 못 허는 딴 곤쌀 햅쌀만 놓고 그거 늣삐 삶은 것도 엇어. 래기반 햅
나.

112011 @ 아.

112011 #2 짐치 기자 하나.

112011 @ 아. 계난 짐친 잇어낫수다예?

112011 #2 짐친 옛날부터 그자 소금에 절영 고깃ㄹ루 햅쌀만 놓고 대사니 햅
만 낱 기자 껍지랑허주게.

112011 @ 계난 마놓지도 엇고 잔치 때?

112011 #2 아이고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안 했져.
112011 @ 계민 고기반 하나에.
112011 #2 짐치에.
112011 @ 아까 무 슴은.
112011 #2 무 슴은 건 그건 허는 집이 잇고 안 허는 집이 잇고.
112011 @ 묵은, 묵은?
112011 #2 묵은 안 허여. 묵은 이제덜은 막 해도 옛날엔 그것도 엇엇저게. 무시
거 간단허게.
112011 @ 으.
112011 #2 경헨 기자 헨 먹어났어.
112011 @ 계난 고기반만 올라오민.
112011 #2 어, 어. 고기반 올라오민. 경헨 수웨 흔 점 놓고.
112011 @ 수웨 흔 점 놓고?
112011 #2 어, 수웨 흔 점 놓고.
112012 @ 하하하. 계난 옛날에 결혼식 허젠 허민 지금이야 다 연애헨 결혼허는
거지만 옛날엔 다 중매랏수게?
112012 #2 중매.
112012 @ 계민 누게가 영 중매 서는 것과?
112012 #2 동네에서 아무라도 영, 어디 새각시 시민 새각시 알아진 사름 헤근
에. 우리 저 아덜 풀크메 새각시 구헤줘게 구헤줘게 경허민, 누게 알아진 사름 누게
새각시 신 게 곶아보카 허민 곶으라, 곶으라 허민 곶아근에 영 허영 기자 허민 주
켄 허민 어디 집에서 구허레 왓젠 허민 영 헤영 영 알아봐근에.
112012 @ 으.
112012 #2 서로 적당허민 경 스지 써 가고.
112012 @ 으.
112012 #2 그 새각시 집이 가근에 어느 덜 어느 날 난 거, 멧 설 어느 덜 어느
날 난 거 찍어 오주게. 찍어 오민 새서방칩이서 또 새서방, 신랑 어느 덜 어느 날
어느 시에 난 거 찍어근에 어디 아는 디 아정 가민 이건 맞다 허민 잔치 허고.
112012 @ 으.
112012 #2 안 맞다 허민 돌려 불고.
112012 @ 으. 계민 어쨌든 중매 서는 건 남자 집이서가 영?
112012 #2 남자나 여자나 아무라도.
112012 @ 아, 여자나 아무라도?
112012 #2 어, 알아진 사름 그자 아무라도.
112012 @ 우리 집에 남자가 잇영 아덜 풀젠 허난 아는 사름안티 강 곤는 거라
예?
112012 #2 어.

112012 @ 새각시 구해 달렌.
112012 #2 어, 구해 도렌.
112012 @ 경 구허레 다니는 사람이 중매?
112012 #2 어, 중매해근에.
112012 @ 중매도 영 잘 서는 사름이 잇고 이 사름 중매 허민 잘 안 되는 사름?
112012 #2 어, 안 되는 사름 잇꼭 경허주게.
112012 @ 예.
112012 #2 또 중매허는 사름도 잘 사는 사름 중매해사 잘 산덴 허명 경허명 잘 사는 사름신디 강 곱아나고.
112012 @ 기지예?
112012 #2 으. 어디 새각시 잇저 허민 아무라도 곤지 안 허영, 영 허영 누게신 디 곱으코 해근에 잘 사는 사름신디.
112012 @ 으.
112012 #2 경헨 곤고.
112013 @ 으. 막편지라는 게 뭐과 막편지?
112013 #2 어?
112013 @ 막편지?
112013 #2 막편지 몰라.
112014 @ 이바진 뭐과, 이바진?
112014 #2 이바진 그 새서방, 새각시 오라근에 듯날 갈 때 떡 행 가는 거.
112014 @ 누가?
112014 #2 메누리가 영 돌아오민 그 뒷날 신부칩이 보내주게.
112014 @ 신랑칩이서가?
112014 #2 으, 으. 신랑칩이서가. 그 오닐 잔치 허민 이 저녁 지나민 내일은 새 각시 집이 갈 거난 그때 떡 해근에 가는 거.
112014 @ 아, 케민 저기 새각시가 새서방 집이 완?
112014 #2 으, 잣단.
112014 @ 이날 잣단.
112014 #2 듯날 가게 웨난 경허민 떡 해근에 저근에 누게 뒤에서 혼디 해근에 가주게.
112014 @ 그게 이바지?
112014 #2 으.
112014 @ 이바지 음식은 뭐 해낫수과, 주로?
112014 #2 이바지 우린 안 헤 봤어. 우리 시덴 아무것도 안 헤라 또.
112014 @ 으.
112014 #2 경헌디 나 헐 땀 저 무시거 만디 행 가고.
112014 @ 으.

112014 #2 만디 저 거시기 이 촌에난에 므물이 하난에 므물 헨에 만디.
112014 @ 으.
112014 #2 만디 행 가근에 흔 짐 해근에 또 차룽에나 놔근에 정 가민 또 그디 서 켜당덜 나뉘, 동네 나뉘근에 이바지 해 왓젠. 저 새각시 왓젠 새각시 왓젠 경허 명 큰고.
112014 @ 만디가 뭐과?
112014 #2 만딘, 만딘이 조개 송펜 꺾치 동글랑 허게시리 밀어 놔근에 무시겨 사발로 띄 쟈근에 이디 늬삐 슣은 거나 무시겨 영 낡 접아근에 녹든 거. 동글랑 현 거 있나.
112014 @ 아.
112014 #2 영 슣펜 님은 거.
112014 @ 게난 그거 므물꺾루로 허는 거?
112014 #2 으, 므물꺾루로. 밀꺾루도 현다.
112014 @ 밀꺾루도.
112014 #2 켜디 므물꺾루 떡이 경 맛 좋주게.
112014 @ 음.
112014 #2 게난 옛날에 어디 영장 나나 소상을 허나 허민 그거 접아근에 차룽 으로 허나 영 놔근에 조문가고.
112014 @ 으.
112014 #2 또 빙떡, 쟈기. 쟈기허는 사름은 쟈기 짓어근에 가고 경해낫주게.
112014 @ 으.
112014 #2 그거 제물해근에. 옛날에는 돈 아저 가는 버릇이 엇엇어. 떡, 떡.
112014 @ 게난.
112014 #2 제사 떡이나 썰 아저 가는 사름 썰 아정 가고 돈 아정 강 뎡겨 보지 안 허연.
112014 @ 아, 게민 잔치혈 때도 돈 안 가정 가잖아예.
112014 #2 썰.
112014 @ 썰로.
112014 #2 썰로 부지.
112014 @ 보통 곤썰 험니까, 보리썰 험니까?
112014 #2 저 사돈칩이나 현 딘 곤썰 허곡.
112014 @ 예.
112014 #2 또 일반 집인 보리썰 행 가고.
112014 @ 얼마나 험니까, 보리썰.
112014 #2 보리썰이, 곤썰 흔 말 사돈칩이 흔 말 해 가고 또 말썰라가난 흐썰 영 해가난 두 말 해가는 사름 잇곡. 보리썰도 두 뉘 아정 뎡겨나고.
112014 @으.

112014 #2 우리, 우리도 이디 완에 저 영 헨 어디 먹으레 가젠 허민, 어디 일
낮저 행 먹으러 가젠 허민 보리쌀 두 뉘 낱.

112014 @ 두 뉘 낱?

112014 #2 어. 또 흐쓸 거시기 헨 디 곤쌀 두 뉘 뇌근에. 켤당칩인 곤쌀 두 뉘.

112014 @ 예.

112014 #2 흐쓸 것이 먼 딴 보리쌀 두 뉘 낱 기자 먹영 오민 그 그릇더레 보리
밥 흐 두 사발쯤은 뇌근에 주주게.

112014 @ 으, 음.

112014 #2 경혜영 받아와나고.

112014 @ 보리밥만 줘, 꿩기는 안 주고?

112014 #2 꿩기 주는 디 잇곡 안 주는 디 잇곡.

112014 @ 아, 주는 디 잇고 안 주는 디 잇고?

112014 #2 어, 짓도 집이 따라. 이녁 거시기 생활에 따라랑이.

112014 @ 으. 게난 이바지는 거의 대부분 뉘만 해낫어예, 만디만.

112014 #2 만디. 만디 대개 허고 칩떡 청 가곡게.

112014 @ 예. 다른 동네에서 보난 잔치 전날 신랑칩이서 신부칩에 잔치헐 때
쓰렌 솔도 보내고 독새기도 보내고 허던데 아니?

112014 #2 아니 그건 안 해 봤저. 그건 안 허고.

112014 @ 다음날에 만디나 칩떡이나.

112014 #2 어, 그거, 그거주.

112015 @ 보냈던 거예. 그 삼춘 시집갈 때 혼수 헛수과, 혼수?

112015 #2 어. 흥세.

112015 @ 으, 흥세 뉘 헨?

112015 #2 미녕.

112015 @ 미녕.

112015 #2 멍지.

112015 @ 멍지. 얼마나?

112015 #2 미녕 흐 필, 멍지 흐 필. 그건 멍지 흐 필 허는 딴 잘 허는 거. 미녕
만 두 필 허고. 멍진 비싸주게. 미녕 두 필 헐사 미녕 흐 필 사나마나 허여.

112015 @ 음.

112015 #2 경허난.

112015 @ 멍지 허는 집은 잘 허는 집.

112015 #2 으.

112015 @ 그것만 행 간? 꿩 거튼 건 안 행 갓수과?

112015 #2 꿩 같은 건, 저 새각시가 새서방칩이 올 때 이불헤 올 때 저 꿩 헤
오는 사름 잇주게.

112015 @ 예, 예.

112015 #2 저 해 오는 사람 잇고 오랑 살명 아져오는 사람 잇고.
112015 @ 아.
112015 #2 나도 오랑 살단에 저 아버지네가 큰 거 하나 해 줘라. 그거 좀 헌 사람 안 해 온다.
112015 @ 으. 계민 올 때 이불은 헨 왔수과?
112015 #2 이불 헨 왔주게.
112015 @ 계민 혼수렌 허민 그거 멩지 혼 빌, 미녕 혼 빌.
112015 #2 흥세, 흥세.
112015 @ 그걸 흥세였고.
112015 #2 어.
112015 @ 덮을 이불덜도 가정.
112015 #2 그건 게 잔치 날, 잔치 날 하님, 저 이 부락에이 혼썰 늦인 사람 헤근에 종질 허는 사람이 잇엇주게.
112015 @ 늦인 사람이 뭐과?
112015 #2 쌍, 쌍 사람.
112015 @ 아, 그니까 아까 낮은 사람예?
112015 #2 으, 낮은 사람, 늦인 사람, 늦인 사람 현다.
112015 @ 예.
112015 #2 경허민 그 사람이 이불을 허여근에 저 와 낮저게.
112015 @ 아.
112015 #2 이불포에 싸근에 허민 이불 지곡 새각신 차로 오나 데끼에 헤근에 허곡. 허민 차로 올 땐 그 이불을 차에 시경 오민 그디서 올레 가근에 집이서 찰 안 들어 가민 올레 세우민 그 이불을 그 하님이 저. 하님, 하님 해 낮저.
112015 @ 으.
112015 #2 하님 그 늦인 사람 저 이불 저 가는 사람이 하님.
112015 @ 으.
112015 #2 또 물로 행 데끼 헤근에 올 땐이 새서방 저 물을 하님이 저 남자 하님이 물 이꺼근에.
112015 @ 으.
112015 #2 이꺼근에 경혜영 오곡.
112015 @ 으.
112015 #2 저 거시기 새서방은 앞이 오곡 조롭에 데끼, 데끼 헤근에 새각시.
112015 @ 데끼가 뭐라?
112015 #2 데끼 헤근에 가메.
112015 @ 아, 가메?
112015 #2 어, 어. 데끼엔 헤근에 여기 영 문 들고 여기 집 짓어진 거 잇주게.
112015 @ 그걸 데끼렌 해? 가마를 데끼렌?

112015 #2 어, 데끼, 데끼렌 헛저. 데끼에 시집가는, 우린 저 중간에, 우린 흐썰 거시기 허난 우리보다도, 우리 시대도 데끼에 오는 사람 잇고 흐뎡 잘 허는 딴 차로 오고. 우린 저 화물차로 왔저, 화물차.

112015 @ 하하하. 아, 화물차가 그때 잇어났구나.

112015 #2 어게. 화물차로 왔저.

112015 @ 무사 데끼렌 불러신고?

112015 #2 몰라 데끼, 데끼 헛저. 그디 새각시 해근에 앓저근에 저 그 거시기 하님, 하님 흐썰 영 부락에 일 허는 사름.

112015 @ 예, 예.

112015 #2 하님이 그 데끼 허민 몰 해근에 메우주게. 데끼 몰 해근에 메우민 그 거 영 이꺼근에 거 들러퀴카부덴.

112015 @ 아.

112015 #2 영 이꺼근에 헤오고.

112016 @ 예장이 뭐과? 예장.

112016 #2 예단이, 예단이.

112016 @ 예단 말고 예장. 결혼할 때 이 사름 언제 태어난 거 그런 거 글 썩 오는 거.

112016 #2 아, 글 썩 오는 거.

112016 @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올 때 몰 탕 올 때 글 썩 오게 뉘면 그거 집이 잇는 어른들이 그거 보고.

112016 #2 어게, 어, 어. 거 아이고 거 몰르켜 곤젠 허난에.

112016 @ 으.

112016 #2 거 무시거엔 곤나만은?

112016 @ 거, 예장이엔 안 헤?

112016 #2 거 무시거엔 곤나만은, 흥세 논 디 낡 오주게.

112016 @ 예, 예. 계민 집이 잇는 어른덜이 그거 읽어보잖아.

112016 #2 그거 본다게. 그거 몰르큰게.

112016 @ 그거 잘 못 썩 오면.

112016 #2 어, 몰에서 누리지 못 허게 허고. 경헌다게. 새서방 ㄱ만이 몰에 태와 근에 경허는 거 잇어. 흥세에 거 무시거엔 곤나만은 곤지 못 허켜.

112016 @ 나중에 튼나지민 글읍서.

112016 #2 어, 나중에 나 글으켜.

112016 @ 계난 그거는 신랑칩이서 썩 오민 여기서, 신부칩이서.

112016 #2 받아근에 그걸 영 읽어 봐근에 저 들어오렌 허곡 그자 못 허게 허곡. 이거 또 새로 쓰렌 허면은 그디 저 거시기 저 무시거엔 곤나만은 잔치에 혼디 그때 간 사름덜이 뒤에 간 사름덜이 그걸 썩 저사. 못 쓰민 막 야단맞고 경허주게.

112016 @ 으.

112016 #2 경허영 그거 잘 못 써 시민 두에 간 사름덜이, 우시, 우시. 우시엔 헤근에.

112016 @ 예.

112016 #2 뒤에 계민 우시가 두 사름 가주게.

112016 @ 누가 갑니까, 우시.

112016 #2 우신이 신랑침이 아버지 펜에 족은 아방이나 조케나 가고.

112016 @ 예.

112016 #2 또 어멍 펜에 오라방이나 오라방 아덜이나. 둘리 가주게.

112016 @ 으.

112016 #2 둘리 가민 그 사름덜이 그 우시 간 사름덜이 그걸 써지민 허고 못 쓰민 막 야단 맞곡.

112016 @ 계난, 계난 잘 못 써시민 이쪽 집이서, 여자 집이서가 이거 잘 못 썼젠 허민.

112016 #2 으, 못 써젠 허여.

112016 @ 그럼 따라간 우시덜이 그거 고치는 거.

112016 #2 으, 경헨 잘 쓰렌 허민 그거 강 써사. 계난 아무나 보내젠 안 허여. 겐디 이 중간엔 기자 잘 쓰나 못 쓰나 통과해 뱃저게.

112016 @ 하하하.

112016 #2 통과허고 이젠 것도 엇어.

112016 @ 엇어예?

112016 #2 으, 이젠 것도 엇어.

112017 @ 으. 가문잔치 허젠 허민 아까 말했던 게 가문잔치?

112017 #2 으, 가문잔치 아시날 문 준비허멍 그디 도새기 잡아근에 베설 허고 수웨 헤근에 아시날은 고길 일절 듯날 먹젠 안 먹어.

112017 @ 아.

112017 #2 저 베설, 베설.

112017 @ 베설.

112017 #2 간 거튼 거 그런 거 꿩영, 고지에 석 점 녁 점 꿩영 경헨 쥐낫저게. 경허민 잘도 맛 좋아.

112017 @ 예. 계난 고기는 아경 안 먹은 거구나?

112017 #2 으, 애경게. 듯날 먹을 생각에.

112017 @ 계민 밥이나 국은 잔치날이나 전날이나 똑같이?

112017 #2 똑ㄴ치 먹고, 똑ㄴ치 먹고. 또 잘 사는 집인 아시날도 꿩기반 문 주고.

112017 @ 하하.

112017 #2 저, 계난 것도 막 차이가 커.

112017 @ 어쨌든 밥은 보리밥이었고.

112017 #2 어.

112017 @ 풋도 놓고?

112017 #2 으, 풋도 놓고.

112017 @ 풋은 무사 놔신고마씨?

112017 #2 풋 놔사 이 맛도 좋고 이 거시기 거뭇거뭇 헛 거 안 보여. 몰라. 경허영 놓는 거 닳아 아메도.

112017 @ 국은 묵국?

112017 #2 묵국도 허고 저 늣뻘 썰영 숲고 저 옛날엔이 저 바당에 강 메역췌, 메역도 어려와. 메역췌 메당 들류왓당 그거 헤라, 그거.

112017 @ 메역췌는?

112017 #2 메역췌 메역거치 요만씩 헛 거 너울너울 헛 거 잇주게.

112017 @ 예.

112017 #2 으. 그거, 그거 돌에 난 것 강 뽐아당 들류와다근에.

112017 @ 으.

112017 #2 그거 헤근에 메역췌 빨앙 놓고 늣뻘 숲아근에 또 늣뻘 숲앙 하영 건정 놔 뒤, 영영 썰어근에.

112017 @ 예.

112017 #2 경헛당 그거 흐췌 놓고 메역췌 서경 놔근에 물 퀘여가민 그레 낵 그거 거렁 낵 먹어. 경헛 국.

112017 @ 아.

112017 #2 저 들망국은 아시날 저녁.

112017 @ 들망국은 아시나 저녁.

112017 #2 가떡잔치.

112017 @ 어?

112017 #2 가떡잔치헛 때.

112017 @ 가떡잔치?

112017 #2 어. 가떡잔치엔 허주게 아시날 저녁은.

112017 @ 가문잔치 말고?

112017 #2 가문, 가문잔치연디 옛날은 가막잔치, 가막잔치 헤 낵저.

112017 @ 아, 그 가문잔치를 가막잔치?

112017 #2 어, 가막잔치, 가막잔치헛저게.

112017 @ 으. 가막잔치렌 불러난예?

112017 #2 으, 게난 그 발음이 다 거세기 헛 거.

112017 @ 원래 가문잔치 맞아예?

112017 #2 으, 가문잔치가 맞추게.

112017 @ 가문잔치인데 가막잔치렌?

112017 #2 가막잔치, 가막잔치. 어디 가막잔치 헛젠, 가막잔치, 가막잔치 허멍

경허여.

112017 @ 예. 이게 전날 허는 거?

112017 #2 어.

112017 @ 아까예 밥, 국. 고기는 내놓는 디 잇고 안 내놓는 디 잇고.

112017 #2 으, 경헌디 아시날 그 아시날 퀘기영 베설이영 썰영 주는 디 잇곡.

112017 @ 예, 예.

112017 #2 경 안 헌딘 퀘기 안 낱 베설만 고쟁이에 퀘영 고쟁이에 영 녀 점 석 점 퀘영.

112017 @ 겐 한 사람에 그 꼬쟁이 하나?

112017 #2 하나.

112017 @ 겐 그거에, 짐치에?

112017 #2 으.

112017 @ 영만 주는 거?

112017 #2 으, 그거, 그거.

112017 @ 예.

112017 #2 또 옛날에 멩질 때이 저 멩질 먹으레 저 큰집이여 죽은집이여 여라 가지 텅가지 안 허느냐. 가민 반 놔근에이 반을 놓주 군데 군데 허나씩 혼 가지씩. 경헤영 사라에 정반, 정반이엔 헛주. 낭정반 잇엇주게 낭으로 판에 정반 멘근 거.

112017 @ 예, 예. 정반을 정반이렌 헛 거예?

112017 #2 어 정반.

112017 @ 예, 예.

112017 #2 정반에 떡 허나씩 낱 주민 그거 먹당 남으민 고쟁이엔 퀘연 집이 아 정가났어. 고쟁이에 퀘영.

112017 @ 뭐 싸는 비닐 같은 것도 엇이난예?

112017 #2 엇어, 엇어. 엇이난 무신 고쟁이 봉강 낭께기라도 봉가 퀘영.

112017 @ 게민 그 고쟁이는 우리도 옛날에 제사 때 보면 지금은 풀주만은 옛날에는 대나무 깎양.

112017 #2 으, 깎양 헛주게.

112017 @ 집이 다 만들양 나 뒤났거든마씨.

112017 #2 그건 건 떡 받아가는 건 아무 것에라도 췌저게. 어디 그런 거 꼬쟁이가 잇느니게.

112017 @ 예.

112017 #2 이녀, 이녀대로 봉가당게.

112017 @ 봉가당?

112017 #2 어.

112020 @ 부주는 쌀로 가져 왔던 거고예.

112020 #2 으, 쌀로.

112020 @ 사둔침이 말고 동네 사름덜도 부주덜은 헛엇잖아예?
 112020 #2 다 헛저게. 쓸로 동네에도 가까운 딴 혼 말 허고 흐끔 먼 딴 기자 두
 뉘 허고.
 112020 @ 으.
 112020 #2 흐솔 영 생각헤진 딴 혼 말 허고.
 112020 @ 혼 말 허민 많이 허는 거 아니, 옛날에?
 112020 #2 혼 말 허민 막 한 거, 거 옛날에 한 거.
 112020 @ 게민 가문 잔치 헛 때는 먹으러 오는 사름덜은 어떤 사름덜, 동네 사
 름덜 다 옵니까?
 112020 #2 동네 사름덜 온다게. 켜당 대개 이녁 가문.
 112020 @ 켜당.
 112020 #2 어, 대개 이녁 가문이 오랑 문 출리고 현 디 이웃집이 기자 부튼 집
 인 다 ㄴ찌 왕 허주게.
 112020 @ 으. ㄴ찌 왕 허는 거예?
 112020 #2 으, 다 ㄴ찌 왕 허여.
 112018 @ 예. 우시는 아까 두 사람이렌 헛잖아예?
 112018 #2 어.
 112018 @ 새 각시 집이서도 갈 때 우시도?
 112018 #2 새서방이 저 새각시 들레 갈 때 새서방 침이서 우시 들리 가고.
 112018 @ 예.
 112018 #2 또 새각시침이서도 경헛 들리 오고.
 112018 @ 예. 우시 들밖에 안 갑니까? 막 딱라 가는 사름덜 많잖아?
 112018 #2 건 친구.
 112018 @ 친구라?
 112018 #2 어, 친구여. 새각시 쪽은 새각시 벗덜 가고 새서방침은 새서방 벗덜
 가고.
 112018 @ 아. 게민 우시는 둘만 가는 거?
 112018 #2 둘만, 둘만.
 112018 @ 게민 우시 중에 대반 중방 허는 건 엇수과?
 112018 #2 건 그 집이 가민 우시 대반 앓는 사름 그 집이서 출리고 새각시 대
 반 허고 새서방 대반.
 112018 @ 으.
 112018 #2 경헛 그 집이서.
 112019 @ 대반이 뭐과?
 112019 #2 대반은 그디 상 들러가민 그거 역할 허는 사름. 그거 영 ㄴ리치는.
 112019 @ 그럼 이렇게 새서방이든 새각시든 이렇게 간 사름은 우시인 거고 대
 반이나 중반은 맞이하는 사람?

112019 #2 으, 저디서, 저디서. 경허영 새각시 영 행 오민 이디 새각시 대반을
앗지.

112019 @ 예.

112019 #2 앓으민이 저 상도 대반상이 문저 온다.

112019 @ 예.

112019 #2 대반상 문저 오민 그 다음 새각시 상.

112019 @ 그때 대반상은 신랑칩이 어른이라예?

112019 #2 신랑칩이선 신랑칩이 허고 새각시칩이선 새각시칩이서 허고.

112019 @ 예, 예.

112019 #2 경헨 대반상을 문저 오민.

112019 @ 예.

112019 #2 대반상을 문저 오민, 새각시 상은 그 다음 오민 영 행 새각시 상 강
영 행 게깃쟁이.

112019 @ 예.

112019 #2 사발뚜껑.

112019 @ 뚜껑.

112019 #2 그거 영 열아주고.

112019 @ 예.

112019 #2 새각시 먹으렌.

112019 @ 예.

112019 #2 사발 영 열아주고. 또 그 게깃쟁이에 대반 앓은 사름이 밥 새, 새각
시 밥 세 숟가락 쪼금씩 영 떠 낳 국 흐쫄 영 떠 놓는 채 행 상 알러레 영 놔 텅
그거 해근에 먹으렌 해여.

112019 @ 아, 밧디가 코시 허는 것처럼?

112019 #2 으, 으. 그추룩게.

112019 @ 코시 허는 것처럼예?

112019 #2 으, 그추룩 우로 거려 벼.

112019 @ 삼춘 밥사발 뚜껑을 뒤편 굴앗수과?

112019 #2 게깃쟁이.

112019 @ 아, 가깃쟁이를?

112019 #2 어, 게깃쟁이, 게깃쟁이 해낫저게. 하하하.

112019 @ 게깃쟁이. 밥사발 뚜껑예, 게깃쟁이.

112019 #2 으.

112019 @ 경 코시 허는 것처럼 덜어 낳 먹으렌 허는 거?

112019 #2 어. 게난 우로 무시서 부떠 온 거 거려부는 거지이?

112019 @ 예.

112019 #2 저 무시거 허는 거, 나쁜 거 부떠 와시카부덴.

112019 @ 으, 으. 중방은, 중방?
112019 #2 중방이 무시거라? 중방은 엇엇어.
112011 @ 삼춘 결혼 헐 때 어떻 험난 거?
112011 #2 알아지지주.
112011 @ 대반 누게가 가났수과?
112011 #2 대반 그 우리 시집 펜에선 나광 저 거시기 스춘, 육춘 동세 텔 사름.
112011 @ 예.
112011 #2 육춘 동세 텔 사름 앓아라게. 앓아서라 말젠 보난.
112011 @ 예.
112011 #2 경험에 꺄사추룩 영 헤 쥐근에 먹읍센 헤라게.
112011 @ 으.
112011 #2 경허명 순구락 영 주명 먹으렌.
112011 @ 우시는 누가 간 거라?
112011 #2 우시는 우리 집이서게, 어떻 쪽에서 아방 쪽에서 가 왔주.
112011 @ 어.
112011 #2 경허주게.
112011 @ 계난 사머춘 결혼헐 때는 아까 글 써 오는 거 잘 못 뒤영 벌 서고 그 런 건 엇엇수과?
112011 #2 아니, 아니.
112011 @ 아니, 바로 들엿수과?
112011 #2 어, 어.
112011 @ 계민 삼춘은 신호인 거라예. 여기 토평에 시집을 왓잖아예?
112011 #2 으, 으.
112011 @ 계난 여기 토평에서가 데리러 거기로 갔던 거?
112011 #2 어.
112011 @ 간 거예. 아까 화물차 탄?
112011 #2 어, 화물차 탄. 차 허영 가신나네 우리 시누이 허고 스춘 시누이 허 고 저 거시기 갖어라게 영 데리레. 저 새서방 허고.
112011 @ 으.
112011 #2 경허난 그디서 출런에 경 대반 앓고 문딱험에 또 이레 화물차 탄 또 온 거.
112011 @ 으. 그때 옷은 어떻 입엇수과 옷은?
112011 #2 옷은 장옷. 소곱에이 멩지치메에 우이 그뻤 유등.
112011 @ 으.
112011 #2 유등 지금도 실 거여. 유등 치메 입꼭 우이 저 양단 저고리. 경헤근 에 장옷.
112011 @ 장옷 입고.

112011 #2 장옷 저 퍼렁헌 곁로 멘글양.
112011 @ 예.
112011 #2 멘글양 입고 저 족두리, 족두리 쓰곡.
112011 @ 그러 집이서 일일이 멘드는 것과, 아니면 마을에서 빌리멍?
112011 #2 아니, 아니. 장옷은 이녁만씩 멘글양 입곡 엇인 집인 장옷 빌언도 입
영 왔단 주곡.
112011 @ 아.
112011 #2 못 현 집인.
112011 @ 으.
112011 #2 장옷 험이 어려와낫저게.
112011 @ 그지예, 그거 허젠 허면.
112011 #2 어, 어.
112011 @ 계난 삼춘네는 멘들양 잇어 난 거?
112011 #2 어, 멘들양 오라낫저. 거시기 거 나냥으로 멘들안에 입영 오라낫저.
112011 @ 아이고.
112011 #2 어무니가 혼디 영 영 헨 허렌 허민. ㄴ짜 시켜주민 ㄴ 혜영.
112011 @ 으.
112011 #2 계난 이디 노인회에도 왕 옷 ㄴ 만들어낫주게.
112011 @ 으, 지난 번에 상복.
112011 #2 옛날에 헤 나난.
112011 @ 계난 장옷들 직접 만들양 허는 거구나.
112011 #2 으.
112021 @ 혹시 암창개렌 현 말 알아지쿠과?
112021 #2 암창개가 무시거라?
112021 @ 결혼을 허젠 날을 잡아신디 신랑이 저디 군대가거나 헤신디 날 곳어
부난 신랑이 못 완. 계난 신랑 엇이 결혼허는 거?
112021 #2 건 몰라.
112021 @ 몰라?
112021 #2 어. 몰라, 몰라.
112022 @ 혹시 돌아가셔가지고 결혼허는 거는 봐 낫수과? 사혼?
112022 #2 어, 사혼 허는 거. 것도 봐 나도, 사혼허는 것도 벨 거 아니란게. 우
리 이디 시삼춘도 저 살단에 다른 디 사혼헤 간디 그자 벨 거 아니헨 헤라. 그자
글 썬 쥐 부난 아저간 대로 그대로.
112022 @ 아.
112022 #2 경헤라게 옛날엔 어떻사 헤신디.
112022 @ 계난 여자집이든 남자집이든.
112022 #2 무시거 허지 안 허영. 또 허는 딴 헨다게. 허는 딴 밥 헤 놓고 ㄴ 다

허여근에 영 드리레 올라근에 그거 무시거 썩 주민 아정 가고 경 허는디 잇주게.

112022 @ 계난 날짜 봐 가지고 영 허는 거라예, 것도?

112022 #2 으, 날짜 봐 가지고 좋은 날로.

112022 @ 좋은 날로 허는 거라예.

112022 #2 으.

112023 @ 결혼할 때 뭐 금기허는 거 잇수과?

112023 #2 결혼할 때 웨여근에 무시거 금기허는 거 엇어. 경헌디 대개 이녁 집이 잔치 허젠 허민 혼, 혼 일주일 전에, 일주일 들어근에 앞으로 일주일만 잇당 우리가 잔치 헐 가다 허민 율이 집이 강 잔치해 가민 거 먹으렌 안 간덴 현다.

112023 @ 기과?

112023 #2 어게. 요샌 기자 무장 텅기는 디 옛날엔 경 해서.

112023 @ 아.

112023 #2 이녁 집이 혼 일주일 안터레 들민 옆이 집이 잔치 해도 안 간덴.

112023 @ 아, 잔치해도 안 간덴.

112023 #2 안 간덴.

112023 @ 안 간덴, 먹으레.

112023 #2 어.

112023 @ 기구나. 계민 잔치 먹으레 안 가는 거 잇고 영장 낫을 때 안 보는 건 당연하지예?

112023 #2 어, 당연하주게. 영장 그건 원 안 보는 거.

112023 @ 예.

상례

112024 @ 이번엔 돌아가셨을 때 일들이우다예. 어른신덜 돌아가시면 이 분 돌아가셨구나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다?

112024 # 그건 증명헐수다 허멍,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증명헐수다 헤근에 숨을 끈어졌수다 허는 말이지이.

112024 @ 예, 예.

112024 # 으, 증명헐수다 행 그건 영 돌아갈 땐 보민이 곱닥헤여.

112024 @ 으.

112024 # 슬색이 파랑허고 고와.

112024 @ 으.

112024 # 저 제라헌 색 와근에 제승술 왓젠 허멍.

112024 @ 제승술?

112024 # 으, 제승술 돌아왔저, 제승술 돌아왔저 막.

112024 @ 제승이란게 저승?

112024 # 저승. 제승술, 제승술 경헌다게. 경허멍 돌아왔저 허멍. 경헤근에 곱닥

혜근에 헌디 영 보민 코에 대면 숨도 안 쉬고.

112024 @ 예.

112024 # 이디 바름이 송송 나당 안 나.

112024 @ 아, 손을 코에 대 보는 거예?

112024 # 으, 영 혜 보민.

112024 @ 예.

112024 # 경허민 허고 눈도 감는 사름 잇꼭 영 트민 영 영 김져주곡.

112024 @ 으.

112024 # 영 영 찢어 줘. 찢어 주고 입도 하 헌 사름 잇주게. 경허민 이디 베개 낳 영 바뵤주민 입이 줌 영 허고.

112024 @ 으.

112024 # 아 혜시민 이거 영 혜주민.

112024 @ 으.

112024 # 경헨 영 혜주고. 눈도 영.

112024 @ 으.

112024 # 쪼금허민 이디서 무신 일 나민이 이녀 못 살앙 허민 아이고 난 죽영 눈 감지 못 허켜. 그 일 따문. 경헨 허는 사름도 잇주게. 경헨 이땅 죽어 보민 눈 뜬 사름 잇꼭 입 아 헌 사름 잇꼭 헌덴 헌다게. 난 안 본디. 우리 시어멍 죽으나 친 정어멍이나 아방이나 다 눈 잔뜩 잘 감아라.

112024 @ 으.

112024 # 경헌디 이땅 경헌 디가 잇넌 헤라 경허민 눈 문 찢어준덴 허꼭 입도 영 베게 바뵤준덴 허꼭.

112024 @ 으.

112024 # 우리 친정에 큰하르방이엔 혜근에 나 혼 열에일곱 설에 죽엇어. 그 하르방이 죽은 거 보난 입이 흐쓸 영 헤라 게난 우리 아버지가 베게 강 영 바뵤줘라 게. 경허난 영 헤라게.

112024 @ 으.

112024 # 경허는 거 잇어. 잇는 거 닻아라.

112025 @ 경 영 사름이 돌아가지면 지붕 위에 올라 강?

112025 # 혼 불르주게.

112025 @ 혼 불르는 거. 어떻 혼 불릅니까?

112025 # 혼은어.

112025 @ 누게가 올라가?

112025 # 그디 아무라도 직성 췌 사름 거 므스왕 아무라도 못 허여. 박박 털어 정.

112025 @ 하하하.

112025 # 밤이 밤중에도 허고. 앞으로이.

112025 @ 예.
112025 # 앞으로 산태 낳 산태 알아지크나.
112025 @ 예, 예.
112025 # 다리.
112025 @ 다리.
112025 # 어. 산태 낳 차롱에 혼적삼 낳. 적삼 죽으면 적삼 입어난 거.
112025 @ 입어난 거.
112025 # 거 차롱에 낳. 앞으로 드리 놔근에 지붕에 상 꼭대기 올라 강.
@ 으.
112025 # 그, 올라간 사람이 혼적삼 동더레 돌아상 영허게 벌경.
112025 @ 예.
112025 # 아버지민 아버지 갓수덴 해근에.
112025 @ 예.
112025 # 적삼 아정 갑서. 아버지민 아버지 이 적삼 아정 갑서 해근에 ‘보오보’
헤라.
112025 @ ‘보오보’?
112025 # 어. ‘보오보’ 세 번. 아버지 적삼 아정 갑서 ‘보오보’ 헨에 세 번 헤
여근에 또 그 산태, 드리 산텔 두우로 강 놔.
112025 @ 예.
112025 # 두우로 강 놓민 그 차롱 적삼 영 들렀단 것도 그 차롱에 놔근에 두우
로 느려. 게민 상 아정 강 그걸 받아와. 아랫사람이.
112025 @ 예.
112025 # 상 아정 강 받아당 그 차롱을 영 받아 오랑 상 논 디 놔근에 적삼을,
적삼에 차롱을 톡허게 놔라.
112025 @ 으.
112025 # 놓민 그땐 곡소리 내멍 아이고 아이고 허멍 그걸.
112025 @ 아.
112025 # 그걸 경헨에 경헨 그걸 시작이라.
112025 @ 게난 돌아가선예. 오늘 돌아가시면 그 복 부르기는 언제 하는 것파?
112025 # 으?
112025 @ 그, 그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112025 # 그, 그때 돌아간 때.
112025 @ 돌아가면 곧 허는 거?
112025 # 돌아가면 옷 다 입져근에.
112025 @ 예.
112025 # 쳇 번 돌아가면이 막 죽어가민 옷 기자 이 옷 입져당 스몹 누워근에
아팜 허당 아이고 이 할망은 오래 살 지 안 허켜 허민 이 옷 다 벗겨덩 또 곧옷 입

져.

112025 @ 으.

112025 # 곤옷 입진 후엔 츄츄 살다근에 멧 시간 후엔 죽을 거 아냐.

112025 @ 으.

112025 # 죽으면 이젠 또 상물 숲아다근에 그 옷을 벗겨더근에 상물 숲아당 얼 굴부터 조근조근 그레 손수건 영 놔근에이. 마주 앓을 사름 시민 마주 앓고 뜯이나 메누리나 오민 마주앓아근에.

112025 @ 으.

112025 # 요거 주검이민 요디 앓고 요디 앓아. 우로 슬슬이.

112025 @ 으.

112025 # 알로 시치민 거꾸로 뵈덴.

112025 @ 아, 우이서부터?

112025 # 우로부터. 이 목욕시키는 걸 이 우로 영 조근조근 영 이 풀이영 얼굴 이영 이런 디영 기자 조근조근 썰주이.

112025 @ 으.

112025 # 알로 허민 장래 즈손덜이 거꾸로 일을 난덴.

112025 @ 아.

112025 # 경혜근에 그 상물로 문딱 영 영 시쳐놔근에.

112025 @ 으, 으.

112025 # 곤옷을 입지주게. 저승옷.

112025 @ 저승옷. 그때는 상복 마련해 둔 거?

112025 # 거 상복이엔 안 헌다. 거 저승옷.

112025 @ 저승옷이렌 해?

112025 # 어. 상복은 저 상제덜 입는 거.

112025 @ 예, 예.

112025 # 경허영 저승옷 문 입져근에 무꺼. 무경 열두 밧디 무꾼덴 헌다게.

112025 @ 이 몸을?

112025 # 문딱 무꺼. 일로 혜근에 일로 일로 네 밧디. 베로.

112025 @ 으.

112025 # 베 영 아래 요거 주검이민 요 알려레 영 낡 일로 영 행 저 영 행 놔근 에 그걸 하나씩 무꺼.

112025 @ 으.

112025 # 저 그거 하나 허는 사름, 경 알아지는 사름이 혜영 아무나 못 헤여 것도 무끄는 식은.

112025 @ 으.

112025 # 영 혜근에 영 혜영 므작 지우지 안 허고 영 들러당 꼭 누뜰고 우로 알려레 영영 영영 누뜰다게. 경허민 어느 상제 왕 요거 클르라 허고 관에 놔근에.

112025 @ 으.

112025 # 어느 상제 와근에 요거 클르라 허고.

112025 @ 으.

112025 # 경헨 그 저 무시거 헐 댐 그건 문 무꺼 놔근에 가근에 혼 불른다게.

112025 @ 아, 다 무꺼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 불르러 가는 거?

112025 # 어, 어.

112025 @ 아까 무끝, 영 몸 닦을 때 상물이 뭐과, 상물?

112025 # 상물. 상가지.

112025 @ 아, 상가지.

112025 # 으, 상가지에 저 미강썩에 헤다근에 솥양.

112025 @ 으.

112025 # 게민 냄새나 냄새 흐썰. 냄새 코송, 향. 경헨 상가지, 상가지 헤근에.

112025 @ 경헨 솥은 물을 손수거 헤가지고?

112025 # 으. 영영 닦아 줘.

112025 @ 그럼 그거 닦아 주는 거는 그 집안 사람이 험니까?

112025 # 으, 딸이나 메누리나.

112025 @ 아, 딸이나 메누리나.

112025 # 어, 딸이나 메누리나. 가까운 거시기.

112025 @ 아. 경헨 거 다 무끄민 이제는 복부르기 지봉에 올라가는 거라예.

112025 # 어, 어.

112025 @ 올라갈 때는 앞으로 올라강?

112025 # 어, 두우로 느려.

112025 @ 뒤로 내려오는 거?

112025 # 어.

112026 @ 아, 게난 다 현 다음에 복부르기 허는 거예. 게민 영 돌아가시민 장지 어디 강 물을지 그거 마련하잖아예?

112026 # 그걸 보젠 허민 저 그거 문 헤여놔근에 성복 헐 때 문 텅기명 본다. 성복 헤 낱.

112026 @ 성복 행. 게민 돌아가시민 영 행 복부르기 행 여기 왕 이건 관에 낱 이거 푸는 것과?

112026 # 어, 관에 낱 푸는 거. 푸는 건 관에 낱 푸는거.

112026 @ 예, 관에 낱 푸는 거 허잖아예. 게민 성복은 언제라?

112026 # 성복은 듯날 영 날 봐근에. 듯날이민 듯날 아침이 성복 허주게. 떡 헤 다 놓고 떡 헤다 놓고 밥 헤근에 동네 사름이영 방상 사름이영 문 오라근에 허민 상제들은 문 상복 입고.

112026 @ 예, 성복날 상복 입는 거라예?

112026 # 어, 어. 성복날.

112026 @ 성복제 헌 다음에 입는 것과, 아니면?
112026 # 성복제 할 때 거 입어근에 제 허는 거.
112026 @ 그니까 상복을 그때 처음 입는 거?
112026 # 어, 어.
112026 @ 상복제 해영 일포제도 할 거니까 그 사이에 장지 보레 뎅기는 거?
112026 # 어, 어. 장지 보레 뎅기는 거. 거시기 보레.
112026 @ 계민 그 제는 가장 먼저 성복제 허고?
112026 # 으.
112026 @ 그 다음 제가 무신 제가 잇수과?
112026 # 그 다음 저 일포제.
112026 @ 일포제.
112026 # 으.
112026 @ 장지 보레 뎅길 때는 누게가 보러 뎅갑니까?
112026 # 그건이 저 밧 알아지는 사름. 저 집안 사름 가고 대개 여산, 어디 갈 거 여산행 놔 두주게. 경허민 그디 강 거시기 저 뭐엔 헌다만은 그 보는 사름이 잇주게. 췌 놔근에이.
112026 @ 으, 췌 낱 보는 사름.
112026 # 으, 거 무시거엔 끝나만은 그 사름 돌아다근에 그 사름 돌아가주게 가근에 췌 놔근에 어드레 어느 방향더레 돌아왔을 거 허고. 요디가 좋다. 요 밧 안에 가민 요디 췌 놔 보고 요디 췌 놔 뵙 요디가 좋다 허민 그디 할 걸로 행 고지 영영 찢러뉘근에 영 보민 술 혼 췍 아지고 궤기 허나, 과일이나 무시거 아정 강 그 고지 찢렁 그레 낱 절 헤딩 오는 사름 잇곡.
112026 @ 아.
112026 # 으, 옛날엔 강헛어.
112026 @ 계난 집안 사름이랑 그 땅 보는 사름이 ㄴ치.
112026 # 어, 어.
112027 @ 그 돌아가실 때 관을 마련해야 돼잖아?
112027 # 관은.
112027 @ 미릇 헤 놓는 거?
112027 # 저 옛날엔 집이서 찢저 찢어. 뒷날.
112027 @ 뒷날?
112027 # 뒷날이나 그날이나 그거 준비행 낫다근에 엇인 사름은 어디 강 막 사다근에.
112027 @ 낱 사다근에?
112027 # 집이서, 집이서. 이틀도 벌영 짜고 상도 짜고 옛날은 짜서.
112027 @ 우리도 ㄴ 우리 시하르방네 허나 찢저 나.
112027 # 췌에 거 널 헤다근에 저 대패질 허멍 그 목쉬 돌아단에 그거 찢 허민

것도 하루 일력 버려.

112027 @ 으.

112027 # 상도 짜근에 영 싱그고.

112027 @ 으, 상도 짱 싱그고.

112027 # 으.

112027 @ 그 전에 뭐 제사나 안 해 낫이민예?

112027 # 으, 경허민 옛날은 사름 돌아가믄 상은 똑 그 사름 직신 찻주게.

112027 @ 아, 기과?

112027 # 잊어도 안 허영. 전이 거 안 허영. 경 허민 멍질 웨민 웃대 거 그 사
름 거 이 사름 거 문 잊일 거 아니냐게.

112027 @ 예, 예.

112027 # 겐 찻저게 옛날엔 다.

112027 @ 제사 때 할아버지 거 잇고 아버지 거 잇고.

112027 # 으, 딱로 잊이난.

112027 @ 딱로 잊이난.

112027 # 다 그거 장만 허는 거.

112027 @ 자기 뒤편에 그 쟈상 다?

112027 # 으.

112027 @ 아고게.

112027 # 어, 강혜근에 오래 또 기일 제사 제서영 오래 허던 대가 오래 혼 5대
나가민 지제 해 불민 그 상 앓아 불고.

112027 @ 으.

112027 # 나도 상 서너 개 경헨 앓아 벳저. 혼 삼대 지제허난.

112027 @ 음.

112027 # 경헨 지금 상 혼난 작년, 작년이 지제 허난에 막 좋은 상이라. 버림
아까월에 옆이 영 잘 행 놔 뒷주게. 하하하.

112027 @ 하하하. 잘 보관허십서.

112027 # 으, 경헨 놔 뒷주게.

112027 @ 게민 관이랑 관 더프는 횡대 같은 것도 그때 다 찻는 거라예?

112027 # 어, 어.

112027 @ 미룻 준비행 놔 두는 사름덜도 잊일 건가?

112027 # 문딱 잊나게.

112027 @ 예.

112027 # 다 준비행 늠어 가민 이녁 아정 갈 건 다 행 놔 뒤.

112027 @ 으.

112027 # 이젠 장의사 험주만은.

112027 @ 예, 맞아마씨.

112027 # 우리도 시어멍 문딱 그 관널이영 또 그디 개관 관 우이 더끄는 거.
112027 @ 그니까.
112027 # 개관 그거 문 기자 잇어. 저 장의사 나 부난에.
112027 @ 으.
112027 # 그거 행 놔 두 건 기자 ㄱ만이 잇저 기자.
112027 @ 아, 그거 안 쓰고?
112027 # 안 썸에. 장의사 기자, 이젠 장의사가 문 짜근에 들어오는 따문.
112027 @ 으. 그거 짱 놔 뒤신디 그거 못 썸구나예?
112027 # 으, 짜질 안 허고 널판으로 행 놔 둔 거, 널판.
112028 @ 예. 게민 수의나 상복은 어뎡 마련헉니까?
112028 # 수원계 멩지허는 사름 잇곡 육지 사름은 베, 제주 사름은 명주.
112028 @ 아까 수의가 저승웃이렌 현 거?
112028 # 으, 저승웃. 상복은 상제, 죽으민 상제 입는 옷.
112028 @ 그민 거의 멩지로 헤, 잘 사는 사름덜은?
112028 # 저 상복은 베.
112028 @ 베로 하고.
112028 # 어, 베 허고 광목으로 몸빼.
112028 @ 몸빼.
112028 # 아랫바지.
112028 @ 치마?
112028 # 치만 저 거시기 상제만은 베, 베. 또 광목허는 사름도 잇고. 또 저 장 의사에 불르민 광목으로 아저와근에 허곡.
112028 @ 으, 광목으로 허고예.
112028 # 행 놔 두는 사름은 베로 잘 행 놔 두고. 경헌다게.
112028 @ 으, 으. 게민 수의는 거의 멩지로 헤 가지고.
112028 # 으, 멩지로 대게 헌다게 나도 우리도 하르방 거영 나 거영 문 멩지로 헛저게.
112028 @ 아, 행 놔 뒷수과?
112028 # 으, 행 나주주게. 다 행 놔 둔다. 오십 넘어 가민 다 헌다. 육십 뉘 가 민 다 허여.
112030 @ 아, 기구나. 게민 두건이랑 복치메는?
112030 # 그건 저 거시기로. 저 베.
112030 @ 베로?
112030 # 으, 베로 사다근에 멩글양. 우리도 우리 죽으민 입을 거 나 문 행 나 뒷저게. 퀘로 하나 기자.
112030 @ 으.
112030 # 베 행 두건 허고 이디 저 거시기 무시거엔 헌다만은 것도 곧젠 허난

굴아지크냐. 허곡. 이디 행정 허고 띠 허고 문 행 놔 된.

112030 @ 계민 그 만약 그 상복이나 그거는 아드님이나 메누님까지가 경 상복
을 입을 거잖아. 딸이영?

112030 # 어, 어.

112030 @ 근데 그 우리 두건이랑 복치메는?

112030 # 그건 켤당.

112030 @ 켤당들.

112030 # 으.

112030 @ 몇 촌까지 영 나눠줍니까?

112030 # 이제 하영 안 준다. 이젠.

112030 @ 으.

112030 # 이젠 기자 대개 브든 흔 오류촌 열촌꺼지 주카. 주나마나 기자 가까운
거시기 오민 주주만은 이젠 안 허는 딴 안 허여.

112030 @ 으.

112030 # 일절 안 허는 딴 안 한다. 옛날은 막 하영 해났저. 동네 문 주고.

112030 @ 동네 문 주고.

112030 # 으, 옛날은 문 쥐났저.

112030 @ 두건은?

112030 # 으, 지금 두건은 대개 쥐.

112032 @ 예. 성복제는 뭐 허는 게 성복제인 것과?

112032 # 성복제 그 영장 전이 저 죽영 이틀이나 사흘이나 돼민 성복제 허여근
에 그 성복제 몰르크다 어떻허연.

112032 @ 으.

112032 # 거 다 돌아갓다 헨 허는 제산지 어떻헌지.

112032 @ 올릴 때 음식덜은 뭐 올려, 성복제에?

112032 # 떡게 떡.

112032 @ 떡.

112032 # 으, 떡 과일, 고기 적갈, 소고기 적갈 돼지고기 적갈, 바닷고기 또 고
사리 콩누물.

112032 @ 으.

112032 # 늣빠 그런 거 문 해근에. 올리주게. 제사에 허는 거 다. 제에 허는 거
다.

112032 @ 다 ㄱ타예?

112032 # 어.

112032 @ 올리는 순서덜도 다 곱고.

112032 # 다 ㄱ타.

112033 @ 성복제 올리 때나 일포제 올릴 때나 다 ㄱ튼 거?

112033 # 어. 경헌디 성복제나 일포제나 올리는 거 다 ㄴ트는 디 식게 때광, 식젠인 제사혈 땀.

112033 @ 으.

112033 # 저 국이 왼쪽에 놓고.

112033 @ 으.

112033 # 우린 오른쪽에 땀 먹지 안 허느냐?

112033 @ 예, 예.

112033 # 제사혈 땀 국이 왼쪽에 놓고 영장혈 땀 국이 오른쪽에.

112033 @ 아, 우리 먹는 거랑 ㄴ치.

112033 # 으, ㄴ치. 상식혈 때도 오른쪽에.

112033 @ 상식혈 때도 오른쪽에?

112033 # 으.

112033 @ 겐 제사혈 땀 왼쪽에.

112033 # 어, 왼쪽에.

112033 @ 상식 다 끝나야 우에서 먹는 거구나, 반대쪽에서 먹는 거구나.

112033 # 몰르켜게. 하하하.

112033 @ 하하하. 아, 기과.

112033 # 어.

112033 @ 음식이 트난 건 엇지예?

112033 # 어, 그거 다 ㄴ튼 거.

112033 @ 다 ㄴ튼 거.

112033 # 어, 기자 출려지는 대로 출리는 거.

112033 @ 예, 예. 아까 성복제는 경허고 일포제는 무사 지내는 거?

112033 # 일포젠 그날 일포 헌다 헨에 손님덜 다 온다 헨에게. 일포제 지낸덴 허는 것도 그 상에 올릴 거 문 헤다근에 가근에 절, 흐쉴 절 허고 제 헤근에 기자 학 설러분다게. 경헌 손님 대접허는 거.

112033 @ 어. 게도 손님 대접할 때도 상 위에 있는 건 다 올려 있는 거 아니?

112033 # 어.

112033 @ 밥 국만 빼고.

112033 # 그거게. 밥 국만 빼엇다근에 올렸다근에 또 밥 국 올리고 절허고. 저녁에 저녁제. 저녁제혈 땀 그 저 무시거 떡이나 고기나 무시거 문딱 새로 곶아.

112033 @ 음, 점심 때는 아침에 해난 거?

112033 # 기자 기자 허고.

112033 @ 저녁 때는 다 새로?

112033 # 으, 저녁제 허멍. 경허고 쁘당덜 다 저녁제 보젠 오고.

112033 @ 음.

112033 # 어디 밧디라도 갖다 저녁제 뉘 가민 와. 경허영 저녁제 헤낭 저녁 먹

고.

112034 @ 기민 일포제 저녁 때는 아까 친척덜 다 오잖아예. 성복제에 경 다 안 오지예?

112034 # 아니, 성복제에 다 온다 켜당덜. 제물떡 허멍.

112034 @ 제물떡 허멍?

112034 # 으, 제물떡 허멍 다 온다. 저녁제엔 제물떡 안 허고. 일포제에도 저 옛날엔 일포제 거시기 제물떡 했주 이젠 부지로 허난 돈으로 허난 안 허곡 그자 저 성복제.

112034 @ 으.

112034 # 성복제엔 제물 해근에 와근에 떡곡 성복제 넘겨나민 떡곡.

112034 @ 아. 그 일포제 헐 때 제사랑 똑같이 숭늬도 올리고 다 헐니까?

112034 # 어. 다 허주게. 다 똑 ㄴ치 올리는 것도 ㄴ치.

112034 @ 부조는 상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112034 # 마찬가지로. 보리쫄이나 곤쫄이나. 다 ㄴ치. 그뻘 집이서 허고 허난게.

112034 @ 집이서 허난. 토신제가 뭐과, 토신제?

112035 # 토신젠 이 집 안에 저 거시기 땅제.

112035 @ 으.

112035 # 토신이엔 헐 건 땅 아냐 땅. 땅제. 그 앓은 자리 땅제.

112035 @ 그럼 이건 언제 지내는 거라?

112035 # 그건 정월덜 아니면 삼월덜.

112035 @ 으.

112035 # 건 아무나 경, 아무나 경 허는 것덜 아니.

112035 @ 집 말고 밭, 그 장지에도 토신제 지냅니까?

112035 # 저 거시기 산 무덤 갈 때.

112035 @ 무덤 갈 때.

112035 # 으, 그디 토신제 헐다게.

112035 @ 계민 이 토신제는 산 물을 때 언제 허는 거라?

112035 # 그건 영장허기 전에.

112035 @ 그날?

112035 # 아 그날이나 아시날러레나 새백이나. 영장 오닐 갈 거민 오닐 새백이나.

112035 @ 오닐 새백이나.

112035 # 거 누게 빌영 돈 췌 빌영. 제관 빌영.

112035 @ 집안 사람이 허는 게 아니고?

112035 # 집안 사름 잇이민 집안 사름 빌어근에.

112035 @ 음.

112035 # 품 췌. 품 췌근에. 그것도 토신제 헐 땐 부정허면 안 뻬여. 제 헐 사름

은 혼 삼일 목욕 느랑 허고 그거 막 정성혜사.

112035 @ 으.

112035 # 사흘은이 어디 깎막 안 가고. 이젠 경 안 행 돌아댕기당 기자 험실 거
여만은. 옛날은이 사흘은 올레베꼈디 나가도 안 허고 기자 목욕허고 기자. 경혜근에
먹는 것도 웨지고기 안 먹고 부정헌 것도 안 먹고.

112035 @ 아, 기과?

112035 # 먹는 것도 깨끗헌 것만 먹고. 채소 거튼 거. 경헨 강 제혜근에. 이젠,
이젠 먹는 것도 허고 이젠 시님도 다 먹으난 원. 이젠 끌르지 안 헌다만은 옛날은.

112035 @ 부정헌 거 허지 말렌?

112035 # 어. 경허영 집이 또 집이 거 정월달에 허는 거 거 무시거엔 헌다만은
거 원 나 곤젠 허난 못 곶으켜.

112035 @ 나중에 물어보쿠다. 정월달에 제 지내는 거.

112035 # 어, 정월달에 집이 문막 헌다. 경허민 것도 스키 메여근에. 땡우지낭썸
이나 저 미강낭썸이나 저 베 꼬아근에 것에 돌아메영 올레 막아.

112035 @ 예.

112035 # 경헨 혼 일주일은 흐는 사름 잇곡, 사흘 허는 사름 잇곡 닷새 허는 사
름 잇곡.

112035 @ 으.

112035 # 그걸 오래 메는 사름 잇곡 부정헌 사름 오지 말렌. 누게나 들어오지
말렌.

112035 @ 들어오지 말렌.

112035 # 으. 올레**, 정월달에 허는 거. 올레에 누게 오지 말라. 좋게시리, 일
년을 우리 집안이 깨끗이 뭐 무난허게 넘어줍센 허는 거 제. 경헨 정월달에 헌다게.
정월달에 못 허민 삼월달.

112035 @ 정월달 못 허민 삼월달.

112035 # 어. 심방 빌어다근에. 떡, 돌레떡 혜 놓고. 저 웨지고긴 안 써. 도새기
고긴 안 써. 부정헌텐 허명. 소래기 쓰곡 노리래기 쓰고.

112036 @ 경 장 나민 문젠 허면 집에서 장지까지 관을 옮겨야 헐 거 아니예?

112036 # 으, 으.

112036 @ 게민 그런 사름덜은 어떤 사름덜이?

112036 # 그 장 나민이 관 올레꺼지라도 영 들러가젠 허민 조케나 저 동세 간이
나 그런 벅딘 촌.

112036 @ 으.

112036 # 가까운 촌으로 그 관을 으섯 사름.

112036 @ 으.

112036 # 이디 세 사름, 이디 세 사름. 광목으로 혜근에. 광목 요디 영 놓고 영
냥. 경헨 들러강 올레가근에 놓지, 생이, 생이렌 혜근에 잇어낫저 썩우는 거. 옛날

에.

112036 @ 으.

112036 # 생이 썩왕.

112036 @ 여기 영 덮는 거?

112036 # 어, 어. 영행 여기.

112036 @ 상여, 상여?

112036 # 생이, 생이 헤낫저. 생이, 생이 헤낫저게.

112036 @ 생이렌 헤난마씨?

112036 # 으, 생이, 생이 헤낫저게. 생이 썩완, 생이 썩완 허멍.

112036 @ 으.

112036 # 갱헨 그까지 그 브딘 촌으로 들러가고 또 영장 밧디도 갱 흐썰 읍기젠 허민 그 사름덜. 브딘 촌.

112036 @ 예.

112036 # 가까운 촌으로 들러가주게.

112037 @ 아까 여섯 사람이 광목행 들렁나왕 생이에 올리면?

112037 # 생이에 올리면 그디덜 또 동네 저 아무라도 칭년덜 기운 쉰 사름.

112037 @ 흐 멧 사름이 그치 들러?

112037 # 그거이 흐 착에 너이썩 으답, 열. 흐 여남은 사름 쉰 거 님다. 흐 착에 너이썩 허고 또 무거워 가민 더 들어사곡게.

112037 @ 으.

112037 # 가다근에 무거우민 바짜근에 허고.

112037 @ 바짱 허고?

112037 # 가단 쉬고. 가단 또 무시겨 저 옛날엔 감지 감지 헛주게.

112037 @ 으.

112037 # 감지나 술이나 행 갱 중간에 맥이곡.

112037 @ 감지가 뭐과?

112037 # 감지가 음료수.

112037 @ 아, 감주?

112037 # 어, 감주. 감지, 감지 헛저게. 감지나 저 술이나 행 갱 맥여사꿀, 맥여사꿀 허멍. 떡 행 가는 사름은 떡도 행 갱 중간에 가단 쉬민 떡곡 지치민.

112037 @ 근데 여기 상 난 집에서 장지까지 가는데 이 가는 길에 친척 집이 있으면 이 친척 집 앞에 뭐 내 놓고 험니까?

112037 # 그디 가근에 절헌다게.

112037 @ 어.

112037 # 그디 가근에 그디서 과일 허고 저 기자 과일 허고 저 적갈이나 헤지민 허곡 떡 시민 허곡 엇이민 말앙 과일허고 과자나 올리고 저 술 허고.

112037 @ 예.

112037 # 김혜근에 절 한다. 절 혜근에 영영 네 맞디 땡기멍 비운다게.

112037 @ 예.

112037 # 그거 일로 넘어, 넘어가난 우리 대접험수다 허는 거.

112037 @ 그 친척덜 집에서예?

112037 # 으. 친척 으. 마지막 대접험수다 허는 거.

112037 @ 아, 그거는 그 집에서 그냥 마련허는 거예?

112037 # 으, 으. 그 집이서 마련혜근에.

112037 @ 떡은 안 허고?

112037 # 떡 시민 혜도, 떡은 거의 안 한다. 과일 ㄱ튼 거 과자 ㄱ튼 거. 동글이 ㄱ튼 것도 사다 낫다근에 허영 그디 사름덜 문 준다게.

112037 @ 영.

112037 # 올려난 것덜 주민 문 먹나 반양덜.

112037 @ 같이 가는 사름덜.

112037 # 어, ㄱ치 가는 사름덜 영 주민 먹나게.

112037 @ 으. 그럼 영 생이 드는 사름덜은 놉 빌영 허는 건 아니지예?

112037 # 아니, 아니. 그디 보레 온 사름덜.

112037 @ 동네 사름들?

112037 # 으, 동네 사름덜 기자. 아무라도 들어 상 베덴 허민 또 바짜 주고.

112038 @ 경험 산에 강 봉분은 어떻 만듭니까?

112038 # 봉분은 기자 그 테역 혜다 놓고 미리, 미리 테도 혜다 놓고 흑도 파다 놓고 허주게.

112038 @ 으.

112038 # 그 일포날, 일포날. 일포 혈 때 그디 먹을 거 점심이영 그 출린 거 문 아저간다게. 아저 강 그거 먹으멍 일혈 거. 그디 친족이나 누계 가근에 혼디덜 그 흑 파다 놓고 문딱 헤시민 그거 혜근에 봉분 행 멘글주게. 그 저궤디 무릇허게 혜다 낫당.

112038 @ 으.

112038 # 경험당 족으민 저디 강 파난 디가 더 파 오고. 김허멍 그거 혈 때도 중간에 막 무시거 술도 맥이곡 봉분 쌀 때.

112038 @ 그거 맥이는 거는 상 난 집에서?

112038 # 상 난 집에서 상체덜 이녀 짝만씩 맥인다.

112038 @ 아.

112038 # 고기도 아정 가고 기자 먹음직 혈 걸로 기자 혜근에.

112039 @ 으, 으. 그 호충이렌 혜가지고 그 봉분에 관 놓기 전에 뭐 하거나 혈 때 보지 말아야 허는 사람 잇수과?

112039 # 어. 건 날 봐근에 거시기 지관신디 가민이 지관신디 가민 멧 설, 멧 설 보지 말렌 한다게.

112039 @ 으, 으. 그거 뭐렌 해낫수과?
112039 # 그건 모르켜.
112039 @ 어쨌든 장지까지 갔어도 관 놓는 거 보지 못 허는.
112039 # 보지 말렌 허민 그디 강 묻는 거 보당도 마지막 더끝 때 영 해 불민
웬덴 헌다게.
112039 @ 아.
112039 # 영 해 불민. 그디 사도.
112039 @ 계민 그거는 그디 있는 사람이 누게 곶아 주는 거?
112039 # 아니 거 미리 영장 난 디서 미리 멧 설은 보지 말렌 곤나.
112039 @ 멧 설 난 사람?
112039 # 으, 무신 띠, 무신 띠랑 보지 말렌. 경 곤나게. 저 관 더끝 때도. 저 입
관 혈 때. 거시기 영장 밧디 강 묻는 건 하관. 계난 입관혈 때도 보지 말렌 허민 문
딱 그디 녹지는 거 그디 클르는 거 문 보당 마주막에 딱딱 혈 때 영 해 분다게.
112039 @ 아, 고개를 돌려?
112039 # 으, 계민 영영 그거 보지 말렌 해도 에 어떻 안 해 행 밧당 그 사름이
출출 아과.
112039 @ 아.
112039 # 죽어지도 안 허고 그자 울어, 울어.
112039 @ 아.
112039 # 우리 우녉집이도 저 어떻 저 천리 해 가난 아덜 보지 말렌 헛주게. 계
도 어떻 안 허여, 어떻 안 허여 헨 밧당 그 사름 막 울영 죽엇저.
112039 @ 유는 게 뭐과?
112039 # 유는 거 병 들어근에 오래 아프는 거. 막 병 들영 울엄젠, 울엄젠 헌
다.
112039 @ 아, 병 들영 아프는 거 유는 거렌?
112039 # 어, 어. 병 들영 울엄젠. 아이고 어디 누게 병 들언 울엄젠. 경헌다게.
112039 @ 아, 경허는 거예.
112039 # 으.
112039 @ 이제 장 밧디 막 사름덜 하영 갓잖아예?
112039 # 으.
112040 @ 그 사름덜안테도 음식 대접해야 될 거 아니?
112040 # 밥 행 가주게.
112040 @ 밥 행. 막 옛날에도 경 밥 행 가졌수과?
112040 # 아이고 옛날에 스몏 딸, 큰딸은 조반 출려오고.
112040 @ 으.
112040 # 셋딸은 점심 출리고 죽은 딸은 피력.
112040 @ 피력은 뭐라?

112040 # 피력은 떡 행 강 맥이고. 풀 때, 문딱 해근에 풀 때 돌레떡이나 송편 이나.

112040 @ 으.

112040 # 저 등절비엔 헛저. 저 곤 ㄱ루 해근에이, 곤 ㄱ루 해근에 등절비엔 해 근에 동글랑허게 해근에 요건 영 허민 이거 뽀으로 영 헤진 거 등절비엔 헛 두텁허 게 요 요만인 두더와.

112040 @ 음.

112040 # 경허민 쓸도 하영 들주게. 그거 행 강 세 개 맥이는 디 잇곡 두 개 맥 이는 디 잇곡.

112040 @ 게난 그 등절비가 밥 대신 아니랏수과?

112040 # 거 먹는 대신 헛주게. 아니, 점심은 점심대로 잇고, 조반은 조반대로 헛곡.

112040 @ 아.

112040 # 조반은 딸, 큰딸 출렁 오랜 행 큰딸이 조반 솔벤. 경해근에 허민 저 조반은 집이서 먹곡 점심은 셋딸 절벤허곡 정심 옛날은.

112040 @ 으.

112040 # 경허민 절벤 해다근에 아시날 문 써 뒤근에 점심은 문 딸네 시집이서 문 출려근에 그디 막 막 장 난 집이추룩 막 출려 가.

112040 @ 으.

112040 # 경헛 것 강 맥이곡. 죽은딸은 그 등절비. 등절비나 침떡이나 그거 행 강 영장 문 헛수다 해근에 이디 문딱 저 거시기 영장 허레 간 사름덜 문 앓나. 앓 앙 밥 먹지. 저 점심 먹을 때추룩 영 앓주게.

112040 @ 으.

112040 # 문딱 앓으면 상제덜은 왕 아이구 고맙수다 우리 부모님 잘 모션에 잘 헤 주난 감사허우다 헛 헛 때 그 등절빌 맥여.

112040 @ 음.

112040 # 경헛 때 맥이민 흐나씩 당 온다게. 반양 오주게.

112040 @ 으, 반으로 반양 오는구나.

112040 # 으, 반양 오는 거. 게민 이만씩, 등절미 이만씩 두텁게 허민 맛 좋아.

112040 @ 등절미?

112040 # 등절비.

112040 @ 예, 등절비렌 허는 거예?

112040 # 어, 비. 경 글아나난 거 몰르켜.

112040 @ 예, 예.

112040 # 등절비, 등절비 해낫저게.

112040 @ 예. 게민 그거 ㄱ물ㄱ루로 허는 거 아니? 쓸ㄱ루로?

112040 # ㄱ물ㄱ루 저 돌레떡.

112040 @ 돌레떡.
112040 # 어.
112040 @ 돌레떡 허고.
112040 # 어, 그 곤 ㄹ루론 등절비 멩글고. 경해낫저.
112040 @ 곤썰 막 하영 들쿠다. 그거 헤젠 허민.
112040 # 막 하영 들어. 두답게 허젠 허민 막 하영 들주게.
112040 @ 게민 장 밧디 강 점심도 멕엇잖아예?
112040 # 어.
112040 @ 점심 멕일 때 보리밥에 국도 허고?
112040 # 국도 허고 고기도 허고 그 베욱, 베욱.
112040 @ 으.
112040 # 베욱이엔 행이 대 요만이 헤근에 베욱고기 으섯 점 췌신가 으섯 점 췌
나 일곱 점 췌나 헤근에. 췌기.
112040 @ 베욱이 뭐?
112040 # 도새기 고기 압게 췌영.
112040 @ 예.
112040 # 요만씩 요만씩 췌어근에 베 헤근에 고지 만들앙 그것에 영영 췌영 너
점 다섯 점 경 가실 거라. 경헨 그 베욱 하나 놓고 밥 출럿는디 밥 출려 낭 짐치거
튼 거 반찬 논 디 툃툃 베욱 하나씩 놓나게.
112040 @ 그걸 베욱이렌 허는 거?
112040 # 베욱, 베욱. 베욱, 베욱 헤낫저게.
112040 @ 게니까 돼지고기, 우리 적 헐 때는 영 길게 췌잖아예?
112040 # 으. 경헨디 납작허게 췌어.
112040 @ 그거를 여섯 개 정도.
112040 # 으, 췌여. 영 영 췌영.
112040 @ 예.
112040 # 으.
112040 @ 그걸 베욱이렌 헐 거예.
112040 # 으, 베욱, 베욱.
112040 @ 게난 그걸 밥 위에 툃 없어 놓면 그거 한 사람안테 갈 거.
112040 # 어, 한 사람씩.
112040 @ 국은?
112040 # 국은 저 고기국 헤가는, 잘 출리는 딴 고기국 헤가곡. 경 안 헨 때 무
신 아무 국이라도 허고. 대겐 빼 숲앙 국 행 강, 대겐.
112040 @ 저 툃쿱?
112040 # ㄹ물쿱, ㄹ물쿱.
112040 @ ㄹ물쿱.

112040 # 어, 그거 우리도 방상에 일 나미 느랏 헤 낫저. 뭇망 사당 뭇망이엔 헤근에이.

112040 @ 예, 몆.

112040 # 으, 뭇망 사당 그거 뺄아 놓고 파 썰어 놓고 저 뭇물꺾루, 뭇물꺾루보 단 조꺾루가 좋넨 허멍.

112040 @ 아.

112040 # 조꺾루, 좁쌀꺾루 기계에 강 곶아다근에. 그 꺾루 풀 쑤어근에 낵.

112040 @ 으.

112040 # 것가 넉넉 안 허영 맛 좋넨 허멍. 그 빼 끊여 놓민 흐썰 넉넉허지. 경 허민 그 좁쌀 꺾루 놓민 넉넉 안 허여.

112040 @ 아, 기구나.

112040 # 게난 경허영 먹어낫저게.

112040 @ 짐치도 허고?

112040 # 어게.

112040 @ 짐치도 허고.

112040 # 짐친 엇인 디가 엇어 다 따라 탱기난.

112040 @ 향상에?

112040 # 으, 기본이주, 기본.

112041 @ 예, 그 상 지넨 때 장 밧디 강 특별허게 막 땅 파고 묻고 산담 영 헤 주는 그거 말앙 허는 어른덜이 잇잖아예?

112041 # 건.

112041 @ 그 어른안테 특별허게 뵤 챙겨주는 거 잇어낫어?

112041 # 그거 허는 사름이 봉분 쌓는 사름신디 영장칩이서 생각헤 준다게.

112041 @ 예, 예.

112041 # 답 다는 건이.

112041 @ 예.

112041 # 건 일당 주곡.

112041 @ 일당 주고?

112041 # 어, 일당주고. 봉분도 대개 일당 주는 거주. 일당 넘어 줘사. 넘직허게 준다게.

112041 @ 그 사름덜안테 주는 거 뵤 곽적떡이렌 허는 거 엇어낫수과?

112041 # 아니, 그딘 강 그자 떡곡, 꺾치 떡곡 허당 말젠 우리가 봉투허민 봉투로 행 주곡게.

112041 @ 아, 일당으로?

112041 # 어. 경헛저.

112041 @ 우리 부주 썰로 받을 때도 그 사름안테 썰로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112041 # 어게.

112042 @ 돌아가시던 우리 상식 하잖아예?
112042 # 어.
112042 @ 상식은 얼마나 헤냏수과? 몇 년이나 헤냏수과?
112042 # 이 년.
112042 @ 이 년.
112042 # 일 년 돌아오민 소상. 그건 소상 또 소상 넘으민 대상.
112042 @ 대상.
112042 # 김혜근에 대상 넘으민 석 덜, 백 석 덜 넘영, 백일광 석 덜 사이에.
112042 @ 예.
112042 # 담제.
112042 @ 담제.
112042 # 어, 제가 오죽 하냏이나?
112042 @ 그럼 상식은 이 년만 하민 뉘는 거?
112042 # 으, 이 년.
112042 @ 이 년.
112042 # 딱 이 년.
112042 @ 으.
112042 # 게민 그걸 삼 년, 삼 년 곺아냏저.
112042 @ 게니까 보통 삼 년 헌덴?
112042 # 삼 년, 삼 년 곺아도 이 년. 그건 초상 놓고 소상. 초상 중상 대상 놓는 거주게.
112042 @ 예.
112042 # 초상 영장 헐 때까지 세는 거.
112042 @ 아.
112042 # 삼 년 삼 년 헌 건.
112042 @ 게민 만으로 센 건 이 년인 거라예?
112042 # 으, 이 년. 딱 날짜로 이 년.
112042 @ 예. 겐 대상까지 하면 이제 안 하는 거?
112042 # 대상 넘어근에 삼 개월 넘영 백일 뉘가민 담제. 제추룩.
112042 @ 게민 담제하기 전까지는 상식 하는 건게?
112042 # 으, 아니 아니. 대상까지.
112042 @ 아, 대상까지만 상식 허고.
112042 # 으. 대상만 넘으민 상 앓아 붙어.
112042 @ 그 이후에 백일 지나면 담제 하는 거?
112042 # 담제.
112042 @ 상식 헐 때 항상 집에 영 상을 차립니까?
112042 # 상 우리 먹듯 상을 출렁. 꾀 허고 과일 허고 그 꾀 시들어가민 곺고.

기자 헤어지는 디 잇곡 못 허는 디 잇곡 빈 상 싱그는 디 잇곡.

112042 @ 으.

112042 # 또 어디 강 무시거 먹어지민 받아 오랑 또 올리고.

112042 @ 으. 케민 삼춘네도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삼 시 다 올렸수과?

112042 # 다 헛주게.

112042 @ 아이고.

112042 # 난 시할망 죽영 이 년 상식 허고 시하르방 죽영 이 년 허고.

112042 @ 으.

112042 # 시어명은 일 년. 시어명은 일 년 헛저.

112042 @ 무사 일 년?

112042 # 일 년, 요새사, 요새사 죽으난.

112042 @ 아, 얼마 안 됐구나.

112042 # 으, 오래지 안 허난.

112042 @ 으, 그때 일 년에 삼시 다 올렸수과?

112042 # 어게. 밧디 강 일허다근에 점심 놓레 오고.

112042 @ 하하하.

112042 # 겨난이 이 시어명 헐 땐, 이 시하르방, 시할망 헐 땐, 나 애기 든 때 그 거시기 현에 현디 그땐 침 애기 들고 그땐 오도바가 엇인디 시어명 죽은 땐 나가 오도바 탕 땡겨낫주게.

112042 @ 으.

112042 # 게난 밧디 강 일허당 바르르 허게 오랑 오도바 탕 오랑 상 올렸다근에 쪼금, 또 그디서 무시거 헐 거 시민 흐쓸 허다근에 저 먹어낫구나 헤근에 느려근에 가곡 경헤낫저게. 경헐 때 침 좋아라 오도바 탕.

112042 @ 아.

112042 # 경허민 놉 빌영 강 일허당 그디 강 밥 먹영 오랑 난 집이 강 오쿠다가 가민 드러 옷주게. 거 쥔 좋다 쥔 좋다 허멍. 하하하.

112042 @ 아, 밥은 거기서 다 먹어져도 여기 왕 올려야 뵈겜 겨난.

112042 # 으, 올려사 헐 겨난게. 오랑 국 데왕 국 데와근에.

112042 @ 예.

112042 # 음.

112043 @ 상식 올리는 동안은 삭망제렌 허잖아예?

112043 # 삭망 보름에 흔 번.

112043 @ 보름에 흔 번.

112043 # 경헌디.

112043 @ 아, 초하룬 안 허고 여긴 보름만 헉니까?

112043 # 보름, 보름에 흔 번씩. 저 초하루 허고 보름 허고.

112043 @ 기지예.

112043 # 경헌디 시할망 시하르방은 그처럼 허고 나가. 시어멍은 이제 오래지 안 허난 저 혼 델에 혼 번 초허루만.

112043 @ 아, 초허루만.

112043 # 으, 경헤낫저게.

112043 @ 시어무니 돌아가신 게 언제디마씨?

112043 # 이제 살아시민 백열으답이 웨크냐?

112043 @ 예.

112043 # 구십구년도엔가?

112043 @ 구십구년도에 돌아가신 거?

112043 # 경헌 거 님다이.

112043 @ 그럼 십칠 년정도 웨신게.

112043 # 어, 어.

112043 @ 아이구 다 기억험수다예.

112043 # 하하하.

112043 @ 아아구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거 다 기억하시고.

112043 # 구십구년도. 아니, 우리 친정어무니가 구십구년도, 시어멍은 구십삼년도.

112043 @ 아, 구십삼년도?

112043 # 으, 구십삼년도게.

112043 @ 아이고. 계민 삭망쟁 헐 때 그거 다 새백이 헤난 거 아니?

112043 # 새백이, 아침에.

112043 @ 아침에.

112043 # 밧디 갈 땀 어둑헐 때 허고 또 흐쓸 늦엉 흐쓸 크게 일허레 안 갈 땀 흐뵂 볏앙 허고.

112043 @ 어.

112043 # 경허민 상제덜 와사헐 거난. 딸이나 메누리덜이 켜당덜 오는 사름 오고 와살 거난 대겐 흐쓸 늦인켄 그날 삭망허는 날은 저 먼 밧디 크게 일 못 허여.

112043 @ 못 허여. 오전 중에 먹엉 치우고 허젠 허민예?

112043 # 으. 치우곡 허젠 허민 못 허여.

112043 @ 아들이영 딸들은 다 여기 제주도예 살암수과?

112043 # 우리 아덜덜, 아니, 우리 큰아덜은 부친 살고. 죽은아덜은 저 동흥동 어디 아파트예 살고 딸도 동흥동 어디 살고.

112043 @ 으.

112043 # 경헌 살암주게.

112043 @ 계민 상제덜 다 와사?

112043 # 으, 경헌다게.

112043 @ 계민 맨 처음, 삭망허는 것도 막 간단헤지긴 헛어예?

112043 # 어?

112043 @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요즘 삭망허는 건?

112043 # 간단했주게. 먹을 음식은 더 허고.

112043 @ 아.

112043 # 먹을 음식은 더 헤졌저게. 이것 저것 하간 거게 지지미 거튼 거에, 옛날 지지미가 어디 잇느니?

112043 @ 아.

112043 # 튀기거나 튀겨근에. 이녁 먹젠 허는 거주 그거. 먹어 감나?

112043 @ 먹을 걸로. 하기야 요즘 잡채덜도 하고예?

112043 # 으.

112043 @ 먹젠들 허는 거주게.

112043 # 으.

112044 @ 소상 대상은 어뎡 헤낫수과, 소상 대상?

112044 # 소상 대상도 꼭 ㄹ트게 헛저게. 지금도 똑 ㄹ타.

112044 @ 지금도 똑 ㄹ타?

112044 # 으, 그자 먹는 음식 똑 ㄹ트고 올리는 거 똑 ㄹ트고. 소상 대상도 밥 그릇은, 저 국은 오른쪽.

112044 @ 예.

112044 # 대상 넘어사 왼쪽.

112044 @ 아.

112044 # 저 담제혈 때 왼쪽.

112044 @ 대상 넘으면 바꾸는 거?

112044 # 어, 어.

112044 @ 상복 입는 것도 소상 대상 때 다 입고예?

112044 # 으.

112044 @ 삭망혈 때 입고.

112044 # 삭망혈 때도 입곡.

112044 @ 으. 그럼 대상 끝나민 그거 슬아릅니까?

112044 # 슬아부는 사름 슬아불고. 지금은 혼전허난 그거 슬아뻬저. 옛날은 그거 다 튼영 췌저. 포도 만들고 옷도 만들양 입곡.

112044 @ 아.

112044 # 그것가 어려왔주게.

112044 @ 으.

112044 # 다 췌어. 나도 문딱 췌어.

112044 @ 어려우난 그거 튼영?

112044 # 으, 또 거 베 현 거 만딱 베 이불 만들고. 문 튼으명게.

112044 @ 튼영 이어가지고예?

112044 # 으, 빨앙 풀헤여근에.

112044 @ 계민 그거 받는 것도 잘도 뭐라신게 친척덜예?

112044 # 으.

112044 @ 나뉘 주면?

112044 # 어게. 반 받는 거 막 좋아. 이젠 계난 켤당덜 수건도 허지 말렌 허고 안 험저게 이젠. 옛날엔 다 켤당덜도 수건 허젠 허민이 베 대으섯 빌 들어. 잘도 하영 들어.

112044 @ 하하하.

112044 # 베 흔 필이 수건이 열두 개베끼 안 나와.

112044 @ 음.

112044 # 경허민 막 하영 들어.

112045 @ 토롱은 뭐과, 토롱?

112045 # 초롱?

112045 @ 토롱.

112045 # 토롱, 토롱은 영장 나근에 묻으레 가지 못 헐 때 중간에 기자 임시 묻는 거.

112045 @ 아. 무사 묻으러 가지 못 헤, 예를들면?

112045 # 날짜 오래고.

112045 @ 날짜 오래고.

112045 # 날짜 오래민이 집이서 놓민 내 나카부덴 저 베깃디 강 토롱헛다근에 물어.

112045 @ 으, 날 봐신디.

112045 # 으, 오래민 날짜가 오래민.

112045 @ 경헨 임시 물어 두는 거라예, 토롱예?

112045 # 으.

112045 @ 경 임시 물어 두고 그런 것덜 많이 잇어낫수과, 여기서도?

112045 # 오래민 잇어난디 대개 엇나 이젠 날 좋나마나 삼, 삼, 사흘이민 헤 벼 이젠.

112045 @ 으.

112045 # 기자 보지 안 허여 이젠.

112045 @ 옛날엔 일주일도 허고.

112045 # 으, 일주일도 허고 나도 할망 오래난 우리 시어멍 죽언에 저디 강 토롱 험저게. 토롱 헛단 간 가단에 그거 토롱헌 거 광 아정 가낫저.

112045 @ 계민 만약 그렇게, 그렇게 오래면은 우리 강 장지에 강 묻기 전까지는 계속 집에서 손님덜 받잖아예.

112045 # 으, 으.

112045 @ 토롱 행 물어 불민 이거 끝나는 거 아니면 여기 갈 때까지 계속 허는

거?

112045 # 거. 토롱 허레 신체 가 불고 혼은 집이 잇꼭 허난 상 놔.

112045 @ 기민 그 기간 동안에는 손님 받는 거?

112045 # 아니 오민 받주게.

112045 @ 오민 받는 거.

112045 # 오민 받는 거.

112045 @ 어쨌든 본 무덤 가야 이 제가 다 끝나는 거예?

112045 # 으, 으.

112046 @ 자리 안 좋으난 이묘도 허고 해낫수과?

112046 # 이묘 문딱 헛저.

112046 @ 이묘?

112046 # 으.

112046 @ 무사 이묘를 헨 거라?

112046 # 이묘 저 우린 저 그디 산덜 간 디가 이 이 개발 거시기에 들언.

112046 @ 아.

112046 # 이 개발 그것이 중국 사름덜 왕 허는 디.

112046 @ 예.

112046 # 거 들언에 다 이묘 허단에 다 납골당에 강, 납골당 하나 산에 다 모셨저. 그 저 요만씩 요만씩 행 납골당 푸는 거 잇느네?

112046 @ 예.

112046 # 거 잇나게.

112046 @ 예.

112046 # 계난 그거 하나 산.

112046 @ 어디, 어디 어느 쪽에 잇수과 그 납골당은?

112046 # 그거 저 제주시 쪽에 한다게. 문 잇어 각처에 납골당 잇나.

112046 @ 그 자리 하나 사민 그 자리 하나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

112046 # 아니 아니. 우린 으라이. 이디 구들만이 허민 이디 조상 다 들어간 거.

112046 @ 아.

112046 # 우리 스물 멧 구 들어간 거.

112046 @ 아. 계민 그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112046 # 문딱 옷 조상부떠. 다 들어간.

112046 @ 계민 이묘 허젠 허민 뭘 준비해야 험니까?

112046 # 이묘허젠 허민 옛날은 이 애기덜 신 딘 그 죽을 때 입는 옷 저고리 바지 치마 같은 거 문 해낫주게. 두루막 ㄱ튼 거 문 해난디 이젠 그거 옛어. 이젠 그거 옛영 우리도 허젠 허난 저 장의사에 맞췌에 옷 헛 벌.

112046 @ 으.

112046 # 그거 입전 그자 이묘 행 나오민 떠가 요만씩 요만씩 헛 거 아냐게. 경

허민 그거 차례로 영 뇌근에 옷 낡.

112046 @ 으.

112046 # 옷 아래옷은 아래, 우이 옷은 우이 뇌근에 그 차례로 영 뇌근에 또 영 더꺼근에 무꺼근에.

112046 @ 예.

112046 # 무경 납골당에 강 거 슬양.

112046 @ 예.

112046 # 슬양 거 빼 나온난에 또 단지 해당 담안에 또 집인 저 우리 납골당 산 디 모셔단 제 헨에 그디 들어놋주게.

112046 @ 아.

112046 # 경허민 이 별초혈 때, 소분혈 땀 꽃 사고 그디 강 절허고 경헌다게.

112046 @ 게민 별초 안 해도 되는 거.

112046 # 안 해도 되는 건 우린. 게난 우린 막 불러왕 헌다 우리 동네 사름덜.

112046 @ 완전 편해져신게.

112046 # 으, 막 편해전 그때 뒤편 가켄덜 해근에 오랜 해근에 적 떡이나 상 가 지민 상 가고.

112046 @ 어.

112046 # 저 제주 허고 행 강 꽃 사고 행 강 그자 그 근처에 강 문 청소해 불 고.

112046 @ 예.

112046 # 겨난 우린 저디 낙원사 저꿏디 그디서 관리허는 디난 그디서 문 꽃 거 튼 거 해 줘.

112046 @ 아.

112046 # 꽃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곡이 낙원사에서.

112046 @ 아.

112046 # 경허민 그디 가근에 강헨 온다. 혼 두어 해 경헨저게.

112046 @ 아.

112046 # 이천, 이천, 이천칠 년도에 해져신가.

112046 @ 오래돼신게.

112046 # 으. 경허난에 기자 글후젠 그추록 헌다게.

112046 @ 아이고 편해졌수다.

112046 # 어게.

112046 @ 게민 별초허는 것처럼 막 친척덜 다 ㄴ치 모영 가진 허는 거예?

112046 # 으. 그 즈손덜은 다 ㄴ치 가는 거.

112046 @ ㄴ치 가는 거.

112046 # 어, 와지는 사름은. 못 오는 사름은 말고. 게난 우리 아덜도 부친 사난 느랴 별초허젠 오단 못 오민 말렌 행 말고.

112046 @ 안 와도 돼는 거잖아예?
112046 # 으, 안 와도 돼고. 이디 신 사름만 어.
112046 @ 아덜도 내려 왔구나?
112046 # 으, 와났저게 느랑.
112046 @ 계난 이묘허젠 허난 돈 많이 들어신게?
112046 # 돈 혼 구에 얼마. 저 죽은 시체?란 구엔 구. 혼 구, 혼 구에 얼마. 대
개 백만 원으로 우리 혼 스물 멧 시난에 혼 이천만 원.
112046 @ 계난 계난 집집마다 얼마씩 다 낸 거 아니?
112046 # 아니, 우리, 우리만 허고 저 거시기 글로 돈 나온 거.
112046 @ 글로 돈 나온 거라니?
112046 # 돈 나온 거.
112046 @ 아, 땅, 땅 때문에.
112046 # 어, 어. 돈 나온 거.
112046 @ 땅 보상 받은 거.
112046 # 으, 보상 받고 허난에. 보상으로 나온 거난 기자 우리 출령 기자 거시
기 헨에.
112046 @ 삼춘네 장손집이과?
112046 # 으.
112046 @ 삼춘네 집이서 다 말앙 허는 거?
112046 # 문딱 헨 거, 문딱 말앙 헨 거 우리가. 경허난 우리도 초상덜 문 허난
저 우리 스춘 시아주방은 토평서 침 일등 부제엔 곱아도 좋암주. 서귀포 집이 혼
스무남은 거리 허곡이.
112046 @ 아이고.
112046 # 잘도 부제주게. 경허난.
112046 @ 뭐 행 경 부제라.
112046 # 아니 저 초상 초상 때부터 풀지 안 허영 그자 사만 놓난 경 부제고 우
린 옷대 하르방, 하르방덜이 다 풀아 먹어벤.
112046 @ 하하하.
112046 # 문 풀아 먹영 시어멍도 왕 보난 밧 문 풀아 먹어 벤. 경허난 그딘 막
부제난에 벌초혜 가난 돈 아저와서라게. 아저와시난 나 안 받으켄.
112046 @ 으.
112046 # 이거 보상 받았 허는 거난 마우텐 해도 우리 즈손이 돼고 기자 넘어갈
수 있느냐 허멍 매껴라게. 계난 받았저게.
112046 @ 예, 잘 헛수다.
112046 # 으, 받았저게 계난.
112046 @ 못 사는 디도 아니고 잘 사는 디난.
112046 # 계난 것도 생각행 주난 허주 안 주민 도렌 안 허주. 계난 다른 사름덜

은 일절 원 줄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가 보상 받았 백만 원씩 주고. 못 살았 허는 사람덜은.

112046 @ 잘 했수다.

112046 # 으, 주고 우리가 그레 주고. 이 잘 사는 딘 우리가 받고. 하하하.

112047 @ 잘 했수다. 케난 영 행 대상 행 담제 행 다 끝나민 복은 언제 벗는 것과?

112047 # 복은 대상 때.

112047 @ 대상 때 벗는 거?

112047 # 어, 대상 제 하나민 큰 제 하나민.

112047 @ 으.

112047 # 저 대상 때 큰 제 열두 시 돼민 아이고 아이고 허멍 소리 헤근에 곡 소리 내와근에 제 헤영 흐민 복 문딱 벗어 불고 손 씻어 불고

112047 @ 으.

112047 # 그 부정을 문 가부는 거.

112047 @ 가 부는 거.

112047 # 겐 손 문 상제덜 씻고 머리덜 금는 채 헤근에 영영 영영 물 적지멍 영 영 영영 하고.

112047 @ 으.

112047 # 경허연 그 복 문 벗어 불고 방장대 헤가지고 방장대 복침.

112047 @ 으.

112029 # 그 앞이 논 건 복침.

112029 @ 예.

112029 # 거시기로 무꾼 거이. 방장댄 그 저 대로 거시기 그 아방 죽은 딘 왕대로 방장대.

112029 @ 왕대, 아방 죽은 딘?

112029 # 어, 어멍 죽은 딘 저 거시기 저 무신 낭. 거 무신 낭이여, 거 곧젠 허난 또 잊어 뱃저게.

112029 @ 예, 예.

112029 # 무신 낭, 그 낭으로. 머귀낭, 머귀낭.

112029 @ 으, 머귀낭.

112029 # 머귀낭 가시가 똑 똑 똑 지난 가시마다 세염난덴 어멍은.

112029 @ 아.

112029 # 가시마다 세염나고 아방 죽은 딘 왕대로 방장대 허난 모작지난 모작추록 세염이 들쿠락 들쿠락 난덴.

112029 @ 세염이 뭐과?

112029 # 이녁 이 우리 나는 거시기. 소굽에 중심계 영 우리 무시거엔 곧는 영 세염 세는 거.

112029 @ 예, 예.
 112029 # 세염이엔 한다 그거.
 112029 @ 예.
 112029 # 계난 아방은 들구락 들구락 존 썸이 엇지. 존 썸이 엇이난 저 왕대로 허곡.
 112029 @ 으.
 112029 # 모작마다 세염난덴 걸게.
 112029 @ 으.
 112029 # 어멍은 머귀냥으로 허난 가시마다 베겨진 거 존존존.
 112029 @ 가시냥이.
 112029 # 으, 경허난 그추룩 세염난덴.
 112029 @ 아.
 112047 # 갱헨 허민 대상 헤나민 열두 시 웨민 그 곡소리 내왕 그 제 헤나민 그 방장대영 슬아 불 거 이거 이디 썸난 거영, 이디 헤난 거영 대개 슬아 부는 사름 슬아 분다게.
 112047 @ 예.
 112047 # 쓰지 못 헐 건 가근에 문 또 상 아래 그 주검이 신도 느리곡 우리 경헨 느려낫저게. 경헨 영 돌려놔근에.
 112047 @ 으.
 112047 # 겻당 그거영 문딱 상에 올려난 거영 강 슬아불주게.
 112047 @ 으.
 112047 # 슬아 베튀 손 씻영 머리도 영영 굶는 채 허고 이런 디도 영영 허멍 그 부정을 대겐 헤 뒤근에 또 제 허여 혼 시 웨민.
 112047 @ 으.
 112047 # 큰 제.
 112047 @ 으.
 112047 # 제 허여. 그뎨 도복 입곡 다 헤여.
 112047 @ 아.
 112047 # 갱 헨 큰 제 한다게.
 112047 @ 예.
 112047 # 그건 제라헌 제.
 112047 @ 제라헌 제?
 112047 # 으, 이 열두 시에 허는 건 문 부정 나가부는 제.
 112047 @ 계난 그민 대상 허민 복은 벗는 거라예?:
 112047 # 으.
 112047 @ 그럼 왜 백일 후에 담제는 무사 허는 것과?
 112047 # 건 몰라게, 옛날에 원 몰르켜게 거 담제엔 헤근에 그것도이 담제엔 허

민 먼 켤당꺼지 문 오라.

112047 @ 어.

112047 # 경허민 우등을 숲양 저녁에 맥이나.

112047 @ 어.

112047 # 무시거 혼다게.

112047 @ 그럼 그때도 제사상은 출리는 거 아니?

112047 # 문 출리는 거. 저 이녁 집이 제사보단 더 출려사.

112047 @ 으.

112047 # 더덜 오난, 하영덜 오난.

112047 @ 손님덜 오니까예.

112047 # 으, 켤 출려사. 이젠 그거 엇어.

112047 @ 으.

112047 # 이젠이 영장 밧디도 초제도 안 허고 이제도 안 허고 삼제도 안 허고 아무것도 안 행 흠치 글로 썬근에 읽영 설러며.

112047 @ 계난 경행 영장 끝나민 이제 제사 때만 허민 뉘난.

112047 # 어. 경헨 허는 거게. 전인 영장 행 오민 상 모섯당 듯날, 그 영장날 초제 허고 듯날 이우제 허고 또.

112047 @ 이우제?

112047 # 어. 삼일날 삼우제 허고.

112047 @ 삼우제?

112047 # 어, 삼우제.

112047 @ 영장 행.

112047 # 어, 듯날 또 듯날 삼우제 허고 듯날엔 이우제 허고 강헤난디 그거 엇다 이젠.

112047 @ 없지예?

112047 # 으, 그자 글 썬근에 초제 이우제, 삼우제 문 념검수다 헤불민 메기. 하하하.

112047 @ 예.

112047 # 경헨 글엔 문딱 들어가.

112047 @ 예.

112047 # 그 축 읽을 때 다 들어가는 거.

112047 @ 초제, 이우제, 삼우제 허는 게?

112047 # 어, 그거 문딱 들어강 담제영 문딱 들어강 그거 문딱 념검수다 헤불민 메기.

112048 @ 음. 그럼 상례 헐 때 뉘 허지 말렌 허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수과?

112048 # 상례 헐 때?

112048 @ 예.

112048 # 상례할 때 결혼식 허는 디 강 상 출리는 디 안 보고.
112048 @ 음.
112048 # 상 이녁 쓸 때, 저 쓰는 거 문직지 안 한다.
112048 @ 음.
112048 # 이녁집이 허는 거 아멩도 못 해 이녁이나 허주, 늬의 거, 저 스춘네
집이나 동세네 집이나 가도 거 안 허여.
112048 @ 음.
112048 # 안 해사. 이 죄, 죄 짓은 몸. 상젠.
112048 @ 아, 상제는?
112048 # 으, 죄 짓은 몸.

제례

112049 @ 예. 이제는 제사 물어 보쿠다예.
112049 # 음.
112049 @ 그 제사 준비허젠 허민 어떻 험니까?
112049 # 제사 준비허젠 허민 지금은 장날에 가근에게 고기도 사고. 바당퀘기,
쉐퀘기, 도시기 퀘기 경험 사다근에 적갈.
112049 @ 으.
112049 # 옛날은 지금 쫄랑헌디, 첨 옛날은 요만씩.
112049 @ 예.
112049 # 요만씩 썰영 율로 영 꿰낫어.
112049 @ 아, 요만큼베끼 안 해?
112049 # 어게 요만씩베끼 안 해 낫저.
112049 @ 지금 이만큼 썰잖아.
112049 # 지금은 이만씩 스몫 크게. 아이고 지금 오대, 혼 오대 일은 쉐 거여게.
112049 @ 경 쫄랑허게.
112049 # 이제 하나 허는 거민 다섯 고지 헌다 옛날에. 다섯 고지 충분.
112049 @ 무사 퀘기 엇어부난?
112049 # 어려완, 어려완. 그추룩 해근에 반 농민 그거 하나씩 떠다 놔. 반 농민
하나씩 툷아 놔.
112049 @ 으.
112049 # 그거 혼 점 이것가 큰 거라 이것가 큰 거. 경헤 낫저게.
112049 @ 게민 식게 허젠 허민 그거 영 채소 거튼 거 문 사다근에게 딱 제 허
는 거 ㄱ트난. 게난 잘 출리젠 허민 이녁 산 사름 먹젠 그거주. 저 지지, 지, 튀기는
거. 그것도 하간 거 뎃 가지 뎃 가지 사오고 세 가진 툷 헤여.
112049 @ 음.
112049 # 세 가지 허나 다섯 가지 허나 이 짝 맞젠 안 허여.

112049 @ 으.

112049 # 짝 맞겐 안 허영 이 짝 골르게. 고지도 짝 골르게 꿩고.

112053 @ 계난 그림이 적 허는 적 종류가 무슨 꿩기 해낫수과? 도새기 꿩기?

112053 # 도새기 꿩기, 쉼꿩기 그거주게 원.

112053 @ 두 개베끼 안 허는다.

112053 # 적같은 그거 두 개 헌다게.

112053 @ 그거 두 개 허민 짝 맞잖아.

112053 # 아니 그건 짝 맞으나 안 맞으나. 경허고.

112053 @ 예.

112053 # 저 바당꿩기.

112053 @ 바당꿩기. 바당꿩기는 영 생선으로 올리는 거?

112053 # 으, 생선 올리는 거.

112053 @ 바당꿩기는 뭐 솔라니?

112053 # 아무 거라도, 어 솔라니. 대겐 솔라니 이딘 허는다 제주시 쪽은 이 저 조기 헌텐 해라 대개.

112053 @ 어, 조기.

112053 # 으, 저 미깡 타레덜 제주시 사름도 와나고 서이 사름도 왕 허민 이땅 그 미깡 탈 때 식게 해지주게. 경허민 아이고 이 비싼 솔라니 험젠. 우린 조기 허는다. 쟁 골아라. 조기, 계난 조기 험니까 허난 조기 헌텐.

112053 @ 으.

112053 # 이딘, 이딘 솔라니. 잘 사나 못 사나 솔라니.

112053 @ 계니까 그 솔라니 적 말고 적꼬지에 쫓는 적으로 뭐 상애적은 안 험니까?

112053 # 건 해지는 사름 허고 안 허는 사름 안 허고.

112053 @ 예.

112053 # 어, 거 이땅 즈녀덜은 구쟁이, 구쟁기.

112053 @ 예, 구쟁기.

112053 # 으, 구쟁기엔 허주 이젠 무시거엔 허주만은 구쟁기, 구쟁기 그거 적갈 해낫주게.

112053 @ 예, 구쟁기 적갈.

112053 # 구쟁기 적갈 해근에 영 올리고. 나도 흥 번 누게 구쟁기 앓다 주난 해낫저게.

112053 @ 예, 예.

112053 # 잇이민 잇인 대로게, 옛이민 옛인 대로.

112051 @ 지금은 콩지름도, 콩지름이엔 험니까, 콩늬물이엔 험니까?

112051 # 옛날은 콩지름.

112051 @ 지금은 콩지름도 마트 강 아니면 장에 강 사당 허는다.

112051 # 으, 사단 허주 집이서 허는 사름 흐나 엇다.
112051 @ 옛날에는?
112051 # 옛날에는 집이서 문 낵. 집이서 문 낵.
112051 @ 예, 어떻 길렀수과?
112051 # 그거 시리에 영 밑에 험벅 낵, 콩 낵 기자 흐루 흐 번은 물 줘사.
112051 @ 음.
112051 # 아무 디 갓당이라도 흐루 흐 번은 주곡 어떤 땐, 이 여름엔이 아침 죽
고 저녁 주곡 해사 시원허게.
112051 @ 계민 시리 밑에 험벅을 낵잖아예?
112051 # 어, 낵아.
112051 @ 우에 콩을 영.
112051 # 놉근에.
112051 @ 겐 우에 다시 험벅을 텃읍니까?
112051 # 으, 갱행 물 주고 험벅 더겨. 갱해근에 콩지름 요만씩 낵 가민 그걸
흐 번 잇당 씻영 놀 때도 잇곡 그대로 복삭 나민 우터레 과짜힐 때 잇고.
112051 @ 아.
112051 # 너미 지저분 허민 흐솔 영 허고.
112051 @ 콩지름 갱 행 논 거 한 며칠이민 먹을 수 있게 큼니까?
112051 # 거 겨울엔 오래고.
112051 @ 예.
112051 # 겨울엔 일주일 넘어사 힐 거라.
112051 @ 예.
112051 # 이 여름엔 일주일이민 막 크주게. 일주일.
112051 @ 예. 일주일이민?
112051 # 어, 일주일이민 커.
112052 @ 꿰기적 허젠 허민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어디 갱 사오는 거라?
112052 # 판매에 갱게.
112052 @ 어디, 판매라는 게 잇어?
112052 # 판매 잇어. 옛날엔 믱을마다 판매 잇엇저.
112052 @ 아, 동네에 잇어낵수과?
112052 # 잇어낵저, 판매 꿰기, 판매 꿰기 허멍.
112052 @ 아, 판매렌 헤?
112052 # 어, 판매렌 현다.
112052 @ 지금 식육점 얘기허는 거잖아예?
112052 # 어, 식육점. 지금은 식육점이엔 허지만은 판매 꿰기, 판매 꿰기 현다.
그디 갱 사당.
112052 @ 아, 동네마다 그런 게 잇어낵구나?

112052 # 어, 잇어낫저게.

112052 @ 아.

112052 # 막을에 흐나 중심에, 그 장서허는 사름덜게.

112053 @ 예. 게민 적은, 적은 누게가 꽃읍니까? 여자가 꽃아도 웨는 거?

112053 # 우리 친정에 잇일 땐이.

112053 @ 으.

112053 # 친정에 실 때 제서헐 때 우리 셋아버지, 족은아버지 문 오란 낫이 왕 앓앙 막 우시게 허멍 옛날 하간 거 말 큰고 허멍 해근에 떡곡 점심도 떡곡 문 헌디 이젠 이딘 오란 보난 그거 안 허멍 우리대로 웨여.

112053 @ 여자덜이. 옛날에는 어쨌든 친정에선 남자들이?

112053 # 남자 웨여근에 그거 문 해라. 겐디 저 쉼게기, 쉼게긴 존존허게 문 쉼어근에 웨는디 쉼게긴이 영 행 쉼영 허민 동글랑허주게. 지금은 난도질 허여 납작허게 난도질 허는데 그땐 난도질 헐 줄을 몰르난 그걸 요거 정반이민 요래 그 고질 멧 개 낵 이 정반으로 딱 누뜨러. 하하하.

112053 @ 하하하.

112053 # 경헤라게.

112053 @ 아, 납작헤지게?

112053 # 어, 납작헤지게. 딱 누뜨러라.

112053 @ 게민 적 헐 때는 그거 도새기 레기 숲앙 헛수과 거 놀차 헛수과?

112053 # 숲앙.

112053 @ 숲앙.

112053 # 옛날은 숲앙만 헛저. 저 놀차헐 죽 몰랐저.

112053 @ 만드는 방법 곶아줍서, 어떻 만듭니까?

112053 # 적 그거 숲아 내여근에 그추룩 존존허게 쉼어근에 웨여근에 경허영 그거 다시 곶도 안 허여. 그대로 헛저게.

112053 @ 아, 그대로?

112053 # 어게, 그대로 헛저 옛날은.

112053 @ 화릿불에 안 구원?

112053 # 안 구원. 게난 소고기만 구워근에.

112053 @ 소고긴 숲앙 안 허고?

112053 # 소고긴 숲앙 안 허고 놀차.

112053 @ 아, 소고게는 놀차?

112053 # 으, 놀차헤근에 그거 구워근에 이레 놔근에 딱 누뜨리민 납작허여.

112053 @ 아.

112053 # 노리레기도 경허고.

112053 @ 아, 노리 레기도 올려낫수과?

112053 # 어게, 적 헤낫저. 우리 두린 땐.

112053 @ 아.

112053 # 노리 퀘기.

112053 @ 노리 퀘기도 소고기 거추룩?

112053 # 으, 소고기추룩, 저 쉼퀘기추룩.

112053 @ 예, 보통 적은 도새기 퀘기랑.

112053 # 쉼퀘기 그거 두 가지라. 켄디.

112053 @ 잇일 땐 노리 퀘기도?

112053 # 어, 어 노리 퀘기도 허고 시민게 썩도 잡아와지민 허곡게. 썩국 끌리고.

112053 @ 썩은 적은 아니잖아?

112053 # 어. 적은 아니 썩국 끌리고.

112053 @ 썩국 끌리고.

112053 # 어, 경허고 적갈 혈 땐 또 그 적으로이 상에 올리는 거 짝 걸리게 올려. 세, 세 고지 아니민 다섯 고지.

112053 @ 아, 예. 썩을 때도 짝 걸르고.

112053 # 으, 짝 걸르고.

112054 @ 퀘기는 얘기 헛고 떡은, 떡은 지난 번에 곱아신디 혼 번만 더 곱아줍서. 떡예.

112054 # 으.

112054 @ 제사상에 올리는 떡 뭐 잇수과?

112054 # 제사상에 올리는 거 보통으로 허는 건.

112054 @ 으.

112054 # 시리떡 솔벤 절벤 우짱 인절미 그거 다섯 가지.

112054 @ 다섯 가지.

112054 # 옛날은 그디 중퀘 약퀘 잇엇어. 일곱 가지 옛날은.

112054 @ 게민 옛날에 혈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는 시리떡.

112054 # 시리떡 놓고 그 다음 중퀘.

112054 @ 중퀘.

112054 # 그 다음 약퀘.

112054 @ 약퀘.

112054 # 그 다음 인절미.

112054 @ 인절미.

112054 # 그 다음 저 거시기 절벤.

112054 @ 절벤.

112054 # 그 다음 솔벤, 우짱.

112054 @ 아, 맨 위에가 우짱예.

112054 # 으, 게난 맨 우엔 벨.

112054 @ 아, 벨예.

112054 # 그 다음 들.

112054 @ 들.

112054 # 해.

112054 @ 해. 켄 맨 밑에 게 땅이렌 헛던 거?

112054 # 어, 땅 경현 거.

112055 @ 떡은 그 정도였고, 일곱 개 정도였고 과일은 몇 개 정도 올렸수과?

112055 # 과일은 착 걸르게. 그것도 짝 걸르게.

112055 @ 으.

112055 # 올릴 때도 짝 걸르게, 사 올 때도 우리 다섯 가지 사 온다. 떡 할 때 멩질 할 때나.

112055 @ 다섯 가지 뭐 있어?

112055 # 귤.

112055 @ 귤.

112055 # 저 배.

112055 @ 배.

112055 # 또시 저 사과.

112055 @ 사과.

112055 # 또시 바나나.

112055 @ 바나나.

112055 # 포도 거튼 거. 감 ㄱ튼 거 그런 거 잇인 때 잇인 대로 사단 올려난덜 갈라 먹으라 허멍 기자. 으, 김해근에.

112055 @ 지금은 경 허는 거고 옛날에 포도나 바나나.

112055 # 옛옛주게.

112055 @ 계난 옛날에는 뭐 올렸어?

112055 # 저 미깡 허고 사과 허고 배 주로 그거여게, 그거 배, 배 허고 사과도 삼 어렵고게.

112055 @ 어렵고.

112055 # 미깡도 우리집인 난 보난에 미깡 낭도 이 우жат 막 널른디 막 낭 문 잇 어라게.

112055 @ 으.

112055 # 우리 켄 보난 기자 미깡도 잇고 문 헤라. 단물 땡유지 소유지 그디 미깡낭도 종륄 문 잇어라게.

112055 @ 친정집이?

112055 # 으, 친정집이게. 난 보난.

112055 @ 아멩헤도 친정집이 부жат집이랏구나.

112055 # 어게 부제로 살앗저게. 저 산물낭도 서너 개 시민 동네에서 산물 오랑

빌어당 벵경 먹어난 겁죽은 아저와.

112055 @ 하하.

112055 # 겁죽은 약, 약으로 받아가주게.

112055 @ 아.

112055 # 돈 주는 거 건.

112055 @ 아, 정말마씨?

112055 # 경허민 동네에서 차롱 아정 온다게. 우리 두린 때 보민. 차롱 아정 왕 산물낭에 올랑 산물 탕 혼 차롱 아정 강 듯날 아척은 또 아저 온다. 그 겁죽.

112055 @ 그 겁죽은 뭐 차 끌렁 마시는 거?

112055 # 그건 푼는 거.

112055 @ 푼는 거.

112055 # 으. 거 한약에 들어가는 거.

112055 @ 아, 한약재?

112055 # 산, 산물이엔 헤근에 이제 미깡 겁죽도 흥꿈 들어가주만은. 산물이엔 현 건 요만씩 현 거.

112055 @ 요만큼.

112055 # 어. 경헤라게.

112055 @ 유자는 막 큰 거예?

112055 # 어, 유잔 동글랑 현 거 우리 유자차 그거.

112055 @ 예. 소유자는 좀 작은 거?

112055 # 어. 그런 거 멍 거튼 거, 멍은 요새 그 무시거 거 뭐엔 현다만은 그거 답아.

112055 @ 멍이 뭐?

112055 # 멍이엔 행이 동박낭 쪽허게 잇어근에 헤낫주 나, 우리 두린 때.

112055 @ 예.

112055 # 겨민 그디 줄거리로 짝 올러근에 멍이 드렁드렁 허멍 잘도 맛 존 거 잇어난. 그런 거 셔라게.

112055 @ 으.

112055 # 지금은 엇주만은. 지금은 낭도 문 그차근에, 오래 부난 문딱 싹 그차 던 기자 윈.

112055 @ 으.

112055 # 경헛주.

112056 @ 채소는 어떤 게 잇어낫수과?

112056 # 채소 옛날에 무신 콩늬물 허고 늬삐 허곡 호박.

112056 @ 게니까 제사 때 하는 거 제사 때?

112056 # 게게, 그거.

112056 @ 콩지름 허고 콩늬물 허고?

112056 # 어.
 112056 @ 늑삐?
 112056 # 늑삐 허고 호박.
 112056 @ 호박.
 112056 # 고사리.
 112056 @ 고사리.
 112056 # 고사린 기본.
 112056 @ 기본.
 112056 # 으.
 112056 @ 기민 늑삐는 어떻 헛던 거? 썰엉?
 112056 # 썰어근에 영영 즐랑 즐랑.
 112056 @ 채?
 112056 # 채로 썰어근에게 경헛. 그거 제서 때 잘 헤라.
 112056 @ 호박은?
 112056 # 호박도 영 헛 기자 먹기 좋게시리 썰어근에 기자 학 숲앙 데우쳐 놔근
 에.
 112056 @ 아.
 112056 # 거 맛 좋아. 경헤영.
 112056 @ 호박도 헤낫구나.
 112056 # 어게 호박 주로 헛저게. 호박은 집이 심는 거난.
 112056 @ 으.
 112056 # 호박 가끝 때 지금은 채칼로 영 헛 가끄민 쉽는다 숲구락 헛 가끄렌
 허민 풀 아광 못 가까.
 112056 @ 하하.
 112056 # 숲구락으로 영영 끊어낫저게. 칼로도 안 허여근에.
 112056 @ 예.
 112056 # 것도 몰라. 숲구락 헤근에 박박 끊어.
 112056 @ 예, 예.
 112056 # 겐 겁죽 벳겨낫어.
 112057 @ 진설이 뭐과? 진설?
 112057 # 진설이 뭐라 진설 몰르켜.
 112058 @ 메, 메. 메는 누게가 헛니까?
 112058 # 멘 그자 아무라도 자기, 저 대개 주인이 헛다.
 112058 @ 주인이?
 112058 # 으. 거 이녁 책임진 사름이 대겐 헤여.
 112058 @ 계난 메나 갱 뜨는 거는 어쨌든 시어머니가 잇이민 시어머니가 허는
 거라, 시어명이예?

112058 # 시어멍 늪지 안 허영 헤질 땐 허는 거.
112058 @ 예, 예.
112058 # 늪어근에 거시기 허민 메누리 허는 거.
112058 @ 음.
112058 # 거림도 메누리가 대개 거리는 거. 시어멍이 거리는 거.
112058 @ 음.
112058 # 어, 올리 거.
112059 @ 제 지낼 때 헌관 잇잖아예, 헌관? 초헌관? 제 지낼 때 제 지내는 사람?
112059 # 아, 아.
112059 @ 그건 누계가 허는 거라?
112059 # 그건이 문젠 주인, 그 집이 주인이 문제 허고.
112059 @ 예.
112059 # 제 혈 땐 삼헌, 삼헌 사지이?
112059 @ 예, 삼헌.
112059 # 삼헌 사면 큰아덜 죽은, 셋아덜 죽은아덜 경헨 그대로. 그디 딸 시민 사위. 경헨 들어 놓주게.
112059 @ 계민 제사 지낼 때 절 허는 사람이 삼헌 영 사잖아예?
112059 # 어.
112059 @ 안에서 술 따르고 허는 사름은?
112059 # 술잔 허는 건 또 그 아래.
112059 @ 그 아래?
112059 # 어, 어. 쥬 우론 뽕양 삼헌 사 텡 또 그 밑엔 돌리. 마주 사근에.
112059 @ 아.
112059 # 집사, 집사.
112059 @ 만약에 시아버지가 잇고 큰아들이 잇이민 이 사름이 삼헌을 사고.
112059 # 어.
112059 @ 그 다음 죽은 아들이.
112059 # 으, 손지 사고.
112060 @ 예, 파제는 옛날에 몇 시에 헤낫수과?
112060 # 옛날에 딱 흔 시.
112060 @ 흔 시.
112060 # 으, 열두 시로 흔 시. 흔 시 돼사 우린. 두린 때 흔 시 돼사 딱 헤라.
112060 @ 예, 지금은?
112060 # 지금은 아홉 시. 경허민 아이덜도 기자 자당 일어나지 안 행 그대로.
112061 @ 예. 문전제는 어떻 지내는 거라?
112061 # 어?

112061 @ 문전제?

112061 # 문전젠 그디 떡 해근에 각각지 사라 하나에 정반 하나에 올려근에 떡 우터레 적갈도 놓고 과일도 놓고 헤여라.

112061 @ 으.

112061 # 경혜여근에 흐나에.

112061 @ 으.

112061 # 농곡 밥 국 허곡 저 거시기 그디 또 저 채소 ㄴ튼 거. 그거 낱 그자 문전 허주게.

112061 @ 계민 문전제는 제사 전에 하는 거라 제사?

112061 # 제사 전에. 제사 전에 혼 십 분 이십 분 전에.

112061 @ 예.

112061 # 문전 제 허여근에 흐뽀 잇다근에 제서 지내는 거.

112062 @ 문전제 헐 때 영 막 거둬디다.

112062 # 그것도 헐다게.

112062 @ 그건 어떻허여.

112062 # 그건 베꼈디레 던져 부는 거. 그건 무시거나 허면 저디 옛날에 얻어 먹지 못 헐 사름덜 그거 먹으렌.

112062 @ 아.

112062 # 못 사는 사름덜 얻어 먹지 못 허영 텅기는 거기 ㄴ튼 거 옛날엔 하낫 주게. 그런 사름덜 먹으렌 그거 헤영 데끼는 거.

112062 @ 술잔에 조금씩 툫아 낱 지봉에?

112062 # 어, 데끼는 거. 저 제 헐 땀 걸명이엔 해근에 말썰 툫아 논 건 거지 ㄴ튼 거 텅기당 먹으렌 헐 거. 또 우이 지봉 우트레 던지는 거 거 돌아간 사름 군 중덜 헐디 문 바당 가근에 군중덜이영 먹읍센 허는 거.

112062 @ 제반은 어떻게 헐니까, 제반?

112062 # 제반은 제 허는 거 그거주게.

112062 @ 제 허면 반 테웁니게?

112062 # 어 반. 지금은 다 기자 출려 낱 먹어도 옛날은 반, 정반에 떡 각가지 놓고 그레 고기 툫아 놓고 바당 고기 흐뽀 툫아 놓고.

112062 @ 으.

112062 # 저 고지 쉼레기 고지 도새기 고기 고지에 거 흐나씩. 점 흐나. 흐나씩 툫아근에 정반에 낱 쥐 낫저. 경혜영 쥐 낫저.

112062 @ 으.

112062 # 지금은 그거 아니랑 그자 고지로 낱덜.

112062 @ 계난. 한 사람에 하나씩 행 영 나뉜 준 거?

112062 # 어, 어. 혼 정반. 밥 혼 그릇에 흐나씩 다. 메물이영.

112062 @ 메물이 뭐?

112062 # 거 콩늬물 고사리 삶은 거 메물.
112062 @ 아, 그걸 메물이렌 험니까?
112062 # 어, 그건 메물.
112063 @ 지제는 언제 험니까, 몇 대까지?
112063 # 지제 오대.
112063 @ 지제 오대.
112063 # 어. 경헌디 지금은 지제 이대도 헤 뵈저. 하르방 할망도 헤 뵈저.
112063 @ 아, 계난 지제 오대 헌다는 건 사대까지는 제사를 지낸다는 거?
112063 # 어, 지내는 거. 오대 뵈면 지제 허는 거.
112064 @ 예. 묘제도 험니까?
112064 # 묘제도 요새 문 묘제 혈 때주. 우린, 우린 작년 재작년에 묘제 지제 헤 변. 안 거기로.
112064 @ 아. 묘제 안 허기로.
112064 # 거 묘제 허젠 허민 잘도 어렵나.
112064 @ 아.
112064 # 막 하영덜 오곡이 그거 들에 문 시경 강이.
112064 @ 으.
112064 # 경 헤낫저게 느량. 어, 이젠 지베 헤 변.
112065 @ 제사혈 때 뭐 금기 사항 같은 건 엇수과?
112065 # 금지허는 거 거 부정헌 사름은 어디 영장 밧디 가온 사름은 삼헌에도 안 놓고.
112065 @ 예.
112065 # 제, 그 절 헤나사 이녁만 강 절 헤사.
112065 @ 아, 맨 마지막에?
112065 # 으, 마지막에 헤사, 이녁만 헤사.
112065 @ 예.
112065 # 그거 문저 절 헤낭. 부정헌 사름은, 그 여자도 영장 밧디 강 땡기민 거 쓸 거 안 문직아사.
112065 @ 아, 제사 때 쓸 거.
112065 # 으, 이젠 그거 저거 엇다게. 이젠 엇다.
112065 @ 맞수다, 맞수다.
112065 # 어, 이제 엇다게.
112065 @ 예, 제사 여기까지.

제2절 어휘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대멩이
201002	대가리	대멩이,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통
201005	제비초리	제비풀리
201006	머리털	머리카락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쯔르다
201010	빗[梳]	얼레기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땅다	닿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상감
201017	쌍가마	쌍상감
201018	가르마	앞가르다
201019	이마	앞데멩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뼈기	이마뺨
201022	솜털	솜털
201023	얼굴	얼굴
201024	낫[面]	낫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멘기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멘경, 거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양지
201032	뺨따귀	양지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따사니
201036	불거리	불거리
201037	광대뼈	*
201038	보조개	오막조개
201039	주름살	주름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까만동자, 검은동자
201043	눈꺼풀	눈각
201044	거적눈	눈각 둥긴 거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꼽데기,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눈꼬리
201054	사팔눈	*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대
201059	세다[強]	쌌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콧베렝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씻다, 닦다
201064	콧수염	콧수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참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달허다
201072	입술	입바위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일놀리다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험담, 입방아
201077	허풍	훈드럭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골아난 말 골악골악
201079	침[唾]	꿈
201080	삼키다[呑]	숨지다
201081	가래침	개춤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닌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데
201085	혀	세
201086	훤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드렁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막어름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웁물다	즈그물다
201099	턱	턱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
201105	귓볼	귓자락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귀밥
201109	귀이개	*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아래
201112	구레나룻	녹대쉬염
201113	목	야개기
201114	굽다[顛]	훅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맥살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데멍이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데멍이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짱
201123	어깨죽지	어깨독지
201124	겨드랑이	젓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슬
201131	팔꿈치	폴꿈치
201132	팔목(=손목)	폴목/홀목
201133	뼈	팡
201134	뼈다귀	팡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단손, 밥 먹는 손
201138	왼손잡이	웬쟁이
201139	손등	손등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擧]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흥글다
201144	거스러미	손ㄴ슴
201145	할퀴다	굽어불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손가락틈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튀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뎃숭이
201157	명자리	맹자리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고고리
201160	젓명얼	젓명얼
201161	짜다[攢]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베또롱
201167	옆구리	옆갈리
201168	갈비뼈	갈비대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고부라지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ㄴ릅다
201174	굽다[抓]	굽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밀다
201177	찬물	언물, 썰렁헌물
201178	등마루	등ㄴ루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ㄱ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덩이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볼기착
201186	엉덩이뼈	엉덩이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망
201191	더럽다[汚]	추접허다
201192	가볍다[輕]	게뿐허다
201193	무겁다[重]	베다
201194	살	삿쟁이
201195	가래뿔	*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넙적다리
201200	무릎	무릅, 독무릅
201201	무릎뼈	독무릅뼈
201202	뼈다[脛]	뼈끗허다
201203	정강이	정쟁이
201204	정강뼈	정쟁이뼈
201205	종아리	종에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오금
201208	복사뼈	귀마리꽁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긷다[凶]	긷다
201212	혓발질	*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겹질리다, 비틀라허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바닥
201217	발부리	*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근지럽다
201220	간지럼	근지럼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지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데발가락	상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갱이
201225	고린내	고랑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복베기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베설
201233	목숨	목숨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애기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쁘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애기뵈
202007	탓줄	베또롱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묻이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 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눔
202015	계집아이	제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깝다	아깝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엿게
202018	엿저지	애기엿게
201019	폼다	쿰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찌게기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내무래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렵다
202028	꾸지람	꾸질떡
202029	배냇저고리	봣뎃옷
202030	기저귀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
202032	포대기	걸랭이
202033	보자기	포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뚜데기

202038	띠	걸렁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 터진 바지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존메존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던데던데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제
202045	부라부라	가당가당
202046	걸음마	걸음마
202047	걸리다	걸루다
202048	곤두박질	곤작
202049	곤두서다	곤작사다
202050	가동가동	던데던데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독지에 놓다
202054	흥내	승내
202055	흥내질하다	승내 내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쌈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참다
202061	심술	심우쟁이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날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뺏장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뒤썰락

202073	풍계문이	굽질락
202074	줄넘기	베떨락
202075	줄다리기	줄잡아뎡길락
202076	수수께끼	예숙제낄락
202077	공기	공기치기
202078	공깃돌	공기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말탈락
202083-2	죽은말타기	말탈락
202084	대말[竹馬]	대말
202085	달음박질	달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심백ㅎ다
202087	제기차기	쪽기차기
202088	헤엄치다	헤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녁동박
202090	웃가락	웃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도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개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업엉 가다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너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강이
202097	싸우다[鬪]	드투다
202098	패싸움	모다치기
202099	모다기령	모다치기
202100	편백하다	펜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드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정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연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리쌀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꿇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들구멍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별이줄	*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별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별이줄	*
202112-3	꽂줄	연의 꽂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별이줄	*
202112-4	활별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별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별이줄	*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두모얼레
202115	네모얼레	네모얼레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폴뭍이다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밑신개	그네판
202121	굴렁쇠	굴렁쇠
202122	구르다[轉]	등그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즈전개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키다리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선하우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끼허다
202132	놀라다[驚]	노레다
202133	졸음	졸아움
202134	졸다[眠]	졸리다, 즈랍다
202135	졸리다	졸리다, 즈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잠귀, 줌귀
202141	잠꾸러기	줌푸대, 줌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틀국지
202146	재채기	헛갱이
202147	개치네췌	어어치
202148	방귀	똥꾸는 거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북쟁이

202151	구린내	똥내, 구린내
202152	노린내	노랑내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고빨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죽은마누라
202157	학질	*
202158	천연두	큰마누라
202159	곰보	곰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군버줌, 백버줌
202167	진버짐	군버줌, 백버줌
202168	주근깨	프리똥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눗싸움, 여드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허다
202174	굳은살	캘이
202175	부스럼	부스럼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십종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물발
202180	다대	허물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긋인물
202183	낫다[癩]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알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떼기
202190	소경	봉스
202191	칭맹과니	튼봉스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
202194	사팔뜨기	사팡이
202195	다래끼	들럿
202195-1		들럿
202195-2		개썸
202196	언청이	청보
202197	외언청이	웨청보
202198	쌍언청이	쌍청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물레기, 말물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더듬는 사람
202203	혀짤배기	세다데기
202204	입비뿔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아살풍
202206	가납사니	자작귀
202207	곰배팔이	폴즐레기
202208	곰사등이	등곰새
202209	절뚝발이	절레기, 절룩발이
202210	얇은뱅이	아진베기
202211	문둥이	용다리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스나이,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두가시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세번째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네번째아덜
203012-9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이넉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에이새끼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에이딸
203025	어이아들	에이새끼
203026	맡이	맡이
203027	막내	막둥이, 막내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동생
203031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단아덜/웨아덜
203034	외딸	단딸/웨딸
203035	쌍둥이	글에기
203036	다르다[異]	뜨나다, 뜯나다
203037	같다[如]	ㄱ트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 가다
203038-2		양제 돌아오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지보다
203044	중신	중매
203045	권당	퀸당
203045-1		친족
203045-2		친족
203046	얕은잔치	안팎잔치
203046-1	암창개	*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느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방
203050	시아머니	시아멍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아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방
203054	외할머니	웨할망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동네삼촌
203056	아주버니	시아주방
203057	아주머니	삼촌
203058	환갑	한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롱팔십
203063	병추기	뱅주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허다
203065	손자	손자
203066	손녀	딸손지
203067	친손자	친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웨펜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아주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작은아방
203079	작은어머니	작은어멍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
203087	넋할머니	*
203088	넋손자	*
203089	홀아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이부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이부어멍
203095	웁딸	대신 온 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ㄴ슴
204002	끓다	그치다, 끈다
204003	명주	맹지
204004	명주실	맹지실
204005	명주옷	맹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명	닷새미녕
204010	엿새무명	웃새미녕
204011	생목	짓찾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계
204017	풀숨	맹지숨
204018	숨틀	소계 태우는 기계
204019	숨틀집	소계 태우는 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도레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즘박
204024	번데기	고주리
204025	고치	맹지고추, 누에고추
204026	뽕잎	뽕섭, 뽕낭섭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개뽕낭
204029	오디	뽕낭탈
204030	다듬잇돌	돌안반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마게
204032	펴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버꿈
204035	물거품	버꿈
204036	빨랫돌	광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개
204038	빨랫바구니	세답구덕
204039	헝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세답줄
204041	마르다[乾]	들르다
204042	바지랑대	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레다
204046	헝겊	헝벅
204047	찢다[裂]	브리다, 찢다
204048	나부랭이	몰르레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자락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곰
204056	옷깃	깃
204057	옷섶	옷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막작단추, 막진 단추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청에 (도복은 장가 갈 때)
204066	두루마기	두루막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
204070	누더기	*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뺏쟁이
204073	잠방이	쟁벙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띠
204075	주머니	주멍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두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앞코지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버선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발싸개
204083	훅옷	훅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얇다	얇브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격죽, 이불안
204091	훅이불	훅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슴, 모드레기

204097	홀청	이불격죽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안, 요격죽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격죽
204107	베갯머리	*
204108	베갯모	베갯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것
204114	밀짚모자	밀낭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망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
204118	판총박이	비빔깍신초신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즐다
204121	나막신	나막신, 낭신
204122	가족신	가족신
204123	부르트다	부르트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
204127	부채	선제, 푸채
204128	미선	선제, 푸채
204129	부치다[扇]	푸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질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ㄴ세

204132	마르다[裁]	므르다
204133	골무	손골메
204134	실	썰
204135	실꾸리	가름실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절레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줍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접다
204145	곱치다	곱이치다
204146	휘갑치다	갑추다
204147	재봉틀	미싱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미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갈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방석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귀
204153-5	씨아손	손잡이	즌룩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멘네 멕이는 디

204154 물레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얼레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끓다
205007	빼다[渴水]	빨다
205008	조밥	조밥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팥밥	팥밥, 팥여께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선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넝이
205016	눌은밥	눈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툇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과래밥	프레밥
205020	밥보	밥체시
205021	밥술	밥술구락
205022	밥알	밥알
205023	끼니	끼니
205024	늦다[晩]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밥 얻어 먹다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그끄럭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느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팥죽	팥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테우다	테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배추짐치

205051	무김치	늪뻘김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김치(옛날엔 없었음)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물김치
205055	갓김치	갓늪물김치
205056	파김치	파김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김치, 늪뻘깍두기김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뜸다
205060	간장	물장
205061	장물	물장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덩어리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허다
205069	콩나물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지름
205071	무나물	늪뻘늪물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
205074	고사리밥	*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
205077	고비	베염고사리, 허궁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푸성지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스게웨
205087	말물	초물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절귀
205090	원두막	오두막
205091	깻잎	유썸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가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잎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더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멸젓
205105	아감젓	아가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곤친떡
205110	부스러기	부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디
205117	가루	가루
205118	국수	멘
205119	칼국수	칼저베기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저베기
205122	물다[淡]	얕롭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계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다리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엿기름	엿기름
205129	감주	감지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붓다,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자올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罈)	춘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싸다
205146	갑시다	목백히다
205147	지짐이	지진떡
205148	누름적	지진떡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제
205151	부엌문	정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망구리
205154	불뚱	*
205155	부엌비	정젓비, 정젓비차락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늑잡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숫검뎡이
205160	검뎡	*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경,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두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붓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옹졸메기숫
205168	무쇠솔	무쇄숫
205169	끓다[沸]	끌리다
205170	솔뚜껍	숫두껍이
205171	솔귀	숫전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
205175	솔검정	숫검뎡이
205176	부삽	불삽, 불갈레
205177	군손	*
205178	군일	군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깡이	부지뎡이
205181	짚방석	정짚방석, 새방석, 짚방석
205182	성냥	하(화)각
205183	성냥개비	하(화)각살
205184	성냥갑	하(화)각갑
205185	부시	부시
205186	부싷돌	부싷돌
205187	부싷깃	불찍
205188	부시쌈지	부싷주멧기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등잔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롱	*
205193	남포등	남포등, 혜화
205194	접싷불	심지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멩이
205199	뜬숯	숯
205200	숯검정	숯검멩이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그끄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태우다
205204	불티	불데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들화로	들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붕당	부섭
205210	화룻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데엇저.
205213	부손	불순구락
205214	부젓가락	불접음
205215	다리쇠	세발쇄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춤
205217-2		춤항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배통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부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배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담배주멩이
205227	재떨이	젯따리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그릇, 놋사발
205233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껑	뚜껍이
205235	접시	젍시
205236	굽달이	굽돋은젍시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숟구락
205242	젓가락	젍음
205243	수저통	숟구락통
205244	설거지	그릇 설르다
205245	구정물	구짓물
205246	도시락	동수락차룽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물박
205250	박	박
205251	뒤옹박	두룽박
205252	조롱박	죽박세기
205253	쪽박	죽작박
205254	양푼	냥푼이
205255	조리	(없었음)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없었음)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룻마개
205260	시룻번	시룻마개
205261	경그레	바드렝이
205262	함지박	도고리
205263	바구니	차룽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족은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매운대
205271	무른대	죽신대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젓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글다
205281	숫돌	신들
205282	날카롭다	느실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밥오곰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돔베
205291	밀개	마개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아래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술주덩이
205292-4	(받이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빋다	빋다
205294	풍로	풍로
205295	삼발이	세발췌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웨채
206012	안채	안커레
206013	바깥채	밖거레
206014	안팍채	안팍거레
206015	문간채	몽커레
206016	결채	*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뒤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왕
206023	잃다[失]	일흐다
206024	마구간	말집
206025	변소	돛통
206026	부춘돌	지들팡
206026-1	부출	지들팡
206027	기척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마주사다
206029	냄새	내음새
206030	맡다[臭]	맞추다
206031	울담	우영담, 우жат담

206032	울안	우영
206033	터알	우영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산태
206040	이영	느람쥐
206041	주저리	주지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풍채
206044	디딤돌	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삼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삼방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닥지
206052	얹다	얹르다
206053	구들직장	*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윗바람	우풍
206061	안방	족은방
206062	방문	구들문

206063	비[霏]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비차락즈룩
206065	쓸다	썰다
206066	버리다[棄]	버리다
206067	바람벽	빈지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시렁
206071	선반	시렁
206072	헛대	간지
206073	도배	구들블르다
206074	귀얄	술
206075	풀비	*
206076	찾방	찾방, 곱방
206077	광	양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양광문
206080	간수하다	가냥흐다
206081	안뒤결	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개왕대
206087	처마	처마
206088	처맞기슭	*
206089	낙숫물	지순물
206090	맺돌	잇돌
206091	흙	흙
206092	진흙	진흙, 촌흙
206093	찰흙	진흙, 촌흙
206094	흙덩이	흙덩어리
206095	새벽	*
206096	흙질	흙질
206097	이기다[沓]	흙 블르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지둥
806101	틔기둥	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모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서슬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입쟁이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문지방
206117	문흙	지방흙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지겅문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퇴창문	*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단이	밑문
206127	여단이	*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도절귀
206133	암틀쩌귀	암틀처귀
206134	수틀쩌귀	숫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
206137	궤	궤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쌍툽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
206148	툽밥	툽ㄴ루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맹이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흙백이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통줄
206165	먹칼	*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쇄손
206168	나무흙손	흑손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뒤치게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명에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돌갱이밭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쟁기, 잠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잠데즈록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벧마드랭이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쇧조각	버섭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쇧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육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절이
207011	벧밥	병에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밭명에
207014	밭두둑	고랑
207015	밭고랑	관이
207016	밭이랑	고랑
207017	거웃	고지
207018	극쟁이	쟁기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켩이

207022 곡팽이 못켩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쉼스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텡이

207034 콩게 섬비

207035 남태 *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 혼불

207040 두벌매기 두불

207041 세벌매기 세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그만 행 걸라

207043 호미 굴갱이

207044 홍아기 *

207045 늪 늪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삯	품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눔음
207051	삼태기	글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늘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호미띠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호미늘

207053	베다[세]	비다
207054	새 껍기	미우쟁이
207055	새끼	노꽃, 슝귀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막작
207058	노	노꽃
207059	끈	친
207060	참마(바[索])	베
207061	짐마	질베
207062	질빵	질빵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메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등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등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멍에

멍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
207067-2	봇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멍에줄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뺨어 나간 가지	지겟가달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게등받침
207068-5	지게꼬리 (밀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친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겟작테기

207069 바지게

*

207070	밭채	바작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이석
207072-1		이석
207073	짚	짖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보리클
207076	벼훑이	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보리클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보리클

207078	타작하다	태작허다, 두드리다
207079	땀	땨
207080	진땀	진땨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심
207083	겨를	즈를
207084	도리깨	도께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께즈룩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께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녀	*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쪽정이	쪽쟁이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출왓, 출밭
207089	꼴꾼	출놉
207090	꼴단	출단
207091	신다[載]	실르다
207092	마차	말구르마
207093	복두	쉐앗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가맹이
207096	거적	*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그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말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뒤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삿되	뒤약세기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귀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날렛곰베
207119	불당그래	굴묵곰베
207120	떡등구미	맹텅이, 맥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꿇다[引]	꿇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그느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계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ㄱ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찰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찰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깜부기	북부리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
207151	비비다	부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재비
207153	좁쌀	좁찰
207154	조짚	조짚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뗏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디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찰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멧돌	ㄱ레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웃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ㄴ레혹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베설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레즈룩

207165	맷방석	ㄴ렛방석
207166	매함지	ㄴ렛도고리
207167	풀맷돌	풀ㄴ레
207168	풀매	풀ㄴ레
207169	썰기	*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네콜방에
207171-3		다섯콜방에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방엿간
207174	븀비다	물리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ㄴ레
207178	방앗돌	물ㄴ레돌
207179	연자맷간	물방에
207180	절구	방에
207181	절긋공이	방엿귀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뉘	니
207184	고르다[擇]	줍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지름콩
207190	콩각지	콩꼬질

207191	콩짚	콩짖
207192	꼬투리	콩꼬질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비물
207195	뜨겁다	데불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찌꺼리
207198	완두	푸린콩
207199	강낭콩	강낭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팥	팻
207202	팥알	팻방울
207203	팥밥	팻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유깨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깨주시
207209	고소하다	구시다, 코수롱허다
207210	메밀	믈물
207211	메밀밭	믈물왓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믈물체
207214	메밀국수	믈물멘
207215	메밀수제비	믈물저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믈물칼국수
207217	메밀떡	믈물떡
207218	메밀묵	믈물묵
207219	무르다[軟]	익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빼떼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뽑데사니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빨리

207225-3	마늘중	마늘대
207226	마늘장아찌	마늘지
207227	파	꽤마늘
207227-1	과밀동	꽤마늘뽕리
207228	무	늪뼤
207229	무청	늪뼤쌈
207230	시래기	*
207231	장다리무	씨늪뼤
207232	열무	츄메기, 츄늪물
207233	배추	배루
207234	고갱이(배추)	늪물속
207235	나물	늪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겉대	유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대죽, 강낭대죽
207240-1	옥수수	대죽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쌀대죽
207243	비목수수	사탕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녀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옷	잠녀옷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족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

207256	그물	*
207257	돛단배	*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눅구멍	*
207273	눅쭯	*
207274	닢	*
207275	닢가지	*
207276	닢줄	*
207277	닢돌	*
207278	닢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테우

기타

207285	이웃	저곳디
207286	더불다[與]	*
207287	마을	막을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올르다
207292	아랫마을	알드르
207293	마을가다	막슬가다
207294	밤마을	밤막슬
207295	가게	점빵
207296	구멍가게	점빵
207297	다녀오다	땡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즌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메칩
207313	풀무	*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망치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망건골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줄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평잡이	평사농꾼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덧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가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덱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오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뉘	흔말
208005-2	(2/두)	두뉘	두말
208005-3	(3/서, 석)	석뉘	서말
208005-4	(4/너, 녀)	녀뉘	너말
208005-5	(5/닷)	닷뉘	닷말
208005-6	(6/엿)	웃뉘	웃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뉘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세뉘	두서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네개	두서너뉘	두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네개	서너뉘	서너말
208006-5	(4-5/네댓)	너다섯개	너다섯뉘	너다섯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개	대으섯뉘	대으섯말
208006-7	(6-7/예닐곱)	예닐곱개	예닐곱뉘	예닐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답개	일고으답뉘	일고으답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답아홉개	으답아홉뉘	으답아홉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계뽕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마흔
208014-2	명주	마흔
208014-3	광목	마흔
208014-4	베	스무자/스물두자

208015 마지기(평) 흔말지기
 208015-1 150평
 208016 뭇 단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둥 단
 208019-1 단
 208020 조짐 가지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스무단
208021-2	조(이삭 있음)	으섯단
208021-3	콩	으섯단
208021-4	밭벼	서른단
208021-5	꿀	서른단
208021-6	띠	열댓단
208021-7	각단	스무단
208021-8	어욱	열댓단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단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마리
208028-1	두[頭]	마리
208028-2		필
208029	축	*
208030	웨미	웨미
208031	쌍(돼지)	(도새기 두 마리)
208032	채(집)	채,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무덤
208034	컬레(신)	컬레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뭇	단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자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데옷
209005	배넛머리	벧소곱에 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마, 데끼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계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계보내다
209014	함	홍세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방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槩]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밖사둔
209022	겹사돈	겹사둔
209023	상갓집	영장칩
209024	수의	수의, 호상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귀낭
209032	짚동	북침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가다
209035	뒗자리	뒗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생이
209040	보장(寶帳)	포장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상디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밭
209045	광중	광중
209046	횡대	개판
209047	호층	*
209048	무덤	뽕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막치다
209054	벌초	소분, 벌초
209054-1	소분	*
209055	묘위전	제절밭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칩
209059	편틀	펜틀
209060	퇴물	튀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국
209063	제육	적
209064	제편	제펜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우적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테우다
209070	몹	찍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명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명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장구
209080	팽과리	쟁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멧질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레뜸
209085	추석	팔월멧질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안택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밭
210008	명두	멧디칼, 멧디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케우다, 솔다
210012	살(煞)	쌀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헛개
210017	어둑서니	그신새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고사
210021	고수레	케쿠리다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뜨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넷가	내창
211007	물가	*
211008	따르다[從]	뜨르다
211009	건너다[渡]	넘다
211010	낭떠러지	엇챙이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백케, 머들
211016	갈림길	고른질
211017	묻다[問]	듣다
211018	비탈길	오롯질
211019	벼랑길	그정질
211020	내리막길	느릿질
211021	오르막길	오롯질
211022	길가	질ㄱ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굽부리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하늬브름
211029	산꼬대	느룻
211030	상고대	산강
211031	구렁	굴렁지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웨갈라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곶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마프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봉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갯곳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dot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큰절
211056	곰뉘	*
211057	물결	*
211058	잔물결	*
211059	무수기	물끼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9일, 24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0일
211059-3	서무날	서물	11일
211059-4	너무날	너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그믐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211059-10	열무날	열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11059-13	(열서무날)		
211059-14	아끈췌기	아끈조기	
211059-15	췌기	조금	
211059-16	한조금	한조금	23일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쌀물, 싸는 물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넬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넬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정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백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ᄃ심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퍼렁허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승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구믐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항고지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ᄃ을
211104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ᄃ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웃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덜
211119	선달	정월들
211120	올해	올리
211121	내년	맹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
211127	따스하다	뜻다
211128	땡별	벧
211129	가을별	ㄱ슬벧
211130	양지받이	벧 발른 곳
211131	아지랑이	*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푼체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
211137-2	바람아래	*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브름코지
211140	바람살	브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이(주제)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봄장마, 고사리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팡이
211151	소나기	췌네기(주제)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뭇	ㄱ뭇
211159	흉년	슁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이남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아이몰른 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헤영허다
211173	춡다	얼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저껏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웨짜
211191	오른쪽	느단짜
211192	밑	알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껏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구억
211198	가[邊]	꺄
211199	가장자리	꺄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구짜허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맛갈췌
212005	쇠소	식췌
212006	불까다	불블르다
212007	불알	불독세기
212008	황소	황췌, 노랑췌
212009	얼룩소	얼룩췌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이끌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벵작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송	*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
212105-3	사룻(3)	사룻	*
212015-4	나룻(4)	나룻	*
212015-5	다듭(5)	*	*
212015-6	여듭(6)	*	*
212015-7	이룻(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듭/구룻(9)	*	*
212015-10	열룻/답불(10)	*	*

212016	작두	작도
212017	쇠죽	췌죽
212018	구유	도고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물,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물
212026	청충마/총이말	청충매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물
212028	얼룩말	어럭물
212029	유마	유메물
212030	백마	백매
212031	고라말	고라물
212032	곰배말	곰새물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므쉬
212036	글갱이	글갱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고삐
212039	당기다	둥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랭이
212048	비루먹다	도랭이 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코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쥬이	식고녕이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득

212058	산떡	산떡
212059	닭의어리	독시렁
212060	닭장	독장
212061	달걀	독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자
212061-2	흰자위[卵]	흰자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비에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툫,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툫,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일성
212072	생등이	서툫바치
212073	새끼 돼지	새끼 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돛통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퀘기, 돛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
212081-4	둘암개	지지랭이
212082	거위	*
212083	오리	오리

별레와 곤충

212084	별레	베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똥베랭이
212090	쉬파리	쉬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장칼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훤이	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거수에
212103	거머리	거덜
212104	바구미	남송애기
212105	콩바구미	*
212107	땅강아지	궁벙이
212108	그리마	하늘강생이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뒗물	진쉬
212113	진뒗물내리다	진쉬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고메기들벙이
212117	민달팽이	옷 벗은 들벙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노린게염지
212122	메뚜기	물축
212123	방아깨비	산디물출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극저베기
212126	귀뚜라미	공쟁이
212127	풍뎡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뎡이	하늘썩
212129	무당벌레	무당베렝이
212130	쇠똥구리	*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접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밥주리, 물자리
212140	고추잠자리	*
212141	장수잠자리	*
212141-1		*
212142	매미	재
212143	매미허물	재 붓 벗은 거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
212145	쓰르라미	고시약재
212145-1		족재
212146	소금쟁이	물하레비
212147	망개	물썩
212148	반딧불이	불한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춤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진독
212155-2		부그리
212156	송충이	송충베렝이

212157	개구리	가개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꺼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베염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장칼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챙이
212172	감다	굽다
212173	쥐구멍	챙이구멍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드람쥐
212176	오소리	지달
212176-1		지달고망
212177	지달(이)	지달
212178	지달피	지달가죽
212179	멧돼지	산툫
212180	원숭이	웬생이
212181	원숭이띠	즌나비헤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헤치
212184	꼬리	꿀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	------	----

212186	꽁지	꿀랭이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소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딱따구리
212199	뼈꾸기	버꾸이
212200	종달새	*
212201	올빼미	옷밤
212202	평	평
212203	까투리(암평)	암평
212204	장끼	장평
212205	평알	평독새기
212206	꺼병이	평비에기
212207	두루미	*
212208	기러기	*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수두리, 고메기, 참고메기, 문두닥지, 메옹이)
212211	개울타리고등	*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
212218	대수리	*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웬보말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돌군벗, 물군벗
212226	진주담치	가마귀부리
212227	소라	구제기, 구쟁기
212227-1		*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암천복
212228-2		수천복
212229	전복갑	전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제기, 오분작
212231	게	갱이(흠갱이, 황갱이, 돌갱이, 물갱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접제기
212240	갯강구	밥게
212241	말미잘	물문주리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뚝성게	슴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물췌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궤기, 바닷궤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히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닐
212260	배따다	패쓰다
212261	생선(生鮮)	바닷궤기
212262	미끼	니궤
212263	갯지렁이	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시대	낙시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시줄	정술
212268	붕돌	먹들
212269	참대	왕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아우생이, 아기미, 귀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갈치새끼
212279	베도라치	브들락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
212283	고생놀래기	*
212284	용치놀래기	*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
212287	옥돔	솔라니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벙에돔	*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
212306	쭈기미	솔치
212307	독가시치	딱치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즌다니
212313	괭이상어	*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비계
212317	두툽상어	비근다리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ㄱ대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 품	미우쟁이
213005	화승(火繩)	*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질치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돌모작쿨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밋붉은제완지
213016	조개풀	북덕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산뒤제완지
213018	마디풀	ㄱ작쿨
213019	솔새	(가마귀부리)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가마귀웨줄
213023	원추리	ㄱ시락쿨
213024	메꽃	메마
213025	갯메꽃	개범벌레기
213026	비름	비눔쿨
213027	쇠비름	췌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참비눔
213030	땅빈대	ㄱ롬쿨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평밭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키풀	토키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
213040	냉이	난시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릇
213043	여뀌	여뀌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왕가시, 소왕이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굴리역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쿨
213050	병풀	함박쿨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께
213054	땅파리	밀푸께
213055	피막이풀	비네쿨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썸
213059	왕모시풀	진썸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빅끼기쿨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늘타리	두루에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하늘레기
213069	부처손	푸체순이
213070	방가지뚱	돛수웨
213071	닭의장풀	고냥쿨

213072	배풍등	*
213073	취	취
213074	취덩굴	취줄
213075	취뿌리	취빨리
213076	덩대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실막작쿨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기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
213084	인동	인동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떡정당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
213090	수영(승아)	*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근지리쿨
213093	땀싸리	비치락낭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갓늬물
213096	달래	평마농, 드룻마농
213097	씀마귀	*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쉐스랑꽃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웨
213110	과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물웃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우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고름풀,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숭아꽃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하레비고장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도체비꽃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낭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들국화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말마농꽃
213139	선인장	*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	----	----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낭가지
213144	가지	낭가지
213145	잎	낭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입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땨감	진을커
213154	마디다	*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동박낭
213160	붉다[赤]	별경허다
213161	털구슬나무	떡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디낭
213163	녹나무	녹디
213164	아카시아	웨가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옴나무	옴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벗낭
213170	왕벗나무	왕벗낭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낭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베염무기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레기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배먼낭
213191	거망옷나무	개칠낭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옷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서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가마귀똥낭
213206	무환자나무	모과낭
213207	귀똥나무	개팡낭
213208	섬귀똥나무	가스레기낭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개가시낭, 춤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개가시낭
213212	중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얼루레비망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돌오동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복당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름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검복낭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츠낭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213236	참나무	츄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제베낭, 스텔낭
213241	겨우살이	*
213242	모람	가마기빈독낭
213243	누리장나무	개똥낭, 개낭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
213246	붉나무	북칠낭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213250	껍질	క్క죽, 격죽

213251	깎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계엄지탈
213255	명석딸기	베엄탈
213256	복분자딸기	보리탈
213257	줄딸기	줄탈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낭탈
213260	검은딸기	검은탈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뤼
213264	개머루	고냉이멀뤼
213265	까마귀머루	가마귀멀뤼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러미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개드레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가마귀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앵도낭
213276	앵두	앵도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실
213279	밀감	미깡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탱구지
213282	탱자나무	탱구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쫂락지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풀감

213288	청미래덩굴	벨레기낭
213289	맹감	벨레기
213290	찔레나무	도꼬리낭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사과낭
213293	사과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꺾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저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속겍데기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웨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
213310	미역쇠	메역썰
213311	김	김
213312	과래	프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서슬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